

살인자와 피에 물든 밤

Nushi

표지 디자인 누가 해줬으면 참 좋겠군요…….

취미로 시작했지만 최선을 다해 썼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은 10권 채우는 건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ejgspdb@naver.com](mailto:ejgspdb@naver.com)

## 목차

Prologue .....	p.001
Chapter1. 소문 .....	p.007
Chapter2. 전학생 .....	p.072
Chapter3. 오해 .....	p.114
Chapter4. 추적 .....	p.178
Chapter5. 수학여행 .....	p.295
Chapter6. 살인자 .....	p.360
Epilogue .....	p.384

### 주의!

본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허구이며  
실제 지명, 인명,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 Prologue

## *Can capitalism survive?*

- Joseph Alois Schumpeter

21세기 초반. 세계경제의 질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근본적이고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1989년 12월 미소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사회주의는 붕괴하였으며, 자본주의적 국제경제질서 또한 급속하게 달라지고 있었다. 세계적인 규모의 상호의존은 WTO를 출범시키게 만들었으며 통상마찰은 심화되고 혼란스러울 정도로 복잡해졌다.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은 갈수록 약화되어갔으며, 유로화는 체제 존속을 위협 당했으나 끝내 해결책을 찾았다. 그러나 빈곤과 부유함의 간극은 갈수록 벌어지며 상대적 박탈감은 젊은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통계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한 것처럼 보였으며, 국제질서는 다극화 체제로 빠른 속도로 전환되었다.

세상은 빠르게 좁아져 가고 국가는 경계를 허물어 나갔다.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자본이 전 세계에 쏟아져 나왔다. 분쟁, 갈등,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쟁이 종식되고 영구한 평화가 도래하리라 생각했던만, 유토피아는 생각만큼 그다지 쉽사리 도래하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이 질문에 손쉽게 대답할 수 없다. 갈등은 가치관이나 시각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정말 아주 가끔은 말썽 자체를 추구하기 때문인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갈등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서로 부딪치게 되는 시점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의외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각자의 입장은 어찌서 어긋나게 되는지, 사람들이

왜 갈등을 빚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인류가 걸어 온 길을 다시 여행해야만 한다.

갈등은 근본적으로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어떤 종류의 불균형이든 그것은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권력, 소득, 자원, 재산, 명예 등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은 사유재산 제도가 형성된 이후로 평등하게 분배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희소성의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희소성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노동을 해왔고 이로써 경제가 창출되었다.

경제는 생산, 분배, 교환, 그리고 소비라는 네 가지 분야가 상호 연관을 미치며 구성되지만,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이다. 장기적으로 인류 경제구조의 역사는 생산 형태에 따라 나머지 구조가 결정되어 왔다. 희소성의 문제는 생산 문제의 변화에 따라 그 모양새가 끊임없이 변했지만, 결코 사라진 적이 없다.

희소성에 맞서서 인류는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원시사회의 공동노동에서 출발하여 사유재산제도가 생기고, 계급이 파생하였다. 권력자와 피지배자라는 이분법적인 구조는 상당한 기간 존속되었으며, 권력자의 극점에는 왕, 피지배자의 극점에는 노예가 존재하였다. 노예제 생산제도는 오랜 시간 버텼으나 이내 무너지고 봉건제사회로 전환되었다. 생산력이 발달하면서 잉여생산물이 쌓이게 되고, 이 축적과정은 봉건영주와 지주를 위협하였다. 마침내 봉건제마저 와해되고 세상은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초기의 산업화는 매우 열악하여 착취라는 말이 매우 정확하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불균형적인 구조가 오래 지속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유럽 열강의 산업혁명 때문에 생산과잉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으며, 자본주의는 불확실한 경기변동을 거치다 마침내 세계대공황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세계대전이라는 불구덩이로 가게 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된다. 세계는 다시 냉전을 거치고, 마침내 그 냉전마저 무너졌다. 그리고 21세기가 시작되었다.

21세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시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수많은 사람들을 좌절시키게 만든 시대이기도 했다. 희망과 절망의 경기변동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이제 자본주의도 자기조정 메커니즘이라는 그 힘이 쇠퇴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필름을 되감기했다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어째서 유토피아는 도래할 수 없었는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이다. 희소한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은 여태껏 성공한 적이 없다. 현재의 인류를 지탱해온 자본주의 사회는 자기조정 메커니즘을 도구로 하여 지금껏 버텼다. 이는 역대 인류가 창조한 제도 중 가장 빛나는 부분이며 가장 뒤늦게 출현한 부분이다. 이는 굉장히 효율적이나, 공평함은 보장해 주지 못한다. 그러나 경제를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메커니즘과 관련된 경향이 인류를 지배하기 직전에 이르렀다는 데 동의하였다. 우리가 형평성과 같은 가치를 너무 헤쳐서 입을 수 없게 되어버린 누더기를 버리듯 내팽겨 칠 수 있다면 우리는 마냥 맹목적으로 시장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는 그럴 수 없었다. 궁극적인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경향과 그 경향의 진보속도를 늦추어보려는 노력이 서로 엇갈린 방향으로 맞물렸다.

보아라! 위기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왔다. 그럼에도 발전 속에 흔히 일어나는 부작용과 고통이 별 거 아니라고 할 사람들 덕분에 인류는 최후의 위기 앞에 서게 되었다. 우리는 눈가리개를 하고 귀마개를 하며 무지개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 절벽 앞으로 서서히 다가가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의 경향성이 어차피 일어날 일이면 그 경향성에 저항하는 것조차 무의미하지 않는가? 그 경향성의 끝에 다다를 종착역은 궁극적으로 좋은 곳이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한낱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이란 유혹에 굴복당한 사상적 꼭두각시이거나 가시밭길을 걸을 의향이 있는 순교자이거나 둘 중 하나다. 천국에 가봤는가? 언젠가는 그곳에 갈 거라면 죽음에 대해 저항하는 것조차 무의미하지 않는가? 인생의 끝에 다다를 종착역은 궁극적으로 좋은 곳이지 않느냐? 당신은 이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판단이 안 되는가? 대물림되는 사회계급, 고전학파가 내세웠던 공리는 파탄으로 가는 길목에 나침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근대 경제 학설의 전통 전체가 경제를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여러 시장들의 맞물린 체제라는 관념에 기초를 두었다. 그러나 19세기 이전에 경제는 항상 사회에 묻어 들어가 있었다(embedded).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정치, 종교, 사회관계에 종속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단순히 시장 거래가 신뢰, 상호 이해, 계약의 법적 강제 등에 의존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다.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이것이 바로 경제 체제를 시장이 통제할 경우 전체 사회 조직을 압도해 버릴 결과가 나오는 이야기다. 이는 사회가 시장에 딸린 부수물로서 운영되게 된다는 **엄청난 사태**를 뜻한다. 이것이 「엄청난

사태」라는데 감이 오지 않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다. 우리는 엄청난 사태가 연속적이고 멈춤 없이 일반적인 것 마냥 굴러가는 사회에서 쪽 생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종복이 주인을 붙잡아 버린 격이다. 그러나 자기조정적인 성격을 갖는 시장 경제를 달성한다는 목표가 유토피아와 같은 기획, 즉 현실에 아예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자기조정적 시장경제를 창출하려면 인간 존재와 자연 환경이 순수한 상품으로 전환되는 것이 필수인데, 이렇게 되면 사회, 자연 환경이 확실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다. 자기조정 시장 이론가, 이른바 자유주의자 내지 신자유주의자는 사회를 낭떠러지로 몰아붙인다. 이들은 하나의 거대한 조류를 만들었다. 이들이 만든 조류는 이들이 추구하는 허구적 청사진이 현실과 오버랩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대중을 설득하고 고위 관료를 가르쳤다. 그러나 허구적 청사진은 현실과 오버랩이 될 수 없다.

이들이 제시한 경향성은 더 나은 기술, 더 나은 혜택, 더 나은 물질 문명으로 이끌어주었지만, 이들은 피와 눈물과 고통과 비명을 동반하였다. 그리고 후대는 쉽게 그 아픔을 잊었다. 우리보다 앞선 시대의 사람들은 악마의 멧돌에 갈렸었다. 콩을 넣고 멧돌에 갈면 그 결과물은 음식물로 탄생하게 되지만, 멧돌에 갈린 콩의 운명은 결국 버려지는 것으로 끝날 뿐이다. 우리는 이제 그 아픔을 모른다. 더 교묘하고 더 은밀하게 멧돌은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는 피와 눈물과 고통과 비명이 아니라 영혼이 갈릴 지경에 이른 건지도 모른다.

여기서 사회의 이중적 운동이 시작된다. 사회에서 경제를 뽑아내려는 시도란 으레 필연적으로 저항을 만나게 되므로 시장 사회는 반대방향의 두 운동으로 구성된다.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자기애는 사회적 운동과 대립하게 되었다. 인간은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 뭐든지 좋은 건 극대화를 원했다. 이익, 이윤, 잉여가치, 심지어 행복까지. 앞서 말했듯 자기조정적 시장경제를 창출하려면 인간 존재와 자연 환경이 순수한 상품으로 전환되는 것이 필수인데, 이렇게 되면 사회, 자연 환경이 확실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장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분명해지면 사람들은 저항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마치 절벽 끝에 떼를 지어 달려가 떨어져 죽는 쥐떼(lemming)처럼 움직이길 거부한다. 그러나 유토피아 기획가들은 잔혹하게 이들을 몰아붙인다. 시장 논리와 그에 따르는 온갖 위험들을 민중에게 강제하려면 국가 통치의 기술과 억압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면서 더 공평한 세상이 되길 바라였다. 사회의 자기 보호 메커니즘은

마치 기름칠을 덜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기 시작하였고, 사회는 망가지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사회의 자기 보호 운동이 격렬해질수록 시장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자유방임 운동, 경제를 뽑아내는 것에 저항하면서 출현하는 사회 보호의 반대 운동의 강도 또한 거세졌다. 이들 간의 충돌은 때론 인위적으로, 때론 너무나 자연스럽게, 때론 평화적인 선거를 통해서, 때론 피를 흘린 혁명을 통해서 불규칙적으로 지구상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사회의 자기 보호 메커니즘은 시장의 자기 조정 메커니즘에 비해 힘이 없어 으레 실패했다. 이들 메커니즘은 끝내 융화되지 못한 채 소용돌이를 만들어 버렸다. 이 소용돌이는 몇 차례의 전쟁을 끝으로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최근 그 소용돌이는 다시 커지기 시작하였다. 이 소용돌이는 마침내 마지막 전쟁을 예고하기 직전에 이르렀다. 이는 당연한 귀결이다. 양쪽 운동 모두가 위기에 대한 각자의 해결책을 강제할 수 있는 상태라면 긴장만 증가하여 마침내 과시즘이 권력을 잡게 되고 자유방임과 민주주의 양쪽 모두와 단절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류가 만약 이 소용돌이 속에서 해결책을 못 찾고 파탄의 시대로 도래할 첫 걸음을 뗐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가? 만약 이 난국이, 사실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별 거 아닌 무용담 정도로 남게 될 짧은 서사시라면, 우리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시대는 파탄으로 가는가, 중립을 유지하는가, 발전하고 있는가? 어떤 경향이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 그 경향으로의 진보속도를 늦추어보려는 노력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가? 그러한 조치들은 실제로 그러한 변화 속도를 늦추는 데 성공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바로 이렇게 **속도**를 늦추는 것이야말로 그러한 조치들의 진정한 목표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인가? 어떠한 방향으로의 발전을 완전히 멈추지 못했는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아무 결과도 낳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떨 때는 변화 속도가 변화의 방향 그 자체만큼 중요할 때가 있는 법이다. 그리고 변화의 방향은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지만, 그러한 변화에 어느 정도 속도를 허용할 것인가는 우리의 뜻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누군가는 이미 시대가 악마의 멧돌 속으로 이끌려 간다고 생각하고는 집단을 이루어 이 경향성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있었다. 사실 싸운 게 아닌지도 모른다. 이 경향성에 반대하는 또 하나의 경향성을 만들어 낸 것인지도 모른다. 이들은 모든 게 탄로 나게 되는 순간, 사

회에서 배척당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잃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돌아보기보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으려 애썼다. 이와는 반대로 이 경향성을 더욱더 부채질하는 집단 또한 있었다. 아직은 어느 누가 옳은지 아무도 모른다. 서로 자기가 옳다는 논증은 있지만 대규모로 실험된 적도 없으며, 어느 정부도 전적으로 한 경향성만의 편을 들지도 않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들은 끝내 모두 실패하거나 었나갔다. 그 실패와 왜곡과 상처가 새로운 파탄의 시대로, 새로운 난세의 소용돌이로 이끌어 버렸다. 그리고 이 소용돌이의 가장자리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이 이야기는 결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읽고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인내하길 감히 요구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산 시대의 유산이며 역사의 한 장(章)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것이 앞으로 던질 질문을 푸는 실마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다음 다섯 질문도 항상 염두에 두길 바란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이끄는 경향성은 어디를 향하는가?  
우리는 너무 빨리 뛰는 건 아닌가?  
우리는 너무 천천히 진실을 깨닫는 건 아닌가?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닐까?

『Political Economy of Old Capitalism vs. Modern Socialism』  
PART ONE. The End of STATUS QUO  
Chapter I. Introduction  
written by 「Last Capitalist」  
translated by 「Nushi」  
published by 「Multipolarlization Promotion Committee」  
January 17, 2049



## Chapter1. 소문

*Human beings has scapulae; but, even so, they haven't wings.*

- 金晙峻

Intro. 2037년.

아침부터 학생들이 바글바글한 1층 복도를 햇살이 비추고 있다.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과거의 사람들은 건축물의 곳곳에 조명을 설치하여 눈을 심란하게 하였지만, 요즘은 그런 조명을 최소화하거나 될 수 있는 한 숨겨버렸다. 이 학교 또한 마찬가지로 조명이 있어도 낮에는 절대 쓰지 않고 해가 지기 전까진 자연광을 이용해서 복도를 밝게 유지한다.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아 발 디딜 틈조차 없지만, 희한하게도 소음은 그리 크지 않다.

베이지색의 벽과 검은 교복 무리들이 상반되게 공간을 꾸미고 있다. 이 학교 교복은 검은 색 일색의 홀자락과 바지에 흰 색 셔츠를 입기 때문에 마치 정장처럼 보인다. 왼팔에는 학교 마크가 오버로크 되어 있다. 넥타이는 각자 원하는 색상을 하고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남자는 청색 넥타이, 여자는 붉은색 넥타이를 하고 다닌다. 하지만 교칙에는 교복 넥타이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넥타이를 하고 다녀도 된다. 삭발 금지 외에는 별다른 두발 제한 규정이 없다.

이제는 다른 학교와 큰 차이가 없어진 전형적인 중학교가 되어버렸지만, 이곳은 역사적으로 큰 **사회적 실험**을 시작했던 곳이다. 실험을 진행하려는 자들은 심각한 상충 관계에 직면하였다. 어떤 선택으로 이득을 얻을 수도 있지만,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에서 손해가 관측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이곳에서 펼쳐진 사회적 실험이 어떠한

편익을, 기회비용을, 매몰비용을 낳았는지에 관한 논란은 이제 식은 감자가 되었다.

결론이 난 논쟁을 지금 와서 다시 음미하는 사람은 적었다. 한 번 실험에 성공하자 다른 곳에서 다 따라 해버리거나 또 다른 새로운 혁신을 도모하다보니 이곳은 시초로서의 특별한 의미만 지닐 뿐, 현재로서는 너무나도 평범하기 짝이 없는 곳이 되어 버렸다. 그래도 과거의 역사를 되새겨보자는 의미에서인지 사회적 실험을 주도한 사회실험가들의 모임이 대형 사진으로 벽 한구석을 장식하고 있었다.

이곳 신설중학교는 의미 있는 장소지만,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학교들만큼 역사가 깊은 곳은 아니다. 또한 도시 팽창에 의해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났다. 그러나 신설중학교를 비롯해서 신설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들이 너무도 많아 한국 현대사에 이를 빼놓을 수가 없다. 물론 이것들이 급격히 추진될 수 있는 배경이기도 한 2020년부터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庚子賀亂, 辛丑協商, 壬寅政變, 癸卯改憲, 甲辰事變, 乙巳慘變—자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신설시와 그 시에 속한 여러 기관 및 제도는 그 사건의 부산물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신설중학교는 이런 소용돌이에서 생긴 부유물처럼 취급당하더라도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큰 곳이다. 소용돌이가 곧 사라져도 수면을 떠다니는 부유물은 여전히 많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부유물은 이제 다시 소용돌이의 가장자리에서 새로운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려 했다.

“야아~! 드디어 같은 반이 되었네.”

각자 자신이 배치된 반을 확인하는 사람들 틈 속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다. 표준어처럼 들리지만 경상도 억양이 짙게 남아있는 말투였다. 모두들 각자 자신이 배치된 반을 확인하는 데만 몰두해서 그 아이가 부른 아이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큰 소리로 부른 아이에게 시선을 옮기는 아이는 없었다.

“여어, 이게 누구야. 오랜만이네, 남철수.”

목소리가 들린 쪽으로 시선을 돌려 대답한 아이는 자신을 불러준 아이에게 고개를 돌려 손을 흔들었다. 남철수라 불린 아이는 안경을 고쳐 쓰고 씩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키는 이제 160cm를 넘길까 말까한 자그마한 체구다. 은테 안경이 햇살을 반사해서 빛나고 있었다. 안경을 낄 때와 벗을 때의 인상이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는 시력이 나쁘지 않은데도 안경을 낀다. 지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끼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잠재적으로 평가한 그에

대한 평판은 지적인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좋은 자리 차지하려면 얼른 올라가야지. 몇 반 되었냐?”

“1반. 너는?”

“오, 잘 됐네! 나도 1반이야.”

대화를 나누던 그 둘은 이제 중학교 3학년으로, 둘은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재작년에는 같은 반이었다가, 작년에는 같은 반이 아니게 되었고, 올해는 다시 같은 반이 되었다.

“올해가 마지막이라니 안 믿겨지네, 준구야.” “그러게나 말이다.”

철수가 건넌 말에 준구는 가볍게 동의하며, 둘은 1층 복도의 인파를 헤쳐 가며 계단으로 갔다. 1학년 입학식은 아직 하지 않아서 학교에는 2학년과 3학년뿐이었다. 몇몇 얼굴을 아는 후배들이 둘에게 인사를 건네자 둘은 가볍게 손을 흔들며 인사에 응해주었다.

계단이 짧아 둘은 금방 3층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 건물은 배관이 최소한의 공간을 차지하게끔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배관은 대개 천장이 아니라 바닥에 깔려 있어 층간이 크지 않다. 건물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자재가 건축폐기물을 다시 제조한 건축 자재인 테다 햇빛만으로도 시설을 유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누가 이러한 사실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자연스러운 건물이란 점이다.

“왜 우리 학교는 3학년이 3층을 쓰는 걸까?”

3학년 1반은 계단과도 가깝고 화장실과도 가까우나 3층이다. 그리 크지 않은 층간인데도 3학년 교실이 3층에 있다는 사실 자체에 철수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 작은 키 때문에 복도와 계단을 그리 많이 이동하고 싶지 않은 게 불만의 이유 중 하나지만 굳이 키 큰 친구 앞에서 키 얘기를 꺼낼 수는 없었다.

“1학년 때는 하지도 않은 불평을 3학년이 되어서 하다니,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나.”

준구는 불만을 토로하는 철수를 비판하였다. 철수는 그런 비판에도 그다지 기분 나쁜 표정을 짓지 않았다. 늘 있는 일이며 이런 게 바로 준구다운 언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둘은 교실 한가운데 비어있는 딱 중간 자리에 앉았다. 철수가 음흉한 시선을 몰래 여학생들 다리에 맞추었다. 여학생들은 완벽하게 검정은 아니지만 다소 회색빛이 섞인 상의에 새하얀 셔츠를 입고, 붉은 넥타이를 매고, 회색 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치마는 허벅지를 반쯤 가리는 수준으로, 아무리 스타킹을 신으면 된대지만 대체 겨울엔 추

워서 어떻게 건딜까 의문이 들 정도였다. 철수는 감상을 마친 다음, 옆자리 아이에게 귓속말을 건넸다.

“학교 행정에 한 가지 고마운 건, 여자 애들 치마를 짧은 걸로 선택한 거야.”

이런 게 바로 철수다운 언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얼굴과 인격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증거나 다름없었다.

“재들한테 들린다면 틀림없이 성희롱으로 고소당할 걸.”

곧바로 가방을 책상의 가방걸이에 걸어놓고는 책을 한 권 펼치자 누군가가 말을 걸었다.

“준구는 어디서 본인이 고소당하지 않을 거란 자신감이 샘솟는 거지? 너희 둘은 올해도 변태적인 작당을 도모하고 있다고 다들 생각할 텐데.”

말하는 내용과는 다르게 철수의 변태성을 혐오하지 않는 느낌으로 말을 건 늘씬한 미인은 현경화였다. 교내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미인인데다 키도 큰 그녀는 검도를 평소에 단련해둬서 운동 능력 또한 뛰어났다. 놀랄 만한 사실은 남철수와 현경화가 한 때는 사귀는 사이였다는 것이고, 더 놀랄 만한 사실은 헤어지자고 말을 꺼낸 사람이 남철수라는 것이다.

“올해 너희 둘과 같은 반이 되다니 올해 내가 쓸 수 있는 운은 없는 모양이네.”

현경화에 뒤이어 말한 여자아이는 현경화와 마찬가지로 검도부에 소속되었으며 교내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미인인 차유라였다.

“교내에 유명한 고양이와 여우가 우리 반이 된 거 보니 올해는 운이 좋네.”

철수는 능글맞은 미소를 띠며 유라의 발언에 맞받아쳤다. 유라는 얼굴이 벌개져서 뭐라 항변하려 했지만, 경화가 유라의 어깨를 짚자 유라는 심호흡을 하고는 그래도 철수를 있는 힘껏 노려보았다.

“애도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니 참아.”

“네 탓이 제일 크거든.”

준구의 변호에 유라가 준구 또한 힘껏 노려보았다. 유라의 주변에 포악한 아우라가 느껴질 정도였다.

경화는 자신을 고양이라 부르는 게 썩 싫지 않았지만, 유라는 자신을 여우라 부르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경화와 유라는 준구 뒤에 앉았다.

“처음에 넌 재가 변태가 될 때 말려줄 거라 생각했는데, 덩달아 힘  
력해줬지. 네가 더 악랄해. 여자의 적!”

유라가 준구를 손으로 가리키며 비난을 퍼부었지만, 준구는 대꾸조  
차 안 하고 어깨만 으쓱했다. 철수의 변화는 불가항력이라는 준구 나  
름대로의 말없는 항변이었다.

“철수, 너 올해도 작년과 같은 공약을 들고 나올 건가?”

경화의 질문에 철수는 조용히 입 꼬리를 씩 올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내가 널 적극 지지해서 반장으로 당선시켜줄게.”

유라의 응원에도 경화는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다.

“이미 남녀 성비로 따져 봐도 우리가 졌어.”

경화는 선거도 치르기 전에 패배를 시인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의 잡담이 늘 그러하듯이 주제는 빠르게 전환되  
어갔다.

“그나저나 요즘 이 마을이고 저 마을이고 살인 사건이 자꾸 발생하  
는 거 같지 않아?”

철수가 화제를 바꾸자 경화는 처음 듣는 소식이라는 듯이 말했다.

“살인 사건? 정확히 언제 어디서 일어났지?”

“소문으로는 일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거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뉴스에도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 뜬소문  
이겠지.”

준구의 논평으로 흥흥한 소문이 거짓이라고 결론나려는 순간, 유라  
가 깍지를 낀 손 위에 턱을 괴고 진지하게 말했다.

“경화를 반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안전한 학교 지킴이 제도를 공약  
으로...”

학생들이 마구 떠들던 소리도 단 한 순간에 멎는 순간이 왔다. 교실  
문을 거칠게 열고 누군가가 들어왔다. 시계가 오전 9시 정각을 가리  
킴과 동시에 있어난 일이었다. 교실 문이 부서질 듯 큰 소리가 울렸  
지만, 사실 야구방망이로 타격을 가해도 문이 박살나기는커녕 문에  
달린 유리조차 쉽게 깨지지 않을 것임을 누구나 다 안다. 덕분에 유  
라는 하고픈 말을 다 끝맺지 못했다.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기며 그렇게 들어온 사람은 교생 기간을 갓 마  
친 신입 교사다. 그녀는 뚜벅뚜벅 당차게 교탁까지 걸어가더니 들고  
있던 출석부를 거칠게 교탁에 내려놓았다. 화가 난 얼굴 같진 않지만,  
행동은 분명 화가 나야 취할 수 있는 동작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분

위기에 어느 학생도 주눅 들지도 긴장하지도 않았다.

“제군! 봄방학은 잘 지냈나!”

“예, 선생님!”

“다들 나오는 수업 한 번씩은 들어봤을 테지만 방학동안 까먹었을 인간들을 위해 간략하게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지. 올해로 28살, 여러분들을 앞으로 1년 간 지도편달하게 될 사회 교사, 이백향이라고 한다.”

그녀는 한 손에 쥘 수 있는 작은 막대를 꺼냈다. 전원을 켜자 검정 일색이던 전자판이 하얗게 변했다. 거기에 막대를 대고 그어 그녀의 이름인 이백향(李柏香)을 한자로 썼다. 하얀 화면에 검게 글이 표시되었다. 전자판에 새기는 글은 분필 가루가 나지 않고 눈의 피로도 또한 매우 낮으며 결정적으로 잘 지워진다. 쇠막대는 전자판에 글을 쓰기 위한 일종의 펜 역할을 하는 물건이었다.

그녀는 미혼인데다 꽤 괜찮은 얼굴과 털털한 성격을 지닌 관계로 유별난 성향의 학생들이나 동료 교사에게 호감을 많이 사는 타입이었다.

“그럼, 으레 하던 의식을 치러야겠지? 그것이 우리들의 전통이자 우리들의 「제도」니까. 앞줄부터 차례대로 자기소개를 시작하자.”

한 명씩 차례대로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소개를 하였다. 대부분 1분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지만 3분 넘게 시간을 소모하는 아이도 있었다. 거의 서로 얼굴은 알고 지내는 편이므로 길게 할 필요는 없었다. 철수의 차례가 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일 년을 지내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남철수라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기술정보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부 활동은 멀티미디어부이고 특기는 해킹입니다만 그렇다고 학교 홈페이지 해킹까지 부탁하진 마세요.”

그 말에 학생들이 저마다 피식 웃었지만, 철수는 계속 뒷짐을 진 자세로 자기소개를 했다.

“저는 요즘 무척 외롭습니다. 평생 즐겁게 해줄 테니 제게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 여자 친구를 급구합니닷!”

“그리고 올해도 실패할 것 같습니다. 이 녀석 하는 짓 봐선 어차피 안 생겨요.”

준구가 그렇게 거들자 학생들이 아까보다 더 크게 웃었다. 철수는 머쓱했지만 그렇게 분위기를 띄우고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반쯤 장난으로 자신을 소개해도 선생은 철수를 혼내지 않았다. 그것이 룰이

었다.

그 다음으로 준구가 일어났다. 백향은 출석부와 학생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주의 깊게 자기소개를 경청하였다.

“오랜만입니다, 모두들! 저 역시 여러분과 일 년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진로를 어디로 가야할지 고민되는 1년이 되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란 생각에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제 이름은 김준구입니다. 저는 앞으로 상고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부 활동은 문예부이고 특기는 작문이지만 사실 독후감은 잘 못 쓰는 편입니다. 그래도 뭐, 어중이떠중이가 쓰는 소설보다는 재밌는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심심하다면 저에게 문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녀석의 작업 멘트입니다.”

철수가 그렇게 거들자 학생들이 또 저마다 피식 웃었다.

“제 옆에 이 녀석과 저는 어릴 적부터 소꿉친구입니다. 중학교에 같이 진학했는데, 고등학교까지 함께 하지는 못해서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마지막 중학생 시절이 부질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길을 걷게 되겠지만, 나중에 졸업 앨범을 쳐다보며 동창회에서 서로 즐거웠던 추억을 아로새길 수 있는 친한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저에게 소중한 인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준구는 그렇게 소개를 마치며 자리에 앉았다.

다음으로 현경화가 뒷짐을 지고 일어섰다. 여자치고는 박력 있고 엄숙한 분위기를 띠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경화라고 합니다. 저는 검도에 관심이 많으며, 진학도 이쪽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함부로 작업을 걸면 호된 꼴을 당할 것입니다. 이상.”

현경화가 자리에서 앉자 주변에서 “오오~”하는 존경의 빛이 담긴 소리가 곳곳에 들렸다.

다음으로 차유라가 일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하였다.

“반갑습니다. 간혹 저를 보고 여우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 인내심은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특히, 남철수! 너한테 하는 얘기니까 똑바로 들어.”

유라가 앉으려고 하다가 이름을 말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열린 마지막 말을 이었다.

“제 이름은 차유라입니다. 검도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경화처럼 잘

하진 않고 취미 삼아 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미생물학자가 되어 수많은 생명체를 연구해보는 것입니다.”

수업이 시작된 지 20분이 약간 넘어서야 스무 명의 자기소개가 다 끝이 났다. 수업이 일찍 끝날수록 동아리 활동을 할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늘처럼 학기가 시작된 첫 날은 그냥 자기소개로 하루를 끝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정하고 넘겨야 할 일이 있기에 백향은 수업을 종료시키지 않았다.

“제군, 모두 자기소개 잘 해 줘서 고맙다. 오늘은 새 학기가 시작한 첫날이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출발 운운하면 글러먹은 녀석인 것이다. 모두들 첫 마음 첫 뜻을 끝까지 밀어붙일 줄 아는 근성 있는 지성인이 되길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초지일관 끈기 있게 이 반에 나의 수족이 될 아이 있나? 반장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말이지. 민주주의의 교육은 이런 데에서 기초가 다져지는 것이다. 우선 추천부터 해 보도록.”

준구가 손을 들고 일어섰다.

“남철수를 반장으로 추천합니다. 이 녀석은 미인을 보면 사족을 못 쓰는 녀석이라 선생님께 절대 충성을 바칠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만큼 끈기가 넘치는 애도 드뭅니다.”

백향은 전자판에 남철수의 이름을 적었다.

“좋아, 그럼 또 다른 사람 없나?”

그 때 준구 바로 뒷자리에 있던 여자 아이가 한 명 손을 들고 일어섰다.

“저는 현경화를 반장으로 추천합니다. 저렇게 민주주의 제도를 장난인 것 마냥 다루는 녀석에게 반장 자리를 쥐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중학교의 반장 선거도 민주주의를 배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표정이 사뭇 진지하였다. 꼭 진지하게 학교생활에 임하는 아이가 한 명쯤은 있다.

백향은 마찬가지로 전자판에 현경화의 이름을 적었다.

“그럼 더 이상 반장 자리를 추천할 아이는 없나? 없나 보군. 그럼 이제 부반장을 추천받도록 하지.”

“부반장은 제가 직접 해보고 싶습니다!”

준구가 손을 들고 스스로를 추천하였다. 이백향 선생은 칠판에 김준구의 이름을 썼다.

“누구 부반장이 되고 싶은 사람 더 없나?”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손을 들지 않았다. 경화는 굳이 유라를 부반장으로 추천하지 않았다. 둘 사이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는 암묵적 동의가 자리 잡은 모양이었다.

“그럼 반장과 부반장 선거를 실시한다. 정작 학급 임원 중 가장 중요한 요직은 총무니까……, 반장에서 낙선한 아이가 총무가 되도록 하지. 자, 용지를 돌릴 테니까 각자 가지고 있어. 남철수, 현경화, 김준구의 공약 사항을 들어보고 각자 반장 자리를 맡겨도 되겠다 싶은 이름을 적도록. 그리고 부반장 후보가 한 명 뿐이니까 부반장이 되어도 되면 동그라미, 아니면 X를 쓰기 바란다. 우선 남철수부터 일어서서 공약을 발표해 보도록.”

철수는 심호흡을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를 둘러보며 당당하게 이야기했다.

“처음 반장을 1학년 때 했습니다. 마지못해 떠맡은 자리였지만, 제가 학급을 위해서, 학교의 돈독한 교우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었던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철수가 숨을 고르자 못 남학생들이 보내는 선망과 존경의 시선이 철수에게로 모였다.

“저는 올해 한 학년 차원이 아니라 전교 차원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적극적으로 돕고 보급할 겁니다.”

철수의 강력한 선거 공약에 이어 준구가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쏟아져 나와 교실에 가득 퍼졌다. 뭔지도 모르고 박수를 따라 친 어느 여학생은 주위 여학생들의 눈총을 받았다.

“잠깐, 그 보고서가 뭐지?”

교사인 이백향은 올해 처음 정식 교사가 된 탓에 남철수가 일컫는 보고서의 정체가 무엇인지 몰랐다.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중학생의 영원한 멘토가 될 보고서입니다. 보고 대상 학생들의 개성과 매력이 잘 서술되어 있어서 옛날부터 인기가 많았습니다.”

철수가 자랑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하고 자리에 앉자 뒤이어 현경화가 일어섰다.

경화는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지 무덤덤한 음성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저 변태들의 계획을 저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 보고서의 정체는 인권 유린입니다. 제가 반장이 되면 교내의 청소년 윤리를 확

립시킬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여학생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대변하듯이 격정적인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수적 열세는 어쩔 수 없어서 소리가 이전보다 작았다.

“난 보고서에 대해선 잘 모르겠지만, 유권자들이 잘 판단하겠지. 투표 시작한다.”

투표 후 결과는 현경화의 예상대로였다. 반장은 보고서의 배부를 공약으로 삼은 남철수, 부반장은 이에 협조한다는 김준구, 총무는 이를 저지하려던 현경화가 되었다.

“아까 차유라가 민주주의 제도를 장난으로 다뤄선 안 된다는 중요한 지적을 하였다. 그러나 그렇기에 이번 투표는 유효하다. 현실에서도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 공약이 장난 같다고 여겨지고 그런 장난 같은 공약을 내건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해서 선거가 무효가 되어선 안 된다. 이번 선거는 여러분 모두가 각 후보의 공약을 듣고 심사숙고한 다음 내린 결정이므로 아무리 번복하고 싶더라도 할 수 없다. 선택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 그 선택이 나중에 후회되더라도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이지. 반장, 부반장, 총무의 당선을 모두 축하해 줬으면 좋겠다. 탄핵할 기회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상으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오전 수업은 그렇게 모든 게 마무리되었다. 학기가 시작된 첫날이므로 각 수업 교사들도 자기소개를 하고 남는 시간 동안 어떤 수업을 지향할지를 소개하였다.

동아리 활동이 시작될 무렵, 3학년 1반 교실은 텅텅 비어버렸다. 남철수는 컴퓨터실로, 김준구는 도서관으로 각자 발걸음을 옮겼다.

신설중학교의 도서관은 교사(校舍) 본관 바로 옆에 나란히 있는데, 딱 본관의 절반 정도의 공간을 서적으로 빼곡히 채웠다. 장서량 150만 권 내외 수준으로 처음에는 엄청난 장서량이란 얘기가 나왔으나 오늘날에는 이 정도가 평균적이다.

처음에 어마어마한 장서량이란 평가를 들을 만큼 이곳은 신설중학교 관계자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마을의 중앙도서관 같은 역할 또한 하기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일단 동아리 활동 시간에는 문예부의 아지트가 된다. 최근에는 살인 사건에 대한 소문 때문인지 이곳을 찾는 방문객의 수도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으며 이용 가능 시간도 본교 학생이 아니면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다.

도서관은 본관처럼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많은 장서량을 보관하

기 위해 지하층도 있었다. 문예부가 모이는 곳은 도서관 1층에 따로 마련된 좌담실이다. 이곳만큼은 정숙을 유지하지 않고 담소를 나눌 수 있으나 역시 큰 소란은 일으키지 못하게 되어 있다. 어디까지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곳이다. 좌담실이 마련된 곳은 도서관 현관 바로 근처라서 ‘사람들 출입 소리 때문에 정숙하는 게 무의미하니 이곳만은 도서관 내에서 도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 아래 제 1대 문예부 부장이 교사들과 협상까지 벌여가며 추진한 일이나 결국 잡담을 주고받으며 각자 할 일을 하는 곳이 되었다.

좌담실을 비롯해서 도서관의 모든 내벽은 유리로 되어 있었다. 좌담실에서 도서관에 출입하는 사람을 볼 수 있었고, 거꾸로 도서관에 들어오는 사람도 좌담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었다. 문예부의 활동은 그야말로 투명하게 공개되는 셈이었다.

지도 교사가 없는 부지만, 지금껏 역대 부장들이 잘 해왔으므로 별탈 없이 굴러왔다. 그 이유가 역대 부장들의 리더십이 뛰어났다는 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신설중은 학생회가 따로 없어서 각 동아리 부장들이 동아리 활동 전반에 관여하는 교사들과 협상을 벌이는 일이 예전에는 많았다. 게다가 다른 동아리에는 고문 교사가 붙지만 문예부는 그런 교사가 없었다. 따라서 문예부는 신설중학교에 있는 어느 동아리보다도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일반인들도 도서관 이용수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보안 시스템이 가동되므로 도난 걱정도 없다.

준구가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에는 이미 부원들이 좌담실에 다 모여 있었다. 성인 남성 네 명은 죽히 병렬로 드러누울 수 있을 것 같은 긴 탁상을 둘러싸 앉은 모습은 흡사 국제회담이라도 방불케 하는 것처럼 보였다.

“어이, 네가 제일 늦었어.”

팔짱을 끼고 비웃는 듯이 표정을 지은 아이는 서수진이다. 준구가 상상했던 도서관 부장은 얌전하고 조용하고 독서를 즐기며 시를 사랑하는 안경을 낀 부끄럼쟁이 소녀의 모습이나, 그 상상과 수진이란 아이가 보여주는 현실은 거리가 멀었다. 잡담을 즐기며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시끄러우며 다소 막무가내인 위풍당당한 소녀가 바로 서수진이다. 이상과 현실은 지난 역사가 보여준 한일 관계처럼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어느 순간부터 준구가 수진을 좋아하게 된 것이고, 수진은 언제부터인가 알뜰게 미소 짓기 시작해 버렸다. 처음부터 눈치를 챈 것이다.

준구는 수진의 말을 무시하는 척하며 자신의 지정석—그것도 무슨 숙명에 의해 비롯된 것인지 공교롭게도 서수진의 맞은편 자리다—에 앉았다. 수진과 함께 있으면 평정심을 유지하는 연습을 마음껏 할 수 있다. 준구는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최소한 두어 번 해탈의 경지에 도달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말이야, 애들이랑 결정한 건데. 야, 김준구, 듣고 있어?”

이것이 바로 문예부 부장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아아, 듣고 있다. 무슨 결정?”

“네가 오늘부로 문예부 편집장이야.”

또한 이것이 바로 문예부 부장의 절대적인 리더십이다.

“그건 무슨 자리야? 우리 부에 그런 직위란 것도 있었나?”

“내가 만든 건데, 교지 발간 때 총괄 지휘자가 필요해서.”

게다가 이것이 바로 문예부 부장의 전능적인 권한이다.

“그럼 부장인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냐?”

“미안하게도 나는 글 솜씨가 별로라.”

끝으로 이것이 바로 준구의 해탈을 격려하는 문예부 부장의 말솜씨이다.

“그래서 나 없는 사이에 나를 편집장에 임명시켰다…는 거?”

“응, 그런 거.”

자신은 어째서 이 아이에게 반해버린 것일까.

준구는 할 말을 잃었다. 준구는 문예부의 모토란 것이 원래 이런 것임을 1학년 때부터 알고 있었다. 알고도 가입한 것이었다. 참여하는 자 모두의 민주주의란 것은,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 발언권조차 말할 시키는 것. 하지만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 역할을 맡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조치지만 역시 항변의 기회는 없다.

“그러게 일찍 오지 그랬냐.”

수진은 그렇게 알리고는 신문을 펼쳤다. 문예부 부장의 정치 감각이란 것은 대대로 이런 것이다. 명목으로는 민주주의를 빌려오지만 대중을 자신의 뜻으로 설득하기만 하면 다수결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수진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인지 우연찮게 그런 것인지 준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수진이 매일 읽는 신문의 양으로 누적적으로 따져 봤을 때, 정치 감각이 뛰어나다는 것은 확실하다.

“오늘도 살인 사건 얘기는 없지?”

“그런 얘긴 아직 안 실려 있네. 하지만 근래의 살인 사건, 나도 소문

으로밖에 못 들었지만 확실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냐. 우리, 밀착취재 해 볼까? 소문의 실체를 밝히면 분명 대박 날 거야.”

준구는 서수진이 문예부를 이용해서 무슨 짓을 벌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기서 수진이의 발언에 제지를 가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일에 문예부 전체가 휘말릴 수도 있다.

“기각. 그런 건 중학생인 우리한테 무리라고.”

준구의 기각 선고를 깨끗이 무시하고 수진은 신문지를 덮고 책상을 탁 쳤다. 그러자 저마다 책만 들여다보던 10명가량의 애들이 일제히 수진을 쳐다보았다.

“우리가 연쇄 살인 사건을 밝혀내자! 다른 부와 연계해서 활동을 펼치는 거지. 우리도 뭔가 활동적인 부 활동을 해보자고.”

안 된다! 누가 여기 이 못 말릴 처자를 말려달라고!

“그러려면 운동부에 들지 왜 문예부에 와서 부장 자리까지 췌찬 거냐.”

마음 속 깊이 모순적인 절규를 꼭꼭 봉인해 놓고 최대한 냉정하게 수진이를 비꼬았으나 수진이는 별 거 아니란 듯 맞받아쳤다.

“내가 문예부에 가입한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여기 오면 반드시 「리더」 자리에 앉을 수 있으니까! 하하하!”

여자치고는 비교적 호탕하고 시원하게 웃었다. 사실이 사실이지만 역시 이런 리더를 볼 후배들을 생각해서라도 언제나 부장의 탈선을 방지하는 역할을 맡을 사람이 반드시 한 명은 필요하고, 올해는 그 역할이 준구가 되어버렸다. 윤희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해탈을 하여 번뇌로부터 해방될 찬스일 지도 모르지만, 거꾸로 스트레스성 질환에 시달리고 자포자기의 허무주의에 발을 내딛어 인생을 망칠 위기일 지도 모른다. 기회의 밑바닥에는 함정처럼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사람들은 늘 거꾸로 말해서 문제다.

“그런 뻔뻔한 얘기 네 입으로 얘기하고도 안 부끄럽냐? 후배들도 보고 있잖아. 그보다 그게 부원 모집이랑 무슨 상관이야?”

“글쎄, 관심 있어 할 애들이 많을 거 같은데.”

그들이 쓸데없는 논의를 해도 결국 문예부에 관심이 있는 신입생들은 도서관에 찾아왔다. 대부분은 수진의 미모에 낚인 남학생이었다. 일주일 동안만 신입생을 모으자는 결의를 함으로써 문예부의 하루는 끝이 나고 밤이 늦어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런 일상의 평화는 언제까지 같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었다.

## 1.1

어두운 밤하늘, 원래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 그 길에 지금 사람이 한 명 똥다.

마치 인간 사냥과도 같은 모습이다.

사냥꾼은 한 명. 사냥감은 스무 명. 사냥꾼이 든 무기라고는 오직 나이프뿐. 그런데도 이미 몇 명은 사냥 당했다.

사냥감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달아난다. 누군가는 죽었고 누군가는 아직도 달아나고 누군가는 여유롭게 뒤쫓는다. 사냥감에 접근하는 사냥꾼이 오히려 더 짐승에 가깝다. 마치 그 짐승은 달빛 아래 서 있는 은빛 여우같다.

“자, 잘못했어……. 살려줘…!!”

사냥꾼은 골목길 구석에 공포에 떠는 인간을 냉엄하게 바라본다. 이 녀석이 몇 번째 사냥감인지는 정확히 알고 있다.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는다. 그 분위기가 음산하여 사냥감은 생존본능조차 잊어버린다.

사냥감의 눈에 비친 사냥꾼은 본업에 충실한 전사이다. 달빛 아래서 나이프를 치켜든 모습은, 그로부터 도망치려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절대적이다. 사냥꾼의 차가운 검은 동공에 비친 사냥감의 모습은 그 스스로가 봐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두려움, 좌절감, 절망감.

그 모든 감정이 집약되어 있었다.

“잘못을 인정했는데——”

사냥꾼의 입술이 움직인다. 공기가 진동한다. 분명 무슨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이 사냥감에게는 들리지 않는다. 사냥꾼은 유의미한 말을 건네지만 사냥감은 어떤 내용도 머릿속에서 인식, 처리해내지 못한다.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도 아니다. 사냥꾼이 인간이고 사냥감이 짐승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단지 사냥감의 뇌가 공포에 잠식당해버렸기 때문이다.

생물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중 가장 역사가 깊고 강력한 감정이자 생물이라면 유전자 단위에 그 기원을 두는 개념인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뉴런이 흥분하며 전기적으로 빠른 변화를 초래, 충분히 흥분하여 탈분극화와 활동전위를 만들어낸다. 탈분극화는 또 다른 활동전위를 만들어내어 인접 영역에 있는 「문」이 열리게 되면, 나트륨 이온이 밀

려들어온다. 세포막에 있는 펌프는 나트륨 이온들을 세포 밖으로 내보낸다. 활동전위가 축색을 따라서 빠르게 전달되면 뉴런은 완전히 재충전된다. 이러한 전기화학적 처리과정이 초당 1,000회까지 반복될 수 있다.

사냥꾼은 폐가의 문을 열고 들어간 사냥감을 뒤쫓는다. 제대로 생각하고 뛰어든 것은 아닐 것이다. 이 폐가에는 출구가 없다.

사냥감은 사냥꾼의 눈을 피해 최대한 은신해 본다. 사냥꾼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것이 오히려 사냥감을 더 두렵게 할 뿐이다. 사냥감의 공포가 역치에 도달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왜——”

사냥감은 추위를 느낀다. 이가 부들부들 떨린다. 자율신경계가 대뇌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제멋대로 반응한다. 심장이 제멋대로 요동친다. 부신수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마침내 마지막 문이 열리며 사냥꾼이 천천히 들어온다. 사냥감은 몸에 어디 하나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 기분을 느낀다.

“——용서해줘야 할까?”

방 안에 완전히 들어온 사냥꾼을 사냥감은 아무 변명도 못 하고 묵묵히 쳐다본다. 사냥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닥에 주저앉았다. 「살려 달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는다. 사냥감은 자신이 무슨 짓을 벌인 것인지 안다.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 용서받을 만한 사정을 대고 싶어도 그런 건 없다.

사냥꾼을 진노케 하는 것, 그것은 사냥감이 용서받지 못할 이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사냥꾼이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사냥감은 보기 딱할 정도로 애처롭게, 다른 이가 보면 절로 비웃음이 새어 나올 정도로 뒤로 부자연스럽게 발버둥 친다. 사냥감은 사냥꾼을 올려다보며 그저 상대가 어떤자인지 겨우 눈치 챘을 뿐이다.

사냥꾼이 사냥감 앞에 쪼그려 앉아 이마를 나이프로 죽 그었다. 사냥감을 이미 죽은 먹잇감 다루듯이 다듬질하는 모습이었다. 피가 땀처럼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신기하게도 사냥꾼과 마주보게 되자 사냥감은 공포를 잊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냥감이 살아있는 동안 가장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정수리에 나이프를 찍히기 전, 창문 너머의 온 하늘이 피에 물든 밤이 된 장면이다.

1.1.1 2037년 4월 13일. 월요일.

노을이 지고 있어서인지 주황빛으로 물든 석양이 도서관에 딸린 좌담실을 비추고 있었다. 누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시킨 것도 아니지만, 부원들이 커튼을 치고 실내조명을 켜다. 일상적인 일인데도 간단하면서도 굳더더기 없는 동선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보여주었다.

의자에 몸을 기댄 채 한껏 각선미를 드러내며 두 다리를 책상에 얹은 소녀는 느긋하게 신문을 읽고 있었다. 분업의 체계가 확립되어 분주하게 움직이는 주변의 모습이 소녀의 모습과 대조적이었다.

모든 도서관의 해마다의 서적은, 그 도서관이 해마다 들여오는 모든 서고와 관리를 근원적으로 요하는 자원이며, 그 서고와 관리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항상 그 서적의 직접적인 보관이거나,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문예부 부원들이 현재 분주하게 처리하는 일은 신규도서를 분류하고 바코드와 분류표를 부착한 다음 제자리에 놓는 일이었다. 일을 위한 교육도 받지 않고, 여기서 사용하는 기계의 사용에도 익숙하지 못한 부원은 최고로 근면해도 아마 한 시간에 100권의 책도 분류할 수 없을 것이며, 200권을 서가에 꽂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 일을 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이 작업 전체가 하나의 문예부 존속의 이유일 뿐 아니라, 그것은 많은 부분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그 대부분의 부분이 또한 독자적인 담당이다.

준구는 읽고 있던 국부론을 덮었다. 후배가 건네준 문서를 받고 마무리 확인을 하고 있었다. 부장인 수진이 해야 할 작업이지만 수진은 신문 읽기에 여념이 없었다.

“오늘 들어온 4월 신간 도서가 다 분류되었으니 2학년이 1학년 데리고 다 꽂고 집에 가도록 해. 모두 수고했어.”

수진의 주변은 언제나 그래왔던 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수진이 열심히 읽은 신문에는 그다지 평화롭지 않은 기사가 실려 있었다. 소문으로도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신문 기사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수진은 신문을 접고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았다.

“모두 잠시만 주목해봐.”

아무 것도 돕지 않다가 잠시 주목을 요청했을 뿐인데, 좌담실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수진을 응시하였다.

“오늘 신문 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문으로만 나돌던 살인 사건이 표면상으로 드러났어. 알다시피, 소문이란 형태로 전해지지 않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야. 신문에 나온 것과 소문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데, 소문에 대해 들어본 사람은 자세히 얘기해 봐.”

“살해당한 사람들은 대개 살해당할 법한 이유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들도 이 문제 해결이 어려워서 자살로 처리하는 게 대부분이래요. 나머지는 미해결 사건이라고 하고.”

부원들 사이에서 이것저것 들은 소문을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핵심들만 간추려 신문 여백에 적은 수진은 그것을 읽어보며 소문의 특징을 꼼꼼이 생각해 보았다.

소문으로는, 살인 사건이 계속 이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이전까지 뉴스에는 살인과 관련된 소식은 아무 것도 전하질 않았다. 시민들이 경찰에게 살인사건에 대해 물어봐도 경찰은 그런 일 따윈 없다고 잡아떼거나 미해결 사건, 자살, 또는 실종이라고만 대답할 뿐이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경찰을 믿지 않았다.

살해당하는 자들은 대개 고위직에 몸을 담고고 비리 혐의로 은퇴한 사람이라든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주로 죽는다고 하였다. 일반인이라면 한 번쯤 ‘저런 녀석은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라고 생각할 법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따른다. 우선, 일반적으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비난받는 것은 살인자요, 동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해자였다. 그러나 지금의 연쇄 살인 사건에선 동정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없다. 살인자는 대중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살인자의 의도대로 세상사가 움직이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런 식으로라도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세상에 죽어야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악(惡)을 악으로 되갚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모방 범죄라도 일으키는 사이코가 나타나서 연쇄 살인범에게 도전장이라도 내민다면 이 마을의 주민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마을을 떠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경우도 있다. 연쇄 살인범이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일부러 죄 있는 자만 고르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중에 중죄를 지은 사람 뿐만 아니라 가벼운 명목으로도 사람을 죽일 지 누가 안단 말인가. 세상은 결코 그런 식으로 깨끗해 지지 않는다. 어찌면 소문 따윈 다 날조된 것이고, 뭔가 근본적으로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연쇄살인사건 소문은 그 음모를 감추기 위한 일종의 속임

수일지도 모른다.

“신문에는, 어제 두 명이 살해당했다고 해. 한 명은 원래 타깃이고, 다른 한 명은 목격자로 추정하고 있어. 찾은 시체는 목격자 같아.”

“어째서지?”

맞은 편에서 준구가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직접 사건을 겪은 게 아닌 수진은 신문을 들어 찬찬히 목격자가 죽었다고 추정하는 대목을 보았다.

“목격자는 사건 현장을 목격하자마자 경찰에 신고. 경찰은 목격자로부터 범인의 인상착의를 찍은 사진을 건넬 테니 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이 온 시점에는 이미 목격자는 사망했으며 목격자로 추정되는 시체에서 어떠한 기계 및 전자장비도 발견할 수 없었다.”

“사망자가 2명이 아니라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거 아냐?”

“목격자는 한 명 죽는 걸 본 모양이야. 준구 네 말대로 3명이나 4명이 살해당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경찰측은 2명이 사망한 걸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어. 짧은 시간 안에 범행 현장을 너무 깔끔하게 치워서 그렇대.”

이 말을 마지막으로 수진은 몸서리를 쳤다. 순수하게 두려움 때문인지 주변을 의식해서인지 불안한 시선으로 스스로를 감싸안은 수진은 보호하고픈 충동을 주변에 일으키고 있었다. 문예부의 부장이며 유일한 여학생인데다, 부원들에게 동경이자 선망의 대상이라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가 부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맑고 고운 눈동자, 오흘하고 곧게 났지만 날카롭다는 느낌보다 부드럽다는 느낌에 가까운 콧날, 붉고 적당히 얇은 입술……. 전형적인 미인의 얼굴이다. 준구는 수진을 보면 늘 「토키」가 연상된다. 이런 이미지를 준구가 가진 까닭은, 평소 수진의 피부가 새하얗기도 하지만, 가끔 수진의 눈동자가 붉은빛을 띠는 것처럼 잘못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수진이 아무리 화를 내도 준구는 조금도 무섭지 않다. 그걸 수진도 아는 모양인지 수진은 남 앞에서 웬만해선 화를 내지 않고 이는 온순한 동물인 토키로 이미지가 귀결되는 것이다.

앞서 말한 까닭으로 신문이 앞 사람의 독서 공간을 침범해도 아무도 뭐라 힐책하는 사람이 없었다. 정작 공간을 가장 많이 침범당하는 당사자가 김준구이건만, 이제는 익숙해져서 아무 항의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는데, 실제로 시체가 나오니 기사화된 건가. 그럼 지금껏 살인범이나 그 자의 중개인이 언론을 매수해서 기사를

막는 걸까?”

“뭘, 그렇지 않을까?”

근거 없는 음모론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사실 여부는 몇 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수진은 흥미 본위로 준구의 말에 모호한 긍정을 하였다.

준구는 수진이 이끌던 흐름을 은연중에 끊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가서 다행이라 여겼다. 수진이가 소문을 경청하는 것은 곧 살인 사건에 관심이 있다는 표시인데, 그녀라면 뭔가 일을 저지를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준구에게 있었다.

“범인이 왜 안 잡힐까.”

“경찰이 미해결 사건으로 발표한 사람 있잖아. 어떠한 단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해. 지문, 머리카락, 피, 발자국.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대. 말이 미해결이지 결국 살인 사건이잖아?”

“그런가.”

“오늘 종례시간 때 교육청에서 배부한 공문 봤어?”

“뭘데?”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하교는 항상 몰려다니며 하라는 거.”

“차라리 다 같이 같은 집에 귀가하라 하지 그러냐.”

“나한테 따지는 거야?”

수진은 양손으로 책상을 탁 치며 두 눈을 크게 뜨고 준구 앞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준구는 당황스러워 앉아있는 의자 짚로 뒤로 넘어질 뻔했으나 어차피 테이블이 너무 넓어서 얼굴이 닿지 않는다는 걸 안다. 하지만 1학년 때부터 이런 장난을 당해도 좀처럼 태연스레 받아들여지질 않는다.

두 사람의 얼굴은 거의 손바닥 한 뼉 정도의 간격만을 두고 있었으나, 수진은 이내 제자리에 앉았다. 맞은편의 준구는 멈춘 숨을 내쉬었다. 이 둘의 일상적인 행동 덕분인지 문예부는 일상성을 되찾아 멈추었던 분업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아니, 그건 아니고. 학기 초에도 말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살인범을 잡는 계획은 상상 속에서만 진행시켜. 소문에 대해 물어본 걸 단서로 삼을 생각은 아니지?”

범인을 쫓을 수 있는 단서는 없고, 범인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는 단서만 널려 있으니 이런 일은 경찰에 맡겨야 한다고 준구는 생각했다. 준구의 걱정이 헛된 건 아닌지 수진은 잠시 준구를 외면하며 소리 나지도 않는 휘파람을 두어 번 불다가 신문을 정리하며 말을 꺼

냈다.

“이제 부 활동 마칠 시간이네……. 나 오늘 혼자서 집에 가야 되는 데…….”

분명 같이 집에 가자는 의미다. 그러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갖고 논 것에 대해 아무런 사과도 없이 본인 좋을 대로만 하려는 태도에 심기가 불편해진 준구는 거절하기로 마음먹었다. 함께 집에 가고픈 마음이 노심용해를 할 정도로 끓어올랐지만, 주변의 시선도 있었다. 유교적인 가풍이 남은 집안 교육을 받은 탓이다. 수진이가 살인 사건에 흥미를 더 갖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자.

“그럼 너 먼저 집에 가. 오늘 새 책이 들어온 거 마저 정리해야 하니까.”

“나도 같이 갈사람 있거든! 누가 너하고 같이 가재? 너희 반 경화하고 친하니까, 개하고 갈 거야! 목도만 있으면 무적이잖아?”

수진이 준구의 말에 빠친 건지 팔짱을 끼고는 새침하게 고개를 꺾었다.

사실 수진이의 말에 담긴 뜻을 파악하지 못한 바보는 아무도 없었다. 준구조차도 파악하고 있었다.

“난 집에 먼저 갈게. 책 정리 열심히 하도록. 내일 꼭 검사할 거야! 다들 내일 봐!”

수진은 그렇게 먼저 가방을 싸매고 도서관을 빠져나갔다. 일부러 들으라는 듯 문을 거칠게 열고 쾅 닫았다.

“여자에면 좀 조신하게 행동할 것이지…….”

준구가 국부론을 가방에 챙기며 중얼거리자, “네가 잘못된 거야! 난 이만 갈란다!”하고는 책을 집어 던지며 동급생인 문예부원 한 명이 나가버렸다.

“책을 소중히 해야 하거늘……. 하다못해 제자리에 놓고 가지.”

준구는 바닥에 펼쳐진 채 떨어진 책을 줍고 먼지를 툭툭 털어 책상에 올려놓았다. 그러다 맞은편의 후배와 눈이 마주치자 준구는 대뜸 물었다.

“내가 뭘 잘못된 거 같아?”

“글쎄요, 선배님. 하하…….”

이 후배도 사실 준구와 동갑이었다면 책을 던진 녀석처럼 행동했을 것이다. 여자의 제안을 거절하고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는 준구의 태도에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책을 던진 한 명만의 감정이 아니다.

“하여튼 요즘 애들, 점잖지 못하군.”

준구는 혼잣말을 하고는 도서관 서가를 확인할 준비를 했다.

### 1.1.2

3시간 뒤, 원래 하교 시간을 훨씬 넘어서니 도서관에 남은 것은 준구밖에 없었다. 준구는 유리벽 너머에 조용히 서 있는 서가를 쳐다보았다. 마치 비석이 차례대로 서 있는 모습처럼 보였다. 서가에 꽂힌 책을 한 번쯤 모두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생각이었다. 꽂혀 있는 책들 중 압도적 다수는 죽은 자들이 남긴 책일까. 만약 그렇다면 현역 작가나 학자에게 민망한 생각이 되겠지만, 도서관은 죽은 자들이 남긴 지식을 공개적으로 보관하는 공동묘지일 지도 모른다.

준구가 문에 열쇠를 넣고 돌리자 유리벽 너머에 켜져 있었던 형광등이 일제히 꺼졌다. 이로써 준구가 해야 할 일은 모두 끝났다. 사실 열쇠는 문예부가 관리하는 까닭에 여기서 자고 가도 된다. 안타깝게도 휴대폰을 깜빡하고 집에 놔둬서 연락할 사람이 없다. 휴대폰이 있었어도 아버지에게 전화하진 않았을 것이다.

늦은 밤에 학교에 남아있어 봤자 아무 이유 없이 오싹할 뿐이다. 이게 다 학교를 배경으로 한 공포 영화 탓이다. 작년에 수진이가 같이 보자고 하지만 않았어도 이렇진 않았을 것이다.

도서관 열쇠를 돌려줘야 집에 갈 수 있기에 학교의 숙직실로 가기로 했다. 준구는 도서관 복도를 비추던 불빛마저 모두 끄고 도서관 밖으로 나왔다. 봄답지 않은 서늘한 바람이 한차례 불었다. 아무도 없는 학교 운동장에는 농구골대나 축구골대 같은 것들만이 제자리를 지킬 뿐, 행하기 짝이 없었다. 밤공기를 한 차례 들이마신 준구는 학교 본관으로 걸어갔다. 이렇게 적막하고 평온한 도시에 살인 같은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니 너무 어울리지 않았다. 살인이 웬 말인가. 차라리 평화가 더 어울린다.

본관에 들어오니 복도의 불만 켜져 있을 뿐, 아무도 없었다. 숙직실로 가려 하니 교실 문이 다 잠긴데다 불도 꺼져 있어서 학교 안은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작년에 봤던 공포 영화의 분위기가 재현되는 기분이 들었다.

준구는 아무 말 없이 복도를 건다가 자신의 뒤에서 무언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검고 길쭉하지만 바닥에 딱 달라붙어 점점 그 형체가 커지는 것.

그림자.

준구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자신보다 키가 큰 사람의 그림자였다. 그 그림자는 준구의 그림자와 겹치더니 어느새 준구의 그림자를 다 덮어버렸다. 발자국 소리마저 들리지 않은 채로 다가온 누군가로 인해 준구는 순간적으로 굳어버렸다. 그림자의 주인이 손을 뻗어 준구의 어깨를 짚었다.

“이런 늦은 시각까지 누가 남아 있는 거야?”

다행히도 이백향 선생이었다. 준구는 뒤돌아서서 다행이라는 듯이 얘기했다.

“아……. 선생님이셨군요.”

“아직 집에 안 가고 뭐했어? 공문 안 봤어?”

“아뇨, 봤는데요. 책 정리를 하다 보니……. 우리 학교는 도서관이 증축된 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준구가 백향에게 열쇠를 건네주었다.

“그런데 선생님은 혼자서 학교 지키시면 무섭지 않으세요?”

“나라고 안 무섭겠니. 하지만 학교에 도둑이 들거나 나쁜 사람이 들어오면 신고만 해 주면 돼. 그리고…”

“그리고요?”

백향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듯 미소를 머금었다.

“당직을 서는 날은 특별 수당이 나오지. 후훗.”

소문 같은 것은 전혀 모른다는 듯 천연덕스럽게 백향은 웃고 있었다.

“아아, 그렇군요……. 저, 선생님?”

“왜?”

“저하고 같이 집에 가면 안 될까요?”

“어머, 선생님께 데이트 신청한 거니? 미안하지만, 너하고 나는 열살 넘게 차이가 나요. 원조 교제 신고 당하니까 밤늦게 같이 돌아다니는 건 사양할게.”

착각이 심각한 선생이다.

“부모님께 연락해 보지 그러니.”

“아버지께선 저보다 더 늦게 집에 오십니다.”

“그럼 친구들한테 연락해보지 그랬니?”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실은 휴대폰을 집에 놔두고 와서요.”

“그럼 내 휴대폰을 빌려줄게. 학적부에 기록된 애들 번호는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누구한테 걸든 다 받을 거야.”

준구는 자기 번호도 백향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짚어

내지 못했지만, 지금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빌리겠습니다.”

백향이 휴대폰을 준구에게 건네주자, 준구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걸지 고민했다. 문자로 보내면 분명히 바쁜 척하며 답장을 안 할 것 같았다.

제일 먼저 전화를 건 쪽은 현경화였다. 검토부인데다 서수진의 말대로 목도만 들고 있으면 무적이다. 장래 희망이 국가 대표 검토 선수니 말 다 한 것 아닌가. 총기 소유가 불법인 이 나라에서, 막대기 하나 들면 무적인 현경화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준구를 비롯해서 이 학교의 전교생이 모두 그렇게 믿는다.

“여보세요? 경화야?”

『어, 선생님이 아니라 준구 너였네.』

평소 같은 경쾌하고 밝은 경화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선생님 번호 너 저장되어 있어?”

『총무니까 당연하지. 부반장인 너는 저장 안 되어 있냐?』

“저장 안 되어 있어 미안하네요. 그건 그렇고 잠시 학교로 와주면 안 돼?”

그 때 전화상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나왔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뭔가 때를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는 좋아 보이진 않았다.

『준구야, 미안한데, 나 지금 수진이 달래고 있거든? 개하고 시내를 열 바퀴나 도는 중이라서 너 데리러 갈 재간이 없다. 다른 애 알아 봐.』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다. 목소리가 밝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었군, 하고 준구는 알아서 납득했다. 전화에서 들린 다른 사람 목소리는 다름 아닌 수진이인 것이다.

“어떻게 되었어?”

“죄송합니다. 거절이에요.”

“평소에 교우 관계가 어땠기에 실패인 거니. 남자답게 혼자 집에 가는 건 어때?”

“다 실패하면 그 때 혼자 갈게요.”

준구는 선생의 무책임한 언사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대답하였다. 그리 말하고는 이번에는 다른 여자 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 학기 첫날 경화를 반장으로 추천하고, 검토부원인데다 학교생활에 진지하게 임하기로 유명한 차유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도하고 차분하

지만 남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부분에서 엉뚱하게 열을 올리는 특이한 아이로, 여태 같은 중학교를 다녔지만 아직 친해질 기회가 좀처럼 없었다. 1학년 때에 한 번 친해질 뻔했지만, 단순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다.

전화기에 신호가 얼마 안 가 유라가 전화를 받았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쁩니다. 끊을게요, 선생님.』

준구는 인사도 건네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다. 잠깐의 통화이긴 했지만 유라는 분명히 거리를 뛰는 듯했고, 호흡이 거칠었다. 몰래 특훈이라도 하는 것일까?

“또 실패야? 여자애들에게 하지 말고 또래 남자애들에게 하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준구는 남철수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다. 착신음이 가자마자 곧바로 전화를 받는 신속함에 역시 이 녀석만큼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보세요.』 “나다.”

『어, 선생님이 아니네. 무슨 일이야?』

준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밝은 목소리에서 심드렁한 목소리로 변했다.

“실은 학교로 좀 와주면 안 될까?” 『이 늦은 시각에?』

“책 정리하다 보니 늦었어. 혼자 하교하면 안 될 거 같다는 불안한 예감이 들어서.” 『와하하하!』

소리가 너무 커서 곁에 있는 백향 선생도 그 웃음소리를 들었다.

『야~, 천하의 김준구님께서 소문으로만 들리는 살인마를 무서워한다? 소문이 사실이라 쳐도 네가 살해현장에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

“그래도 교육청에서 공문을 띄울 정도면 생각 외로 꽤 심각한 일이 아닐까.”

『미안하지만 나도 오늘 혼자 집에 갔어. 뭐, 그래도 네가 원한다면 너 데리러 학교에 가겠지만, 나에게 뭔가 득이 될 만한 거래 조건으로...』

이번에는 준구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지금껏 철수가 뭔가 거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준구가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것들뿐이었다. 이번에도 또 그런 거래 조건을 내세울 게 뻔하다.

“또 실패야?”

준구는 공손하게 휴대폰을 백향 선생에게 돌려주고 인사를 했다.

“그냥 제 힘으로 가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



니다. 제가 겁쟁이가 아니란 것을 재들도 알아야 해요.”

“그냥 선생님이 같이 가줄까?”

“괜찮습니다. 학교에 도둑이 잠입할 확률이 더 높을 거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선생님.”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

백향이 손을 흔들자 준구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고 인사를 하였다. 복도를 비추던 달은 갑자기 물려든 먹구름으로 어둠 속에 파묻혀 버렸다.

## 1.1

여우의 사냥 방법을 아는가?

작은 체구에 민첩한 몸놀림, 사냥감을 찾는 데 동원되는 감각으로 여우는 적응력이 뛰어나 전 세계의 다양한 지형과 기후에 적응해 왔다. 평원을 가장 좋아하지만 산악지대나 툰드라 지역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 영리하고 호기심이 많지만 의심 또한 많다.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다. 눈에 덮여 시각과 후각정보가 차단되어도 목표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높이 뛰어 오르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체공하는 동안 균형을 잡기 때문에 정확성 또한 훌륭하다.

그런 여우같은 사냥꾼이 사냥감인 인간을 찾아 인적 없는 골목길을 다니고 있다. 통상적인 야생이라면 사냥감은 사냥꾼에게 감히 반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곳은 도시라 인적이 없어도 반격의 기회를 엿볼 수 있으리라 「착각」하기 쉬운 곳이다. 경찰도 있고 대중교통도 있다. 상황이 여의찮으면 광장으로 도망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사냥꾼은 그 모든 것과의 접근 경로를 차단시켰다.

사냥감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도시에 숨겨진 비밀을 절대로 모를 것이다. 그리고 그 비밀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사냥꾼은 이 도시를 훤히 꿰뚫고 있었다.

사냥꾼은 인간을 궁지에 몰아넣는다. 인간은 자신이 몇 번째 먹잇감인지조차 모른다. 모든 것이 개방된 상황이라 여겼지만, 시도해 보고 나니 폐쇄적인 것이었다. 타인을 제물로 바치면 자신은 살아남을 줄로 여겼다. 이곳만 빠져나가면 어디로든 도망칠 수 있으리라 여겼다. 사냥꾼과 정면 대결하면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다.

답이 없다. 어디에도 비책은 없고, 어디에도 탈출구는 없다. 생각은 차단되기 시작하고, 어떤 해답도 도출되지 않는다.

사냥꾼을 피해서 도망치면 몇 초 있다가 다른 곳에서 사냥꾼이 튀어나온다. 하지만 사냥꾼은 단 한 명. 쌍둥이도 아니고 분신술은 더더욱 아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바로 상대방의 옷 때문이다. 그러나 사냥꾼에게서 도망치는 것에만 골몰한 인간에게 그 점을 깊이 생각할 여유가 있을 리 없다.

골목길 모퉁이를 지나 다시 원래 장소로 돌아왔을 때, 인간은 벽에 기대어 숨소리조차 새어나가지 않게 입을 자신의 손으로 틀어막았다. 뽕박질하는 소리가 들리자 인간은 그 뽕박질이 사냥꾼의 접근임을 확신하였다.

어두운 밤하늘에 나지막한 휴대전화 착신음이 울리자 인간은 양자택일 문제에 직면하였다. 사냥꾼의 위치를 알아차렸으니 사냥꾼을 처치할까, 이대로 조용히 있으면 사냥꾼이 사냥을 포기할지도 모르니 가만히 있을까.

인간은 자신의 손에 쥔 식칼을 바라보았다. 사냥꾼은 아무렇지 않게 인간 사냥을 하였지만, 인간에게 살인이란 결코 가벼운 의미가 아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빨리 결정해야 한다.

인간은 둘 다 답이 아님을 이미 안다. 하지만 나머지 살아있을지도 모를 동료 사냥감을 위해, 사냥꾼에게 티끌만한 타격이라도 입히기 위해,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 전자를 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그 오답을 선택한 인간의 마지막 선택이 되었다.

### 1.1.3

준구가 혼자 집에 가기로 결심하고 학교를 나선지 10분. 벌써 집으로 가는 길의 3분의 1은 온 셈이다. 평소에도 이 길은 준구 외에는 별로 다니는 학생이 없다. 대부분 준구와 정반대 방향으로 하교하기 때문이다. 다만 남철수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인데다 사는 곳도 비슷하여 같은 길을 걸지만 멀티미디어부는 문예부보다 웬만해선 일찍 마치는 편이다.

준구는 어두워진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자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들었다. 내일은 일기예보대로 비가 올 것이다.

“역시 내가 살인 사건에 있을 확률은 지구가 소행성에 정면으로 충돌할 확률과 똑같지. 나도 참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그런 건 소설에서나 일어날 일……”

두려움을 쫓아내려고 혼잣말을 하는데 어디선가 달리는 소리가 들린다. 분명히 뽕박질 소리다.

그리고 그 소리는 세 명의 것이다.

“환청이다, 환청. 이런 것을 심리학으로 뭐라고 설명하더라? 배웠는데……. 초두효과? 아니지, 이걸 사람을 만났을 때지.”

준구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쓰며 혼자서 골목길을 아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걸었다. 하지만 뽕박질 소리는 빠른 속도로 준구에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주의를 분산시키면 무서운 상황도 한결 나아진다고 심리학 교과서는 가르쳤지만, 막상 실천해보니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준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앞으로 걸어 나갔다. 웬지 뒤를 돌아보면 얼굴에 칼자국이 잔뜩 나 있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를 만날 것만 같은 기분이라 좀처럼 뒤는 보고 싶지 않았다.

“소문은 소문일 뿐, 전부 거짓이다. 애초에 그런 일은 없다, 없다, 없어.”

뽕박질 소리가 훨씬 커졌다. 아까는 세 명이었는데 이번에는 두 명이다. 준구는 손바닥으로 귀를 여러 번 막았다 뚫다 하였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무 것도 안 들린다네.”

준구가 그렇게 뒤를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었다.

“역시 환청이——”

심리학 교과서가 드디어 옳았다는 결론에 다다를 때, 수상한 남자가 준구와 부딪쳤다. 준구는 양손으로 귀를 막으려다가 그 사소한 충격으로 머리를 잡아버렸다. 준구가 자신에게 매달린 사람을 쳐다보았다. 피범벅이 된 얼굴이며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겁에 잔뜩 질린 남자다. 가뜩이나 저녁인데다 얼굴에 피를 뒤집어쓴 듯한 모습이어서 창백한 건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준구는 그 모습에 깜짝 놀라 뒤로 자빠졌다. 상대의 얼굴이 준구의 옷에 닿았던 건지 준구의 교복 곳곳에 피가 묻어버렸다. 준구는 엉덩이가 얼얼하게 아파오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다.

“살려줘!!”

상대는 준구를 구세주라도 만난 듯이 붙잡았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살게 될 지도 모른다는 기쁨보다 여전히 죽음의 늪에 빠져 있다는 공포에 물들어 있었다. 준구가 뭐라 말을 하려고 했지만 무의식적으로 벌어진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못했다.

자신에게는 휴대폰이 없다는 것을 준구가 깨달았을 때, 자신에게 매달린 자가 무거운 기세로 자신의 위에 쓰러졌다. 자신의 팔을 억세게 쥔 그 손에선 힘이 풀렸지만, 그의 몸이 묵직하게 준구를 내리누르고

있었다.

상대의 목에서 흐르는 피가 준구의 교복을 적셨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었던 시체는 뜨거운 피를 흘렸다. 등 뒤는 땀으로 흠뻑 젖고, 복부에는 죽은 자의 피로 흠뻑 젖었다. 경동맥에 꽂힌 단검을 준구가 짝 잡아 뽑자, 혈관에서 주체하지 못할 만큼의 피가 쏟아져 나왔다. 이 자의 뇌에 있던 피가 목으로 다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준구는 생전 처음 보는 참상에 쥐었던 단검을 떨어뜨렸다. 곧이어 헛구역질이 나오려 했다. 상대가 흘린 피는 이미 준구가 입은 바지마저 적시고 있었다.

소문은 사실이였다.

준구가 도망쳐야 할 지 경찰을 어떻게 불러서 뭐라 설명해야 할 지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마치 땀에 젖은 것 같은 피로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칼, 돌려줄래?”

골목길에서 흘러나온 소리였다. 이 남자가 열심히 도망치고 다녔을 골목길에서 살인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준구는 기겁해서 자신을 짓누르는 시체를 떨쳐내고 자신이 왔던 길로 도망쳤다.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겨우 국부론 한 권이 들어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선 걸리적거리는 짐덩이일 뿐이라, 준구는 뛰는 도중에 등에 멘 가방을 벗어서 손에 쥐고 달렸다.

도망치는 준구를 쳐다보던 살인자는 골목길에서 나와 시체 옆에 굴러다니던 단검을 회수하고 준구를 쫓아 뛰기 시작하였다.

좁은 골목길에서 두 사람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준구는 교복을 흠뻑 적신 피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속이 꼬이는 것만 같은 느낌을 애써 참았지만, 비를 맞고 돌아다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 찻찻함보다는 역겨움이라 표현해야 될 기분에 가까웠다.

달리는 와중에도 준구는 상대가 누구인지 짐작이 되었다. 들어본 목소리이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분명히 같은 반의 여자 아이의 목소리였다.

가로등 불빛이 서너 개 머리 위를 지나가자 둘 사이의 간격이 점점 좁아져 오는 건지 뒤에서 들리는 뽀박질 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찾은 시체는 목격자 같아.

불과 몇 시간 전에 들었던 말이 메아리처럼 머릿속을 울려 퍼졌다.

설마 그 살인자를 하교 길에서 만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지구가 소행성에 충돌할 확률보다는 아무래도 준구가 살인자를 만날 확률이 높았던 것이다.

살인자는 목격자가 되어버린 준구를 쫓으려 뛰었다. 확실하게 죽이려는 심산이다.

“포기해! 난, 100미터…, 11초, 뛰니까……!”

거친 호흡에 피로가 엉망진창으로 뒤섞여 있었다. 분명히 전화기 너머에서 들었던 것만 같은……

—죄송합니다. 지금 바쁘니다. 끊을게요, 선생님.

이 목소리는 차유라다!

증명할 필요도 없다. 지금은 살아남기 위해 뛰는 게 중요하다. 상대는 호흡이 거칠어져서 제대로 된 문장을 말하지 못했다.

“학교로, 가기 전에, 죽을 텐데.”

오히려 그 말에 준구는 웬지 모르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념해라고 압박하는 말이지만 여전히 끊기는 문장이다. 분명히 지쳤다!

준구는 미로 같은 골목길을 뛰어다녔다. 경사가 없는 평지인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이 시각에 이 길을 걷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불행이라면 불행이었다. 살려달라고 외친다고 해도 일단 붙잡히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게다가 상대는 증거를 남기지 않아 경찰에 붙잡히지 않은 희대의 연쇄 살인마가 아닌가.

살려달라는 외침은 의미 없다. 자신이 살아야 유라를 붙잡을 수 있다. 준구는 이 살인 사건의 유일한, 그리고 현재까지는 살아있는 「목격자」 이기 때문이다.

준구는 아무 말도 안하고 뛰기만 했지만, 이대로 계속 뛴다면 붙잡히게 되어 있다. 비록 상대가 지쳤긴 하지만, 유라와는 다르게 준구는 평소부터 운동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래야만 해!’

스스로를 독려하지만, 도망치는 것 말고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이동시간을 가로축, 이동거리를 세로축으로 기준을 잡아 준구의 시간별 이동거리를 곡선으로 그리면 마치 벼가 고개를 숙인 듯이 휘어진 우상향하는 한계속도체감곡선을 보여줄 것이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준구는 처음의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점차 느려졌다. 한계체감곡선은 인류의 저주받은 숙명이다. 아니, 인류가 아닌 우주적 규모의 숙명이라라. 그 때, 하늘에서 빗방울 하나가 준구의 얼굴을 적었다. 준구는 뛰다가 무의식적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하늘, 밝은 가로등, 전봇대.

그리고 CCTV.

‘이거다——!’

준구는 전봇대에 CCTV가 달린 쪽으로 뛰었다. 아직 유라는 모르는 모양이었다.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진다.

거리 차는 4미터.

준구의 시야에 CCTV가 보인다.

‘왜 이쪽이 아니라 저쪽을 비추고 있는 거야?’

거리 3미터.

CCTV의 카메라 렌즈가 향한 곳까지 가려면 아직 더 뛰어야만 한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다. 온 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며 경고한다. 두 개의 완만한 그래프가 접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리라.

$$\Delta d = 2(m)$$

“잠깐……!”

준구는 그렇게 외치며 탁 멈춰 서서 확 뒤돌아섰다. 뛰어오던 기세 때문에 뒤로 자빠질 뻔했으나 다행히 제대로 설 수 있었다. 아직 CCTV 렌즈가 비추는 데까지는 아주 조금 부족하다. 두 걸음 정도면 될 것 같다. 준구의 궁여지책이 통했는지 유라도 멈추어 섰다.

둘은 5초가량 똑같이 제자리에서 심호흡을 하였다. 준구는 상체를 조금 숙이고 무릎에 손을 짚는데 반해, 유라는 조금도 상체를 굽히지 않고 허리에 손을 얹었을 뿐이다.

“머리 굴리지 마. 여기까지 머리 굴리는 소리 다 들리니까.”

유라가 올곧은 눈빛으로 준구를 직시하며 서서히 앞으로 걸었다. 준구는 올곧다는 말이 살인자나 자기 앞의 존재에게 붙여도 될 단어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학교에서는 머리를 한 가닥 묶는 데 반해, 지금의 유라는 머리를 묶지 않았다. 온몸이 피투성이인 준구에 반해, 유라는 흰 교복 상의에 검은 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땀을 흘리는 게 눈에 떠었지만, 그 외에는 멀쩡해 보였다.

“유라야, 네가 설마, 살인자는 아닌 거지? 그런 거지?”

준구는 거친 호흡을 애써 가다듬으려 애쓰며 뒷걸음을 쳤다. 유라는 잠깐 심호흡을 한 정도로 호흡이 평온해졌다.

“미안, 네가 본 게 전부 사실이다. 그러니 죽어줘야겠어.”

준구가 뒷걸음 칠 때마다 동시에 유라도 한 걸음씩 내디뎠다. 망설임이라고는 없었다. 아무래도 CCTV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 준구는 되도록 유라의 얼굴만을 쳐다보려 애썼다. CCTV를 알려줘야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은?

“잠시만, 위를 보지 않을까?”

“……?”

준구가 손으로 위를 가리켰다. 유라는 고개를 들지 않고 눈동자로만 준구의 손이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았다.

“날 죽이려면 저 CCTV에 네 모습도 찍혀야 할 걸. 네 체형이나 교복이 찍힌 것은 알 수 있겠지.”

“그래? 난 여기서 단검을 던져서 널 죽일 수도 있지…”

준구는 침을 꿀꺽 삼켰다.

죽는 건가.

역시 투검의 달인에게 1미터 거리는 우스울 것이다. 아까 그 피살된 남자와 유라 사이의 거리는 아무리 못 해도 3미터가 훨씬 넘을 테니.

“만은, 지금 내 손엔 아무 것도 없어.”

준구는 그제야 한숨을 푹 쉬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땅이 깊이 꺼지는 기분이 들었다. 유한함에게 경의를. 물리적 한계에 축복을. 그래도 한계체감곡선은 도저히 찬양할 수가 없다.

분명히 유라는 CCTV가 촬영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서 있었고 준구는 CCTV가 정면으로 비추는 지점에 섰다. 무기도 없는 유라가 장풍이라도 써서 자신을 죽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집에 안 가?”

이상하게도 유라는 준구를 죽일 수 없는데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준구가 집에 가려면 유라가 길을 비켜 주어야만 한다.

“집에 가야지.”

“그런데 왜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야?”

“내 집은 이쪽 방향이거든.”

“우리 집은 저쪽 방향인데.”

서로가 상대방의 길을 막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나보고 CCTV에 찍히려는 거야?”

유라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네가 살인자가 아니라면 굳이 거부할 필요도 없지. CCTV에 안 찍히고 싶다면 아까 온 길로 빙 되돌아가든지.”

“이거 하나는 알려주고 싶은데, CCTV에는 피범벅이가 된 네 교복

이 찍히고 있을 거야. 내가 저 CCTV에 찍히지만 않으면 너만 귀찮은 일에 잔뜩 휘말리게 될 걸. 경찰서에서 조사당하고 진술서 작성하는 건 기본일 테고, 까딱 잘못하면 너 혼자 살인 용의자가 될 지도 몰라.”

“그,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준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반면, 유라는 터벅터벅 준구 쪽으로 걸어갔다. 자수나 다름없는 구역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CCTV에는 찍히지도 않을 정교한 기술이라도 있는 것일까? 준구가 대면하고 있는 차유라는 실은 차유라를 가장한 다른 사람인 것일까?

하지만 준구의 과대망상증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대신에 유라는 준구와 어깨동무를 하였다. 분명히 CCTV에 그녀의 얼굴이 비칠 텐데도 말이다.

준구는 이런 상황에서도 곁에 바짝 다가온 유라의 얼굴에 마음을 빼앗길 것만 같았다. 가름한 얼굴에 날카로운 눈매는 결코 기죽은 적이 없고, 얇은 입술을 굳게 다문 모습은 마치 약간은 화가 난 듯 보이기도 했다. 마치 그 모습은 어느 민간 전설에서 흔히 등장하는 영험한 동물이 제물을 먹지 못해 근엄하게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 동물 이름은 아마도…

“여우.” “뭐라고?” “아니, 아무것도.”

이미 튀어나온 말이다. 주위 담을 수가 없다. 준구는 얼결에 자신이 무의식적인 감상이 입 밖으로 튀어나와서 당황하였다. 그래도 차마 예쁘다는 단어가 나온 게 아니라 다행이라 여겼다.

“이번에는 운이 좋았지만 다음엔 조심해. 언제든지 널 죽이러 갈 테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협박이며, 평소 같은 때에 여자가 이런 협박을 하면 코웃음을 쳤겠지만 상대는 소문의 연쇄 살인범이다. 농담이 아니라 당연히 협박이다. 하지만 준구 자신이라면 더 세련되게 협박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

“그래 준다면야 나로서도 고마운 일이지. 하지만 어설픈게 나를 속이려 들면 알지?”

그녀는 잠시 한쪽 입 꼬리를 올렸다. 사악해 보였지만, 한편으론 그것을 다 가려버릴 만한 아름다움이 있었다. 은근히 미인계를 쓰는 것인가!



“대신에 지금은 나와 함께 가줘야 할 곳이 있지.”

“어딘데?”

“우리 집.”

“내가 왜?”

“살고 싶다면 그러는 게 좋을 걸. 안 그러면 저 CCTV에서 우리 둘이 모습을 감추는 순간 너는 죽게 될 테니까. 목이 꺾여 죽는다면 과연 어느 소설 쓰는 경찰 양반이 CCTV에 찍힌 여자 친구가 범인이라고 지목할까?”

유라는 무기를 쓰지 않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을 한 셈이다. 그리고 준구가 생각해 봤을 때도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체구의 여자 아이가 목을 꺾을 정도로 강인한 힘을 소유한 것 같아 보이진 않았다.

“대신에 네가 오늘 우리 집에 와준다면 너는 오늘 하루는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거야.”

“협박이 아니라 협상인 거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줄까?”

유라는 미소를 지으며 준구의 귓가에 소곤소곤 자신이 아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저 CCTV는 사실 꺼져 있어.”

여자 아이가 귓가에 뭔가를 속삭이는 상황보다 내용이 전달해 주는 섬뜩함에 준구는 소름이 돋아 몸을 한 차례 부르르 떨었다.

유라는 만족한 듯이 준구를 지긋이 바라보고는 숨겨놓은 단검을 숙 들어서 준구가 보도록 하였다. 준구는 기겁을 했지만, 손끝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다.

“무서워하는 모습이 귀엽네.”

“진심이나?”

“물론. 많이 지쳐서 그런데, 나 업고 집까지 가.”

“이걸로 내 생명은 보장되는 거야?”

준구는 뻗뻗하게 선 채로 물었다.

유라는 무릎으로 준구의 다리를 툭 쳐서 준구가 무릎을 굽히도록 만든 다음, 등에 업혔다.

“제대로 업어.”

유라는 준구의 가슴팍에 단검을 툭툭 찼다.

“우리 집은 가는 길이 단순해. 학교에도 가깝고. 그리고 착각하지 마. 네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기 전까진 너를 죽이겠

다는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테니까.”

“정말 나 살려 두는 거야?”

“이용가치가 있으니까 살려 두는 거야. 내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줘야겠네. 널 살려뒀을 때의 편익이 기회비용을 초과한다. 그러니까 살리는 쪽이 나에게 이익이란 것.”

유라는 그렇게 말하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상큼한 미소를 지었다. 이 녀석에게는 죄책감이라든지 불안감이란 게 없는 것인가. 애초에 편익에 기회비용을 단순하게 차감하여 양수가 된다고 여기는 것으로 봐선, 준구가 유라에게 큰 손해가 될 행동으로 초래될 이른바 위험 프리미엄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자자, 그럼 결정! 우리 집에 남자 애 데려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야. 영광으로 생각해라.”

유라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하며 손에 쥔 칼 끝의 방향을 그녀의 집이 있는 곳으로 틀었다. 준구는 살려달라고 외치기로 하는 것은 단념하기로 했다. 준구는 결국 자포자기 심정으로 유라를 업은 채 밤길을 걸었다. 그러다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각났다.

“설마 네 집에서 죽이는 건 아니지?”

“우리 집에 피 튀기는 건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시체 비린내가 방안에 진동하게 되거든.”

유라의 설명에 일말의 안도감을 얻은 준구는 어떻게 하면 경찰을 납득시켜서 유라를 체포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로 했으나, 도무지 계책이 떠오르질 않았다.

그 둘이 학교 교문을 지나치자 다시 준구의 얼굴에 빗방울이 하나 떨어졌다.

“비가 곧 쏟아질 거 같은데?” “그럼 빨리 뛰어야지!”

준구는 자신이 스틸러가 아닌 연애 소설 속의 주인공이었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을 하였다.

#### 1.1.4

비가 확 쏟아지려다 말았다. 참으로 변덕스러운 봄 날씨다. 두 사람은 유라네 집에 도착하였다. 이 마을에 잔뜩 모여 있는 단독주택과 똑같다. 이 집도 이 마을의 미로 같은 골목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 도시가 처음 형성되기 시작할 때부터 도시 북쪽의 이 마을 일대는 대부분 미로나 다름없다.

준구는 유라네 집에 도착하고서야 왜 유라가 여기에 자신을 데려 왔

는지 궁금해졌다. 자신을 죽인다고 하진 않았다.

—이용가치가 있으니까.

무엇에 이용하려고 이곳에 데려온 것일까.

유라가 2층의 현관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가고 뒤이어서 준구가 들어왔다. 집안은 불이 하나도 켜져 있지 않아서 무척이나 어두웠을 뿐더러 오싹한 기분마저 들었다. 유라가 먼저 들어가서 거실의 불을 켰다. 현관에는 누구의 신발도 없었다. 준구는 집안을 보았다. 거실에는 TV가, 부엌에는 소형냉장고가 있다. TV를 보기는 하는 건지 딱 봐도 먼지가 쌓여 있고, 냉장고에는 한 달짜리 식단이 붙어 있지만, 반찬이 일주일 단위로 똑같다. 딱 한 가지 평범하지 않은 것은, 조그마한 막대가 세 군데 달린 굵은 나무 기둥—준구는 이것이 뒤통에야 무술 수련에 쓰는 목인장이라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이 하나 우뚝 서 있다는 것이다. 한 눈에 척 봐도 낡았다. 그 외에는 마치 어제 이사를 온 것처럼 지나치게 깔끔했다. 이게 바로 여자 아이가 사는 집이란 것일까?

“부모님은?”

“오늘은 안 계시네. 그리고 어머니는 일본에 계셔.”

“그렇구나.”

“난 살인은 하루에 딱 한 번만 시도해.”

준구의 무미건조한 감상이 끝나자마자 유라가 다짜고짜 섬뜩한 말을 꺼냈다. 준구는 너무 놀란 나머지 왜 그런지 이유조차 묻지 못하고 멍뚱뚱 유라만 쳐다보았다.

“아버지께서 한 번 더 시도하다가 검거되었거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이 첩칙이야.”

“네 아버지는 지금 감옥에 계셔?”

“아니. 오늘은 어디 잠시 나가신 모양이야. 그럼 거의 일주일동안 집에 안 돌아오셔. 뭐, 일주일이란 것도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얘기지만.”

“어떻게 살인자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아니고 집에 있을 수가 있지?”

준구는 질문을 내뱉고 나서야 실수했음을 깨달았다. 상대의 가족을 폄하하는 질문을 내놓고 하다니, 이제 죽는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유라는 어깨를 한 번 으쓱할 뿐이었다.

“몰라도 돼. 우리 집안에 대해 너무 알고 싶지 마. 네가 죽으면 무덤에 대고 궁금해 하는 모든 것들을 알려줄 테니까.”

그녀는 평소 버릇인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몸을 던졌다. 하지만 곧 희미한 신음 소리를 냈다.

“어디 아픈 거야?”

준구는 얼결에 유라의 방에 들어섰다. 유라는 침대에 엎드려 있었다. 방을 둘러보니 책상에는 검은 노트북이 하나 있고, 책장에는 온갖 종류의 도서들이 꽂혀 있다. 유라는 잠시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있다가 몸을 일으켰다. 아직도 준구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다.

“거기 의자에 앉아봐.”

준구는 유라가 시키는 대로 했다. 등 돌린 상태의 상대방이 초능력을 써서 자신을 죽일 리는 없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역시 유라가 제아무리 연쇄살인마여도 그런 상식의 범주 안에 있는 아이다.

준구는 유라가 뭘 시킬지 예상해 보며 가방을 바닥에 놓았다.

하지만 유라는 곧 일반 상식으론 받아들이기 힘든 행동을 취하였다.

갑자기 후드티와 교복 상의를 차례대로 훌렁 벗어버렸기 때문이다!

준구는 얼결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을 꼭 감았다가 이내 손가락 사이로 실눈을 떴다. 옷을 입었을 때에는 검은 색 교복이라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 왼쪽 어깨에 칼에 그인 것 같은 상처가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어깨 때문인지 유라의 피부가 유난히 깨끗한 흰 살결처럼 보였다. 안 그래도 여자라서 작은 체구가 더 작아 보인다.

“……이게 무슨 상처야?”

칼에 찌른 상처가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 다행히 칼이 날개 뼈까지 깊이 박혔던 것은 아닌 모양이다.

“너 때문에 생긴 거니까 책임져.”

“채, 책, 책임?”

준구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착각하였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녀석.”

“책임지라며.”

준구는 여전히 착각하고 있었다. 여자가 남자에게 책임을 지라고 한다. 게다가 이 여자는 속옷을 입고 있긴 하지만 상의를 훌렁 벗었다. 이용할 만한 데가 있어 집에 데려 왔다고 한다. 게다가 아버지는 부재중.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두 사람뿐. 사실, 이런 근거를 종합해봤을 땐, 준구가 착각할 만한 요소가 곳곳에 있긴 했다.

“그래, 책임. 너 때문에 생긴 상처니까.”

준구가 유라를 칼로 공격한 적이 있을 리가 없다.

“그게 나 때문에 생긴 거라고?”

“네가 나한테 전화했잖아. 그 때 등 뒤에 칼이 꽂힌 거지.”

분명히 백향의 휴대전화기를 빌려서 여러 명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분명히 차유라도 끼어있었다.

“아……, 미안.”

“내 책상 맨 밑 서랍에 응급도구가 있을 거야. 그거 좀 꺼내줘.”

준구는 성실하게 유라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찾았어.”

“너 바느질 할 줄 알지?”

“뭐?”

“괜찮으니까 응급 처치함에 있는 바늘에 실을 끼우고 내 어깨의 상처가 벌어지지 않게 꿰매줘.”

“병원에 가지 그랬어?”

“그 말은 나보고 자수하란 것과 같은 말이야. 말 하는 것도 힘드니까 그냥 해줘.”

중학생이 이런 상처를 입을 만한 일이 흔치 않다. 병원에선 상처를 입은 경위를 물어볼 테고, 유라는 애기해줄 의무는 없지만 연쇄살인 범한테 도망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라도 하면 경찰이 유라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다. 경찰 조사도 회피하려고 하겠지만, 결국 유라가 연쇄 살인범이란 게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 애초에 병원에 안 간 것이다.

준구는 응급 처치함 뚜껑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약품, 압박 붕대, 구석에는 의료용 실과 바늘, 심지어 자그마한 메스도 몇 개 있었다.

과연 눈앞의 살인자가 치료를 해달라고 하면 치료를 해 주어야 할까? 원래대로라면 치료를 안 해 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준구는 평소에 생각하였다. 도덕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살인자를 치료해 준다고 해서 살인자가 치료자를 살려주리라는 보장이 없다. 경찰에게 넘기면 형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치료받지 못한 살인자가 그 때문에 죽더라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럼 질문을 바꿔서 친구가 치료를 해달라고 하면 치료를 해 주어야 할까? 당연히 치료를 해 줘야 한다. 근데 그 친구가 연쇄 살인마에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정답일까.

“아프게 하면 죽여 버릴 거야. 살살 해.”

유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말했다. 그것이 준구의 마음을 굳히게 만들었다. 유라는 준구가 자신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

다. 유라가 준구를 친구로서 치료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친구의 도리가 아닐 것이다. 준구는 치료가 끝나고 증거가 확보된다면 그 때 경찰에 유라를 넘기는 게 올바른 답이라고 생각했다.

준구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바늘에 실을 끼웠다.

“아, 우선 피를 먼저 소독부터 해. 거즈에 알코올 좀 묻혀서 등에 문지르면 돼.”

유라는 친절하게 치료의 순서를 알려 주었다. 준구가 거즈에 알코올을 묻힌 다음 유라의 상처 부위에 문지르자 유라의 어깨는 약간 들썩이더니 잠잠해졌다.

“아프면 소리 질러도 되지 않……나?”

유라는 아무 말이 없었다.

어깨의 상처에서 난 피가 등을 타고 흘러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구는 거즈로 피가 난 자국을 지우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유라도 여자긴 여자인 모양이다.

“도대체 거즈로 어디까지 닦아대는 거야?!”

“피가 등을 타고 흘러 내려서…….”

준구가 구차한 변명을 하지만, 유라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됐고, 탈지면으로 주변의 알코올을 닦아내고 상처 케메기나 해.”

준구는 탈지면으로 조용히 유라의 상처 주위를 닦았다. 피가 알코올에 씻겨나간 자리엔 부드러운 피부에 해구가 솟아오른 것처럼 상처가 눈에 띠었다. 아름다운 그림에 색연필로 짓궂은 장난을 친 것을 본다면 아마도 이런 기분과 비슷할 것이다. 준구는 심호흡을 하고 난생 처음으로 사람 살갓에 바느질을 하였다. 생각했던 것보다 상처는 깊지 않았다. 자신이 전화를 거는 바람에 유라가 칼을 맞아버렸다. 만약 그때 유라가 급하게 전화를 끊지 않았다면, 유라가 오히려 살해당하지 않았을까?

준구가 상처가 벌어지지 않도록 바느질을 다 끝마칠 때까지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상처를 입은 암전한 여우가 수의사의 손을 거부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다. 어쩌면 말을 걸었다가 준구가 제대로 바느질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건지도 모른다. 유라가 너무도 무감각하게 가만히 있었기에 준구는 얇은 고무에 바늘을 갖다 대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한 땀 한 땀 정성들여 바느질을 한 다음 마무리를 지었다. 너무 집중한 나머지 손이 떨리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였다.

“바느질이 다 끝났으면 거기 반창고를 붙여줘.”

준구는 그녀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 반창고에는 상표가 인쇄되지 않았지만 효과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상처에 붙여두면 흉터가 남지 않음.』

『절대적인 방수를 보장하며 부착 후 샤워 가능.』

『통풍 기능 완비.』

‘애도 여자긴 여자구나.’

준구는 나노공학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는 밴드를 정성스럽게 유라의 어깨에 붙여주었다. 대개 시중에 판매되는 반창고는 조그마한 수준인데 이건 어깨의 상처를 다 덮어버렸다. 이제 교복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치마마저 벗었다!

“뭐하는 거야?”

준구는 얼른 눈을 꼭 감고 시선을 외면해 버렸다. 하지만 유라의 다리가 보여준 각선미는 뇌 속에 한동안 떠나질 않았다. 마치 얼굴 앞에 햇불을 들이민 듯이 화끈거렸다.

“어차피 가릴 곳은 다 가렸는데 뭘 이것가지고 그래? 설마 너, 나를 여자로 보는 거냐?”

유라가 오히려 당당하였다.

“그럼 네가 여자가 아니면 뭘테? 남자야? 아니잖아!”

준구는 상대방이 누군지도 잊은 채 거침없이 항변했다.

“흐음~ 그래? 수영복이나 속옷이나 노출도는 같을 텐데.”

유라는 침대에서 바닥으로 내려와 침대에 걸터앉았다. 그리고는 양손으로 준구의 양 볼을 감싸 쥐었다.

“눈 떠 봐.”

“시...싫습니다.”

어느새 동급생에게 존댓말을 하는 준구는 지금부터 무슨 짓을 당할지 몰라 덜덜 떨고 있었다.

“안 뜨면 죽인다.”

협박도 이런 협박이 또 없다. 준구는 별 수 없이 가늘게 실눈을 떴다. 최대한 아래는 보지 않으려 애를 쓰다 보니 눈앞에 보이는 건 유라의 얼굴뿐이었다. 그 하얀 얼굴이 별다른 표정 없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었다. 준구는 자신의 심리가 하나도 남김없이 살살이 간파당해 영혼까지 엿보이는 심정이 되었다.

준구의 눈이 본능에 따라 아래를 슬쩍 내려다보려 하자 유라가 양손

에 힘을 주었다. 준구의 입술이 본의 아니게 오리주둥이 모양이 되었다. 그런 모습에도 개의치 않고 유라는 말없이 준구를 쳐다보았다. 공포를 넘어서서 다른 의미로 몸이 긴장되었다.

“아스라한 기억 너머에 그녀의 목소리가 있었다.

음성은 점점 열어져

타들어가는 불꽃이 마지막 기염을 토하듯

연인에게 간절한 소망을 들려주었네.

어지럽게 훑날리는 눈을 맞으며

눈시울이 붉어진 건 무슨 까닭일까.

대신 죽어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허망한 생각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사라져가는 그 남자에게

어느 겨울의 훑날리는 눈발은

살포시 추억을 감추어 버렸네.

결코 녹지 않을 얼음이 되었네.”

시를 읊기 시작할 때 유라는 이미 양손에 힘을 뺐다. 그러나 여전히 준구의 양 볼을 잡고 있었다.

“누구 시인지 모르겠지만 왜 그걸 읊은 건데.”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준구가 말했다. 유라는 그 무반응에 적당히 대꾸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있었지.”

“시를 통해 파악이란 건 다 되었냐.”

“음~ 일단 너 정도면 나를 못 잡을 거란 확신이 들어.”

유라는 그렇게 말하고 준구의 얼굴을 놓았다.

“의외는 아니지만,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미인계에 약하구나.”

“아, 아니야!”

“필사적으로 부정하지 않아도 돼.”

유라는 준구의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시선을 무시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하고 땀으로 범벅된 옷을 네가 있다고 계속 입고 있을 수는 없지. 옷 갈아입을 동안 눈 감고 있어. 그게 네 신상에 좋을 거야.”

그러고는 유라는 방을 빠져 나갔다. 준구는 바닥을 내려다보려 애썼



지만 유라의 방금 전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이래선 추리고 뭐고 불가능하다.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폭격으로 준구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가 간신히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자신이 본 것이 진실인 것일까?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소문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꿈을 꾸는 건지도 모른다. 어쩌면 무의식에서 자신이 기억해 놓은 이미지들이 겹쳐서 이런 장면을 보는 것일지도 모른다.

준구는 스스로 볼을 꼬집어보았다. 매너리즘마저 느껴지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지만, 이렇게 하면 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준구의 바람은 허무하게 사라졌다. 이건 확실한 현실이다. 보면 안 될 것을 하루 만에 너무 많이 보아버렸다.

준구는 유라가 옷 갈아입으러 나간 것을 염두에 두고 잠깐의 시간이 있으니 이 방을 조사해 보기로 생각하였다. 물론 길어봤자 2분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냥 한 번 방을 숙 둘러보는 게 끝일 것이다.

방 내부 구조는 평범하다. 창문이 하나 있으나 커튼 같은 건 없다. 책상이 하나 있고, 책상 왼쪽에는 커다란 책꽂이가 있는데,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뿐이다. 소설책은 단 한 권도 없고, 바닥에서 책상까지 있는 것은 사회과학분야, 책상부터 천장 쪽까지에 있는 것은 자연과학분야다. 책상 위에는 까만 노트북이 하나 있다.

여자에게 사는 방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꾸민 게 없다.

아무 단서도 찾지 못한 채, 준구는 응급 처치함을 들고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았다. 그리고 의자에 되돌아 앉아 창밖을 보았다. 바깥이 어두웠지만,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려서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지는 않았다.

자세히 신경을 집중하니, 그것은 비가 내리는 소리가 아니라 샤워를 하는 소리였다.

지금도 도망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 기회다. 또한 지금이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피에 젖은 옷을 증거삼아 경찰에게 범인을 봤다고 호소할 수도 있다. 샤워실을 습격할까 생각해 봤지만, 그런 여우가 자신의 알몸을 들킨다고 해서 부끄러워하리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샤워실 문을 여는 순간, 자신은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어차피 이 집안에 있는 동안은 준구를 죽일 마음이 없어 보였으므로 준구는 단서를 찾는 쪽을 선택하였다. 자신이 피에 젖은 옷을 입고 있다고 해도 유라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밀도 끝도 없다. 경찰이 제대로 조사해줄리 만무하다.

단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스스로 일을 찾는 것일까. 분명히 수요자가 있으니까 공급자도 있는 것이다. 그럼 수요자가 제시한 액수를 적은 쪽지라든지 죽여야 할 목표물을 정리해놓은 연습장이 있을지도 모른다. 노트북이 보이지만 몰래 쫓다가는 정말 집 안에서 살해당할 것 같다. 설령 노트북을 쫓다고 해도 준구가 원하는 정보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면 이렇게 눈에 띄는 곳에 놔둘 리가 없다. 컴퓨터라고는 문서를 쓰거나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동영상 보는 것밖에 모르는 준구에게 노트북 데이터를 뒤져보는 일은 불가능이나 마찬가지다. 납철수라면 이 노트북을 철두철미하게 파헤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결국 준구는 도망치지도 못하고 추리를 하는 데에만 모든 시간을 쏟아 부었다. 어차피 이 방 안에 유라의 범행을 증명할 단서가 있다면 준구를 이 방에 데려오지도 않고 거실에서 치료를 지시하였을 것이다. 이 방 안에 단서가 있다면 노트북 밖에 없다. 쪽지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최악이다.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이다. 물론 노트북의 데이터베이스도 영구 삭제하면 증거인멸이 가능하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한 가닥 희망에 기대를 걸었다.

“비가 내리네?”

어느 틈엔지 유라가 준구의 뒤에서 나타나 말을 걸었다. 준구는 왜 샤워소리가 안 끊졌는지를 이해했다. 진짜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진짜 비가 내리네.”

준구는 기대감을 숨기며 덤덤하게 말했다. 유라가 자기 침대에 걸터앉아서 말했다.

“너, 오늘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라니?”

준구가 유라 쪽을 쳐다보니, 그녀는 교복이 아닌 검은색 추리닝으로 갈아입은 상태다.

“밖에 저렇게 비가 내리는데 내일 학교에 나갈 거냐?”

“그럼 학교에 가야지. 넌 결석할 거야?”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그럼?”

“아직 내일이 되려면 10분이 남았어. 그러니까 만약 네가 10분 안에 네 집에 도착할 수 있다면 넌 여기서 자고 가지 않아도 돼. 하지만 10분이 넘으면 내일이 되지.”

“벌써 시각이 그리 된 거야?”

준구는 유라가 자신을 시험하거나 농락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대뜸 집에 갈지 말지 고민하게 만들진 않았을 것이다.

“집에 갈 거야?”

“아니. 네 집에선 절대로 나를 안 죽일 테니.”

“그럼 그거 계속 입고 있을 거야?”

준구는 자신이 입은 옷에 피가 모두 말라서 교복이 조금 뻗뻗해진 느낌이 들었다. 내일도 이걸 입고 등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여분의 교복 셔츠와 교복 바지는 있지만, 교복 외투는 이게 전부였다.

“피 묻은 옷이라도 좋아? 계속 입고 있을 거야?”

유라는 재차 물어보았다. 이 자리에서 벗어나면 분명히 오해할 지도 몰랐다.

“으, 응. 갈아입긴 해야지.”

“난 하는 일 특성상 옷에 피가 묻을 일이 많아. 그럴 때마다 옷을 새로 사 입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세제도 좀 특별한 거 쓰고, 세탁기가 피도 씻어 없앨 정도로 좋지. 건조도 돼. 세제는 투입되어 있으니까 옷만 넣어서 소량 세탁하면 돼. 버튼 조작도 딱 보면 알 거야. 피 냄새가 거슬릴 텐데 샤워도 해.”

“고맙다.”

“갈아입을 옷은 세탁기 옆 소쿠리에 있어. 내일 아침이 되기 전까진 그거 입어.”

“철저하네.”

“아빠 꺼라서 좀 험렁하겠지만 괜찮을 거야.”

준구는 유라의 방을 빠져나와 샤워실로 들어왔다. 세탁기 옆에 놓인 소쿠리에는 갈아입을 옷이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옷을 들춰본 결과, 속옷은 없었다. 준구는 이나마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입고 있던 옷을 벗었다. 교복의 가슴팍 아래는 전부 피범벅이었다. 적갈색으로 변한 옷은 경계선이 뚜렷하였다. 세탁기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유라가 입었던 옷도 있었다. 함께 세탁을 하면 물이 절약되니 준구가 세탁을 하게끔 한 것일까. 준구는 세탁기에 자신의 옷을 집어 넣은 다음 뚜껑을 닫고 유라가 말한 대로 버튼을 누르니 세탁이 시작되었다. 집안을 관찰하며 내린 결론이 한 가지 있었는데, 이 집안에 웬만한 전자기기는 대부분 크기가 작다는 것이다. 이사를 자주 하는 걸까.

벌거벗은 자신의 몸을 보니 몸 곳곳에 혈흔이 있었다. 죽은 자가 자

신이 아니란 것을 다행으로 여겼지만, 친구의 집이 곧 살인자의 집이란 것을 다시 깨닫고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자다가도 악몽을 꾸고 밤잠을 설칠 것 같은 경험을 겪었는데, 자신은 아직도 살아 있다.

샤워를 하는 동안 피가 씻겨 내려가듯이 이 기억도 씻겨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도저히 그리 되지는 않았다. 생각의 방향을 바꿔서, 준구는 자신의 절친한 친구 남철수가 여자아이의 집에 와서 샤워를 한다면 어떻게 가정해 보았다. 분명 의도가 다분히 수상하지만 일견 흐뭇해 보이는 미소를 머금으며 혈기왕성한 중학생의 열정을 몰래 폭발시키진 않을까. 엉뚱한 생각을 하다보니 침착해질 수 있었다. 역시, 친구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도움을 주는 존재인가 보다.

준구가 샤워를 끝내고 옷을 갈아입으니 유라의 아버지가 입는 옷이라서 그런지 매우 험렁하였다. 유라의 아버지는 키가 190cm는 되는 것일까. 셔츠 하나로도 충분히 가릴 곳은 훌룡하게 다 가렸다. 그래도 입어라고 준 바지까지 입었다.

준구는 유라의 방으로 돌아왔다. 유라는 추리닝을 입은 채로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있었다. 아무래도 상처 때문에 바로 누울 수 없는 것이다.

“넌 바닥에서 자.”

“그리고 내일 변사체로 뒷산에 묻히라고?”

“그럴 리가 있나.”

“대체 원하는 답이 뭐야?”

“피곤하니까 잘래.”

주도권은 원래부터 차유라에게 있었다. 그래서인지 유라는 제멋대로 자기 하고픈 말만 해버렸다. 준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유라의 행동은 달라지겠지만, 초조해야 하는 것은 준구였다.

“내일 일찍 일어나려면 얼른 잠드는 게 좋을 거야.”

“나를 살려 주는 이유는 뭐야?”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치료로 끝난 거 아닌가?”

“너 바보냐? 내일 학교에 가려면 가방을 메야 하잖아.”

“한 손으로 들어. 나도 도망칠 땐 한 손으로 가방 들고 뛰었…”

“죽인다.”

“미안, 그리고 보니 너는 사물함을 안 쓰는 거야?”

“그럴 리가. 하지만 사물함이 꼭 차서 말이지. 오늘은 피치 못할 사

정으로 교복을 입었지만, 원래는 교복을 안 입어. 그리고 여벌의 교복이 더 있으니까 칼자국이 난 것은 버릴 거야. 가방은 원래 집안에 있었고.”

“피치 못할 사정은 뭐야?”

“알려고 들지 마. 안 가르쳐 줄 거야.”

“그럼 날 어디에 이용할 생각이지?”

“뻘한 거 아냐? 내 가방 들어달라고 해야지. 사람 말하면 좀 경청할 줄 알아라. 이래서 문필가들은 안 돼. 오만방자해.”

뭔가 대단한 것이라도 시킬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제 알겠으면 너도 얼른 이불 깔고 잠이나 자.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이불은 아버지 방에 장롱에 있어.”

“네 아버지가 남자 데려온 거 알면 너 죽는 거 아냐?”

“네가 죽든지 아니면 신경도 안 쓸 걸. 굳이 내기하자면 네가 죽는 쪽?”

정말 태평한 아이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도 있어 보인다.

“내 몸에 손 끝 하나라도 건드렸다면, 네 손 끝마디부터 발끝까지 인체에 있는 모든 뼈를 못 쓰게 만들어 주겠어. 알겠지?”

살벌한 협박이었지만, 막상 들어보니 골목길에서 도망칠 때만큼 무섭진 않았다. 살인마는 항상 혐상긋은 인상에, 미친 사이코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남자여야 한다는 준구만의 기준은 깨졌다. 물론 싸움을 잘 한다는 속성은 그대로지만.

“알았으면 불 좀 꺼줘.”

준구는 유라의 방바닥에 이불을 편 다음, 거실 불을 끄고 유라의 방의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다. 하지만 막상 자려고 하니 잠이 오지 않았다. 바깥에는 비 내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세탁은 아직 끝나지 않은 모양이었다.

눈을 감자 불과 몇 분 전 골목길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다. 자신에게 달려온 신원불명의 남자, 그 남자의 목에 날아와 꽂힌 단검, 그 단검을 던진 여자 아이. 그리고 직접 본 장면은 아니지만, 준구가 유라에게 전화한 잠깐 사이에 유라는 공격당하는 것을 상상해 보았다.

“하나만 물어봐도 돼?”

“응?”

“내가 전화를 걸었을 때, 너…… 죽을 뻘한 거냐?”

“까딱 잘못했으면 그랬을지도 모르지. 왜? 내 상처 때문에 그래? 죄책감 느껴?”

“꼭 그런 건 아닌데. 네가 살인마인 거야, 널 공격한 녀석이 살인마인 거야?”

“살인마를 단검 투척으로 죽이는 중학생이 어디 있냐? 결론만 말하면 내가 살인마지.”

“녹음이라도 해야 하는 건데.”

“녹음이든 도청이든 수작 부리면 네 목부터 날아갈 걸. 그거 하난 장담한다.”

“.....”

잠깐의 정적 동안 빗줄기가 세차게 창문을 두들기는 소리만이 들렸다.

유라에게선 차라리 변명이라도 듣고 싶을 심정이었다. 친구가 살인마라는 게 믿겨지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곳에서 잠드는 게 무서워서 그런 것이었다.

“난 죽어야 할 녀석들만 죽여.”

“그걸 나보고 믿어라 하는 소리야?”

“아무리 상대가 살인 청부업자라도 여자라면 그렇게 등 뒤에서 칼로 찌으려는 사람이 있을까? 그 말은 상대가 하나가 아니라는 소리 아니겠어?”

“그래서 정당방위라도 했다는 얘기냐.”

“아니, 개들이 죽었어야 할 녀석들이라는 얘기지. 참고로 그 녀석들은 납치범이야. 나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의뢰를 받아서 납치범을 없앤 거고.”

“그러니 경찰이 못한 일을 네가 했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힘썼다는 말이야?”

“그렇게 포장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납치범이 사회악이란 거 하나만은 사실이지. 그 외에도 나는 무수히 많은 쓰레기를 없애왔어. 돈만 갖고는 사람 죽이지 않아.”

“하지만 최근 신문엔 목격자를 죽인 사건이 실렸는데. 네 소행 아니냐.”

“목격자를 죽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목격자가 돌아다니지 않을 장소와 시간대를 노리거든. 신문에 목격자가 사망했다는 기사는 날조야. 유언비어 같은 거지. 소문이 형성한 공포감에 편승해서 뭔가를 노리는 누군가가 있어.”

“그게 너는 아니고?”

“아냐. 난 사람 죽이는 데 몇 가지 철칙만 지키면 돼.”

“그래? 그 중 하나가 하루에는 단 한 번만 살인을 시도한다?”

“그런 셈이지. 그리고 만약이지만, 목격자가 생긴다면 반드시 제거할 거야.”

“그게 친구라고 해도?”

“어.”

유라의 대답은 무척이나 단호했다.

“나에게 살려달라고 빌어도 늦었어. 네가 경찰에 신고를 안 해준다면 좋겠지만. 물론 경찰에 신고해도 어느 경찰이 여학생이 연쇄살인범이란 것을 믿어줄까? 수법은 상당히 프로다운데 말이지. 너만 미친 녀석 취급당할 뿐이니 단념해. 그럼 편안한 학교생활을 보장해 줄게.”  
준구는 유라의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살인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것인가?

유라가 하는 일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유라는 본인이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이용해서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 씌우고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아직 중학생 밖에 안 되는 자신들이 이런 엄청난 윤리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신고를 해봤자 소용도 없고 목숨만 위협해진다. 하지만 신고를 안 했을 때 얻게 되는 효용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결론은 이미 도망칠 때부터 나 있었던 게 아닌가. 가치관이 개입되어야 풀리는 상충관계에 준구가 내놓을 대답은 정해져 있었다.

“협박에 응할 마음은 없어. 단언하건대, 날 죽이기 전에 네가 먼저 잡힐 걸.”

“기대할게.”

다시 빗줄기가 세차게 창문을 때렸다. 도저히 잠이 들지 않을 것만 같은 밤이었다.

“대신에 두 달 동안은 네 생명을 보장해 주도록 하지.”

“어째서?”

“두 달 동안 넌 내 등교와 하교를 도와줘야겠어. 이 상처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한 두어 달 가량 걸릴 거 같아. 내 가방만 대신 들어주면 네 목숨은 보장해 줄게.”

“근데 넌 언제 하교 하나?”

“그러고 보니 우린 하교 시간이 겹친 적이 없네. 너보다는 일찍 하교하는 편이야. 음, 한 7시 정도?”

“너무 차이 나는데.”

“그럼 내가 학교서 네가 마칠 때까지 기다릴게. 자세한 얘기는 내일 하자.”

준구는 바닥에서 뒤척이다가 무언가 잊은 기분을 느꼈다.

“아, 네 휴대폰 좀 써도 될까?”

“왜? 눈앞에서 바로 신고하게?”

“아니, 아버지께 전화를 안 드렸어. 걱정하실 텐데.”

“내가 대신 전화할게. 숙제가 있어서 우리 집에 머문다고 할 테니까.”

유라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어떻게 준구의 아버지 휴대폰 번호를 아는 것일까?

“어떻게 우리 아버지 전화번호를 아는 거야?”

“네 아버지가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란 걸 모르는 건 아니지? 학적부에 네 아버지 성함과 직업 정도는 적혀 있잖아. 게다가 우리 학교 1층에 네 아버지 사진이 큼직하게 걸려 있잖아. 모르는 게 이상한 거 아닐까.”

그렇더라도 전화번호를 아는 건 이상한 것일 텐데. 하지만 친구에겐 그런 반문을 할 생각을 미처 못 했다. 준구의 아버지는 확실히 꽤나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학교 1층에 있는 사진에 준구의 아버지 모습은 그다지 큼직하지 않았다. 그 사진은 단체사진인데다 등장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 많은 사람들 얼굴이 제대로 구별되려면 사진을 크게 인쇄해야 하지만, 그 중에 누가 준구의 아버지인지는 알 수 있었다. 이래서야 친구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목숨도 위험해 지는 게 아닐까?

유라가 전화를 걸고 얼마 안 있어 준구의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준구네 아버지세요?”

『그렇소만……?』

“저는 준구하고 같은 반 친구인 차유라라고 합니다. 조별 숙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 집에 하루 밤 새고 갈 거예요. 괜찮나요?”

『괜찮긴 한데 왜 준구가 전화를 안 걸고 아가씨가 전화를?』

“준구가 자기 휴대폰을 집에 놔두고 왔대서요. 바꿔드릴까요?”

『괜찮소. 차유라양이라고 했소?』

“네.”

유라는 이 아저씨가 은근히 옛날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준구한테 좀 전해주게. 외국 나갈 일이 있어서 집을 6개월가량 비



위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전할게요.”

『그럼 수고하오, 유라 양. 준구가 말썽 피우면 보고해 주시오. 바빠서 먼저 끊겠소.』

그리고는 전화가 끊겼다.

“아버지께서 뭐라 그러셨어?”

“네겐 날벼락 같은 소식이겠지만 내겐 좋은 소식.”

“뭘데……?”

“6개월간 외국에 있을 거래. 그럼 잘 자. 네게는 승산이 없는 거 같구나.”

유라는 그렇게 말하고는 곧바로 불을 끄고 잠들어 버렸다. 준구는 이렇게나 겁에 질려 있는데 유라는 무방비하게 잠을 청할 수 있다니 꽤 씬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렇다고 유라를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준구도 이리저리 뒤척이며 쓸데없는 생각을 했다. 자신도 태평하게 잠들 수 있다고 되뇌었다. 차라리 준구는 차라리 부친이 외국으로 떠나서 다행이란 생각에 잠겼다. 왜 외국에 6개월 정도 떠나야 하는지 이유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3월에 휴직 신청서가 수리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조금은 납득할 수 있었다. 휴직 신청서가 수리되고도 1개월 넘게 연구를 하느라 계속 대학에 출근한 것이라고 여기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지 않고 납득할 만했다. 준구는 그렇게 납득하며 잠들어 버렸다.

## 1.2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뜻한다. 살생은 생명체를 죽이는 것을 뜻한다. 살인은 살생이란 넓은 범주 안에 포함되나, 인간 사회에 특별히 무거운 의미를 부여하는 쪽은 살인이다. 다른 생명체가 하찮아서 그런 게 아니다. 살인을 제외한 살생은 누구라도 의도하든 그렇지 않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나 살인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규제를 걸어놓은 것이다. 일반인에겐 거의 완벽하게 금지된 일이다. 그런 규제는 법적,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으로 정당화된다. 그런 정당함을 누그러뜨릴 만한 상황은 기껏해야 전쟁이나 사형을 집행하거나 정당방위인 경우에 한정된다. 그렇지 않고서 규제를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처벌을 피할 방법은 규제 당국의 눈을 피해 잡히지 않거나 살인 사건을 은폐시키거나 규제 당국을 수중에 넣어야 한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골목길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사람을 보고 그림자가 한숨을 쉬었다. 그 또한 사냥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자는 자신이 사냥할 대상이 이미 죽어서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다. 길 위에 엎드려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생명이 다 하였으니 사람이라 부르기 보다는 시체라고 불러야 옳으리라. 그렇게 따지면 오늘 하루만 해도 핏빛 웅덩이 위에 놓일 시체가 한두 구도 아니고 무려 스무 구나 될 것이다. 그 스무 구의 시체는 제각기 다른 곳에 내팽겨 쳐져 있었다. 도저히 정당방위로는 처리할 수 없는 숫자다. 사냥꾼이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남기고 간 뒷자리를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나타나서 대신 수습한다. 그러나 그림자는 혼자가 아니다. 시체를 옮기고, 시체가 남긴 흔적을 지우고, 시체의 존재 자체를 세상에서 없애야 한다.

살인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 살인 하나 밖에 없는 것이 아니지만, 살인만큼 간단하게 해치우는 행위도 없다. 사람은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한, 누구나 살아가려고 애쓰는 존재이다. 방법도, 방향도 모두 제각각이지만 사람은 저마다 삶을 이어나간다. 그러나 살인은 그런 사람의 순수한 의지를 가로막고 짓밟고 말살시킨다. 살인은 살아있는 인간의 행위를 무력화시키고, 죽은 인간의 품위를 더럽힌다.

살인은 개인을 짓밟는 수준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 사람들이 규제당국을 무능하다고 폄하하게 되고, 서로를 의심하게 된다. 신뢰가 모래성 무너지듯 쓰러지면, 사회는 이전의 활기를 잃고 위축된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사람이 누리는 자유는 온데간데없이 되고, 질서는 유지되는 듯 보이면서도 실제로 불안정하게 된다. 살인자가 설치하는 사회는 결코 올바르게 유지될 수 없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은 규제 당국으로 하여금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살인을 규제하도록 요구한다. 한 때 사회는 규제 당국이 질서 유지를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식이 트이면서 규제 당국의 살인 권한, 이른바 사형제를 몰아내는 움직임이 생겼다. 사형제가 사라져도 살인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사형제가 부활하면 살인자가 사라질까. 세상의 모든 무기를 없애면 살인자가 사라질까. 우생학의 힘을 다시 한 번 더 빌려 살인자를 배제한 사회를 건설하면 살인자가 사라질까.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라면 살인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늘 있는 것이다. 살인을 없애려고 사람을 없애는 것은 본말전도이다.

그림자는 살인자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방법은 없지만, 오로지 단 한 명의 살인자만이 존재하는 세상을 만드는 방법은 안다. 암묵적으로 인정된 단 한 명의 살인자가 다른 살인자를 모두 죽이면 된다. 그야말로 허황된 이야기지만, 그림자가 처리한 스무 구의 시체는 잠재적인 살인자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살인자라는 것이 아니다. 그 스무 구의 시체는 누군가를 죽일 뻔했다는 이야기이다.

시체를 수습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선 시체부터 한 곳에 치운다. 길 위나 벽면에 어지럽게 흩뿌려진 핏자국은 없애버린다. 화학약품으로 사냥꾼과 시체, 그리고 그림자 자신의 흔적조차 없애버린다. 시체는 지정된 장소에 갖다놓는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 죽은 자의 휴대전화기로 신고를 한다. 목소리를 감추기 위해 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전부다.

이 사건을 실종으로 처리할 것인지, 살인 사건으로 취급할 것인지는 당국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다.

그림자는 경찰이 오기 전에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마치 유령이 신고한 것처럼.

경찰은 판단한다. 아직 버드나무 마을에는 살인 사건이 벌어진 적이 없다.

### 1.2.1 2037년 4월 14일. 화요일.

악몽은커녕 자신의 집에서 자도 이처럼 숙면을 취할 수는 없을 정도로 잠을 잤다. 준구는 유라가 흔들어서 깨우는 덕분에 일어났다. 창밖은 날이 밝지 않은 어스름한 새벽빛을 띠고 있었다. 적응이 되질 않았다. 평소에는 날이 다 밝았을 때에라야 일어났기 때문이다.

방 안의 불이 켜졌다. 준구는 눈을 비비고는 일어났다.

“야, 김준구. 어서 일어나. 밥 먹고 학교 가야지.”

“네가 내 엄마냐?”

“아니. 네 목숨 켜 사람.”

“.....”

유라는 벌써 교복까지 다 입은 상태였다. 대단한 자기 관리 능력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다른 말이 없었다. 준구가 시계를 쳐다보았다. 등교 시각은 오전 9시까지인데 지금은 새벽 5시 반이었다. 지나치게 일찍 일어난 준구로서는 다시 잠들고 싶은 심정이었다.

“난 이미 밥 다 먹었으니까, 너도 얼른 먹어. 밥은 부엌에 있어. 네 교복은 샤워실에 있어. 밥 먹고 갈아입든지 교복 입고 밥 먹든지 알

아서 해.”

“잠을 적게 자면 수명이 줄어든다더라.”

준구는 샤워실에 가서 자신의 집에서 아침을 시작하듯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세수를 하려고 물을 대야에 받기 시작했다.

“누가 누구 앞에서 수명 운운하는지 모르겠네.”

유라의 목소리가 비교적 멀리서 들렸다. 준구는 세수를 하면서 유라가 하는 말을 들었다.

“통상적으로 불규칙적이고 스트레스가 쌓이기 쉬운 생활 습관이 수명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우선 내가 오래 살고 싶은지부터 묻는 게 예의 아닐까?”

준구는 세수에 이어 머리에 물을 끼얹었다. 머리에 샴푸를 바르고 벽벽 문질렀다. 이건 일상적인 친구와의 대화라고 스스로에게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거품이 날수록 잡념이 사라져갔다.

“오래 안 살고 싶냐?”

“확실히 어릴 때엔 오래 살고 싶었지. 하지만 의미 없는 삶을 억지로 지속하는 것이 과연 행복한 건지 의문이 들어.”

“뭐, 확실히 의미 없는 삶은 불행하긴 하지.”

준구는 대충 대답하며 머리를 행구고 수건으로 닦았다.

교복을 꺼내보았다.昨天的 일은 환상이었다는 듯이 교복에 핏기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준구는 옷을 갈아입고 어제 입었던 옷을 세탁기에 넣었다.

타인의 집에서 맞이하는 아침 치고는 너무나 적응하기 쉬웠고, 살인자의 집에서 시작된 일상 치고는 너무나 평화로웠다.

준구는 샤워실을 빠져나와서 부엌으로 갔다. 테이블 위에는 밥과 반찬이 있었다. 집에서는 좀처럼 먹을 수 없는 된장찌개가 데워져 있었다. 준구는 집에 있을 때보다 여기서의 하루가 더 활력적이란 생각이 들었다. 준구네 아버지는 요리를 아예 안 했다. 집에서 밥을 하는 것은 준구이기 때문에 웬만한 요리는 준구가 만들 줄 알지만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은 거의 하지 않았다. 학업에 자칫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준구는 할 줄 아는 음식의 종류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유라는 준구와는 다르게도 할 줄 아는 음식이 많아 보였다. 대체 이 소녀는 얼마나 다재다능한 것일까.

현관에는 유라가 신발을 신은 채로 기다리고 있었다. 준구는 유라의 가방을 등에 매고 자신의 가방은 손에 들었다. 어색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아서 준구는 내심 놀랐다. 혹시라도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대

신 가방 들어주기를 해 봐도 좋을 것 같았다. 물론 아직 밖으로 나와서 누군가와 마주친 게 아니라서 막연히 이렇게 느끼는 것인지도 몰랐다.

학교에 갈 준비가 다 되자 유라는 문단속을 하고 준구와 함께 등굣길을 나섰다. 바깥에는 어제부터 내리던 비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다. 한숨을 쉬다가 양치질을 깜빡 잊었던 걸 떠올렸는데, 뒤이어 자신의 가방 안에 칫솔과 치약이 있었던 걸 떠올렸다.

비가 내리는 까닭에 유라가 우산을 씌워주었는데, 큰 우산이어도 비를 안 맞으려면 바깥 가까이 붙어서 걸어 다녀야 했다. 그렇다고 둘이서 팔짱을 끼고 걷는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었다. 다행인 것은, 이 시각에 등교하는 사람은 둘 뿐인데다가, 유라의 집은 준구네 집에 비해서 학교와 굉장히 가깝다는 점이었다.

문득 이런 생활을 2개월 동안이나 해야 한다는 달갑지 않은 사실이 준구의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지금은 괜찮을 지도 모르지만, 두 달이라는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가 없었다.

학교에 도착하고 7시가 되어서도 교실 안에는 그 둘만 있었다. 누구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어색한 공기가 둘을 감싸 돌았다.

한 명은 살인자, 한 명은 목격자.

따지고 보면 준구가 살아 있는 것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준구는 자리에 엎드려서 창밖을 바라보았고, 유라는 준구의 뒷자리에서 노트북을 하고 있었다.

“왜 가방이 무겁나 했더니 노트북을 가방 안에 넣었던 거구나.”

“.....”

타자 치는 속도가 들쭉날쭉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선 준구의 혼잣말을 못 들은 것일지도 몰랐다. 대체 무엇을 타이핑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준구가 보려고 하면 보여주지 않을 것이란 것은 확실하였다.

“거래처냐?”

묵묵부답이다.

“비 많이 오네.”

“.....”

준구는 앞으로 2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어색한 침묵이 감도는 아침을 보내야 한다는 게 절망스러웠다. 물론 살인자와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건 아니지만 뭐라도 말을 걸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무언가 단서라도 나오는 것은 아닐까.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지. 언제부터 이런 일에 몸담은 거냐.”

“소문이 언제부터 났지?”

준구는 살인사건에 관한 소문이 언제부터 나돌았는지 떠올리려 애썼다. 하지만 노트북 자판과 빗줄기의 합중주에 집중력을 공격당하고 있어서 소문에 관해 자신이 무엇을 제대로 아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글쎄. 올해 초부터인가?”

“올해 초라. 그런가.”

“본인이 모르면 말이 되냐!”

“소문은 내가 퍼트린 게 아니니까 몰라도 돼.”

자판 두들기는 소리가 세차게 몰아치기 시작하였다. 준구는 한 손으로 턱을 괴고는 자신만의 고민에 빠졌다. 소문을 자신이 퍼트린 게 아니라면 대체 누가 퍼트린단 말인가? 말 자체는 되는 소리다.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자랑하고 다니는 경우는 드물다. 유라의 경우에는 범행을 저지르고 치밀하게 시신을 수습하며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지 못하게끔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 더구나 애써 그런 뒤처리를 다 해놓고 경찰을 조롱하고 도발을 걸어올 만큼 비이성적인 녀석은 아니다. 무척이나 부도덕한 인물이지만 확실히 이 녀석은 치밀하다.

“그리고 보니 시체는 어떻게 되었지? 놔두고 왔잖아!”

“그건 걱정하지 마. 다 방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건 네 무덤에 대고 알려줄게. 궁금해 하지 마.”

타자를 다 쳤는지 노트북을 탁 덮는 소리가 들렸다.

“안 궁금할 수가 없잖아…”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복도로 나가는 듯 보였다. 준구는 유라가 나간 사이에 노트북을 다시 켜볼까 생각해 보았지만, 유라는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잠시 복도에 누가 있는지 둘러본 것뿐이었다. 유라는 다시 교실 쪽으로 뒤돌아보고는 준구에게 손짓을 했다. 분명히 일어나 보라는 손짓이었다. 준구는 순순히 일어났다.

“자꾸 귀찮게 하나하나 물어볼래?”

“앞으로 이보다 더 귀찮게 할 수도 있는데? 게다가 난 원래 지금이야.”

“닥치고 책이나 읽어.”

준구는 화가 났다. 유라는 대놓고 준구를 도발하고 있었다. 준구는 기왕 일어난 김에 더 따지려고 유라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보니 어깨의 상처가 떠올랐다. 상대가 살인자여도 그건 무기를 들고 있기에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 맨손인데다 부상당한 상태라면 자신이 이길 수

도 있는 게 아닐까.

준구는 유라와 한 걸음 정도의 간격을 둘 사이에 두고 멈춰 섰다. 준구는 자신이 선 자리가 본인에게 좋지 않은 위치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키는 자신 쪽이 크기에 위압적으로 말하면 먹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책을 집에 놔두고 왔거든?”

“해 보잔 거냐.”

“해 볼래?”

준구는 주먹을 쥐고 자세를 취한 반면에 유라는 정면에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하였다.

“와 봐.”

“오라면 못 올 줄 알아……—”

준구는 분명히 눈꺼풀을 깜박이기도 전에 유라의 주먹이 자신의 얼굴에 날아온 것 까진 보았다. 하지만 눈을 뜨고 보니 교실 뒤편에 혼자 누워 있었다. 기억이 약간 단절되어 있다. 유라가 팔짱을 낀 상태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유라는 준구의 머리맡에 서 있었다. 치마 안이 보일 듯 말 듯 아슬아슬했지만 확실히 안 보였다. 방금까지만 해도 준구는 유라와 마주보고 있었건만, 대체 어떻게 그 찰나에 교실에 혼자 눕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준구는 옷을 툭툭 털고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옷에 묻은 먼지를 털 때마다 몸 곳곳이 아팠다. 복부, 가슴팍, 심지어 정강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

궁금한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궁금하다고 하면 다시 또 맞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안 궁금하다고 하면 솔직하지 못하다고 맞을 것 같았다. 이래도 저래도 맞을 것 같았다. 어쩔 수 없이 준구는 유약하게 대답을 입 밖에 내놓았다.

“……응.”

유라는 피식 웃고는 갑자기 느린 동작으로 준구의 코끝 바로 앞에서 주먹을 들이밀었다.

“이렇게.”

그 다음 복부에 왼손을, 정강이는 살짝 건어찬 시늉을 한 다음 준구의 목을 감싸 안고는 천천히 준구를 뒤로 젖혀서 가슴팍에 마지막 주먹을 꽂았다. 그래서 준구가 정신을 차렸을 땐 유라가 준구의 머리맡에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모두 느린 동작인데다 아까의 상황을 재연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기에 준구는 자신이 어떻게 당하였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얼굴을 맞고 단 몇 초 안에 다 일어난 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얼굴을 맞은 그 순간의 타격 때문에 준구는 일시적인 기절 상태에 빠졌던 것이다.

준구는 누워서 자신의 머리맡에 다시 서 있는 유라를 쳐다보았다. 유라는 쭈그려 앉더니 준구를 쳐다보며 말했다.

“한 번 더 할까?”

“대체 어디서 싸움 배운 거야?”

“스스로 익힌 거지. 뭐, 어디냐면 골목길이고.”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여자가 골목길에서 이런 싸움 기법을 익힌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준구는 구태여 더 탄죽을 걸지는 않았다. 유라는 준구에게 아무 것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될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제 일어나도 될까?”

“마음대로. 하지만 귀찮게 하면 또 패버릴 거야.”

준구는 아침만큼은 귀찮게 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대신 유라의 왼팔이 생각보다 훨씬 잘 움직인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기뻐해야 할지 안타까워해야 할지 얼른 판단이 서지 않았으나 역시 안타깝다는 결론을 내렸다. 완력으로는 유라를 못 이긴다는 게 확실해졌으니까.

### 1.2.2

학교 수업은 듣는 등 마는 등하며 방과후에 준구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척하고 있었다. 도저히 글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다. 이미 다른 학생들은 하교를 해버렸고, 도서관에는 서수진과 김준구 둘만이 남아 있다. 서수진은 신문을 읽다 말고 책상에 잠시 엎드려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준구도 어느 순간부터 수진을 따라서 책을 펼쳐놓기만 하고 팔짱을 끼고 역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 번 그러길 시작하니 몇 시간째 둘 다 계속 그렇게 있었다.

수진은 날이 어두워진 걸 느끼고서야 준구에게 말을 걸었다.

“비가 오니까 너도 나도 풀이 죽어 있구나. 무슨 울적한 일 있냐? 고민 있어? 어제 집엔 잘 들어갔어?”

수진이가 먼저 말을 걸었지만 준구는 자기만의 생각에 너무 심취한 탓에 수진이의 말에 대꾸를 하지 못하였다. 준구는 수진이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준구의 머릿속은 아침의 일에 대한 것뿐이었다. 유라의 동작을 제대로 파악하면 막지 못할 이유도 없어 보였다. 무술에 관심이 많은 친구에게 동작을 천천히 보여주며 어떤 무술 같냐고 물어보고 도서관에서 중국 무술 관련 책자를 들여다 본 결과, 유라가 사용하는 무술은 영춘권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렇다면 영춘권을 자신이 체득하면…

수진은 탁상을 양손으로 내리치면서 준구 얼굴로 바짝 다가갔다. 놀라하는 장난이지만 이번만큼은 준구가 제대로 당해서 의자가 뒤로 넘어갔다.

“어, 어, 어……—?”

준구가 뒤로 넘어갈 때 수진이 손을 내밀었지만 이미 늦었다. 준구는 그대로 바닥에 의자 찌로 뒤로 넘어졌다.

바닥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준구는 뒤통수에 아픔을 느꼈다. 뒤통수를 문지르면서 벌떡 일어나고는 곧바로 수진에게 다가가서 따졌다.

“뭐하는 짓이야?!”

“오늘따라 반응이 이상한데? 평소에는 뒤로 안 넘어지는데.”

수진은 팔짱을 끼고서 결눈질로 준구를 쳐다보았다.

“그거야 딴 생각 중이었으니까…”

준구는 잠시 수진의 시선을 외면했다.

“무슨 생각?”

“저기, 그제…”

준구는 열심히 어떻게 변명할지 궁리해 보았다. 몇 시간 동안 고뇌해도 될 법한 문제를 말한다면 수진이라도 순순히 납득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 때, 유라가 읊은 시가 떠올랐다.

“사실 내가 생각해 놓은 시가 있거든. 근데 다른 사람이 쓴 시랑 똑같은 건 아닌지 잘 몰라서 말이야.”

“஘, 네가 시를 썼어? 어디 한 번 들려줘봐. 나 이래봬도 꽤 문학소녀 아니겠니.”

수진이가 의자에서 다리를 꼬며 앉아 여유롭게 준구를 응시했다. 준구는 팔짱을 낀 채로 자신이 앉았던 의자 주변을 서성거렸다. 간신히 시가 떠오르자 눈을 감은 채로 인생에 단 한 번 들었던 시를 천천히 낭송하였다.

시가 다 낭송되자, 수진이는 왼손으로 턱을 괴고 오른손 검지, 중지, 약지 순서대로 책상을 따다닥따다닥 두들겼다. 찬사가 나올 정도의 시는 아닌 모양이었다.

“어때? 어디서 들어본 거 같아?”

“넌 자신이 만든 작품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거야? 왜 표절부터 걱정해? 인터넷 검색이라도 해 보지 그랬어.”

반응으로 미루어보아, 수진이가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는 시라는 것은 확실했다.

“그럼 감상은 어때?”

“뭘 상상하면서 그런 시를 썼는진 모르겠지만, 시에서 비유하는 바가 매우 뚜렷하다고 생각해. 일단 작중 계절은 겨울이고, 한 남자가 한 여자의 죽음을 곁에서 목격한 거 같아. 하지만 이내 잊어버리지. 이를 표현하는 건 이 둘을 곁에서 관찰한 누군가, 즉 시적 화자겠지. 한마디로 시로 표현한 비극. 그 외에는 뭐라 더 할 말이 없는데. 이게 정말 끝이야? 뒤에 더 없어?”

“없어. 역시 난 시에는 재능이 없나 봐.”

시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것은 포기해야 할 듯싶었다.

단념하는 눈빛이 수진에게는 보였는지 수진은 대화 주제를 돌렸다.

“흐음~ 그래? 근데 어제 경화한테는 왜 전화했어?”

“교육청 공문 때문에 그랬다. 왜? 네 말대로 경화는 막대기 들면 무적이잖아.”

“하하! 그래서 나는 오늘도 경화랑 집에 갈려고. 너는 집에 안 가? 셋이 같이 갈까?”

수진이 의자에 일어나 준구에게 다가서며 호쾌하게 맞받아쳤다. 둘 사이는 불과 손바닥 두 뼘 만 한 거리를 유지했으나 평소에도 이 정도 거리에서 자주 서로를 쳐다보았다. 준구는 곁에 다가온 수진이의 얼굴과 어제 자신에게 다가온 유라의 얼굴을 무심결에 비교해 버렸다. 수진이의 매력은, 시원하지만 여자다운 청순함이 묻어난다는 묘한 부분이었다.

“아니, 근데 같이 갈 사람이 있어서…….”

“누구?”

수진이가 매우 놀란 듯한 표정으로 준구에게 물어보았다. 두 사람의 얼굴 간격은 이제 손바닥 한 뼘 가량. 준구는 얼굴에 피가 쏠리는 걸 느꼈다. 하지만 차마 같이 가는 사람이 차유라라고 말할 수 없었다.

“경화는 아직 학교에 남아 있는 거야?”

“응, 체육관에 가면 있을 걸?”

“도서관 문 닫자.”

두 사람이 나가버린 도서관엔 정적과 어둠만이 남았다.

### 1.2.3

수진과 준구는 체육관까지 동행하였다. 체육관에는 아직 두 명이 남아서 대련을 하는 중인 모양이었다. 검도복을 입고 있으니 누가 유라고 누가 경화인지 얼른 알 수 없었지만 키가 큰 쪽이 확실히 경화다. 준구는 검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대련하는 상황으로 봤을 때, 유라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느꼈다.

‘제아무리 유라여도 부상당한 상태에서는 경화에게 밀리는구나.’

아침의 일이 다시 생각났다. 유라는 왼팔을 그럭저럭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하지만 고통을 참고서 움직이는 게 아닐까? 준구가 꽤 맨 상처는 그리 얽은 게 아니었을 것이다.

“오늘따라 움직임이 느리군. 너답지 않아.”

“너야말로. 상황과 이해에 대한 무감각한 편견은 평소에 드러낸 적 없잖아.”

“事件의 本質을 糊塗하지 마라. 난 그저 네가 걱정되었을 뿐이야.”

경화는 흥미롭다는 듯 검을 거두었다.

“경화야, 집에 안 가?”

수진이 정답게 경화를 부르자 유라와 경화는 잠시 떨어져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호면을 벗었다. 각자 땀범벅이 된 얼굴인데다 상당히 더운 탓인지 조금은 상기된 얼굴이었다.

“아직 다들 안 갔네. 그럼 다 같이 하교할까?”

수진이 그렇게 제안하였다. 다 함께 하교를 하려면 준구가 유라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지도 몰랐다.

“그래, 그게 좋겠네.”

의외로 유라가 순순히 승낙하였다.

준구는 유라의 속셈을 알 수가 없었다. 가방을 들지 않으면 분명히 상처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게 아닌가?

“오늘 대련을 너무 오래 했더니 어깨가 많이 아프네.”

“설마 이 나이에 담 걸린 거야?”

“오십견일지도 모르지?”

경화가 그렇게 농담을 하고는 경화와 유라 둘 다 까르르 웃었다.

“수진아, 원래 검도부는 이려고 노는 애들이었나?”

준구가 수진에게 컷속말을 건네자, “글쎄……. 별로 웃긴 농담 같진 않은데.”라는 당연한 대답이 돌아왔다.

“아무튼 어깨가 좀 아프니까 준구, 네가 내 가방 들고 우리 집까지

만 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두어 달 정도는 검도부 참관만 하고 쉬어야 할 거 같아.”

유라는 아무렇지도 않게 상황을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경화는 “건강이 최우선이지!”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부 활동을 그만두는 것보다는 며칠이든 몇 달이든 쉬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아침때만큼 비가 많이 내리진 않았으나 그래도 우산을 쓰고 걸어가야 했다. 아침에 등교했던 대로 학교를 할 때도 유라와 함께 우산을 썼다. 하지만 경화와 수진은 왜 둘이 같은 우산을 쓰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별로 위화감을 못 느낀 탓일지도 몰랐다. 이래저래 고생을 하는 것은 친구뿐이었다.

유라네 집 대문에 도착해서 준구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먼저 가. 유라네 집은 2층이니까 가방을 방까지 옮겨주고 난 집으로 돌아갈게.”

“...내일 봐!”

수진은 그 말에 납득했다는 듯이 손을 흔들고는 빗속으로 사라졌다.

“잘 가. 내일 또 보자.”

경화는 급히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는 수진을 뒤쫓아 갔다.

비가 점차 잦아들기 시작하였다. 준구는 유라네 방까지 와서야 겨우 오늘 하루 일과가 무사히 끝났다는 것을 느꼈다. 두 달만 이렇게 버티자.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확실한 물증이 확보될 때까지는 버티야 한다.

“잘 가. 내일 아침 정각 5시 반까진 여기에 와줘. 그건 너무 했나? 그럼 정각 6시까지.”

유라는 눈웃음을 지으며 친구에게 명령 같은 부탁을 하였다.

“그럼 네가 나보다 일찍 일어나니까 모닝콜이라도 해줘.”

“그렇게. 아, 그리고 주말에 딱히 할 일 없지? 시간 비어 있지?”

“뭘, 그렇긴 한데.”

“그럼 토요일 저녁 8시에 학교 앞에서 보자. 할 말이 있으니까.”

“알았어. 우산은 네 거 좀 빌릴게.”

준구는 그렇게 홀로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 혼자 우산을 쓰고 집으로 되돌아갔다. 소문 속의 살인자가 누군지 직접 알게 되니 오히려 밤길이 안전해 보일 지경이다. 물론 그 평화는 약속된 두 달 뿐이지만.

그보다 토요일에 왜 자신을 불러냈는지 뒤늦게 의문이 생겼다. 하지만 자신에게 이용가치가 있다면서 토요일에 굳이 불러내어 죽이려는 짓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목표물에게 살해 예고를 하고 죽이는

못된 취미라도 가지지 않은 이상은, 토요일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준구가 안심하며 골목길을 걷는데,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유라가 뭔가 전하려다 잇은 말이 있어서 밖으로 나왔나 싶어서 뒤돌아보니 거기에는 현경화가 우산을 쓴 채로 걸어오고 있었다.

“집으로 간 거 아니었나?”

“요즘 흉흉한 소문이 학교에 퍼지고 있다. 거기다 어젠 네가 선생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생각해 보니 넌 내 번호를 아직도 모를 것 같아서 알려주러 온 것이다.”

아주 딱딱한 말투로 말했지만, 경화의 표정은 아주 온화하였다. 경화가 호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자 준구도 휴대폰을 꺼내었다.

“그나저나 수진이는 집에 잘 갔어?”

“수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내게 바로 연락이 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것 참 편리한 설정이구나.”

경화는 준구에게 다가와 그녀의 번호를 보여주었다. 준구는 그 번호를 저장하고 경화에게 전화를 해 보았다.

전화를 받은 경화는 수화기에 대고 나지막이 일렀다. “설정이 아냐. 시스템이지.”

“전화 잘 되네. 다음에 보자. 위험하면 연락할게.”

준구는 별 뜻 없이 통화를 종료하였다.

“한 가지 일러둘 게 있다, 김준구.” 경화는 아직 전화를 끊지 않고 있었다.

“네가 예전에 얼마나 불량스런 놈이었던 그건 상관 없다. 하지만 함부로 살인마와 대적하지 마라. 그리고 혹시라도 살인마를 알게 되면 꼭 경찰에 신고해라. 진담이다.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면... 나한테라도 알려라.”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 말을 잘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겠다.”

경화도 전화를 끊고 집으로 되돌아갔다. 준구는 경화에게 유라가 소문의 주인공임을 귀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경화는 믿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준구는 보험을 들었다고 안심하는 한편, 그 자체만으로는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았음을 유념한 채로 집으로 돌아갔다.

1.3.1 2037년 4월 18일. 토요일.

준구는 모처럼 집에서 수학 공부를 하고 있었다. 유라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별다른 일은 없었다. 월요일에 있었던 일만 제외한다면, 준구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셈이었다.

19시 20분이 되자 휴대전화기에서 알람이 울렸다. 준구는 알람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나 학생용 코트를 챙겼다. 봄이지만 저녁에는 다소 쌀쌀하기 때문이다. 밖으로 나가면서 유라가 자신을 왜 주말에 불렀는지 생각해 보았지만,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30분 가량 걸어 학교에 도착하니 유라가 교문에 기대어 서서 기다리는 게 보였다. 유라는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준구가 다가오니 유라가 기척을 느끼고 준구를 쳐다보았다. 준구는 유라의 모습을 보고 흡사 저승사자로 착각할 정도로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얼굴에 마스크를 껴서 그런 걸지도 모른다.

“왔냐.” “뭐냐, 그 마스크. 감기라도 걸렸냐?” “아니.”

유라는 남쪽으로 걸으면서 앞장섰다. 준구는 얼결에 유라를 뒤따라갔다.

“무슨 이유로 날 부른 거야?”

“보여 주고 싶은 게 있어서.”

유라는 미로처럼 나 있는 골목길을 망설임 없이 걸었다. 준구는 유라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공격하면 이길 수 있나 망상을 해보았지만, 유라가 그 정도로 무방비하다고 보진 않았다.

“네 생각에, 내가 혼자 일하는 거 같아?”

준구가 한 망상을 엿보기라도 한 듯이 유라가 물어보았다.

“아니, 솔직히 중학생이 살인청부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살해한 걸 봤잖아.”

“그야 그렇긴 하지…….”

“너, 이 동네에 살면서 뭔가 위화감을 느낀 적 없어?”

“그다지 없는데……. 굳이 있다면 야간에 이 길을 걷는 사람이 무지 드물다는 것 정도?”

유라는 피식 웃었다. 비웃는 것은 아니라서 준구는 화를 내지 않았다.

“이 근방은 전부 주택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지. 학교를 중심으로 미로 같은 골목길이 나 있고, 편의점이라도 가려면 주택이 늘어진 이곳을 빠져나가야 하지.”

“도시 건설이 잘못되었다는 거나.”

“아니, 내 입장에선 도시 건설이 무척 잘 되어 있지. 그리고 네 좌우를 잘 살펴봐.”

준구는 유라가 말한 대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평범한 가옥 외에는 달리 눈에 띄는 게 없었다.

“대체 뭘 살펴봐라는 건지 모르겠네.”

“그래?” 유라는 직진하다 말고 오른쪽의 집 문앞에 멈춰섰다. 준구는 유라 옆에 서서 유라가 무엇을 보여주려는 건지 궁금해하며 기다렸다.

“평소에 문을 여는 건 어느 손이지?”

“오른손이지.”

“네가 이 문을 열어봐.”

유라는 준구에게 문을 여는 일을 양보하였다. 준구는 무심결에 오른손을 문에 가져가려다가, 오른손으로 문을 열기에 불편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왼손으로 문을 열려고 하다가 말았다.

“이거 열어 봐도 되는 거야?”

“열어보면 알게 되겠지?”

준구는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보았다. 좁고 작은 복도가 있었고 좌우로 문이 있었는데 그 또한 왼손잡이가 열기 쉽도록 문이 설계되어 있었다. 유라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길 주저하는 준구를 대신해서 다시 앞장서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유라가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준구도 뒤따라갔다.

5층에 도착하자 유라가 옥상 문을 열었다. 봄이지만 쌀쌀한 바람이 돌을 스쳐 지나갔다. 준구는 내심 코트를 걸치고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 도시에는 왼손잡이라면 열기 편하도록 설계된 문이 곳곳에 있어. 그리고 그런 곳은 겉으로 짐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무도 살지 않지.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안 보이는 것도 이곳에 사람이 그다지 살지 않는 걸로 좀 설명되지.”

“이런 걸 알려주는 이유가 뭐지? 두 달 뒤엔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할 거잖아. 퇴로를 알려주는 건 너한테 유리한 처사가 아닐 텐데.”

“퇴로? 여기서 퇴로는 없어.”

유라가 옥상 가장자리로 가자 준구도 유라를 따라갔다. 유라가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자 준구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좁은 틈새에는 길이 나 있었지만, 그 길에는 철초망이 쳐져

있었다. 준구는 그것이 철조망인 것을 알아보았지만, 왜 그곳에 둘러쳐져 있었는지는 몰랐다.

“저거 철조망이잖아.”

“정확히는 원형 철조망이지. 저런 게 이 마을 곳곳에 설치되어 통로를 틀어막고 있어.”

“네가 설치한 거야?”

“내가 무슨 돈으로 저런 걸 준비해 놓을 수 있겠냐. 저런 군인들이 쳐놓은 거야. 이번주에 시가전 훈련을 했어. 하지만 시민들의 통행에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저녁에 일부 골목길에만 둘러치고 아침이 되기 전에 걷어가지.”

유라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나직이 알렸다.

“곧 있으면 철거 작업을 시작할 거야”

유라가 그 말을 끝내고 얼마 안 지나 군인 네 명이 원형 철조망을 걷어서 어둠 속으로 되돌아가버렸다.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아니지만 준구에게는 소름끼치는 모습으로 다가왔다. 유라가 목표물을 힘들여 끝까지 쫓아가지 않더라도 목표물은 이 마을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굳이 이 모습을 나에게 보여준 건 왜지? 행복하란 거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네게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만약 네가 어떻게든 지키고 싶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수단도 가려선 안 된다면...”

“당연하게 보이는 질문인데? 당연히 수단과 방법은 가리면서 해야지.”

준구의 즉답에 유라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마스크에 얼굴이 반쯤 가려져 있어 준구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네게 가장 소중한 것이 정의라서 그러냐. 정의를 위해 불의한 방법을 쓴다면 모순이 생길 테니.”

“아니, 그 질문 자체가 부당함을 강요하기 때문이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도 지키고자 하는 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 방법론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건 변명일 뿐이야.”

“다수가 불의를 바라다면?”

“그럴 일은 없어. 소수는 그럴 수도 있지만, 불의를 원하는 건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야. 물론 악한 사람이야 존재하지. 그러나 불의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수였던 적이 한 번이라도 존재하면 지금의 문명은 존재할 수 있었던 걸까?”



“소수가 불의를 바랄 수는 있단 거네. 그럼 그 소수가 다수의 추천으로 권력을 얻게 된다면? 그리고 다수가 끝까지 소수를 지지한다면? 예를 들어, 나치당은 독일 사람들의 투표에 의해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았지. 전쟁을 일으키고도 지지율은 꽤 높은 편이었어. 이 예시가 부당한가? 무엇보다도 네가 하는 말을 잘 생각해보면, 네가 관찰한 것만을 토대로 내린 결론이 진실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단정짓고 있음을 알 수 있지. 하지만 네가 미처 보지 못한 데에도 진실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해 보지 않아?”

“네가 말하고자 하는 진실이 너희의 정의로움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굳이 아까 소수가 불의를 바랄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하는 편이 좋지 않았나. 그리고, 그 진실이 몇몇하다면 내가 관찰할 수 있게 보여주거나 설명해주면 되잖아. 불의한 소수를 다수가 끝까지 지지한다고 해도 그 소수는 정의가 될 수 없어. 그저 다수를 속이는 사기꾼 집단에 불과하지. 결국, 너는 내게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 여기 데려온 게 아니라 내게 유화책처럼 보이는 협박을 하려고 데려온 거야. 난 솔직히 군인들이 친 철조망을 네가 알고 있고 그걸 이용한다는 사실에 소름돋을 정도로 놀랐어. 어떻게 그런 걸 아는지 알려달라 해도 넌 가르쳐 주지 않겠지.”

“흠,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래…….”

유라는 준구의 대답을 곱씹으며 옥상에서 내려갔다. 준구는 옥상에서 철조망이 쳐졌던 골목길을 다시 내려다 보았다. 군인이 깨끗하게 치워서 언제 그런 게 설치된 적 있냐는 듯이 그 골목길은 텅 비어 있었다.

건너편 옥상으로 건너 뛸 수도 있겠지만, 옥상에서 도망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뿐더러 심각하게 위험하였다. 한 번이라도 잘못 떨어지면 즉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옥상을 감시하는 CCTV 같은 건 없다. 더 이상 도망칠 옥상이 없다면 건물에서 지상으로 내려와야만 한다. 궁극적으로 퇴로는 결국 지상의 길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퇴로가 막혀 있다면 자신은 꿈쩍 없이 죽은 목숨 아닌가.

준구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옥상에서 내려갔다. 준구는 벌써 졌다는 생각따윈 하지 않았다. 그저 두 달이 지나기 전에 군인들이 주로 어딜 막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 Chapter 2. 전학생

*Nobody ever saw a dog make a fair and deliberate exchange of one bone for another with another dog. Nobody ever saw one animal by its gestures and natural cries signify to another, this is mine, that yours; I am willing to give this for that.*

- Adam Smith

### Intro

차유라는 초원을 걷고 있었다. 드넓은 초원의 언덕 위에 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다. 나무는 처음 보는 종류였다. 나뭇가지가 마치 양산인 듯 나무의 줄기를 몽땅 그림자지게 만들고도 남았다. 유라는 나무가 있는 언덕에 올라가 그림자 안으로 들어온 다음, 뒤돌아서 초원을 감상하였다. 매우 넓은 초원인데다 잔디가 아름답게 깔려 있었기에 사진을 찍어서 노트북에 바탕화면으로 써도 어울릴 법하였다. 유라는 자연스레 나무에 등을 기대어 앉았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초원을 감상하고 있었다. 초원 너머에는 푸른 수평선이 있었다. 이곳은 아무래도 해안이거나 섬인 모양이었다. 또한 유라는 이곳이 난생 처음 오는 곳이란 것을 느끼고 있었다.

얼마 안 있어 왼쪽에서 양이 한 마리 등장하였다. 양이 너무 멀리 있어서 마치 점처럼 보였다. 양이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유라는 아무 말 없이 쳐다보았다.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느끼지도 않았고 그저 지켜보기만 하였다. 이윽고 처음의 양 뒤에 또 다른 양이 뒤따라왔다. 그리고 목동이 따라왔다.

한가한 일상이다. 어딘지는 몰라도 지구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일 것이다. 이곳에서 싸움이나 갈등, 투쟁, 전쟁을 논하다간 바보 취급을

받거나 전쟁광이란 비난을 듣기에 딱 좋아 보인다.

목동은 유라를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 양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인지 유라가 있는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얼마 안 있어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양이 한 마리 등장하였다. 역시 양이 너무 멀리 있어서 마치 점처럼 보였다. 그에 비해 왼쪽에 있는 양들은 이미 많은 무리를 이루어 새하얀 양이 푸른 초원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고 목동의 모습은 양들 틈에 끼여서 겨우 보일까 말까 하였다. 오른쪽에서 등장한 양도 어느덧 수가 늘어나더니 그 양들 틈바구니에서 목동이 양들을 이끌고 있었다.

유라는 두 목동을 유심히 관찰하였다. 양편의 목동은 양들 틈바구니를 힘겹게 헤쳐 나가더니 한 곳에 만났다. 이런저런 손짓과 발짓을 동원하며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았는데 유쾌한 이야기는 아닌 듯 보였다. 유라는 어느 틈엔가 상황이 심상찮게 흐름을 느꼈다. 양들이 아름다운 초원을 거의 꽉 채워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양들이 지나간 자리에 더 이상 풀은 없었다. 황무지는 바람이 불자 모래가 날릴 정도로 사막이 되었다. 그 많던 양들은 양편으로 몰려나기 시작하고 그 틈바구니 사이로 사람들이 중앙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처음의 목동 둘은 서로의 목살을 잡고 싸워대기 시작하였다. 둘 사이의 싸움은 삼시간에 마을 전체의 싸움으로 변하였다. 맨 주먹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었다. 사람들은 집에서 꺼내온 것 같이 보이는 연장을 들고 왔다. 자루가 긴 튼튼한 삽, 스쳐도 풀이 베일 법한 낫, 녹이 전혀 슬지 않은 망치, 방금 전에도 쓴 건지 흙이 잔뜩 묻어 있는 쇠스랑, 거름을 모아서 높은 곳에 옮길 때나 쓸 삼지창, 그 외에도 농장에서 쓸 잡다한 도구들이 눈에 띈었다. 그리고 그 연장은 임박한 전투에서 양편의 무기가 되어버렸다. 흙먼지와 풀 나부랭이가 묻어 있어야 할 도구들에 어느새 새빨간 피와 살점이 묻기 시작하였다. 유라는 그들을 말리고자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사람들 너머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집들에는 불이 번지고 있었으며, 바다는 사람들이 추락하느라 시체가 둥둥 떠다니며 그 주변으로 피가 번지고 있었다. 유라는 계속 싸움을 말리기 위해 소리쳤다. 자신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소리쳤다.

“————!!”

사람들은 유라의 외침을 전혀 듣고 있지 않았다. 사람들이 죽어나간 자리에 양들이 시체를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한 마리, 두 마리, 네 마리, 여덟 마리… 이것은 가장 간단한 수준의 등비급수를 배운 사람이

라면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었다. 양들이 마치 미생물이라도 된 듯 불어나고 있었다. 유라는 자신이 온몸을 덜덜 떨고 있음을 자각하였다.

양이 사람을 잡아먹고 있다!

사람들이 양떼에 쫓겨 다니고 있다!

마을의 평화가 양떼로 인해 파괴되고 있다!

유라는 양떼를 죽이는 것만이 시급한 해결책을 떠올렸다. 사람이 죽는데 양이 몰살당하는 게 문제인가? 이곳은 더 이상 평화로운 땅이 아니다. 피를 머금고 죽음을 퍼트리는 땅이 되었다. 하지만 유라는 압도적인 수의 양떼를 어떻게 빨리 죽일지 알 수 없었다. 유라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란 게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마을 주민들의 연장이라도 빼앗아서 양떼를 죽이려고 나무가 드리운 그림자 밖으로 한 걸음 뻗을 때, 뒤에서 굉음을 울리는 기계 소리를 들었다. 유라가 뒤를 돌아보자 거대한 벌목용 크레인인 유라 곁에 서 있던 나무를 집게로 짊어잡아버렸다. 유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뒷걸음질을 쳤다. 중장비의 거대한 원형 톱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돌기 시작하였다. 엄청난 양의 톱밥을 사방에 뿌리며 나무는 불과 수 초 만에 베어졌다. 유라는 중장비를 운전하는 기사를 볼 수 없었다.

“—————!!”

그리고 중장비 기계 뒤에 펼쳐진 광경에 유라는 전율이 돋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엄청난 규모의 도시가 땅에서 솟아나기 시작하였다. 회색빛 도는 도시는 신철사와 완벽하게 대칭적으로 달랐다. 공장 굴뚝으로는 핏빛 연기가 치솟고 있었고 골목길 사이로는 양들이 폴짝폴짝 뛰어다니다가 인간에게 잡혀서 두들겨 맞고는 어디론가 질질 끌려갔다.

유라는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아까의 아름답던 풍경을 멋지게 연출하던 초원은 이제 지상에 군림한 지옥을 연상시키는 듯 보였다. 엄청난 양의 피가 사막 곳곳에 웅덩이로 고여 마치 붉은 오아시스를 연상케 하였다. 그런 오아시스가 사막의 면적보다 더 넓어보였다. 방금 전만 해도 그 많던 양들은 어디로 사라지고 사람들이 일개미 군락처럼 불어나 있었다. 양들은 사라진 게 아니다.

사람이 양을 때려잡고 있다!

양떼가 사람들에게 쫓겨 다니고 있다!

마을의 평화가 사람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다!

유라는 불현듯 자신을 지켜주던 나무 그림자가 사라졌음을 깨달았

다. 그런데도 햇살이 느껴지지 않은 까닭은 공장 굴뚝에서 치솟은 연기가 시커먼 구름을 만들어내 태양을 가려버렸기 때문이다. 태양을 삼켜버린 시커먼 구름은 굵직한 빗방울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해안을 감싸던 파도는 성난 듯 해안을 집어삼키려 밀려들었다.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유라는 피신하기 위해 도시 사이로 들어섰다. 비는 투명한 색이 아니었다. 공장 연기에서 보낸 온갖 화학물질을 머금고 있었으며 타인의 땀이 묻은 것보다 더 불쾌했으며 왠지 모르게 점성이 있어 보였다. 유라는 도시 곳곳에서 애정 행각을 아무렇지 않게 벌이는 남녀를 보았다. 뒤를 보아도, 왼쪽, 오른쪽, 앞쪽 어디를 가리지 않고 인간투성이다.

남자, 여자, 사람, 넘쳐나는 사람, 인간, 불어나는 인간, 사회, 수용할 수 없는 사회, 자연을 파괴한 사회, 세상, 비극을 멈출 수 없는 세상

---

남녀가 영켜서 길 위를 구른다. 그 뒤로 아기가 기어 다닌다. 도시 너머에는 광산이 있다. 나무를 베는 기계 따위는 비웃을 정도로 더 거대한 채굴 장비가 산을 깎아내린다. 산사태로 도시 한쪽이 산에 묻힌다. 그리고 나무가 솟아나듯 무너져 내린 토사물 위로 새로운 건물이 솟아난다. 어느새 산은 사라진다. 초원이 사라진 지는 오래.

그 많던 인간들은 해안 밖까지 팽창할 정도로 많은 무리를 이루었으나 사라졌다. 이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는 데는 이렇게 좁은 땅으로는 무리였던 것이다.

이들은 저주에 걸렸다. 영원히 묶여 있어야 하는 족쇄에 붙잡혔다. 그것은 함정이었다. 양보, 배려, 반성, 성찰, 그리고 자각 없는 욕망이란 트랩이 이들을 지옥 끝까지 데려온 것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었다.

전쟁, 돌림병, 학살, 폐죽음은 겨우 저주의 부산물일 뿐이었다. 이 정도로는 이들을 파멸시킬 수 없었다.

이들은 인구라는 이름의 저주로 자멸하였다.

비가 멈추고 작열하는 태양이 도시를 내리쬐자 사람 없는 황폐한 건물이 먼지가 되어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유라는 어느새 온몸에 돋았던 소름도 사라지고 손에는 흥건히 땀이 배여 있음을 느꼈다. 유라가 보았던 아름다운 초원은 더 이상 없다. 거대한 도시도 없다. 거대한 광산도 없다. 수많은 양떼도, 수많은 인간도, 인간을 연결해 주던 사회도, 사회를 포용하고 자신이 파괴됨에도 끌어안고 있던 자연도, 모두 사라졌다. 모든 게 사라진 자리엔 말라붙은 핏자국으로 얼룩진 사

막이 남아 있었다. 먼지투성이 도시의 터가 남아 있었다. 이 모든 광경에 경고하던 차유라가 남아 있었다.

“배가(倍加)는 그 스스로를 무한히 낳는다……. 무한은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모두가 함께 쓰던 땅 위에는 이제 아무도 없다. 이야말로 진정한 비극이다. 어떤 이상향도 그 스스로를 제어할 힘이 없다면 순식간에 자멸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한 번 발을 놓으면 어떠한 신성한 메커니즘으로도 막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자본주의로도, 스스로 얼마 없는 대안이라 자신하는 사회주의조차도, 사람을 멍치게 하는 민족주의로도, 고도의 연대를 추구하는 아나키즘도, 모두가 無用하다.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이란 존재하는 그 자체로도 잠재적인 살인자가 된다.

유라는 자신의 손을 쳐다보았다. 흥건하게 젖어있던 땀이 어느새 마르고 자신의 몸이 먼지로 흩어짐을 느꼈다. 이 피할 수 없는 법칙에는 유라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유라는 침대 위에서 깨어났다. 잠에서 깨어날 땐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유라는 눈물을 훔친 다음, 자신의 손바닥을 보았다. 땀은 배어있지 않았다. 어깨가 조금 옥신거렸지만 상처가 벌어진 느낌은 아니었다. 샤워하기 전에 준구에게 전화를 거는 게 좋을 듯 보였다. 그러나 휴대폰을 열어보고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직 새벽 4시였던 것이다.

유라는 똑같은 악몽을 다시 한 번 더 꾸지 않길 바라며 침대에 다시 누웠다. 아침에 준구를 깨우면 봉대를 좀 갈아달라고 부탁해야겠다고 다짐했다.

## 2.1

사람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온갖 문제와 병폐를 끌어안으면서도 멸망하지 않고 굴러가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국가는 흥망성쇠를 겪으며 끝내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사람이 존재하는 한, 사회는 존속한다. 무엇이 사회를 존속시키게 하는 것일까. 누군가 일부러 그러려고 해서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 이기에 사회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이다.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더라도, 지향하는 미래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인식하는 역사가 다르더라도, 사람에게 감정이 있는 한,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한, 사회는 시끄럽든 조용하든 굴러갈 것이다.

개인은 어떤 식으로든 사회에 속하며 의지하며 살아간다. 개인은 위기에 처하면 사회에 도움을 요청한다. 이는 역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어떤 사회가 건전하게 굴러가는 사회인가를 알려면, 그 사회에 문제가 없다는 것보다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주목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또 다른 매우 심각한 문제의 징후를 의미하기도 한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 마찰이 없을 수 있을까. 마찰이 없는 사회는 오로지 개인 모두가 벽돌처럼 딱 끼워 맞춰진 세계에서나 가능하다.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서 이탈할 수 없으며, 모두 같은 모양, 같은 방식, 같은 틀에 끼워 맞춰지면 충돌은 없겠지만, 그런 세계가 과연 좋은 세계일까. 정체된 사회는 진보하는 사회에 상대적으로 뒤쳐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신설시는 문제를 안고 있는 사회이다. 이곳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가벼운 문제는 공정하게 처리된다. 그러나 무거운 문제는 법이 명백하게 무시되면서 해결된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안은 사회가 아니다. 해결되는 문제가 문제될 방식으로 해결되고 거기에 어느 누구도 따지려 들지 않기 때문에 문제이다.

휴대전화기를 붙들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다. 지금이야말로 타인의, 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랑하는 딸이 행방불명되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납치범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는 오로지 침묵만이 존재했다. 납치범들은 이 불쌍한 부모를 비웃는 듯 갖고 노는 게 분명했다. 몇 차례 전화를 걸어서 이 부모라는 무력한 존재에게 몇 마디 협박과 몇 마디 정보만을 조심스레 노출시켰을 뿐,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소녀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 이 녀석들은 분명히 프로일 수밖에 없으므로.

한 소녀의 간절한 비명이 희미하게 들렸지만, 입막음을 한 모양인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는 그 소리만으로도 비명을 지른 사람이 자신의 딸임을 알아차렸다. 기분 나쁜 침묵에 신경질이 났다.

“네 녀석들 대체 누구야!” 『말조심해. 네 딸은 우리에게 있다.』

납치범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딸이 살해당할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저 건방진 말투쯤은 얼마든지 넘어가 줄 수 있다.

“대체 원하는 게 뭐요……?!”

상대는 이런 일을 많이 해 본 모양인지 여유로움마저 느껴졌다. 부

모는 납치범의 그 여유로움에 치를 떨었다.

『당연한 거 아니냐? 돈이지.』

“어, 얼마나?”

『얼마나 줄 수 있냐?』

젊어 보이는 목소리이건만 무척이나 건방지기 짝이 없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 제발 우리 딸만은…”

중년의 남자는 울먹거리며 납치범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려 했다.

『사실 본 목적은 돈이 아니지만.』

납치범의 요구를 전해들은 아버지는 허탈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다.

### 2.1.1 2037년 4월 20일. 월요일.

유라가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준구가 목격한 지도 벌써 일주일이 흘렀다. 또한 준구가 집에서 혼자 기거한 지도 똑같이 일주일이 흘렀다. 준구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그 아버지란 사람이 6개월 동안 집을 비워버렸기 때문이다. 준구의 어머니는 준구의 기억에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준구의 아버지는 준구에게 어머니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준구는 자신이 어머니에 대해선 아버지가 입을 열 때까지 모르는 채로 기다리는 편이 낫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하는 생활은 매우 단조로웠다. 집에는 TV 같은 것도 없고, 아버지와 할 얘기랄 것도 그다지 없었다. 어릴 적엔 그래도 아버지가 많은 얘기를 준구에게 들려주었다. 물론 어느 것도 제대로 알아들은 것은 없었지만 지루하진 않았다. 그러나 준구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그런 생활은 변해버렸다. 준구가 모든 얘기를 이해해 버린 게 아니었다. 준구의 아버지가 입을 닫아버린 것이다. 마치 방전된 라디오라도 된 듯, 필요 최소한의 대화 이외에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 준구가 심하게 아버지와 다툰 이후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단절은 해결되기는커녕 더 심해졌다. 준구의 아버지는 아들이 얼른 독립하길 원하는 듯이 보였다. 마치 짐이 되어버린 양육 의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시간을 하루하루 회피하는 사람 같았다.

준구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지만, 아버지의 직업상 집안에 책이 많아 적막해도 괜찮았다. 그러나 가족에서 타인으로 변해가는 누군가와 좁은 공간에 함께 있다는 것이 불편하였고, ‘학자로서의 김



하준은 존경해도 아버지로서의 김하준은 별로'라는 결론에 거의 이르렀을 때, 차유라가 관련된 '사건'을 목격해 버렸다. 그리고 버팀목이 되어줘야 하는 아버지란 존재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듯이 집안에서 사라졌다. 물론 6개월 뒤엔 돌아오겠지만, 준구는 집에 아버지가 있던 없든 신경 쓰지 않았다. 준구의 신경은 오로지 차유라에게 쏠려버렸고, 단조로운 생활이 잠시 끝나서 다행이란 생각마저 들었다. 기대한 적 없지만 덤으로 아침 식사도 준구 혼자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좋아졌다.

어찌된 영문인지 신문에 실리지도 않는 소문을 잘도 퍼뜨리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그 소문에 의하면 납치범은 20명 정도의 전문 범 죄자고, 피해자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어디서 얻게 된 정보인지 몰라도 살인 청부업자에게 연락하여 그 20명을 모조리 죽이게 했다고 한다. 그리고 살인 청부업자는 한 명이 아니라고 한다.

“야~ 정말 무섭지 않냐? 연쇄 살인마가 단순히 미친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전문적인 살인 청부업자였대. 이렇게 생각하면 어귀가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냐?”

자그마한 체구에 은테 안경을 쓴 이 변태 친구는 이런 소문 수집에도 일가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미 살인마의 정체를 아는 준구로서는 별로 흥미로운 주제가 아니라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뭐 어쨌단 거야. 우리가 죽을 일은 없는데. 그나저나 넌 그런 소문은 대체 어디서 주워듣는 거야?”

“부모님한테서도 듣고 친구들한테서도 듣고 교무실에 들락날락거리면 선생님들 커피 마시면서 잡담할 때 주워듣기도 하고.”

“네가 소문의 근원지는 아니구나.”

“아무튼 이 마을을 장악한 살인마들은 한둘이 아니고 그들을 건드리기엔 경찰도 역부족이란 거지.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냐? 언론에서 기사를 쓴다 해도 얼른 소탕될 거 같지도 않은데 말이지. 괜히 증거가 안 남는 게 아니었어.”

지적할 곳이 상당히 많지만 구태여 친우의 말을 지적해서 자신의 지적 능력을 소모시키고 싶지 않았다. 안 그래도 준구는 아침부터 무리해서 일찍 일어나느라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평소처럼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 잠이 필요했다.

“평소답지 않게 왜 이리 기운이 없어?”

철수가 준구의 어깨를 붙들고 흔들어도 준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아~ 귀찮으니까 날 좀 냅뒀라.”

“이건 혹시... 상사병인가!”

“그 상사병 한 번 더럽게 늦게 오네.”

준구는 귀찮은 듯 대답했기에 철수는 더는 캐묻는 짓은 그만하였다. 대신에 다시 이야기의 주제는 소문으로 되돌아왔다. ‘눈치를 좀 가져라, 제발!’이란 속마음이 튀어나오려 했지만 철수의 얘기가 상당히 자극적이라 재미가 없는 건 아니었다.

스무 명이나 되는 전문 범죄자 팀이 한 명을 납치해서 부모를 협박하려다 되레 몰살당한 이번 사건은 수상한 점이 몇 가지 있었다. 어찌서 한 명을 납치하는데 스무 명이 동원되어야 했을까? 한 명을 납치해서 피랍자의 부모나 다른 관계자를 협박하는데 그 정도의 인원은 필요하지 않다. 더구나 그 스무 명은 실패 수준을 넘어서 모조리 몰살당했다. 준구는 마지막 한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차유라가 한 명씩 쫓아다니며 죽였을 것이란 생각은 하였다. 그러나 스무 명이 뿔뿔이 흩어진다면 누군가는 살아남았을 것이다. 납치범이 살해당한 이상, 무엇을 요구하려 했는지는 협박당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되는 셈이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그 인원으로 은행을 터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다.

살해 수범은 이해해도 시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또한 이해할 수 없었다. 그 골목길은 적은 수이긴 해도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하러 가는 길이다. 유라가 자신과 함께 등교하기 전에 잠이 든 것을 보았다. 시체는 유라가 치우지 않았을 것이다. 누군가가 유라를 돕고 있다.

준구의 머릿속에서 전개되는 기초적인 추리와는 별개로 3학년 1반의 그 어떤 학우들도 김준구가 두 달 동안 차유라의 가방을 대신 들어줘야만 하고, 심하면 각종 잡무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준구가 유라네 집에 가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유라는 빨래든 밥 짓는 것이든 물건 옮기는 것이든 뭐든 귀찮은 일이 있으면 준구에게 시켰다. 준구에게 선택권이란 없었다. 다행인 것은, 준구가 유라의 아버지를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뿐이었다.

교실 문이 열리며 이백향 선생이 들어왔다. 학기 첫 수업 때는 문을 쾅 여닫았지만, 선배 교사에게 주의를 들은 것인지 이제는 조심하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백향 선생 뒤를 따라 처음 보는 아이가 들어왔다. 이백향 선생이 교탁에 멈춰서고 그 옆의 아이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반의 학우들을 쳐다보았다.

“제군,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전학생이다. 모두 친하게 지내도록. 안 그러면 어떻게 될 지 말 하지 않오마.”

백향은 빙긋 웃으며 열중 쉬어 자세에서 오른손 주먹만을 잠깐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다시 열중 쉬어 자세로 돌아왔다. 체벌이란 게 교육 현장에 사라진 지 십 수 년이 흘러서 이백향 선생이 진심으로 무력시위를 하지 않을 것이란 건 모두 알고 있었다. 결론은 허물없는 장난일 뿐이다.

백향은 희한하게도 학생들을 제군이라 부르는 데에 익숙해 있었다. 하도 그렇게 부르니 학생들도 선생이 그런 식으로 부르는 데에 별다른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였다. 하지만 딱딱한 선생의 말투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전학생은 많이 움츠러들었는지 계속 자기 발밑만 쳐다보았다.

“자, 인사하고 네 소개해야지?”

전학생은 선생의 말에 애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 자기 소개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시선은 좀처럼 정면을 바라보질 않았다. 웬지 두려움에 떠는 「다람쥐」 같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는 정적이 흘렀다. 백향은 당황하지 않고 학생들의 주의를 끌었다. 이 전학생이 이렇게 나올 줄 미리 안 것 같은 태도였다.

“혹시 혜원에게 궁금한 거 없나?”

그 때, 남철수가 손을 번쩍 들면서 질문하였다.

“반갑습니다! 저는 남철수라고 합니다. 취미나 특기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딱히 없습니다.”

전학생은 무지 음울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살인마인 차유라도 그 정도로 암울하거나 심각하지 않았다. 살인이 얼마나 중차대한 범죄인지 유라가 아직 자각을 못 한 탓이 크겠지만.

“그럼 한 가지 더! 좋아하는 과목은 뭐가요?” “...사회 과목을 좋아합니다.”

“그럼 사회 과목 중에 어느 게 제일 좋나요?” “...다 좋습니다.”

어찌 보면 무성의해 보이는 대답이다.

“전 굳이 꼽자면 경제학이 제일 좋습니닷!”

전학생은 묻지도 않았건만 철수는 제멋대로 자신을 어필하고 있었다. 철수의 열기가 전해졌는지 혜원도 바닥을 내려다보던 시선을 살짝 들어 철수를 바라보았다. 눈이 마주치자 혜원은 이내 바닥에

시선을 떨어뜨렸다.

“…굳이 꼽자면 역사학이…”

순식간에 차였다!

철수의 열의로 간신히 완벽하게 무성의한 대답은 피했지만, 누가 봐도 철수가 작업을 걸었다가 차인 모습이 되어버렸다. 이쯤 되면 질문을 그만둘 만도 하건만, 무대 공포증이 있을지도 모르는 애한테 남철수는 반장다운 건지 바보 같은 건지 마지막 질문을 하였다.

“혹시 어떤 사람이 이상형입니까?”

“…….”

준구였어도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야, 남철수! 전학생한테 쓸데없는 질문 할래?!”

참다못해 면박을 준 것은 철수 뒤의 현경화였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면박에 움찔한 것은 박혜원이었다. 경화는 그런 혜원의 태도에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 미안. 난 현경화라고 해. 아까 계속 바보 같은 질문을 해댄 애는 우리 반 반장이야. 저, 괜찮다면 나도 질문 하나 해도 될까?”

“…하세요.”

“저……, 혈액형은 뭐야?” “…A형.”

“그럼, 키는 어떻게 돼?” “…마지막으로 잤을 땐 159cm.”

철수와 비슷하지만 아슬아슬하게 철수 쪽이 조금 더 크다. 경화는 질문할 거리가 다 떨어졌는지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럼 질문은 다 끝난 거지?”

백향이 그렇게 말하자마자 준구가 손을 들고 질문하였다.

“나는 부반장인 김준구라고 해. 앞으로 잘 부탁한다. 너, 사회 과목 좋아하면 앞으로 고교는 상고로 진학할 거야?”

사회 계열 과목을 전공하고자 하면 누구나 일단 상고에 진학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물론 이에 대한 대답은 “…응.”이란 간단한 한 마디였다.

“부산으로 갈 거야, 서울로 갈 거야?” “…집에서 가까운 부산이 나야.”

“나는 부산 D상고에 진학할 거야. 혹시 그쪽 고교에 진학할 거라면 함께 공부하자.”

그 말에 반 애들이 “오오~”하면서 준구를 일제히 쳐다보았다. 철수가 옆구리를 찌르며 물어봤다.

“수진이는?”

“그런 거 아냐.”

“나보다 먼저 탈영하면 죽여 버릴 거야. 교내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날지도 몰라.”

말투는 장난처럼 보였지만 표정만큼은 진지하였다.

“넌 예전에 연애 한 적 있잖아, 이 망할 놈아.”

준구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표정을 지었다.

“질문의 시간이 끝났으면 저기 뒤쪽에 자리가 남았으니 그쪽에 앉아. 오늘은 혼자 앉지만, 어차피 먼저 등교 하는 아이가 자리를 마음대로 앉으니까…… 지각하는 애가 혼자 앉겠지?”

이 반은 따로 자리가 지정되지 않았다. 말 그대로 먼저 온 아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 구조다.

혜원이 자리에 가서 앉자, 백향은 수업을 시작하려 했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해 볼까, 제군! 오늘은 2020년 중국발 무역 충격과 그 영향에 대해서 해 보자. 물론 공급과잉의 개념은 다들 알고 있지?”

모든 이들이 교과서를 펼칠 동안 준구만 연습장을 펼쳤다. 준구에게는 그것이 그의 교과서였다. 준구 옆의 철수는 연습장에 빼곡히 적힌 타인의 글씨를 보고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 2.1

납치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디딤돌 같은 행위지만, 일단 납치를 시도했다면 그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된다. 납치는 다른 범죄와는 구별되는 요소가 있다. 폭행, 강도, 살인, 방화, 사기 등의 범죄는 아무리 사건 내용이 복잡해도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구도가 된다. 그러나 납치는 거기에 한 명이 더 추가된다. 바로 직접적인 피해자의 관계자이다.

가해자를 갇, 직접적인 피해자를 을, 을의 관계자를 병이라 하자. 갇은 을보다 강하지만 병보다 약하다. 갇이 병보다 강하면 납치란 수단을 쓰지 않을 것이다. 병에게 을은 소중한 존재여야 갇이 을을 납치한다. 그렇지 않으면 갇은 헛수고를 하는 셈이 된다.

이렇듯 갇은 전면적으로 병 앞에 나서서 범행을 저지를 수 없으므로 을을 납치하는 셈이 된다. 이는 매우 비열하고 파렴치한 행위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선 머리를 많이 써야 한다. 여기서 원만한 해결이란 을과 병이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으면서—정신적 피해는 이미 을이 납치된 시점에서 을과 병에게 발생하므로 물리적 피해에 한정한다—

갑이 붙잡혀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소극적인 방법에서 적극적인 방법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나뉜다. 소극적인 방법은 일단 갑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다. 갑의 요구와 을을 동시에 교환하면 을은 무사해진다. 그 뒤 갑을 추적해서 잡으면 갑이 부당하게 취득한 것을 도로 되돌릴 수 있다. 적극적인 방법은 갑과 교섭하는 척하면서 갑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갑을 무력화시키는 방법 또한 여러 가지인데, 갑에게 소중한 사람을 인질로 삼는 또 다른 차원의 납치를 행하거나 갑이 을에게 상해를 입히기 전에 갑을 저격 등의 수단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위의 방법이 통하려면 납치를 금지하는 당국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당국의 도움을 얻길 주저한다. 들키면 을의 신변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버지는 전화를 받고 한동안 계속 바람을 쐬며 애꿎은 담배만 죽 피워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스무 명이나 되는 녀석들은 근래에 납치 사건을 저지르고도 경찰에 붙잡히지 않은 지능범이다.

납치범의 요구를 들어주고 딸을 되찾는 게 빠른 해결책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저들의 요구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저들의 요구에 응하면 당장 딸을 다시 볼 수 있겠지만,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게 된다. 이 마을도, 이 나라도, 이 세상도.

아무 말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지만 욕지기가 나올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버지 앞에 나타난 것은 3년 전부터 자주 놀러오던 이웃 마을의 꼬마였다. 키가 작아서 꼬마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딸과 동갑이다.

“오늘도 놀러온 거니.”

“네.”

“미안, 오늘은 혜원이가 좀 늦을 거 같구나. 친구네 집에서 놀다가 온다고 했단다.”

“그렇나요……. 그럼 내일 올게요.”

“음? 어……, 그러럼.”

꼬마는 웃으며 떠날 때 손을 흔들었다.

아버지는 시계를 들여다 보았다.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 2.1.2

“…그러니까 2021년의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간 까닭에 정부는 조급해졌고, 그 결과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지.

정부가 화를 자초한 셈이야. 사회가 무너지려는 상황에서 제도적 개혁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당연히 나타났지. 하지만 대세는 이미 야당에게 기울어졌고, 국민은 지난 15년을 청산할 기회를 손에 넣었어. 개헌, 세금, 교육을 공약으로 한 야당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개혁을 밀어붙인 배경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이백향 선생은 오늘도 흥분에 못 이겨서 교탁을 주먹으로 탁 치며 아이들에게 사회 문제를 읊었다. 그러나 그 말에는 지적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다.

“선생님, 그로부터 15년 가량 또 지난 오늘로서는 당시의 개헌, 세금, 교육에 대한 제도적 개혁이 당시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니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더구나 올해도 대선이 치뤄지는 해인데, 현 여당은 당시의 상황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자신들이 집권하기 이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반성이라곤 볼 수 없다고 느껴지는데 말이죠.”

민주주의를 아주 숭고한 가치로 여기며 학교생활에 열심히 임하나 그 가면의 뒷모습엔 살인마가 존재하는 차유라의 반론에 이백향 선생은 팔짱을 끼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두 유라의 말에 동의해?”

교실은 다소 적막감이 감돌았지만 별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백향 선생은 잠시 숙고하더니 대단한 결단을 내린 듯 유라를 손으로 가리켰다.

“앞으로 차유라의 발언 횟수에 제한을 걸겠다!”

“앗, 왜요, 선생님?”

납득할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유라가 항의하자 백향은 어깨를 으쓱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는 투였다.

“하지만 좋은 의견은 네가 다 먼저 얘기하는 걸. 내가 지향하는 수업은, 모두가 깊은 고찰을 해서 사회에 의견을 표명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넌 지금 발언권을 독점한단 생각 안 들어?”

“웁습니다!”

남철수가 만세 삼창이라도 외칠 기세로 백향의 말에 찬성하였다. 교사의 앞잡이가 다 되어버린 반장의 한심한 모습에 경화가 둔기나 다름없는 교과서로 철수의 뒤통수를 가볍게 후려쳤다.

“다음엔 네 의견부터 제대로 표명하고 옳고 그름을 얘기해.”

막판에 와서 수업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해원은 다른 학교에선 이런 식의 수업을 받지 않은 건지 매우 신기한 듯이 교사를 응시했다. 백

향은 멧쩍은 미소를 지은 뒤 손목시계를 보았다.

“수업 시간은 여기서 끝. 현대사는 정말 중요한 거야. 모두 제대로 공부해.”

백향이 출석부를 옆구리에 끼고 철수에게 손짓을 하자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열중쉬어 자세로 늘 그랬듯이 철수가 선창하고 나머지가 재창하였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수고했어! 종례시간 때 보자, 제군.”

백향 선생이 퇴장함으로써 수업이 끝났다. 그리고 수업 종료와 함께 학생들의 잡담이 시작되었다. 1시간 50분 동안 계속된 수업 끝에 주어진 10분이란 휴식 시간이 꿀맛 같지만, 이럴수록 잡생각은 빨리 친구들과 공유하는 게 좋았다.

“선생님은 항상 바빠 보인다니까. 무척 조급해. 그런데도 교재의 절반을 넘겼어. 아직 4월인데.”

“상고로 진학할 거라면 그 정도는 벌써 다 알고 있지 않나?”

마치 경제학을 전공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학부 수업을 듣기 전에 이미 역사를 모두 독파했을 거 아니냐는 듯한 말투였다. 준구는 철수의 상식 같지 않은 상식에 반론을 가하고 싶은 묘한 호승심이 일어나긴 했지만 구태여 철수의 상식을 뒤엎으려 하진 않았다. 쉬는 시간에 모든 논쟁을 끝마칠 수 없기 때문이다. 철수와 준구는 또 다른 얘기를 하며 교실 뒤의 사물함에서 다음 수업 교재를 꺼냈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글씨도 작으데다 여백도 작고 500페이지를 거뜬히 넘기는 것뿐이라 사물함은 무상으로 지급된다. 물론 사물함을 파손하는 사람은 벌금을 내게 된다. 누군가 교과서의 인쇄 표준양식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어떤 성실한 중학생이라도 그 규격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글씨 크기가 옛날보다 작아졌다든지, 상하좌우 여백은 단 1cm 이내라든지, 헛되이 종이를 낭비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묻어나오는 짹짹 들어찬 텍스트 등등. 따라서 사물함 지급은 너무도 당연한 정책이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그 교과서를 단 몇 주 만에 독파해서 연습장에 옮기려 시도한 학생이 있다면 그는 대단한 노력파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준구는 그런 노력파의 연습장이 아무 것도 아닌 양 사물함에 넣었다. 물론 그 연습장은 이미 걸표지는 햇볕에 너무 많이 노출된 탓에 변색이 되었고, 옆면의 종이는 너무 많이 만져서 너털너털해졌고,



스프링 곳곳에는 코팅이 벗겨졌다. 당장 버려도 할 말 없을 것 같은 연습장을 준구는 2년 넘게 쓰고 있다는 걸 철수는 알고 있었다.

학생들 모두가 자신의 사물함에서 책을 꺼내러 교실 뒤를 오갔다. 하지만 단 한 명, 오늘 전학 온 박혜원은 사물함이 없는 탓에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준구는 책을 꺼내다 말고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응시하였다. 누구도 말을 걸어주지 않아 홀로 고개 숙여 책상을 바라보는 혜원의 모습이 외로워 보였다.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지만 혜원이를 응시하는 사람은 준구만이 아닌 모양이었다.

“그러고 보니 윗마을의 납치 사건 피해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 갔다고 하지 않았어?”

여자 아이들이 재잘거리는 소리가 준구의 귀에도 들렸다. 자기네들만에는 조용히 소리를 죽여서 하는 얘기겠지만, 아마도 혜원의 귀에도 들렸을 것이다.

“어떻게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안 하고, 납치범을 죽여라고 사주한 걸까? 무서워라. 그럼 재한테 잘못하면 우리도 죽는 거야?”

모두가 소문을 가지고 억측을 일삼고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혜원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 준구는 혜원이가 상처받는 것도 걱정되었지만, 혜원이를 나쁘다는 듯이 말하는 아이들의 안전도 조금 걱정되었다. 분노가 담긴 강렬한 눈빛으로 현경화가 그들을 말없이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철수, 네가 반장으로 뭔가 나서야 되지 않겠어?”

준구가 철수에게 그렇게 말하는 그때, 뒷자리에서 손바닥으로 책상을 강하게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교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자리에 모였다.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현경화가 아니라 차유라였다. 유라는 기세 좋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애들을 바라보며 단호한 어조로 얘기했다.

“너희들, 박혜원이 소문의 주인공이라 해서 이렇게 따돌릴 까닭이 있어? 혜원이에 대해서 나쁘게 수군거리는 애들은 모두 불의에 가담하는 녀석들이고, 이를 묵인하는 녀석들은 불의를 눈감는 못난 자식들이야.”

모처럼 차유라가 박혜원을 감싸고도는 말을 했다. 워낙 정의감에 불타서 하는 말이라 탄축을 걸 사람이 없어보였다. 여기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유라와 경화를 적으로 삼겠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학교 생활을 관두겠다는 뜻이기도 하였다.

“진짜 무서운 건 너희들이야. 누군가는 근거 없는 날조된 소문을 뿌리고 다른 이들은 그게 올바르지 않다는 걸 알면서 묵인하고 있잖아. 그리고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 납치범이 한 명이겠어? 그 여러 명을 살인청부업자가 하나가 어떻게 다 처리하겠어? 상식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유라의 말에 교실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고, 경화는 흥흥한 눈빛을 거두었다.

이것도 고도의 심리전인 것일까? 성인들도 다 살해당하는데 너 혼자서 어떻게 자신을 감당하겠냐는 일종의 우회적인 협박일지도 모른다.

“지금 事件의 本質이 糊塗되고 있군.”

유라의 옆자리에 앉은 현경화가 혼자 팔짱을 낀 채로 이 얘기에 끼어들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사라졌지만 학급에는 혜원을 제외하고 모두들 ‘드디어 올 게 왔다!’는 식의 시선으로 경화를 쳐다보았다. ‘사건의 본질이 호도되고 있다’는 표현은 현경화를 상징할 정도로 자주 쓰이는 문장 중 하나였다.

“유라 말대로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린 아무도 몰라. 설사 그 소문이 다 사실이라고 해도 변하는 게 뭐지? 근본적으로 소문의 주인공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란 걸 명심해. 피해자를 비난하는 너희들이 오히려 가해자인 거야. 실망이다. 우리 반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경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혜원이 앉은 자리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박혜원이라고 했지? 난 검도부 부장인 현경화라고 해. 학급에선 총무 역할을 맡았지. 앞으로 1년 간 잘 부탁해.”

경화가 먼저 손을 내밀자 혜원어도 그 손을 잡았다.

“나도 앞으로 잘 부탁해…….”

그 둘은 가볍게 악수를 하였다.

“너, 아직 동아리 가입 같은 건 안 했지?”

“으응……? 응.”

경화는 미소를 지으며 종이를 하나 건네주었다. 다들 그 모습에 대체 저 종이는 어디서 튀어 나온 건지 의아해 했다.

“검도부에 들어와.”

경화가 씩 웃으며 그 종이를 혜원이 자리에 올려놓았다. 혜원이가 그 종이를 들여다보니 ‘검도부 입부 희망서’라 적힌 글귀가 상단을 커다랗게 장식하고 있었다.

“참고로 차유라도 같은 검도부야. 모두가 네 친구가 될 의향이 있는

올곧고 정의로운 녀석들뿐이지. 걱정 안 해도 돼.”

“고마워. 나, 검도부에 들어갈게.”

혜원이가 볼펜으로 부 활동 가입 신청서에 자신의 이름과 학번을 기재하고 경화에게 건네주자, 경화는 매우 흡족한 미소를 띠었다. 경화는 그 종이를 잘 접어서 안주머니에 집어넣었다.

“하하! 이걸로 부하가 한 명 더 느니까 기분이 좋네?”

말로는 부하라 표현해도 사실 경화는 착한 학생이다. 하지만 착한 것과는 별개로 교우관계가 좁은 편이다.

“부장! 그래도 부하라니……. 잠깐, 그럼 나도 네 부하였어?!”

“물렀나? 그래도 넌 원래 검도부 멤버니까 음… 동지 정도로 쳐줄게. 하하!”

결국 유라와 경화의 개입으로 혜원이가 따돌림을 당할 뻔한 사태는 무마되었다. 혜원이는 평온한 학교생활을 보장받은 것이다.

준구는 과연 유라가 소문의 살인 청부업자였다는 사실을 경화가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 궁금하였다.

## 2.1

고도의 문명을 이룩한 사회이든 미개한 수준의 사회이든 사람이 모인 사회에서는 交換이란 행위가 발생한다. 교환이란 행위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곳을 시장이라 부른다. 시장은 사회가 발전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러기 위한 토대이기도 하다. 시장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한다. 거기에선 재화와 용역이 신용이나 화폐를 수단으로 해서 거래된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자유롭지만 거기엔 몇 가지 규칙이 발견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생긴 규칙과 의도적으로 만든 규칙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스럽게 생긴 규칙은, 누구나 어떤 재화나 용역에 대해 그 값을 치를 능력이 되며 그 값을 치르는 사람은 그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만든 규칙은, 특정한 재화나 용역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도록 금지하거나 덜 거래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특정한 재화나 용역이 덜 거래되거나 아예 거래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너무도 명백하기에 법으로 규제를 한다. 금지는 완벽한 규제에 속한다. 그러나 이런 규제도 사회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총기의 경우, 한국에선 민간인 사이에 총기를 사들이는 것은 극히 어려우며 용도 또한 제한적이다. 반면 미국에선 한국에 비해 총기를 사들이는

것이 너무도 쉬우며 범죄에 악용되는 사건이 많은데도 연방정부는 손을 못 쓴지 오래 되었다.

총기의 경우 두 국가는 너무도 차이를 보이지만, 살인 청구의 경우 두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허용하지 않는다. 범죄 행위가 일종의 서비스로서 시장에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하면, 그 서비스에 의해 사회가 망가질 것이다. 따라서 금지된 재화나 용역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야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범죄 행위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범죄 행위를 원하는 자는 시장에 가지 말고 직접 범행을 저지른다. 범죄 행위에 의한 피해는 법에 의해 공정한 절차를 거쳐 판단된 뒤, 범죄자를 심판해야 한다. 만약 법이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 제재를 가하려 한다면, 이는 과생된 범죄 행위가 된다. 이 또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몇 시간 동안 계속 담배만 피워대는 이 아버지란 사람에게 어느 가게가 싼 가격에 원하는 인간을 죽여준다고 귀땀을 해주면 당장에 그 가게로 찾아가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며 거래를 시작했을 것이다. 부당한 사태에 직면한 그에게 윤리나 도덕은 이미 뒷전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건 암시장에서나 있을 수 있지, 공인된 시장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아버지는 초조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이 손목시계를 잠자코 들여다 볼 뿐이었다.

“움직이지 마.”

뒤통수에 느껴지는 딱딱한 물체. 한 번도 본 적 없고 만진 적도 없지만 영화에서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한 물체, 바로 권총이다. 괴한이 아버지의 뒤통수에 총구를 들이댄 것이다.

“늦진 않았군…….”

“박홍섭 씨?”

음성변조를 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남자란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봐주지만 기분 나쁜 총구는 좀 치워주지 않겠는가.”

아버지는 상대가 여기로 올 줄 이미 예상한 듯이 말했다.

### 2.1.3

“4월호냐?”

준구가 펼쳐놓은 잡지를 슬쩍 들여다보던 수진이가 한 마디 하였다.

도서관 내의 좌담실에서 늘 마주앉는 둘이지만, 이번에는 수진이가 어느 샌가 준구 뒤로 온 것이었다.

“이 잡지, 꽤 유명하긴 한가 보네.”

준구는 수진이가 이런 잡지는 모를 줄 알았다는 듯 얘기했다. 수진이가 한 손으로 턱을 괴고 무덤덤하게 감상을 말했다.

“뭐, 난 알다시피 상고에 갈 거니까. 일단 입학시험이 생애 첫 시험이나 다름없으니 이런 거라도 읽어줘야지. 그리고 이걸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잡지란다.”

현재 대다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시험이라는 게 없다. 이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교육이 그렇게 바뀌었다. 시험 없는 학교라는 개념이 정착한 것은 신설중학교가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그 개념이 한 번 의무교육에서 상상 이상의 결과를 초래하자 거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시험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오히려 시험을 아직도 치르는 초중등학교는 대안학교인 경우가 많다. 역설적으로 고등학교는 시험을 옛날보다 더 많이 치른다.

“시험기간은 얼마나 긴장될까? 시험을 치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겠지?”

“시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입시를 위한 도구가 아닌 잡지를 덮으며 준구는 말했다.

“그건 그렇지만. 어쨌면 인생의 무수히 많은 시험의 연속일 텐데.”

수진은 그 말만 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 신문을 펼쳤다.

“너 오늘도 유라네 집에 갈 거야?” “응.”

“너희 둘, 사귀는 사이?” “아니.”

평소에는 하지 않던 질문에 긴장한 준구는 다음 질문이 무엇일지 예측했다.

“근데 왜 집 방향이 반대인데 그렇게 친절하게 날마다 가방을 들어주는 거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잠깐 돕는 것뿐이야.”

변변찮은 대답이었다. 체육관에서 유라가 가방을 들어달라고 할 땐 유라가 어깨가 아팠으니 당장 들어준다는 건 무리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가까이, 어쨌면 두 달은 준구가 대신 유라 가방을 들어줘야 할 상황이 되었으니 수진은 왜 준구가 그런 일을 거절하지 못하는지 알고자 할 수밖에 없었다. 준구 말고도 유라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고자 할 사람은 많지 않은가.

“그 도움이 언제까지 이어지려나…….”

더 이상의 변명이 이어지지 않자 수진은 그렇게만 말하고 가방을 들고 도서관을 나섰다. 준구는 앞으로 뭔가 변명을 준비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였으나 자신의 잘못도 아닌 일에 변명을 준비하는 건 모순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변명 대신 회피를 어떻게 할 지 고민하였다.

## 2.1

시장에서 어떤 재화나 용역이 거래되려면 가격이 형성되어야 한다. 가격도 없는 물건은 시장에서 교환되지 않는다. 그런 것은 누군가의 선의로 그저 주어지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시장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두 존재,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다. 수요자의 구매 행위도, 공급자의 판매 행위도 각자에게 이익이 된다. 수요자가 구매를 위해 최대한 지불하려는 용의가 있는 가격을 지불용의, 판매자가 생산을 위해 최소한 치러야 하는 모든 것을 비용이라 한다. 자유로운 시장에서 만난 두 존재는 각자의 사고방식으로 흥정을 거치며 가격과 수량이 어느 순간 결정된다. 시장에서 어느 절대적인 존재의 개입이 없을 때, 가장 자유롭게 거래가 진행되며, 이 때 가장 총 잉여가 극대화된다.

그렇다면 이 총 잉여가 극대화되기 위해 무엇이든 시장에서 거래되어야 하는 것일까? 총기라는 재화만이 아니라 살인 청부라는 용역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이 되어야 할까?

“기본적으로 저들의 숫자는 스무 명 내외이고, 통화 내역은 여기 있지. 역추적 할 수 있겠나.” “이 정도 숫자를 동원했다면, 상대도 뭔가 집단일 듯싶군요.”

아버지와 중개인은 서로 마주보지 않고서도 서로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전달하였다. 마치 이것이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닌 듯이.

시장이든 암시장이든 거래된 무언가는 그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외부 효과라 일컫는다. 외부 효과는 교육처럼 긍정적인 것도 있고, 공해처럼 부정적인 것도 있다.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라 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공급되므로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공공 기관에서 도맡아 사회에 공급을 보장하기도 한다.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외부 불경제라 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많이 공급되므로 사회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가하거나 완벽하게 금지시킨다.

살인 청부의 경우, 타살당하는 사람에게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사회

적으로도 부정적이다. 살인 청부가 횡행하는 곳은 공포가 사회를 휩쓸어 버린다. 불신이 거미줄처럼 퍼져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한다. 하지만 이는 허가받지 못한, 공인되지 못한 자가 살인을 행할 때 생기는 문제이다. 국가는 군대나 경찰 조직에 제한적으로 살인 권한을 쥐어준다. 국가가 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 방어해야 하고, 치안이 극도로 어지러워 경찰관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범죄자를 어쩔 수 없이 죽여야 한다. 따라서 살인 청부가 문제시되는 경우는 민간인이 이를 행하거나, 군대나 경찰 조직이 제한된 권한을 남용할 때 발생한다. “오늘 안에 딸을 되찾았으면 하는데.” “시간은 넉넉합니까.”

동문서답으로 보일 대화였지만 아버지는 중개인의 질문에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만일 어떤 이익 집단이나 개인이 금지된 영역에서 살인 청부라는 독점물을 군대나 경찰 조직과 함께 공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위험한 것은 벌이지 않는다.

금지된 독점물을 공유한 집단이 있다면 그 달콤하고 끔찍한 맛에 취해 횡포를 부리게 될 것인가, 니트로글리세린을 다루듯 극도로 조심스럽게 이용할 것인가. 실험해본 집단이 거의 없으므로 답은 단정 지을 수 없다.

#### 2.1.4

준구는 체육관에 가보았다. 준구의 예상과는 다르게 수진은 집에 가지 않았고 체육관에서 검도부의 대련을 지켜보고 있었다. 검도부에 가입해서인지 혜원이까지 체육관에 있었다. 키 순서로 따지면 누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더구나 지금 이 싸움의 기세는 마치 고양이 다람쥐를 잡아먹으려는 형국이라 누가 누구인지 더 빨리 알 수 있었다.

“극복해!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건 스스로에게 항복하는 것이고, 그런 항복은 굴복과 같다! 굴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불행이다!”

경화가 직접 혜원을 지도해 주고 있었다. 유라는 죽도를 바닥에 수직으로 세운 채로 둘의 대련을 구경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심판 역인 듯이 보였다.

“어이, 네가 오늘 개들보다 더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

준구는 나지막이 경화에게 들릴 정도로 말했다. 서서 구경하기에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준구는 은근슬쩍 수진의 옆에 가서 앉았다.

“지금 몇 분 동안 저러고 있는 거야?”

“몰라. 내가 온 게 6시 50분경이었으니까 아마 최소한 30분은 넘지 않았을까.”

수진은 턱을 쾀 채로 준구는 쳐다보지 않고 대련하는 모습만 지켜볼 뿐이다. 아무래도 경화가 봐주면서 하고 있지만, 역시 초짜인 혜원이 경화에게 공격을 제대로 가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대련이 끝나는 순간까지 경화는 단 한 차례도 공격을 허용하지 않았다.

혜원이가 상대로 하는 것은 자기자신인 것일까, 경화인 것일까. 자신보다 더 강한 적에 맞서는데 자신을 극복한다는 게 무슨 퀘번인지 친구로서는 이해되지 않았다.

결국 1시간이 넘어서야 그들은 하교를 하였다. 혜원은 위쪽 마을에 살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도 함께 등하교하지 않는다. 결국 유라와 준구는 유라네 집 쪽으로 갔고, 경화와 수진은 혜원을 데려다 주고 혜원이네 집에서 좀 놀다가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다.

유라네 집에 도착한 준구는 오늘 유라가 감행한 행위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너, 정의감에서 혜원을 감싼 거냐.”

유라는 현관에 들어서면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정의감? 글썄, 그런 걸지도. 아무튼 소문은 거짓이거나 과장이야.”

유라가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거실로 갔다.

“정의로우면 연쇄 살인마라니.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맞아. 정의로우면 척 하는 연쇄 살인마는 있어도.”

준구는 유라가 한 말이 비꼬는 것으로 들렸다. 준구는 현관에서 선 채로 유라의 등을 쳐다보았다.

“너만은 예외다, 이거냐.”

“예외?”

유라가 뒤돌아서며 준구를 쳐다보았다.

“살인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는 자기방어나 전쟁 같은 소수의 상황뿐이야. 난 내가 정의롭다고 한 적 없는데?”

유라가 손을 뻗자 준구가 유라의 가방을 건네주었다.

“단독 살해가 아니라는 거, 거짓이나.”

“글썄, 생각하기 나름이겠지.”

“동료가 있겠지. 네가 혜원을 구출했다면 혜원이가 네 얼굴을 알았을 거야. 하지만 혜원은 너를 처음 보는 태도였어.”

“동료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낱낱이 알아내서 경찰에 넘길 거야? 평



장한 정의감이네! 하지만 그것만으론 안 될 걸.”

유라의 비아냥거림에 준구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었다.

“납치 사건에 네가 연관되어 있다는 건 확실하군. 혜원이 부모님께 찾아가서 물어보면...”

“혜원이라도 나를 못 봤는데 혜원이 부모님이라고 해서 나를 봤을까?”

“너와 연결된 증거인이 혜원이 부모님께 납치사건 의뢰를 받았겠군.”

“정답! 그럼 잘 찾아봐. 목격자 나리. 범인이 눈앞에 있는데도 증거가 없어서 아무 것도 못하는 무력한 경찰에게 잘 신고해 봐.”

몇 대 패고 싶었지만 덤비면 자신이 진다. 이 이상 얘기해봤자 유라에게서 얻을 만한 단서는 없어 보였다.

“내일 보자.” 준구가 기운 없이 인사를 하고는 유라네 집에서 나왔다.

## 2.2

하얀 피부, 자연스러운 금발, 벽안(碧眼), 규정대로 묶은 머리카락, 소령 계급장이 붙어 있는 베레모, 아침부터 열심히 다림질한 흔적이 엿보이는 군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명백히 여군처럼 보였으나, 그녀는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실제 나이대로 진급을 했다면 결코 소령에 머무를 수가 없었다. 그녀는 군인이 아니라, 다만 군인으로 변장한 것일 뿐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비교적 통통한 얼굴에 짙은 눈썹이 눈에 띄는 군복 입은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진짜 군인이었으며, 중령이었다.

그녀가 자리에 앉은 그에게 거수경례를 하자 그도 일어나 그녀에게 거수경례를 해주었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소. 앉아서 차라도 한 잔 하시죠.”

그가 소파를 가리켰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모자를 벗어 탁상에 놓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리에 앉을 것을 권하고는, 커피 포트기에 물을 따르기 시작했다.

“한국식 커피 믹스인데 입에 맞았으면 좋겠군요.”

“어떤 커피든 가리지 않습니다.”

그가 커피 포트기에 전원을 넣고는 종이컵 두 개를 꺼내 각각에 커피 믹스를 들이부었다.

“원래 일본에서 활동하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어차피 한국의 이상한 법 덕분에 잠깐 들린 것이니, 머잖아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겁니다.”

“잠깐 오신 분 치고는 한국어를 잘 하시군요.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어려운 언어라는데.”

그는 커피 포트에 물이 끓자 종이컵에 각각 반쯤 물을 부었다. 그는 길고 폭이 좁은 손가락으로 커피를 휘휘 저었다.

“과연 CIA 요원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그가 커피를 들고 와 그녀 앞에 한 개를 내려놓았다.

“급히 오느라 일손이 부족한데, 운전병을 휴가 보내는 셈 치고 차출해 주셨으면 하는군요.”

“정식 차출서를 제출하면 오늘이라도 당장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도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후후 불었다. 그녀는 커피에 손도 대지 않고 그저 상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세상에 망명이란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구나 망명은 대개 정치적 탄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요. 그런데 한국은 옛날보다 정치적으로 더 자유로워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입을 열었다. “서론이 길군요.”

“군인을 상대로 이런 얘길 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외부인이니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지 마십시오.” 그녀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신변 보호 요청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부르는 법이 한국에 있다는 것도 믿겨지지 않지만, 이런 법을 활용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것도 놀라운 게 사실입니다. 신변 보호는 경찰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 아닙니까. 그런데 자국의 경찰을 못 믿어서 거금을 들여 타국의 정보 기관에 신변을 양도한다니, 외부인인 제가 봐도 악용의 소지가 높은 법이군요.”

“망명을 원하는 사람이 마음껏 떠나게 놔두는 것도 정치적 자유라 봅니다. 그리고 안정된 정치 상황 아래에서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데 자국 경찰을 믿을 수 없는 경우는 충분히 있지요. 사실 경호원을 쓰는 것보다 이 법을 이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 테니 저는 이 법을 별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 판단하기 나름이지요.”

“흠, 그렇습니까.” 그와 그녀는 동시에 커피를 마셨다.

그는 일어나 자신의 책상에 다가가 서랍을 열어 종이를 꺼내 그녀에게 건네주자 그녀는 종이 위에 적힌 정보를 빠른 속도로 머릿속에 요약했다.

“신변 보호 요청자는 안수근이라는 이름을 쓰는 어느 재단의 이사장이지요. 신변 보호는 그에게 신청했고, 어제 착수금 천만 원을 경찰에 선납했소. 실비아, 당신이 임무를 성공시키면 당신 수중에 사례금을 따로 줄 것이요.”

“그런데 안수근 이사장이 신변 보호를 요청한 이유를 아십니까?”

그는 허허롭게 웃었다. “그런 걸 우리가 알아낸다면 그 이사장 양반은 감옥에 있을지도 모르잖소?”

그녀는 확실히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는, 자신이 권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 2.2.1 2037년 4월 21일. 화요일.

아침이 되어 유라와 준구가 일등으로 교실에 도착하였다. 당연한 말이지만 아무도 교실에 없었다. 준구는 아직 이런 이른 시간에 학교에 오는 게 적응이 안 되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침묵 속에 10분 정도 지나고 보니 교실 문을 열고 누군가가 들어왔다. 유라는 단축키를 눌러서 작업을 종료하였다. 준구가 뒤를 돌아보니 교실 문을 연 것은 혜원이었다. 하지만 혜원의 표정이 왠지 심상치 않았다. 처음엔 흠칫 놀라더니 이내 경계하는 건지 의심하는 건지 종잡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교실 안으로 들어왔다.

“안녕, 좋은 아침!”

유라가 그렇게 인사를 하였다. 하지만 혜원은 유라의 건너 자리에 앉아서 둘을 향해 물었다.

“너희 둘……, 서로 사귀는 사이야?” “아니?”

준구가 화들짝 놀라 반사적으로 그렇게 대답했지만, 유라는 정반대의 대답을 하였다.

“응. 사귀지는 얼마 안 되었어.”

“야, 무슨 말을……!”

유라는 준구에게 반박의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준구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준구의 허벅지에 걸터앉고 혜원이 쪽을 바라보았다.

“우린 딱 이만큼만 진도가 나간 사이야.”

그렇게 말하고는 준구의 이마에 입술을 갖다 대었다.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의 관성이 작용한 것 같다. 아마도 불가항력이라고 부르는 힘일 것이다. 준구는 당황한 수준을 넘어 नी이 나가버렸다. 이마에 닿은 여자의 입술은 너무나 부드러운 한편 촉촉한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유라도 상식이 있어서 키스는 안 한 것 같지만, 유교적 가풍이 남아있는 집안에서 자란 준구로서는 이미, 구한말에 외국 문물을 접한 지식인이 느낀 문화 충격만큼이나 충격적이었다. 이 녀석은 नी을 죽이는 방법도 아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렇구나.”라는 혜원의 납득에 준구는 얼른 정신을 차렸다. 곧이어 혜원은 책상걸이에 가방을 걸고는 교실 문을 다시 열고 나가면서, “좋은 시간 방해했네.”라고 말하였다. 혜원이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준구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자기 다리 위에 걸터앉은 유라를 향해 소리쳤다.

“진심이야!”

준구는 충격 속에서도 용케 말을 더듬지 않았다. 교내에 박혜원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유라도 선불리 준구를 두들겨 패진 않을 것이다. “재를 위해서 한 행동이야. 내가 널 좋아한다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그래서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의 다리 위에 걸터앉고 이마에 뽀뽀까지 하는 건 말이 되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설명 뒤에 더더욱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 이어졌다.

“내가 널 죽이면 재가 얼마나 슬퍼하겠니.”

“뭐……?”

“너 어제 재 표정 못 봤어?”

“언제?”

“네가 고교 진학 얘기 꺼냈을 때, 재 눈빛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모른단 말이야?”

준구는 불과 어제 있었던 일을 머릿속에 재생시켜 보았다. 그러나 유라가 말한 정도로 표정 변화가 있었던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남철수의 헛수고가 혜원의 입가를 미묘하게 움직였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글쎄, 난 잘…”

유라는 준구의 다리에 그만 걸터앉고 확 일어서서 외쳤다.

“멍청한 놈. 재가 널 좋아하는 데 네가 죽으면 가장 슬퍼할 걸. 꼭 일일이 가르쳐 줘야 하나?”

“혜원이가 나를?”

“하여튼 눈치는 되게 느려.”

준구는 유라의 추론이 믿겨지지 않았다. 여자의 육감이나 직감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이건 너무 비약된 이야기였다.

“네 착각은 아니고?”

“아니면 재가 교실을 나갈 이유는 뭐겠어?”

“글쎄, 화장실에 용무가 있어서 갔다든지…….”

“계단에 옆에 바로 화장실이 있는데? 나 같으면 화장실 들리고 교실로 들어왔겠다.”

막상 듣고 보니 그 편이 나왔다. 나지막이 준구는 “아닌 것 같은데…….” 따위의 자신 없는 소리를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문예부라면서 연애 소설 한 번도 안 읽어 봤냐? 하긴, 소설 나부랭이 제대로 읽었으면 진짜 탐정 되었겠지. 넌 그래서 안 돼.”

“네가 화를 낼 상황은 아닌 거 같은데.”

“재는 누가 자기를 구해줬는지 모를걸?”

준구는 유라의 페이스에 말려든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화제를 전환하기로 했다.

“어떻게 너와 동료들이 스무 명이나 되는 납치범을 하루도 채 안 돼서 다 소탕할 수 있었을까.”

“굳이 못 할 이유는? 꼭 납치된 장소로 가서 소탕해야 하나? 그게 네 상상력의 한계.”

유라는 검지 끝으로 준구의 이마를 밀었다. 하는 행동은 영락없이 중학생의 그것이다.

“어차피 내가 네 살인 수범을 알아낸다 해도 경찰에선 너를 잡지 못할 테니 알려주는 게 어때?”

준구는 화가 났지만, 화를 내봤자 손해 보는 건 자신뿐이다. 어서 2개월이 다 되기 전에 유라를 잡아서 경찰에 넘겨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아마 저렇게 여우처럼 웃는 유라에게 살해당할 것이다.

“싫어. 내가 알려 주면 네가 증거 영상을 확보할 테니까. 네 수준 낮은 회유에는 속지 않아.” “밀실 살인?”

“추리 소설 마니아가 생각할 수법이네.” “독살?”

“마찬가지.” “추격전이 있었으니까…… 납치범들을 바깥으로 유도했

겠네. 뭐가 저격총이라도 썼나?”

“총기류는 일절 사용하지 않았어. 그러다간 사형이라구.”

준구의 툭툭 내뱉는 추측에 유라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여기서 네가 이것저것 추측한다고 해서 내가 제대로 대답할 거 같아? 네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봐. 네가 살인마, 내가 목격자라면 년 스스로의 살인 행위가 신고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음... 증거를 없애고, 목격자를 가능한 한 속이는 것……?”

준구가 내뱉진 않았지만, 목격자 살해까지도 염두에 두었다.

“그걸 알면 이제 귀찮게 묻지 말고 스스로 수사를 하렴.”

유라는 살인마답지 않은 해맑은 미소를 짓고는 자리로 돌아가 노트북을 만지작거렸다. 준구는 대체 노트북 화면에 무엇이 표시되어 있을지 궁금하였다. 하지만 대놓고 교실 안에서 노트북을 하는데 살인을 증명할 증거는 없을 것이다.

정확히 오전 7시 30분에 갑자기 유라의 휴대폰과 준구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수신되었다. 아무래도 예약 문자 메시지였는지 똑같은 시각에 다른 문자가 수신되었다.

『신설중학교 이사장님 사망으로 오늘 하루 휴교. 착오 없길 바람.』

이것이 차유라를 비롯한 일반 학생들에게, 뒤에 『반장, 부반장은 신설 장례식장에 오기 바람.』이란 내용이 덧붙여진 것은 김준구에게 온 메시지였다.

“쳇, 괜히 학교 왔네.”

“네가 죽인 게...”

교실 문이 열리며 혜원이 교실 안으로 들어왔다. 준구는 혹시 자신이 유라에게 건네던 말을 도중에 혜원이가 들어버린 건 아닐까란 생각도 들었지만, 그다지 놀란 기색 없이 평소대로 걸었기에 그건 아닌 모양이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피하고 싶었다. 준구 자신이 뭐가 잘못된 게 아니지만, 상대가 화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었다.

“.....”

정말 화가 난 것일까?

여자의 마음을 모르는 준구로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준구가 말을 걸려고 하였으나 혜원은 묵묵히 가방을 챙길 뿐이었다.

“저, 혜원아……?”

준구가 말을 걸어보았으나 혜원이가 한 번 고개를 숙 돌려 쳐다볼 뿐이었다.

혜원이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식의 대화 내용이 자꾸 머리에 맴돌았다. 그래도 준구는 용기를 내어 혜원에게 말을 걸었다.

“괜찮다면 같이 집에 가지 않을래?”

“잘 됐네. 우리 집이 그 장례식장이니까.”

준구는 말없이 놀랐다. 반면 유라는 별로 놀라는 눈치 없이 노트북을 끄고 가방에 노트북을 넣었다.

“너, 유라 가방 들어줘야 하는 거 아냐?”

“응…….”

“내가 유라네 집에 갔다 오는 동안 기다리고 있을게. 이 교실 안에서.”

유라네 집을 쓸데없이 왕복해야 하다니.

“미안, 얼른 갔다 올게.”

교실에 혜원이 혼자 놔두고 오는 게 왠지 마음에 걸렸지만, 그렇다고 딱히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알게 된지 겨우 오늘로 이제 이틀이지만 혜원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온 게 눈에 보였다.

준구는 습관이 다 되어 버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유라의 가방을 들었다. 유라가 먼저 앞장서서 교실 밖으로 나갔다. 준구도 뒤따라가려다 잠시 고개를 돌려 혜원이를 보았다. 혜원이는 조그마한 책을 꺼내 조용히 읽었다. 활자가 듬성듬성 있었기에 시집이라 추측했다.

“안 오고 뭐해?”

유라가 계단에서 부르자 준구도 유라를 뒤쫓아 갔다.

유라네 집에 가는 동안 준구는 유라에게 궁금했던 것을 물어 보았다.

“대체 이사장은 언제 사망한 거야?” “어제 저녁 11시경, 자택.”

“그럼 이사장의 집까지 찾아가서 죽인 거야?” “그런 셈이지.”

“도대체 왜……?” “그렇게 부탁하고 돈을 준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사장도 쓰레기야?”

유라는 그것도 말이냐는 듯 어깨를 으쓱였다.

“내가 이사장을 쓰레기라고 규정하면 너는 그걸 곧이곧대로 믿을 셈이냐.”

“그건 아니지만…….”

“내가 변명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심리인가. 하지만 변명을 할 바엔 널 속이는 게 낫다는 것이 내 결론이야.”

둘은 그 대화를 끝으로 침묵을 유지한 채 걷다가 유라네 집에 도착했다. 준구는 가방을 건네주고 다시 학교로 되돌아왔다. 유라네 집으로 올 때엔 대화를 하느라 시간이 잘 갔지만, 학교로 올 때엔 별다른 생각도 할 게 없어서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교실에 도착한 준구가 문을 열고 보니 혜원이는 여전히 책을 읽고 있었다. 혜원이는 준구가 온 인기척을 느낀 것인지 책을 덮었다.

“가자.”

준구가 말을 꺼내자 혜원이는 책을 서랍에 넣고 가방을 챙겼다.

혜원이와 함께 준구는 학교에서 나왔다. 그리고 곧장 북쪽을 향해 걸었다. 학교를 중심으로 주택이 난립한 까닭에 이곳의 골목길도 미로였다. 학교의 동서남과는 다르게 북쪽은 오르막이었다. 하지만 경사가 낮은 조그마한 오르막길이라서 괜찮았다. 준구와 혜원은 어색하게 서로 떨어져서 걷고만 있다가 먼저 말을 건넨 것은 준구였다.

“이런 거 물어봐도 괜찮을지는 모르겠는데, 네가 소문의 납치 피해자야?” “응.”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단 생각이 들었으나 일단 혜원이가 긍정하자 준구는 뒤이어 질문을 해봐도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

“네 부모님이 살인 청부업자에게 일을 의뢰했죠?” “...응.”

“그 사람, 음... 그러니까 살인 청부업자 말이지. 누군지 알아?” “우리 가족 셋 중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몰라.”

“그렇구나.”

준구는 끝까지 모든 해답을 들을 수 있단 기대는 너무 큰 것이었다고 생각했지만, 허탈하진 않았다. 혜원이는 아무래도 소문의 살인마에 대해선 거의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다만 남자 목소리를 했어. 음성 변조기를 달고 있어서 확신하진 못하지만.”

의외의 정보에 준구는 신경을 집중하였다. 아마도 그 남자가 중개인일 것이다. 유라와 의뢰인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남자다.

“그 사람은 왜 물어보는 거야?”

“아니..... 아무 것도 아냐.”

“난 살인자가 경찰에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째서?”

혜원이가 한 의외의 부탁에 준구는 무슨 이유가 숨어 있나 궁금해졌다.

“중개인이 그랬다는데, 이 일로 많은 사람이 웃는 모습을 많이 보았



다고 그래.”

“한 사람을 죽이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건 사이코 아냐?”

“사건은 하나지만, 동전의 양면을 살피지 않으면 편파적이란 소리를 들겠지. 넌 한 쪽 면만 보는 거야. 동전의 앞면에는 얼른 동전의 가치를 재단할 그림이 새겨져 있어. 동전의 뒷면에는 그런 그림보다 더 객관적인 숫자가 새겨져 있어. 넌 자극적인 그림에 움직이는 아이니, 객관적인 숫자에 움직이는 아이니?”

준구는 혜원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반박할 말은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혜원이가 전학 와서 이렇게 확실하고 또렷한 음색으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건 처음이었다.

“네게 뒷면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나는 납치를 당한지 12시간이 넘도록 독방에서 감금을 당했어. 납치범 모두가 흉악한 존재들이었어. 인간이 아냐. 사건 발생 이후로 일주일 동안 악몽에 시달렸어.”

“너야말로 동전의 뒷면에만 주목하고 있는 건 아닐까. 범죄 행위를 범죄로 되갚아주는 게 올바른 해결책이었을까. 이걸 간과한다면 너도 편파적이란 얘기일 텐데.”

“경찰이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살인 청부업자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면 거금을 들여서라도 살인자와 거래를 할 거야. 본질은 간단해. 경찰이 제공해 주지 못한 안전을 거래를 통해 살인자에게서 사들인 거야. 경호원의 노동력을 구입했다면 본질이 달라지나? 경호원은 보호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론 불가피하게 적을 사살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단지 말을 바꿨을 뿐인데, 살인자는 때려 잡을 놈이 되고, 경호원은 경의를 표해야 하는 직업이 되는 게 아냐?”

범죄조차도 합리적인 인간의 행동이라는 신고전학파의 주장이 떠올랐다. 범죄라는 행위의 기대치가 충분히 높으면 사람은 범죄라는 행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혜원의 논법대로라면, 유라의 행위는 범죄조차 아니게 된다. 넓은 의미의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걸 입증하는 데에는 골치 아프겠지만.

준구는 혜원과 대화하면서 오싷한 기분이 들었다. 차유라가 납치범들을 몰살시켰다는 사실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혜원이가 가진 최초의 가치관이나 윤리의식이 어떤 형태인지는 준구가 알 리 없다. 그러나 악이 수단을 가리지 않은 채로 징벌받는 데에 대해 관대해지게 되면, 수단은 새로운 악이 되어 사람들을 집어 삼키게 될 것이다. 유라가 자신을 어째서 안 죽이고 놔두고 있는지, 준구로서는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었다. 정말 어깨가 아파서 그럴 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가치관이 변하는지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렇게 사람의 가치관이 변질되는 것은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준구가 이런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 혜원의 말을 들으니 유라를 잡아서 경찰에 넘겨야 하는지 의문이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유라는 확실히 좋은 일도 하는 아이다. 혜원이 애들과 얼른 친해지지 못할 김새를 치자 제일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려 한 것은 유라였다. 힘든 일이 발생하면 의지할 수 있는 친구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본질이 무엇이든 살인을 하면서 마을을 공포에 몰아넣고 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일이다. 이 일은 확실히 구별되어 판단되어야 한다.

“살인 행위라는 그림으로는 분노밖에 느낄 수 없겠지. 그 뒷면에 새겨진 글귀가 경호원이 어쩔 수 없이 감행한 보호 행위였는지, 살인자가 저지른 심각한 공격 행위였는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각자의 가치관에 달려 있을 거야. 하지만 적어도 소문의 살인자에게서 보호를 받은 입장인 나로선, 그 자가 붙잡히더라도 그를 위해서 변호해 줄 거야. 내가 동전을 뒷면만 봐서 그런 게 아니란 건 이제 알았으리라 생각해.”

유라를 과연 경찰에 넘겨줘야 하는 게 옳긴 한 것일까.

지금껏 동전의 앞면만 보고 판단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유라는 경호원이 아니었다. 경호원은 목격자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를 죽인다고 하진 않는다. 혜원이 못 본 동전의 옆면을 준구만이 본 것은 아닐까.

## 2.2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땐, 가벼운 호위 임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신병(身柄)을 인도받고 그 다음날이 되기도 전에 이사장이 사망해버렸다. 그녀가 이사장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이사장에 대한 한국 경찰의 보호 의무는 없어졌다. 너무나도 타이밍 좋게 이사장이 죽어버렸지만, 자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노트북에 표시된 이사장과 관련된 정보를 쳐다보았다. 재단 운영권은 교장에게 정식으로 넘겨줬다. 더구나 이사장은 교장에게 원한을 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사장이 무엇 때문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는지부터 알아야 이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사장의 일기를 읽어도 보았다. 그러나 이사장의 일기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썼

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 일기에는 뉴스에서 원인 불명의 전염병에 퍼져서 방역 차량이 도시 곳곳을 정기적으로 돌 것이란 것, 모처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다가 비명을 듣고 거리를 내다본 것, 살인 사건은 이미 벌어졌는데 망설이는 사이에 시체가 사라진 것 등이 적혀 있었다.

과대 망상과 환각을 경험하던 중년 남성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할 법한 이야기다. 그러나 그녀의 머리를 괴롭히는 것은, 왜 하필 신변 양도가 이루어지자마자 사망했느냐는 점이었다. 자연사로 보기에는 평소의 육체적인 건강 상태는 양호했으며 평균 수명에 못 미치는 나이였다. 신체에는 주목할 만한 상흔이 없었다. 최근에 이사장의 집에 들린 외부인이래봤자 어느 학부모와 여학생 등이 전부였다.

그녀는 수십 년만에 예전에 일본에서 자신이 휘말렸던 일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고개를 가로 저었다. 미스터리한 사건임에는 분명하지만, 일본에서 겪었던 일의 진범은 자신의 동료가 확실히 죽었고, 진범이 있었다는 장소에도 가서 폐허를 직접 목격하였다. 그래도 느껴지는 묘한 기시감에 그녀는 이사장에 관한 정보를 처음부터 차분히 분석했다.

### 2.2.2

준구가 복잡해진 머리를 채 다 정리하기도 전에 이미 혜원이네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장례식장에 도착하였다. 준구와 함께 왔던 혜원이는 어느 틈엔가 사라져 있었다. 자신의 집으로 왔으니 평소처럼 자기 방으로 돌아간 건지도 모른다.

이사장의 성함이 전자판에 뜬 빈소에 찾아가보니 그곳에는 이백향 선생을 비롯해서 서른 명이 넘는 교사가 있었다. 교장, 교감, 그 외에 신설중학교 이사장과 깊든 열든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은 아침인데도 와서 절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3학년 2반 반장인 서수진, 3학년 2반 부반장도 있었고, 그 외 각 반의 반장과 부반장이 있었다. 이백향 선생 곁에는 남철수도 서 있었다. 선생들과 어른들 모두가 어두운 분위기에 맞게 정장을 입었다. 신설중학교 교복도 이런 상황에 맞게 디자인된 교복인 건지 상당히 어두운 분위기인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3일장을 치를 때 아침에 와서 문상객이 명복을 빌어주는 예는 그다지 드문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온 것은 드문 일이었다.

“왔냐.”

철수가 준구에게 인사를 했다. 농담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므로 낮은 목소리였다. 남철수에게 이런 분위기에 어울리는 목소리를 가졌다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지만, 준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솔직히 자신과 잘 아는 사람이 죽은 게 아니어서 별다른 느낌은 없었다. 이사장의 얼굴은 알았지만, 성함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내일이면 잊어버릴 이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이사장 부인뿐이었다. 자식들도 울지 않았다. 다들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는 장례식장에 처음 와보며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적이 없는, 나이가 어린 준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준구는 나름의 생각을 전개하고 있었다. 차유라에게 살해당한 것은 억울한 죽음일 텐데, 왜 이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일까?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사장이 유언장에 범인은 찾지 말라고 쓰기라도 했을까? 자식들은 보험금 타는 데에만 신경 써서 별로 아버지의 죽음에 슬픔을 못 느끼는 것일까? 아니면 아버지가 죄 많은 사람이란 것을 알고 울지 않는 것일까?

준구는 장례식에서 그리 오래 있지 않았다. 혜원이야 원래 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의 딸이니, 계속 이곳에 있어도 어색할 게 없지만, 준구나 수진이와 같은 학생들은 이사장의 장례식장에 오래 있을 까닭이 없었다.

“얘들아, 모두 한 번씩 조문을 표했으면 이제 집으로 되돌아가렴. 아침부터 고생이 많구나.”

이백향 선생이 학생들을 모으고 그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선생님. 이건 학교의 일이고, 학교의 일은 곧 저희들의 일입니다.”

“고맙구나, 철수야. 내일 정상수업을 할지, 3일간 휴교를 할지는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문자로 알려 줄게. 다들 집에 조심해서 가.”

“선생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학생들이 전부 이백향 선생에게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 각자의 집으로 되돌아갔다.

학교로 내려오는 길에서 저마다 한 마디씩 내뱉었다.

“혜원이가 여기 장례식장 주인의 딸이구나. 난 왜 어두운 얼굴을 평소애 하고 있나 했네.”

철수가 심각한 얼굴로 그렇게 말하자 수진이 대답했다.

“알게 된 지 이틀밖에 안되었는데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거 아냐?”

“아무튼 고인의 명복을 빌어줘야지.”

준구가 제일 정상적인 말을 내뱉었다.

“아참, 김준구. 이번에 이사장님이 사망하셔서 그것 때문에 교장 선생님께서 나를 부르셨거든. 이사장님 사망에 대해서 간단히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주제로 글을 하나 써서 1층 복도 게시판에 올려 달래.”

평소에 이런 부탁을 들었다면 따지고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겁게 내려앉은 분위기상 준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이의 부탁을 수락했다. 아마 수진이는 글 내용만 준구가 작성하게 하고, 자신은 내용을 검토한 뒤, 서예를 배웠다는 1학년 후배에게 대필을 부탁할 것이다.

생각해 보니 부탁이라기보다는 임무에 가까웠다. 준구는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자신에게 떨어진 임무로 가슴 한편이 찝찝해졌다. 차유라가 이사장을 죽인 게 확실하다.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말했으니까. 하지만 유가족들은 이사장이 정체불명의 소문 속 살인마에게 죽었다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싶어 하는 눈치가 아니었다. 그래서 일부러 곧장 관에 묻고 화장을 선택한 것이다. 준구는 유가족들이 참으로 무섭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사장의 부인이 남편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우는 것은 봤지만, 웬지 모르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으니 마치못해 보여준 쇼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사장 자식들의 표정도 하나 같이 어두웠으나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였다.

준구가 느낀 게 옳은 것일까? 아니면 근래에 겪은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준구는 자신이 쓰게 될 글에 자신이 알게 된 모든 것을 터트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유라에게 죽는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각보다 더 이른 시각에 유라가 등교한다. 게시판에 있는 내용을 누구보다 먼저 확인하고 게시물을 없애버리면 그만이다. 결국 게시판에 사건의 진상을 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모든 것을 터트리기에는 증거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부자연스러운 죽음인데다 타살이라는 것이 명확하면 경찰이 일선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다. 타살처럼 보이지 않게 죽였기 때문에 유가

죽들도 이 죽음을 마치 자연스러운 죽음인 것처럼 다룬 것이다.

학교에 다다르자 준구는 친구들과 작별하였다.

“여기서 난 방향이 다르네.”

준구가 그렇게 말하자, 준구와 같은 방향인 철수는 대뜸 “난 잠시 학교에 볼 일이 있어서 이만.”이라고 말하고는 학교로 가버렸다.

“내일까지는 다 완성시켜서 내 이메일로 전송해줘.”

서수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손을 흔들고 준구에게서 멀어졌다. 모두 학교라는 지점을 중심으로 갈림길에서 제 갈길 가버렸다.

준구는 자신의 집으로 갔다. 집에는 아무도 없는 듯했다. 집에 아버지가 안 계시니 무척이나 집이 쓸렁하였다.

준구는 자신의 컴퓨터를 켜고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흰 화면에 쓸 말이 떠오르질 않았다. 사건의 전말을 정리해서 수진에게 확 보내 버릴까란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분명히 ‘쓸데없는 소설 보내지 말고 제대로 된 내용을 전송해!’라고 다그칠 것이 분명했다.

모니터를 주시하면서 무엇을 쓸지 고심하는데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왔다.

『장례식장에는 잘 갔다 왔나.』

유라에게서 온 문자다. 어떻게 답장을 보낼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일단 가볍게 답장을 보냈다.

『게시판에 네 범행을 어떻게 까발릴지 고민하고 있지.』

무심코 엄지손가락으로 문자전송을 누른 그 순간, 준구의 등 뒤에서 누군가가 어깨를 톡 짚었다. 준구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검지로 볼을 찌르는 장난에 당해버렸다.

“아, 뭐하는 거야?”

자리에서 확 일어난 준구가 뒤돌아서며 화를 내었다. 이렇게 조용하게 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은 준구가 알기로는 차유라 밖에 없다.

“나한테 화낸 거야? 방금 전에 내가 협박했잖아.”

“아니, 따지고 보면 내가 내 목숨 가지고 협박해왔잖아.”

“더 따지고 보면 내가 나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협박하잖아.”

“더 따지고 보면 내가… 아니다.”

뭔가 이상한 말싸움이었다.

“근데 우리 집에는 무슨 일이야?” “감시.” “뭐?”

“...는 농담이고, 그냥 네 집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놀러온 거야. 하루 종일 집에서 쉬려니까 할 게 있어야 말이지. 참고로 또래 남자

집에 놀러온 건 이번이 역시 처음이야. 영광이지?”

“넌 한가할 때도 있구나.”

“실제로도 많이 한가해. 아무리 그래도 날마다 살인사건이 벌어질 수는 없잖아. 더구나 이 마을에서는 딱 두 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에 지나지 않고, 시체는 이미 경찰이 수습했어.”

“그리고 보니 내가 집에 돌아갈 때, 그 납치범의 시체는 없었네.”

“내가 경찰에게 신고한 덕이지.”

“정말 간 크네. 근데 뭐하러 우리 집에 온 거야?” “Stakeout.”

“아까랑 똑같은 말인데…….”

“농담도 두 번은 안 통하네.”

“처음 꺼도 안 통했어.”

준구는 팔짱을 끼고 어이없다는 듯 유라를 쳐다보았다.

“어차피 여기서 널 죽이면 나는 바로 붙잡힐 거야. 왜냐하면 CCTV에 내 얼굴이 정면으로 찍혔거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널 죽이는 게 바보짓이지.”

“그게 그리 되나.”

“아무튼 별다른 목적 없이 친구처럼 온 거니까 안심해도 돼.”

“별로 안심이 안 된다만…….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면 명들지 않을 정도로 패는 거 아냐?”

“정말 내가 화가 나면 그렇겠지만, 네가 나를 화나게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됐다, 괜히 그 말 사실인지 알아보려다가 병원 신세 지고 휴학하고 싶진 않으니까.”

“현명해서 좋군. 이사장의 죽음에 대해서라면 내가 대신 써줄까?”

“글쎄, 그 사람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너는 아니까 ‘성추행범아, 잘 돼졌다!’ 정도의 글을 쓸 거 같은데.”

“정답!…이 아니잖아, 이 멍청아!”

유라는 장난스럽게 양 주먹으로 준구의 관자놀이를 짓눌렀다.

“아, 아파!”

준구가 유라의 팔을 잡고 들자 의외로 간단히 풀어냈다. 유라는 별로 화가 난 얼굴은 아닌 것 같았다.

“정중하게 고인의 명복을 빌고, 이 학교의 설립에 많은 공로를 기여한 것을 기억하겠다……. 뭐, 그 정도의 정중한 얘기 적으려는 거뿐이야.”

“사람 됐네.”

준구가 손을 놓자 두 사람은 어색하게 쭈뼛쭈뼛 마주보며 있다가 둘다 각자 팔짱을 껴다.

“이게 내 진심이라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일단 자리 비켜봐.”

유라는 준구의 자리를 차지하고는 빠른 속도로 타이핑을 하기 시작하였다. 준구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가 아니다. 일단 머릿속에 모든 내용을 완성시켜 놓고 쓰는 것만 같은 느낌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쉬지 않고 3분 동안 연속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 불가능까진 아니어도 힘든 일이다.

“다 썼으니 확인해 봐.”

유라가 자리에서 비켜주고, 준구는 그 글이 어떤 글인지 확인하였다. 금방 써내려간 글이라고 하기에는 군더더기도 없고, 문장이 깔끔하고 좋다. 존경의 마음을 담지 않고도 이런 글이 써질 수가 있구나, 새삼 속으로 감탄했다.

준구는 유라가 떠날 말 하기 전에 그 글을 컴퓨터에 저장시켰다.

“인간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는 걸까?”

느닷없이 날아온 철학적인 질문에 준구는 생각할 시간이 잠시 필요했다.

“그걸 내가 어찌 알겠어.”

“보험업에서는 근사치라도 구해보려고 하잖아. 보험업뿐만이 아니지. 가로등이나 신호등을 어디에 설치할지 정하는 데에도 다소 필요한 부분이지.”

“그리고 누구를 죽일지 살려줄지 결정하는 데에도.”

준구의 빈정거림에 유라는 빈정상했다. 유라가 하고픈 말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난 일단 인간은 다양한 가능성을 품고 있고, 그 자체로도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

“그럼 다 죽어가는 노인이나 제한된 가능성만을 가진 장애인에겐 가치가 없거나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야? 하긴 네 생각대로라면 가치가 제로에 가까워진 사람은 얼마든지 죽여도 되겠네. 우생학을 장려한 히틀러가 너한테 장학금이라도 주겠네.”

“말을 그리 받아들이니 좀 열받는데?”

“이사장이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사적 제재를 가해선 안 돼. 인간의 가치를 보면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 죄질이 무겁더라도 그 심판은 사람들이 합의한 법률에 의거해서 처벌받아야 해. 네가 한 짓은 옳지 않아.”



“흠, 네 생각은 그렇나 보네. 그나저나 여자가 놀러왔으면 차라든지 뭐 하나 대접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왜……?”

“살고 싶다면.”

“못 죽이잖아.”

“당장은. 하지만 언젠간 내 손에 넌 죽겠지.”

“정중하게 부탁하면 커피 정돈 끓여줄 수 있는데.”

“그럼 커피 한 잔 부탁해~. 뜨거운 거 못 마시니까 얼음 듬뿍 띄워서.”

유라는 카페를 찾은 손님처럼 거침없이 자신이 원하는 커피를 주문하였다.

“돈 줘…”

“아까 아침에 뽀뽀한 것으로 대납한 셈 치고 그냥 줘. 자꾸 그러면 너만 제제해 지는 거야.”

유라는 준구의 말을 끊고 그렇게 응수했다.

“별로 내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만? 게다가 혜원이가 오해를 했고. 내가 안 죽으면 개가 슬퍼할 이유도 없잖아?”

“듣고 보니 그러네. 하지만 혜원이가 너와 엮이면 나도 혜원에게 손을 대야할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단 건 생각 안 했어?”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일이었다.

“……네가 그렇게까진 안 할 거라 생각하지만 만약이란 게 있으니, 그리 말하면 나로서도 할 말이 없네.”

“됐고, 얼른 커피나 끓여와.”

유라는 정말로 별다른 목적 없이 놀러온 모양이었다. 준구가 커피를 끓이는 동안 유라는 준구네 방을 둘러보았다. 마치 준구가 그날 유라네 방을 둘러본 것처럼. 그러나 당시의 준구에게는 목적이 있었지만, 오늘의 유라는 순수하게 호기심으로 준구네 방을 둘러본 것에 불과했다.

“여기 커피 대령이다.”

“잘 마실게.”

유라는 커피를 조금씩 훌쩍 마셨다.

“차가운데 한꺼번에 안 마셔?”

“내 마음이야. 그리고 커피를 한꺼번에 왜 마셔?”

“난 그리 마시니까.”

“네 기준에서 세상을 판단하지 마. 이래서 경제학자들은 안 돼. 다

가치판단이 똑같다고 가정하니까 현실이 가정대로 움직이는 줄로 알잖아.”

“넌…… 과학고 갈 거라고 그랬지?”

“응. 미생물학을 전공할 거야.”

세균을 배양하고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실험 일지를 작성하고… 무엇보다도 하얀 연구자 옷을 입은 유라의 모습—이는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이 상상이 되어, 준구는 꾀 하고 웃어버릴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다.

“그럼 난 고교 생활은 편하게 할 수 있겠네.”

“어째서?”

“내가 가려는 학교는 기숙사가 있거든. 거기서 생활하면 되지.”

“나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기 전엔 안심하지 마.”

“너 안심시키려고 거짓말하면?”

“그러려면 이미 거짓말을 했겠지. 하지만 너는 그런 소인배는 아니니까…… 일단 그 점만 마음에 든다, 김준구.”

“다른 점도 좀 인정해 주지? 아무튼 살인마에게 인정받으니까 기분이 묘하네.”

“내가 살인마가 아니었으면?”

“글쎄.”

“그날이 있기 전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했어?”

유라가 살인마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 자신은 유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냥 평범한 친구.”

유라의 얼굴에 씩씩한 기운이 감돌았다. 웬지는 모르지만 실수했다는 기분이 들어 얼른 말을 바꾸었다.

“아, 학교생활에 지나치게 진지하게 임하는 학교에 꼭 한 명은 있는 아이.”

“그런가.”

유라는 기분이 누그러진 건지 납득한 건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준구는 이번엔 자신이 질문을 해 보는 게 좋으리라 생각했다.

“그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골빈 녀석까진 아니고, 그냥 생각 없이 글만 읽어대는 책벌레 정도?”

“내가 겨우 그 정도라니.”

“나한테 그 정도 평가 들으면 꽤 많이 노력한 거야.”

“별로 기쁘지가 않네.”

“여자를 즐겁게 할 줄 모르네.”

“네가 여자로 보이지 않아서 말이지.”

“내가 등을 드러내 보일 때는 네가 부끄러워했었는데 말이지.”

“그때는……!”

“커피 잘 마셨어.”

“야, 빠진 거야?”

“그건 아니고, 네 성격은 거의 다 파악했으니까, 이제 난 집으로 돌아갈래. 날 집까지 바래다주든 말든 상관은 안 하겠지만.”

“바래다주진 못하겠지만 이걸 가져가.”

준구는 자신의 침대에 떨어뜨린 유라의 휴대폰을 건네주었다.

“고마워.”

유라는 준구가 건넨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받고는 유유히 준구네 집을 빠져나갔다.

다음날, 휴교조치는 없었다. 예정된 대로 이사장의 사망에 대한 조금은 긴 명복을 비는 글이 1층 게시판에 게재되었다. 학생들마다 그 글을 쳐다보고 가는 사람은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사장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고, 조롱하는 사람도 없었다. 다들 이번 일에 대해서는 함구하였다.

## Chapter 3. 소해

*De omnibus dubitandum. [Doubt everything]*

- Karl Marx

### Intro

고양이와 여우가 서로 마주보며 앉아있다. 지금 환경화와 차유라의 모습을 동물에 빗대어 표현한다면 이렇게 된다. 둘은 동일한 검도복을 입고 있었으나 호면은 각자의 오른쪽, 목도는 왼쪽에 놓여 있다. 둘을 제외한 부원들은 모두 귀가하였고, 체육관에는 둘만 남아 있다. 체육관은 무척 넓은 편이라 농구부와 배드민턴부도 함께 쓰지만, 그들도 모두 귀가해서 체육관은 쓸렁한 느낌마저 든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에 무릎 꿇고 앉은 둘은 어느 누구와 견줘도 손색없을 만큼 진지한 모습이다. 워낙 고상하고 고고한 태도로 마주보는 터라 둘 사이에 차(茶)가 놓여 있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너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검도부는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부원들이 많다. 거의 50명이지.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 짐작하지?”

“검도를 제대로 가르쳐 줄 사람이 우리 둘 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그 중 한 명인 내가 어깨가 아파서 그저 서서 구경할 수밖에 없다는 것.”

유라는 말을 거기까지 하고 경화를 쳐다보았다. 여름이 다 되어서인지 경화의 얼굴이 땀으로 가볍게 젖어있었다.

“살인 사건이 계속 이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그래서 자꾸 우리 학교의 여학생들이 호신 무술을 가르쳐주는 동아리면 닥치는 대로 기웃거리고 있는 것. 그래서 자꾸 우리 학교의 여학생들이 호신 무술을 가르쳐 주는 동아리면 닥치는 대로 기웃거리고 있는 것. 따라서

앞으로도 검도부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 하지만 이 녀석들, 별로 성실하게 부 활동에 임하지 않는 것.”

경화의 말대로 신설시에서 발생하는 살인 사건과 그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 검도부에는 사람이 몰려들었다. 사실 검도부뿐만이 아니라 태권도부나 유도부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지만 검도부의 부원 문제는 따로 있었다.

“이 녀석들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고문 선생님께선 행정 문제에만 관여하시고 검도에 대해선 아무 것도 모르시니 우리한테 다 맡겼지. 하지만 우리에게선 뾰족한 해결책이 없고, 어려운 문제네.”

“올해 문예부에는 서수진 덕분에 남학생들이 몰려들었지만, 우리 검도부는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했다. 아무리 그래도 설마 남학생이 단 한 명도 가입하지 않을 줄은 몰랐지.”

“남자 부원을 우대해서 모집하자는 건 아닐 테고.”

“이 상황에서 남학생이 가입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 부에 가입한 녀석 중 아마도 상당수가 검만 들면 무적이라는 황당한 발상을 일삼고 있는 듯하다. 검을 들더라도 그걸 제대로 다룰 수 없다면 차라리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편이 낫지. 빈 탄창을 끼운 소총보다 탄창이 꽉 찬 권총이 나을 테니.”

“어떻게 하면 이 녀석들에게 검도를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란 고민인 것인가.”

“물론이다. 그리고 고문 선생님께 이 문서를 받았지.”

경화가 바닥에 내민 종이는 올해 열리는 전국 체전 안내서였다. 유라는 그 안내서를 집어 들어서 개최지, 날짜, 종목 등 주요 사항을 확인하였다. 이번에 신설시 시장이 큰마음 먹고 일을 저지른 건지 전국 체전이 신설시에서 열렸다.

“여기에 단체로 참가할 생각인가. 훌륭한데?”

“이게 우리 둘만의 결정으로 모두 참가시킨다면 이만큼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결정도 없지. 하지만 녀석들에게 검만으로는 무적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근데 그 무적 발상, 누가 너한테 얘기한 거야?”

검도를 가리켜 예(禮)를 숭상하는 무도(武道)라고 누누이 강조하는 현경화에게 그런 건방진 발상을 입 밖에 올리다간 피할 수 없는 장황한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음을 검도부원들은 안다. 따라서 경화에게 이런 발상을 언급하려면 경화에게 설교를 안 들을 정도로 특별대우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일전에 수진이하고 얘기하다가 들은 것인데, 그날따라 수진이 녀석, 너무 토라져서 시내를 열 바퀴 가까이 돌고서야 헤어질 수 있었지.”

경화는 당시가 떠오른다는 듯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수진이? 문예부 부장? 직접 그렇게 말했어?”

경화는 눈동자를 위로 굴리며 다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팔짱을 꼈다.

“지나가는 투로 한 말이었다. 김만 들면 무적인 네가 부럽다, 나도 검토나 배워볼까 등등.”

“그거 웬지 그냥 네가 부러워서 한 말 같은데.”

“훗, 차유라. 너도 事件의 本質을 糊塗하고 있군. 껍질만 보지 말고 그 안에 躍動하는 알맹이, 본질을 통찰해라.”

“어이, 그 본질을 통찰하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거든.”

“노력 정돈 하란 말이다. 본질은 현상에서 벗어나 있는 게 아니야. 그 속에 함의되어 있지만 끄집어내는 게 힘든 것일 뿐이지. 아무튼 검토에 문외한이 그런 말을 했으니 검토부에 갓 가입한 신입부원들도 대강 이와 비슷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근데 검을 들 때가 안 들었을 때보다 낫잖아.”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너도 검을 다룬다면 알 터이다. 상대가 자신보다 압도적인 실력을 지녔다면 검을 든 것만으로는 안 되지. 오히려 검이란 게 거치적거릴 뿐이다. 차라리 맨손 무술을 가르치는 편이 낫겠지. 하수가 검을 들면, 똑같이 검을 든 자와 마주할 때만 긴장하는 법이다. 즉, 상대가 맨손이라면 자만하고 방심하기 마련이지. 소문으로는 살인마가 꽤 대단한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라고 하더군. 만에 하나라도 우리 부원 중 누군가가 살인마와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무사히 그 자리를 이탈할 수 있게끔 실력을 증진시키고자 함이 내 의도다.”

“어째서 ‘살인마를 이길 수 있게끔’이라고 안 한 거야?”

“現實적으로 不可能하니까.”

경화는 진실과 거짓이 복잡다단하게 뒤엉킨 소문만으로도 살인자의 역량을 높게 평가하였다. 유라는 경화의 남다른 통찰력에 말없이 감탄하였다.

“저번에 박혜원 납치 사건 당시 살인마는 스무 명을 총 없이 몰살시켰더군. 살인마가 한 명이 아니라는 說까지 있으니 검토 초보가 아무리 잘 해도 살인마를 쓰러뜨리는 건 하늘의 도움 없이는 절대적으로

무리다. 소문에는 살인마가 무슨 무기를 썼는지 안 나오지만, 내 생각엔 최소한 단검 종류는 썼을 것이다. 아무리 강한 완력이어도 짧은 시간에 스무 명을 맨손으로 죽이긴 힘들지. 살인자는 경찰이 오기 전에 사건 현장을 정리하였다. 따라서 난 살인자가 맨손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타격 정도를 입힐 수 있는 죽도 대 사람을 찔러 죽일 수 있는 단검, 기본자세 잡는 것으로도 벽찬 초보 대 이미 상당수 사람을 죽인 경험을 갖춘 고수. 상대가 맨손이어도 이길까 말까인데 단검을 쥐었다면 이길 생각은 접어야지. 죽도로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僥倖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니까.”

“과연 그러하군.”

경화가 유라의 감탄에 보일 듯 말 듯 살짝 미소를 머금고는 호면을 머리에 썼다. 얼굴의 표정은 다시금 차분해졌다. 경화는 죽도를 움켜쥐고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어렵게 들릴 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다지 어렵지 않아.”

“무슨 부탁인데?”

“약자의 편에 서라. 약자의 편에서 생각해줘.”

“대체 그 무슨 알기 어려운...”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누구라도 약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약자가 강자를 생각하면 누가 약자를 생각해 주지? 약자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약자는 소외되지. 현실은, 세계는 차갑게 변하는 거야. 하지만 약자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양심 있는 올바른 사람이 약자를 생각해 주는 한, 세계는 절망스럽지 않을 거야.”

“네가 말하는 바, 잘 알겠어. 기꺼이 그리 해 줄게.”

“고맙다.”

“잘 가. 내일 보자.”

“그래.”

유라를 집에 보내주려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경화는 유라를 집에 데려다 준 셈이 되었다. 어차피 경화가 자신의 집으로 가려면 유라네 집을 지나칠 수밖에 없는데다 유라는 학교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살기 때문이다.

유라가 집 안에 무사히 도착한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경화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유라의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것에 대해 안도하는 한편, 소문의 연쇄 살인마와 마주쳤을 때, 자신이 과연 그 인물

을 쓰러뜨릴 수 있을지, 자신의 친구가 혹시 살인마에게 당해버리진 않았을지, 연쇄 살인마를 과연 경찰이 잡을 수 있을지 등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집으로 가는 내내 터벅터벅 걸으며 할 만한 생각 치곤 꽤 괜찮았다. 복잡한 가정도 필요 없고, 결론은 내릴 수 있어도 결과는 알 수 없다. 경험하거나 관찰하지 않는 이상, 아무 것도 모른다. 그저 시간 죽이기에 좋은 질문일 뿐이다.

경화는 음악을 들으며 집으로 가볼까 고려도 해보았지만, 연쇄 살인마가 조용히 자신의 곁으로 올 지도 모를 것을 감안한다면 귀는 열어놓는 편이 좋다. 그렇다고 머릿속으로 음악을 애써 생각해내려고 하면 그 집중력 때문에 주변의 소음이 감지되지 않는다. 역시 시간 때우기 위한 질문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 그쪽은 집중이 딱 어중간하게 되는 질문이다. 집중이란 것은 으레 그런 것이다. 중요하다고 생각될수록 다른 것은 잊히고 시야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될수록 또 다른 생각이 불쑥 튀어나오게 된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그리고 시간 죽이기 위한 질문은 결론은 내릴 수 있어도 결과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 결론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경화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경화는 미로처럼 꼬인 골목길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걸었다. 차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긴 할지 의심스러운 비교적 좁은 골목이다. 또한 길을 꺾으면 건물이 가로막고, 또 길을 꺾으면 건물이 가로막는다. 그러나 길이 막히는 경우는 없다. 진정 미로 같은 골목이다. 경화는 이 골목을 걷는 사람이 자기 혼자뿐이라고 멋대로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기에 자신과 보폭을 맞춰서 걷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

분명 발소리가 일정하다. 자신과 보폭을 맞추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경화는 시험 삼아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리고 죽도의 손잡이에 오른손을 얹었다. 적이 나타나면 언제라도 내리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다 하였다. 경화가 멈추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발소리도 멎어 그 발소리가 자신의 발소리인지 타인의 발소리인지 판단하기에 애매하였다. 어느 쪽이 착각일까. 자신과 보폭을 맞춰서 누군가가 걷고 있다는 게 착각일까. 존재하지도 않는 타인의 존재를 상정하여 골목길 사이로 메아리치는 자신의 발소리를 제멋대로 타인의 것으로 인식한 것이 착각일까.

경화는 다시 걸었다. 둘 중 하나는 착각이다. 상대가 연쇄 살인마라



면 경화를 기만하기 위해 경화의 발걸음을 최대한 모방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발걸음을 완벽하게 흉내 낼 수 있는 타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갑자기 춤을 춘다든지 뛰어나간다든지 뒷걸음질을 친다든지, 선택할 수 있는 랜덤 워크(Random walk)는 무궁무진하다. 경화는 침을 삼키고 천천히 걸었다. 꺾이는 골목에서 제자리걸음을 하며 상대가 뒤에서 나타나길 기다렸다. 제자리걸음을 천천히 힘없이 하면 마치 보행자가 멀어지는 느낌을 상대에게 줄 수 있다. 누가 본다면 우스운 광경이겠지만, 경화는 연쇄 살인마가 뒤에서 미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에 자신의 꼴에 미소를 지을 수 없었다.

이윽고 그림자가 바닥에 머리부터 모습을 드러내자 경화는 죽도를 조심스럽게 양손으로 쥐었다. 상대가 골목길 모퉁이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경화도 상대를 얼마든지 일격에 날려버릴 태세로 기다렸다. 상대는 경화가 계속 걷는 것으로 생각한 모양인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_\_\_\_\_?!”

경화는 골목길 모퉁이에서 나타난 모습에 놀라 죽도를 내리칠 수 없었다.

“Hi~”

“하이가 아니다! 대체 여기서 뭐하는 것이냐, 넌!”

남자인데도 참새처럼 작은 체구라 남자 쪽이 경화를 올려다 봐야하는 그는 다름 아닌 남철수였다. 경화로서는 뭐라 표현해야 좋을지 모를 여러 가지 의미로 꼴끄러운 상대와 마주친 셈이다. 하지만 상대가 살인마와 동떨어진 녀석이라 나름대로 안심하였다.

“내가 여기 있어선 안 되는 건가?”

태연하게 웃는 철수는 소문 따윈 신경 쓰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네 놈이 여기 있을 이유는 요만큼도 없는 거 같은데.”

경화는 왼손의 검지와 엄지로 집게 모양을 만들어 아주 작음을 의미하는 손짓을 취했다. 경화가 봤을 때 그 손모양은 디근으로 보였다.

“이유가 없다니? 난 소문의 실체를 추적하고 있는데.”

“뭐, 그럼 살인마를 쫓고 있단 거야?!”

“믿는 거야? 사실 그냥 산책하고 있지.”

“사, 산책? 내가 잘못 들었지?”

“솔직하게 말할게. 널 미행했어.”

“그래, 산책이로구나.”

경화는 어깨를 으쓱하며 한숨을 쉬었다. 자신은 진지하게 물어본 것

이기 때문이다.

경화는 죽도를 어깨에 걸치고 철수를 쳐다보았다. 철수 또한 뻘뻘히 경화를 올려다보았다. 둘 사이에 느닷없이 시작된 눈싸움에 경화는 단 2초도 버티지 못하고 시선을 외면했다.

“너... 집 이 방향 아니잖아?”

“그건 어떻게 알아?”

“그건...”

“뭐, 하긴 3년 동안 같은 학교에 다녔는데 모르면 섭섭했겠지.”

“난 집에 가야하니까 네가 산책하든 미...행하든 상관하지 않을 거야.”

경화는 아까보다 다소 뻘뻘하게 앞서 나갔다.

“어이, 거긴 네 집과 정반대 방향이다.”

“.....”

경화는 말없이 뒤돌아서 척척 걸었다. 어깨에 걸쳤던 죽도도 어느새 처음 모습처럼 옆구리에 밀착시켜 왼손으로 꼭 쥐었다. 철수도 경화 옆에 나란히 서서 경화와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 두 손으로 각지를 끼고 머리에 댄 철수는 낮은 휘파람을 불었다.

경화는 철수를 흘깃흘깃 잠깐씩만 쳐다보며 생각했다. 어찌 보면 귀여운 이목구비, 불성실한 태도, 생각보다 언변에 능하지 않은 주제에 수많은 여자에게 시나브로 호감을 얻는 녀석, 대놓고 변태적인 언행을 일삼아도 그게 정상적인 일상으로 비치는 놈.....

물론 여기에는 이유가 있음을 경화는 알고 있었다.

“그나저나 넌 혼자서 밤에 걷는 게 무섭지 않냐?”

철수가 모처럼 질문다운 질문을 던졌다.

“무섭지 않아. 무서워해야 하는 건 살인마 쪽이지.”

“너한테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는 뜻이로군. 과연 무림의 절대 고수!”

철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경화는 그 말투가 무척 비꼬는 것처럼 들렸다.

“범법자는 법 앞에 두려워해야 한단 뜻이다. 그럼 너는 무섭지 않은 거냐.”

경화가 역으로 질문하자 철수는 호쾌하게 웃었다.

“그런 살인마가 나하고 마주칠 리가 없잖아!”

“복권이나 우연은 언제나 확률이 0이 아냐. 그건 둘째 치고 소문은 네가 퍼트리는 것으로 아는데.”

철수는 손사래를 치며 부정했다.

“오해라고. 난 이미 퍼진 소문을 모으고 있는 것뿐이야.”

평소의 철수가 하는 언행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던 경화가 그 말에 어이가 없었다.

“그게 소문을 퍼트리는 거야.”

“하지만 궁금한 걸.”

“소문 같은 거 모으지 마!”

“이런, 네가 그리 말하니 할 수 없네.”

철수가 의외로 순순히 경화의 권고를 받아들이자, 경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든 것은 둘째 치고 웬지 모를 부끄러움에 시선을 완전히 철수에게서 반대로 돌렸다.

“그건 그렇고 검도는 잘 배우고 있어?”

“누구? 나?”

경화가 갑자기 핵 고개를 돌려 철수를 쳐다보자 철수는 뒤통수를 긁적였다. 경화는 자신을 가리켜서 말한 게 아님을 깨닫고 다시 앞만 바라보았다.

“어... 부원들은 전반적으로 어때?”

“그저 그래.”

“아무튼 네 집 앞에 다 왔으니 이제 바이바이.”

경화네 집 앞에서 철수는 손을 흔들며 경화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경화는 문 앞에서 철수가 사라진 골목길을 멍한 시선으로 쳐다보다 한참이 지나서야 집 안으로 들어갔다.

### 3.1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예년보다 일찍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직 봄인데도 이러한 이유는...』

열이면 열, 비판임을 인정할 것 같은 중년 남자가 저녁 식사 중에 TV를 보고 있었다. TV에선 일본 뇌염에 관한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었지만, 교육자이자 재단 운영자로 살던 그의 머릿속에 맴돌던 뉴스는 역시 교육에서 경쟁이 실종되어간다는 것이었다.

“초중등 교육에 시험이랑 석차를 없앤 게 오늘날 교육에서 가장 잘못된 점이야.”

정작 본인의 부모가 세운 학교가 전국에 몇 안 되는 시험 없는 대안 학교로 출발했다는 사실은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은 발언이었다.

“아버지, 저런 채널 좀 틀지 마세요. 허구헌 날 사과 방송 내보내고

윤리 위원회에서 경고랑 시정 조치 명령을 받는 방송국이 떠드는 말을 뭐하러 믿으세요?”

“그럼 일본 뇌염이 꽃샘 추위를 이겨내고 있어서 방역 작업을 강화했다는 것도 믿어선 안 되는 거냐?”

“아버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들의 말을 무시한 채로 이사장은 창가로 성큼 걸어가 문을 확 열었다. 그러자 방역 차량이 금방 지나간 것인지 소독 연기와 특유의 독특한 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왔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문 좀 닫으세요!” “끄악!”

이사장은 문을 닫으려다 아들의 말에 뒤이어 흘러나온 비명을 듣고는 창가에서 거리를 내려다 보았다.

소독 연기가 걷히자 거리에는 시체로 보이는 물체가 하나 덩그러니 쓰러져 있었다.

“아버지, 연기 해로우니까 문 좀 닫으세요!”

식사를 하는 아들의 귀에는 거리의 비명 소리가 닿지 않은 모양이었다.

“여보, 밥 식어요.”

“아, 알았어.”

이사장은 창문을 닫고는 도로 식탁에 앉았다. 그러나 아까 본 물체의 정체가 너무도 마음에 걸려서 그냥 밥만 먹고 있을 수 없었다.

“난 배가 불러서 밥은 그만 먹어야겠구나.”

이사장이 식사를 그만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도 자신에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여겨졌다.

이사장은 바람을 쐬러 나가는 듯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방역 차량이 지나간 거리에는 사람이 이사장 자신밖에 없었다. 시체처럼 보이던 물체가 쓰러져 있던 자리가 어디였는지 떠올리다가 자신의 집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건물에서 내려다 봤을 때의 각도를 떠올리며 게걸음 걸듯이 옆으로 걸었다. 그러다 돌맹이처럼 딱딱한 무언가를 밟았던 느낌이 들어 발을 들어서 그 자리를 보자, 거기에 USB가 하나 엉망진창으로 찌그러진 채로 있었다. 이사장은 그것을 주워 조심스레 먼지를 털었는데, USB의 접속 단자가 망가진 것은 아닌 듯이 보였다.

이사장은 자신이 봤던 상태 불명의 사람과 방금 주운 USB가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3.1.1 2037년 6월 12일. 금요일.

차유라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는 대신에 목숨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지도 벌써 두 달이 되었다.

“오늘부로 너는 더 이상 내 가방을 안 들어줘도 돼.”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준구의 기분은 흥가분하다기보다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쫓고 쫓기는 힘겨운 학교생활이 시작되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어차피 네가 경찰에 신고하지만 않으면 자유의 몸인데, 그걸 거부한 건 너야. 네 선택이니까 죽을 때는 날 원망하지 마.”

“그런다고 해서 네 협박에 굴복하진 않아. 반드시 널 경찰에 넘기겠어.”

“허세는 여전하네. 그럼 밤길 조심. 그 동안 가방 들어준 건 고마워. 안녕.”

그렇게 유라네 집에서 대화를 나눈 것이 어제였다. 평소 같았으면 새벽에 정각이 되면 곧바로 유라의 모닝콜이 울렸다. 하지만 이제 유라가 통화를 해오지 않았다. 그래도 몸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었는지 벨소리가 울리지 않아도 준구는 자동으로 새벽 5시 반이 되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찍 일어나는 게 체질이 아닌 준구로서는 조금 원망스러웠다.

준구의 아버지는 아직도 외국에 계신 탓에 밥은 준구가 알아서 차려 먹어야만 한다. 하지만 유라네 집에 가기만 하면 따뜻한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갈 수 있는 특혜가 있었다. 그러나 준구는 고개를 절레절레 좌우로 저었다. 아무리 그래도 유라네 집에서 지내는 생활에 익숙해져버린 모양이었다.

유라가 아침부터 준구를 죽이러 올 수는 없다. 혼자서 귀가하는 저녁이면 그 때를 노려서 준구를 죽일 것이다. 준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친구들과 함께 귀가하는 것이다. 옆에 나란히 걸어가던 아이도 죽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괜히 목격자 하나 죽이기 위해서 또 다른 목격자를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꼬리가 길어지면 밟히는 법이니까.

항상 누군가와 함께 귀가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6월이 되면서 그게 힘들어졌다. 희한하게도 이맘 때 즈음에 전국 해킹 대회가 시작하질 않나, 청소년 전국체전이 실시되질 않나, 여러 모로 함께 하교할 아이들이 줄어들었다. 전국 해킹 대회—민기 힘든 사실이지만 정말로 대회 명칭이 해킹 대회다—에는 멀티미디어부 부장인 남철수가 이미 참가 신청을 하였고, 청소년 전국 체전 검도부 부문에 현경화와 차유

라가 출전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래서 차유라가 집에 늦게 간다면 준구로서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컨디션 조절이라는 명목으로 평소보다 더 일찍 마치는 날에는 꿈쩍없이 차유라의 사냥감이 되는 것이다.

준구는 자신도 무슨 독후감 대회나 문예 창작 대회에 나가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신의 농간인지 문예부가 참가할 수 있을만한 대회란 대회는 모조리 가을에만 시작한다. 가을에 하는 것을 여름 방학도 시작하기 전인 지금 준비하자고 하면, 반드시 서수진이 투입 대비 성과 비율이 좋지 않다고 반대할 것이 뻔하다. 말은 그렇게 해도 미리 준비하기가 귀찮은 게 진짜 이유겠지만.

준구는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일단 학교에 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아직은 새벽 6시 반 밖에 안 된 이른 시각이었다. 이맘때쯤에 골목길을 활보할 사람이라고 해 봐야 신문 판매원이라든지 전날 과음하고 집에 못 들어간 회사원 정도이다. 이 골목은 정말이지 사람이 거의 안 다니는 길이었다. 밤에는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지만, 사람 사는 마을이 이리도 조용할 수가 없었다. 어쩌면 살인 사건에 대한 공포 때문에 밤중에 거리를 쏘다니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인지도 모른다.

하늘에 물려드는 먹구름을 보고 준구는 우산을 챙겨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흠쳐갈 물건은 없지만, 그래도 문단속을 철저히 하였다. 차유라가 몰래 침입할 수 있었던 것은, 문단속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준구는 이른 시각에 학교에 홀로 등교하였지만, 교문에서 차유라를 보았다. 처음 유라를 만났을 때에는 단발머리였는데, 이제는 어깨까지 머리카락이 내려왔다. 하계 교복 상의는 흰 색 반팔 세일러복에, 치마는 감청색인데 제법 잘 어울렸다.

“일찍 일어났네?”

준구가 먼저 유라의 뒷모습을 보았지만, 유라가 뒤돌아보며 먼저 인사하였다. 앞머리는 꾸준히 다듬는 건지 단정하게 보였다.

“내 발소리가 큰 건가?”

“일반적인 남자애들보다는 작지만 난 신경이 예민한 편이라서.”

“내 생활 패턴이 네 쪽에 맞춰졌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 좋잖아?”

“늦잠 자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유라와 준구가 나란히 학교 안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일찍 일어났으니 밤이 아니라 아침에 나를 죽일 거야?”

“그렇게 하면 시체를 처리할 시간이 모자라.”

유라와 준구는 함께 계단을 오르며 대화를 주고받았다.

“내가 혼자 밤길 다닐 때에는 항상 경찰을 대동해야겠네.”

“너 같은 애를 호위하기 위해서 경찰이 투입되어야 할까? 설사 경찰이 너를 호위해 준다고 해도 너 말고도 죽여야 할 인간들이 많은데. 경찰이 너를 신경 쓰는 편이 나를 도와주는 거야. 난 네 쪽에 접근 안 하면 그만이니까.”

“증거가 없으니 붙잡을 수가 없구만.”

“이쪽도 꽤 고심하면서 시간, 장소, 방법을 모색하니까. 네가 나를 뛰어넘으려면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할 거야. 하지만 다른 사람 힘을 빌리자면 네 말에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 숙제를 같이 하자는 중학생 정도의 부탁은 가능하겠지. 하지만 살인자에게서 쫓기는 신세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말을 아무 의심 없이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

교문을 여니, 아무도 없어야 할 교실에는 박혜원이 홀로 앉아 있었다.

“안녕.”

혜원이가 무표정하게 유라와 준구에게 인사를 하였다. 혜원이가 처음 전학을 올 때만 해도 꽤 어두운 인상 때문에 많이 가까이 하기를 기피하는 분위기였는데, 유라와 경화 덕분에 학교생활에 금방 적응을 하게 되었다. 친한 사람에게는 본인의 본색을 슬쩍 보여주기도 하는 모양인데, 꽤나 이해하기 어려운 고차원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무표정해 보이는 얼굴은 도무지 고쳐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게 무표정한 얼굴에 작은 체구, 그리고 적은 말수를 나름대로 좋아하는 별종이 있었으므로 혜원은 남자 애들에게 인기가 있는 편이었다. 그것을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는 모양인데 가장 큰 문제지만.

“안녕! 좋은 아침. 오늘 비가 올 것 같지 않아? 우산은 챙겼어?”

“응.”

유라는 혜원의 옆에 가서 앉았다. 준구도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원래 반 인원이 18명이었는데, 혜원이가 전학을 온 관계로 반 인원은 19명, 즉 홀수가 되었다. 하지만 남철수의 권력 덕에 뒷자리는 세 자리를 연속으로 붙일 수 있게 하였다. 물론 단 한 곳, 뒷자리만 가능하였다. 그래서 언제나 유라가 가운데, 그 왼쪽에 경화, 그 오른쪽에 혜원이가 앉는 구도가 정착되었다. 유라 앞에는 준구, 경화 앞에는 철수

가 앉는 구도였다. 당연히 준구와 철수는 항상 사이좋게 붙어 앉았다.

“시합이 이제 코앞이네.”

“응, 조금은 긴장되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혜원이가 유라를 보고 빙긋이 웃었다. 절대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었다. 준구는 혜원이가 웃는 모습을 그리 자주 보는 편이 아니었으므로 사진으로 찍어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남자애들에게 이 사진이 유포된다면 돈을 받고 팔아버릴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혜원의 미소에는 희소성이란 게 있다.

“안타깝다…….”

“뭐가?”

준구가 절친한 친구인 남철수의 사고방식에 살짝 물들어 무심코 내뱉은 말을 유라가 놓치지 않고 듣고선 날카롭게 물어보았다. 여우의 예리한 직감이 발동했다.

“아니, 아무것도.”

“너, 박혜원이 웃는 거 보고, ‘사진기를 들고 올걸’이라든지 ‘남자애들이 이 모습을 봤어야 했는데’ 따위의 생각을 한 건 아니지?”

준구는 자신의 속마음을 훑쳐본 듯한 날카로운 유라의 지적에 당황하였으나 인정하면 물매를 맞을 것 같았으므로 얼른 부인했다.

“아니? 그런 생각 요만큼도 안 했거든?”

“흐흥~ 과연 그러실까나~ 남자들은 하여튼 다 똑같아.”

“저기, 너희 둘은 아직도 잘 사귀고 있는 거야?”

혜원이 뜬금없이 잊힌 사실을 꺼냈다.

“사실 우리 둘은…”

“아~주 잘 사귀고 있어. 가끔 이 녀석이 바람피우고 싶어 안달 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말이야.”

“유라는 그럴 땐, 어떻게 대처해?”

교내연애가 금지인 것은 아니지만, 연애하는 방법이 혜원의 관심사 중 하나였던가.

“그럴 때는 꼭 머리를 쥐어박고 사과의 의미로 기습 키스를 한다든지…”

“키스……?”

“응.”

“그걸 믿냐!!”

물론 지어낸 말이지만 혜원은 그 말을 믿는 눈치였다. 물론 준구의



절규는 철저히 무시된 채로. 혜원은 진지하게 그 말을 곱씹어 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너, 누구랑 사귀고 있어?”

준구가 그렇게 물어보자, “아니, 그냥 궁금했을 뿐이야.”라고 곧바로 혜원이는 부정했다.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자연스레 교실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분위기를 지배할 뿐이었다.

### 3.1

수염이 덕지덕지 나서 꽤 나이가 들어보이는 사람이 장례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사무실에는 그 두 남자밖에 없었지만, 누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묵직한 분위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래서 빛나는 강이 사람을 공격해서 나에게 데려온 건 성공했는데, 그 놈이 가진 USB를 발견하지 못 했던 거네.” 장례사는 팔짱을 끼고서 상대를 바라보았다.

“USB는 CCTV를 통해서 식별은 해냈습니다. 거리에 떨어져 있었죠. 하지만 확보하진 못했습니다.”

“그거 큰일 아닌가. 다른 사람이 주워갔다는 건가.”

“형님 말씀대롭니다.”

“자네 같은 유능한 정보원이라면 이미 주운 사람의 신상은 파악해 뒀겠지.”

“네, 그래서 형님께 부탁이 있어서 찾아온 것이죠.” 정보상이 장례사에게 서류를 건네주자, 장례사는 차근히 정독해 나갔다.

USB에는 자신들이 소속된 비밀 결사 단체의 인트라넷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과 간부만이 알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이 담겨 있었고, 이를 주운 사람은 신설중학교를 지원하는 재단의 이사장이었다.

“자네가 접근하지 왜 굳이 나한테 부탁하나.”

“저보단 형님 쪽이 훨씬 일반 서민 같고 자연스러울테니까요. 이미 안수근 이사장은 USB를 쓴 것 같습니다. 호기심 때문이겠죠. 제가 접근하면 경계부터 할 겁니다. 형님처럼 학부모의 입장에서 다가가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에이전트에게 부탁하면 되지 않나.”

장례사가 간단한 해결책이라고 나름 생각했던 방법에 정보상은 손사래를 쳤다.

“저 요즘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에이전트한테 줄 게 얼마 없습니

다.”

“그래서 죽이기엔 비싸니 회유를 해달라는 것이로군.”

“하하하, 형님 말씀대로 살생은 안 하는 편이 더 좋죠~.”

“하지만 여차하면 상대를 죽여야만 할 때가 올 거야. 그 땐 망설이지 않아야지. 알겠네. 내가 이 일을 맡겠네.” 장례사의 수락에 정보상은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내뱉었다.

### 3.1.2

도서관에는 서수진과 김준구 둘만이 있었다. 다른 문예부원들은 다 일찍 집으로 귀가하였다. 수진은 한참 신문을 읽으면서 준구의 눈치를 살폈는데 오늘도 준구가 책에 집중을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바깥에 비가 내리고 있지만 폭우 수준은 아니었다. 준구가 우산을 안 챙겨서 초조해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수진은 준구의 행동이 지난 2년과는 다르다는 것을 진작에 눈치 채고 있었다.

수진은 신문 마지막 면의 사설을 대충 훑어보고는 신문지를 접어 신문걸이에 신문지를 잘 끼웠다. 그 때 책을 덮는 소리가 났다. 가방에 책을 넣고 지퍼를 닫는 소리가 적막만이 흐르는 도서관을 울려 퍼졌다. 그리고 수진에게 기회가 왔다.

“수진아, 오늘 같이 집에 가지 않을래?”

두 달 동안 차유라의 가방을 들어주며 생명 보장의 약속이 충실하게 이행되었지만, 이제 그 평화로운 두 달은 끝이었다. 함께 누군가와 귀가를 하지 않으면 오늘 살해를 당할 수도 있다. 물론 수진이가 거부하면 준구는 직접 체육관을 들러서 검도부가 언제까지 연습을 하는지 확인해보고 집에 갈 생각이었다.

수진은 잠깐 망설였다.

별다른 의도가 없는 걸까. 아니면 일부러 이쪽으로 접근하는 걸까.

수진은 준구의 의도를 알아보고자 일부러 튕겼다.

“평소에는 같이 안 가다가 왜 오늘 와서 그러는 거야?”

여자가 남자에게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아주 쓸모없는 의심을 해버렸다.

“그건...”

“됐고, 난 네 집과 반대 방향이니까 네가 내 집에 오는 게 아니라면 사양할래.”

준구에게는 불리한 조건이다. 수진을 바래다주고 자신의 집으로 돌

아오는 도중에 살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유라의 집을 두 번 지나쳐야 하기에 유라의 감시망에 걸릴 확률이 높다. 결국 준구는 수진이의 의도는 알아채지도 못하고 상식적인 결론을 말했다.

“거, 아쉽게 되었네. 그럼 난 혼자 집에 갈게.”

수진은 후회했다. 가끔은 상식을 접어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준구가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거리낌 없는 행동에 수진은 약간 충격에 휩싸였다. 역시 아무 의도 없이 그냥 한 말이었던 것이라고 생각했다.

“문은 내가 잠가라. 먼저 갈게.”

“어? 어…….”

준구가 나가버린 도서관에는 수진만 혼자 남아버렸다. 수진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준구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잠시 체육관 쪽으로 갔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밤 11시에는 불이 다 꺼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은 차유라가 집에 먼저 귀가했다는 말이다. 물론 몇 시에 정확히 귀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면 교복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준구가 귀가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비 내리는 저녁에 여자 하나가 칼 하나를 들고 자신을 뒷골목에서 죽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절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준구는 교문을 나서면서 약간 후회하고 있었다. 서수진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귀가를 함께 하는 것은 힘들지만 뭔가 대체할 만한 조건을 내걸면 수진이와 등하교를 함께 할 수도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협상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남철수는 집 방향은 똑같지만 일찍 하교하는 편이어서 함께 하교할 수가 없다.

한편, 수진은 경화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준구가 함께 하교하자고 하였지만 자신이 거절한 사실을 알렸다. 검도부에서 연습을 마친 경화는 수진이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집에 가는 것도 심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왜 거절한 거야?』

『다시 한 번 더 권유할 줄 알았지.』

경화는 친우의 하소연에 웃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연이 정말 웃기면서 찡했다.

『우리 집하고 개 집하고 반대 방향이잖아. 개가 역지로 우리 집까지 나를 바래다줬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까? 그럼 걷는 데만 한 시간이 걸릴 텐데. 유라는 학교에서 집이 가까웠잖아.』

『그럼 네가 친구네 집까지 친구를 바래다주면 되겠네.』

『어이, 난 보호가 필요한 여자인데.』

『네가 보호가 필요한 건 사실이긴 하지.』

『어떻게 하지? 다음부터 같이 하교하자 그럴까?』

『정 안 될 거 같으면 셋이 함께 하교하면 되겠지. 힘내!』

경화는 교문을 나서면서 수진이와 한참 이런저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 3.1

이사장은 5시간째 컴퓨터와 씨름하고 있었다. 처음엔 자신이 전에 목격했던 게 시체 은닉인가 싶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 마음 속에 갈등이 생겼다. 그러나 사건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는데다, 현장의 중요한 증거품인 USB를 호기심에 들고 와버렸다.

이왕 들고온 거, 무엇이 들어있나 조사해보고 분실물 센터에 넘겨야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그래서 USB에 있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정체를 모를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했다. 설치에는 2시간이나 걸렸다. **위성 안테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떠서 TV 위성 안테나를 컴퓨터에 쓸 수 있도록 설정을 바꾸는데 이사장에겐 당장 때려치우고 싶을 정도로 복잡한 과정이었다. 뒤이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 수 없는 아이콘을 더블클릭하자 컴퓨터가 한 번 맛이 가버렸다. 즉, 다운이 된 것이었다. 다시 부팅하고 백신 검사를 해보고, 치명적 바이러스를 다 없애자 점점 흥미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USB에 ‘read me’라는 메모 파일을 열어 보고 기존의 백신을 지운 다음, USB로 설치한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백신을 깔았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기동시키자 놀랍게도 제대로 기동이 되었다. 이것이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사장은 컴퓨터에 대해 거의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실행시킨 프로그램이 장난이 아니란 것은 느낄 수 있었다. 프로그램은 인터넷이 아닌 모종의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네트워크에 컴퓨터를 연결시켜주었다. USB에 ‘ID’라는 메모 파일을 열어 이 네트워크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자료를 열람하였다. 마치 사람들은 모르는 도서관에 몰래 들어온 것만 같았다. 그것도 자신의 회원증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회원증으로 말이다.

이사장은 자료를 열람할수록 나쁜 짓을 할 때 느끼는 죄책감과 희열뿐 아니라, 자신이 봐선 안 될 이 세계의 비밀을 엿보고 있다는 두려

움도 생겼다. 두려움에 맞서 호기심이 이기자, 자신이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 USB를 얻었다는 일종의 자신감마저 생겼다.

그렇게 고양된 기분으로 비밀 도서관이자 비밀 사교장에 접속해도 몸은 현실에 있었다.

“여보~, 어떤 학부모가 찾아왔어요.”

문 너머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참 재미있는 부분을 읽고 있었는데, 도중에 강제로 끊기자 괜히 자신을 찾아온 사람에 대해 불만이 생겼다.

“갑니다~!” 이사장은 의자에서 일어나자 잠시 현기증을 느꼈다. 의자에 다시 앉았다가 일어서자 몸이 한결 가뿐해진 기분이 들었다.

문을 열고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맞이했다. 이사장의 눈에는 학부모인 것 같은 남성이 중학교 1학년이 된 듯 보이는 딸을 데려온 것으로 보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북쪽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박홍섭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원이라 합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두 분. 저는 안수근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쪽으로 오시죠.”

이사장은 둘에게 자리를 권하고 자신도 마주 앉았다.

“무슨 일로 절 찾아오셨습니까? 따님이 제 기억에 없는 걸로 봐선, 저희 학교 학생이 아닌 듯싶습니다만.”

“신설중학교로 전학을 보낼까 해서 찾아뵈는 겁니다.”

학부모는 여유롭게 대답했지만, 전학을 오갈 때는 서류상의 절차와 우편으로 결과를 통보하는 것 정도가 전부여서 이사장으로선 꽤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게 표정으로 다 드러났는지 학부모는 계면쩍게 웃었다.

“아,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가 이사장과 만나는 것도 드문 일이라 의아하시겠군요. 실은 제 딸이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애가 있는데, 그 아이가 마침 이 학교 3학년 1반에 재학하고 있다는군요. 그래서 반배정을 1반으로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온 겁니다.”

“음, 그렇습니까. 어려운 부탁도 아니고 지금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교장에게 연락해보죠. 잠시 기다려주시길.”

이사장은 휴대폰을 꺼내 교장에게 전화했다. 역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학부모의 부탁은 손쉽게 해결되었다.

“박혜원 양은 3학년 1반에 전학오게끔 되었습니다. 1반 담임은 이백

향 선생인데, 사회 교과목을 맡았고, 동료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두루 덕망을 쌓은 교사지요.”

“감사합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예, 안녕히 가십시오.”

그 두 사람이 집을 떠나자 이사장은 마음을 놓고 비밀스런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향하려 했다. 그러나 몇 초 지나지 않아 아까 그 학생이 다시 집에 들어왔다.

“아버지께서 전할 말이 있었는데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다고 하셔서 저를 보냈습니다.”

이사장은 학생을 향해 뒤돌아보았다. 학생의 표정은 무척이나 침착해보였다. 애초에 표정이 있긴 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 때문에 이사장은 긴장해버렸다.

“뭐...뭔가.” 이사장은 애써 긴장한 표정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말을 버벅거리어서 더 당황해버렸다. 학생의 시선은 조용히 이사장의 눈에 맞춰져 있을뿐, 학생은 이사장의 모습을 보고서도 자신의 우월함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았다.

이사장은 생각했다. 상대는 조금도 학생답지 않다.

“아버지께서 일전에 이 거리에서 물건을 하나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혹시 기억나는 물건 없습니까? 예를 들면...” 학생은 교묘하게 뜬금없이 들었다.

“이 거리는 항상 청소부들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떨어진 물건이 있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찾는 게 가장 빠를 걸세.”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걸 아버지께서 이사장님께 전해달라던 겁니다.” “촌지 같은 건 안 받아!” 이사장은 대뜸 화를 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반응이었다. 물론 진짜 이사장 평생에 너물 같은 것은 오간 적이 없다고 맹세할 수 있었다.

“촌지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그저 쪽지일 뿐입니다.”

“으음, 그래.....?”

학생이 쪽지를 건넸다. 이사장이 그 쪽지를 받아 학생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였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학생이 집에서 떠나자 이사장은 학생이 건넨 쪽지를 펼쳐보았다. 이사장은 사색이 된 얼굴이 되어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 3.1.3

준구는 방향을 자기 집 쪽이 아니라 차유라네 집으로 잡았다. 유라가 만약 자신을 잡으려고 골목에서 대기한다면 유라네 집에는 유라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유라가 준구를 죽이는 데에 큰 관심이 없다면 집 안에 있을 것이다. 물론 유라가 집에 없다면 준구로서는 유라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골목의 구석진 곳에서 숨어서 기다리면 된다. 유라가 유라의 집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준구도 준구의 집으로 귀가하면 된다. 번거롭긴 하지만 그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고 그러는 편이 가장 신뢰할 만하다. 한 가지 단점은, 밤새도록 유라가 귀가하지 않으면 다음날 등교할 때까지는 꼼짝없이 골목길에서 숨어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준구의 모습을 수시로 체크하는 누군가가 있다. 유라네 집과 골목길이 전부 보이는 건물 옥상에서 검은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이다.

“목격자가 네 집으로 가서 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는 모양이다. 신속히 귀가해라.”

아직 변성기가 찾아오지 않은 목소리다. 왼손에는 우산을 쥐고 있고 오른손에는 무전기로 유라에게 준구의 위치를 꾸준히 알려주고 있다. 그가 바로 차유라의 중개인이다. 사건 의뢰가 있을 때마다 사유와 액수, 그리고 타깃을 결정해서 유라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수신 완료.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위치 고수하기 바람.』

“이 일 끝나면 나도 귀가해도 되겠지.”

『당연한 말로 무전기 전지 낭비하지 말기 바람.』

“그래봤자 낭비 얼마 안 된다고 알림.”

무전기는 당사자끼리의 주파수가 연결되지만 않으면 도청될 우려는 없다. 거리 제한이 있지만, 부수적인 통신 장비를 사용해서 통신의 품질을 높일 수가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유라의 중개인 옆에는 조그마한 군용 보조 통신 장비가 있다.

준구는 유라네 집까지 도착하기도 전에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마치 준구가 유라네 집을 방문할 것을 예측이나 한 듯한 행동이다. 준구는 우산을 떨어뜨렸다.

현경화는 하교를 하는 와중에 서수진과 열심히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땅에 떨어진 우산을 발견하였다. 누가 우산을 버렸는지 알 수

없었다. 우산은 펼쳐진 상태 그대로 땅에 놓여 있었다. 핏자국 같은 것도 없었다. 과연 골목길 한복판에 우산을 버려두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

경화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잠시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을 중단하였다. 비록 비가 내리지만 경화는 우산을 접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머리와 어깨를 적시기 시작했다. 검도를 배운 그녀에게 길고도 단단한 우산은 목검과 같은 공격력을 발휘하는 좋은 무기다. 그녀가 든 우산은 보통 우산이 아니었다. 성인 남성이 우산에 올라서도 부러지지 않고 샌드백에 온 힘을 다 실어 휘둘러도 역시 부러지지 않는 우산이었다. 물론 검을 들었다고 무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쇄 살인범이어도 일대일이라면 반드시 처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精神一到 何事不成.’

그녀는 속으로 자신의 집중력을 증폭시킬 수 있게 암시를 걸었다. 효과는 상당했다.

그녀는 주변의 소리에 집중하며 재빨리 뛰었다. 어찌면 살인자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누군가가 소리를 지른다면 그 방향이 바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곳이라.

### 3.1

『당신이 주운 물건을 옥상에서 내일 오후 11시 안으로 파기하십시오. 잔해는 그 자리에 놓은 채로 있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비밀을 엿본 대가로 파멸하게 될 것이요.』

아주 간단해서 무슨 말인지 너무도 잘 이해하게 되는 메시지였다. 이사장은 학생이 준 쪽지를 읽는 채로 한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무 것도 아니야.”

이사장은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이가 들다보면 고민이라는 것이 자신이 한다고 해서 자신만의 것이 아니게 됨을 깨닫게 된다. USB를 사용한 것은 자신이지만, 파국을 맞이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입힐 게 분명했다. 이사장은 USB를 파기하라는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놓고 갈등하였다. 상대의 요구를 통해 이미 분실물 센터에 그것을 넘겨주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알아차렸다. 역시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 자신이 어떻게 USB를 습득하게 되었으며 누구에게 협



박을 받고 있는지 알려주면 살 길은 마련된다.

이사장은 즉시 휴대폰을 열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보았다. 그러나 경찰서에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민원이 많아서 안내가 지연된다는 메시지가 나올 뿐이었다. 경찰에 연락할 수가 없었다. 신설시 분실물 센터에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로 전화가 걸리지 않았다.

두려움이 이사장을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불의가 목숨을 놓고 자신을 유혹해왔다. 단지 파기하기만 하면 된다. 악의 수중에 이 USB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비밀을 엿본 것은 발설하지만 않으면 어떻게든 무마될 수 있다. 컴퓨터의 네트워크 연결도 끊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생활하면 된다. 그러나——

비밀을 봤는데 요구대로 행동한다고 살아남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사장은 즉시 카메라를 꺼내서 모니터를 촬영했다. 비밀 도서관에 쌓인 책을 열심히 무단 복제했다. 비밀을 하나씩 현실 세계로 옮겨놓았다. 먼지 쌓인 연습장을 털어서 필기하였다. 조직 계보도를 작성하고 이들의 음모를 순서대로 짜놓았다. 최근의 역사가 모두 누군가의 계획에 의한 것임을 인식했다. 자신은 이 행동으로 인해 죽게 될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 기록을 누군가가 볼 수 있게 남겨야 한다. 하지만 누가 이 기록을 보고 세계의 음모를 폭로할 수 있던 말인가.

그 때, 이사장의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다. 화면에는 발신자 제한 번호가 떠 있었다.

“누구십니까.”

『저는 신설시 일대의 CCTV를 관리하는 정보과의 이상동이라고 합니다. 신설재단의 이사장이신 안수근 씨지요.』

이사장은 선뜻 인정할 수가 없었다. 상대를 아직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대는 이미 자신을 알고 전화를 걸은 것이 분명하였다.

『당신이 일전에 어떤 USB를 습득해서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것도 눈치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USB는 제 동료가 빼돌리려다 실패한 물건이기 때문이죠.』

“당신, 이걸 달라는 건 아니겠지.”

『저를 믿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국내의 경찰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니 제게 달라는 소린 절

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담긴 비밀은 폭로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해주셨으면 좋겠군요. 부디 정의를 생각해 주시길.]

“정의를 내 목숨을 보장하진 않잖소.”

『불의에 가담한다고 해서 목숨이 보장되는 것 또한 아니죠. 당신의 목숨을 구할 비책을 알려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려는 방법으로 당신의 목숨을 구할 확률을 높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은 마른침을 삼켰다. 상대가 전화를 걸어온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경찰을 믿을 수 없다면 외국 정보 기관에게 USB를 넘기십시오. 제 동료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신변 보호를 요청한 자를 보호하는 법, 즉 신변 보호법에 대해 들어보셨을 테니 별다른 설명은 첨가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들어는 본 적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오.”

『의외로 간단합니다.』

정보상은 이사장에게 신변 보호법을 실제로 쓰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사장은 이것이 자신의 목숨을 연장시켜주리란 확신을 얻진 못했다. 그러나 이사장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마지막 일이라는 확신은 얻었다.

### 3.1.4

유라가 무서운 기세로 쫓아오고 있었다.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검은색 교복 치마를 입은 것으로 봐선 결코 집에 들렀다가 다시 나온 게 아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유라의 손에 커다란 장도리가 하나 쥐어져 있다는 사실이고, 준구는 지금까지 달렸던 속도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줄행랑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준구는 그간 골목길에 대해 많이 조사했었다. 하지만 아직 CCTV가 있는 곳까지 도망가려면 수십 미터를 더 뛰어야 했다. 그러기에는 그들의 간격이 너무나 좁았다. 유라가 무서운 기세로 뒤쫓아 오고 있었고, 아마도 준구를 골목 구석에 몬 다음에 망치로 머리를 찍을 것이다.

저번과는 달리 이번에 유라는 말이 없다. 저번에는 상처를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준구의 희망을 꺾기 위해 일부러 말을 걸었지만, 이번에는 말을 거는 것조차 하지 않고 준구를 뒤쫓는 것에 모든 신경을 집중시켰다.

빗속을 달리는 것은 둘 다 고역이었다. 둘의 간격이 점차 좁혀지면서 준구는 이번에는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이번에는 CCTV가 없다. 그곳까지 도망치는 데 실패하였고 이제는 머리가 깨져서 길바닥에 죽을 운명이다.

준구는 방향을 틀었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이다. 이 마을은 이제 밤만 되면 골목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다. 정말 쥐 죽은 듯이 무서운 밤길이다. 비가 땅을 때리는 소리,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세상에 들리는 모든 소리다.

준구는 뒤돌아섰다. 바로 앞에는 차유라가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즐기는 듯한 표정이다.

“이거 참, 어찌나. 게임이 싱겁게 끝나버렸네.”

“차유라!”

“CCTV로 유인하는 것은 실패했으니 이제 어떤 카드를 꺼내시려나?”

유라가 한 걸음씩 다가오고, 준구는 그에 따라 한 걸음씩 뒷걸음질을 쳤다.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늦었으니, 이제 순순히 죽어주지 않겠니.”

유라가 성큼성큼 다가오면서 준구는 공포에 사로잡혀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준구의 시야에는 차유라 이외에 한 명이 더 눈에 띈었다. 검은 색 교복, 여자치고는 큰 키, 우산을 접고 있어서 이미 비를 맞고 젖은 모습이 눈에 띈었다. 현경화가 이 사건의 목격자가 된다면 정말 큰일이다. 자신이 죽게 되면 그 다음 목표물은 현경화다!

“명복을 빈다!”

유라는 망치를 높이 들어서 준구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그러나 준구는 기적적으로 두 손을 모아 유라의 팔을 붙잡는데 성공하였다. 아무리 유라라도 준구가 두 손으로 막아내는데 망치로 머리를 찍을 수가 없다.

‘이쪽으로 오지 마, 현경화!’

준구의 급한 마음을 눈치 챈 건지 유라는 역으로 소리를 질렀다. 목격자가 뒤에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는 의미다. 거의 초능력에 가까운 감각이라고 준구는 생각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경화는 유라가 소리를 지른 것을 듣고 준구와 유라가 있는 쪽으로 왔다. 유라가 준구를 죽이고 곧바로 경화를 죽이려는 속셈이다. 그러면 더 이상의 목격자는 나오지 않게 된다.

준구는 왜 유라가 소리를 질렀는지 금방 눈치 챘다. 경화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이쪽으로 오면 죽어!’

그렇게 외치고 싶었지만 외칠 수가 없었다. 경화가 죽지 않으려면 유라의 입을 막아야만 했다.

준구는 두 눈을 질끈 감고는 유라의 입을 그의 입으로 틀어막았다. 날카롭던 비명 소리가 단절되었다. 유라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준구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한 나머지 망치를 떨어뜨렸다.

경화는 유라의 뒷모습을 보고는 유라가 있는 쪽으로 뛰어왔다.

망치가 땅에 떨어져 부딪치는 시끄러운 소리가 빗소리에 묻힌다.

준구는 유라의 팔에서 손을 떼어내고 유라의 어깨를 붙잡았다.

“어보세요, 경찰이죠? 조금 전에 연락한 사람인데요.”

경화는 돌이 된 듯이 굳어버린 유라와 두 눈을 질끈 감은 채로 유라의 입술을 범하고 있는 준구의 모습을 가까이 다가와 그제야 그 모습을 제대로 보았다.

“아,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제 착각이었어요. 수고하십시오.”

경화는 휴대폰을 끄고 잠시 둘을 쳐다보았다.

“너희 둘…….”

상상조차 한 적 없는 장면을 목격한 듯이 경화는 그 자리에서 얼어 붙었다. 준구가 유라의 입술에서 입술을 떼어 내자 경화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휴대폰을 꺼내려 했다. 그 때, 유라가 급하게 경화를 제지하였다.

“잠깐만!”

경찰에 다시 연락하는 것은 제지되었지만, 경화는 전후 사실로 미루어 많이 오해하였다. 일반 연인의 키스라면 그렇게 여자 쪽에서 소리를 지를 이유는 없다. 그래서 지금껏 준구가 일방적으로 유라를 쫓아 다닌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두 달 동안 별다른 대가 없이 준구가 유라의 가방을 들어준 것도 그 증거 중에 하나로 인식된 것이다.

“김준구, 너 이 자식, 어떻게…….”

경화의 모습은 비에 젖은 고양이 풀 같았지만 눈매만큼은 무서울 정도로 매서웠다. 경화는 자신이 쥐고 있던 우산을 준구를 향해 들었다. 우산의 끝이 마치 검끝처럼 준구를 겨누고 있었다. 사실상 반쯤은 겁이나 다름없었다.

“그게 아니라, 사실 준구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라서 소리를 지른 것뿐이야.”

경화는 바닥에 떨어진 장도리를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망치는 어떻게 설명할래?”

“아, 그건 우리 아버지 심부름. 벽에 못을 박으려는데 장도리가 낡아서 부러졌거든. 하나 사오는 길이야.”

경화는 우산을 내렸다. 유라가 해명하니 안 믿을 수가 없었다. 경화는 자신이 오해해선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면서도 제대로 변명조차 하지 않는 준구에게 적개심을 버릴 수 없었다. 경화는 마음 속 깊이 분개했지만, 자신이 준구에게 화를 낼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하고는 있었다. 화를 억누르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김준구……. 넌… 나와야 약속을 잊은 것이더냐.”

준구는 경화가 분개하는 모습을 보고 당황하였다. 경화를 위협에 빠뜨리기 않도록 하려고 급조한 책략이 자신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셈이었다.

“약속, 어…….”

“기억나지 않으면 억지로 말하지 않아도 돼. 내가 멋대로 네게 강요한 건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내가 내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게 무엇 때문이었는지 기억하고 있었다면, 한 번쯤 상담해도 되지 않았을까.”

“상담…….”

“아직 내가 신뢰하기에 부족한 친구인가 보군.”

경화가 준구에게 등을 보이며 돌아섰다.

“차유라, 너도 마찬가지야.”

“경화야…….”

“너희한테 화가 난 게 아니야. 너희에게 신뢰받지 못한 것도, 그걸 너희 탓으로 돌리고 싶은 기분 때문에 너희에게 상처주는 말을 할까 봐 두려운 것도 모두 포함해서 스스로에게 실망했을 뿐이니까. 내일 보자.”

준구는 경화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그저 쳐다볼 뿐이었다. 자신이 경화를 제대로 믿었더라면 제대로 된 아군이 되었을 것이다. 경화는 입밖에 내뱉지 않았지만 분명 준구와 유라에게 실망을 느꼈다는 것을 준구는 짐작할 수 있었다.

유라는 땅에 떨어뜨린 망치를 집어 들었다.

“너 때문이야.”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준구는 비가 내리치는 땅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보다 네가 날 안 죽이려고만 하면 되잖아.”

“네가 언제 경찰에 신고할지 알 수 없으니까 안 돼. 하지만 무턱대고 너를 죽이려다 보면 오늘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겠단 건 알았어. 다음에 보자.”

유라는 뒤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갔다.

준구도 비를 맞으며 처량한 신세로 집으로 돌아갔다. 수진이와 함께 하교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제대로 경화에게 변명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경화에게 모든 걸 털어놓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그래도 이미 유라는 준구를 죽이려는 데 오늘 한 번 실패했으니 오늘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더 이상의 살해 위협은 없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운이 따라 주리라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골목길에는 아직도 내팽개쳐진 우산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준구는 우산을 집어 들고 고인 물을 바닥에 쏟고는 잘 접어서 쥐었다. 어차피 교복은 다 젖었다. 이제 와서 우산 쓰고 집에 간대봤자 달라질 것은 없었다.

준구는 그래도 우산을 펼쳤다. 몸에 들러붙은 교복이 걸을 때마다 찝찝하게 느껴졌다. 집에 가서 세탁기에 넣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휴대폰이 진동하였다. 준구는 자신에게 온 문자 메시지를 보았다.

『설마 그럴 일은 없으리라 여기지만, 진짜 위험할 땐 언제든지 연락해라. 그러라고 알려준 변호니까. 오늘 일은 불문에 부치고 대국적으로 생각해라.』

경화는 사려 깊게도 준구가 보여준 모습에 모든 신경을 집중한 것은 아닌 모양이었다. 물론 유라가 살인자임을 의심하는 단계까지 온 것은 아니겠지만, 경화는 근처에서 살인 사건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준구는 짤막하게 고맙다는 답장을 보냈다.

### 3.2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선다.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이 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할 것인지 선택한다. 이런 선택은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선택이란 생각마저 들지 않는다. 사실 우리는 어떤 최초의 선택에 큰 불만이 없거나 현저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처음의 선택에 거의 변화를 주지 않은 채 다음에도 같은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선택을 할 때 매번 망설여야 할 시간을 생략해준다. 사람이 망설이는 경우는 평소의 선택에 질려버렸거나, 누구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하거나, 반드시 소중

한 무언가를 포기하고 다른 소중한 무언가를 구하는 선택을 할 때이다.

사람들은 무언가 포기하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포기하는 것이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은 아무리 발악해도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없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언가 선택하듯이 일상적으로 무언가 포기하고 있다. 하나를 선택할 때 포기하는 것은 수만 가지 선택되지 못한 무언가이다. 그리고 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들 중 가장 가치가 큰 선택을 가리켜 기회비용이라 일컫는다. 사람이 선택한 무언가로 얻는 이익을 편익이라 일컫는다. 현명한 자는 아무 것도 포기하지 않으려 하지 않는다. 그것이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이다. 대신에 그는 기회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다.

그것은 이사장에게도 당연한 일이었다. 다만 이사장은 자신이 이번 일을 통해 얻을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더 클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이사장의 집에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다.

“여보, 요즘 손님이 자주 오는 거 아녜요?”

아내의 말에 이사장은 “곧 은퇴하게 될 테니까.”라고 답했다. 아내가 기겁하자 “농담이야.”라며 얼버무렸다.

이사장이 현관문을 열자 거기엔 중년 남성이 한 명 서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실비아 소령이 보내서 온 김한균이라고 합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사장이 그를 볼 때 그다지 믿음직스럽다는 인상을 받지 못했다. 그는 몇 달은 족히 깎지 않은 수염을 달고 있었으며, 입고 있는 가죽 재킷은 낡아서 처음에 검은색이었는지 갈색인지 추측할 수 없을 정도였다.

“들어오시죠.”

이사장이 그를 집안에 들어오게 하자, 아내는 굉장히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차림새가 볼품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군인이 보낸 자가 왜 자신의 집에 왔는지 의아했기 때문이다. 이사장은 아내에게 별 일 아니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그를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다. 이사장 또한 방으로 들어온 다음 문을 닫았다. 아내가 엿듣지 않으리란 확신은 있었다.

그는 “적당히 앉겠습니다.”라며 방 한 가운데에 앉았다. 이사장도 그의 맞은 편에 앉았다.

“신변 보호 요청을 하셨죠.”

이사장은 그가 진정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온 것인지, USB를 회수하기 위해 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네, 실은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어서…….”

“경찰에는 신고할 수 없는 일입니까?”

이사장은 그를 못 믿겠다는 눈초리로 쳐다봤다. 그 시선을 눈치챈 그는 불쾌한 기색을 드러낼 법도 하지만, 그러지 않고 침착하게 이사장에게 말했다.

“너무 당연한 말을 했나 보군요. 실은 신변 보호 요청법의 주요 사항 중 하나가 한국의 치안 시스템을 믿을 수 없을 때, 외국 정보 기관이 대리 수사를 해 드립니다. 이를 원치 않으면 물론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제게 털어놓으면 지금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기침을 몇 차례 했다.

“저도 은퇴할 때가 다 되었지만, 이런 소일거리도 나름 재밌어서 말이죠.” USB에 대한 말은 나오지 않아서, 그 말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건 아닌지 이사장은 의심했다.

“실은 최근에 이 근처에서 살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살인 사건이라는 말에 그의 눈빛이 아까 전보다 밝게 빛나는 게 이사장에게 보였다. 그는 재촉하지 않고 수첩을 꺼내 이사장이 했던 말을 간단히 요약했다.

“제가 집에서 나와 시체가 있던 현장에 가 봤는데, 시체가 사라졌더군요.”

“그 말은, 집안에서 목격할 땐 시체가 있었는데, 집밖으로 나와보니 누가 처리했다는 것이군요.”

“사실 그게 시체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묘한 일은 그 다음입니다. 며칠 뒤, 한 학부모가 자녀를 데려와선 반 배정을 부탁하더군요. 그 학부모가 이야기를 끝내고 집으로 갈 때, 자녀를 통해 쪽지를 제게 건넸습니다. 협박문이었죠.”

“그 쪽지, 제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이사장은 일어나서 서랍에 있던 쪽지를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다. 긴 말이 아니라 그는 그 쪽지를 얼른 보고는 이사장에게 돌려주었다.

“무슨 물건이기에 파기하라고 한 것이죠. 마약 같은 겁니까?”

이사장은 손을 절레절레 저었다. “저야 무슨 물건인지 모르죠.”

“그 학부모와 자녀가 누구인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곧 전학을 올 학생이라 자세한 건 모릅니다. 잠시 기다려주시죠.”

이사장은 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학 예정자에 관한 문서를 파일



로 보내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자, 2분도 걸리지 않아 휴대폰으로 파일이 송신되었다. 이사장은 파일을 열어 그 학생의 프로필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이 학생입니다.”

“잠깐 이벤트를 열어야겠군요.”

“무슨……?”

“제 부하를 시켜 이 학생을 납치하겠습니다.”

“범죄장소.”

기겁하는 이사장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별 것 아니라는 듯이 웃었다.

“협박한 자를 협박하는 것도 일종의 수사지요. 또한 안수근 씨가 거금을 들여가며 스스로의 위신을 깎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 또한 조사해봤지요.”

### 3.2.1 2037년 6월 13일. 토요일.

어제와는 달리 비는 오지 않았다. 준구는 이마에 미열이 느껴졌지만, 몸이 가볍게 느껴져서 학교에 나왔다. 준구는 모처럼 늦잠을 잔 덕분에 1교시가 시작되기 직전에 교실에 들어올 수 있었다. 그리고 평소대로 자신의 지정석이나 다름없는 자리로 오려다 평소와 자리가 바뀌어 있음을 알아차렸다.

분명히 비어있는 자리가 준구의 자리다. 그 뒤에 철수가 앉아 있고, 철수의 양옆에 현경화, 박혜원이 포진해 있었다. 자신의 옆자리에는 유라가 앉아 있었다.

준구는 묘한 분위기를 느끼며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걸어왔다. 모두 자신을 주목하고 있었다. 원래 이 시간에 다들 잡담을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는가. 준구는 어지러움을 느껴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섰다.

고개를 숙이던 유라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열결에 준구는 다시 걸으려다 말았다. 몸을 떨던 유라가 애써 심호흡을 하는 게 보였다. 심호흡이 끝난 유라는 준구를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떨구었다. 준구는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너한테 폐만 끼치고, 혜원한테는 거짓말만 했지만, 장난처럼 보이면서 진심을 숨길 순 없었어.”

준구는 유라가 무슨 꿑꿑이로 이러는지 생각해 봤지만, 머리의 열 때문에 생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준구는 주변을 둘러보다 현경화와 눈을 마주쳤다. 경화는 살얼음이 낄 것 같은 냉정한 시선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나, 널 좋아해. 내 마음을… 받아줘!” 유라가 고개를 숙이며 상자를 어깨 높이로 들었다. 연기인지 실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경화의 시선이 마치 자신은 그만 쳐다보고 유라에게 대답하라는 무언의 촉구로 느껴져 준구는 고심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 될까…….”

준구의 답변을 출발 신호처럼 삼아 유라는 상자를 떨어뜨리고는 교실 뒷문을 향해 달려갔다. 상자는 책상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떨어지며 내용물인 쿠키를 어지러이 퍼트렸다.

준구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는데, 경화가 팔짱을 끼며 서늘한 음성으로 말했다. “뭐해? 가서 안 붙잡고. 서로 키스까지 한 사이잖아?”

준구는 얼른 교실 뒷문으로 달려나가 복도로 빠져나왔다. 계단 모퉁이에서 등을 보이며 훌쩍거리는 유라가 보였다. 교실 밖으로 나갈 때만 해도 학교를 나갈 기세였는데, 계단 앞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유라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 준구가 유라에게 다가갈수록 훌쩍거리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다.

“유라야.”

유라는 눈물을 소매로 훔치고는 뒤돌아서 준구를 껴안았다.

“정말 좋아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걸 어떡해.”

준구는 유라를 믿지 않았다. 이런 장면을 학급에 보인 것도 노림수이고, 여기에서 자신을 껴안은 것도 노림수일 것이다.

준구는 잠자코 있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얼른 생각나지 않았다. 뒤에서 환청처럼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무리지어 걷는 소리였다. 준구가 2반이 토요일 1교시부터 체육 수업이라 체육관으로 이동하러 계단을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유라가 준구의 품에 더 파고들면서 “넌 내가 어때?”라고 물었다.

준구는 자신의 옆을 스쳐지나가는 학생, 여학생, 2반 반장, 서수진과 눈을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이 한 시간처럼 느껴졌다. 수진이 준구를, 준구가 수진을 뻘뻘 쳐다보았다. 준구는 수진이 상황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표정으로 눈을 두어 번 빠르게 깜박이는 걸 보았다.

드디어 사태파악이 되었는지 수진이 준구를 외면하며 계단을 내려가자 시간이 제대로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2반 학생들이 모두 준구와 유라를 구경하면서 지나가고서야 준구는 정신이 들었다.

준구는 유라의 어깨를 붙잡고 거리를 떠났다. 자신의 가슴팍에는 유

라의 눈물이 묻어 있었다.

“이게 네 노림수구나.”

“지금만큼은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은데.”

“알았으니까 교실로 돌아가자.”

준구는 유라의 손을 붙잡고 교실로 돌아왔다.

### 3.2

병실에 들어온 교수는 병석에 누운 환자들을 둘러보았다. 병문안을 온 그는 꽃다발을 들고 있지 않았다. 음료수 세트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그가 빈손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병실을 이리저리 살살이 훑어보는 것이 환자들에게 무례한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자신이 찾으려는 환자가 어느 병석에 있는지 확인했다. 그가 찾으려는 환자는 결코 부유하지 않았지만 그 환자는 그를 데려가기 위해 비행기를 보냈다. 그는 그 환자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경황이 없진 않았다. 그저 언젠가 일어날 일이 지금 일어났을 뿐이라는 무덤덤한 생각을 냉정하게 했을 뿐이었다.

그는 커튼을 걷고는 자신이 찾은 병석을 발견했다. 그 병석에는 한 여성이 누워있었다. 초췌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녀가 쓰러진 당일 입원했으며 그 다음날 그는 비행기를 타서 병원으로 급히 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결코 늙어보이지 않았으나 머리카락만이 그녀의 나이를 증명해주는 듯이 보였다. 희끗희끗한 새치가 듬성듬성 난 수준이 아니었다. 머릿결을 잘 유지하는 편인지 형광등의 빛에 머리카락이 반짝이는 듯이 보였지만 분명히 백발이었다. 백발이 어울리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가 바로 그가 찾던 환자였다.

“은희, 무리하더니 결국 쓰러졌군.”

그는 병석 근처에 있던 의자에 앉았다.

“꽃다발 같은 건 사오지도 않았군요. 기껏 비행기까지 보냈는데. 아쉬워요, 오빠.”

그는 작은 한숨을 쉬며 그녀의 이마를 어루만졌다. 그리고는 그 이마에 입술을 갖다대었다. 아직 탄력을 잃지 않은 이마는 분명 그녀의 본래의 나이를 거스르고 있었다.

“노조 위원장이 회사 비행기를 개인적인 용도로 쓰다니, 상상도 못할 수법이었어.”

그녀는 빙긋 웃었다. 순수하게 그가 와준 것 자체를 기뻐하는 눈치였다.

“회장님께서선 여전히 생산 수단의 사적 점유는 싫어하셔서 말이죠. 신청서만 내면 평사원이란도 쓸 수 있어요. 단지 회사 비행기를 정말 쓰려는 사람이 드물어서 문제긴 하지만. 사놓고 안 쓰면 참 아까운데 말이에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날 부르면 곤란해. 일단 비행기에서 대충 네가 보낸 이메일을 읽었어. 급히 온 덕분에 꽃다발을 사서 올 시간 같은 건 없었지.”

“그건 그것대로 기쁜 대답이네요, 오빠.”

“미안하지만 난 너와 대등한 정신 연령에 도달하지 못했어. 네가 월등히 뛰어난 탓인 것도 있겠지만, 날 그렇게 부르면 민망해져.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간신히 하는 거야.”

그녀는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저한테 이게 익숙한 거니 이렇게 부르도록 허락해 줘요. 뭐, 매번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라 지켜우시더라도 제가 교수님이나 성함으로 부르면 그것대로 이상하잖아요.”

“하긴 일리는 있군. 내가 너한테 노조 위원장님이라고 하면 너 또한 반발할 테니.”

“말고 싶지도 않은 직책인데 왜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막중한 임무를 부여했나 몰라요. 그저 연구직으로 근무하기만 해도 충분히 만족인데.”

“대의라는 건 자주 사람을 괴롭게 하는 법이지.”

그는 어떤 경로로 그녀처럼 전혀 노동 문제에 관심 없던 사람이 노조 위원장이란 직책을 떠맡게 되었는지 알고 있었다. 결론만 말하면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는 그녀가 뺨을 계속 어루만지게 내버려뒀다.

“젊었을 적에 오빠가 언니랑 저에게 해줬던 말이 떠오르네요.”

“난 떠오르지 않는 걸.”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왜 고단한지, 그런데도 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얘기는 길어질 거 같군.”

“뭐, 그렇긴 하죠.”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뺨에서 떼어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을 계속 쥐고 있었다.

“제가 하려는 말은 이메일에 적힌 게 전부라고 봐도 무방해요.”

“즉, 네가 잠시 병가 휴가를 낸 동안 나보고는 회사 업무를 도와달라는 거로군.”

“원래도 조금씩 도와주셨잖아요.”

“어려운 부탁이 아니니까 그런 거 해주는 건 당연하지.”

“곧 미키씨가 올 거예요.”

“아, 그 충신 같은 비서…….”

교수는 예전에 비서와 만난 적이 있었다. 충신이라고 비유한 건 교수가 비서에 대해 받은 인상을 그대로 직유한 것이었다.

“충신이라 비유해 주시니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군요.”

비서가 교수 뒤에서 나타나며 말을 건넸다. 교수는 일어나서 비서에 게 손을 건넸다. 비서는 정중하게 악수에 응했다.

“오랜만이오.”

“반갑습니다, 김하준 씨.”

### 3.2.2

무겁고 답답한 공기가 김준구를 짓누르고 있었다. 차유라의 책략이 제대로 먹혀들었다는 게 명백했다. 도서관의 좌담실에선 으레 평소처럼 잡담이 오가야 했지만, 아무도 선뜻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한 명씩 귀가를 하더니 결국 준구와 수진만이 좌담실에 남아버렸다. 준구는 아침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자 수진에게 어제처럼 함께 집에 가자는 제안을 할 수 없었다.

수진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싸늘한 눈빛은 아니었지만 우호적인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다음주에 검토시합이 있대. 후배들 데리고 취재하고 와.”

“...알았어.”

준구가 순순히 대답하자 수진은 오히려 화를 냈다.

“평소의 너라면 항변했을 거잖아! 왜 순순히 알았다는 말이 나와?! 나도 함께 갈 건지 물어보지도 않아?”

준구는 분명 죄인이 아니지만 죄책감이 들었다. 차유라의 책략을 돌파하려면 고립되기 전에 최대한 많은 동료를 모아야 한다. 준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으로 믿을 수 있는 동료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람 자체를 믿어준다. 때문에 준구는 도박을 걸 수밖에 없었다.

“넌 나를 얼마만큼 믿어?”

이것은 공격이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수진의 기세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쳐다보았다. 서로의 의중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말로는 전해지지 않는 것도 존재하는 법이다. 단지 수진은 준구가 자신의 대답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음을 은연중에 인식했다. “넌 고지식하고, 누구한테나 잘해주려고 하고, 아무한테도 상처 주려고 하지 않고…….”

수진이 한 마디씩 준구에 대한 신뢰도를 공개했다.

“나는… 네가 본질을 호도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어.”

“비겁해…. 치사해……. 혼자만 그렇게 멋있는 척 다 하고…….”

수진은 눈물이 그렇그렇 맺힌 눈으로 바닥을 쳐다보았다.

“1학년 때부터 너랑 같이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널 못 믿으면 누구 믿을 수 있냐고!”

기어이 눈물 두 방울이 바닥에 떨어졌다. 수진은 거칠게 가방을 낚아채서 좌담실을 빠져나갔다. 아침과는 다르게 준구는 망설임없이 수진을 쫓아갔다. 몸이 기분 좋을 정도로 가벼웠다. 몸의 열기가 달아오르는 데도 이상하리만치 머리는 냉정해졌다.

준구가 도서관을 빠져 나가려는 찰나, 누군가가 자신을 가로막았다. 상대는 자신처럼 1학년 때부터 문예부에 가입해 있었으며, 수진이의 폭주를 제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친구인 이성환이었다.

“더 이상 안 쫓아가도 돼.”

“성한아, 하지만……”

“수진이한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오해하지 마.”

“그런 거 안 해.”

성한은 너그럽게 웃었다. 절로 안심이 되는 웃음이었다.

“말 못 할 사정이 있겠지. 우리가 어린애도 아니고, 문예부 3년이면 그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어. 그리고 너와 함께 한 시간이 얼마나 긴데, 네가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녀석이란 건 모두 공감하고 있어.” “성한아…….”

준구가 감동받은 듯이 성환을 쳐다보았다. 책 입고 작업을 할 때면 귀찮아하는 기색을 여지없이 드러내지만 착실히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성환은 갑자기 준구에게 헤드락을 걸었다.

“이게 뭐하는 것이야!”

“하지만 하루만에 여자 둘을 울리고 일이 이렇게 꼬인 건 네 탓도

있단 거다! 이건 별이야, 별!”

“무, 무슨 소릴……!”

“멍청한 놈아, 네가 수진이랑 공식적으로 사귀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수월했을 거 아냐!”

성한의 헤드락은 점점 준구를 압박했다. 준구는 손으로 성한의 등을 더듬다가 뒤통수의 머리카락을 짝 움켜쥐었다.

“네가 할 소린 아니지, 이 자식아! 1학년 때 한 짓이 있으면 반성 좀 해라!”

성한은 헤드락을 풀어주고는 준구의 목을 잡고 팔을 들어올려 목에 둘렀다.

“철수처럼 너희도 잘 될 줄 알았지!”

준구의 몸을 들어올린 성한은 그대로 초크 슬램을 작렬시키려 했지만, 준구가 성한의 목을 졸라 불발로 끝났다.

“결국 철수는 헤어졌잖아!”

“그게 내 탓이냐, 젠장!”

둘은 서로 떨어져서 노려보았다. 둘 다 서로에게서 적대감을 느낄 수 없었다. 그래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허심탄회하게 웃었다.

“네가 영춘권을 물어볼 때부터 좀 이상한 느낌은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이상은 우리에게 의지할 수 없었겠지. 아니, 의지해선 안 되었을 거야.”

“너, 좀 멋있다…….”

“닥쳐! 난 원래 멋있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수진이한테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지금 더 압박해봤자 온전히 네 편이 되진 못해.”

“그래…….”

“수진이는 내가 잘 설득해 볼 테니까, 넌 다음주 월요일에 검도부 취재나 열심히 해.”

“그래……, 어?”

“너 기다리느라 고생했으니, 내 몫까지 잘 해라, 알았지!”

성한은 손을 흔들며 집으로 향했다. 준구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도서관 입구에 서 있었다. 온 몸의 열이 식은 기분이 들어 이마를 짚어보니 아침에 느껴지던 미열은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 3.3

“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 영어로 하자면,

‘no crime or punishment without a law.’라고 하지. 제군,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도 법률이 범죄로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으며, 범죄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죄형법정주의란다.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을 위한 장치지. 그럼 여기서 제군에게 질문 하나. 과도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이 장치가 초래하는 부작용은 뭐지?”

교사의 질문에 여학생이 대답한다.

“아무리 나쁜 짓이어도 법에 명시되지 않으면 도덕적인 비난만을 받을 뿐, 형법에 어긋나지 않게 되면서 이는 비도덕적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구멍을 국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 등의 위임행위를 통해 긴급 조정 및 시행이 가능하지만, 이런 조치가 남발하게 되면 본래의 죄형법정주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옆의 남학생이 대답한다.

“범죄라고 생각되는 행위일지라도 법률주의에 근거해 당시 그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결났을 경우, 그 후 해당 행위를 제재하는 법률이 제정됐더라도 과거의 행위에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이는 아무리 구멍을 메워도 조기에 찾지 못하면 그 구멍을 통해서 누군가는 항상 일반인들이 범죄라 생각하는 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럼, 처벌로 둔갑한 보복을 위해 형법에 명시된 형량을 과도하게 늘리면 나타나는 부작용은 무엇이지?”

여기에 대해 다시 남학생이 대답한다.

“항소가 늘고 법정비용이 증가합니다.”

뒤이어 여학생이 대답한다.

“사범거래가 늘어날 겁니다.”

### 3.3.1 2037년 6월 15일. 월요일.

김준구는 문예부 후배 다섯과 검도부원과 함께 신설중학교측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상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많았다. 학교 관계자, 학부모, 선수들, 응원단, 기자들, 심지어 스카우터까지 와 있었다. 하지만 준구에게 검도 시험이 얼마나 흥미진진한가, 현경화가 우승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건 문제가 아니었다. 이 시험에는 차유라도 출전한다. 따라서 귀가할 때 유라가 준구를 습격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그게 문제였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여겼기에 이 자리에



온 것이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 수진이는 오지 않았다.

후배들을 위해 준구가 자리에 앉자, 다음 경기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준구를 비롯한 문예부원과 해원은 여름 교복을 입었고, 나머지 검도부원들은 검도복을 입은 상태였다.

『다음 경기는 중학생 부문 검도시합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학생 부문 검도시합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신설시에 존재하는 모든 중학교라고 해봤자 열 군대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그 중에서도 검도부가 존재하는 중학교라고 해봤자 손에 꼽을 정도였다.

마침내 준구가 집중해서 보려던 시합, 즉 차유라와 현경화 사이의 승부가 곧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이 시합에서 지는 애가 3, 4위전에 출전하고 이긴 애가 1, 2위전에 출전한다 이거지?” “응.”

준구의 질문에 해원이가 즉각 대답해 주었다.

시합장에는 검도복장을 한 유라와 경화가 올라섰다. 키는 경화 쪽이 약간 더 크다. 정확히 현경화 키는 172cm, 차유라 키는 167cm이다. 자료 출처는 남철수의 「신설중학교 여학생 분석 보고서」.

준구가 봤던 연습대련 때는 분명히 부장인 경화 쪽이 한 수 위였지만, 유라는 시합장에 와서 연습대련 때와는 다른 동작을 보여주었다. 준구는 분명히 검도에는 문외한이지만 한눈에 유라의 행동거지에는 군더더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시합 전까지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다.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었다.

유라와 경화는 서로를 노려보았다. 호면으로 얼굴이 잘 보이진 않지만 눈빛만큼은 서로에게 강렬하게 전달되었다.

“부장, 이번에야말로 내가 이길 차례라고 생각되는데.”

“너 상태 이상해. 무리하지 마.”

처음에는 둘 다 상대의 기량을 재확인하기 위해 접근은 자제하면서 상대의 죽도를 툭툭 쳤다. 일종의 탐색전이었다. 그러한 움직임도 잠시, 몇 초 지나지 않아 한 번 서로에게 다가가 붙었다가 떨어지고는 차유라가 거세게 움직였다.

경화는 유라의 동작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다소 유라답지 않은 공격이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연습대련처럼 설렁설렁하다간 질지도 모른다. 아마 몸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으니 단숨에 돌파할 생각인 것으로 경화는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장기전을 선택하는 것만큼 좋은 수도 없다. 그래서 경화는 유라의 공격을 흘리

며 뒤로 물러섰다.

“눈치 봤나.”

“아니, 動線은 달라도 動作은 크게 차이나지 않아.”

경화는 한 차례 더 다가온 유라의 공격을 간신히 막아냈다. 패기에 가득 찬 공격은 아니었다. 단지 노련함이 느껴지는 미끼였다.

찌르기를 하는 척 한 뒤 진짜 공격이 나갔다.

유라가 경화에게서 점수를 얻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경화가 분명히 방어를 못하는 수준이 아닌데도 유라의 공격을 허용하였다. 사실, 진검이었다면 누구도 누구에게 상처를 입히지 못하는 공방전이 계속될 것이 틀림없었지만, 유라는 교묘하게 검도 시합에서의 룰을 이용하였다.

“점수만 얻어서 이기겠다는 건가.”

“네 방식은 전투가 아니면 소용없는 것이야.”

“그래, 시합은 전투가 아니지.”

시합장 안의 분위기는 달아올랐지만, 유라와 경화 사이는 일순간 싸늘해졌다.

두 번째 공방이 벌어졌다.

이제는 경화조차도 전투를 버리고 시합을 선택하였다. 유라는 경화가 손쉽게 자신의 방식을 버릴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경화가 유라의 손목을 노렸기에 유라는 방어한 다음, 역으로 유라 쪽에서 허리 베기 공격을 가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경화가 원한 공방의 수순이었다. 보폭이 순간적으로 늘어났다. 경화가 유라의 품에 파고들며 찌르기를 하였다. 유라가 경화의 허리를 베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였다.

“마무리는 역시 전투인가.”

“검도는 전쟁을 위해 갈고닦는 무예였다. 이제 심판을 이용해서 이기려 하지 말고 전쟁터로 되돌아 와라.”

유라는 경화가 전투로서 검도를 대하려 하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전쟁터로 되돌아오라는 말에 유라는 피식 웃었다.

“전투로 승부를 낼 생각이라면 좋지.”

마지막 공방이 시작되었다. 검도부원은 물론이고 준구도 둘 사이의 공방전에 침묵을 유지한 채 지켜보고 있었다. 도저히 지금까지 연습대련에서는 본 적 없는 싸움이었다.

둘은 죽도를 진검으로 착각한 것인지도 모른다.

서로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서로를 응시하였다.

남들이 봤을 때는 둘이 싸우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 둘은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차원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것은 거의 머릿속 세계나 마찬가지로, 서로의 눈빛으로 상대의 수를 읽어들이 수 있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경화가 반 걸음 앞으로 다가오자 유라는 한 걸음 물러섰다. “준구한테는 수진이가 있는데 왜 그 사이에 끼어드는 거냐. 혹시…”

유라는 대답 없이 경화를 노려보다 한 순간에 검이 맞부딪쳤다. 유라가 앞으로 다가오면서 살짝 휘청거렸다. 경화가 검에 힘을 신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화는 물러서며 죽도로 유라의 허리를 치려는 듯이 보였다. 분명 죽도는 허리를 세차게 때렸다. 그러나 허리를 때린 쪽은 유라였다. 경화는 유라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방금은 우문이었다.” “너…”

최종적으로 현경화가 이겼다. 시합 중에 오간 말이야 어쨌든, 결과적으로 현경화가 이겼고, 신철중학교 측 벤치에 앉은 사람들도 대부분 입을 다물고만 있었다. 결승전 정도의 승부를 볼 것으로 다들 기대했지만, 의외로 싱겁게 끝나버린 셈인데, 준구만 그걸 모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현경화가 이겼어…….”

경화와 유라는 상대에게 목례를 하였다. 신철중학교 벤치에 돌아와 둘 다 호면을 벗고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 분위기가 싸늘했다. 초여름인데도 피부에 소름이 돋는 것처럼 느껴졌다. 서로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분위기, 둘을 둘러싼 사람들의 움직임은 경직되어 갔다.

결국 경화는 청소년 전국체전 중학교 검도부문 개인전에서 1위에 입상하게 되었고 유라는 3위에 그쳤다.

### 3.3

“그러니까 제가 보낸 스무 명이 모두 몰살당했다는 겁니다.”

대리인은 목에 핏줄을 세우며 언성을 높였다. 상대가 자신의 말을 쉽게 못 믿어주는 것이 분했다. 그야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처음에는 못 믿겠지만, 전후 사정을 모두 이야기했는데도 상대는 심사숙고하는 것인지 말이 없었다.

“믿을 수 없다는 건 알겠습니다. 실종되기 전에 구조 요청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원래 작전대로라면…” 『아마 방해 전파로 통신을 못 하게 했을 거야.』

상대가 드디어 침묵을 깨고 의견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럼…” 『이사장이 위험하겠는걸.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당신은 그 아이를 확보할 생각은 잠시 접어둬.』

“경찰에 협조를 부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건 우리가 맡은 일이다. 애초에 이사장의 신변을 지키는 게 주된 일이지. 정체 불명의 꼬맹이를 납치하는 게 주된 일은 아니다. 더구나 경찰에게 협조를 선불리 부탁했다간 일이 복잡해져. 우리가 멋대로 아무 증거 없이 증언에만 의존해서 민간인을 납치하려고 한 거니까. 일단 실종된 스무 명…, 아마 살해당했다고 짐작해도 되겠지. 그 녀석들 시신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찾도록 한다. 그리고 네게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CCTV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 CCTV의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만큼 확보한 다음 조사하도록 한다. 단, 무슨 일이 있어도 경찰에 들키지 않도록 할 것.』

“경찰이 운용하는 CCTV만으로는 부족하면 제가 직접 설치하겠습니다.”

『들키지만 마. 그럼 수고해.』

통화가 끊기자 대리인은 영상을 확보하러 경찰서에 가야겠다고 결심하였다. 이사장에게 그 학생의 확보가 실패했음을 알려주면 자신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3.3.2

신설중학교측에서 대절한 버스가 신설시를 남북으로 양분하는 가장 큰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버스 안에는 고문 교사가 연신 현경화를 칭찬해대고 있었다. 유라는 스스로에게 화가 난 건지 풀이 죽은 건지 아무 말 없이 아래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문예부에서 파견을 나온 준구 일행은 앞좌석에 모여 앉아 검도부원들에게 검도에 관한 온갖 질문을 해댔다.

준구는 유라를 쳐다보면서 유라가 경화에게 어떻게 졌는지를 떠올렸다. 유라는 시험 때 평소만큼 빠르질 않았다. 준구는 유라에게 순식간에 기절할 만큼 맞아본 적이 있는데, 분명히 방심하면 육안으로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유라는 빠르고 민첩했다. 따라서 이번 시험에 유라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고 준구는 추측하였다.

“유라, 너 괜찮아?”

준구는 무심결에 선의에서 우리나라의 행동, 즉 유라의 이마에 손질을 하였다. 그러자 유라의 이마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따뜻함을 느꼈다. 자신의 손이 차가워졌는가 싶어 준구는 자신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는데, 자신의 이마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준구가 유라를 쳐다보았지만, 유라는 계속 아래만을 쳐다보았다.

“나한테서 옳은 건가……?”

준구는 자신의 감기 기운이 사라짐과 동시에 유라한테 감기가 옳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방금 시합도 감기 때문에 유라가 진 것에 불과할뿐, 제대로 된 승부는 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선생님, 버스 좀 멈춰주십시오. 유라한테 열이 나서 제가 집까지 데려다주겠습니다.”

“음? 그래?”

검도부 고문 교사는 준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버스를 멈춰세웠다. 준구가 유라를 데리고 버스에서 나오자 버스 문이 닫히며 출발하였다. 검도부원과 문예부원 일부가 창밖에 고개를 내밀며 손을 흔들었다. 준구도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나저나 병원 안 가봐도 되냐.”

시내의 도로에서 유라네 집에 가려면 약간의 오르막길을 걸어야 했다. 준구가 말을 걸어도 유라는 멍하게 땅을 쳐다보고 있었다.

어두운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춥지도, 덥지도 않았다.

“설마 날 여기서 죽인다거나 하진 않겠지?”

하복 차림의 차유라를 보고 준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기 저 파출소에 내가 수갑 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아니.”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있는 파출소를 손으로 가리키던 유라는 준구의 대답에 빙긋이 웃었다.

“근데 우리 왜 길 위에 서 있는 거야?”

“거기서부터 대답해야 하는 거냐!”

“내 가방은 왜 네가 메고 있는데?”

유라는 준구가 메고 있는 스포츠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준구는 어이가 없었다.

“네가 아파 보이니까 그렇지! 잔말 말고 집으로 가자. 가서 푹 쉬어.”

유라는 준구의 태도에 어떤 즐거움을 느낀 건지 준구의 볼을 쿡쿡 찌르며 우후후 웃어댔다. 그게 꽤나 여자아이다워서 준구는 유라의

머릿속 회로가 잘못된 건지 의아할 정도였다. 둘은 슬슬 걷기 시작했다.

“선의에서 그런 건지 죄책감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마워.”

“친구라면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이 뭘지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야.”

준구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네가 생각하기에 나는 확실히 사회악일 거야, 그렇지?”

유라와 준구는 육교를 건넜다. 도로가의 상점을 지나 골목길에 들어섰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이게 정의라면 나는 대가를 받지 않겠지.”

“그럼 이제 그만 하지 그래?”

“그만둘 수 없어.”

“어째서?”

“사명...” 유라는 흠칫 준구를 보더니 헛기침을 하고는 정정했다.

“너를 죽여야 하나니까.”

감기에 걸린 유라는 틈을 보이고 있었다. 조금만 비집고 들어가면 진실을 엿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억지로 진실을 보려고 하면 아무 것도 보여주지 않을 것 같아 사명이란 단어는 못 들은 걸로 쳤다.

“그럼 널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날 안 죽일 거야?”

“역시 목숨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야?”

“진작 알고 있었다만. 꼭 그런 건 아니고, 널 경찰에 넘기는 것보다 네가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로 결심하는 편이 더 빠를 것 같아서.”

“확실히 그건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널 날 어떻게 하지 못해.”

준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난 두 달 동안 그 말은 사실이였다. 상대방이 살인자인줄 뻔히 알면서도 그녀의 가방을 들어주었다. 어떠한 결정적인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의 집에 선불리 찾아갔다가 죽을 뻔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는 준구와 팔짱을 껴다. 갑작스런 행동에 준구는 흠칫 했으나 유라는 안심하라는 듯 웃었다.

“괜찮아. 안 죽여.”

“누가 봐도 네가 날 죽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은데.”

준구는 생사 문제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지 않았다. 준구의 표정을 본 유라는 그것을 눈치챈 모양인지 화제를 전환하였다.

“상고로 갈 거겠지?”

“응. 부산 쪽으로 진학할 거야.”

“부산이라……. 왜 신설시도 서울도 아냐?”

“신설시는 너 때문에 여러모로 꺼림칙하거든.”

“아~ 도시의 비밀? 비밀 같은 거 뭐 어때. 신경 꺼도 돼.”

유라는 스스로를 도시의 비밀이라 비유한 것일까. 이 또한 유라를 잡아들이기 힘들 것이란 걸 은연중에 암시한 것일까.

준구는 유라의 말은 깊이 생각지 않기로 하고 계속 말했다.

“서울은 아직도 사람이 많아. 사람 많은 곳은 질색이야.”

“부산 인구는 290만, 서울은 650만 명이 거주하는데? 별반 차이 없는데?”

“옛날엔 서울 인구가 거의 1000만 명이었대.”

“옛날 애긴 옛날 얘기일 뿐.”

“아무튼 부산으로 갈 거야. 그러면 뭔가 달라지겠지.”

유라는 준구가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챘다. 평소의 생활에서 누적된 불만이 무심결에 새어나온 것이다. 이는 유라가 살인자이고 준구가 목격자여서 생긴 불만이 아니었다. 유라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준구가 했어야 할 말은 변화를 원한다는 게 아니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을 소망한다고 했을 것이다.

“넌 무엇을 위해 살아?”

“무엇을 위해? 당연히 나 자신을 위해서지.”

준구는 감기 걸린 유라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신기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무엇이 너를 위한 일이야? 넌 인생을 뭐 때문에 사는 거야? 사람은 왜 굳이 고단한 삶을 사는 걸까? 천국도 지옥도 없는데.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인데.”

갑자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니 준구로서도 대답하기가 힘들다. 둘은 아무 말도 없이 동시에 하늘을 쳐다보았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가지 대답이 나올 법한 주제다. 이렇게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다.

“너, 꽤 허무주의자였구나.”

“아니, 난 결코 허무주의자가 아냐. 사는 데는 각자 의미가 있어. 그걸 발견한 자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그걸 발견 못한 자는 아무리 성공해도 허전한 삶을 사는 거지. 천국도 지옥도 없다는 것을 아는 이유는 내가 생물학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지, 결코 종교나 철학처럼

치밀하게 걸만 화려하게 치장하고 알맹이 없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 아냐.”

생각해 보니, 학기 초에 유라는 분명 자기소개 시간에 서울에 있는 K과학고에 미생물학을 전공하기 위해 진학할 것이라고 하였다. 준구는 적당히 반론하기로 하였다.

“철학이 없으면 자연과학은 성립하지 못해. 넌 철학의 알맹이가 뭔지도 모르면서 알맹이가 없다고 주장하는구나.”

“에헛, 그런가. 엇취!”

유라는 기침을 하였다. 준구는 그대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시 잠겼다.

“원래의 질문으로 되돌아가서, 왜 인생을 사는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 하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해. 삶을 살게끔 하는 무언가가 우리 삶의 어딘가에 존재해. 그것이 행복이든 사랑이든 무엇이든.”

“참으로 수동적으로 사는구나. 덧붙여 알맹이가 빠졌어.”

유라가 손수건으로 코를 풀었다. 이상하게도 준구는 그것이 더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저 누구라도 감기에 걸렸다면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생각만이 들었다.

“네 눈에는 그리 보일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그런 질문을 지금 던지는 것은 조금 사치스러운 거라 생각해. 인간만이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왜 사는지에 대해서. 동물로 태어났다면 그런 거 생각 안 할 걸.”

“필요한 거야. 이건 중요한 질문이라고. 이게 핵심이라고. 이게 내가 모르는 철학의 알맹이라고……. 어라?”

준구는 유라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모습에 피식 웃었다. 평소답지 않은 유라의 모습에 준구는 경계를 늦추었다.

“내가 죽으면 자서전이라도 대신 적어줄 요량이야?”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

“사양할게요, 여우님.”

유라는 여우라는 단어에 흠칫하며 준구를 쳐다보았다. 준구도 유라의 갑작스런 반응에 잠시 당황하였다.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그 별명은 대체 누가 지은 거야?!”

“왜, 싫어? 아무도 그렇게 안 불러.”

유라가 그런 별명 같지도 않은 단어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게 신기하였다.

“쳇, 너구리같은 녀석.”



준구도 막상 이런 별명 같지도 않은 단어를 들으니 신경이 곤두섰다. 유라도 이런 식으로 기분이 묘해진 것일까.

“똥! 너구리!”

유라는 발끈하는 준구의 양 볼을 잡아당기며 준구를 괴롭혔다.

“으으..., 아프! 아프다그!”

“여우 금지.”

“느구리 근지.....”

잠정적이고 암묵적인 합의로 유라는 준구의 뺨을 놓았다. 준구는 양 볼을 비볐다. 유라는 준구의 뺨을 두 손으로 잡으며 얼굴을 가까이 하였다. 유라는 준구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거리낌없이 행동하였다.

“내 얘기 잘 들어.”

유라의 눈동자를 정면으로 보는 준구는 유라가 이번엔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당황하였다. 긴장한 준구와는 달리, 유라는 눈을 살며시 감더니 재채기를 하며 준구의 이마에 박치기를 먹였다.

“아아, 아프잖아, 인마!” “미안, 실수야.”

유라는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았다. 이번에는 준구도 아까 코를 풀던 그 손수건이 지금 입가를 닦는 이 손수건인지 궁금해졌다. 준구는 팔로 자신의 얼굴에 묻은 유라의 침을 대충 닦았다. 이번에는 조금 짹짹했다.

유라는 다시 한 번 무개를 잡더니 차분하게 말했다.

“지금 우리를 미행하는 자가 있어.”

준구는 유라의 말에 집중하였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미행이라니. 미행을 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 도시에 유라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더 있는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미행을 하는 자가 위험한 자인가. 그렇다면 어디로 도망가야 하는가. 유라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

“집중해. 내 말을 믿고 따라줘.”

지금으로선 유라를 믿어야 한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유라가 감기에 걸린 상태라 유라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들었다. 그러나 일단 준구가 고개를 끄덕이자 유라는 준구의 손을 잡고 골목길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하였다. 뒤이어 유라를 미행하는 누군가도 달리기 시작하였다. 준구는 도망치는 와중에 뽕박질 소리가 가까워짐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 둘을 쫓아오는 사람은 키가 족히 180cm는 넘어 보이는 장신의

남자였다. 준구는 그 남자가 딱 한눈에 봐도 위험한 사람이란 걸 알아차렸다. 장신의 남자는 검은 복면을 하고 눈만 드러냈다. 덩지도 않은지 검은 색 롱코트에 덩치도 컸다. 슬슬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계속 뛰어! 경찰에 신고하지 마!”

유라는 달리면서 준구에게 외쳤다. 아무래도 혼자서 적을 처리하려는 것인가. 아니다. 적을 처리할 작정이었다면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신고는 왜 하지 말라는 것인가. 지금이라면 적을 무차별 연쇄 살인마로 몰아넣을 수도 있을 텐데.

감기에 걸렸는데도 유라는 준구보다 달리기도 빠르지만, 미로같은 골목길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었다. 둘은 골목길을 막힘없이 질주하고 있었다. 둘만을 바라보며 뛰는 괴한은 그들보다 속도가 더 빨랐다. 유라의 달리는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거리가 좁혀지는 것은, 유라가 감기에 걸렸기 때문이다.

“이대로면 따라잡혀. 내가 적의 발목을 잡고 있을 테니까 넌 도망쳐.”

준구는 유라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따라잡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유라에게 승산이 없다는 걸 본인도 짐작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곧 자신이 희생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함께 싸우자.”

유라는 준구의 말에 손을 놓고 준구가 멘 가방을 뺏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였다. 유라는 곧바로 제자리에 멈춰서서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죽도를 꺼냈다. 이런 동작을 연습이라도 한 듯이 빠른 속도였다. 왜냐하면 가방이 공중에 떠 있을 때 죽도를 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준구는 머뭇거리다가 유라가 흘깃 쬐려보자 어쩔 수 없이 도망쳤다.

유라와 괴한이 대치 상태가 되었으나 괴한은 유라를 보고 있지 않았다. 괴한도 준구가 도망치는 것을 보고 급히 멈춰 섰지만, 유라와 싸우려는 생각은 없는 모양이었다.

유라가 죽도를 들고 응전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괴한은 준구가 멀어지는 것을 보고 방향을 틀어 갈림길로 뛰어갔다. 유라는 괴한이 자신이 아니라 준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라는 죽도에 있던 줄을 늘여서 등에 메었다. 유라가 이런 사소한 준비를 하는 사이에도 괴한은 빠른 속도로 준구를 쫓아갔다. 이대로라면 유라가 괴한에게 싸움을 거는 것보다 준구가 괴한에게 죽는 게

더 빠를 것 같았다. 유라는 준구가 달려간 방향으로 뛰어가며 휴대폰을 들고 준구에게 통화를 걸었다.

준구는 주머니에서 진동을 느꼈다. 휴대폰을 꺼내자 거기에 떠 있는 번호는 유라의 번호였다. 준구는 유라가 왜 벌써 전화를 걸었는지 의아하였다. 싸움이 벌써 끝났을 리는 없었다.

“무슨 일이야?”

『큰일이야. 괴한이 너를 노리고 있어.』

전화를 받자 유라는 다급한 목소리로 준구에게 현재 상황을 알렸다. 준구는 이미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직선으로 가다 보니 벽에 막히고, 다시 돌아와서 다른 길로 갔다. 그 동안에도 괴한은 따라오고 있는 게 분명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나도 네 쪽으로 가고 있어. 상대방은 프로. 이 일에 더 오래 몸을 담은 사람이야. 선불리 공격하지 마.』

“공격하래도 안 해!”

유라의 전화가 끊어졌다. 준구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지금이 마을의 어느 부근인지 열심히 떠올려 보았다. 동사무소에 갔었을 때, 골목길의 구조를 본 적이 있었다. 자신의 집과 학교를 중심으로 미로가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곳에서 미로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는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출발 지점이 학교가 아니라 도로가인 게 문제였다.

유라는 괴한이 골목길에서 방향을 틀어 시야에서 사라지자 자신이 아는 지름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전에 준구가 대충 어느 지점에서 도망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괴한을 앞질러가기 위해선 미로 위를 지나가야 한다.

유라는 자신이 있는 데서 가장 가까운 건물의 문을 열고는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을 올라가는 사이에 유라는 골목길 곳곳이 찍힌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유라는 준구가 어디인지 알아차렸다.

옥상으로 올라간 유라는 뒤로 잠시 물러섰다가 힘차게 달려나가 공중으로 도약하였다. 골목길이 좁고 두 옥상에 높이차가 있어서 시도한 것이었다. 체공한 사이에 괴한이 준구에게 거의 근접한 게 눈에 보였다. 골목길 건너편 옥상에 닿자마자 속도를 늦추지 않고 다시 한 차례 도약해서 골목길을 한 번 더 건넜다. 준구와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 유라는 휴대폰을 열어 준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준구는 괴한이 거의 자신에게 근접했음을 느꼈다. 대충 눈짐작으로

도 10미터 이내에 있다고 여겨질 정도였다. 그 때 다시 한 번 더 전화가 오자 다급하게 받았다.

“저 사람 왜 나를 쫓는 거야?”

『몰라. 지금 네가 있는 데에서 오른쪽 건물로 가. 들어갈 수 있어.』

유라의 말대로 준구는 급히 오른쪽 건물의 문을 열었다. 한동안 왼손잡이가 쉽게 열 수 있는 문을 여는 연습을 해서인지 아주 손쉽게 열렸다.

『옥상으로 올라가.』

준구는 유라의 말대로 계단을 따라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괴한은 준구가 3층 정도 올라온 사이에 준구가 있는 곳 바로 아래층까지 와 있었다.

『안 되겠어. 거기 집안으로 들어가.』

준구는 전화를 끊으며 3층 집의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갔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유라도 열심히 오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준구가 살해당하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다. 괴한이 3층 집에 도착하자 준구는 얼른 소파 뒤에 숨었다. 괴한이 방을 이곳저곳 뒤지기 시작하자 준구는 틈을 보아 옥상이 아니라 다시 골목길로 내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하였다.

방안을 조사하는 괴한의 발걸음이 들리지 않자 준구는 괴한이 집안을 나갔나 싶어 소파에서 고개를 내밀어 밖을 보았다. 그러다 괴한과 눈이 마주쳐 버렸다. 괴한은 입구를 틀어막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준구는 얼른 일어나서 근처에 있는 방으로 뛰어 들었다. 준구가 방에 발을 내딛는 순간 벽에 칼이 날아와 꽂혔다. 준구는 겁에 질려 얼른 방문을 꽂 닫고 잠가 버렸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퇴로는 없었지만 숨을 곳은 많았다. 준구가 들어온 방은 서재였다. 준구는 얼른 마지막 서가 뒤로 가서 아무 책이나 꺼내 들었다. 던지면서 시간이 나 별려는 것이었다.

괴한은 잠긴 문을 손잡이를 돌려서 열려고 하다 열리지 않자 쿵쿵거리며 발로 걷어찼다. 문이 얼마 버티지 못할 것 같았다. 괴한이 온몸에 무게를 실어 몸통으로 부딪치자 문이 부서졌다. 괴한이 준구를 찾다가 발견하자 준구는 괴한에게 책을 던지는 것으로 응수하였다. 괴한은 너무 빠른 공격을 손으로 쳐내고는 서가를 붙잡고 밀어서 넘어뜨리자 도미노 무너지듯 서가가 준구를 덮치기 시작하였다. 준구는 책을 많이 던지려고 서가에 붙어 있어서 파도처럼 덮쳐드는 서가의

기세에 질겁하며 옆으로 굴렀다. 괴한은 준구에게 다가갔다.

유라는 건너편 옥상이 아니라 3층 건물 유리창으로 떨어지려고 옥상에서 마지막으로 도약하였다. 유라는 유리창 너머로 준구에게 서가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준구가 옆으로 구르자, 유라는 몸을 웅크리고 유리창에 직격하였다. 포탄에 맞은 듯이 유리창은 박살나 흩어지며 유라는 거칠게 3층에 진입하였다. 유라는 한 바퀴 정도 바닥에 구르고 나서야 일어설 수 있었다. 유리창을 깨뜨리며 진입한 까닭에, 유라의 팔과 다리에는 유리 파편으로 인한 상처가 생겼다.

유라는 등 뒤에 멘 죽도를 꺼내서 공격을 할 준비를 하였다. 괴한은 유라를 보고 기괴하게 웃기 시작하였다.

“크크, 크크, 크하하하!”

단절적인 기괴한 웃음이었다.

“그 웃음소리… 역시 「괴한」이라 불리는 김한균…씨인가.”

“혹시나 했는데 역시 그 쪽 꼬마를 쫓아가니 알아서 막다른 곳으로 와주는군. 이제 답답하기 짝이 없는 복면을 할 이유가 없잖아.”

한균은 태연하게 복면을 벗고 유라를 향해 달려들었다. 수염이 거칠게 난 모습이 매우 초라해보였으나 공격은 박력이 넘쳤다. 유라가 한 걸음 앞으로 내딛으며 죽도를 힘차게 내려치자, 한균은 왼손으로 죽도의 끝을 붙잡고 오른손에 쥔 단검으로 죽도를 단번에 베어버리고 유라를 찌르려 했다.

칼과 칼이 맞부딪치는 소리가 울렸다. 죽도가 잡히는 순간에 유라는 그것을 버리고 단검을 꺼내든 것이었다. 하지만 유라가 감기에 걸렸던 탓인지, 쥐고 있던 칼을 놓쳐버렸다. 곧이어 한균이 유라를 찌르려고 하자 준구가 유라에게 부딪쳐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균의 공격은 준구에게 직격했다. 준구는 팔에 칼이 꽂힌 채 한균을 쳐다보았다. 칼에 맞은 고통보다 즐거워하는 한균의 표정을 보고 준구는 더 두려워졌다.

한균이 칼을 뽑으려 하자 유라는 한균의 복부를 향해 발차기로 때리고, 한균이 칼을 손에서 놓치자 뒤이어 상단차기로 얼굴을 가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한균은 몸을 숙여 공격을 피하고 그 상태로 유라에게 돌격하여 유라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테이크 다운이 된 상태에서 주먹으로 유라를 두들겨 패는 일만이 남은 것으로 보였다.

준구는 팔에 꽂힌 칼을 스스로 뽑아내었다. 칼이 꽂혔을 때보다 뽑을 때 피가 더 많이 나왔다. 흐르는 피가 팔을 타고 손을 적시더니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기분이 몹시 안 좋아졌지만, 지금은 기분을 따

질 때가 아니었다.

유라가 테이크 다운이 된 상태에서 한균의 공격을 가까스로 피하거나 막아내는 사이에 준구는 한균에게 칼로 찌르려고 달려들었다. 한균은 준구가 쇄도해 오는 것을 보고 손바닥을 들었다. 칼끝은 두꺼운 나무조각 같은 손바닥을 꿰뚫고 손등을 지나가 한균의 얼굴에서 불과 2cm 앞에서 멈추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있는 한균은 손을 오므려 준구의 손을 잡았다. 한균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준구의 손을 적셨다. 준구는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기겁했지만, 준구는 상대의 얼굴을 찌르려고 계속 힘을 실었다. 끈적이면서 불쾌한 타인의 피에 준구는 얼른 끝을 보고 싶었지만, 한균의 악력은 상당하여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 정도 결의로는 결코 날 이길 수 없지.”

얼굴 곳곳에 피가 튄 한균이 씩 웃었다. 힘에서 준구가 확실하게 열세였다.

유라가 바닥을 더듬다가 근처에 있는 유리 조각을 쥐었다. 준구와 한균 사이의 대치 상태는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유라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유라는 자신의 손이 날카로운 유리에 상처입는 것에 상관없이 최대한 짝 잡았다. 피가 투명한 유리를 군데군데 붉게 물들였다. 한균이 김새를 눈치채고 눈동자를 유라 쪽으로 돌리자 눈이 마주쳤다.

“내 결의로는 널 이길 수 있지.”

유라는 순식간에 쥐고 있던 유리를 한균의 목에 박아버렸다. 피부에 수직으로 파고 들어간 유리는 중간에 깨져버리는 일 없이 그대로 한균의 기도(氣道)까지 파고들어갔다.

“으……”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한균은 공기가 역지로 몸에서 빠져나가는 소리를 내다가 의식이 흐려져 바닥에 쓰러졌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거목 같은 사나이의 목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다. 준구도 깨진 유리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목을 뚫어버릴 정도로 강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어쩌면 운이었는지도 모른다.

유라는 자신을 덮쳐서 압박하는 시체를 옆으로 치우고 상반신을 일으켜 세웠다. 이런 일을 당해도 유라는 침착하였다. 오히려 미안한 눈빛으로 준구를 쳐다보았다.

“경찰이 도착할 거야. 다 끝났어. 나 때문에 이런 일에 휘말려 들었네. 미안.”

준구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지만 주의를 고통에 집중시키고 싶지 않았다. 준구는 벽에 기대서 주저앉았다. 유라는 준구에게 다가가 그의 왼팔을 지혈하였다. 준구는 유라의 온몸에 유리 파편이 스친 상처가 난 것을 보았다. 또한 마지막으로 유리로 공격한 까닭에 지혈하는 유라의 손에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

“미안해서 해결될 일이면 세상에 전쟁은 왜 나겠냐.”

이 때가 아니면 언제 유라를 대놓고 비난할 수 있겠나 싶어 준구는 목숨 걸고 유라를 비난했다. 준구의 눈앞에서 사람이 살해당하는 것은 이것으로 두 번째였다.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죽은 자에 대해 별다른 감정을 느낄 수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죽지 않은 것에 대해 신기함을 느낄 정도였다.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까부네.”

“저 사람은 누구이고,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피가 너무 많이 흐르는데? 근육이 상한 건 아닐까.”

“묻는 말에 대답해 줬으면 좋겠어. 보니까 이름도 서로 아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은 무덤에서 알게 될 거야.”

“모든 걸 다 알려달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습격당해서 죽고 싶은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어. 김한균이 누구인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 정도는 말해줘도 괜찮잖아.”

유라는 손수건을 꺼내 준구의 팔에 지혈을 하려고 했지만, 준구가 이를 거부하였다. 준구가 유라에게 자신의 손수건을 건네 주자 유라는 그것으로 준구의 팔을 지혈해 주었다.

“저 사람 손에 내가 죽으면, 지금까지 네가 저지른 사건도 저 사람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잖아. 그런 생각을 못 했을 리가 없을 텐데.”

“그런 수가 있었구나. 근데 넌 병원에 가야 할 거 같아.”

### 3.4

지나간 일은 생각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고민하는 게 지나간 일로 괴로워하는 것보다 현명하다. 그렇다고 역사를 배우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지나간 일로 후회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일이지만, 역사를 배우는 것은 의사결정의 사례를 익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개인의 경험은 지극히 주관적인 요소에 치우칠 수밖에

에 없으며,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다. 물론 역사도 누군가의 기록이 모여서 후세가 배우는 것이지만, 여러 기록을 비교하고 대조하면 어떤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렇듯 지나간 일이란 것에도 종류가 있는 것이다.

한참 앞에서 설명했지만 무척 중요한 것이므로 다시 더 강조해야 할 게 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 즉 어떤 행위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중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매몰비용이라고 한다. 식사 시간이 다 되어 밥을 먹을지 라면을 먹을지 고민하다 라면을 선택하면 이에 대한 기회비용은 밥을 먹는 것이다. 라면을 끓여서 먹으려다 상을 얻어서 라면을 쏟으면 이는 매몰비용이 된다. 의사결정을 할 때, 기회비용은 고려하고 매몰비용은 무시하는 것이 현명하다. 따라서 라면을 먹으려다 라면을 쏟으면, 비록 손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후회는 빠른 시간 안에 관두는 게 현명하다. 그러나 이렇게 후회를 짧게 하는 사람이 드물다.

우중충하기 짝이 없는 레토나의 조수석에 앉아 팔꿈치를 창가에 얹고 턱을 괴며 밖을 바라보는 그녀는 군인처럼 보이지만 진짜 군인은 아니다.

“배고파……. 아직도 도착하지 못한 건가.”

분명히 서양인일 텐데도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했다.

“실비아 소령님,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OK.”

운전석에는 아직 20대가 되지 않은 운전병이 초조하고도 불안한 듯 속도를 올리고 있었다. 소령은 걸보기엔 젊어보여도 운전병보다 2배 이상 나이가 많다.

“그런데 헌병대도 아니고 경찰서에는 무슨 일로 가시는 건지 여쭙 봐도 될는지요?”

“그거 굉장히 어렵거든.”

소령은 운전병 쪽을 휩 돌아보며 언짢은 표정으로 말했다.

“굳이 나에게 높임말 쓰지 마.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예…….”

“그리고 방금, 너 ‘요’로 끝났어.” “시, 시정하겠습니다!”

“Hey, you’d better calm down.” “Yes, sir!”

“너, 할 줄 아는 영어 그거뿐이지?”

운전병은 양 볼이 화끈거림을 느꼈다. 소령으로서는 지당한 지적이었다. 소령은 운전병이 하는 짤막한 영어로는 저런 대답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No, sir!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등도 압니다……!”

판에 박은 교과서 영어—그나마 이 시대에는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는—에 소령은 피식 웃었다. 역시 운전병이 영어 실력을 쌓기 위해선 자신이 많이 주절거릴 필요가 있었다. 침묵과 고독 속에서 소령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보냈건만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은 묘하다.

“I’ve every reason to believe in your words. You need not feel tense around me.” “예?”

“‘예?’라고 되묻게 되어있나, 오재식 상병?” “시정하겠습니다!”

운전병이 고개를 숙이며 가속 페달을 밟자, 소령은 운전병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속도 늦춰. 나에 대해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거야.”

운전병이 그 말에 안도하며 속도를 늦췄다. 소령은 다시 아까처럼 턱을 괴고는 창밖의 풍경만을 쳐다보았다. 운전병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경찰서에 딸린 주차장으로 커브를 틀었다.

“May…May I ask you?” “Of course. Do whatever you like.”

운전병은 소령의 대답 중 앞 문장만 알아들었다.

“…경찰서엔 왜 온 건가…겁니까?”

소령이 운전병을 쳐다보았다. 운전병은 커브를 틀어 주차장 내부에서 주차를 하려는 동안 틈틈이 소령을 힐끔 쳐다보다 들켜버렸다. 소령은 운전병의 시선을 눈치 채고 빙긋 웃었다. 운전병은 그 웃음의 의미를 오해하였다.

소령은 단지 운전병이 순진해서 이용하기 쉬운 거라 생각하고 웃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Be careful. Look out.” “Yes, sir…….”

운전병이 실수로 주차된 다른 차와 부딪칠 뻔했으나 소령의 아량과 이해심 가득 찬 주의를 준 덕분에 사고는 나지 않았다. 무사히 주차가 끝나자 소령은 목에 신분증을 걸고 레토나 문을 열어 차량에서 나왔다.

“여기 있어. 몇 분 안 걸릴 거야.”

“예…….”

“오는 길에 음료수라도 사 오지.”

운전병이 소령이 사주는 음료를 함께 마시는 공상에 빠진 사이, 소령은 경찰본부 꼭대기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소령이 만나려는 사람은 경상남도의 모든 경찰을 장악한 경남 경찰청장이다. 다행인지 당연한 건지 소령이 경찰청장의 집무실에 오기까지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짐무실에 들이닥친 소령은 누가 봐도 제지해야 할 만큼 흥분해 있었다.

“Hey, you……!”

“I don't know English. Wait a min……”

“Shut up! 나 한국어 할 줄 알거든!”

“그거 마침 잘 됐군요. 앉으시죠.”

소령은 자리에 앉지 않고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 기세에 누구라도 질릴 법도 했지만 경찰청장은 여유롭게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다리를 꼬았다.

“자제하시죠. 여긴 한국이고, 이곳… 그러니까 경남지방경찰청은 제 관할 구역이니까요. 그리고 나이는 내 쪽이 더 많은 거 알지.”

“아~ 내가 높임말은 몰라도 반말은 잘 알거든?”

“당신이 먼저 예의를 지키지 않은 거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지.”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알겠지요. 신설사에서 사망한 김한균, 그를 누가 죽였는지, 무슨 방식을 썼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아는 대로 다 말하십시오.”

소령이 매몰비용을 회수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 복수를 하기 위해 정보를 모으려는 것뿐이다.

“아무리 미군 소령님이라지만, 경찰과 군인의 계급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내게 명령을 할 처지는 아닐 텐데.”

소령은 허리춤의 권총을 빼들고 경찰청장에게 들이밀었다.

“오호, 이제는 아예 경찰서에서 살인까지 저지르려 하는군요. 쏠 수 있을 테면 쏜 보시죠. 그 순간 당신 인생 종치는 거니까.”

“내가 당신을 쏘을 때 군인이기 때문에 우선 헌병대부터 가겠지. 그 다음은 네 예상대로 군사재판에 회부될까?”

소령이 그 다음으로 꺼낸 것은 CIA 신분증이었다.

“나는 재판으로 종신형이든 사형이든 선고되겠지. 그럼 내 위조신분이 감옥에 갇히거나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일 뿐, 나는 그대로 잘 살겠지. 또 다른 위조신분을 만들고서.”

“알고 싶은 게 겨우 미치광이 살인자가 어느 살인자에게 당했는가, 이거군.”

“내 동료들 미치광이 살인자라고 부르지 마라…….”

소령은 최대한 분노를 억눌렀다.

“순순히 정보를 공개해. 이걸 한미군사교류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내

용이다. 정보 공유를 거부하는 쪽이 오히려 잘못된 거, 알지?”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지만 잘 들어. 김한균이라는 자는 어느 중학생에게 죽었어. 더구나 김한균이 가해자이고, 중학생은 정당방위를 한 셈이지.”

“중학생? 정당방위……? 장난치나!”

소령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살벌한 분위기 앞에서도 경찰청장은 시답잖은 사람 대하듯 소령에게 심드렁하게 말했다.

“그 중학생의 이름과 사진은 넘길 수 없어. 한미군사교류협정에 위배되지 않겠지. 이걸 군사문제가 아니라 그냥 치안문제니까. 난 정보공유를 거부한 게 아니야. 협정보다 우위에 있는 국내법의 적용을 우선시한 거니까. 김한균은 중학생에게 정당방위로 죽었다. 이걸로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다 알려준 셈이니 썩 꺼져. 내 입에서 이 이상 더한 욕설이 나오다간 양국 외교에 크나큰 문제가 생기겠지.”

“You……!”

소령은 애써 분을 삭이며 원하는 정보를 다 얻지 못한 채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경찰청장은 소령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실컷 비웃었다.

### 3.4.1 2037년 6월 16일. 화요일.

평일인데도 학교에 가지 않은 준구는 아무 걱정도 하지 않았다. 자신은 정당하게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병원에서 학교로 연락을 해주었기 때문에 출석부에는 병결로 처리되었다. 또한, 병원비는 단 한 푼도 들지 않는다. 이런 일은 국가의 치안 행정이 부실해서 벌어진 일로 처리되므로 국가가 돈을 대준다. 이 시대의 복지란 대개 이런 식이다.

준구는 병실에 누워서 책을 읽고 있었다.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생각보다 상처가 깊지 않아서, 하루는 입원하면서 오전에 각종 검사를 한 뒤 오후 늦게 퇴원해도 된다고 하였다. 그래도 최소 이주일 동안은 병원을 다니면서 붕대를 하고 다녀야 한다.

준구는 그동안 못 읽어보았던 책이나 열심히 읽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6인용 병실에는 준구 혼자만 있었다. 아픈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 병원이란 곳도 한산하였고, 때문에 책을 읽기에는 도서관 못지 않게 좋은 환경이었다. 유라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당시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준구가 알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한참 책을 읽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는데, 철수가 준

구를 깨웠다.

“낮인데 벌써 잠들면 밤에 잠이 안 와.”

“어, 철수 왔나.”

준구가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자, 주변에는 이백향 선생을 비롯해서, 유라를 제외한 3학년 1반 전원이 보였다. 또한 문예부원들도 모여 있었다. 덕분에 6인용 병실 안에는 문병하러 온 그들로 꽉 차게 되었다.

“선생님, 이렇게 병문안까지 다 오시고…….”

준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백향이 말했다.

“됐어, 그냥 누워 있어. 그런데 다친 데는 괜찮은 거니?”

“네. 그리 큰 부상은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설명하자면 좀 길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선생님은 정말 걱정했어. 애들이 네 병문안 와줬으니까 재미있게 답소 나누렴.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공문을 작성하러 갈 테니까 먼저 갈게.”

“예,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백향이 가고, 그 자리에 남은 아이들이 시끌벅적하게 제각기 말을 걸어왔다.

“야~, 김준구, 대단한 일이잖아? 멋있다, 인마!”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따라 햇빛에 반사되는 안경이 날카로워 보이는 남철수, “네 덕분에 유라가 크게 다치지 않았어. 몸은 좀 어때?”라고 물어본 것은 현경화, “...다행이야.”라고 말한 것은 박혜원, “선배님, 이번 일은 대서특필해야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문예부 후배 일동, 그리고 아무 말이 없는 것은 서수진이었다. 끝으로 “학생들, 환자의 안정을 위해서 조금만 조용히 해 주세요.”라고 주의를 준 것은 간호사였다.

확실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준구는 누구의 말에 먼저 반응을 해야 할지 몰랐다. 저마다 나름대로 준구를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준구가 멀쩡히 살아있고, 부상도 그리 큰 편이 아니란 것을 확인한 이상, 그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사건의 경과였다.

“자자, 그럼 반장인 내가 대표로 물어볼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소문의 살인마를 만났어.”

물론 준구가 일컫는 살인마는 차유라다. 물론 그 때 그 괴한도 살인마로 보이지만, 이 마을에서 벌어지는 사건과는 무관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네가 차유라를 구하고 칼을 맞은 거야?”

“…뭐, 그런 셈…이랄까.”

저마다 조그마한 탄성이 흘러나왔다. 극한 상황에서 그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실질적으로 적과 진짜 맞서 싸운 것은 준구가 아니라 유라였지만, 애들이 진실을 알 리가 없다. 유라가 적당히 꾸민 이야기로 학교와 경찰을 속인 것 같았다. 그렇다고 해서 준구가 유라를 구했다는 얘기가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다. 분명히 유라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녀를 살린 것은 준구가 한 균에게 가한 공격이다.

“그나저나 많이 피곤하네. 어차피 오늘 퇴원하면 정상적으로 내일 등교할 거야. 모두 이만 집으로 돌아가 주었으면 한데.”

“그래? 그럼 내일 보자~!”

남철수는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버렸다. 병실 안에는 수진이와 준구만이 있었다.

“미안, 나도 검도 시합을 보러 가야 했는데.”

“내가 있었으면 너도 다쳤을 거야.”

“내가 잘못했어.”

수진이 자책을 하며 준구 앞에 섰다. 눈망울에는 눈물이 가득해서 입으로 바람을 불어주기만 해도 뚝뚝 떨어질 것 같았다.

“착각하지 마. 넌 잘못된 거 없어.”

“하지만…”

“넌 나를 비롯해서 다섯 명의 후배들도 검도 시합에 보냈어. 여섯 명 중에 단 한 명, 좀 운이 나쁘게도 내가 이상한 사이코한테 걸린 것뿐이야. 그리고 말이지, 내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유라가 죽진 않았을까? 그렇다면 오히려 나는 널 칭찬해주고 싶어. 네 덕분에 하마터면 죽었을 지도 모를 유라가 살았잖아? 네 결정 때문에 사이코가 등장한 것은 아냐. 네 결정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만큼, 넌 유라한테서 생명의 은인이라고 불려도 된다고. 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흐아아아앙~~” 수진은 준구의 격려에 평평 울기 시작했다.

“야, 야…. 어~~이……. 곤란하니까 울지 마.”

“흐아아아앙~ 하지만, 흑흑, 내가 질투심에 너를 보낸 건 맞잖아……. 그건, 꼭, 내 잘못…”

“그러니까 네 잘못 아니라니깐…… 응?”

“미안해.” 수진이 훌쩍이며 팔로 눈을 가렸다.

“어휴,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너 좀 성가시구나?”

준구는 수진의 머리에 손을 얹어 쓰다듬어주었다. 머리카락이 매우 부드러워 쓰다듬는 준구의 기분이 좋아질 정도였다. 마치 토끼의 털을 쓰다듬는 것만큼 기분이 좋았다.

이상한 취향에 눈을 뜨기 직전에 휴대폰이 울렸다. 준구가 휴대폰 액정을 확인하자 발신자가 차유라임을 확인하였다. 준구는 바닥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수진에게 “씻.”이라고 말하며 조용히 해달라는 손짓을 취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준구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안 죽고 용케 살았네. 나 오늘 결석인데 너도 결석이지?』

유라는 아직 감기가 다 낫지 않은 모양인지 코가 멍멍한 소리로 말하였다.

『경찰 조사는 다 끝이 났어. 생각보다 일찍 끝나더라고. 아무튼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어서 전화했어.』

“확인하고픈 게 있는데 넌 내가 좋아?”

『글쎄, 타인이 듣는 앞에서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안 그래, 2반 반장?』

수진이 하는 수 없이 말을 내뱉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역으로 내가 준구한테 물어볼게.』 준구는 잠자코 기다렸다.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존재할까? 진실을 포기하더라도 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면 그건 뭘까?』

“네가 무슨 답변을 기대해서 그런 질문을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진실보다 더 소중한 건 찾고 보면 꽤 많이 있겠지. 진실은 잔인할 때가 많잖아. 그런 잔인함이 받아들이는 자에게 재기 불능의 절망을 준다면, 차라리 그 진실은 묻히는 게 좋겠지. 하지만 그건 재기 불능의 절망에 빠지는 특정한 개인에게만 한정된 게 아닐까.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라고나 할까. 상처 받는 사람은 소수겠지만 결국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 그게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물어뉘선 안 될 거라고 봐.”

『들었지, 2반 반장? 저게 준구의 생각이야.』

“그, 그래서 뭐 어쨌는데?!”

『난 잠이 쏟아져서 이만 끊을게.』

통화가 끊기자 수진과 준구 사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수진이

할 말이 떠올라서야 정적은 깨질 수 있었다.

“참, 성한이한테서 들었는데, 그동안 내가 오해하고 있었어.”

“대충 그럴 거라 짐작했어.”

“사과하고 싶어. 그리고 너한테 제안할 게 있어.”

“...제안?”

수진은 양 검지손가락을 서로 맞대며 시선을 이리저리 돌렸다.

“이번 여름 방학 때 말이야, 나 혼자 공부하기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준구는 서론이 길어도 잠자코 들어주었다. 수진이의 모습이 꽤 귀엽게 보였기 때문이다. “괜찮다면 우리 집에 와서 합숙하지 않을까?”

“합숙?”

수진은 손을 절레절레 휘저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공부만 하고 다른 의도는 없다고나 할까... 흐익?! 아니, 그게 아니고, 참, 너희 반의 박혜원도 참가할 거니까, 분명 괜찮아, 그래!”

“그래서 일단은 합숙이니까 너희 집에서 숙식도 해결하고 공부도 하는 거구나?”

“응.....”

수진은 자신의 집 위치가 그려진 종이를 준구의 이불 위에 올려놨다.

“그럼 내일 봐!”

“응, 잘 가.”

수진과 준구는 서로에게 손을 흔들었다. 수진이 병실을 빠져나가자 준구는 자신이 받은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준구는 걱정스러워졌다.

자신이 받은 약도는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용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악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 자신이 제대로 수진이의 집에 찾아갈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기 때문이다.

### 3.4

소령은 정보상과의 접선에 성공하였다. 컴퓨터 채팅으로도 대화를 나눌 수는 있었지만, 채팅 로그가 누설될 염려가 있어서 직접 만나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 둘은 신설시 교외의 야산에 있는 가건물에 마주보며 앉아 있었다. 그곳은 벽이 있고 창문과 지붕이 없었다. 그저 텅 뚫려 있는

곳이 출입구였고, 문짝 같은 것은 달려 있지 않았다. 하늘이 보이기 때문에 비나 눈이 오면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었다. 솔직히 소령은 무슨 목적으로 이따위 구조물을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참 호호 쓰기에는 눈에 너무 띄고 임시 거처로 삼기에는 너무 결점이 많았다. 지금은 여름이라 다행이지만, 겨울이었다면 땅의 냉기가 다리에 스멀스멀 올라왔을 것이다.

소령이 정보상에게 악수를 건네며 말했다. 소령은 상대를 처음 보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실비아라고 합니다.”

“저는 이상동이라고 합니다.”

둘은 악수를 나누고 각자 마주보며 섰다.

“그쪽이 경찰에 근무하면서 신설시의 CCTV를 감독하고 있다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일단 저희에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수사에 협조하시는 사실은 외부에 누설될 일이 절대 없음을 약속드리며, 만에 하나라도 그쪽에 불이익이 간다면 우리가 일자리 제공에서 망명까지 모든 제공할 수 있는 보상을 다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 물어보죠. 제 동료 중에 김한균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키는 180cm 정도 되고 체구도 꽤 큰 사람이죠. 그런데 6월 15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사망 직전에 무슨 행동을 취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는 어느 중학생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경찰청장도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 중학생이 누군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제 생각에 그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겁에 질려서 도망갔을 뿐이죠.”

“그럼 김한균은 왜 그를 쫓아갔을까요?”

“저야 모르죠.”

정보상은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 것도 모르겠다는 듯이 행동했다.

### 3.4.2 2037년 6월 17일. 수요일.

퇴원한 후에 준구는 팔에 붕대를 두른 채로 등교를 하게 되었다. 유라도 자갈한 부상으로 손은 붕대로 감쌌고 팔과 다리 곳곳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주먹을 쥐고 펴는 것이라든지 걷거나 뛰기



에는 무리가 없어 보였다.

이 둘 외에 학교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하복을 입은 학생들은 3일만 있으면 시작되는 방학에 들떠있을 뿐이고, 이사장이 없어도 교장이 임시긴 하지만 학교 운영을 잘 해주었다. 준구가 겪은 사건에 대해 신문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교육청에서는 아직도 학생들의 집단적 귀가 권고 조치를 해제하지 않았다.

그래도 가장 큰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준구가 원래대로 철수 옆자리에 앉게 된 것이었다. 경화도 무서운 시선으로 자신을 보지 않았다.

“드디어 1학기 사회 교과서를 모두 다 끝냈다. 방학 동안 사회 시간은 이제 자습! 아니면 궁금했던 거 있으면 물어봐. 철수야, 다른 교사는 다 수업 진도 끝났니?”

“우선 수학은 다 끝났고, 과학은 아직 20페이지 가량 남았습니다. 아마 방학이 시작하기 전에 다 끝날 거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자.”

“수고하셨습니다!”

“제군도 수고 많았다.”

백향 선생의 1학기 마지막 수업이 끝이 났다. 그녀가 교실 문을 열고 나가자 학생들은 저마다 조용히 소곤거렸다.

“이제 남은 3일 동안 무슨 재미로 살아야 하나~?”

“수학 문제라도 풀지 그래.”

준구는 수진이와의 합숙에 준비하기 위해 미리 공부해 보려고 책을 꺼냈다. 그리고 책을 펼쳐 읽으려는 순간, 누군가가 준구의 책상 앞에 섰다. 준구는 자리에 앉은 상태로 그 사람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처음 보는 얼굴은 아니지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아니었다. 3학년 2반의 부반장인데 조석빈이라고 하는 아이였다. 굼직하게 생긴 이목구비에 눈썹 또한 짙었다. 턱이 조금 각이 졌다. 유도부 부장인 관계로 덩치도 꽤 컸다. 마치 「곰」 같은 체격이었다. 이 녀석은 생긴 것 자체로 이미 공포가 뭔지 알려주었다. 다행스럽게도 성격은 전혀 곰 같지 않았다.

“안녕.”

“어, 그래, 안녕. 네가 나한테 무슨 일이냐.”

조석빈은 가끔씩 쉬는 시간에 3학년 1반에 놀러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석빈은 준구와 친한 편이 아니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라 할만했다.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같은 반이 되

지 않으면 같은 학교 동창이어도 서먹서먹한 것처럼.

“잠시 복도로 나와 주라. 할 말이 있어서.”

그는 큰 덩치와는 어울리지 않게 뒤통수를 긁적이며 그렇게 말하였다. 안 그래도 조금은 투박하게 생긴 얼굴이 더 이상해 보였다.

“그냥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될까?”

“음, 그럼 이거라도 줄까?”

석빈은 사탕을 하나 꺼내서 준구의 책상에 올려놓았다.

“미안한데 남자가 주는 사탕은 안 받아먹는데.”

“……농담하는 게 아냐.”

“미안,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사탕은 도로 가져가.”

석빈은 무안해져서 책상 위에 올려놓은 사탕을 도로 가져갔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단 말이야.”

“수학 문제라면 문제집을 들고 와. 풀어 줄게.”

석빈은 갑자기 준구의 귀에 얼굴을 갖다 대었다. 준구는 설마 소문을 듣고 싸움을 걸러 왔나 싶었다.

“너한테 하나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복도로 나와서 얘기 좀 하자.”

“뭐, 그럼 어쩔 수 없네.”

준구는 석빈을 따라서 복도로 나왔다. 석빈은 두리번거리면서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문은 들었어.”

석빈이 그렇게 말하자 준구는 별 거 아니란 듯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다.

“음, 뭐, 해야 할 일을 한 거 뿐이지.”

“유라와는 어떻게 해서 사귀게 되었어?”

갑자기 그렇게 묻자 준구는 이 아이가 혹시 유라에게 관심이 있나 싶었다.

“내 생각엔 네가 오해…” “난 현경화를 쪽 좋아했어.”

확실히 둘 다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다.

“중학교 입학할 때부터 그랬어. 처음엔 그래서 검도부에도 가입했는데, 검도는 내 체질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유도부에 가입했지. 다행히 유도부에서는 내가 꽤 성실하다고 인정받아서 부장까지 되었지.”

“그래, 네 소개는 알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화하고 사귈 수 있을까?”

연애 경험이 전무후무하며 교내에서 고지식하기로 유명한 준구에게 물어보았자 얻을 게 없다. 하지만 웬지 유라와 준구가 사귀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상, 석빈에게 준구는 애인이 있는 사람이나 다름없다. 준구는 이 불쌍한 영혼이 차라리 진짜로 환경화와 사귄 적 있는 남철수에게 연애 방법을 묻는 게 나을 거란 생각도 해 보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을 것이란 걸 이해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옛 애인에게 연애 방법을 묻는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기 때문이다.

“흠……. 넌 어디에 진학할 거야?”

“체고. 종목은 유도.”

“유도 말고 다른 특기는 없어?”

“글쎄. 딱히.”

“여자는 말이지, 말 잘하고 똑똑한 남자를 좋아해.”

준구는 이런 말을 하면서 스스로가 뻔뻔하다고 느꼈다. 자신은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석빈은 준구가 우상처럼 여겨진 모양이었다.

“역시! 그럼 책을 많이 읽어야겠군.”

“그리고 잘 생겨야 해.”

준구는 혹시라도 주먹이 날아오는 건 아닐까 불안했지만, 그는 생긴 것과는 다르게 소심했다. 아니면 준구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잠자코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도 개그맨이 예쁜 부인을 얻는 경우 많잖아? 결국 외모보다는 다른 변수가 더 중요한 거니까 너무 풀 죽지 마.”

“어떻게든 고백할 방법이 있을까?”

준구는 잘만 하면 석빈을 이용해서 유라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준구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무력이 생긴 것이다. 그것이 비록 스스로의 힘이 아닌 외부의 힘일지라도.

“나에게 무슨 일이든지 협력한다면 방법을 찾아볼게.”

“고맙다, 준구야.”

둘은 마치 피를 나누는 형제처럼 악수를 하였다. 석빈은 자기네 반으로 돌아가고 텅텅 빈 복도에 혼자 남은 준구는 어떻게 하면 차유라를 경찰에 넘길지 고민하였다.

## Chapter 4. 추적

*Natura non facit saltum. [Nature does not make jumps]*

- Alfred Marshall

### Intro

준구는 문 앞에서 몇 분 쯤 서 있었다. 아주 평범한 문 앞에서 준구는 어떻게 들어가야 자연스러울지, 자신의 지금 이 모습이 자연스러울지, 집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자연스러울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다. 사실 이곳에 오기까지 계속 고민하였다. 학교에서 30분 거리인 「이곳」은 준구네 집과 딱 정반대—준구네 집은 학교를 기준으로 서쪽, 이곳은 동쪽이다—에 있어서 준구가 집에서 출발하여 이곳에 오기까지 무려 한 시간 가까운 시간을 고민할 수 있었으나 뻔족한 수를 못 찾았다. 그럴 만도 한 이유가 있는데, 준구는 이곳에 처음 와 보기도 하고, 이곳에 처음 오는 만큼 이곳에 사는 그녀가 조악한 그림체의 약도만 달랑 건네주었기 때문에 약도와 근처 상가 건물과 대조해가며 오느라 깊이 고민할 여유가 없던 탓에 준구가 이곳에 도착한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집념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혜원이와 함께 오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 준구는 생각하였다. 혜원이도 분명 조악한 약도만 받고 지금도 헤맬 것이라 예상했다. 더구나 약도는 너무나 불친절하게도 학교에서 이곳까지의 길만 표시되어 있기에, 학교에서 북쪽에 사는 혜원이는 지름길을 택하고 싶어도 미로 같은 골목길 때문에 별 수 없이 학교를 거쳐서 이곳에 와야 한다. 따라서 직선 거리상으로는 혜원이네 집이 준구네 집보다 이곳에 더 가깝지만, 거의 직선에 가깝게 온 준구 쪽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었다.

약도를 이렇게 그린 데에도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그린 그녀가 길치인데다 준구네 집도, 혜원이네 집도 어디 있는지 모르며, 설령 알더라도 그 복잡한 길을 약도에 그려주기는 어려웠으리라. 학교에서 이곳까지 오는 길도 복잡한데, 각각의 집에서 여기까지 한 번에 오는 경로를 그리다간 약도가 아니라 지도를 하나 주는 게 나을 것이다. 그 생각을 아무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지도는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지 않았으며, 굳이 살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었다. 최근의 준구는 지도를 구입할까 숙고도 하였지만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머릿속에 기억하기로 작정하였다. 준구가 이곳까지 무사히 온 데에는 준구의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저장된 지도 덕분이기도 하다.

준구는 혜원과 함께 연합하여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쳐들어가는 망상은 재고(再考)의 여지없이 기각 판정을 내리고, 홀로 초인종을 누르려는 찰나 조그마한 손이 자신의 어깨를 짚은 느낌에 깜짝 놀라 뒤돌아 봤다. 예상은 하였지만, 역시 혜원이가 있었다.

“뭐야, 역시 너였구나. 왜 이리 늦었냐고 묻는 건 쓸데없겠지.”

혜원은 준구가 약도 얘기를 한다는 것을 눈치 채고 그저 빙긋 웃으며 대답하였다.

“난 전혀 늦지 않았어.”

준구는 그 말도 안 되는 말에 어떤 논증이 내포되어 있는지 추리해 내기도 전에 혜원이 연이어 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너무 결단을 늦게 내리기에 답답해서 놀라게 한 거야.”

“...설명을 좀 해줬으면 한데.”

“상식적으로 학교에서 우리 집에 네 집보다 가깝지. 학교 모퉁이에서 먼저 도착한 뒤에 네가 학교를 지나칠 시점에 나타나려 했는데 네가 엄청 심각한 얼굴로 땅만 쳐다보고 걷기에 차마 말을 걸 수 없었어. 그래서 계속 뒤를 밟았어. 솔직히 이렇게 미행한 편이 결과적으로 낫긴 해. 같이 혼란에 빠지는 것보단 한 명이라도 먼저 도착하는 게 나으니까.” “그럼 미행하는 너도 똑같이 혼란에...”

“근데 한방에 왔잖아.”

준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이런..., 무임 승차자가 이렇게나 가까이 있었다니.”

준구는 어깨를 으쓱하곤 어색하고도 멧쩍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다 문득 사복 차림의 혜원을 보고는 그 모습을 찬찬이 뜯어보았다. 질

은 갈색 케이프를 어깨에 걸치고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있었다. 얼른 눈에 들어오는 특징은 그 뿐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어째서 은연중에 혜원이를 우상화하는 과별이 생겼는지 충분히 납득하고도 남았다. 본인은 과연 자신의 인기를 자각하고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 거의 초연한 반응을 보이기에 알 수 없다. 준구가 혜원이의 인기를 어림짐작으로나마 아는 이유는 남철수의 보고서 때문이다.

“그런데 너랑 수진이는 언제부터 친해진 거야?”

“경화를 통해서 친해졌는데. 방과후에 가끔 만나서 얘기를 나눴거든. 이제 들어가보자.”

“잠깐!”

준구가 제지를 하려 했으나 이미 혜원이는 수진이네 집의 초인종을 눌러버린 뒤였다. 청아한 새소리가 울리고 얼마 안 있어 집 내부에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으나, 새소리도 난리법석도 들리지 않았다. 몇 초 안 있어 곧 문이 열렸다. 문 앞에서 있는 여자의 모습에 준구는 수진이의 가족으로 잠시 착각했다. 준구의 모습이 비치는 눈동자, 오뚝하고 곧게 났지만 날카롭다는 느낌보다 부드럽다는 느낌에 가까운 콧날, 붉고 적당히 얇은 입술. 무테안경을 껴다고 해서 바뀔 리가 없는 전형적인 미인의 얼굴이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서수진이기에 준구는 멋쩍은 미소로 인사했다.

“아하하, 오라기에 왔어. 좋은 아침이야.”

“...귀여워.”

혜원이가 아직 잠이 덜 깬 것처럼 보이는 수진이 앞에 바싹 다가가자 수진이는 엉겁결에 뒷걸음질을 치며 방으로 들을 안내했다.

“자자, 사양 말고 들어와.”

수진은 안경테를 만지는 게 습관인 모양인지 안경테를 잡고 있었다. 회한한 점이 있다면, 그 상태로 미약하게 덜덜 떨고 있었던 점이다.

“근데 그 잠옷, 어디서 샀어?”

“아, 이거?”

거실까지 온 셋은 앞서가던 수진이 잠깐 뒤돌아보는 덕에 그 자리에 멈춰 섰다. 혜원이는 수진이의 잠옷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일체형으로 된 하얀 토끼 잠옷이다. 뒤에는 납작하면서 동그란 꼬리, 머리에는 기다란 토끼 귀마저 달려 있었다. 철사인지 플라스틱인지 뭔가를 써서 잠옷에 달린 토끼 귀는 용케 수진이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볼만한 모습으로 휘어져 있었다. 아무래도 착용자가 손으로 접거나 펴는 것이 가능해 보였다.

“그건 나중에 가르쳐 줄게. 우선 내 방으로 가자.”

“…….”

준구는 처음 보는 수진이의 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외모가 바뀐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안경을 쓴 것만으로도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것인가. 준구가 너무 빨리 쳐다보니 수진이는 얼굴을 붉히며 항의할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자꾸 왜 쳐다봐! 하고픈 말 있으면 지금 해.”

수진이의 손가락을 안경테에 접촉제로 붙여놓은 건지 그 상태 그대로 얘기했다. 준구는 수진이와 함께 3년을 같은 학교에서 봤지만 수진이가 이렇게 뻗뻗하게 구는 것은 처음 보는 장면이다. 물론 안경을 쓴 모습도 신선한 충격이지만, 이런 건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다. 준구가 얼른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수진이의 태도였다. 학교에서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행동 양식이기 때문이다.

“애 이마 좀 짚어봐.”

준구는 혜원이를 시켜 수진이에게 열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혜원이는 잠자코 수진이의 이마를 짚었지만 별달리 반응이 없었다. 수진이는 혜원이가 점점 얼굴을 들이밀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준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말했다.

“지금 휴대폰이나 카메라 있냐…….”

“아니, 집에 있어.”

“얼른 들고 와. 이걸… 특종이다. 특집 기사다. 백 년 이상 교내 문서로 보관할 귀한 문서가 될 거야.”

혜원이가 준구에게 척 거수경례를 하고는 “퇴로 차단을 부탁해!”라고 말했다. 준구가 고개를 끄덕이자 혜원이는 그대로 자기네 집으로 가버렸다. 준구는 혜원이의 성격이 전학 올 당시보다 많이 밝아져서 다행이라 생각했다. 이런 한가한 생각과는 달리 수진이는 둘의 언행에 드디어 폭발하여 준구의 손을 붙잡고 억지로 자기 방으로 끌고 왔다.

“퇴로 차단? 이쪽에선 농성전을 준비해 주지!”

준구를 침대에 앉히고는 문을 잠가버렸다. 준구가 여자 아이의 방에 와 본 것은 이걸로 두 명 째. 지나치게 깔끔했던 유라의 방과 비교해 봤을 때, 수진이의 방은 참으로 인간적인 풍미가 곳곳에 베인 방이었다. 침대 옆에는 만화책이 쌓여 있었고, 곳곳에 머리카락과 휴지가 널려 있었다. 이불보에는 토끼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방금 전에도 얼드려서 쿠키를 먹은 것인지 쿠키 가루가 있었다. 어쩌면 지난밤에 먹은

야식일지도 모른다. 준구도 방을 이렇게 어지럽히진 않는다.

준구의 시선이 자신의 방을 구석구석 훑어보고 있음을 깨달은 수진은 준구의 뒤통수를 붙잡고 아래로 억눌렀다.

“으아! 뭐 하는 짓거리야! 허리 아파! 내 목!”

“잠깐만 다른 데 보고 있어!”

“알았어! 알았으니까 손은 놔 줘.”

“안 볼 거지?”

“그래, 네가 방 정리하는 동안은…”

수진이가 그 말에 더욱 거세게 준구의 뒤통수를 짓눌렀다. 준구의 배가 무릎에 닿자, 그제야 수진이는 손을 놓았다.

“…금방 끝날 거야.”

수진이가 방 정리를 하는 동안 준구는 침대 밑에 숨겨진 원고 봉치를 발견했다. 통상적으로 침대 밑이라고 하면 먼지에 굉장히 취약한 구석일 수밖에 없지만, 원고 봉치 위에 먼지라곤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진이는 최근까지도 이 원고에 손을 대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준구가 원고의 정체가 무엇일지 예상하는 동안 수진이는 방 정리를 끝낸 모양이었다.

“이제 일어나.”

준구가 일어나며 손에 원고 봉치를 쥐고 있는 것을 본 수진이는 강제로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다.

“보지 마! 보지 말라곳!”

“아직 안 봤어! 진정해! 찢어져!”

“네가 손 놓으면 되잖아!”

“아, 그렇구나.”

준구가 이번에도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손을 놓자 수진이는 방금까지 준 힘에 의한 관성에 의해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너무해…….”

“아…… 미안. 미안해.”

수진이가 살짝 흘쩍이는 것처럼 안경을 만지작거리자 준구는 뭔가 일이 크게 꼬이고 있음을 느꼈다. 얼른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사죄의 뜻으로 두 손을 짹짹 빌며 사과하기 시작했다.

“미안! 내가 나빴어. 그제 내가 뭘 썼을까 궁금해서……. 너라면 재밌는 얘기를 썼을 거 같아서.”

“…진짜?”

반응이 왠지 칭찬을 기대하는 눈치였다. 여기서 조금만 더 아부를



하면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진짜다! 너는 누가 뭐래도 문예부 부장이잖아? 글재주가 없을 리 없어!”

“...그럼 한 번 읽고 평가해 줄래?”

“물론이지! 문예부 편집장이니까 제대로 읽어보고 첨삭까지 조언해 줄게!”

그 말에 수진이는 눈빛을 반짝였다. 은근히 기대하는 듯 보였다.

“그럼 다시 거기 앉아.”

준구가 침대에 재차 걸터앉자 수진이가 준구에게 원고지를 건네주었다. 「제목은 아직 미정이에요☆」가 제목인 글이다. 문장 끝에 별표는 왜 붙여졌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준구가 한 장 넘기자 뭔가 주변에 소리가 났다. 준구가 고개를 들자 수진이가 베이스 기타를 걸치고 연주 준비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 왔다. 토끼 잠옷을 걸친 소녀가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려는 모습은 여태껏 어디서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일이었다.

“그 소설 분위기에 맞게 작곡했거든. 읽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수진이가 그렇게 말하고는 준구 맞은편의 의자에 앉았다. 조용히 눈을 감고 베이스 특유의 진동을 방 안에 울리게 했다. 준구는 다시 원고지 위로 시선을 옮겼다.

본인은 글재주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본인이 기껏 부장이 되고서도 글 쓰는 일은 준구에게 거의 다 맡겼다. 그런 명분을 얻으려고 편집장이라는 여태껏 없던 직책을 만들어서 준구에게 일방적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원고지를 읽는 동안, 과연 수진이에게 글재주가 없는 것일까란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사실 수진이의 글을 볼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뿐인지도 모른다. 단지 프롤로그를 읽는 것만으로도, 훗날 이 글이 완성되어 독자가 책을 다 읽고 눈을 감았을 때 엄청난 감동과 전율로 이 글을 기억하게 될 것임을 짐작케 하였다.

그러나 글에 문제가 있었다. 상업적으로 출판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다지 대중적으로 읽힐 글은 아닌 게 문제였다. 분명 간결하게 표현을 전달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그걸 수학의 힘을 빌린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요즘은 교육 과정이 많이 앞당겨져서 중학생도 미분적분을 배우지만 이 소설은 그 도가 지나치다. 알아볼 사람만 알아보라는 듯 소설에 나온 수식들은 거만하게 폼을 잡으며 독자의 목을 조를 기세로 행진하고 있었다. 거대한 진을 짠 행렬

방정식이 깃발을 높이 치켜들고 무리지어 움직이는 보병을 연상케 했다. 그 뒤를 이어 미분방정식이 기갑 군단 날뛰듯 글 사이를 헤집고 돌아다녔다. 편미분과 전미분이 지원 박격포 역할을 하고 그래프가 공중 편대로 폭격을 퍼붓고 있었다. 수정한다면 펜찰을 지도 모르지만 이 글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글이다. 수학사의 난제를 풀어 나가는 미스터리 로맨스 소설이기 때문이다. 준구는 수학적 비유가 이렇게 낭만적으로도 다가올 수 있음을 처음 깨달았다. 단지 그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사이의 묘사에 한정된다는 게 또 문제지만.

한참 베이스 기타를 깊이 있게 연주하는 수진이를 보고 준구가 말을 꺼냈다.

“저기, 일단 프롤로그는 다 읽었는데…” “어, 어땀어?”

“너, 이 소설에 나온 미스터리 풀 수 있어?”

“아니, 언젠간 풀리겠지.”

“역시…….”

준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이 글의 최대 문제는 완성이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었다.

“네가 도와준다면 완성할 수 있을 지도…”

“확률이라면 나도 도울 수 있지만 이건 지나치다고.”

“아하하~ 그런가?”

멋쩍은 미소로 수진이는 안경을 벗었다.

“그러고 보니, 너 원래 안경 안 썼잖아. 눈이 나빠진 거야?”

“시력이 변한 적은 없어. 근시는 아닌데 평소에는 콘택트렌즈를 끼.”

즉, 학교에서 보는 수진이는 늘 렌즈를 끼고 있는 상태였던 뜻이다. 전교에서 이 사실을 아는 또 다른 인물은 도저히 현경화 이외에 떠오르지 않았다.

“경화도 알아?”

“어, 하지만… 이런 잠옷 차림을 본 건 너희가 처음이야.”

준구는 그제야 자신들이 뭘 하러 수진이네 집에 왔는지 떠올리고, 뒤이어 수진이의 잠옷을 함께 본 혜원이를 떠올리자 동시에 주머니에 진동이 느껴졌다. 준구가 급히 휴대폰을 열어보니 혜원에게서 온 전화였다. 준구가 전화를 받자 거친 숨소리의 혜원이가 말했다.

『…문… 열어줘…….』

“아, 미안. 금방 열어 줄게.”

준구가 문을 열고 수진이의 방을 빠져나가 거실을 통과해 현관문을 열었다. 이 집의 현관문은 거주자가 문을 열어둔 채로 나가면 자동으

로 잠기게끔 되어 있는 문인 모양이었다. 혜원이가 디지털 카메라를 건네주면서 준구에게 말했다.

“너, 수진이랑 같은 방에 있었던 거야?”

“어, 잠시 얘기나 하고 있었지.”

“그런데 왜 혼자 거실에 있어? 같이 나왔어야지.”

준구가 뒤돌아보았으나 이미 수진이네 방은 꼭 닫혀 버린 뒤였다.

“당했다!”

준구가 뛰려다 아래층에 소음 피해가 갈까봐 빠른 속도로 걸었다. 문고리를 붙잡고 돌려봤지만 이미 문은 잠겼다.

“잠졌으니 별 수 없네. 그래, 무슨 얘기 했어?”

준구는 방금 전까지 수진이와 했던 대화를 떠올렸다. 그러나 많은 잡담을 나눈 것은 아니고, 수진이가 베이스 기타를 쳤다는 사실만큼은 뚜렷이 기억에 남았다.

“그리고 보니, 여기까지 오면서 연주 소리 안 들렸어?”

“연주? 음악 틀었어?”

“음… 좀 큰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을 텐데.”

분명 수진이는 작다고는 할 수 없는 음량으로 베이스를 연주했다. 건물 밖은 무리라도 준구가 혜원이의 전화를 받았을 때, 혜원이는 수진이네 집 현관 앞에 있었으니 들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혜원이는 이 집 안에 아무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은 듯 얘기했다. 공업 단지에서나 쓸 법한 완벽 방음 시스템이 적용된 것일까?

‘방음————?’

준구의 머릿속을 스친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전율했다. 안에서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소리를 차단할 수 있다면 역으로 바깥의 소리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차유라는 이 도시의 방음 설계된 건물을 믿고 마음대로 날뛰었던 건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목격자가 나오지 않는 것도, 주민들이 살인 사건이 발생할 때 아무도 신고하지 않는 것도 납득이 되었다.

준구가 방음에 대한 추리를 끝낼 무렵 방문이 활짝 열렸다.

“들어와.”

수진이는 이미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역시 토끼잠옷 쪽이 더 개성이 넘쳤다.

“생각해 보니 카메라를 가지러 가지 않아도 됐어.”

혜원이가 자책하듯 말했다. 준구는 자신이 뭘 간파했는지 깨닫지 못

한 채 말했다.

“왜?” “너 휴대폰 있었잖아.”

혜원이가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러 되돌아갈 필요 없이 준구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되는 것이었다.

“...아..... 두 번 당했다.....”

“후회는 거기까지 하고, 어서 공부 하자! 유후! 합숙, 합숙!”

어느 때처럼 수진이가 상쾌하게 웃으며 둘을 환영했다.

#### 4.1

소설가가 한 번 되어보고 싶다고 생각한 소녀가 있다. 그리고 그녀가 사는 마을 주변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사건은 소녀의 흥미를 당겼다. 사건은 그녀의 가장자리에서 시작되었으나, 어느새 그녀가 사는 마을 한가운데에까지 와버렸다.

이건 기회다!

직업적인 소설가가 되는 것까진 바라지 않는다. 단지 호기심이 생겼을 뿐이다.

도서관 한 가운데의 탁상에 다리를 올려놓고 신문을 읽으며 즐거운 상상에 퐁당 빠졌다. 자신은 탐정이 되고 친구들은 조수가 되어 살인 마을 잡아내고 신문 1면에 자신의 사진이 실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한 추리소설을 한 권 만들어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명예를 얻고, 영화로까지 만들어져서...

“어이, 다리 좀 내리지? 후배들이 책 읽다말고 네 다리만 쳐다보잖아. 조신하게 지내. 부장이면 자각을 좀 가집시다, 응?”

곁에 있는 또래 남자가 지적을 하자 소녀는 마지못해 다리를 내린다. 이건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 단순히 체면치레로 하는 말일까.

펼친 신문지 너머로 소녀가 본 남자는 약간 너구리를 닮은 분위기가 있다. 소녀는 소년을 빤히 지켜보았다. 굵은 사람 같은 얼굴을 한 소년은 게걸스럽게 책을 읽고 있다. 일, 명성, 영향력, 패권, 존경을 갈망하는 성격이란 건 애초에 알고 있다. 형식적인 반발은 하였지만 편집장직을 수락한 것이 단적인 증거다.

“김준구..... 이 자식.”

소녀는 소년에게 호승심을 느낀다. 저런 성격에게 진정한 승리를 거둔다는 것은 상대에게 인정받는 일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 학기 초에 공언(空言)했던 대로 범인을 잡는 것이다. 그리하여 공언(空言)을

공언(公言)으로 바꾸어버린다면 저 녀석도 자신의 위대함 앞에 고개를 조아릴 것이다.

“기대해라, 김준구……. 후훗.”

소녀는 소년이 들을 수 없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소녀는 탐정이 되기로 결심했다.

#### 4.1.1 2037년 6월 29일. 월요일.

준구는 어슴푸레한 새벽에 일어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다. 역설적이게도 차유라 덕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습관처럼 베였기 때문이다. 덕분에 서수진에게 모닝콜을 걸어 수진의 몽롱한 의식에서 새어나오는 얼떨떨해하는 육성을 들을 수 있었다.

준구도 신설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신설시외버스터미널에 왔다. 신설시에서 교외로 나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새벽부터 이곳에 오는 사람은 대체로 정해진 편이다. 평소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대개 신설시 내에 직장을 가지지 않은 소수의 직장인이나 신설시 외곽의 학교에 통학하는 소수의 학생이 그러한 편이다. 때문에 이곳은 통근이나 통학으로 북적이는 새벽이 지나면 꽤나 한산해지는 편이다. 하지만 평소에 이곳에 오지 않는 준구가 그런 걸 알 리가 없었다.

준구가 살면서 한 번도 오지 않은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오늘이 부산D상고에 입학 시험을 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준구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터미널 입구에 서성이며 약속 장소에 두 사람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그냥 기다리기도 심심하여 단편 소설집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방학 이후로 처음이구만. 새벽부터 독서냐?”

낮익은 목소리로 준구에게 말을 건 것은 다름 아닌 남철수였다. 작은 몸집을 한 철수는 작은 키 덕분에 누가 몇 살이냐고 물으면 초등학생이라고 바로 사기 칠 수 있을 정도로 어려보였다.

“유괴당할 수도 있으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렴.”

준구는 왼손에 쥔 단편 소설집을 덜지도 않은 채 오른손을 뺀어 철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철수는 어린애 취급당하는 것이 기분나빴는지 준구의 손을 핵 치워버렸다.

“나도 여자 한 명쯤은 지킬 수 있는 몸이거든?”

“어…, 네가 보호당하는 건 아니고?”

“너……!”

철수는 양쪽 뺨을 부풀렸지만 남자에 치고는 제법 어울렸다.

준구가 피식 웃자 철수는 발을 동동 굴리며 분을 겨우 삭이더니 심호흡을 몇 차례 하고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네 농담에 어울릴 시간이 없네. 미안하지만 이제 서울행 버스를 타야 해서.”

“가는 버스에서 잠들지나 마라.”

“학생들 천지인 버스에서 누가 날 납치한다는 거냐!”

“농담이야, 농담. 그럼 다음에 보자.”

“그래, 개학하고 보자.”

철수는 준구에게 손을 흔들면서 터미널의 인파 속으로 스며들어갔다. 작은 키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철수는 아예 보이지 않게 되었다.

준구는 철수의 스텔스 능력에 경탄을 금치 못하며 다시 단편 소설집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몇 글자 보기도 전에 또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들었다.

“저기……. 김준구 선배님이시죠?”

준구가 고개를 들어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여학생을 보았다. 자신을 선배라고 부른 것으로 짐작하건대, 자신보다 후배일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였다. 문제는, 준구가 문예부 후배들 외의 후배들은 거의 기억을 못 한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여학생의 얼굴을 몇 초간 들여다보며 누구인지 떠올리는 데 고심을 하다가, 그 얼굴이 자신의 친구와 전혀 안 닮았으며 그걸로 몇 번 친구를 놀렸던 적이 있음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 후배는 그리 가까이 해선 안 되겠다 싶어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었다. 그래서 떠올리는 데 시간이 걸린 것이었다. 후배는 준구의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생긋 웃으며 다시 물어보았다.

“남철수 오빠가 오늘 부산에 시험치러 간다고 들었어요. 응원해주고 싶는데, 부산쪽 버스 어디에 타는지 아시나요?”

준구가 이 후배를 멀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 후배는 남철수를 쫓아다니는 스토커이기 때문이다. 평소에 준구 눈에 안 띄는 이유는, 이 후배가 남철수와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쉬는 시간에 철수를 찾아오지 않는 것이다.

“부산 쪽 버스라면… 부산행?”

준구는 분명히 철수가 서울로 간다고 들었다. 그런데 이 후배가 철수의 행선지를 착각하는 걸로 보아, 철수가 이 후배에게 일부러 잘못된 행선지를 알려준 게 틀림없었다.

준구가 쉽사리 대답하지 못하는 걸 마치 부산행 버스가 어디 있는지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생각한 건지 이 후배는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어이, 김준구~! 아침부터 일찍 왔네.”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다가온 여자는 서수진이었다. 다행히 제 시각에도착하였다. 수진이 옆에는 박혜원도 있었는데 수진이에 비해 혜원이가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수진이 손을 흔들며 다가오다가 준구 앞에 서 있는 후배를 보며 말했다.

“오랜만이네, 성아야.”

“안녕하세요, 수진 선배!”

준구는 이 후배의 이름이 이성아라는 것을 그제야 떠올렸다. 성아의 오빠가 이성한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성한이는 좀처럼 자신의 여동생에 대해 이야기하질 않아서 성한의 여동생 이름이 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고 준구는 스스로 합리화시켰다. 아마 성한이도 여동생 때문에 골머리 썩고 있겠지…….

“수진 선배, 부산행 버스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부산행? 아침 잘 됐네. 우리도 부산에 가는데.”

“이 아이는 누구…….”

박혜원이 수진의 뒤에 숨어있다가 머리만 살짝 드러낸 채로 수진에게 물어보았다.

“이성아라고 합니다!”

“난 박혜원이라고 해.”

두 사람 사이의 통성명이 있었지만, 분위기는 빠른 속도로 어색해졌다. 덕분에 준구는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할지 떠올렸다.

“우리도 이제 부산행 버스에 탈 거야.”

“철수 오빠도 같이 가나요?!”

성아의 극성한 반응에 혜원이는 성아를 잠시 빤히 쳐다보았다.

“글쎄, 같이 가려는 약속은 안 했는데.”

“준구랑 철수는 친한 사이니까 분명 같은 버스에 타려고 할 거야.”

“정말요?”

혜원이의 제멋대로인 추측에 성아는 넘어간 것 같았다.

수진은 손목시계를 한 번 쓱 쳐다보고는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다.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았지만, 일단 미리 가서 타 있자. 그리고 이걸 내가 예약한 표. 잃어버리지 마.”

수진은 준구와 혜원에게 각각 버스표를 나눠주었다.

그들은 부산행 버스가 서 있는 곳까지 걸었다. 성아는 철수를 찾으려는 기세로 인파 속을 열심히 둘러보고 있었고, 준구는 성아에게 철수가 서울행 버스를 타니 따라오지 말라는 말을 할까 고민하였다.

신설시외버스터미널 입구에서 부산행 버스까지 거리가 그리 길지 않아 금방 도착할 수 있었다. 버스 문은 열려 있었고, 버스에 탑승한 사람들은 출발하길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버스에 올라탈 건데, 넌 여기 계속 기다릴 거야?”

준구가 성아에게 물어보자, 성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뇨, 먼저 탔을 지도 모르니까 버스 안을 한 번만 둘러볼게요.”

“그런데 성아는 철수를 좋아하는 거야?”

“네~! 당연하잖아요!”

혜원의 질문에 성아는 즉답을 하였다.

“그리고 저를 한 번 구해준 적이 있어서…….”

준구는 성아가 덧붙인 말에, 몇 분 전 철수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거의 2년 전쯤만 해도 철수는 지금과 많이 달랐는데 경천동지할 일이다.

“여기서 얼쩡거리면 버리고 갈 거야.”

수진이 버스에 올라타며 말했다. 혜원도 뒤이어 버스에 올라타고 준구도 뒤따라 탑승했다. 버스 운전기사가 탑승자에게 직접 표를 받는 건 아니었지만, 표를 내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준구는 표를 운전기사 옆에 마련된 개찰기에 표를 집어넣었다. 성아도 뒤따라 탑승하였지만, 운전기사가 제지하였다.

“버스표 없으면 탑승 못 해, 학생.”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탔는지만 확인하고 나가보면 안 될까요.”

“출발할 때까지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얼른 확인하고 나가게나.”

“감사합니다!”

운전기사가 뻑뻑한 사람이 아니라서 성아는 버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준구는 성아가 운전기사에게 심하게 꾸중 듣는 건 아닌가 걱정했지만, 뒤이어 성아가 철수를 발견하지 못할 때 성아가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되지 않아 또 걱정되었다. 버스 밖으로 나간 다음 오전을 철수 기다리는 데 시간을 다 날리고, 나중에 철수에게 전화 걸어서 철수의 시험을 방해하면 철수에게 더 안 좋은 결과를 받게 되는 셈 아닌가.

수진과 혜원이 맨 뒷자리에 앉아 준구를 기다리는데, 준구는 천천히



걸으며 성아에게 뭐라 말해야 할지 고민하였다. 그러나 해줄 말은 단 하나뿐이다.

성아는 버스 내의 통로를 걸으며 양옆 좌석을 두리번거리며 살폈다. 준구가 적절한 시기를 살피다가 준구가 맨 뒷자리에 도달하자 성아가 말했다.

“철수 오빠는 오늘 늦잠 잤나보네요. 아니면 이 버스 말고도 다른 부산행 버스가 있다든지. 전 이만 가볼게요.”

“사실 철수는 서울행 버스를 탔어.”

“네……?”

“철수는 서울행 버스에 탔어. 방금 떠오른 거야.”

“선배, 거짓말 하는 거죠?”

“서울행 버스에 탔다는 거?”

“방금 떠올랐다는 거요.”

성아가 하는 말이 심상치 않게 느껴졌다. 물론 성아를 신설시외버스터미널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이미 준구는 철수가 서울행 버스에 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즉, 준구는 성아를 계속 속인 것이었다.

여기서 계속 더 거짓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실을 실토하고 용서를 빌지 준구는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는 철수의 부탁에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사실을 실토하면 성아가 철수에게 실망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었다.

“사실 부산행 버스에 어제 탔어. 오늘은 서울행이고. 그러니 준구가 헛갈릴 수도 있는 거지.” 준구가 결정을 망설이는 사이에 혜원이 나섰다.

“선배도 방금 떠올린 거예요?”

“아니, 알고 있었지만 입 다물고 있었지.”

“왜…….”

준구는 성아의 얼굴을 보았다. 고개를 숙여 머리카락이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래서 분노를 참는 건지 슬픔을 참는 건지 억울함을 느끼는 건지 파악하기 힘들었다.

“내가 잘못 기억하던 걸 수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사실 관계가 다 드러났으니 안 됐지만, 이제 여기서 내려. 철수는 네 마음 때문이라도 시험 잘 칠 거야.”

“알겠습니다. 일단 선배가 제 적이라는 건 잘 알겠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성아는 준구를 탓하지 않았다. 준구는 지금이라도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혜원이가 모처럼 나서준 결과를 뒤엎을 수 없었다.

“시험 잘 치세요, 선배.”

성아는 준구에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고서 뒤돌아 버스에서 빠져나갔다. 성아의 쓸쓸한 뒷모습에 괜히 더 미안해졌다.

“준구, 쓸데없이 감상에 젖어있지 말고 옆에 앉아.”

수진이 냉정하게 준구에게 말했다.

“이번 시험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란 거 잊지 말고.”

“알고 있어.”

준구가 뒷좌석에 앉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는 출발하였다. 그들은 아까 일에 대해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은 채, 오직 입시에 대해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부산으로 향했다.

#### 4.1

사건은 이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다. 탐정은 이것을 전학생이 자신의 학교로 전학을 올 때부터 느끼고 있었다. 묘한 소문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였다. 그 전학생이 한두 명도 아니고 스무 명에게 납치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상한데, 납치범들이 몰살당했다는 이야기는 더 수상했다. 그렇다면 누가 납치범을 몰살시켰는가? 어떻게 스무 구의 시체를 처리했는가? 그렇게 깔끔하게 사건을 해결했다면 소문은 어디에서 나는 것인가? 더구나 그 전학생이 온 이후, 이사장이 사망했다는 것은 더더욱 믿기 힘들었다.

그래서 탐정은 목격자가 귀가했음을 확인하고서 사람들을 모아 좌담실에서 회의를 시작했다.

화이트보드 앞에 선 서기가 토론 의제를 써내려갔다. 의제는 「소문의 실체와 우리의 대응」이었다.

“쉬는 날인데 학교에 와줘서 고마워. 어차피 원래는 학교 오는 날이잖아.”

“하지만 학교에 오지 않아도 되잖아.”

팔짱을 끼고서 유일하게 불만을 토로한 것은 조력자였다.

“그래도 이렇게 토론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나 할까. 학교 오는 게 그렇게 싫으면 왜 왔어?!”

탐정은 조력자의 짜증에 짜증으로 응수했다.

“그야 준구가 없으니 나라도 널 제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온 거지.”

“호오, 그럼 이 토론회에서 날 꺾어보겠다는 거구나.”

“당연하지.”

탐정은 박수를 한 번 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였다.

“서예가가 토론 의제를 적어놓았듯이 소문은 진짜인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한 것인가에 대해 토론을 펼치고 그 결론대로 행동하려고 해.”

“잠시 질문이 있습니다…….” 서기가 손을 들고 질문하였다.

“김준구 선배는 왜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문예부 편집장으로서 이사장 타계에 대한 조문을 작성해야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지. 개는 내가 이런 토론이라도 하려고 하면 토론 자체를 못 하게 막을 거잖아. 지금 글 쓰느라 우리가 뭘 하는지 아무 것도 모를 거야.”

탐정의 말에 모두 목격자의 심정을 이해해버렸다. 이런 추진력이 있으니까 걱정되어서 말리려는 것이다.

“다들 왜 그런 표정으로 있어? 여기 토론회에서 날 이기면 되잖아?”

조력자가 팔짱을 끼면서 물어보았다.

“어느 의견이 더 타당한지 누가 판단하지?”

“그거야 각자가 판단하는 거지. 대신, 토론 결과는 투표로 공정하게 공표될 거야. 다들 이의 없지?”

탐정은 주변을 숙 훑어보았다. 별달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 탐정은 토론을 거친 다음 투표로 행동을 정한다는 방식에 다들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일단 사건에 대해서 먼저 제대로 파악해 보자고. 내가 소문을 처음 들어본 건 올해 초였어. 연쇄 살인 사건은 일어나는데 경찰은 막지 못 하고 있다는 거였지.” “난 올해 4월부터인 것 같은데.” “전 올해 초요.”

소문이 퍼진 시기는 올해 초로 압축되었다.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역시 소문이 진짜든 가짜든 소문의 실체를 밝히려는 시도는 시간 낭비야.”

조력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우자 탐정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소문이 계속 퍼지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일일까? 절대 아니지. 소문의 무시무시함은 학교 분위기를 위축시키고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어. 이런 상태는 우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라고 간주해도 되겠지. 경찰은 확실한 신고가 없으면 소문을 파헤치려고 움직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대로 있어선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야.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하려면 그 실체를 명백히 밝히는 게 필수겠지.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보자. 소문이 진짜라면, 경찰이 못 잡은 증거를 확보해서 진범을 잡아넣는 거야. 만약 경찰이 움직이지 않으면 언론에라도 제보해야지. 소문이 거짓이면, 그대로 소문이 거짓이라고 전교에 알리면 돼. 소문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거야.”

“소문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일반 시민들을 위축시킨다는 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무슨 수로 소문의 실체를 밝히고 해결한다는 거지? 밤길에 부원들에게 순찰을 돌린다는 건가? 이건 소문에 관계 없이 위험한 짓이야. 교육청 공문에선 학생들의 빠른 귀가를 권고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치안 문제는 경찰에게 맡기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야.”

둘 다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수진이가 소문에 대해 두 가지 경우를 상정했으니 나도 똑같이 얘기해 볼게. 우선, 소문이 진짜일 때, 부원들이 소문의 실체를 억지로 밝히려다 처하게 될 위험을 어떻게 책임지지? 누가 실제로 죽기라도 하면? 제아무리 수진이라도 사람 목숨은 책임질 수 없어. 다행이 소문이 가짜라고 쳐도, 언제까지 소문의 실체를 밝히려고 움직여야 하지? 일주일? 일 년? 아니면 평생인가? 소문이 거짓이라면 자연스럽게 사그러들 거야. 그러니 애꿎은 일에 시간 낭비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 다들 내 의견에 동의하지?”

조력자가 주위를 둘러보며 동의를 구했지만, 아무도 선뜻 동의한다고 나서지 않았다. 소문이 지긋지긋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나름대로 소문의 실체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각자에게 조금씩이나마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었다.

“성한이는 소문의 실체를 확인하는 방법을 직접 순찰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하지만 나도 소문이 진짜일 때, 부원들이 처할 위험은 충분히 숙고하고 있지. 그러니까 직접 순찰을 도는 방법은 택하지 않을 거야.”

“근본적으로 공권력을 못 믿으니까 이런 토론을 하는 거 아냐? 사적으로 거리에 CCTV라도 달겠다는 거야?”

“그래, 공권력을 믿을 만하지 못하니까 소문이 나도는 거야. 소문이 진짜라면 진작에 범인을 잡았어야지. 반대로, 소문이 거짓이라면 진작에 소문은 사라져야지. 하지만 나는 소문이 진짜일 거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어. 지난 2년 동안은 받아본 적 없는 교육청 공문, 전학생이 올 때 몰고 온 납치범 몰살 소문, 그 이후의 이사장의 사망 등은 부자연스러워.”

“중학생이 하기에는 위험한 일이야. CCTV를 달아서 범인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쳐. 흔적을 좀처럼 안 남기는 범인이 미리 CCTV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단 건 생각해 봤겠지?”

“범인이 CCTV의 존재를 알아차렸을 땐, 우리가 이미 자료를 경찰에 넘겨준 다음이야.”

“아깐 공권력을 못 믿는다고 했잖아.”

“그건 경찰이 신고받고서야 움직이는 조직이며, 범인의 인상착의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우린 신고하는 선에서 우리의 역할을 매듭지을 거야. 부원들이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어. 내가 보장할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책임은 질 수 없겠지. 잃어버린 목숨은 돌아오지 않아.”

“우리가 한 뜻으로 뭉쳐서 움직이면 범인도 선불리 우릴 건드리지 못 할 거야. 네가 좋아하는 연대의 정신이란 건 이런 경우에 뭉치는 거 아닌가?”

조력자는 탁상을 세계 치며 일어섰다. 보통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너 자신의 목숨을 포함해서 모두를 위협에 빠뜨릴 셈이냐! 난 인정 못 해! 하고 싶은 경솔한 애들끼리만 하라 그래!”

“목숨의 무게가 무겁다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렇기에 소문이 진짜라면 누구라도 범인의 존재를 밝혀서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신고해야 하는 거야. 넌 목숨의 소중함은 이해하지만, 자신의 목숨만을 소중히 하고 있어. 누구라도 아무 이유 없이 미치광이에게 살해당하는 것보단, 모두가 뭉쳐서 미치광이를 잡는 게 더 건설적인 생각 아닐까.”

조력자는 분노에 가득찬 눈으로 탐정을 노려봤지만, 탐정은 냉정하게 조력자를 응시했다.

“석준아, 수고했어. 이제 토론 결과나 보자고.”

조력자는 자리에 앉으며 서기에게 말을 건넸다. 화이트 보드에 열심히 토론 내용을 요약하던 서기는 조력자가 앉으며 내비친 웃음을 보았다. 조력자는 자신이 토론에서 이겼고, 사람들이 위협을 회피하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여겼다.

그 때, 탐정은 헛기침을 하고는 입을 열었다.

“토론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 가지 일러둘게. 성한이가 말한 대로, 이번 일은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러니 토론 결과가 자체 수사쪽으로 기울더라도 참여하기 꺼림칙하다고 느끼는 애들은 참여하지 않아도

돼. 또한 토론 결과가 경찰을 믿고 맡기는 쪽으로 기울더라도 개인적으로 소문의 실체를 밝히려고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탐정이 당부하자 서기가 말했다.

“그럼 토론 결과를 거수 투표로 정하겠습니다.”

#### 4.1.2

“일어나!”

수진이 잠이 든 준구를 흔들어 깨웠다. 준구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준구가 자는 사이에 벌써 신설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한 것이었다. 혜원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장서서 버스에서 내렸다. 옆자리의 수진이라도 혜원이를 따라 하차했다. 준구는 저녁이라 드는 한기에 몸을 비비며 마지막으로 하차했다. 준구가 한기를 느낀 건 차량 내에서 틀어주는 에어컨 때문이었다.

터미널이 새벽과 분위기가 달랐다. 새벽에는 북적이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한다는 느낌이었다면, 저녁에는 한산하고 조금 쌀쌀했으며 얼른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 외에는 별다른 생각이 안 들게 하는 피로감이 있었다. 그래도 역시 여름이라 그런지 이내 습하고 더운 기운이란 게 느껴졌다.

수진이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이제 다들 집에 가야지.”

“배고파…….” 혜원이 배를 비비며 말했다.

“내가 빵 사올게. 조금만 기다려.”

준구가 주머니를 뒤지면서 편의점으로 걸었다. 지갑이 없어서 학생증은 오른쪽, 돈은 왼쪽 주머니에 두는 편이었다. 다행히 세 명이 빵과 우유를 사 먹을 정도의 돈은 되었다.

“같이 가. 내가 뭐 좋아하는지 모르잖아.”

수진이 준구를 따라가자 혜원도 군말 없이 졸졸 따라왔다. 편의점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행군하듯이 일렬로 걸었다. 편의점에 들어가자 점주가 인사를 하였다. 준구가 편의점 내의 시계를 보니 문을 닫을 때까지 두어 시간은 남아 있었다. 근로시간 규제안의 영향 때문에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는 곳은 없었다. 손님이 없는 동안 점주는 틈틈이 책을 읽고 있었던 건지 준구 일행이 들어오자 펼쳤던 책에 책갈피를 끼워넣고는 덮었다. 독서를 방해한 것 같아 준구는 미안해졌다.

준구는 미안함과 더불어 일찍 집에 들어가고 싶어 그냥 빵과 우유만 사고 나올 생각에 얼른 빵이 진열된 선반으로 다가갔다. 혜원이는 음료수를 고르고 있던 반면에 수진이는 쪼그려 앉아 신문 진열대를 열

심히 보고 있었다.

“너희들 빵 안 먹을 거냐.”

준구가 묻자, 수진은 K신문을 꺼내들었다. 준구의 질문을 못 들은 건지 준구가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려 하자, 수진은 준구에게 다가가 손에 쥔 신문을 말없이 건네줬다. 준구가 신문을 받아들고 잠시 점주의 눈치를 보았다. 점주는 준구가 신문을 살지 안 살지 딱히 관심없는 표정이었다. 신문보다는 빵과 우유에서 매상이 더 높기 때문인 것일까.

준구는 K신문 1면을 말없이 읽었다. 제목이 인상적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충격적일 내용이었다.

「중국 혁명 임박? 재현되는 중국발 무역 충격」

준구는 작은 글씨로 빼곡이 적힌 중국 경제 상황을 읽어내려갔다. 사진 따윈 전혀 없었다. 교과서에서 배운 중국발 무역 충격은 2020년에 벌어졌던 일이었다. 무명의 경제학자였던 아버지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학계에 정착할 수 있었다고 전해들었다. 당시의 무역 충격 원인은 아직도 논란에 휩싸여 있지만, 아버지께선 한 마디로 제도의 문제로 보았다. 그러나 준구는 유효 수요 부족과 과잉 공급의 지속이 빚은 시장 실패가 원인이라 생각하였다.

준구는 신문을 읽다가 아버지가 왜 갑자기 4월에 출장을 갔는지 깨달았다. 이번에 무역 충격이 다시 한 번 더 발생하리란 것을 예측해서 국내 행정부에 문제 제기를 하였고, 한국재무부의 요청으로 경제 충격 대비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출장을 간 것이었다. 한정된 시간 안에 자료를 모아서 대책을 마련해야 했는데, 필연적으로 집에 머무를 수 없게 된다.

준구가 아버지의 인터뷰를 다 읽고 신문 2면으로 넘기자 한국재무부의 주요 관료들이 대통령을 불러내어 긴급 회견을 가진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있었다. 특집 기사였는지 뒷면으로 계속 넘겨도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었다. 7면쯤 가서야 국내에서 사회 보장 문제를 다루는 시위가 보였다.

준구가 마른침을 삼키며 신문을 들여다보는 사이에, 우유 세 개를 다 계산한 해원이 준구에게 우유 하나를 들이밀었다. 준구는 얼결에 우유를 받아들었다.

“네 생각은 어때.”

“심각한 문제네……. 그 외에는 뭐라 첨언할 만한 게 없어.”

“중국은 불과 17년 전에 겪었던 일과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어. 그건

중국이 잘못된 정책을 반복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혜원의 분석에 준구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대응이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할 수만은 없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모두 포함한 장기적인 정책이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건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야. 사회, 정치적인 면들이 경제의 문제를 심화시키기도 한 것이지.”

“나도 준구 의견에 동의해. 이런 일은 국제적 공조가 뒷받침되어야 안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이 안 되면 더 큰 일로 빚어질 거야.”

수진이 준구의 의견에 가세하자, 혜원은 수진에게도 우유를 건네주며 말했다.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은 당분간 불가능할 거야. 중국의 회복이 기대보다 더딘 데다 세계가 중국이란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언젠가 전쟁이 날 지도 모르지.”

“그건 좀 허황된 소리 같은데. 2020년 때도 전쟁이 날 거란 얘기가 많이 나돌았지만, 결국 오늘날까지 17년에 가까운 평화가 지속되고 있어.”

“내 생각에 이건 유예된 전쟁이거든.” 혜원은 우유팩을 뜯으며 우유를 마셨다.

“유예된 전쟁……?” 준구가 마른침을 다시 한 번 더 삼키려 했으나 침이 안 나와서인지 괜히 허뿌리 부근이 아팠다.

“일어났어야 할 전쟁이 잠시 뒤로 미뤄진 거지.”

“영원히 유예시킬 순 없나?” 수진이 비꼬는 듯이 말했다. “지금껏 급작스런 침체나 경기 하강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 때마다 일일이 전쟁이 나진 않았잖아. 1차 세계 대전의 원인을 1848 유럽 혁명기 시절의 침체 때문이었다고 말할 생각은 아니겠지?”

“시험 끝나고 예민해진 거 같은데, 그만 가게서 나가자. 이것도 일종의 민폐야.”

준구가 그렇게 말하며 신문을 덮었다. 수진에게 건네주자 수진은 신문을 가판대에 도로 집어넣지 않고 계산대에 올렸다. 수진이 그 기사를 통째로 보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수진이 계산을 치르는 동안, 준구는 얼른 빵을 아무 거나 집었다. 수진과 혜원이 편의점 출입구 근처에 가서 따로 소박하게 사과와 용서, 그리고 화해의 장면을 연출하는 사이에 준구는 빵을 사서 그 둘과 합류해 편의점을 빠져나갔다. 다행히 편의점 내에서 빚어진 말다툼에 대해 점주는 별다른 말을 하



지 않고 넘겨주었다.

“안이나 밖이나 후덥지근한 건 똑같네.”

수진은 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우유를 한 모금 마셨다. 혜원과 살짝 다툰 이야기는 되도록 언급하고 싶지 않아 보였다. 혜원도 마찬가지로였는지 “가게에서 에어컨을 끈 시간대에 들어갔던 거 같아.”라며 수긍할 뿐이었다.

“잠시 좀 앉았다가 가자.”

준구를 선두로 화단 근처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셋은 조용히 빵과 우유를 야금야금 먹을 뿐이었다.

“이번 시험 다들 어땠어?”

다들 꺼려할 것 같았지만 마땅히 할 이야기도 없어 준구가 시험 이야기를 꺼냈다.

“절대적으로 옳은 사실이 없다면 절대적으로 틀린 사실은 있을 수 있을까? 절대적으로 옳은 사실이 있으니 절대적으로 틀린 사실도 있는 건가? 이거 좀 황당한 문제더라고.” 준구는 시험 칠 때를 회상하며 말했다.

수진은 어느새 빵과 우유를 다 먹고 뒤처리를 하고 있었다. 꼼꼼하게 비닐을 딱지로 접더니 그대로 손에 쥔 채로 있었다.

“사고력을 평가하는 거니까 얼마나 논증을 잘 전개했는가가 평가 기준이겠지.”

주관이 뚜렷한 수진의 답안이 어떠하였을지 준구는 궁금하였다.

“그래서 어떤 답안을 작성했어?”

“뭐, 간단하지. 절대적으로 옳은 사실과 절대적으로 틀린 사실은 각각 독립적인 사건인 거야. 어느 하나가 존재해야만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자의 부재가 후자의 부재를 초래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

“절대적으로 틀린 사실이란 건 어떻게 알 수 있어?” 혜원이 흥미롭다는 듯이 물었다.

“우리는 방금 빵과 우유를 먹고 마셨지. 이게 맛있었다고 한다면 사람마다 다른 기준에 의한 거니까 절대적으로 옳은 명제라고 보기 힘들어. 절대성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함을 함축한다고 나는 생각해. 절대적으로 옳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옳은 사실이겠지. 그럼 절대적으로 틀린 사실은 누구에게나 틀린 사실인 거야. 여기에 빵과 우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방금 먹었던 것은 탄산 음료였다는 식의 명제는 우리 셋 중 누구에게도 옳은 사실이 될 수 없지. 그러니까 절

대적으로 옳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절대적으로 틀린 사실은 존재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야.”

“흐음, 그렇구나.” 혜원이 수진의 논증을 무미건조하게 들었다.

“왜 흥미가 떨어진다는 반응이야? 내 말이 틀렸어?” 수진이 혜원의 태도에 발끈하였다.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이 재현될까 준구는 가슴을 졸이고 있었다. 여자가 싸우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기도 싫고 거기에 말려야 하는 것도 싫었다.

“난 절대적으로 틀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물어봤어. 우리 셋이 지금 탄산 음료를 마신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틀린 사실이야. 그렇지만 그건 우리 셋의 경험에 입각한 명제니까 틀렸다고 부정이 가능한 거야. 경험하지 못한 절대적으로 틀린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야? 여기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시험 때 좋은 점수를 얻었을 거란 생각이 안 드는데.”

“경험이라……. 좋은 철학 주제네.”

준구는 이 이상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과열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슬슬 버스 배차시간도 길어질텐데 얼른 집에 가려면 지금 버스 타야지 않겠냐.”

“그렇겠네.” 수진은 본인이 나서서 준구와 혜원에게 손을 내밀어 쓰레기를 건넸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쓰레기통에 비닐 껍데기와 우유팩을 버렸다. 무미건조한 추락음이 쓰레기통에서 울려 퍼졌다.

“버스에서 내리면 그대로 각자 집으로 곧장 가자. 아직까지 집단 하교 권고가 해제되지 않았으니까.”

수진은 등을 보인 채로 그렇게 말했다. 쓸쓸한 저녁 바람이 수진을 훑고 지나갔다. 준구는 수진과 혜원을 택시에 태워서 보내야 하나 잠시 생각해봤다. 일단 오늘은 고교 입학 시험이 있던 날이다. 차유라가 응시하고자 하는 학교는 서울에 있다. 남철수 또한 서울에 있는 학교에 응시했는데, 아침에 신설시외버스터미널에서 봤다. 그 외에 다른 친구들은 보이지 않았으니, 차유라는 오늘 서울로 가지 않았을 것이며, 준구가 이 시각에 버스를 타고 귀가할 것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힘들다. 준구 본인도 오늘 시험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 오늘은 안전할 것이라고 준구는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근데 우리 다 다른 버스 타나? 아니면 같은 버스 타나?”

“빙 돌아가는 걸 타면 너희랑 같은 버스 타도 돼. 15번 버스는 수진

이네 아파트 단지를 거쳐서 우리 집 근처 도로까지 오거든. 거기서 북쪽으로 더 가야 중점이야.”

혜원의 말을 참고해서 준구는 15번 버스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휴대폰 화면을 켰다. 배터리는 40% 정도 남아있었는데, 이 정도면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럭저럭 버텨줄 만했다. 혹시 위험이 닥치면 얼마든지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15번 버스는 준구네 집에서 정반대로 가는 편이었다. 하지만 161번 버스로 갈아타면 그럭저럭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혜원과 수진이 다투지 않으면서 무사히 귀가할 거란 보장은 없었다. 역시 자신이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어야 별 탈이 없을 것 같았다.

“나도 같은 버스 탈게. 수진이 집에 바래다 주고 161번 버스로 환승하면 될 거 같아.”

“그럼 15번 버스를 타러 가자.”

셋은 오늘따라 동행하는 일이 많았지만, 그것도 이제 곧 끝날 것이다. 준구는 그래도 개학하고 만날 것을 기대하며 헤어짐의 아쉬움은 없는 셈 쳤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15번 버스가 도착하였다. 질서 있게 사람들이 하차하였다. 수진과 혜원이 버스에 타고 뒤이어 준구도 버스에 타 학생증을 단말기에 찍었다. 버스 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 한산하였다. 그들 셋은 시외버스 타듯이 맨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노곤함에 저서 잠들었다간 중점까지 갈 지도 모른다. 그들은 방학 때 무엇을 할지 잡담을 나누는 사이에, 버스가 어두운 밤거리를 뚫으며 달려나갔다.

#### 4.1

자명종이 요란하게 새벽이 찾아왔음을 알렸다. 더 자고 싶은 욕구가 치밀어 올랐지만, 곧이어 흘러나오는 멜로디에 어쩔 수 없이 눈을 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침에 제 시각에 출근하지 못하니 어쩔 수 없었다. 사회인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매우 고달픈 일이다.

눈을 뜨지도 않은 채로 손을 더듬어 자명종을 끄긴 했지만, 휴대폰에서 연주하는 멜로디는 끄지 않고 놔두었다. 좋아하는 멜로디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사회인에게 허락된 몇 안 되는 낙인지도 모른다.

고국과 떨어져 살게 된 지 꽤 오래된 만큼 혼자 사는 데에도 익숙해졌다. 뿌리 내리지 못하고 떠돌아 다니는 삶이지만, 그 나름대로 장점

은 있었다.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 곳에 묶여 있는 편이 더 슬픈 인생이다. 다양한 사람과 접촉하고 능력의 한계까지 업무를 처리한다. 맡은 임무는 완수하고 훌가분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든다. 이렇게 명쾌한 구조의 생활은 흐릿한 점 없이 불규칙적이다.

오늘은 나름 휴일이었다. 어제는 철야로 작업한 탓에 수면을 취한 지 겨우 2시간 만에 깨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철야 작업도 꽤 오랜만이였다. 머리에서 느껴지는 정신적 고통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있는 힘껏 증명해준다.

멜로디가 끝나자 소령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국에서 마련해 준 거점이라 최소한의 생필품 외에는 어떤 살림살이도 보이지 않았다. 커튼이 달려 있지 않은 창문에는 바깥의 우중충한 흐린 빛이 굴절되어 들어와 방 안을 울적하게 채우고 있었다.

주요 업무는 끝이 났지만,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대리인은 한 중학생을 납치하는 데 투입시킨 스무 명이 몰살되었다며 열변을 토했고, 소령의 예상대로 이사장은 살해당했다. 예상은 했지만 대비할 시간이 없었다. 대리인에게 너무 날뛰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대리인은 초조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이대로 가다간 대리인이 몇대로 설치다 몇대로 죽을 지도 모른다. 스무 명의 납치 전문가들이야 원래 밑바닥 인생이었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골칫거리이기도 해서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땐 가슴 한편에선 훌가분한 기분이 들었던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대리인은 그런 인간 쓰레기들과는 달랐다. 대리인이 자제를 못 할 것으로 보이니 자신이 먼저 사건의 진상에 다가가야겠다고 결심했다.

간소하게 아침 식사를 한 뒤 샤워를 하였다. 새벽 일찍 일어난 덕에 여유롭게 씻을 수 있었다. 수면으로도 제거되지 않은 피로가 녹아내려가버리는 것 같았다.

소령은 모처럼 휴일이니 사복을 입었다. 사실 본업이 군인이 아닌지라 군복을 입는 게 꺼림칙할 때가 있긴 했다. 다른 사람들이 봐도 주목하지 않도록 챙이 긴 모자를 쓰는 걸 잊지 않았다.

집밖으로 나온 뒤 버스에 올라탔다.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를 둘러봤다.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손에 종이를 쥐고 있었다. 대부분 책이고, 나머지는 서류나 메모였다. 거의 15년 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땐 책을 보며 통근하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한적한 거리를 시원하게 달리던 버스에서 소령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 해야 할 일은 스무 명이 납치했다가 마무리를 못 지은 소녀를 만나는 것이

다. 경찰에 따로 납치 사건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적이 없으니 소녀를 보호하는 세력이 있다고 짐작해도 무방할 것이다.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리자 소령은 이어폰을 끼고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상대는 별 말이 없었다.

“Who…….” 마치 한숨을 쉬듯이 상대를 물어보았다.

『It's me.』 소령은 상대가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What's up?”

『역시 일어나 계셨군요. 그 소녀와 접촉할 겁니까.』

“If needed, of course, I'll do.”

『역시 만류하고 싶습니다.』

“Don't worry. I know how to depend myself.”

『상대는 무기를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I know, too. And I have, too.”

『좀 더 냉정하게 생각을…』

소령은 더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걱정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스무 명이 납치를 시도해서 잘 안 되었다면 아예 직접 접촉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 소녀를 납치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그 이후의 과정에서 실패했으니, 다시 납치를 시도해봤자 성공할 것 같지 않았다. 더구나 다시 한 번 더 납치를 시도할 인원도 없었다. 처음부터 납치 따위의 방법은 쓰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소령이 시도한 것은 정공법을 택하기로 하였다. 단, 그 소녀가 아니라 소녀의 아버지인 장례사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소령이 내리고자 한 정류장에 멈춰섰다. 소령은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실감하며 버스에서 내렸다. 거의 변하지 않은 건 5년째 동결되는 교통요금인 듯싶었다.

이제부터 북쪽으로 걸어야 한다. 여유가 있으니 천천히 걸었다. 어차피 약속 장소는 그 장례사가 살고 있는 집이다. 자신이 일찍 가든 늦게 가든 약속 장소를 벗어날 일은 없다.

소령이 약속 장소를 향해 걷는 사이, 토요일인데도 학교에 등교하는 한 쌍의 남녀의 뒷모습을 보았다. 이른 새벽일 텐데도 그들은 착실하게 교문을 통과하였다. 소령은 토요일에도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다소 안쓰럽다는 생각을 할 때, 교문을 통과한 여자가 소령을 힐끗 쳐다보았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날카로우면서 적대적인 눈빛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순간적으로 소령은 움츠러들었다. 심장이 멈추는 기분이 들 정도였다. 자신이 아는 누군가와 닮은 눈빛이었지만 아무

리 기억해내려 해도 떠오르지 않았다. 지금 저 학생을 조사하기 위해 들일 시간이 없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장례사와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소령은 희한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걸었다. 그러나 흉부 쪽에서 발생한 통증은 기분탓이 아닌 모양이었다. 통증이 팔 쪽으로 퍼지면서 턱 쪽으로 고통이 밀려올라왔다. 휴대폰을 꺼내려다 떨어뜨렸다. 액정이 나가는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지금 여기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떠오르지 않았다. 자신은 분명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다. 정기적으로 복습도 했다. 그러나 심폐소생술은 타인을 살리는 기술에 불과하다. 왼손을 가슴에 대니 가슴의 고통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오른손은 저릿저릿한 데다 마비가 된 것인지 움직일 수 없었다. 의식이 사라질 때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5초 정도 밖에 없을 것이다. 1초가 지날 때마다 수명이 깎여나가는 게 느껴졌다.

소령은 큰 동작으로 몸을 세차게 움츠리며 강하게 기침을 내뿜었다. 횡경막 부근에서부터 폐 안에 남은 공기를 내뿜어내는 것 같은 기침을 거세게 하였다. 주변에는 말릴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 기침을 내뿜었다. 들숨과 날숨이 반복되자 그제야 한 숨 돌렸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하였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있었다.

“괜찮나요? 병원에 가셔야...”

“괜찮습니다. 과로로 잠시 부정맥이 온 것일 뿐입니다.”

소령은 자신에게 말을 건 상대를 쳐다보았다. 키가 매우 작은 소년이었다. 교복을 입은 것으로 봐선 아까 교문으로 들어간 학생들과 같은 학교 학생인 모양이었다.

“부정맥이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구급차 불렀어요. 5분 뒤 오겠죠.”

단호하게 말하는 소년의 태도에 소령은 잠시 할 말을 잊었다. 부정맥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지 알고 말하는 모습이었다.

“전 이만 등교하러 가야 해서.”

소년은 그렇게 말하고는 학교로 가버렸다.

소령은 하는 수 없이 땅에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워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오늘 만나기로 한 실비아입니다. 병원에 들려야 해서 약속을 다음

으로 미루고 싶습니다.”

『그런가요. 아쉽군요.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용건만 간단히 말하니 상대는 전화를 끊었다. 어차피 자녀를 이 학교에 계속 보내려면 선불리 이사를 가진 못 할 것이다.

소령은 그렇게 생각하며 정확히 5분 뒤에 온 구급차에 실렸다. 이송되면서 소령은 뿌리 내리지 못하고 떠도는 삶의 최대 단점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걸 깨닫고 자조 섞인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 4.1.3

“곧 내려.” 준구는 누군가가 양볼을 세게 붙잡으며 흔들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 피로가 쏟아지는데 수진이는 앞장서서 버스 후문을 향해 걸었다. 준구는 혜원이한테 작별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혜원도 잠들어 있어서 깨울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대로 종점까지 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스러웠지만, 종점이 혜원이네 집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준구 또한 자리에서 일어서자 버스가 천천히 정차하며 문이 열렸다. 수진과 준구가 내리자 버스 문이 닫히면서 그것은 텅텅 빈 도로를 질주하였다.

“오늘 시험 의외로 오래 걸렸네.”

“그러게…….”

“네가 나 배웅한 것도 처음인 거 같고.”

준구는 기억을 더듬을 필요도 없이 이게 처음으로 수진을 집에 바래다 준 것임을 알고 있었다. 수진이가 합숙하자며 건네준 약도를 보기 전까진 수진이의 집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조차 사실 모르고 있었다. 그저 자신의 집에서 동쪽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앞으로 자주 배웅해 주면 되지.”

수진이네 집은 버스 정류장에서 매우 가까이 있어 횡단보도의 불이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도착해버릴 정도였다.

“조심해서 가.” “응.”

수진이가 건물로 들어서며 준구를 향해 손짓을 하자 준구도 손을 흔들어주었다.

여름방학 동안 일부러 수진이네 집에 놀러가려고 하지 않는 한, 수진이와 만날 일은 개학할 때까지 없었다. 억지로 구실을 만드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했다. 작년에 수진이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적이

있었는데, 잔뜩 기대했던 수진이가 공포 DVD를 빌려와서는 함께 본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를 함부로 집안에 들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물론 그건 준구에게 역도 성립한다고 생각되었다.

161번 버스를 타려면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가야 했다. 그게 썩 나쁘진 않았다. 준구는 주위를 둘러보며 아파트 곳곳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준구는 고교에 진학하게 된 자신을 상상하며 길을 걸었다. 도저히 상상이 되질 않았다.

아파트를 반쯤 오자 혜원이는 집에 잘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자 메시지를 쓰려고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여어, 이게 누구야?”

준구는 일순간 얼어붙었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차갑고 지극히 이성적이어서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여우의 목소리.

차유라의 목소리였다. 준구는 그 목소리가 들려온 쪽을 쳐다보았다. 정말로 차유라가 그곳에 있었다. 이 자리에 없어도 될 아이가 서 있었다.

“안녕……?”

“밤공기가 참 좋다, 그렇지?”

준구는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하였다. 왜 유라가 이곳 아파트 단지에 있는지 준구로선 알 턱이 없었다. 추리고 자시고 준구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어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한 채로 손에 짝 쥐었다.

“왜 뒷걸음질을 치고 그래?”

유라는 환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에 미묘한 살기를 읽을 수가 있었다. 이대로 그녀의 미소를 끝이끝대로 받아들였다간 이쪽의 목숨이 위험해진다!

준구는 곧바로 버스 정류장을 향해 도망쳤다. 도로에는 약속이나 한 듯 아무 차도 다니지 않았다. 버스가 한 대 정도 휙 지나갔지만, 준구와 유라가 뛰는 모습을 별로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 “내가 미쳤다고 서겠냐!”

준구와 유라의 거리는 금세 좁아지기 시작하였다. 아직 다음 버스 정류장까지는 130미터가 남았다. 하지만 둘 사이의 거리는 이제 20미터도 채 되지 않았다.

유라가 달리는 속도는 정말로 빨랐다. 100미터를 11초에 주파한다는 얘기는 분명 거짓말이지만 완벽하게 허튼 소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준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뛰었다. 하지만 가방을 메고 있는 상태에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어서 온전하게 제 속도를 다 내지 못하



고 있었다.

“어째서 네가 거기서 튀어 나온 거야!”

“너 기다린 거지!”

둘 사이의 거리는 이제 10미터 정도. 하지만 아직 버스 정류장까지는 60미터 이상 남았다.

버스 한 대가 또 지나갔다. 준구가 타야 할 버스는 아니었다.

‘포기하면 그대로 끝장이다!’

준구는 이를 악물고 뛰었다.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40미터가 남았다.

‘버스야, 제발 어서 도착해!’

버스 정류장까지 20미터가 남았다. 버스 정류소에 걸려 있는 전광판에는 다음 버스가 곧 도착한다고 깜박이고 있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준구와 유라가 둘 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버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걸로 미루어 짐작해보건대, 아직 십 몇 초가량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유라가 준구를 죽이고 유유히 사라지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나 곧 도착하는 버스 운전기사는 어떻게 처리한단 말인가?

“뭐 때문에 날 기다린 거야?”

버스 정류장에는 둘만 있었다. 마치 숨바꼭질 하는 듯 둘은 정류장을 중심으로 빙빙 돌았다. 준구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데 비해 유라는 그다지 지친 기색이 없었다.

“왜 도망치는 거야?”

“그걸 말이라고! 당연히 네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 거잖아?”

다행히 버스가 오자 준구는 지체 없이 버스에 탑승했다. 운전기사 외에는 아무도 없는 빈 버스였다. 뒤따라 유라도 버스에 탔다. 버스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출발하였다.

준구는 급히 숨을 몰아쉬며 맨 뒷좌석에 앉았다. 설마 이 안에서 날 죽이겠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유라도 뒤따라 준구 옆에 앉았다. 그리고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머리를 어깨에 기댔다. 게다가 팔짱까지 끼는 게 아닌가! 그녀도 땀박질을 한 상태라서 호흡이 거칠었다. 땀은 흘리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숨결이 느껴졌다.

“뭐하는 짓이야?”

유라는 준구의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이기 시작했다.

“네 생각대로 이 안에서는 너를 죽일 수 없지. CCTV도 있고 운전기사 아저씨도 있으니까.”

그녀는 잔인한 미소를 띠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고개를 네 쪽으로 돌리면 CCTV 감독가도 내 입모양을 추정하기 어려울 거야.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번에는 운이 좋았지만 다음에는 정말로 죽여 버린다.”

“그 말만 몇 번째 듣는지 모르겠네.”

준구는 애써 앞만 바라보며 별 거 아니란 듯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나 유라 쪽이 심리전에서 한 수 위였다.

“앞 쪽만 쳐다보지 말고 내 쪽을 봐봐.”

준구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대로 기세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준구가 고개를 돌리자 유라가 준구를 뺏히 쳐다보며 웃고 있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웃음이지만 준구에게는 그저 흉악 살인범이 먹이를 놓고 어떻게 요리해 먹을지 기대하며 웃는 모습에 지나지 않았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 듯한 외모지만 실상은 사람 죽이는 업을 짊어지고 사는 아이였다. 만약 살인청부업자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좋은 친구가 되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다.

“난 위협적인 목격자는 언젠가 반드시 죽어. 이르든 늦든 그래야 내 정체체가 탄로 나지 않으니까. 그게 나의 철칙이야.”

“그런데 어째서 얼른 안 죽이고 살려두는 거야?”

“너 하나 죽이자고 사고사나 독살로 위장하는 데 돈을 쓸 수는 없는 노릇 아냐? 기회비용 정도는 알지?”

평소 같았으면 유라가 하는 말을 모두 다 이해하고 반론했을 터였다. 그러나 준구는 시험을 치는 데 기력을 너무 소모해서 유라가 하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기회비용과 나를 죽이는 데 돈을 들이는 것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지?”

“오늘 시험 치르느라 머리를 너무 많이 썼나 보네. 알기 쉽게 설명해줄게.”

유라는 과학고를 지망하지만 그래도 사회 수업을 착실히 들었던 건지 준구에게 오히려 경제학 용어를 설명해주려고 하였다. 유라가 이리저리 머릿속의 개념을 끄집어 내려고 고심하는 사이에 정류장이 하나 지나갔다. 내리는 사람도, 타는 사람도 없어 버스는 쾌속 질주하고 있었다. 죽히 시속 80km는 되는 듯싶었다. 준구는 사람이 시속 80km를 체감할 때 실제 물체는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달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기회비용이란 건 말이지, 선택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야.”

“그것보단 더 복잡한 개념이었던 거 같은데…….”

“A, B, C, …, Z까지의 선택안이 있을 때 뭔가 하나 선택하면 선택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을 거 아냐. 그 때, 거기서 선택받지 못한 대안 중 가장 효용이 높았을 대안이 기회비용이 되는 거지.”

“그래? 기회비용은 효용이 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유라가 이해를 못 하는 사이에 정류장을 하나 또 지나쳤다. 모처럼 신호도 안 걸리고 타거나 내리는 사람도 없으니 버스 기사가 속도를 더 높이는 것 같았다.

“내가 날 살려둬으로써 거두는 효용이 100, 날 죽임으로써 거두는 효용이 80이면, 너는 분명 날 살리는 방안을 택하겠지. 그러면 날 죽이는 게 기회비용이 되잖아. 그럼 날 살려두는 데 들어간 기회비용은 80이란 거 아냐? 그럼 내가 날 살려두는 데 드는 비용은 0이고, 날 죽이는 데 드는 비용이 100이면 넌 날 살려둘 거잖아. 그럼 기회비용은 100이 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 않나.”

“효용과 비용 중 효용에 무게를 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네 수중에 돈이 만 원 있어. 그걸로 7천 원 써서 과자를 사먹으면 효용이 8천, 만 원 써서 책을 사면 효용이 9천, 한 푼도 안 쓰고 잠을 잘 때 효용이 7천이라고 치자. 그럼 넌 효용이 가장 큰 책 구입을 하겠네?”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유라가 준구의 예시 속에 있는 함정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다시 정류장을 지나쳤다. 준구는 자신이 언제쯤 내려야 되는지도 잊어버렸다. 아냐, 유라가 준구보다 먼저 내리지 않으면 함께 종점까지 가야할 지도 모른다.

“책을 구매했을 때 너는 과자를 사먹는 게 기회비용이겠네?”

“답은 알고 문제 내는 거야?”

“가령 하루 2만 원을 벌고 있는 가게 주인이 친구와 약속 때문에 하루 장사 때려치우고 만 원을 주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겠다고 쳐. 이 때 이 가게 주인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지?”

“비용? 만 원 아냐?”

“주머니에서 직접 지출되는 비용, 즉, 회계적 비용은 만 원이 맞아. 하지만 장사를 하루 포기함에 따라 2만 원의 수입이 포기되었기 때문에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총 비용은 명시적 비용이라고 부르는 노래방 만 원에 장사 안해서 포기한 수입 2만 원을 보태줘야지. 그러니까 3만 원이 바로 총비용, 즉, 참된 경제적 의미의 비용이 되는 거지. 여기서 포기된 수입 2만 원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부르고.”

“아는데.”

“그런데 이 가게 주인이 노래 부르는 걸 참 좋아해서 노래방에 가면 효용이 만이야. 근데 장사를 하면 스트레스 쌓여서 효용이 마이너스 7천이라고 쳐. 그럼 가게 주인은 효용이 높은 노래방에 가야 하지 않겠나?”

유라는 슬슬 준구가 기회비용과 관련해서 ‘효용’과 ‘비용’이라는 개념을 교묘하게 배치해서 혼동을 주려는 것임을 눈치챘다.

“합정을 놓은 질문이나 해대다니. 나도 좀 복수해야겠는걸.”

“합정이라니, 난 그저 질문 몇 개 했을 뿐인데. 네가 공부를 가볍게 했을 뿐이잖아?”

준구는 유라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릴 하나는 듯이 시치미를 뚝다.

“네 집 근처 신설초등학교 아냐? 아주 오래 전에 지나친 거 같은데.”

버스는 준구네 집 근처의 신설초등학교를 지나쳐버린지 이미 오래였다.

“으악! 내릴 곳을 놓쳤다!”

“난 이 다음에 내리면 되는데.”

유라는 알뜰게도 하차 벨을 눌렀다. 그제야 폭주하던 버스는 속도를 늦추기 시작하였다.

“아무튼 내 존재의 가치가 죽이는 것조차 사치스런 행위밖에 안되다니 섭섭하네.”

“오늘 말장난은 신선했지만 어차피 용서를 빌어도 결과는 똑같은 거야. 얼른 죽느냐 나중에 죽느냐의 차이겠지.”

“그새 죽이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거냐?!”

“그럼 난 이만 여기서 내려야겠어. 일이 있어서 말이야.”

버스는 준구네 집을 한참 벗어난 어느 정류장에서 멈추었다. 그녀는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준구를 보며 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개학하고 학교서 봐!”

손을 흔들며 버스에서 내린다. 얼굴에 준구도 유라에게 손을 흔들었

다. 이것으로 심리전에서 준구가 졌다. 기회비용으로 유라의 머릿속을 휘저어봤자 유라는 어떠한 타격도 입지 않는다. 버스 기사는 아무 것도 모르는 채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버스를 운전하기 시작했다. 분명 버스 운전사 아저씨는 이 둘이 그냥 학교에서 연애하는 평범한 커플로 착각할 것이다.

—일이 있어서 말이야.

준구는 뭔가 깜빡 잊고 있는 기분을 느꼈는데, 유라의 범행 현장에 가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아니다, 지금이라도 버스를 세운 다음 뒤쫓아 가면 되지 않을까.

“버스 기사 아저씨! 죄송하지만, 같이 내려야 할 걸 깜빡했어요! 버스 좀 세워주세요!”

버스 기사는 말없이 버스를 세우고 문을 열었다. 준구가 버스에서 내리고 도로로 나오자, 버스는 준구를 도로 한복판에 남겨놓고는 밤공기를 뚫고 유유히 텅 빈 시내를 질주하였다. 이제부터는 유라가 어떤 식으로 사람을 죽이는지만 영상을 확보하면 된다. 휴대전화기에 저장한 영상을 통째로 경찰에 신고해 버리면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어 버린다.

준구는 우선 유라가 어디로 갔는지 기억을 더듬었다. 이곳 근처에 있는 시설물이라고 해봐야 전력회사라든지 공공 하수 처리 시설뿐이다. 유라는 길 건너편으로 가지 않았으니 우선 시야가 트인 하수 처리 시설보다는 전력 회사 쪽으로 가보았다.

사람을 몰래 죽이는 데에는 좋은 장소가 몇 군데 있다. 그 중에는 미로 같은 곳이거나 시야가 극단적으로 좁아지는 곳이 있다. 하필이면 두 조건을 충족시키는 장소로 준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 서고 있었다. 건물 안내도를 찾아보려 했지만 그러다간 유라를 놓칠 것이다.

뽀박질 소리가 들린다.

위치는 아무래도 1시 방향. 준구는 발걸음 소리를 죽인 채 뽀박질 소리를 쫓아갔다. 유라가 뛰고 곧 피살자가 될 누군가가 똑같이 뛰다면 어쨌서 「비명」이 들리질 않는 걸까. 자신이 처음 유라에게 쫓겼을 때에도 비명을 지를 생각은 하질 못했다. 준구는 멀어져가는 뽀박질소리에 조금해져서 얼른 뛰어갔다. 휴대폰을 열어서 경찰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휴대폰을 꺼내든 준구는 망연자실한 한 마디를 탁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

“...어쨌서?!”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었다.

준구는 계속 뛰면서 휴대전화를 켜려고 하였다. 화면이 밝아지면서 켜지려고 한다. 다행히 전원이 아예 없는 건 아닌 모양이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갔다.

『전원이 부족합니다. 강제 종료합니다.』

준구는 분명히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폰 배터리를 확인할 때 40%가 남아 있었다. 이럴 리가 없다. 시험시간 때에는 감독관이 휴대전화기는 꺼 놓으라고 했기에 끄기까지 했다. 하루 동안 켜 시간이라 해봤자 몇 시간 남짓이 전부였다. 다급해진 준구는 배터리를 빼버리고 주머니에 있던 예비 배터리를 꽂아서 다시 켰다. 화면이 또 밝아지며 켜졌다. 다행히 이번에는 전원은 충분했다. 그러나 안테나 신호가 어쩐지 잡히질 않고 있었다.

『NO SIGNAL』

분명히 이곳은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게다가 이곳은 전력회사가 있는 곳이다. 신호가 안 잡히다니? 이곳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휴대전화도 쓰지 않는 건가?

더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다. 배터리 용량이 몇 초 지나지 않아 순식간에 줄어들더니 강제 종료 메시지가 떠버렸다.

『전원이 부족합니다. 강제 종료합니다.』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가 없다. 이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러나 유라의 범행 수법을 알아내기 전까진 돌아갈 수 없다. 게다가 돌아가는 길을 잊어 버렸다.

준구는 침을 꿀꺽 삼켰다. 자신이 사는 마을도 미로라서 웬만큼 길을 잘 외운다고 생각하였지만, 이곳은 마을 못지않게 미로였다. 생각해 보니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를 본 기억이 없었다. 뒤돌아보니 갈림길이 여러 군데였다.

다시 뿔박질 소리가 가까워지다가 멀어졌다. 어쩌면 유라를 뒤따라가다 보면 출구가 나올 지도 모른다. 유라는 이곳을 알고 들어왔을 테니까. 준구는 그렇게 생각하고 뿔박질 소리를 쫓아 뛰었다. 이젠 자신의 발소리를 죽이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 미로 같은 회사 건물 사이를 3분 정도 뛰자 탁 트인 잔디와 함께 신설시 하수 처리장이 보였다. 도시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이지만 여태껏 넘비 취급을 당했었다. 이곳 신설시도 그런 역사가 있어서인지 준구와 하수 처리장 사이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다.

준구는 철조망을 따라 북쪽으로 가 보았다. 하수 처리장은 규모가

작았다. 아무 냄새도 느껴지지 않았다. 또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역시 다시 회사 건물 쪽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낯선 사람을 목격하였다. 유라에게 쫓기는 모양인지 허겁지겁 뛰어가는 꼴이 머지않아 죽을 운명으로 보였다. 자신이 그 자를 도우려 한다고 해도 도울 수가 없다. 설불리 나서다간 자신도 살해당할 것이다.

준구는 벽 모퉁이 뒤에 숨어서 고개만 배꼽이 내밀었다. 상대는 더 이상 쫓 수 없는 모양인지 철조망을 붙잡았다. 뒤이어 유라가 그곳에 도착했다. 불과 수 십 미터밖에 안 되는 거리 같은데도 둘의 대화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살려줘! 이쪽이야!”

그 자가 준구가 있는 쪽을 쳐다보며 구조를 요청했다. 준구는 얼른 벽 뒤로 몸을 숨겼다.

유라가 이쪽을 보았을까? 그 자의 마지막 발악이라 생각하고 무시할까? 유라가 이쪽으로 올까? 그 자를 죽이는 게 먼저라 생각하고 나중에 올까? 도망친다면 지금 밖에 없지 않을까? 유라가 그 자를 어떻게 죽이는지 확인해야 하는 게 아닐까?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안 남기는지 알아둬야 하는 게 아닐까?

준구는 마른침을 삼키고서 다시 그 자가 있던 철조망 쪽을 보았다. 그러나 준구가 십 초 남짓 고민한 동안에 이미 사라져 있었다. 준구는 천천히 조심스레 그 자가 있었던 곳으로 갔다. 그 자가 있었던 자리는 피투성이가 되어버렸다. 이런 자리에 증거란 게 안 남으려면 안 남을 수가 없지 않은가.

준구는 핏자국을 뒤쫓아 갔다. 의외로 가까운 하수 처리장에 시체를 버린 것 같진 않다. 곳곳에 손바닥이 찍혀 있는 걸로 봐선 피살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을 한 것 같다. 어떻게 유라는 그렇게 작은 체구로 사람을 폭력으로 죽일 수 있는 것일까. 유라가 어떻게 그 자를 죽였는지 그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준구는 짐작할 수조차 없었다.

핏자국이 건물 안으로까지 들어갔다. 준구는 떨리는 마음을 다 잡고 건물 손잡이를 조심스레 열었다. 어찌면 시체를 질질 끌고 가려는 유라를 보게 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핏자국은 거기에 그대로 끊겼다.

정확히 준구가 문을 연 지점부터 아무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이대로 건물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일까. 차분하게 준구는 지금까지의 상

황을 종합해 보았다. 이 전력 회사는 확실히 이상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다. 휴대전화에 관한 것도 그렇지만, 피살자가 자신에게 구조 요청을 한 것 외에는 아무 대화 내용도 들리지 않았다. 뽀박질 소리의 방향 또한 이상하였다.

그래도 유라가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면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준구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기 때문이었다. 준구는 그게 유라라고 생각하였지만, 유라라면 손보다는 나이프를 목에 들이대고는 그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준구는 놀랐어도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있었다.

“왜 네가 여기 있는 거야.”

준구는 귀가 번쩍 튼 기분이 들었다. 준구가 손으로 상대의 팔을 툭툭 치자 상대는 손을 내렸다. 준구가 뒤돌아보니 역시 그 목소리는 자신의 절친인 남철수의 그것이었다.

“너야말로 왜 여기 있는 거야.”

“길게 설명할 시간 없어. 췌.”

철수는 준구의 손목을 붙잡고 달리기 시작하였다. 준구도 이 자리에 계속 있다간 죽을 지도 모를 거란 예감이 들어 철수가 달려가는 방향대로 달렸다.

“너 원래 체력 안 좋지 않았냐.” “시끄러.”

준구가 아는 철수는 쉽게 지치는 타입이었다. 그러나 지금 준구와 함께 도망치고 있는 철수는 준구가 알던 철수와는 전혀 판판으로 아주 잘 도망치고 있었다, 라고 준구는 판단하였지만, 철수는 이내 지쳐 버린 것인지 근처 건물로 들어갔다. 철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무리해서 참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궁금한 게 많겠지만 일단 여길 벗어나야 해.”

“그건 알겠는데…….”

“조용히 바깥 소리에 집중해봐.”

철수가 그렇게 말하고 바로 조용히 입다물자 준구도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조용히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밖에선 비명 소리가 들렸다. 아직 죽이지 않은 사람을 마저 죽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목표물이 여러 명이라 계속 죽이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인가.

준구는 오늘 마른침을 여러 번 삼킨다는 생각을 하는 사이에, 주변이 잠잠해지자 철수가 고개를 슬쩍 내밀어 건물 밖 상황을 살펴보았다. 그러다 누구라도 놀랄 정도로 문을 꽁 닫고 준구의 손을 다시 잡더니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돌진하였다.



“왜 그래!?” “눈 마주쳤어!” “젠장!”

이제와서 철수 탓을 할 수는 없었다. 철수가 아니었으면 준구는 이미 죽어버렸을 지도 몰랐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철수를 탓해야 할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잖아!!”

“계단으로 가야 해!”

준구와 철수가 호들갑을 떠는 사이에 유라가 이미 문을 두들기고 있었다. 준구는 심장이 시시각각으로 멎는 느낌과 싸워야 했다. 이대로 가슴을 붙잡고 쓰러져도 자신을 탓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둘이 비상계단을 찾아 올라가는 사이에 바깥이 잠시 잠잠해졌다. 사람을 죽이는 시도를 한 번 실패해버리면 그 이상 시도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들었던 터라 준구는 유라가 자신들을 죽이길 포기하고 되돌아간 것은 아닐까 하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납작 누르듯이 유라는 준구가 있는 건물을 빙 돌아 창문을 깨뜨려 잠입하였다. 계단을 쿵쾅거리며 뛰어오르는 소리가 유라에게 들렸음에 틀림없었다. 유라는 엘리베이터 쪽으론 가지도 않고 곧장 비상계단 출입문을 열었다.

철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위로 올라갔다. 필사적인 몸부림에 준구는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고 싶었지만, 준구도 시험에 도주까지 겹쳐 피로감이 누적되었다. 더구나 선불리 말을 걸었다가는 더 체력이 소모될 것 같았다. 철수가 옥상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준구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포기하기엔 일러.”

철수는 준구를 침착하게 만들었다. 유라는 계단을 계속 올라오고 있어 이제 2층 정도의 계단만 더 오르면 유라도 옥상이었다. 준구는 철수가 무엇을 하는지 말없이 지켜보았다. 응원해봤자 철수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딱히 해줄 말도 없었다.

철수는 철사 두 개를 꺼내더니 열쇠구멍에 집어넣어 이리저리 달그락거리며 문을 따려고 시도하였다. 그 사이에 유라와의 거리는 이제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할 정도였다.

“김준구, 암전히 포기하시지?”

유라는 준구만 여기까지 도망쳐 온 줄로 착각한 모양이었다.

유라가 마지막 층까지 도달하려고 발을 뻗 순간, 옥상문이 열렸다. 누구랄 것도 없이 옥상에 진입하자마자 문을 거칠게 닫고는 험한 공

간과 마주해야 했다. 생각을 정리해보면, 결국 이 건물 옥상으로 향할 때부터 궁지에 몰린 쥐나 다름없는 입장에 있었다.

“어떻게 하지?”

“최대한 오래 문을 틀어막아.”

철수는 당연하다는 듯이 준구에게 지시하였다. 준구는 손잡이를 쥐고 유라가 문을 못 열기를 바랄 뿐이었다. 철수는 옥상 이곳저곳을 발로 뛰어다니다가 탈출용 줄사다리를 발견하고는 바로 탈출하려는 건지 건물 아래에 짝 내렸다. 준구는 설마 친구가 자신만 남기고 혼자 탈출하나 싶어 철수의 행동을 말없이 관찰하였다. 철수가 먼저 탈출해도 준구 또한 뒤따라 탈출하면 된다. 하지만 준구가 후발 주자로서 탈출을 시도하면 유라가 준구를 죽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문 열어!” 유라가 어느새 옥상문에 도달하여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문 손잡이를 비틀고 열어젖히려 하고 하는가 하면, 문을 발로 광광 걷어차기도 하였다.

철수는 준구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는 미소를 지었다. 먼저 탈출하는 사람 치고 매우 여유로운 동작이었다. 선발 주자로 탈출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었다. 철수는 가방을 벗어서 그대로 지면에 던져버렸다. 값비싼 전자기기가 들어있었던 건지 썩 듣기에 좋은 소리는 아닌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철수는 준구 옆에 가서 귓속말로 “손잡이 놓고 따라와.”라고 말했다. 준구가 손잡이를 놓아도 밖에는 별다른 소리가 안 들렸다. 유라가 철수의 가방이 지면에 닿는 소리를 듣고 준구가 추락사한 것으로 착각한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지면에 닿은 것이 가방일 뿐인데다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다시 이 건물 옥상으로 올라올 것이었다. 어차피 옥상에 있는 준구는 독 안에 든 쥐나 다름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라로서는 지상에 내려와서 손해볼 것은 없는 일이었다.

준구가 철수를 따라 적당히 은폐할 곳 뒤에 숨자, 유라는 옥상문을 열어 옥상에 진입하였다. 이제 정말 도망칠 곳이 없었다.

유라는 철수가 설치한 탈출용 줄사다리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것이 가방이라는 것을 확인한 유라는 벽에 걸린 탈출용 줄사다리를 떼어 지면에 떨어뜨렸다. 혹시 옥상에 준구가 남아있다면 탈출 수단을 없앤 것이다.

유라가 그런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행위를 해준 덕분에 준구와 철수는 은폐했던 자리에서 이탈하여 옥상문을 닫고

건물 아래로 탈출할 수 있었다. 준구와 철수는 계속 아래로 내려갔다. 유라가 따라올 것 같았지만 이번엔 따라오지 않았다. 아무래도 준구를 죽이려는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고 인식한 모양이었다.

준구와 철수가 1층에 도달할 때까지 유라의 움직임은 별달리 포착되지 않았다. 둘은 어서 이 기분 나쁜 건물 틈바구니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해서 무작정 출구로 뛰었다. 준구가 오싹한 기분을 억누르면서 아까 자신들이 있었던 옥상을 쳐다보니, 유라가 그저 자신들이 도망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무래도 준구를 죽이러 쫓아가는 것은 단념한 듯하였다.

둘의 도주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철수가 거친 숨을 내쉬며 더 이상 못 가겠다며 주저앉았기 때문이다. 준구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철수를 일으켰다.

“아직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어. 가자.”

“그냥 죽어도 좋으니까 설래!”

“말이 되는 소릴 해라.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쳐야지.”

철수는 건기 시작하였다. 준구는 철수를 부축하며 걸었다. 분명 가방을 짊어진 자신이 더 지쳤어야 정상이지만, 철수는 원래 체력이 안 좋은 편이었으니 준구가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준구는 건물 틈바구니에서 빠져나와 도로로 진입하였다. 둘이 떠난 자리엔 「岡崎新再生電力株式会社」라는 세로로 새겨진 간판이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다.

“이쯤 되면 안전할 거 같아. 버스 타고 가자.”

“택시 불러서 가자.”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

“그럴 수가…….”

준구와 철수는 패잔병처럼 터덜터덜 걸었다. 유라가 안 쫓아온다는 확신이 든 이상 더 체력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철수의 체력이 다 소모되어 준구가 철수를 업고 가야할 판이었다.

길 건너편으로 가야된다는 생각조차 못 한 채로 그 둘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여 버스를 기다렸다. 숨이 차다는 이유로 철수는 준구에게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막차인 버스를 타고서야 그들은 맨 뒷좌석에 앉아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어째서 네가 차유라를 뒤쫓고 있었나.”

“차유라가 소문의 살인마라는 걸 알게 되면서였지.”

“살인 장면을 목격했어……?”

“어, 네 앞에서 사람이 죽는 장면을 봤었지. 용케 도망치던데. 그 땐 유라 뒷모습 밖에 못 봐서 그게 차유라인 줄 모르고 있었어.”

철수의 말에 준구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준구가 처음 유라의 살해 장면을 목격한 날, 준구는 유라 이외의 다른 사람을 골목길에서 보지 못했다. 아마 철수는 유라도 못 보는 사각지대에서 조용히 훑쳐 봤을 터였다. 철수가 그 골목길에 올 이유라곤 단 하나, 준구가 건 전 화 때문이었을 것이다.

“시체를 은닉하는 사람은 봤어?”

“아니, 너무 놀라서 도망쳤지. 유라만 활동하는 게 아닐 거라 생각했거든. 유라는 아무튼 중학생이고 여자애잖아.”

철수를 탓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철수가 유라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준구처럼 증거가 없어서일 것이다.

“나야말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넌 어떻게 유라한테 찍히고도 살아남은 거냐.”

“그 날, 유라는 부상을 당했어. 그래서 두 달 동안 가방을 들어달랬어. 그럼 목숨을 연장해 준다고 해서 거래한 거지. 넌 왜 나한테 살인 사건에 대해서 한 마디도 물어보지 않냐? 그리고 아까 넌 나와 골목길에서 마주친 사람이 차유라인 줄 모르고 있었던 거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할게. 난 네가 살아남아서 네가 용케 도망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신고를 한다면, 역시 살인마를 직접 본 네가 이미 신고했을 거라 생각했고, 네가 신고하지 못했다면 살인마와 마주치긴 했지만 얼굴을 못 보고 도망치는 데만 필사적일 거라 생각했지. 네가 상대의 얼굴을 못 봤다면 너한테 그런 거 물어본다고 해서 나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 그리고 만약 네가 살인마한테 협력하기로 결정해서 목숨을 구한 거라면, 내가 선불리 물어보는 편이 내 명을 재촉하는 선택이 되었을 걸. 그리고 난 평소에 교실에서 소문에 대해 여러 낭설을 퍼트리면서 네 반응을 살폈어. 하지만 넌 나한테 진상에 대해서 아무 것도 얘기해준 게 없었지. 입막음을 당한 게 아닐까, 결국 그런 결론에 도달했어.”

준구는 철수가 한 말을 다시 곱씹어보았다. 철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였다. 준구에게 철수는 협력의 대상이 되어야지 경계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스스로를 마음 속으로 설득하였다.

“두 번째 질문에도 대답해 봐.”

“네가 그 날 차유라에게서 도망친 다음날부터 경화를 통해서 네가 유라의 가방을 들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 그래서 왜 심각한 사건을 겪은 애가 유라처럼 부상입은 아이의 가방을 계속 대신 들어 주는 걸까 의아했지. 입막음을 가방 들어주기의 연장선에서 생각해보니 답이 나오더라고. 골목길에서 네가 마주쳤던 건 차유라였거나 차유라와 관련된 누군가였고, 너는 입막음을 당해서 가방 들어주기를 하면서 안전을 보장받는 거지. 이런 생각에 도달한 건 극히 최근이야.”

“넌 오늘 서울에 시험 치러 갔잖아. 난 유라를 뒤쫓다가 네 덕에 살아남긴 했는데, 어디서부터 유라의 뒤를 밟은 거야?”

“서울에서 시험 친 다음에 평범하게 집에 가려고 했지. 하지만 전화를 받았어.”

“차유라한테서……?”

“글쎄, 차유라가 직접 건 전화는 아닌 거 같은데. 네가 그곳에 있을 거라 그랬어. 그래서 미리 가봤지. 그런데 차유라가 사람을 몰아넣는 걸 봤고, 뒤이어 네가 유라를 뒤쫓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그대로는 위험할 거 같아서 나섰지.”

준구는 철수가 한 말을 종합해보았다. 누군가가 자신들을 감시하는 것만 같았다. 버스 기사마저도 못 믿을 사람으로 보였다. 당장이라도 버스가 멈춰서고 살인마들이 들이닥칠 것만 같았다. 준구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쓸데없는 망상은 그만두었다.

“증거 확보한 거 없지……?”

“안타깝지만, 응. 없어.”

“정리하면, 우리는 실질적인 위협을 당장이라도 받을 처지에 있지만, 반격을 할 처지는 못 되는 거네. 안타깝지만, 생각해낼 수 있는 대책이 하나뿐이야. 처음엔 유라가 하는 일에 대한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경찰에게 연락하면 될 거라 생각했지만, 오늘 일로 미루어 짐작해보니 그건 불가능해. 증거를 모으기도 전에 잡힐 거야. 증거를 획득하려는 시도를 몇 차례 했었지만 되레 당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가만히 구경만 하자는 거야?”

“당장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야. 이 이상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간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죽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지 않았지?”

철수는 준구의 말을 들으면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러나 준구의 말이 다 끝나자 주먹을 폈다.

“너한테 실망이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사실 나도 별다른 대책이 없

어. 하지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란 없을 거야.”

“일단 방학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자. 집안에만 있으면 아무도 손쉽게 건들진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글쎄, 마음만 먹으면 집에 쳐들어 올 수 있을 거 같은데.”

“내가 경험해본 바로는, 유라 본인에게 위해가 될 만한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저쪽에서도 딱히 나를 위협하지 않았어. 성가신 일만 안 하면 적당히 무시해주겠다는 거겠지.”

“행동 노선은 정해진 거 같네. 개학할 때까지 집안에 처박혀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유라 눈에 띄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네. 그러면 영원히 유라를 못 잡는 거 아닌가.”

“현재로선 대책이 없어. 조용히 공부나 해야겠어.”

기운 빠지는 결론에 도달한 그들은 아무 말없이 방학을 어떻게 보낼지 현실적인 질문을 각자 머릿속에 풀어나가기 시작하였다. 두 사람을 태운 버스는 유라를 태우는 일은 전혀 없이 어두운 밤길을 뚫으며 종점을 향했다.

#### 4.2

탐정은 이른 아침부터 서기와 나란히 서서 대자보를 지켜보고 있었다. 탐정이 전날 토론이 끝난 뒤 집에 와서 이메일을 확인해보니 목격자로부터 요구했던 글이 도착했었다. 교내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일 사람을 모집하였고, 가장 먼저 답장을 보낸 것이 서기였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들은 도서관에서 대자보 내용을 인쇄한 뒤에 게시판에 부착하고, 지금은 팔짱 끼고 대자보가 잘 붙었는지 확인해 보고 있는 것이었다.

“수평도 그러저럭 맞춰진 거 같고, 게시 기간 도장도 찍었고, 가려지는 다른 게시물도 전부 다시 부착했고……, 음, 충분해.”

“선배, 준구 선배는 글재주가 좋은 것 같아요.”

탐정이 어제부터 신경 쓰이던 부분을 서기가 언급하였다.

“너도 그렇게 생각해? 더 놀라운 건, 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준구가 글이 완성되었다고 알려준 점이야. 내 예상으론, 잘 모르던 사람의 조문을 표하는 글이니 하루만에 글을 못 쓸 거라 생각했는데, 초고도 아니고 완성본을 받아서 나도 신경이 쓰였지. 마치 준비된 글이란 느낌이 들었어.”

“준비된 글이면… 준구 선배가 이사장님의 사망을 미리 예견하고 자

신에게 이런 글을 쓸 일이 생기는 것까지도 예견한 걸까요?”

서기의 말을 듣고 보니 그리 가능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이사장 사망 이후로 휴교 조치가 시행되었을 수도 있었고, 탐정이 다른 사람에게 조문 작성을 부탁했을 수도 있었다. 아예 조문을 게시한다는 발상 자체를 아무도 안 할 수도 있었다.

“준구가 무당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인데, 이사장의 사망 같은 돌발적인 일들을 예견할 수는 없겠지. 그냥 타이밍이 딱 좋으니까 놀라워서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라는 거 믿고 싶어하지 않는 편이잖아?”

“전 운명이나 우연의 일치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탐정이 서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씩 웃었다.

“녀석, 제법 낭만적인데? 그러다 꽃뱀 같은 사기꾼한테 걸리면 홀렁 넘어가니까 조심해.”

탐정은 서기의 머리를 그만 쓰다듬고 검지 손가락을 좌우로 흔들며 덧붙였다.

**“현실은 냉혹한 법이니까.”**

탐정과 서기가 대자보 앞에서 잡담을 나누는 사이에, 사냥꾼과 목격자가 차례로 복도에 모습을 드러냈다. 탐정과 사냥꾼 사이에 강렬한 눈빛이 교환되었으나, 사냥꾼은 가볍게 탐정에게 손을 들어 인사해주고 계단으로 올라갔다. 목격자가 뒤따라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탐정이 목격자를 불러세웠다.

“야, 김준구. 묻는 말에 솔직히 대답해.”

“안녕, 일단 가방을 교실에 내려놓고 얘기하면 안 될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왜 요새 유라 가방을 들어주는 건데?”

“유라가 어깨 아프다고 하니까 들어주는 것뿐이야.”

“조문은 어떻게 그리 빨리 작성할 수 있었던 거야?”

탐정의 질문에 목격자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푹 쉬었다. 탐정은 어떤 질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크게 둘 중 하나의 경우라고 보았다. 첫째, 질문자를 한심하게 보거나, 둘째, 정곡을 찔렸지만 그걸 숨기기 위해서인 경우이다.

“나한테 글재주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편집장에 임명시킨 거 아니었나?”

“글재주와 글 쓰는 속도가 꼭 비례한다곤 못 하지. 난 네가 글을 그렇게 빨리 쓰는 편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

“내가 펜을 쥐고 글을 쓰면 속도가 당연히 빠르지 않지. 하지만 키보드를 치는 건 그러저럭 빠른 편인데.”

“그래도 글 쓰는 내용을 생각함과 동시에 화면에 옮겨 적는 건 쉽지 않아. 글을 잘 쓰려면 글의 소재가 될 만한 자잘한 배경 지식도 풍부해야 하지. 난 네가 언제부터 이사장의 인품이나 삶을 이리도 잘 이해하고 있었는지 궁금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사장의 간결한 약력만으로는 도저히 그런 글을 쓸 수 없어. 네가 쓴 글은 마치 이사장이 죽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둔 글처럼 느껴져. 너…, 이사장의 죽음을 예측이라도 한 거야?”

탐정이 핵심을 물었지만, 목격자는 당황하지 않았다. 이사장의 죽음을 예측한 사람은 목격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계단 위에서 사냥꾼이 목격자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준구, 뭐해? 얼른 올라 와!”

“알았어! 갈게!”

목격자는 탐정을 향해 나지막이 대답해주었다.

“난 예언가가 아냐. 그런 재주는 못 부러. 이만 가 볼게.”

목격자는 그대로 계단을 따라 탐정으로부터 멀어져갔다.

#### 4.2.1 2037년 9월 1일. 화요일.

한 달이 넘는 여름방학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듯이 끝나버렸다. 무대응으로 기다리자던 철수와와 합의는 일견 정답인 것처럼 보였다. 준구는 여름방학 내내 집에서 칩거생활만 하진 않았다. 수진이 부른 바람에 도서관에서 대대적인 책 정리 작업을 하기도 하고, 집안에만 처박혀있기 심심할 땐 거리로 나와 마을 분위기가 어떤지도 눈여겨 보았다. 생전 처음 보는 시민에게 살인 사건에 대해 질문할 수 없었지만, 예전에 비해 골목길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그 외에도 철수와 간간이 만나서 대책 회의란 것도 해보았지만, 무대응 일관 외에는 달리 선택할 대책이 마땅히 없었다. 철수에게서 전해들은 바로는, 요사이 살인 사건에 대한 소문이 많이 사그러든 것 같았다. 준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않으면 유라도 별다른 위협을 안 하는 것 같았다. 석빈에게서 연락이 온 적도 있었지만, 방학 동안 바쁠 것 같으니 연애 비법은 개학한 다음에 알려달라는 내용이 전부였고, 그 이후 단 한 번도 석빈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다.

그리하여 9월 1일, 개학을 하게 되었다. 준구는 유라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평소대로 행동하자고 마음먹고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교실 안의 학생들은 방학이 끝난 뒤에 만난 터라 활기가 가득한 모습이었고, 친구로서는 안심이 되는 한편으로 소음 때문에 짜증이 났다.

상반된 감정을 품은 채 빈자리에 앉은 준구는 책을 꺼내 펼쳤다.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제공하는 책이었지만, 금세 다가온 방해꾼에 의해 더 읽지 못하고 책을 펼친 채로 놔둘 수밖에 없었다.

“개학하자마자 독서냐?”

“오랜만이다. 입시는 잘 된 거 같냐.”

“뭘, 그럭저럭.”

철수는 준구의 자리 곁에 바짝 다가왔다.

“넌 어때?”

“뭘,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는 갈 수 있을 거 같아.”

“이여~ 대단한 자신감이네.”

이대로는 책을 못 읽게 되니 철수와 잡담이나 주고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책을 덮자, 준구의 자리에 다가온 또 한 명의 학생이 있었다. 그는 철수를 무섭게 노려보다가 준구에게 귓속말을 했다.

“미안한데, 복도로 좀 나와줄 수 있을까?”

“미안, 곧 선생님 오실 거 같은데, 할 얘기 있으면 학교 마치고 전화 걸어줘.”

“음..., 알았어.”

곰처럼 거대하고 다부진 체격을 한 조석빈은 다시 한 번 철수를 노려보고는 자기네 반으로 되돌아갔다.

“재는 왜 나한테 무슨 악감정이라도 있나…….”

철수의 투덜거림도 철수 입장에선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었지만, 석빈이 왜 철수를 눈에 띠게 경계하는지 준구는 알기 때문에 멧쩍은 미소로 웃을 수밖에 없었다.

학생들이 다 출석한 교실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백향 선생이었다. 떠들던 소리도 일시에 멈추고 남철수 또한 자리로 돌아갔다.

“모두 방학 잘 보냈나, 제군?”

백향 선생은 교탁에 출석부를 톡 놓고 양손으로 교탁을 짚 잡았다. 주위를 둘러보던 이백향은 출석부를 펼친 다음 한 명씩 번갈아 쳐다보았다. 평소답지 않은 분위기를 하고 있어 학생들 사이에 긴장감 높은 침묵이 이어졌다. 모든 인원이 다 출석했음을 확인한 백향 선생은

헛기침을 하고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였다.

“이번 여름방학 때 굉장히 큰 사건들이 국내외에 발생하였다. 다들 뉴스, 신문, SNS,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을 거 같은데, 이번에 중국에서 또 경제 위기가 발생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 경기 변동이 존재하는 건 배워서 알고 있지?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역 충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반장.”

“네.” 호명받은 철수는 즉시 대답하였다.

“최근에 국내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대한 소식 중 뭐라도 접한 게 있나.”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신정보확산장려법의 부활을 저지하는 시위와 지지하는 시위가 있었는데, 지지측에서 집시법을 어긴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경찰에 연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준구로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 살인 사건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런 소식을 전하지 않는 언론을 못 믿어 신문을 읽지 않은 탓이다.

백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반장이 간단하게 잘 정리해 주었다. 시위가 소요 사태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지지측 과격파들이 어린 학생들을 앞세워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이 매우 거슬렸지. 신정보확산장려법이란 어느 정권이 운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니 결코 좋은 법안이라 볼 수 없다. 더구나 위헌 판정마저 받은 전례가 있지.”

**신정보확산장려법**이란 오늘날의 보수당이 2023년에 시행한 언론법의 일종인데, 왜곡이나 날조된 기사에 대해 사과 보도를 1면, 원래 기사를 신정보확산장려위원회의 권고에 맞게 수정한 보도를 2면, 끝으로 원래 기사를 작성했던 기자나 왜곡 또는 날조를 지시한 편집부가 왜 그런 기사를 내보냈는지에 대해 진술한 보도를 3면에 무조건 실어야 하는 법안으로, 이를 거부하면 보도 금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되는 강력한 보도 통제법이었다. 물론 이는 신문사의 인터넷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 신생 신문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존 신문사들은 매일같이 사과 보도를 1면에 싣게 되었으며, 대형 신문사 세 곳은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위헌 판정을 받은 것은 2026년이 되어서인데, 당시의 특수한 상황 덕분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당시 정권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친 못했다. 만약 다시 한 번 더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언론이 몇 군데나 될지 알 수 없다.

“문제는 이 법안을 제안한 집단이 언론사라는 것이다. 자기 목에 목줄을 걸려고 하니 일견 우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신생 신문사들은 기존의 대형 언론사들이 저지른 잘못을 집요하게 추궁하면서 이 법안의 유용성을 주장하고 있는 판국이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런 시위에 관계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스스로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쪽에 서길 바란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같은 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 위법 행위는 저지르지 말도록.” 백향의 말이 끝나도 경직된 분위기는 계속 이어졌다. 백향은 헛기침을 하고는 계속 말했다.

“분위기가 무거워진 것 같군. 이번 2학기의 주요 행사가 뭐지, 부반장?”

준구는 갑자기 지목되자 당황해버렸다.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는 뭔지 알지?”

“아무래도 수학 여행을 언급하고자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경화가 정답을 맞추자 백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수학여행이지. 사실 날짜는 정해졌는데,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선배 교사한테 물어보니 작년엔 산에 가서 선생들끼리 야유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학생들을 위한 수학 여행이 아니다. 물론 선배 교사들을 위한 변명을 하자면, 산으로 가게 된 건 이사장 때문이라고 한다.”

철수가 손을 들자 백향은 잠시 말을 끊었다.

“날짜는 언제입니까?”

“10월 5일 월요일부터 3박 4일이다. 장소는 한 반에 한 곳씩 의견을 수렴한 뒤에 제비뽑기를 하기로 했다. 각자 어느 곳이 좋을지 잘 생각해 보도록.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될 확률은 5분의 1이니 너무 기대하진 말고.”

백향은 학생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느긋하게 지켜 보았다.

#### 4.2

이사장의 장례식이 시작될 즈음, 이사장의 생가에는 잠입자가 들어왔다. 잠입자가 노리는 것은 별 거 없었다. 이사장의 수명 단축을 재촉한 물건, 바로 USB였다.

“잠입 성공. 보안 시스템이 다 해제되어 있으니 별 거 아니네요.”

잠입자는 무전기에 대고 말했다. 잠입자와 대화하는 상대방은 잠입자가 쓴 방탄모에 부착된 콤팩트 캠코더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그래도 탈출 루트는 확보해 뒀. 만에 하나라도 장례식 도중에 가족들 중 아무나 한 명이라도 이 집에 되돌아 오면 발각 뒤집힐 테니까.』

“걱정도 참 많으셔. 어차피 제가 위험해져도 옥상에서 구경이나 할 거잖아요.”

『너를 탈출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예, 참 기쁘네요. 아아~, 참 무성의하기 짝이 없네.”

『궁시렁거리는 거 다 들린다.』

잠입자는 이사장의 방에 들어와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딱히 보안과 관련된 물건은 보이지 않았다.

『USB를 찾기 전에 일단 저 컴퓨터 좀 켜봐.』

“네이네이…….”

『임무 끝나면 파르페 사줄게.』

“신속☆정확이 우리의 사명이다!”

『너무 오버하진 말고…….』

걱정스럽다는 느낌이 이어폰 너머로 전해졌다. 잠입자는 컴퓨터를 켜보았다.

“통신 단말기 끼울까요.”

『어, 그러려고 켜라고 한 거니까. 아마 99%의 확률로 USB를 조사하려고 설치했을 거야.』

부팅이 되는 걸 다 기다리지도 않고 잠입자는 통신 단말기를 컴퓨터 본체에 끼웠다. 모니터는 제멋대로 검은 화면에 흰 문자를 줄줄 토해냈다. 원격 조종으로 이사장이 USB를 조사했던 흔적을 싸그리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었다.

잠입자는 그 사이에 USB를 찾으려고 책상 서랍 등을 하나하나 뒤졌다. 그러나 눈에 띄는 것은 죄다 쓰잘데기 없는 물건들 뿐이었다.

『이사장 이 양반, 카메라로 모니터도 찍어서 보관한 적 있구만.』

“으, 아직 USB 비스무리한 물건도 안 나오는데요.”

『방금 전에 정보통 어르신께서 연락이 왔는데.』

“설마…….”

잠입자는 무전기 이어폰에 신경을 집중시켰다.

『…그래, 그 설마다.』

“허탈하네요.”

『나도 허탈해.』

“경위라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사장이 유품으로 USB를 남긴 모양이야. 그걸 유족들이 정보통어터신께 맡겼어. 아무래도 괜히 망명하려다가 안 좋은 꼴을 봤으니 외국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거겠지. 사실 별로 활약할 기회도 없었을 테니 그쪽으로선 억울하겠지만, USB는 이걸로 우리 손아귀에 들어왔어. 곧 파기될 거야.』

“전 언제 이곳을 이탈하면 될까요.”

『하드웨어를 초기화시키는 데 1분도 안 남았어. 좀 참아라.』

“싱겁네요.”

『싱거운 임무 뒤에는 달콤한 파르페가 기다리니까 좀 참아라.』

“저도 언니처럼 스틸 넘치는 임무 좀 해보고 싶은데 말이죠~.”

『너한테 이르다. 조만간 기회가 올 거야.』

잡담을 나누는 사이에 컴퓨터는 저절로 꺼졌다. 잠입자는 통신 단말기를 뽑은 뒤 콘센트 전원을 껐다. 잠입자는 이사장의 방에서 자신의 흔적을 없애고는 이사장의 생각을 이탈하였다.

#### 4.2.2

개학식이 끝난 뒤 준구는 집으로 바로 가도 되지만, 도서관에 들렀다.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좌담실 안에는 학생이 두 명밖에 없었는데, 한 명이 서수진, 다른 한 명이 조석준이었다. 석준은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로 영어책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수진은 평소 버릇대로 다리를 꼰 채 책상에 걸친 느긋한 자세로 신문을 읽고 있었다. 준구는 수진에게 자신이 처한 문제에 대해 의논해 볼지 고려해 봤지만, 믿어줄 것 같지도 않았고, 괜히 위협에 끌어들이는 것은 아닐지 두려웠다.

준구가 좌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수진과 석준이 평소처럼 인사했다.

“역시 너라면 개학식 끝나고 여기로 올 줄 알았어.”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준구는 자기 자리에 가 앉아 책을 꺼내며 대꾸했다.

“어차피 집에 가봤자 할 것도 없거든.”

준구는 수진 쪽을 힐끗 쳐다보았으나 신문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신문 1면에는 수 시간 전에 이백향 선생이 언급했던 일이 실려 있었

다.

“요즘 뭔가 큰 일이 터지고 있어?”

“큰 일? 음, 있긴 있었지. 방학 내내 이슈였는데, 신정보확산장려법에 대한 여러 시위가 있었어.”

“살인 사건 같은 건 없어?”

“자살 사건이라면 저번주에 있었는데, 중국에 투자했다가 쪽박찬 투자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

수진은 신문을 접고는 준구를 쳐다보았다.

“평소엔 그런 시사적인 거 별로 안 물어봤잖아. 아는 사람 중에 연행된 사람이라도 있어?”

“아니, 그냥 오늘 이백향 선생님께서 언급하셔서 좀 궁금했을 뿐이야.”

“여름방학 때 이 문제로 얼마나 시끄러웠는데……. 예전 문예부 부장 기억나지?”

준구는 굳이 기억을 더듬을 필요도 없었다. 준구가 아는 문예부 선배는 그 한 사람뿐이기 때문이다.

“응, 최철규 선배? 너한테 연락 왔어?”

“아니, 내가 연락했어. 웬지 이런 시위 현장에는 꼭 있으실 분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역시 마이크 잡고 연설문을 낭독하더라.”

수진과 준구의 잡담에 석준은 이어폰을 빼고 둘을 쳐다보았다.

“최철규 선배가 누구예요?”

“간단히 말하면, 수진이, 나 성한이가 문예부에 가입할 계기를 만들었던 분이기도 하고, 2년 전에 문예부의 부장이자 유일한 부원이기도 했던 선배야. 지금은 서울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

“그렇군요…….”

흥미가 바닥 나버린 건지 석준은 다시 이어폰을 귀에 꽂고 책을 들여다보았다.

“철규 선배가 지금 계셨다면 우리들 다 이끌고 시위 현장에 함께 연대의 정신을 불태우고 있었겠네.”

“그리고보니 성한이는?”

“신설시 광장에 가서 시위에 합류했나봐. 뭐, 철규 선배의 후배들인 우리는 당연히 저지축 입장에 어울리지”

“너도 시위 참여할 거야?”

“아니, 이 시위도 이제 끝물이 다 되어가는 거 같아. 조만간 국회에서 결판나겠지. 물론 날치기 통과라도 하면 서울로 올라가볼 거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야. 그런 법안은 두 번 다시 이 땅에 존재해선 안 될 법안이지.”

준구는 자신이 들여다 보는 책의 구절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전쟁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전쟁으로부터, 적어도 기대에 있어서는, 통쾌한 흥분을 맛보는 독재자들이나 이와 유사한 인물들은 자국민의 선천적인 호전성에 불을 붙이기가 쉽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국민의 열정에 부채질 하는 일을 용이하게 해주는 요인으로는 전쟁의 경제적 원인, 즉 인구의 압력과 시장 확보를 위한 경쟁적 투쟁을 들 수 있다.」

“수진아, 방학 때 혜원이가 편의점에서 했던 말 기억나?”

“대부분은 기억나지.”

“네 생각에 정부가 전쟁을 고려하고 있다면 어느 면에서 그런 징후가 드러나게 될 거 같아?”

“흥미로운 질문인데……. 사람들이 위협에 대해 눈을 멀게 만들고 보다 호전적인 풍조를 만든 뒤 그런 걸 끊임없이 부추기지 않을까.”

“정부가 전쟁을 고려한다면 신정보확산장려법이 정부를 방해하는 족쇄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대체 무슨 음모론을 신봉하는 거야? 설령 그런 족쇄가 정부의 전쟁 의지를 꺾더라도 그건 모두에게 족쇄가 되는 불필요한 거야. 전쟁을 막으려면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지. 그쯤은 너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수진의 말을 들어본 준구는 확실히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좀 더 나은 대안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조금 휘청거린다고 해서 전쟁을 고려해봤자, 어느 국가가 어느 국가에 쳐들어간단 말인가?

“오늘따라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거 같네. 집에 가서 쉬어야 겠어. 내일 보자.”

“벌써 가는 거야? 내일 봐.”

준구가 책을 챙긴 다음 좌담실 문을 열자 뒤늦게 석준이 작별 인사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안녕히 가세요, 선배.”

준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을 흔들며 도서관을 빠져나갔다.

#### 4.2

탐정은 안경담이로 안경알을 문질렀다. 상이 제대로 맺히는지 확인 하고는 안경을 썼다. 그래도 도저히 공부가 되지 않아 침대로 가서

벌러덩 누웠다. 방금 안경을 닦아서 그런지 천정이 선명하게 보였다.

공부가 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목격자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자신의 탓으로 여겨진 것도 그렇고, 합숙을 제안한 것도 그랬다.

탐정은 허공에 주먹질을 해보았다. 누군가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단지 허공에 갈겨대는 주먹질도 몇 초 하다보니 지쳤다. 목격자가 약해 빠진 녀석은 절대 아니라고 알고 있었지만, 성인 남성, 그것도 소문의 살인마로 추정되는 자를 목격자가 쓰러뜨릴 수 있는지는 의문스러웠다.

탐정은 안경을 벗고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다. 자칫 잘못했으면 목격자가 죽었을 지도 모른다. 막상 그런 생각을 하니 식은땀이 흘렀다.

자신의 경솔함에 대해 열심히 반성하는데 전화가 울렸다. 탐정은 손을 뺀어 수화기를 자신의 귀에 갖다 대었다.

“여보세요.”

『자고 있던 건 아닌 모양이군.』

목소리를 들으니 탐정의 절친인 검객이었다.

“이 시각에 무슨 일이야?”

『웬지 네가 잠 못 이루고 자책할 거 같아 전화했지. 예상 적중, 훗.』

“이보쇼, 용건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전화 건 이유가 그게 다야? 그럼 끊는다.”

『준구가 유라랑 귀가하면 안전할 줄로 생각했지. 나의 불찰이다.』

“나는 시합장에 가지도 않고 준구를 보냈으니 내 책임이야.”

탐정은 묘하게 책임을 두고 경쟁을 하는 대화가 우습게 느껴졌다. 이런 농담을 할 수 있는 것도 어디까지나 사냥꾼과 목격자가 생존했으니 가능한 것이다.

『만약 네가 준구 곁에 있었다면, 너도 피해자 명단에 올라갔을 거야. 오히려 네가 있었으면 준구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었을까? 세 명 죽을 뻔한 일이 두 명 다친 걸로 마무리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해.』

“이걸로 연쇄 살인 사건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겠지?”

『아니, 꼭 그렇다고 장담할 수많은 없어.』

검객의 반론에 탐정은 침대 위에 정좌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사건 현장 근처에 있거든. 누군가가 유리를 깨고 건물 내로 진입한 거 같은데, 그 진입자가 범인을 죽인 거 같아. 건물 안에서 바깥으로 유리를 깬다면, 유리창 윗부분 조각들이 좀 더 많이 남았을 텐데, 보기엔 정반대로 아랫부분 조각들이 더 많이 남아



있어. 준구나 유라 정도 되는 키가 저 건물 안에서 유리창을 들이받았다면, 유리창 아랫부분의 조각들이 적게 남아야 해. 만약 저 깨진 부분대로 건물 안에서 바깥으로 충격이 가해졌다면 점프를 해야만 했을 거고, 그러면 이 도로에 떨어져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겠지.』

“그럼 준구가 범인을 처치한 게 아니고, 진입자가 진짜 연쇄살인마라는 거야?”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불과해. 제3자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유리창이 원래 그렇게 깨져 있었다는 말이 될 텐데, 난 우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여태 창문이 저렇게 깨진 집을 본 기억이 없어.』

“네가 매일 순찰하는 건 아니잖아.”

『뭐……, 그렇기야 하지만, 연쇄살인마가 죽었을 거라고 선불리 단정짓지는 마. 내 생각에, 이 도시에서 날뛰는 녀석은 준구가 덤빈다고 이길 수 있는 놈이 아냐. 아마 내가 상대해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어.』

“요지는, 앞으로도 방심하지 말고 지내라는 거네.”

『뭐, 얘기하다보니 그리 되었네. 그럼 이만 끊을게. 잘 자.』

“응, 너도 잘 자.”

탐정은 검객이 한 말을 곰곰이 되짚으며 수화기를 제자리에 놓았다. 탐정은 처음으로 사냥꾼이 연쇄 살인마인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지만, 검토 시험 결과를 아는 탐정으로선 그 가능성을 일단 제쳐 놓았다.

#### 4.2.3

늦여름의 더운 공기가 아직 남아있었다. 그리 큰 대도시도 아니라 열섬 현상이 일어날 리도 만무하지만, 늦여름의 후덥지근한 바람이 불쾌하게 골목길을 지나다녔다. 준구는 가슴팍을 움켜쥐고 교복을 부채질했다.

습도가 높아서 그런지 땀이 금방 마르지 않고 몸에 끈적이는데, 쓰레기 봉지가 쌓인 곳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자 시선이 집중되었다. 준구가 가만히 멈춰서 쓰레기 봉지를 응시하자 얼마 안 있어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기어나와 준구를 경계하였다. 준구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한 걸음 내딛자 고양이는 “냐~옹”하며 쏘살같이 도망쳤다. 준구는 이 골목길에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고는 평범하게 걸었다.

“오늘은 일찍 귀가하네?”

단 한 마디 들었을 뿐인데 후덥지근하기한 했던 공기가 순간 차갑게

느껴졌다. 온몸이 순간 경직되어 도망쳐야 할 타이밍을 놓쳤다. 준구가 뒤돌아보니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유라는 팔짱을 낀 채로 준구를 쳐다보고 있었다.

“수학여행 참 기대되지 않아?”

“넌 어딘가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취미냐?”

“전혀 아닌데?”

유라는 한가롭게 잡담이나 주고 받자는 듯이 말했다. 준구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 유라가 갑자기 몸을 옆으로 휘청거렸다. 준구는 자신의 발 옆에 돌맹이가 떨어진 소리를 듣고서야 유라 뒤에 남철수가 있음을 보았다.

“뭘해? 도망쳐!”

유라가 뒤돌아서 철수를 보았다. 철수는 안경도 벗고 마스크도 끼고 사복 차림이라 유라가 자신을 위협했던 게 철수였다는 걸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너무 뚜렷해서 위장이 별 소용이 없을 것 같기도 했다.

철수가 도망치기 시작하자 준구도 급히 도망쳤다. 유라는 철수 쪽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준구를 쫓기 시작하였다.

“저번처럼 또 도망치는 거야?!”

“살고 싶어서 그런 걸 어찌라고!”

준구는 도망치면서 소름 끼치는 유라의 회피 능력을 회상했다. 준구가 유라와 대치했을 때, 철수가 근처에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유라는 청각 덕분인지 육감 덕분인지 뒤에서 날아온 돌맹이를 피했다.

준구는 CCTV가 있는 지점까지 가고자 했지만 뒤에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옆골목으로 가면 속도도 늦춰질 뿐만 아니라 CCTV가 있는 지점에서 되레 멀어질 것이다.

준구가 잠깐 대안을 생각한 사이에 유라는 단숨에 점프해서 준구의 뒤를 덮쳤다. 순간적으로 쇠도해온 압도적인 무게감 때문에 준구는 바닥에 넘어질 뻔했지만 가까스로 설 수 있었다. 도주하기 쉽도록 가방을 안 메고 하교한 까닭에 유라가 뒤에서 착 달라붙은 걸 떨어뜨릴 방법이 없었다. 유라 또한 껴안은 걸 놓지 않으면 준구를 죽일 방도가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놓아주면 준구가 도망치는 게 뻔했다.

“어디, 이거 좀 풀어주지? 저번처럼 오해받는 건 사양하고 싶은데.”

“네가 내 입장이자면 절대로 풀지 않을 텐데?”

유라는 준구를 뒤에서 끌어안은 상태에서 두 팔에 힘을 꽉 주었다.

의외의 압박감에도 준구는 설마 자신의 두 발이 지상에서 떨어질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다. 유라는 그리 어렵지 않게 준구의 몸을 살짝 들어올렸다. 막상 그리 되니 몇 센티미터 공중에 들린 걸로도 당황스러웠다. 설마 유라가 자신을 들어올릴 정도의 힘이 있을 거라곤 상상 안 했기 때문이다.

“와……!” 준구가 당황한 채로 다급히 외치자 유라는 발을 건 다음 준구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훌뜨리고는 옆으로 지면에 내동댕이쳤다. 준구는 측면 낙법도 모르면서 어깨부터 지상에 닿았다.

“아프잖아…….” 준구가 불만을 내뱉으며 바닥에서 일어서려는데 유라가 준구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죽이려는 것 치곤 불필요한 행동 아닌가?”

만사 포기한 듯이 준구는 말했다. 유라는 자신의 손목에도 수갑을 채웠다. 준구의 손목과 유라의 손목은 하나의 수갑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협상을 하려고 해. 이렇게 하면 널 함부로 못 죽인다는 건 짐작할 수 있지?”

“그래, 시체 처리가 번거로워지니까 여기선 못 죽이겠지. 그런데 난 살면서 이렇게 강압적인 협상 방법이 있을 줄은 처음 알았는데.”

준구가 비아냥거리자 유라는 준구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협상할 땐 우위를 선점하는 게 기본이야. 수갑을 풀려면 우리 집까지 가야 해.”

유라는 웃으며 앞서 걷기 시작했다. 준구는 수갑을 풀 방법을 몰라서 잠자코 따라가기로 했다.

“그러고보니, 돌맹이를 던진 사람이 제2의 목격자인 셈인데, 왜 나를 쫓아온 거야?”

“모르는 척 하지 마. 그게 남철수라는 건 귀가 정상인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거니까.”

역시 철수의 위장은 쓸모 없었다.

“철수라면 이 근처에 너와 내가 모르는 CCTV를 심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선 못 죽이고 집에 가서 죽인다는 거야?”

“전에도 말했지. 우리 집 안에선 아무도 안 죽인다고. 그리고 철수가 아닌 너를 쫓은 건 처음부터 너와 협상하기 위해서일 뿐이야. 철수는 그걸 방해하려고 한 것이고.”

“철수가 다시 공격해 오면?”

“개가 그럴 용기가 있었다면, 내가 네게 수갑을 채울 때 기습했겠지. 하지만 그 녀석은 그럴 용기가 없는 애야.”

유라가 답변을 끝내자 둘 사이엔 불편한 침묵이 자리잡았다.

준구의 주머니에서 전동음이 들리자 준구는 무심결에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유라의 손목 또한 끌려간 탓에 유라는 준구를 노려봤다.

“미안, 전화 좀 받을게.” 멋쩍은 웃음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애쓰면서 준구는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유라가 준구의 휴대폰을 낚아채고는 화면에 적힌 조석빈이라는 이름을 보고는 자신이 전화를 받았다.

“지금 준구는 나랑 데이트하는 중이니까 방해하지 말고 내일 전화 걸어.”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끊었다. 유라는 아무렇지도 않게 준구에게 휴대폰을 돌려줬다.

“너, 무슨 협상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협상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는 건 안 들었어? 이게 최후 통첩 게임이면 네가 뭘 제시하든 난 거부할 거야.”

“안타깝게도 이건 최후 통첩 게임이 아니야. 아, 물론 네게 거부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행사하진 않을 거라 기대하고 있어.”

“이건 최후 통첩 게임이라기보다는 독재자 게임에 가까워. 그리고 난 네 생각보다 위험한 독재자라고.”

준구에게는 회피할 방도 같은 건 없어 보였다.

준구는 결국 유라네 집까지 연행되다시피 끌려왔다. 수갑을 찬 동안 다른 동네 주민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 유라 말대로 철수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유라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자기네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준구도 유라네 방에 들어오자 유라는 문을 닫고 수갑을 풀어주었다.

“의외네. 아직 협상도 안 했는데 수갑을 풀어주고.”

“할 말은 그게 다?”

“...응?”

준구는 자신의 손목을 어루만지다 유라를 쳐다봤다. 유라는 잡아먹을 듯한 무서운 눈빛으로 준구를 노려보다가 준구를 밀쳐 침대에 패대기쳤다.

“뭐... 뭐하는 짓이야.....”

준구는 독재자 게임이 설마 이런 걸 뜻하는 것인가 생각했다. 유라는 침대에 옆으로 누운 준구 곁으로 다가와 준구의 몸 위에 올라탔다. 자신을 짓누르는 몸무게가 현실임을 직시하라는 신호를 보내왔지

만 준구는 상황 파악을 못 하고 눈만 핑핑 돌리며 긴장하다가 유라가 주먹을 짝 쥐는 게 보였다.

“자, 잠깐!”

유라는 준구의 절규를 무시하며 주먹을 준구 얼굴 옆의 베개에 직격 시켰다. 준구는 눈을 질끈 감았으나 푹 하는 소리가 들려 자신에게 타격이 가해지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명백한 겁주기였다.

준구가 겁을 먹었다는 것을 인지한 유라는 씩 웃었다. 준구는 기분이 나빠져서 표정이 굳어졌다.

“훗, 그렇게 썩은 표정 짓지 마. 네 목숨을 두고 하는 협상인데 기분 좋은 표정 지어야 하지 않겠어? 자, 스마일~”

유라는 양손으로 준구의 볼을 잡아당기며 억지로 웃는 표정을 만들었다. 다른 상황에서 같은 행동이었다면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런 다른 상황이 아니었다.

“웃을 기분 아니니까 얼른 협상인지 협잡인지 끝내자. 독재자 게임이라며? 네가 뭘 제안하든 나는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입장 아닌가?”

유라는 준구의 얼굴을 놓아주었지만, 준구의 몸에서 떨어질 생각은 하지 않았다.

“거 참, 딱딱하게 받아들이네. 하지만 뭐, 그게 너다운 반응이겠지만.”

“답답하니까 좀 비키지.”

준구가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유라는 비켜주지 않았다. 준구가 억지로 빠져나오려고 하면 못 할 것도 없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협상 결렬은 확정이고, 두들겨 맞아 죽을 지도 모를 거란 생각이 들어가만히 있었다.

“쳇…….”

“얌전히 포기하고 일단 내 말부터 들어.”

“누워서 경청하는 건 처음이네.”

“요즘 너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의 흔적을 추적하는 것 같아. 저번엔 네게 두 달 유예를 줬지만, 이번엔 졸업식까지 유예를 줄 생각이야. 그 이후엔 나를 붙잡든 말든 상관없지만, 그 전에 수상한 행동 하지 마.”

준구는 자신 말고 유라를 추적하는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떠올려 보았다. 가장 먼저 기억나는 건 남철수였다. 철수 또한 유라의 살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니 유라가 경계해야 할 요주의 인물이다. 하지만

준구는 자신과 철수 외에 유라가 살인자인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람이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저번에 네가 두 달 동안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한 것은 그 대가가 있었기 때문이지. 내가 네 가방을 들어주고 넌 나를 내버려 두었어. 이번에 졸업식까지 유예를 준다면, 어떤 걸 네게 해줘야 하는 거지?”

“날 잡아넣으려는 시도만 안 하면 돼. 추가하자면, 혹시 다른 누군가가 날 잡으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저지하는 선에서 그치면 돼. 저지하는 시늉 정도만 보여도 상관 없어.”

준구는 유라의 표정을 낱낱이 살펴보았지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웃는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궁금하였지만, 딱히 억지로 웃는 것도 아닌 모양이었다.

“네게 보고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지하는 정도면 충분한 거야?”

“뭐, 보고해주면 고맙기야 하겠지만, 이제는 내가 그런 거에 일일이 신경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바빠질 거라서 말이지.”

준구로서는 김새는 조건이라 수락하는 척만 해도 이 기분 나쁜 집에서 벗어날 수 있어 보였다. 유라의 표정은 더 이상 웃지 않고 진지하게 준구를 쳐다보았다. 준구가 마음 속에 결단을 내린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다.

“좋아, 난 널 잡는 데서 손 뺄게. 대신 약속해줬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 내 쪽에서 내거는 조건이지. 일단 이 마을을 피바다로 만들지 말았으면 해. 그리고 남철수를 비롯해서 신설중학교 재학생 및 교사들은 건들지 말 것.”

“얼마든지 수락할 수 있어.”

유라는 침대에서 내려왔다. 준구는 자신을 짓누르는 무게감에서 해방되자 숨쉬기 편해졌음을 느꼈다. 준구도 침대에서 내려왔다. 유라가 손을 내밀자 준구는 악수에 응했다.

“협상은 체결되었다. 잘 가. 내일 보자.”

“그래, 내일 봐.”

준구는 유라네 집을 나서고 나서야 굳었던 얼굴 근육을 풀면서 참았던 웃음을 겨우 흘릴 수 있었다. 하지만 준구는 유라가 협상할 때 계속 웃고 있었다는 사실은 잊어버렸다.

#### 4.3

탐정은 목격자와 전학생과 함께 합숙을 하던 첫 날, 아침부터 사소

한 소동이 있었지만 그것이 일단락되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였다. 셋은 원탁에서 앉았다. 탐정이 목격자에게 좀 더 가까이 앉아서 이들 셋을 이은 선을 그리면 흡사 호리호리한 이등변삼각형처럼 보였을 것이다.

말이 좋아 합숙이었지, 모두 성실하게 학교 수업을 받는 학생이라서 누구 하나 서로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고 각자의 공부를 하고 있었다. 궁금한 게 있어야 질문을 하든 토론을 하든 할 텐데, 그런 것 없이 서로 요약한 노트만 주구장창 들여다보고 있던 것이다. 탐정이 처음에 상상했던 합숙의 왁자지껄함은 이 공간에서 보이지 않았다.

탐정은 손목시계를 확인하고는 얼추 세 시간 정도 공부했다고 계산하였다. 지금쯤이면 쉬자고 해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는 쥐고 있던 펜을 놓았다.

“벌써 점심 시간이 되었는데, 내가 요리해줄게.”

목격자는 탐정의 제안에 쥐고 있던 펜을 무의식 중에 놓쳐 버렸다. 허를 찔린 표정으로 탐정을 쳐다보던 목격자는 맞은 편에서 전학생이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수진이 요리 잘 해?” 전학생은 천진난만하게 질문하였다.

“아니, 그냥 라면 좀 끓이는 편…”

“거짓말 치지 마! 내가 요리할게.”

탐정의 대답을 거칠게 끊은 목격자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었다. 전학생은 목격자의 뒷모습을 보며 탐정에게 물었다.

“재 왜 저래?”

“내가 해준 요리를 먹은 적이 있거든……. 그게 좀 트라우마가 된 건가 봐.”

“그렇구나. 다른 애들도 네 요리 먹어 봤어?”

“아니, 그런 적은 없는 거 같은데.”

전학생은 빙긋 웃었다.

“수진은 요리 잘 하는 남편 만나야겠네.”

“그런 남자 드물잖아.”

“그래도 친구네 집에 식자재랑 요리도구를 써도 되냐고 묻지도 않고 척척 요리를 하는 정도면 잘 하는 편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전학생의 말에 탐정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만화로 표현한다면 탐정의 얼굴에 붉은 빛이 차오르다 입계점을 돌파해 머리 위로 버섯 구름이 터지는 그림이 역동적이면서 귀엽게 그려졌을 것이다.

탐정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다가 탁자에 무릎을 부딪쳤다.

“아야…….” “괜찮아?”

전학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탐정 쪽으로 다가왔다. 탐정은 별 것 아니라고 보란 듯이 웃었다.

“보시다시피 살짝 부딪친 것뿐이야.”

탐정은 살짝 별경게 변한 무릎을 구부리며 다리를 끌어안았다. 꽤 소리가 크게 났던 것 같지만 목격자는 탐정이 있는 탁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탐정은 역시 목격자가 사냥꾼과 사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했다.

“소리가 꽤 컸었는데 안 오네.”

탐정의 목소리에는 열은 아쉬움이 묻어나 있었다.

“준구도 부딪치는 소릴 들었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타입**이라 안 온 걸 거야. 큰일이었으면 내가 뭔가 조치를 취하고 준구를 불렀을 거라고 믿고 있던 거지.”

“준구는 역시 유라랑 사귀는 거겠지…….”

“아니, 내 생각엔 아닌 거 같은데.”

“…왜? 그간 둘이 같이 있던 시간이 늘어났는데. 거기다 둘이 서로 겨안는 모습도 봤었고. 학기 초부터 둘 사이에 꽤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게 보여.”

“확실히 이상한 기류는 흐르고 있지만, 그건 연애하는 사이에서 흐르는 기류는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단정지을 수 있어?”

“준구처럼 무뚝뚝한 아이는 복도에서 과감한 애정표현을 하는 데에 5년 넘게 걸릴 거야. 마음에 담고 있는 아이한테 고백하는 것만도 3년 정도는 걸릴 테고.”

“너, 전학 온 지 몇 개월 안 되었는데 사람 파악하는 건 빠르네…….”

전학생은 피식 웃었다. 탐정이 한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오히려 준구는 좋아하는 아이가 위기에 처할 때일수록 더 침착한 모습을 보일 거야.”

“이럴 땐 달려와주는 편이 좋은데.”

“네가 생각하기에 믿을 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탐정은 전학생이 던진 질문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란 걸 느꼈다. 좋아하는 아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달려와준다. 확실히 낭만적인 구석은 있다. 하지만 앞의 문장에 ‘앞뒤 가리지 않고’ 혹은 ‘만사 제치



고'라는 단어가 붙으면 의미가 달라진다. 물론 그런 단어를 붙이고도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탐정에겐 「 좋아하는 아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와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으로 보인다.

“다시 생각해 보니 준구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네.”

“무의식적으로도 이미 그렇게 결론 난 거 아니니.”

탐정은 이전에 목격자와 했던 대화가 떠올랐다.

—너 나를 얼마만큼 믿어?

—너 고지식하고, 누구한테나 잘해주려고 하고, 아무한테도 상처 주려고 하지 않고…….

—1학년 때부터 너랑 같이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널 못 믿으면 누구를 믿을 수 있냐고!

탐정은 끌어안은 다리에 얼굴을 파묻었다. 자신은 목격자를 단지 신뢰하는 수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었다. 그 이상으로 목격자라면 **서로** 평생을 의지해도 될 대상이라고 여긴 것이다.

“어이, 괜찮아?”

요리를 끝낸 것인지 목격자는 손에 직사각형 쟁반을 들고 있었다. 전학생은 탁상 위에 있던 책을 치웠다.

목격자가 쟁반을 탁상 위에 내려놓고 각자의 자리 앞에 알리오 올리오를 놓았다. 탐정이 고개를 들어 보니 목격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았다.

“소리 안 들렸어?” “들렸어.” “근데 왜 바로 안 왔어?”

목격자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한다는 투로 대답하였다.

“네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나를 불렀을 테니까.”

“파스타 잘 먹을게.”

동문서답 같은 대화였지만, 목격자는 탐정이 괜찮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빙긋 웃었다.

파스타를 먹으며 탐정은 자신이 탁자에 무릎을 부딪친 정도로도 이렇게 작지 않은 고통을 겪는데, 팔을 칼에 찢린 목격자는 어떠했을까 궁금하였다.

“그러고보니 어느샌가 붕대를 풀게 되었네. 방학 시작하기 전까진 계속 붕대를 감고 있었던 거 같은데.”

탐정의 말에 목격자는 자신의 팔을 이리저리 쳐다보았다. 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길게 그어진 게 아니라 폭 찢렸던 것이라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못 보고 지나칠 정도로 희미했다.

“뭘, 큰 상처였으면 병원에 더 오래 있어야 했을 테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붕대를 풀어주셨으니 괜찮을 거야.”

“웬지 트라우마를 건드린 건 아닌가 싶어 조마조마 했는데 의외로 덤덤하구나. 음, 하면 안 될 질문이 아니었나 보군.”

탐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 납득하였다.

“그럼 묻는 김에 여세를 몰아 좀 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웬지 귀찮은 질문이 쏟아질 것 같단 예감이 드는구만…….”

목격자는 파스타를 먹으며 탐정이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다.

“병원에 있었을 때엔 소문의 살인마를 만나서 유라를 구했다고 했는지.” 탐정은 착실하게 물어볼 질문을 머릿속에 정리하며 목격자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으음……. 그렇지.” 목격자가 어색하게 긍정하였다.

“그 땐 좀 냉정하지 못한 상태라서……, 게다가 유라한테 이해하기 힘든 내용의 전화까지 와서 묻고 싶은 것도 물어보지 못하고 넘어간 거 같은데, 당시의 일을 자세히 알고 싶거든. 대체 그 사람이 왜 너희들을 쫓았는가, 어떻게 네가 유라를 구하고 부상을 입었는가, 기타 등등.”

“질문은 하나씩 했으면 싶은데,” 목격자는 파스타를 마저 먹고는 전학생을 쳐다보았다. “혜원이도 듣고 싶어?”

“…말해주면 들을게.”

전학생은 그렇게 답하며 묵묵히 파스타를 절반 넘게 먹었다. 사실 남은 재료들로 만든 것이라 양 자체가 얼마 없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목격자는 파스타를 먹으며 시간을 끌었다. 쫓길 때도 입원했을 때도 이렇게 추궁당할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난 분명히 기억하는데, 네가 유라와 통화할 때 진실에 대해 이야기했지. 진실은 잔인할 때가 많다. 네가 했던 말이야. 그리고 잔인하더라도 물어뉘선 안 된다고도 그랬지.”

목격자는 실마 사냥꾼이 여기까지 염두에 두고 그런 통화를 했었나 생각이 들 정도였지만, 목격자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사태가 불리해지는 것은 사냥꾼 쪽이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이 자리에 있는 탐정이나 전학생이 위협해질 지도 모른다. 결국 이 자리에선 적당히 꾸민 말로 어물쩍 넘기는 게 최선일 것이다.

자신의 신념에 반(反)하는 말을 하게 되었지만, 실마 신념이 이렇게 쉽게 꺾여지는 건가 싶을 정도로 가슴 한켠이 찢어졌다.

“별로 말하고 싶진 않지만 네가 그렇게까지 원한다면야…….”

“아니, 별로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도 돼.”

“...응?”

탐정의 변덕에 목격자는 갈피를 못 잡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네가 무척이나 찡그린 표정을 잠시 지어서 해선 안 될 질문을 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해버렸거든. 더구나 진실이라고 해서 모두 말해줄 필요는 없어. 안 그래?”

“진실이라고 해서 모두 밝혀질 필요는 없다……?”

“진실이 모두 가치 있는 거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 어제 길을 가다가 스쳐지나간 행인의 이름을 내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건 전혀 몰라도 되잖아.”

“확실히 그렇긴 한데.”

“납득했으면 파스타 한 접시 더 줄 수 없니.”

전학생이 빈 그릇을 들어 보이며 목격자에게 말했다.

“아, 미안하지만 남은 재료 다 쏟아부어서 만든 거라…….”

“유감스럽네.”

전학생은 빈 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갔다.

“살해당한 사람이 연쇄 살인마라면 더 이상 살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앞으로도 사건은 발생할 거야.”

탐정이 의미심장한 지적을 하자 목격자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왜 그렇게 생각해……?”

“경화도 손쉽게 못 이기는 상대를 너희 둘이 쓰러뜨렸다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으니까.”

탐정은 그렇게 말하고는 마저 파스타를 먹었다.

#### 4.3.1 2037년 9월 2일. 수요일.

유라는 아침부터 얌전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무척 자연스러워 보였고, 어쩌다 준구가 유라와 눈이 마주쳐도 유라는 그저 눈웃음으로 화답을 해줄 뿐이었다. 저 정도로 자신이 원하는 표정만 골라서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것도 재주라면 재주요, 솔직히 소름끼치는 모습이었다.

“오늘따라 자주 쳐다보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

결국 너무 자주 힐끔 쳐다보는 준구에게 유라가 한 마디 해버렸지만, 유라와의 대화는 이후 하루 종일 특별한 건 아무 것도 없었다. 철

수가 유라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나 싶었지만, 철수도 평소처럼 행동할 뿐이었다. 다들 연극을 너무 잘 하는 것 같다고 준구는 생각했다.

준구는 도서관에 와서도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분명 제안을 수락한 이후로 준구는 자신을 짓누르던 살해 위협에서 해방되었다는 상쾌함을 다소 맛볼 수 있었다. 유라와의 협상은 결코 거짓이 아닌 모양이었다. 그러나 역시 자신이 언젠가 협상 내용을 파기할 것이며 그 이후에 둘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리게 된 것임을 알기에 이런 불쾌한 찝찝함이 생기는 것이었다. 자신이 이겨봤자 유라는 감옥에 갈 뿐이고, 자신이 지면 준구 자신은 죽을 수도 있다. 이겨서 얻게 되는 것도 유쾌한 게 아니고, 져서 잃게 되는 것도 여간 무거운 게 아니다. 비대칭적 보상을 두고 진행하는 게임인 셈이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준구에게 불리하다. 일단 준구의 기댓값이 유라의 기댓값을 넘어서지 않는 이상, 선불리 움직일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개인의 기댓값으로 이 문제를 생각할 수만도 없었다. 준구가 유라의 행위를 단죄하지 않는 한, 사회는 계속 피해를 입게 된다.

준구는 한숨을 푹 쉬고 서가 주위를 서성거렸다. 혹시라도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책이 있다면 해법을 참고할 심산이었다.

“어이.”

갑자기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놀란 준구는 책을 떨어뜨릴 뻔했다. 좌담실에서야 떠드는 게 가능하지만, 일단 준구가 있는 곳은 보존 서고이며 기본적으로 정숙하는 게 규칙이었다. 그러므로 누군가 용건이 있다면, 어깨를 짚거나 팔을 살짝 붙잡는 게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서수진은 그러지 않았고 준구는 서수진이 왜 남자와의 신체 접촉을 꺼리는 지도 알고 있었다. 평소엔 유쾌하고 활달하지만 이런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무의식은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

“1학기 때랑 분위기가 달라보여서.”

어차피 보존 서고 안에 둘 밖에 없어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대화했다.

“뭐가 달라 보여?”

“1학기 땐 뭔가 멍해 보일 때가 많았는데, 오늘은 제대로 책도 읽고 그러네.”

“곧 있으면 졸업이잖아.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읽어둘 소설이 있으면 일단 다 읽어보려고.”

“아무리 많이 읽어도 5권은 못 넘기겠네.”

“뭐? 50권은 아니고?”

들은 한 동안 침묵에 휩싸였다.

“어흠, 아무튼 난 이만 집에 가 볼 거니까,” 수진은 열쇠를 준구에게 던지며 말했다. “도서관 문 잠그고 집에 가.”

“그러지 뭐. 내일 봐.”

수진은 손을 흔들며 서고 밖으로 나갔다. 도서관에는 준구 혼자 남게 되었다. 예전 같으면 혼자 집에 가는 게 무서웠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준구는 유라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며, 협상을 준구가 먼저 파기하지 않은 이상 준구에게 위해를 가할 일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 준구는 밤 늦게까지 도서관에 머물다 가야겠다고 다짐하고는 서가에서 책을 한 아름 고른 책을 탁상 위에 옮겼다.

모처럼 오늘이 지고 밤이 늦을 때까지 기분 좋은 독서에 열중해 보려고 했지만 준구가 의자에 앉은 시점에서 그 결심은 무너지게 되었다.

“Excuse me.”

부드럽고 유창한 발음을 듣고 준구는 도서관에 찾아온 사람이 외국 인임을 알아차렸다. 물론 이 도서관은 마을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이용자들이 급감하는데다 이용 시간도 제한되어 있어서 지금은 원칙상 외부인이 출입해선 안 된다.

“We are in library. You should comply with rules that…”

“Not big trouble at all. I’m Sylvia. 아무래도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건 그쪽이 힘들 테니 한국어로 하죠.”

자신을 실비아라고 소개한 외국인 여성은 한국어 또한 매끄럽게 했다.

준구는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실비아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다. 왜 그녀가 도서관에 왔는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다.

“당신이 김하준 교수의 아들인 김준구……, 그렇지?”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묻고픈 말이 좀 있어.”

그녀는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준구로서는 그녀의 나이를 알기 어려웠다. 자신에게 무슨 용건이 있는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다.

“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그녀는 정장 주머니를 뒤지더니 지갑을 꺼내 거기서 신분증 카드를 집어서 준구의 눈 앞에 보여주었다. “수사 목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최대한 협조적으로 대답해줬으면

해.”

준구는 마른침을 삼켰다. 그녀가 보여준 것은 CIA 요원 신분증이었다. 평소에 누가 이런 걸 보여줬다면 위조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려 했겠지만, 차유라와 관계된 일일 것이라 생각하니 있을 수도 있는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

“요원이신데 민간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도 되는 겁니까.”

“영화를 잘못 본 거 아닌가 몰라.” 그녀는 피식 웃었다.

“나에 대해 깊이 알 필요는 없어. 굳이 궁금하다면 알려주겠는데, CIA 요원은 타국 수사 기관의 협조를 얻으면 현지에서 수사를 도울 수 있다는 점과 네게는 수사 협조 요청을 했으니 내 신분을 알려야 도리에 맞는 일이라는 점 등을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군.”

그녀는 준구의 표정을 관찰하였다. 준구는 상대가 자신을 탐색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이번에 내가 알던 동료가 살해당했거든. 폐에 문제가 있지만 무술 유단자였고, 꼬마를 상대로 죽어버릴 거라고는 도저히 생각이 안 들더라. 차라리 병원에서 죽는 게 그에게 어울리는 최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야. 근데 돌연 그가 살해당했어. 그는 누군가를 쫓고 있었고, 그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더라 말이야.”

“그 누군가는 누군가요.”

그녀는 한숨을 쉬더니 턱을 짚고는 지루하다는 표정으로 준구를 쳐다보았다.

“소년, 어설픈 연기는 지루하니까 솔직하게 털어놓자고. 그가 너를 만났고 죽었다는 건 잘 알고 있어. 경찰에선 네 정보를 얻을 수 없었지만, 날 무시하면 안 되지. 그의 목에는 날카로운 유리가 박혀 있었어. 유리에선 당연히 피가 묻어있었고, 샘플을 채취하면 DNA 검사는 식은 죽 먹기란 말이야. 근데 그게 네 DNA는 아니더라, 이 말이야.”

“수사 협조라기보다는 이미 다 짜놓은 추리를 맞는지 검토해보시는 것 같군요.”

“그렇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네가 범인이 아니라는 건 잘 알았으니 네가 그 날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누군가가 범인이란 거겠지.”

“그 누군가는 누군지 아직 모른다는 겁니까. 제 DNA는 어디서 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함께 있었던 누군가의 DNA는 확보하지 못하신 것이군요.”

“그 현장에 남아 있던 건 수십 년 전에 죽은 자의 머리카락이나 네

핏자국 정도 뿐이었지. 유리에 묻은 피로는 대조할 만한 대상이 거의 없었어. 그 방에는 수많은 사람의 흔적이 있었는데, 대개는 죽은 자거나 타지에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들이고, 그나마 이 동네에 사는 건 너 혼자다, 이거야. 유리에 묻은 피를 제외하면 모든 증거가 너를 범인으로 내몰고 있지. 하지만 네가 그를 찌르지 않았을 테니 네가 범인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당시 유라가 어떻게든 손을 써서 현장에 유라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수사 기관을 혼란시키는 가짜 증거를 잔뜩 남겨 놓은 것임을 준구는 알아차렸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진 짐작조차 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의 실언으로 그 현장에 두 명의 중학생이 내 동료와 대치 상태였음을 알아냈지. 그 두 명의 중학생 중 한 명인 네가 범인이 아니니 다른 한 명이 범인 아니겠나.”

준구는 실비아의 정체를 알 수 없어서 선불리 협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유라와 협상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자신을 시험하러 유라가 사람을 보냈다고 추측해도 좋을만큼 꺼림칙했다.

“훌륭한 판단이십니다. 하지만 자꾸 제 친구를 범죄자 취급하는데, 오히려 저는 당신의 동료가 범죄자였으며 우리는 정당 방위를 했으므로 이 수사 협조는 거부하겠다고 통보하겠습니다.”

실비아는 더 이상 턱을 괴고 있지 않았다. 지루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진지하게 준구를 쳐다보았다.

“그래, 그 자리에서 완전 무결하게 피해자는 너 혼자였을 테지. 하지만 그는, 내 동료 김한균은 이사장 살해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었다. 물론 진범이란 보장은 없지만, 이렇게 용의자 추적 중에 수사관이 사망해버리면 정황상 그래 보이잖아? 만약 네가 진범과 친하다는 이유로 감싼다면 그만 두는 게 좋아. 결코 이 사회를 위해 좋지 않고, 결국엔 너를 파멸로 이끌 거야. 진정한 친구는 잘못된 길로 함께 가주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가도록 충고해 주는 사람이지.”

“이사장께서 사망하신지 수 개월이 지났습니다. 타살 의혹이 있던 분도 아닌데 무슨 살해 사건이란 말입니까.”

“억지로 친구를 감싸지 말고 내 얘길 들었으면 해. 이사장 타살 의혹은 부검을 못 해서 증명할 수 없지만 정황상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아. 외상의 흔적은 없었을 테니 독살일 확률이 높지.”

“CIA에 오랫동안 근무하시더니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음모로 보이시나 보군요. 얼마나 더러운 삶을 살았는지 잘 알겠습니다. 이만 가

주시죠. 안 그러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이사장은 우리에게 뭔가 물건을 맡기려 했는데 장례식 이후 물건이 도난당했던 말이다. 네 결정이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어! 잘 생각해!”

준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서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실비아도 일어섰다. 준구는 실비아 쪽이 아니라 출입구 쪽을 보고 있어 몰랐지만, 실비아는 강압적인 수단이라도 써야겠다고 결심한 상태라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몇 초만 더 있으면 준구는 영락없이 실비아에게 잡힐 운명이었으나, 타이밍 좋게도 보존 서고에 휴대폰 진동이 울려 퍼졌다.

준구는 뒤돌아보자 실비아는 주머니에서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준구는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실비아는 평온하게 전화 통화를 받았다. 전화로 몇 마디 말을 들은 실비아는 전화를 끊고는 준구에게 다가갔다.

“혹시라도 마음이 바뀐다면 망설이지 말고 내게 연락해줘.”

“...알겠습니다.”

실비아는 준구에게 명함을 주고 초조한 기색을 보이며 도서관을 빠져나갔다. 난생 처음 CIA로부터 명함을 받은 준구는 명함이 어떻게 생겼는지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연락처와 소속이 적혀 있었는데 연락처는 군 부대의 기무 사령부였고, 그녀의 계급은 소령이었다.

### 4.3

병원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눈을 떴을 때, 주위는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시계를 보니 오후 9시였다. 분명 자신은 어떤 학생이 불러준 구급차에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 이후 의사가 과로한 것 같으니 충분한 휴식을 권했고, 망설임 없이 입원하기로 결심하였다. 본부에는 휴가를 신청하였다. 월요일 즈음이면 자신이 보던 주요 업무를 다른 요원이 분담해줄 것이다.

그러나 한가하게 쉬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쯤이 쑤시는 타입이라 과로 처분을 받아서 암전히 하루 종일 잠에 빠지긴 했는데, 막상 오후 9시의 병원에서 다시 잠을 청하려 하니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의사가 하는 말이 그저 안심시키기 위한 립서비스라는 것은 잘 안다. 어쩌면 자신은 오래 못 갈지도 모른다.

병원 구석에 있는 공중전화기에 가서 전화카드를 집어넣었다. 휴대폰 전화기가 만연해 있는 지금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주요 시설물에는 공중전화기를 없애지 않았다. 비효율성을 떠나서 소령에게는 시의적



절한 정책이 아닐 수 없었다.

메모를 꺼내 자신이 전화를 걸어야 하는 곳의 번호를 꼭꼭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수신음이 몇 차례 가더니 상대가 전화를 받았다.

“늦은 저녁에 죄송합니다만 통화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죠. 안 그래도 오늘 안 오신다가에 김이 빠졌던지라.』

“곧 주무셔야 할 테니 질문만 몇 가지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소령은 메모지를 훑어보며 질문을 시작하였다.

“일단 타살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부검을 요청했지만 유가족들의 반대로 화장이 진행되어 무척이나 유감스럽습니다.”

『부검하는 건 아무래도 꺼려지지요.』

불쾌한 음색이 수화기 너머로 전해졌다.

“뭘, 누굴 비난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단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더 시간을 소모해야 하는 게 아쉬워서 한 말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거라면 그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진범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타살임을 확정짓고 하시는 말씀 같군요.』

협조해 줄지도 모를 사람이 통명스럽게 나오면 골치가 아파진다. 소령은 문제가 발생할 조짐을 미리 느끼고 대화를 선회했다.

“죄송합니다. 본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시 일이 있어 장례식장에 가보지 못했는데, 혹시 이사장의 유언이나 유서 같은 게 있다고 전해들으신 게 있습니까.”

『고인께서 평소 유가족들에게 자신의 사후에 재단 문제나 신설중학교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중을 밝혀둔 터라, 딱히 유언이 없어도 평소 신념대로 처리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저보다는 유가족에게 물어보시죠. 제가 아는 건 학부모가 아는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학교 운영을 교육청에 일임한다고 유가족들이 말씀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인께서야 교육 문제에 종사해온 전문가지만, 유가족들은 교육 문제에 문외한이니 선불리 말할 수 없는 일이지요.』

“따님을 신설중학교에 전학 보내기 전에 이사장과 접촉한 것으로 하는데,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얘기해주실 수 있습니까.”

『자세한 건 기억나지 않아 세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주로 제 딸의 빠른 학교 적응을 위해 반 배정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이야기 오간 게 없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런 질문이지만, 잘 생각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인께서 누군가에게 타살당했다고 가정하면, 누구에게 타살당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까?”

『저는 그 분과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 딱 한 번 만난 게 전부인 사람이지요. 하지만 제 딸이 학교에 게시된 대자보를 보니 꽤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게 다입니다.』

“흠, 그렇군요……. 민감한 질문에도 흔쾌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소령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통화 내용에도 몇 가지 실마리를 찾으려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역시 부검을 못 해 본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소령은 퇴원한 후에 이사장의 집을 조사해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얻을 수 있는 단서는 거의 없을 것이란 체념 담긴 예상을 했다.

#### 4.3.2

정체를 알 수 없던 실비아는 결국 명함만 남긴 채 보존 서고를 나가 버렸다. 준구는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실비아와 남철수가 엇갈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실비아는 도서관을 완전히 나가고 철수가 보존 서고에 들어왔다.

“역시 도서관에 있었네.”

“뭐, 그렇지.”

“아까 저 여자는 누구야? 외국인이던데.”

“그냥 책 보러 온 사람이야.”

준구는 적당히 얼버무리며 자리에 앉았다. 철수도 준구 옆자리에 따라 앉았다.

“하지만 아무 것도 안 빌려가던데.”

“찾는 책이 없던 모양이야.”

“그래……? 그보다 어제는 별 일 없었냐?”

“나야 별 일 없었지.”

“용케 도망쳤네.”

“아니, 붙잡혔어. 하지만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 있잖아.”

“어떻게 살아남은 거야? 실마 일종의 거래를 했대든지 그런 건 아니겠지?”

역시 보통 눈치 빠른 녀석이 아니라고 준구는 생각했다. 하지만 살인마에게 붙잡혔는데 멀쩡하게 살아남은 걸 보면 누구나 뒷거래를 했을 거란 의심을 할 것이다.

준구는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유라는 앞으로 자신을 안 건드리면 더 이상 날 위협하지 않을 거래.”

“준구는 결국 목숨과 정의를 맞바꾸었구나.”

철수는 남 얘기하듯이 말을 내뱉었다. 비아냥거릴 의도는 없었다는 걸 알지만 준구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이 부끄러워졌다.

“뭐, 개인이 어떻게 하기엔 힘든 일이지. 네가 유라를 못 잡아들이면 나라도 잡아넣겠어.”

“그건 그만 두는 편이 좋아.”

“너, 너, 너, 설마…,”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구의 양 어깨를 대체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이런 강한 힘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세계 붙잡았다. “차유라의 미인계에 넘어갔구나!”

“차유라도 네 정체 알더라. 마스크 낀 거 다 소용없었어.”

“뭐?!”

본인 판에는 완벽한 위장이라 생각했는지 여과없이 기겁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체 무슨 이야기야?”

도서관 보존 서고에 모습을 드러낸 또 한 명의 학생은 조석빈이었다. 철수도 준구도 피가 머릿속에서 짹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석빈은 그 둘의 순간적인 패닉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다가왔다.

“어… 어디까지 들었어?”

“미인계에 넘어갔다는 것만 들렸는데. 그러곤 갑자기 ‘뭐’라고 외치는 소릴 들었어. 그게 다인데.”

석빈은 둘 앞에 와서 둘을 번갈아 쳐다봤다.

“준구하고 얘기하려고 왔는데 안 될까.”

“뭐……, 안 될 건 없어.”

석빈은 쭈뼛거리며 준구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묘하게 철수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기분 탓인가? 재가 날 무지 의식하는 거 같은데.”

“이건 준구와 나만의 얘기니까 넌 집으로 가!”

“허허, 애가 뭘 모르네. 준구는 나랑 초등학교 동창이거든? 준구한테

고민 상담하면 결국은 내 귀에 들어오게 되어 있지! 내가 집에 돌아가도 소용없으니 여기서 듣고 가지.”

“아냐, 내가 아는 준구는…”

“내가 너보다 준구랑 더 친하다~.”

“니네는 초등학생이냐…….”

준구는 고개를 절레절레 가로저었다.

“준구, 너 그렇게 입이 가벼웠어?”

“넌 유치원생이냐…….”

“그래서 상담 내용이라는 게 대체 뭐야?”

준구의 한탄은 짝 무시하고 철수가 적극적으로 물어보았다. 아무래도 방해꾼이 열린 여길 나가줘야 유라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이다. 철수는 흥미 있다는 눈빛으로 석빈을 쳐다보았고, 별수 없이 석빈은 거기에 넘어갔다.

“실은… 준구가 연애 경험이 있으니까…” “없는데…….”

준구가 석빈의 오해를 조그만 목소리로 부인하자 석빈의 동공이 눈에 띠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뭐? 아까는 미인계에 넘어갔다면서? 전에는 둘이 부둥켜 안기도 했잖아!” “보긴 봤구나…….”

유라가 파놓은 계략에서 자신은 아직 못 벗어나고 있음을 준구는 새삼 깨달았다.

“그건 말이지! 준구가 유라의 유혹을 구렁이 담 넘듯이 넘겨버렸단 뜻이야! 그리고 유라가 준구에게 안긴 건 유라의 컨디션이 나빠서… 현기증을 느껴서 그랬던 거야!”

“그렇구나…….”

철수의 변론에 석빈은 그래도 넘어가버렸다. 준구는 석빈이 보이지 않을 위치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워 철수를 칭찬하였다.

“아무튼 준구는 신사적이고 뭐든 다 알 거 같으니까, 내 상담에 응해주었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알았어. 이유는 충분히 알았고 본론을 말해줄래?”

“실은 나…, 현경화가 좋아.”

기세 좋게 말하던 철수는 찬물을 순간 뒤집어 쓴 것처럼 조용해졌다.

“하… 하하… 현경화라~ 매력적이지. 키도 크고 성격도 털털하고 얼굴도 반반하고… 하하…”

“너, 제법 고장난 인형처럼 말할 줄도 아는구나.”

준구는 철수의 상태, 특히 정신적인 부분이 걱정스러웠다.

“남철수, 너는 경화랑 예전에 사귀다 헤어졌잖아? 내가 상담한 다음에 경화랑 사, 사, 사귀다고 해도 별 말 없을 거지!?”

석빈도 꽤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말투로 철수에게 물어봤다.

“니네들 장래에 개그 콤비해라…….” 준구는 무심코 나직이 말했다.

“물론이지! 경화가 핫김에 너랑 사귀어도 나랑은 상관없다, 이 말!”

준구는 철수가 은근히 경화에게 미련을 두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 어깨를 짚고 무리하지 말라고 충고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 둘이 서로 대화하는 모습은 좀처럼 본 적이 없어서 잠깐 지켜보았다.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일 수도 있지만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같은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친해진다는 법이 없고, 준구 자신도 아직 동갑 중에 모르는 녀석이 여럿 있었다.

“뭐라도 말을 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가장 자연스러울지 모르겠어.”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데 어떤 방식이 자연스럽고 어떤 건 아니다, 그런 건 없어. 진심을 담아 부딪쳐보면 오늘 당장이라도 고백하면 돼.” 석빈이 준구를 보며 한 질문에 철수가 대신 답했다.

“내 생각에도 그게 가장 좋긴 한데.”

준구가 동의하자 석빈은 움츠러들며 중얼거렸다.

“그런 게 가능했으면 진작 했어…….”

“덩치는 산만한 게 성격은 정반대로 엄청 소심하구나.”

“우…….” 철수가 비아냥거리듯이 말했지만 정말 소심한 석빈은 변변찮은 반론도 못 펼쳤다.

“말이 좀 심하잖아. 모두 너랑 같은 성격은 아니지.”

“사람은 특정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걸까? 특정한 성격이나 모습을 좋아하게 되는 걸까?”

“호의라면 어떤 성격이나 모습에 가질 수 있겠지만, 모든 호의가 연애감정으로 발전하는 건 절대 아니지.”

“그 말은 일단 호의를 얻어야 연애하기 수월해진다고 받아들여도 되나?”

“음, 그래.”

준구는 철수가 이렇게 진지해지는 모습을 근래에 본 적이 드물어서 계속 경청하였다. 석빈도 조용히 철수가 말하길 기다렸다.

“이번엔 조석빈에게 물어보지. 현경화는 어떤 성격이나 모습을 좋아할까? 너는 그 범주에 속하는 사람일까? 만약 그걸 모르고 부딪치면

아무리 좋은 타이밍에 하는 고백이라도 소용없어. 하지만 만약 그걸 알고 부딪치면 지나가다 툭 내뱉는 말로도 연애를 시작할 수 있어.”

“나보단 철수 쪽이 더 나은데?”

준구가 멧쩍은 미소로 석빈에게 말했다.

철수는 거기서 기세를 누그러뜨릴 생각이 없던 모양이었다.

“다시 한 번 물어볼게. 첫째, 현경화는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둘째, 너는 그것에 부합하나?”

“경화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감이 안 잡혀.”

“그럼 곤란하지. 그건 네가 경화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연애를 시작하는데 성공하더라도 중간에 계속 뼈걱거리게 될 지도 몰라. 상대를 알고 시작하는 연애가 서로에게 행복한 연애야.”

“그렇게 잘 아는데 왜 경화랑 헤어진 거야?”

준구도 궁금한 질문을 석빈이 했다.

“일단 그건 내 첫 연애였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 그리고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이 잡히더라고. 난 개와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단 걸 깨달았고, 결국엔 헤어지자고 한 거야.”

석빈이 아는 가벼운 철수와는 너무 다른 모습에 병진 표정으로 철수를 보고만 있었다. 하지만 준구는 철수가 원래 가벼운 성격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가벼워보이는 건 최근 2년 반 사이에 생긴 변화일 뿐이었다.

“하지만 미련이 남지?”

“미련? 글썄, 있을 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난 이걸로 충분히 만족해. 경화도 그럴 거야. 그래서 다시 사귀자는 말을 안 하는 것이고.”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야. 경화가 어떤 아이인지부터 파악하도록 해. 그러면 네가 바라는 돌파구가 생기겠지.”

“가는 거야?”

“준구랑 얘기하려고 왔는데, 내일 얘기해도 되니까 이만 집으로 가야겠어. 난 평소에 일찍 귀가하는 편이거든.”

“오늘 많이 배웠어. 고마워.”

“그럼 다음에 빵이나 하나 사 줘.”

철수는 그렇게 말을 남기고 도서관을 나갔다.

철수가 퇴장한 뒤에도 한동안 석빈은 혼자 곰곰이 생각하였다.

“근데 경화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석빈은 가장 근본적인 방법론적 문제에 봉착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빌려줄 만한 게 하나 있는데.”

준구는 석빈에게 신설중 여학생 보고서를 건네주었다. 그걸 건네받은 석빈은 훑어보며 연신 감탄했다.

#### 4.3

교수는 비행기 안에서 노조 위원장에게 이메일을 써서 전송했다. 퇴원을 축하하며 자신은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물론 자신이 참여한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요약했다.

교수는 노트북을 덮고 문고본 책을 한 권 꺼내서 천천히 읽었다. 젊은 시절에 읽었다는 책을 읽다보면 잊고 있던 걸 떠올릴까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다.

“착륙이 끝났습니다. 비행장 밖에 택시가 기다립니다.”

지상에 착륙한다는 느낌이 들지도 않았는데 조종사가 착륙이 끝났음을 알렸다. 교수는 책을 덮고 노트북 가방에 노트북과 책을 넣었다.

비행기에서 내린 교수는 비행장을 걸으며 어두운 밤공기를 들이마셨다. 야간 비행 후에 귀국하였지만 시차가 거의 없어 그다지 피곤하지 않았다. 교수는 주차되어 있는 택시를 보고 조종사가 말해준 택시라고 생각하고는 거기에 탑승하였다.

“어서 오십시오.”

운전수는 택시를 능숙하게 몰았다. 교수는 운전수가 아주 젊어 보인다고 생각했다. 교수가 행선지를 말하지 않았지만 운전수는 교수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 거침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몇 분 정도는 교수가 아는 길이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자주 가지 않는 길에 접어들었다. 교수는 이 도시를 잘 알지만 택시가 이 길을 가면 집까지 가는 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잠시 소령님께서 교수님을 뵙고 싶어하십니다.”

교수는 잠시 자신이 아는 장교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소령 계급장을 단 사람이 없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소령 계급을 단 자는 없네만.”

“전 그저 명령 받은 대로 가는 중입니다.”

“소속을 대라. 관등성명.”

“당신은 제 직속 상관이 아닙니다. 관등성명을 댈 이유는 없습니다.”

“자네가 군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건 민간인 납치나 다

름 없네. 누가 명령했나.”

운전수는 백미러를 힐끗 보고는 말했다.

“곧 만나실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진 말아주십시오.”

“참 신사적인 납치로구만.”

교수가 비꼬는 말에도 운전수는 말없이 택시를 몰았다. 교수는 이것저것 더 물어봐도 순순히 대답해줄 것 같지 않아 가만히 있었다. 자신을 노리는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상, 걱정해봤자 시간낭비일 뿐이다.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조종사가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자라는 점이다. 오늘 일이 끝나면 노조 위원장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해고시키게 만들어야겠다고 여겼다.

“아무 말 없이 가는 건 지루하니 음악이나 틀어주겠나.”

“죄송하지만 도착했습니다. 제 임무는 여기서 끝입니다. 벤치에 앉으신 분이 제 상관입니다.”

택시가 도착한 곳은 한적한 놀이터였다. 교수는 정면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에게 용건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놀이터에 발을 들였다. 뚜벅뚜벅 걸어서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을 내려다보니 어디서 본 것 같은 여성이었지만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반갑습니다, 김하준 씨. 서서 이야기하면 다리가 아프실 테니 옆에 앉으시죠.”

금발 벽안에 칠흑같은 정장을 갖춰 입은 소령이 물끄러미 교수를 쳐다보았다. 교수는 소령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고서야 상대가 진짜 군임이 아님을 떠올렸다.

“요즘 CIA는 요원을 군대에 보낼 때 소령 계급부터 시작시키는가.”

교수는 소령 옆에 나란히 앉았다.

“많이 늙었군.” “당신은 많이 썩었군요.”

교수의 도발에도 소령은 한 마디도 지지 않고 되받아쳤다.

“반쯤은 군인 맞습니다. 제대로 소속도 있고, 거느린 부하도 있죠. 한가할 때엔 작전이나 통신 업무를 돕기도 하죠.”

“퇴직할 때가 다 된 모양이군. 요원이 한가하다는 건 무능해졌단 증거야. 반쯤 군인이면 군인 연금도 반만 받으면 되겠군.”

“자꾸 그렇게 도발적인 말만 하면 신변에 해로울 겁니다.”

“죄없는 민간인을 죽이기야 하겠나.”

“죄없는 민간인…….”

소령은 교수의 말을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따라 말했다.

“전화로도 나와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번거로운 수단을 쓴



건 무슨 까닭인가.”

“그야 뻔한 거 아니겠어. 네 썩어빠진 면상을 보면서 잘 지내나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소령의 말투가 조금 거칠게 변했다.

“네 취향은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인가보군.”

“어찌 자신이 부패하고 더럽다는 건 부인하지 않네. 스스로 인정하는 건가?”

“내가 걸어온 길이 결코 깨끗하지 않다는 건 지인을 통해 들었지.”

“남의 논문을 베낀 것도 아니고, 부당한 수단을 써서 그 자리에 오른 것도 아닌데 가슴 펴고 살아도 되지 않은가.”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되었겠지.”

소령은 시시하다는 듯이 혀 끝을 차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잡담은 여기까지만 하겠어. 나도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말이야.”

“나도 얼른 집에 가서 두 발 뻗고 자고 싶군.”

“그럼 내가 묻는 말에 순순히 답변해 주었으면 하는군. 요즘 이 도시에 연쇄 살인 소문이 돌고 있어. 실제로 살인이 발생한 건수는 극히 적더군.”

“살인 같은 충격적인 일은 사람들의 인식에 공포를 심어주니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횡수는 중요치 않소.”

소령은 교수를 노려보며 말했다. 다른 이들이라면 기가 질릴 법한 눈빛이었지만, 교수는 그런 눈빛을 자주 보아온 듯이 대수롭지 않게 마주보아주었다.

“그럴 거라 예상했지만 역시 덤덤한 반응이군……. 말해 봐. 어디에서 어디까지 당신이 알고 있지?”

“난 그저 한낱 경제학 교수일 뿐, 살인 사건에 연루될 만한 짓은 아무 것도 한 게 없소.”

“그렇게 시치미 댄 거라 생각은 했어.”

“그래서 납치 후 고문이라도 계획하기라도 했는가.”

“그건 아니지.”

소령은 일어나서 기지개를 한 번 폈다. 소령은 자리에 앉지 않고 교수에게 계속 물었다.

“당신이 일본에 가서 그쪽 사람들과 접촉했다는 건 알고 있어. 무슨 일을 꾸미고 있지?”

“궁금하면 직접 조사해 보게. 나한테 묻는다고 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는 건 잘 알 텐데.”

“당신을 뒤흔들 순 있어.”

소령은 어깨를 으쓱 들었다. 교수는 얼굴을 조금도 들지 않고 눈동자만으로 서서 말하는 소령을 쳐다보았다.

“일본으로 간 건 처제의 부탁 때문이었겠지. 재혼할 생각인가?”

“설마. 처제는 내가 돌봐야될 사람에 불과해.”

“너와 같은 입장의 남자들은 대개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결혼 생활을 만끽해보고 싶은 감정도 있잖아?”

교수는 소령을 무섭게 노려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소령의 일그러진 미소에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이다.

“너 따위와 말을 섞는 게 아니었다.”

소령은 그 말에 바로 대꾸할 수 없었다. 교수는 경멸하는 눈빛을 소령에게 보내고는 자리를 떠나려 했다.

“하하, 이봐, 농담이라고. 자네가 처제와 재혼하다니, 농담이 지나쳤어. 미안해. 그런 건 꿈속에서라도 봐선 안 될 장면이지.”

소령은 킁킁 웃으면서 교수의 표정을 살피었다.

“그렇게 쳐다보지 마. 네가 나한테 구혼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

소령은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교수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교수와 대등한 위치에 섰다. 소령은 교수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교태로운 눈빛을 건넸다.

“진지하게 나랑 결혼하는 건 어때?”

“실없는 소리 할 거면 그만 꺼져라.”

소령은 교수의 멱살을 잡고는 뺨을 한 대 후려쳤다. 교수의 입가에 피가 났지만 경멸하는 눈빛이 두려워하는 눈빛이 아니라 노려보는 눈빛으로 바뀌었다. 소령은 겁을 집어먹진 않았으나 교수의 태도에 반항심과 비슷한 대항심이 생겼다. 우위는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무리하게라도 이 자의 눈빛을 뜯어고치고 싶었다. 마음대로 이 자를 굴복시키고 싶었다.

“내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 보상은 아무 것도 아니지!”

“넌 영원히 가해자일 뿐이다. 넌…, 그래, 너는 살인자다.”

그래서 소령은 교수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 “…….”

소령은 권총을 꺼내어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자신을 노려보는 교수의 미간에 총구를 대었다.

“말로 상대를 못 이기는 자는 금세 무력에 의존한다고 하더군.”

“이 새끼가……!”

교수는 허탄한, 허망한, 허무한, 그리고 공허하기 짝이 없는 눈빛으로 소령을 쳐다보았다.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는 눈빛이었다. 삶에 더 이상 미련이 없어 보이는 얼굴이었다.

얼른 방아쇠를 당겨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소령은 슬라이더를 뒤로 당겼다. 평소라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터였으나 소령의 절제를 무너뜨리는 눈빛에 이길 수 없었다. 이 녀석을 죽여서 저 눈빛에서 해방되고 싶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의 무의미함을 절절히 깨닫고 남은 생애의 모든 시간을 공허하게 살아갈 것만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경멸하는 눈빛도 노려보는 눈빛도 소령을 두렵게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오직 이 자의 공허한 눈빛이 소령을 삶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만들 것 같아 두렵게 하였다. 방아쇠에 힘을 준다.

“위험해요!”

어디선가 소녀의 목소리가 들리고는 소령이 있는 쪽으로 연막탄을 여러 개 던졌다. 급해서 마구 던지는 게 보였지만 비살상용이기 때문에 소령은 눈 앞의 소녀가 자신의 적이라는 것과 자신이 별다른 치밀한 계획도 없이 핫김에 교수를 죽일 뻔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시야를 연기가 가리기 전에 소녀를 처리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소령은 권총을 들어 소녀를 겨누었다. 하지만 소령은 자기 밑에 깔린 자의 존재를 잠시 잊고 있었다. 교수는 소령의 손을 쳐서 조준을 빗나가게 하였다. 메마른 총성이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교수는 재빨리 자신을 짓누르는 소령을 밀쳐냈다. 소령은 교수가 도망치려고 마음 먹으면 자신이 아무리 두들겨 패도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소령은 상대가 더 심하게 저항하지 않도록 교수를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았다. 어차피 교수는 사살이나 제압의 대상이 아니다.

마침내 연기가 시야를 가리고 교수는 자리를 이탈하였다. 소령은 하는 수 없이 자신도 이 자리를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놀이터의 연기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때 즈음, 그곳에는 어느 누구도 없었다.

#### 4.3.3

석빈이 귀가하고 준구 또한 도서관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다. 실비아의 정체는 무엇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하며 그녀가 건네줬던 명함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성명,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필요한 정보만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는 아무 꾸밈이 없는 매우 무미건조한 명

함이었지만, 그 또한 그녀의 성격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준구는 이해했다.

밤이 깊은 거리를 예전 같으면 조심스럽게 걸었을 것이다. 그러나 협상을 끝내고 걸어보니 너무나 평화로워서 김이 썰 정도였다.

준구는 앞만 바라보며 골목길을 걸었다. 걸어서 30분이면 집에 도착한다. 생각을 정리해보기에 적당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어지던 생각이 도돌이표에 이르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무수한 시간이 있어도 결론에 영영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분명 자신이 어딘가 놓치는 게 있는 건 아닌가 싶어 다시 검토해 보는데, 뒤에서 땀박질 소리가 들려왔다. 준구는 유라가 자신을 뒤쫓는 걸로 순간 착각하여 뒤도 안 돌아보고 뛰기 시작했는데, 뒤에서 “선배~!”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준구는 그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라는 데 안도하고 멈춰서 뒤를 돌아보니, 거기엔 키가 작고 곱상한 외모에 서예를 잘 한다는 것 외에 별다른 특징은 찾을 수 없는 문예부 후배인 조석준이 있었다.

“깜짝 놀랐잖아.”

“진 선배 반응이 더 놀라운데요.”

“근데 네 집은 저쪽 아니냐. 이 근처엔 구멍가게도 없어.”

“아……. 실은 놀이터 쪽에 볼 일이 있어서요.”

“그래? 그럼 조심해서 가라.”

준구가 발을 옮기기가 무섭게, 석준이 준구의 옷깃을 잡았다.

“왜 붙잡냐.” 얼추 이유는 알 것 같았지만 일단 물어보았다.

“사실 저, 여기 지리 잘 몰라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석준이 대답했다. 사실 준구도 정신 놓고 걷다가 이 골목길에서 헤맬 때가 가끔 있었다.

“애초에 놀이터에 무슨 용무가 있던 거냐.”

“부장님이 급히 와보라고 하셔서…….”

우물쭈물 망설이던 석준은 준구가 더 보챌 것을 예상해서 미리 사정을 털어냈다.

“약도 같은 건 사진으로 첨부해주지 않던가?”

준구의 지당한 의문에 석준은 휴대폰을 들어 준구에게 보여주었다. 합숙할 때도 수진이 그려준 약도를 본 적이 있었지만, 이건 정말 심하다 싶은 그림이었다. 이렇게 헤매게 될 사람이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면, 그냥 위치를 아는 사람만 오라고 하는 편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림 숨씨 여전하네…….”

“저, 그래서 선배님은 여기 지리 잘 아시는 편이잖아요. 놀이터까지 데려다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길 안내를 해주면 그 대가로 넌 뭘 해줄 거냐.”

준구는 딱히 깊이 생각하지 않고 특 내뺨은 질문에 석준은 당황해하며 무엇을 거래 조건으로 제시할지 열심히 머리를 굴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준구는 이마를 가볍게 짚으며 안쓰러운 음색으로 말했다.

“그냥 해본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마. 내 친구 남철수란 애가 이런 질문 하도 많이 해서 나도 물든 것 같아.”

“다행이네요.”

“뭐가 다행이나. 그 놈한테 물들었다니깐.”

“죄송합니다…….”

“뭐, 나도 너도 깊이 생각지 않고 말한 거니 서로 비긴 셈이야. 가자. 나도 수진이를 좀 봤으면 싶기도 하고.”

준구는 앞장 서서 걸었다. 극히 드물게 쓰는 대화 기술이지만, ‘그냥 해본 말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다행이다’란 반응이 나올 걸 예상하고, ‘다행이다’란 말이 나오기 전에 부정적인 말을 덧붙여서 ‘다행이다’란 말이 나올 타이밍이 엉뚱해 지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수진이한테 안 통하지만 후배한테 통했다. 대화 기술이 먹힌 것에 준구는 말없이 주먹을 짝 쥐며 자축했다.

놀이터로 가려면 골목길에서 몇 번쯤 모퉁이를 돌아야 하지만, 놀이터에서 집까지 먼 편이 아니니 길 안내 해준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었다. 그리고 수진이 무슨 이유로 후배들을 소집하였는지도 궁금하였다.

준구는 석준과 별다른 이야기도 나누지 않고 놀이터를 향해 걸었다. 놀이터에 가까이 왔다고 생각한 곳에선 안개 같은 연기가 잔뜩 끼어 있었다. 준구는 누가 이런 짓을 했나 생각해 봤지만, 차유라 이외에는 떠오르는 얼굴이 없었다.

“위험할 지도 몰라. 물러서자.”

준구가 석준을 자신의 뒤로 오게 했다. 준구는 굳이 위험이 있는 곳에 발을 들일 생각이 없었다. 협상 중에는 유라를 잡는 시도에 불응하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실비아가 자신을 찾아온 게 일종의 테스트였다면 이번 연막도 테스트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

앞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에 준구는 침을 삼키며 가슴 부근에

주먹을 들었다. 누구라도 기습적으로 공격하면 지더라도 몇 대 반격해줄 요량이었다. 이윽고 연막 속에서 사람이 한 명 튀어나왔다. 준구는 차유라를 예상했지만 튀어나온 사람은 서수진이었다.

“준구, 네가 여긴 웬일이야?”

“그러는 너야말로 여긴 웬일이냐. 더구나 여긴 네 집에서 반대편이잖아. 죽히 한 시간쯤 걸리는 곳일 텐데.” 준구는 방어 자세를 풀었다.

“내가 먼저 물어봤어.”

수진의 당찬 모습에 준구는 자신이 대답하기 전엔 수진도 대답해주지 않을 거라 여겼다.

“난 귀가하다가 석준이 만났어. 네가 석준이한테 여기 오라고 했다면? 근데 석준이는 여기 지리를 몰라서 헤매다가 날 만났고 내가 여기 데려온 거야.”

“즉 귀가하는 도중에 온 거란 말이네.”

“그래, 그러니 이젠 네 차례야. 여긴 웬일이냐.”

수진은 팔짱을 끼고 말했다.

“근처를 지나던 문예부원이 이곳에 뭔가 소란스런 일이 벌어지는 거 같다고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와봤는데 연기가 마구 나는 거 아니겠어. 사건의 냄새겠다 싶어 조사 좀 하려고 그랬지.”

“그렇다고 후배들을 위험에 끌어들이면 되냐…….”

“오고 싶은 사람만 오라고 한 거야.”

“그것도 일종의 강요가 될 수 있단 생각은 안 해봤냐.”

“선택할 기회 정도는 줘야지. 그게 강요가 되었다면 우리가 선배 노릇 잘못된 걸 테니 반성해야지.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권위주의적으로 군 적은 없다고 기억하는데.”

타당한 말이지만 그래도 준구는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을 겪어본 사람이었다.

“너 자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단 생각은 했으면 해.”

“...미안.”

수진은 순순히 반성했다. 아무래도 자신의 안전보다는 호기심을 해결하는 편을 우선시한 것을 깨달은 것 같았다. 안전이란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운 건 아닌가 싶어 준구는 걱정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차유라가 여기에 없는 것 같아 준구는 뒤늦게 안심했다.

“그래서 뭔가 알아낸 거 없어?”

“글쎄, 이 연기는 연막탄 때문에 생긴 거 같고, 바람이 안 불고 있어

서 연기가 당분간 안 걸릴 거 같아. 그 외엔 알아낸 게 아무 것도 없어.”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 위험하니까.”

다른 사람이 위험하다고 귀가를 종용했다면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고 넘어갔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준구는 진짜 위험을 겪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고, 그 충고는 수진에게 목직하게 다가왔다.

“알았어. 집으로 돌아갈게. 약속할게.”

“저는 여기 왜 온 겁니까…….”

“헛걸음한 거지.”

석준은 풀죽은 목소리인데 비해 준구는 당당한 목소리라 두 사람의 분위기가 대조되었다.

“서예가, 헛걸음한 건 아니게 할 수도 있어.”

“쓸데없는 말로 애 현혹하지 마.”

“네가 여기까지 오면서 뭔가 미심쩍게 여겨지는 게 있으면 다 말하면 돼. 정말 사소한 거라도 좋아.”

수진은 석준에게서 사소한 단서라도 얻을 요량으로 말했다. 준구는 이 연기를 누가 일으켰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마을에 공포를 불러 일으키는 사람이 차유라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은연중에 차유라는 연기를 뺏아서 사람을 처리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유라를 돕는 동료들이 시체를 치우려면 시체가 잘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놀이터를 뒤덮은 연기는 차유라의 짓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설령 차유라가 했다 치더라도 살해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도망치기 위해 연기를 피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준구는 생각했다. 그래도 준구는 수진이 어떻게 추리하나 싶어 석준이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다.

“여기까지 오면서 우연찮게 준구 선배와 만났어요.”

“어차피 난 저녁 늦게 귀가하는 편이니까 이상하지 않아. 네가 그 시간에 골목길에 온 게 이상한 거지.”

“그리고 제가 뛰어서 준구 선배한테 가니 준구 선배가 뒤도 안 돌아보고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제가 선배를 불러세우지 않았으면 아마 집까지 질주할 기세였어요.”

“그게 다야?”

준구는 석준이 유라와 마주쳤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싶어 긴장했지만 수진은 석준이 한 말을 곱씹어보았다. 영락없이 실마리를 조합해보는 탐정과 같은 모습이었다.

“...준구, 여름방학 전에 연쇄살인마로부터 도망쳤었잖아.”

“그랬지.” 거짓말은 아니라서 준구는 태연했다.

“연쇄살인마는 죽었던 거 아냐? 아니면 왜 그렇게 도망쳐?”

준구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못 찾았다. 김한균을 연쇄살인마로 인식하면 수진이 생각하는 것처럼 준구의 행동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무마하지 않으면 수진이마저 위험에 끌어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준구는 유라가 실비아를 보내서 자신의 속내를 떠보는 일을 획책할 수 있다고는 생각해도 유라가 수진을 보내서 자신을 시험해 볼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다.

“트라우마라는 건 말이지, 사건이 해결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재입대하는 꿈을 꾸는 경우가 많다잖아. 재대를 하여도 트라우마는 남는다는 거지. 그리고 너도 트라우마는...”

수진이 땅을 쳐다보며 팔짱을 낀 채로 팔꿈치를 가볍게 긁었다. 충분히 알았다는 चे스쳐였으며, 그만 말해 달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이제 집에 가자.” 준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네가 하는 말은 논리적으로 틀린 게 없어 보여. 하지만 너, 수상해.”

수진은 이미 준구가 사건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의심한 것임을 준구는 눈치챘다. 그 말은, 수진이 이 마을에 퍼진 소문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확실한 물증은 없겠지만 의심스러운 정황들은 계속 모아뒀을 지도 모른다. 여기서 선불리 맞받아치면 준구는 수진의 공세 앞에 직면할 수도 있다.

“저기, 선배님, 상대를 의심하는 건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석준은 자기 때문에 수진과 준구가 말다툼을 시작한 계기를 제공했다고 생각했는지 잔뜩 움츠러든 기세로 말했다.

“괜찮아. 우린 신뢰로 뭉친 문예부니까.”

준구는 자신을 제외하고 소문을 조사하자는 토론과 투표도 있었고, 수진이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채로 말했다. 물론 준구는 소문의 중심에 유라가 있다는 걸 알지만, 문예부 부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문예부를 믿고 있었다.

“그래, 신뢰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야.”

수진은 모든 사실을 알아내면 다 함께 공유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아내기 전까진 자신들이 하는 일을 준구에게 알려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들이 각자의 지향점을 내세운 말들은 기묘하게 맞물려서 대화를



형성했다. 하지만 그런 대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단지 허위와 위선, 그리고 기만뿐이었다.

그들은 잡담을 주고 받다가 각자의 집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 4.3

검객은 평소처럼 하교한 뒤 옷을 갈아입고 집밖에서 운동 삼아 달렸다. 달리기 코스가 매일 똑같으면 길을 외우기에는 좋겠지만 쉽게 지겨워지기 때문에 대체로 3일에 한 번은 달리기 코스를 바꾸는 편이었다. 검객이 이번에 달리기로 정한 코스는 학교를 거쳤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골목길을 어떻게 지나느냐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검객은 학교에 다다라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골목길로 누군가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누군지 확신이 서지 않아 골목길 모퉁이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검객은 골목길을 지나가는 게 누구인지 관찰했다. 일단 한 명은 목격자였고 뒤이어 목격자를 쫓아가는 사람은 서기였다. 둘 다 검객이 자신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검객은 목격자가 늦은 시각에 귀가하는 편이며, 지금 걷는 방향도 목격자의 집쪽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서기의 집은 학교를 중심으로 정반대에 있었다. 어찌 보면 서기가 목격자를 미행하는 걸로 비칠 수 있지만, 서기가 목격자와 가까워지자 목격자는 부리나케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선배~!”

서기가 목격자를 대놓고 부르자 목격자는 그제야 멈춰서 뒤를 돌아봤다. 둘은 곧 뭔가 대화를 하는 듯이 보였으나 검객의 위치에서는 그 둘의 대화가 들리지 않았다. 검객은 들키지 않을 위치에서 계속 관찰할 수 있음을 다행으로 여겼다.

그들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더니 목격자는 그의 집이 아니라 놀이터 쪽으로 걷기 시작하였다. 검객은 그냥 못 본 체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흥미가 생겨서 그들의 뒤를 몰래 따라갔다. 미행하면서 내린 가벼운 결론은, 뒤에서 습격하면 저항조차 제대로 못 할 정도로 그들이 미행에 무방비하다는 점이다.

놀이터에 거의 다 도착하자 검객은 놀이터 일대에 퍼진 짙은 연기에 놀랐다. 이런 날씨에 안개가 낄 리는 없었고, 유독 놀이터 일대에만 연기가 퍼져 있어서 누군가 연막탄이라도 터트린 건 아닌가 의심될

지경이었다. 검객은 지금 마을에 퍼진 소문이 마냥 뜬소문이 아니며, 목격자가 여름방학 이전에 겪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문의 주인공은 잡히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검객은 목격자와 서기가 탐정과 접선하는 모습을 훑쳐보기까지 했지만 대화가 거의 안 들려서 빙 둘러서 그들 셋이 보이지 않게 연기 속, 즉 놀이터 한 가운데로 왔다. 그들 셋은 자기네끼리 하는 대화에 신경을 집중한 모양인지 검객이 연기 쪽으로 간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다.

검객은 그들의 대화가 살짝 들리는 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걸었다. 마침내 검객은 그들 셋의 은밀한 대화를 들키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였다.

대화 내용은 그리 복잡하지 않았다. 탐정이 목격자를 허점을 찌르면 목격자가 맞받아치고 다시 탐정이 목격자를 의심하는 패턴의 대화였다. 움츠러든 서기가 둘을 말리고서야 그들 셋은 각자의 집으로 귀가하기로 정한 모양이었다. 도중에 목격자와 탐정이 신뢰 운운한 것은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었다. 애초에 신뢰를 내세울 것이라면 그런 대화 내용이 전개되지 않고 각자가 아는 정보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형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검객은 어째서 그 둘이 여태 사귀지 않고 2년 넘게 허송세월했는지 조금 짐작할 수 있었다.

검객은 탐정의 뒤를 밟으면서 단 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엿보았다. 탐정이 목격자랑 서기와 헤어지고 혼자서 길을 걷게 되고서야 검객은 탐정의 뒤에 바짝 다가갔다.

“어두운 골목에 아가씨 혼자 걸으면 위험하지.”

“히!” 깜짝 놀란 탐정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서 뒤돌아서 엉덩방아를 찧어버렸다.

“아..., 미안. 많이 놀랐나보군.”

검객은 탐정에게 손을 내밀자 탐정은 그 손을 잡고 일어섰다.

“당연히 놀라지……. 근데 언제부터 내 뒤에 쫓아온 거야?”

“언제부터이려나. 석준이가 준구 뒤쫓을 때부터였었다.”

검객은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다. 탐정은 턱을 짚으며 추리를 위한 단서를 얻기 위해 질문을 던졌다.

“석준이가 한 말은 사실이야?”

“석준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못 들었어.”

“자기가 준구한테 다가가니 기겁하면서 도망치려고 했더라는데.”

“기겁까진 아니고 반사적으로 도망친 건 사실이지. 하지만 겁쟁이라서 그런 건 절대 아냐.”

“전문가 의견은 아주 많은 참고가 되지. 고마워.”

검객은 이리저리 퍼즐을 끼워맞춰보는 탐정을 미소로 바라보았다.

“아까 네가 준구보고 수상하다고 했지만, 내 눈엔 너도 수상해.”

“어떤 점이?”

“대개 저런 연기를 보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우선 아닐까.”

“그러고보니 저기엔 경찰이 보이질 않았네.”

“저 연기는 얼마 안 가 걷힐 거야. 내가 연기 속에서 너희들 대화들을 때 서서히 연기가 사라지면서 네 뒷모습이 흐릿하게 보이더라고. 이제 와서 경찰이 와도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을 거야.”

“근데 왜 준구랑 석준이는 내가 내 뒤에 있는 걸 못 알아차린 거지?”

“연기가 사라질 즈음에 너희들 대화가 다 끝났기 때문이야. 사람은 뭔가에 집중하면 다른 것들은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 집중력과 관찰력이 동시에 뛰어난 사람은 극히 드물지. 그보다, 네가 어떻게 수상한지 말해볼까 하는데.”

탐정은 마른침을 삼켰다.

“뭐, 일부러 나한테까지 숨긴 건 아니라고 생각해. 하지만 네가 하는 행위를 보고 떠오른 게 하나 있지. 바로 소문을 추적하고 있다는 거지.”

“역시 경화는 못 당해내겠네.”

탐정은 평소보다 기운 빠진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검객이 저렇게 추리를 맞춰버리면 탐정이 아무리 변명해도 숨겨질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애써 부정하지도 않았다. 검객은 그런 탐정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생각엔 지극히 위험한 행동이다. 더 깊이 발을 들이밀지 말도록 해. 그러다 다른 사람도 끌어들이 가능성도 높으니까.”

검객은 진심어린 충고를 했지만, 탐정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이미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 건가 보군.”

검객은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다.

“진상을 알고 싶은 사람만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본인들이 나서서 조사하는 거니 위협에 처해도 본인들 책임이라는 건가. 그래선 안 되지. 네가 그렇게 나서면 네 후배들도 선불리 네 의견을 거스르기 힘들잖아. 노파심에 하는 말인데, 권위주의적

이지 않았든지 선택할 자유를 줬든지 그런 말은 하지 마.”

불과 몇 분 전에 탐정이 목격자에게 했던 말이다.

“완벽한 선택할 자유란 건 환상에 가까워. 만약 그렇게 선택할 자유를 주고자 한다면 선택하려는 사람들이 모두 동등해야 해. 하지만 지금까지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고, 너와 후배들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어. 그건 지위지. 그래서 내가 권위주의적으로 굴지 않았더라도 네 후배들은 네 행동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하지만 일단 일이 벌어졌으니 너를 더 탓하는 건 쓸데없는 시간낭비일 것 같고, 우리 우정에 조금도 득이 되지 않겠지. 꽤 오래 조사를 했을 거 같은데, 뭔가 짚이는 게 있으면 내게도 공유해 주지 그래. 너희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나도 네가 벌이는 일에 조금 장단을 맞춰줘야겠는데.”

“고, 고마워…….”

“하지만 꼭 준구에게도 상황을 알려주도록 해.”

“안 그래도 조만간 그럴 생각이야.” 탐정은 검객을 올려다보았다.

“뭔가 짚이는 게 있긴 한가 보군.” 검객은 탐정을 내려다보았다.

“그건 다음주에 얘기해 줄게.”

둘은 더 이상 소문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며 귀가했다.

#### 4.3.4 2037년 9월 3일. 목요일.

아무리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고는 해도, 역시 중학생은 중학생이라고 준구는 생각했다. 유라가 저지른 범행을 목격한 지도 벌써 5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유라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아무 것도 정할 수 없었다. 준구는 자신을 성숙한 지식인이라고 자신을 뽐내고 싶지만, 아직은 더욱더 성장해야 하는 소년에 불과했다. 이런 것과 더불어, 교실 내의 난잡한 분위기가, 우리는 아직 어리고 더 성숙해야 한다는 준구의 생각을 부추겼다.

이런 난잡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반장인 남철수였다. 친구들 사이에 둘러싸인 철수는 어디서 주위들었는지 불명확한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있었다. 준구는 철수 근처에 앉아 있어 별수 없이 철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문을 들었다.

“이제 슬슬 이 마을의 살인마가 붙잡힐 지도 몰라.”

준구는 이미 살인마의 정체를 알고 있어서 흥미가 동하지 않았지만, 학우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다.

“이번에 경찰에서 수배 중인 마약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동료를 찌르고선 달아났다나 봐.”

“소문의 살인마는 증거를 안 남기는 주의 아닌가.”

준구는 수진에게서 들었던 정보로 탄축을 걸었다.

“그건 도와주는 동료들이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이번엔 동료를 죽였다니까?”

주변에서 계속 이야기해봐라는 재촉 때문에 준구는 감히 철수가 하는 말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

“수배범은 환각 상태에서 동료를 찌르고선 우리 마을 쪽으로 달아난 모양이래. 그 이후로는…” “오늘도 교실이 소란스럽구나.”

교실 문을 열며 한 마디 날린 사람은 현경화였다. 학우들은 경화가 등장하자 금세 조용해졌다. 반장이 해야할 역할을 총무인 경화가 대신 하는 걸로 보였다. 인기가 많아 보일 외모를 갖추었지만 특유의 성격 때문에 위압감은 충분했다.

준구는 철수의 팔을 검지로 쿡쿡 찌르며 물었다.

“그래서 도망친 이후 어떻게 되었는데?”

“글쎄, 도망자 신세로 전략해서 빈 건물로 보이면 거기서 잠을 자고 낮에는 산 속에서 시간을 때운대.”

“그럼 그 빈 건물은 학교도 해당되는 건가.”

철수의 말에 그리 질문한 건 준구가 아니라 경화였다.

경화는 자리에 앉으며 철수의 대답을 느긋하게 촉구했다.

“수업 시작하려면 아직 시간 좀 남았으니까 얘기해 봐. 난 진지해.”

경화는 평소와 똑같은 말투를 썼지만 조금 다른 분위기를 발산했다. 유라는 책을 읽다 말고 둘 사이를 번갈아가며 쳐다봤다.

“아마도 해당되지 않을까……? 밤 새도록 학교에 있는 사람은 당직 교사뿐일 테니, 빈 교실에 들어가서 신문지 깔고 누워 잘 수 있겠지.”

“그럼 운 없게도 우리 학교에 잠입해올 가능성이 있겠네.”

“음… 확률적으로야 그렇지만 진짜 올 것 같진 않은데.”

“원래 나에겐 안 벌어지겠거니 싶은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는 게 현실이란 것이지. 비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해 보는 것이 재난 대비의 첫 걸음이다.”

준구는 경화가 하는 말이 하나같이 와닿는 말이라 가슴 깊이 새겨들었다. 그러나 교실에 담임인 이백향이 들어오자 경화는 입을 다물었고 준구는 경화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추측할 수 없었다.

검객은 아침에 얻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도서관으로 갔다. 후배들이 좀 더 지도해 달라고 부탁하였지만, 검객은 사냥꾼에게 자신의 역할을 위임하였다.

도서관 안으로 들어오니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탐정의 모습이 보였다. 거기엔 역시나 목격자 또한 있었고, 그 외에도 다른 부원들이 있었다. 검객이 좌담실의 문을 열고 들어오자 모두 검객을 주목했다. 검객은 덩덤하게 탐정 앞으로 다가갔다. 신문을 탐독하던 탐정은 검객의 등장으로 신문을 덮었다.

“좌담실엔 무슨 용무야?”

“소설을 찾고 싶은 게 있는데 제목이 기억나지 않아서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 검객이 적당히 생각해두었던 구실을 말하자, 탐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 그럼 내가 찾아줄게.”

“신작이어서 도서관엔 없을 거야. 서점에 있을 걸.”

탐정은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곧바로 결정했다.

“별 수 없네. 애들아, 나 먼저 집에 갈게.”

탐정이 가방을 들고 검객과 함께 좌담실을 나가자 후배들이 작별 인사를 건넸다. 검객은 유독 목격자가 탐정을 수상쩍게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나, 지금은 탐정을 밖으로 데려가는 데 집중하기로 마음 먹고 그 눈빛을 애써 무시했다.

도서관을 나오자 해질녘의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하며 뛰어노는 학생들이 보였다. 검객은 체육관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느라 운동장이 방과후에 붐비는 모습은 좀처럼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저들에게 저것이 일상일 터인데, 검객에게는 무척 낯설게 느껴졌다.

“넌 저런 모습 자주 봤는가.”

“나도 오랜만이긴 한데 저기에 누가 주장이고 누가 공격수인지 정도는 알아.”

검객과 탐정처럼 하교를 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졸업한다는 게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

“나도 그래. 영~원히 초등학생으로 남아 있을 거 같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내년이면 고등학생이 될 나이가 되었네.”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지. 넌 오늘 하루 보람찼어?”

“하루는 잘 모르겠지만 내 중학생 시절은 보람차고 의미 있었어.”

검객은 미소 지으며 동의했다. “나도 그래.”

교문을 빠져 나온 둘은 여전히 잡담을 주거나 받거나 하였다. 주변

에 학생들이 드문 길에 이르러서야 검객은 본래 꺼내려던 화제를 언급할 수 있었다.

“짐작하고는 있겠지만 날 불러낸 건 단순히 서점에 가려는 목적에서만 아니다. 오늘 오전에 남철수로부터 한 가지 소문을 접했는데, 지명수배된 마약사범이 현재 도주중이며 빈 건물에 숨어다니는 걸로 추정되더군. 매번 숨을 곳을 옮기기 때문에 우리 학교로 올 가능성도 있어.”

“그럼 지금부터라도 잠복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잠복하기에 앞서 우선 그 마약사범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정도 위험한 인물인지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 혹시라도 총기를 소유했다면 우리가 나서지 말고 발견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편이 나아.”

“만약 상대가 총기를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럼 내가 제압할 수 있어.” 검객은 무척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래도 상대는 일단 살인자이고, 상대의 무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데…….”

“수진아, 난 지금 서점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집으로 가고 있어. 바로 무장을 갖추기 위해서야.”

탐정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검객을 쳐다봤다.

“집에 총이라도 있니.”

검객은 시원스레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하지만 나한테는 익숙한 무기지. 활과 화살, 그리고 목검이다.”

검객은 자못 의기양양한 태도로 말했다. 탐정은 검객의 실력을 못 믿는 바는 아니지만, 자신의 불안함을 드러내면 검객의 자신감이 흔들릴까봐 그저 떨떠름하게 웃었다.

“그래도 일단 무장을 갖추면 서점에 가볼 생각이다.”

“아무래도 그것들 들고 서점에 가는 건 좀 민폐이지 않으려나…….”

“서점에 회원 전용 보관함이 있다. 거기에 잠시 보관하면 돼. 서점 내부로 진입하기 전에 다른 쪽 문으로 들어가면 있으니 민망할 일도 없을 테지.”

검객에게도 대책이 있다는 걸 안 탐정은 더 이상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 4.3.5

경화가 서수진을 데려가고서 어느덧 네 시간 가량이 지나 좌담실에

는 준구 혼자만 남아있었다. 준구는 도서관의 불을 끄고는 열쇠를 챙기고 문을 잠겼다. 교무실로 가서 열쇠함에 열쇠를 집어넣고는 칠판에 적힌 당직교사가 누구인지 살펴보았다. 오늘의 당직 교사는 준구네 반의 담임인 이백향 선생인 듯하였다. 웬지 이백향 선생이 자주 당직을 도맡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준구는 교무실을 빠져나와 복도를 걸었다. 주변에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아 나름대로 안심하였다. 쓸 일은 거의 없지만 휴대폰도 확실히 챙겼다. 배터리도 꼭 차 있었다. 게다가 차유라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틈틈이 운동도 하기 시작하였다. 해 놓을 수 있는 준비는 다 해 놓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학교를 빠져나온 준구는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장을 보러 시장이 있는 남쪽으로 내려갔다. 음악을 들으며 걷고 싶었지만, 배터리를 닳게 하는 짓은 하고 싶지 않았다. 전력회사에 갔던 날,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서 후에 배터리 A/S를 받아 봤는데, 배터리 성능 자체에 문제가 없단 소리를 전해듣고서, 불안감에 아예 새 배터리를 두 개 사 버렸다.

슬슬 부친이 입국할 때도 되었지만, 아직까지 식사나 집안 정리 문제는 모두 준구 본인이 도맡아서 해야 했다. 사실 중학생이 된 이후로는 거의 모든 집안일을 준구가 담당했기에 부친이 출국했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실질적으로 없던 것인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있든 없든 자신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자신에게 아버지는 대체 무슨 존재인 것일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와 동거하는 것뿐일까.

준구는 시장에 가면서 그다지 하고 싶지 않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래서 준구는 앞에서 후드를 푹 눌러쓰고 걷는 행인이 자기에게 거의 부딪칠 듯이 아슬아슬하게 걷는 것을 못 보고 있었다. 그러나 행인의 증얼증얼거리는 소리 때문에 준구는 앞을 보게 되었고 부딪치기 직전에 행인을 피할 수 있었다. 행인은 준구와 부딪칠 뻔한 것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계속 비틀비틀 걸었다.

준구는 말을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단념했다. 상대가 흑시라도 마약 사범이면 자신은 크나큰 위협에 처하게 되고, 상대가 평범한 시민이라면 크나큰 무례를 저지르는 셈이다.

다행히 아직 장을 보기 전이니 가진 짐이라고 해봤자 가방 안에 든 책 한 권이 전부였다. 준구는 문득 아침에 철수와 경화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다. 지금 만약 상대가 도주중인 마약사범이고 신설중학교



로 가고 있다면, 당직 교사인 이백향 선생과 마주치지 않으리란 보장은 할 수 없었다.

준구는 다시 학교가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상대를 미행해 보기로 한 것이었다. 상대는 준구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한채 신설중학교 건물 입구로 들어가버렸다. 준구는 기어이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는 결론을 내리며 우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다.

### 『NO SIGNAL』

준구는 휴대폰 액정에 뜬 믿기 힘든 문자를 보았다. 배터리가 그 때 처럼 순식간에 줄어들진 않았지만, 신호가 안 잡히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방해 전파라도 내보내는 모양이었다. 그 때처럼 똑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반복하였다. 이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지만 만약 우발적 살해 경력이 있는 마약사범이 이백향 선생과 조우하게 되면, 백향의 목숨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준구는 마른침을 삼키며 교문 안으로 발을 들이밀었다. 준구가 잠시 망설이는 사이에 신원 불명의 행인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아무도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준구는 전후좌우를 수시로 두리번거리면서 일단 백향의 안전을 위해 교무실 쪽으로 걸었다. 문이 닫힌 교무실 앞에서서 준구는 심호흡을 한 차례 한 다음 문을 천천히 밀어서 열었다. 불이 꺼진 교무실엔 사람의 윤곽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정수기 불빛만이 교무실의 음산함을 줄여주고 있었다.

준구는 숙직실을 발견하고는 노크를 해 보았다. 하지만 응답이 없었다.

‘설마 당한 건가?’

준구는 식은땀을 흘리며 숙직실 문을 있는 힘껏 열었다.

숙직실 안에는 한 쌍의 남녀 교사가 TV 앞에서 열심히 대전 격투 게임을 즐기고 있다가 갑자기 쳐들어온 학생을 쳐다보며 어안이 병병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물론 그 모습을 본 준구 또한 어안이 병병한 표정을 지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준구는 경직된 분위기를 깨기 위해 먼저 말을 꺼냈다.

“어....., 중요한 일인가 보구나.”

백향은 게임기를 종료시키며 숙직실에 학생이 온 전례가 없음을 떠올렸다.

“앉아서 얘기하자.”

3학년 2반 담임인 물리 교사는 준구에게 자리를 권했다. 하지만 준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

“용건만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건 위험해요. 외부에서 학교로 잠입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래도 마약사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여길 피해야 해요.”

두 교사는 준구의 말을 듣고서 자리에 일어나 동시에 외투를 걸쳤다. 하지만 준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말이 나왔다.

“준구야, 난 네 말을 믿는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야할 필요가 있어. 넌 집으로 가렴.”

“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릴 하시는 겁니까……. 상대는 동료를 죽였다는 의혹도 있어요!”

준구가 흥분해서 소리쳤지만 백향은 침착하게 준구를 쳐다보았다.

“냉정하게 생각해. 그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네 친구 중 누가 그 자를 감시하고 있니?”

“아뇨, 하지만…”

“만약 여기서 우리가 경찰에 선불리 신고했는데 그 자가 학교를 벗어났다면, 경찰이 학교로 오는 사이에 다른 어딘가에서 범행이 발생할 수도 있어. 학교는 단순히 경유지일 뿐일지도 몰라. 그럼 누가 그 범행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지?”

“하지만 제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도 신호가 안 잡혔단 말이에요.”

두 교사는 각자의 호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파가 잡히는지 살펴보았다.

“준구야, 무슨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신호가 잘 잡혀.”

“일시적인 전파 방해가 있었을 지도 모르죠. 물론 위법하긴 합니다만, 범죄자한테 법이 중요하겠습니까?”

물리 교사는 준구의 말을 부정하지 않고 숙직실 책상 서랍을 열어 목걸이 형태의 끈 달린 호루라기를 세 개 꺼냈다. 그리고는 백향과 준구에게 하나씩 나눠주고 자신 또한 목에 호루라기를 걸었다.

“만에 하나라도 급박한 상황에 놓이면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 그럴 땐 있는 힘껏 이 호루라기를 불어. 그럼 내가 달려가서 그 마약사범인지 뭔지 흠뻘 두들겨 패줄게.”

미답지 못했지만, 그래도 일단 교사가 자신의 말에 진지하게 반응해줘서 다행이란 생각을 하였다.

“이백향 선생님은 여기 1층부터 3층까지 조사하세요. 저는 식당을 조사하겠습니다. 준구야, 넌 운동장, 도서관, 체육관을 조사하렴. 혹시

마약사범이 눈치채지 못하면 각자의 위치에서 우선 경찰에 신고한 후 나머지 두 명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합니다.”

물리 교사는 자진해서 가장 위험한 곳을 선택하였다.

“20분 동안 찾아보고 안 보이면 다시 교무실로 모입니다. 그때쯤이면 학교에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고 괜히 신고해봤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지도 모르니까요.”

백향은 그렇게 말하며 먼저 출발하였다.

“준구야.” 물리 교사는 뒤따라 출발하려는 준구를 불렀다.

“네 용기에 감사한다.” 물리 교사는 준구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숙직실을 나갔다.

준구는 가방을 숙직실에 놓고 얼른 교무실을 빠져나왔다.

어둠이 짙게 깔린 운동장에는 사람은커녕 축구 골대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운동장을 배회해봤자 얻을 수 있는 건 없으므로 일단 체육관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체육관은 넓고 비바람이나 추위를 피할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가 침입해오면 금방 들키는 곳이다. 준구가 범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설령 체육관에 발을 들이밀었더라도 다른 은신할 장소를 찾으러 돌아다닐 것이다. 체육관 문을 연 준구는 벽을 더듬어서 스위치를 켰다. 하지만 역시나 아무도 없었다.

준구는 스위치를 끈 다음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은 서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숨을 곳이 굉장히 많았다. 도서관 문을 열자 우선 보이는 것은 어둠뿐이었다. 좌담실도 보존 서고도 투명한 유리벽으로 막혀 있어서 불만 켜면 웬만큼은 보인다. 준구는 1층 복도 불을 켜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일단 좌담실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

그 다음으로 준구는 보존 서고 쪽으로 가 보았다. 여기서부터는 서가가 잔뜩 있어서 직접 걸어서 확인해 보아야 한다. 준구는 긴장을 풀기 위해 심호흡을 몇 차례 한 뒤 보존 서고 문을 열었다. 복도에 불을 켜긴 했지만 보존 서고쪽 불은 켜지 않아서 열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보존 서고 깊숙이 들어갈수록 어둠은 짙어졌다. 물론 사람의 윤곽만 확인하면 바로 도망칠 심산이어서 매우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서가 사이를 일일이 눈으로 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자 역시 도서관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 빠른 걸음으로 마지막 서가가 있는 곳까지 걸어갔다. 마지막 서가와 벽 사이에도 사람이 없었다.

준구는 안심을 하며 되돌아가려고 마음먹었을 때, 보존 서고로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준구는 마지막 서가와 벽

사이의 좁은 틈에 들어갔다. 누가 들어왔는지 확인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준구는 창문을 연 다음 밖으로 탈출할까 생각해봤지만, 그러려면 상대의 시야에 노출되어야 한다. 상대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준구 쪽에 다가오고 있었기에 준구는 상대를 놀래킨 다음 도망치기로 결심하고 상대가 다가오길 초조하게 기다렸다.

이윽고 상대가 준구가 숨어있는 서가쪽에 다다르자, 준구는 격한 기세로 밖으로 불쑥 튀어나와 상대를 놀래켰다.

상대는 엄청나게 놀랐는지 뒤로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다. 신기하게도 둘 다 소리를 지르진 않았다.

“어……, 수진이었냐. 왜 네가 여기에……”

“너야말로 왜 여기 있어?”

수진은 일어서며 엉덩이를 툭툭 털었다. 하지만 정말 놀라긴 했던 것인지 눈에서 눈물이 살짝 글썽해졌다.

“시간이 얼마 없어. 학교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마약 사범일 가능성이 높아. 우린 그가 어디 있는지 찾고 있어. 넌 왜 여기 온 거야? 경화랑 서점에 갔던 거 아니었어?”

“아……, 그게…….” 수진은 말하기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처번에 놀이터에서도 넌 현장에 있었고, 이번에도 넌 여기에 왔어. 우연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지. 이유가 있는 거야. 혹시… 내가 알아선 안 될 이유라면 설명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여긴 위험하니 나가자.”

준구는 수진의 손을 무심결에 잡으려고 하였지만, 수진이 손을 내빼자 곧 자신이 얼마나 크나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다른 친구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수진이한테는 그렇게 해선 안 되었던 걸 아주 잠시 잊었다. 사태가 너무 급박했다고 변명할 수는 없어, 자신의 무신경함이 싫어졌다. 어쩌면 자신이 섬세하게 신경쓰지 못했기 때문에 수진은 자신에게 편하게 속내를 털어놓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에 이르자 준구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미안……. 미안해. 잘못했어.”

“아……, 아니야. 괜찮아. 지나간 일이야. 네 실수가 아냐.”

수진은 눈가를 비비며 말했다.

“나가자. 여기가 위험하다는 것만은 알아줘.”

준구가 먼저 앞장 서서 걸자 수진도 뒤따랐다. 수진은 서서히 거리를 벌리며 앞으로 곧장 걷는 준구를 뒤쫓아 몇 번을 망설이다가 손목을 잡았다. 딱딱하고 따뜻하며 한 손으로 쥐기에는 굵은 손목에 놀라서 곧바로 놓칠 뻔했지만 수진은 그 손목을 놓지 않고 있는 힘

껏 잡았다. 준구는 수진의 손이 부드러우며 손가락이 가늘다는 것을 보면서 알고 있었지만, 직접 닿고 보니 그 실체가 더 생생하게 각인되었다.

“역시 네게 알려야 할 거 같아.”

“어떤 걸……?”

“이사장이 사망한 이후로 문예부에서 나에게 찬동하는 후배들을 모아 마을 곳곳에서 수사를 벌였어. 수상한 일이 있으면 서로에게 연락해주고, 위험하다 싶으면 도망친 다음 경찰에 신고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었던 거야.”

“그래서 놀이터에서 내가 있었던 거네…….”

준구는 그 상황을 납득할 수 있었지만 수진이가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면서 자신에겐 여태껏 안 알려줬는지는 모르고 있었다.

“알려주지 그랬어.”

“미안. 하지만 네가 제일 심하게 반대할 거라 생각해서.”

“문예부에게 참여하는 자 모두의 민주주의란 것은, 참여하지 않는 자에겐 발언권조차 말할시키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일단 참여할 기회 정도는 줘야 공평하지 않을까.”

“그거 최철규 선배의 문예부 모토였는데.”

수진은 옛 추억이 생각난다는 듯이 킁킁 웃었다. 하지만 준구를 잡은 손에선 힘을 빼지 않았다.

“너한테도 여러 번 알려줄까 생각했어.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 올해 네가 너무 수상한 행동을 자주 해서…, 이것도 변명이겠지만, 여러 모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라 나 나름대로 퍼즐 조각을 끼워맞추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개입했으면 퍼즐은 더 엉망이 되었으려나.”

“난 너도 퍼즐 조각 중 하나로 여겼어. 지금은 확신하진 못하지만.”

준구는 수진의 예리함에 내심 감탄하였다.

“네 추리가 옳을 거야.”

“아직 퍼즐은 완성되지 않았어. 하지만 대강의 윤곽은 잡혔고, 난 후배들에게 털어놓진 않았지만 남철수를 의심하고 있어.”

“...남철수를……?”

준구는 자신의 초등학교 시절부터 쪽 절친한 친구였던 철수가 거론되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수진이라도 철수를 거론하기가 거북했는지 준구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준구는 수진을 쳐다봤지만 수진은 바닥을 쳐다볼 뿐이었다.

“이사장 장례식 때, 네가 오기 전에 철수와 얘기를 좀 나눴어. 철수가 이사장에 관해 보여준 견해가 네가 보내준 이메일과 상당히 많이 겹쳤어. 그리고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도는 날에, 철수는 그 전날 꼭 일찍 귀가를 했어. 경화는 귀가하다가 산책한다던 철수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철수는 네 집 근처에, 경화는 우리 집 근처에 살잖아. 그리고 네 집이랑 내 집은 정반대에 있고.”

수진이가 철수의 의심스러운 점들을 열거하자 준구도 철수와 있었던 일들 중 차유라와 얽힌 몇 가지 사건들을 떠올려 보았다. 유라와 철수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유효한 타격은 서로에게 입히지 않았다. 더구나 유라는 철수를 붙잡는 걸 우선시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준구를 뒤쫓은 다음 협상을 했다. 하지만 자신이 어릴 적부터 알던 친구라 선불리 차유라와 한패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뭔가… 더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건가.”

준구는 철수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수상한 정황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정황만으로는 철수가 유라의 편이라고 간주하기엔 무리였다.

—소문은 내가 퍼트린 게 아니니까 몰라도 돼.

“소문… 언제부터 났지?”

“글쎄. 올해 초부터인가?”

소름끼치도록 똑같은 말에 준구는 기시감을 느꼈다. 바로 유라가 했던 말이었다.

“그 소문, 누구한테서 들었어?”

“경화였던가. 세상이 흥흥하니 조심하랬는데.”

“경화는 누구한테 소문을 들었는지 혹시 말해줬어?”

“으음……, 자기네 반에서 돌던 소문이랬는데.”

준구는 학기 초에 했던 대화를 떠올렸다.

—그나저나 요즘 이 마을이고 저 마을이고 살인 사건이 자꾸 발생하는 거 같지 않아?

“소문을 퍼트리던 건 남철수였어. 아예 걱정하고 소문을 퍼트렸던 거야. 왜… 왜 여태껏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

“소문을 퍼트렸다고 해서 확신할 순 없어.”

“철수는 헤윌이가 전학을 온 날에도 소문을 퍼트리고 있었어. 납치범 스무 명을 몰살시킨 살인마에 대한 소문이었지. 그 때 철수는 친구들이나 교무실에 선생님들이 잡담할 때 주워듣는다고는 했지만, 내가 아는 친구들 중 철수를 제외하면 어느 누구도 소문에 대해 가장 최신 소식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 더구나 교사들도 살인 사건을 언급

하길 좋아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없어. 나도 교무실에 가끔 들락날락거려봤는데, 수업과 학생들의 안위와 굵직한 시사 문제 외에는 관심사가 저마다 다르지만, 살인 소문 같은 흥흥한 이야기는 안 하셨지. 더구나 이사장의 사망으로 그런 소문이 설령 귀에 들어와도 선불리 입밖으로 꺼낼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을 거야.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하지만 이야기를 할수록 철수를 의심할 정황들이 더 생각났다.

“나 예전에 너랑 혜원이랑 부산에 시험을 치러 갔었잖아. 그 때 성아가 왔었던 거 기억하지?”

“응……, 성아가 철수를 찾고 있었는데, 철수가 서울행을 타고 성아는 부산행에 올라타서 결국 마주치지 못했던 걸로 기억해.”

“내가 부산에 갔다가 돌아온다는 걸 아는 사람은 기껏 해야 다섯 사람뿐이었어.”

하지만 그 날 저녁, 유라가 준구를 쫓아왔다. 준구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철수와 수진이지만, 수진은 유라에게 경쟁 의식을 느낀다고 할 수 있었다. 결국, 준구가 타는 버스 정류장이 어딘지 유라에게 알려준 것은 철수라고 할 수 있었다.

“……알았어. 철수가 한 패야.”

준구가 깨달은 표정을 지으며 천장을 올려보자, 호주머니에서 진동음이 났다. 휴대폰을 꺼내보자 백향이 20분이 지났으니 숙직실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준구가 곧 가겠다고 답장을 보내고 수진에게 약속했다.

“이번 일이 끝나면 내가 겪었던 일을 알려줄게.”

“응.” 수진은 준구를 진정으로 신뢰하는 표정을 지었다.

수진이와 준구가 보존 서고를 나오려고 걷다가 2층에서 누군가가 계단으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보존 서고 입구에 거한의 남자가 서 있었다. 분명 준구가 뒤쫓던 덩치였다.

“망할! 어디서 날 부르는 건가, 이 빌어먹을 악마들아.”

한 눈에 봐도 정상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다. 준구와 수진은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지금 입구 쪽으로 뛰어가봤자 늦는다.

“수진아, 침착하게 내 말 잘 들어.”

준구는 침착하게 말했다. 목숨의 위협을 여러 번 당해본 준구는 수진이보다는 더 침착했다.

“셋 세고 나면 전력으로 도망친다는 거야?”

반면에 수진은 패닉에 빠져서 준구가 말하지도 않은 바를 멋대로

말했다. 수진이는 애써 침착한 척은 하고 있지만, 거한이 있는 쪽으로 뛰쳐나갈 지도 몰랐다. 준구는 위험을 감수하고서 거한의 남자에게 등을 돌리며 서서 수진이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네 뒤에 창문이 있어. 그 창문을 열면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지나면 본관으로 들어가는 뒷문이 있을 거야. 가서 선생님들 부르고 경찰에 신고해. 내가 호루라기를 불면 그게 될 신호야.”

“너… 넌 어찌고?”

“난 잠시 여기서 저 아저씨랑 술래잡기 할 거야. 여긴 서가가 꽤 많으니 5분 정도는 버틸 수 있어.”

“안 돼, 준구야. 함께 도망치자. 함께 도망쳐서…”

준구는 수진이의 손을 꼭 쥐었다.

“네가 나를 믿는만큼 나도 널 믿어. 난 네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매일 애쓸 거야.”

준구는 수진이의 손을 놓고 목에 건 호루라기를 입에 대고 힘껏 불었다. 수진이는 그 신호를 듣자마자 전력으로 창문을 향해 뛰었다. 준구는 마약사범을 자기 쪽으로 유인하기 위해 뒤돌아섰다.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쇠도해 오는 적의 기세에 짓눌려 준구는 뒷걸음질치며 응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진이가 창문을 열어 밖으로 탈출하자 준구는 본격적으로 서가 사이로 숨으며 상대를 교란시켰다.

상대는 듣기 힘든 욕설을 퍼부으며 준구를 뒤쫓았다. 수진이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을 보였다.

준구가 뒤도 안 돌아보고 서가를 디글 모양을 그리며 빙 돌다가 상대가 눈 앞에서 서 있자 뒤돌아서려다 발이 꼬여 옆으로 넘어졌다.

성난 소리를 내지르며 상대가 준구 쪽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의 허벅지를 화살 하나가 박혔다. 준구는 시야에 서가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지만, 화살을 쏜 방향은 보존 서고 입구쪽이었다. 상대는 입구쪽을 향해 발을 절뚝이며 방향을 틀자, 뒤이어 날아온 화살이 그의 무릎을 꿇었다. 화살 때문에 근방에 선혈을 뿌렸지만, 환각을 경험해서인지 통각이 마비된 탓인지 상대는 입구쪽으로 계속 걸어갔다.

“내 학생한테는 털 끝 하나 못 건드린다!!”

수진이 열었던 창문을 통해 이백향 선생이 들어왔다.

“선생님, 위험해요!”

“준구야, 넌 도망쳐!”

백향은 마약사범이 있는 쪽으로 성큼성큼 걸었다. 그는 자기에게서



면 입구 쪽은 포기하고 백향 쪽으로 다시 몸을 틀었다. 화살을 쏜 장본인은 일직선상에 백향이 나타나서 쉽게 화살을 못 쏘는 것 같았다. 마약사범이 나이프를 꺼내 백향을 찌르려 하자, 준구는 두 눈을 꼭 감았다. 하지만 백향은 상대의 손목을 잡아당긴 다음 화살이 박힌 무릎을 걷어차서 강제로 무릎을 꿇게 만들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얼굴에 무릎치기를 먹였다.

“육군 중사 출신을 우습게 보지 말라, 이거야!”

나이프가 땅에 떨어진 소리를 듣고서야 준구가 눈을 뜨자, 백향이 물 흐르듯이 연계 동작을 펼치며 상대를 바닥에 완벽히 제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팔이 뒤로 꺾인 채 백향에게 제압당한 그는 버둥거리며 저항을 몇 차례 했지만, 화살을 쏜 장본인이 목검으로 그의 목을 짓누르자 이내 저항을 포기했다.

“김준구, 뭐 하나. 얼른 경찰에 신고하질 않고.”

현경화는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닦을 여유가 없는 음성으로 준구를 다그쳤다. 제아무리 경화여도 이런 실전에선 긴장을 하는 법이다. 더구나 본인이 실수를 했다면 친구가 위험했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긴장했을 지도 모른다.

준구는 휴대폰으로 경찰에 전화하였다. 준구가 신고를 하는 사이에 수진이와 물리 교사가 보준 서고 입구에 등장하였다. 준구가 장소와 사건 내용만 간단히 언급하고 전화를 끊자, 수진이는 준구가 있는 쪽으로 곧장 뛰어가서 준구를 세차게 끌어안았다.

“울지 마. 괜찮아.” 준구는 수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주었다. 그래도 흐느낌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 4.3

경찰은 신속하게 신설중학교 도서관 1층 보준 서고로 들어와서 검객과 교사가 제압한 범인을 체포하였다. 교사들과 목격자, 탐정, 검객은 이대로 모든 일이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경찰은 그들 또한 사건의 증인이자 당사자로서 경찰서에 데려갔다.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을 마친 다음 교사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 목격자, 탐정, 그리고 검객은 경찰서가 탐정의 집 근처에 있다는 이유로 탐정의 집으로 갔다.

탐정의 집에 도착한 그들은 거실에 각자 지정된 자리라도 있는 듯이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검객과 탐정은 소파에 나란히 앉고, 목격자는 그 맞은 편에 바닥에 앉았다.

“겨우 안전한 곳으로 도착했네.” 목격자가 바닥에 드러누우며 말했다.

“일단 몇 가지 정리해줘야 할 사항이 있을 텐데.” 검객이 다리를 꼬며 목격자를 내려다보았다.

“일단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탐정이 계면쩍은 미소를 지었다.

목격자는 천장을 멍뚱멍뚱 쳐다보다가 자리에 제대로 앉았다.

“일단 구해줘서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난 죽었을 지도 몰라.”

“그렇게까지 지켜 세워주지 않아도 돼. 난 그저 수진이가 슬퍼하는 모습은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니까. 그리고 난 네게 조금 화났다.”

“…일단 사건은 일단락되었으니 너무 그러지 마…….” 탐정이 검객을 말리며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떠올려보았다. 하지만 탐정에게 둘 사이의 일이 떠오를 리가 없었다.

“학기 초에 분명히 말했다. 살인마와 대적하지 말라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럴 수 없으면 내게 알려라고.”

“미안, 기억하고는 있었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더라고.”

“그건……, 네가 아는 살인마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겠지?”

목격자는 검객이 뭔가를 아는 듯이 내뱉은 말에 놀라서 할 말을 잊었다. 검객은 목격자의 반응에 자신의 대답이 정당임을 확신하였다.

“나한테 말하지 못한 건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왜 수진이에게는 말하지 않은 건가.”

“위험에 말려들게 할 거 같아서…….”

“수진이가 평범한 아이라면 네 걱정이 지당하다. 하지만 수진이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진취적이고 생각이 깊은 아이다.”

“알아. 아니까 위험할 거라 생각했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기에 강하고 네게 힘이 될 수 있다.”

검객이 한 말이 다 사실이라 목격자는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네가 깊이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니 나로선 더 이상 뭐라 하진 않을 거야. 난 네가 처한 상황을 잘 모르고 네가 옳았을 수도 있으니까. 넌 네 판단에 따라 잘 행동한 거야.”

“병 주고 약 주고 난리 났구만…….”

목격자는 한숨을 푹 쉬고는 검객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네 말을 들어보니 연쇄 살인범이 누구인지 짐작하는 것 같은데?”

검객은 피식 웃으며 탐정을 쳐다보았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여주었다.

“나 혼자선 확신이 없었다. 아무래도 친구를 의심하는 건 기분이 좋지 않거든. 하지만 수진이하고 의견 교환을 하면서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되었지. 바로 차유라가 진범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검객은 팔짱을 끼고서 천장을 쳐다보았다.

“예전에 검토 시험이 끝난 후 차유라와 귀가하던 도중, 괴한의 습격을 받고 격퇴를 했던 적이 있었지. 그 때 너랑 유라는 운 좋게도 괴한에게 죽지 않고 살아남았을뿐더러, 그 괴한을 죽였어. 사실 거기까지 납득할 수 있었지. 하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현장에 가봤거든. 유라는 사건 이후로 몸 곳곳이 상처투성이였지만, 넌 한쪽 팔에만 부상을 입었어. 그리고 현장에는 창문이 깨져 있었지.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사실 그 정도로도 충분했어. 유리창에 붙어 있는 남은 조각들이 아래쪽에 더 많다는 사실, 이게 뭘 의미하는 지 알지?”

“...건너편에서 창문으로 뛰어든 거지.”

“그래, 넌 현장에 있었으니 잘 알겠지. 유라가 창문으로 뛰어들었고, 유리창이 깨지면서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상대방을 죽이는 데 깨진 유리 조각을 썼을 거란 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유라의 손에 유리를 쥔 것 같은 상처가 남아 있어서 검토부 훈련을 그저 견학할 수밖에 없었거든.”

검객은 그저 통찰력으로 여기까지 추리를 해냈던 것이다.

검객에 이어 탐정도 몇 마디 거들었다.

“그런 고로, 오늘 벌어진 일까지 종합해서 미루어 볼 때, 차유라가 소문의 연쇄 살인마이고, 남철수가 차유라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몇 명 더 돕는 사람이 있을 지도 몰라. 아무리 생각해도 단독범이 사건 현장에 증거를 안 남긴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해. 하지만 증거를 없애줄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야기는 다르지. 경찰이 아무리 유능해도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에 경찰이 그 장소에 없는 한 범인을 붙잡는 건 어려워.”

탐정의 말을 경청한 목격자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꺼내기로 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할 셈인지 정해놓은 건 있어?”

“당연히 유라랑 철수를 잡아서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해야지.”

탐정이 너무 당연한 걸 묻는다는 듯이 명쾌하게 대답하였다.

“나도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가득했지만, 도무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여태껏 아무 것도 못했어.”

“수진이가 최종 결론을 말했지만, 지금 당장 선불리 유라와 철수를

붙잡는 건 경솔한 행동이다. 아까 수진이도 언급했지만 이 치밀한 범죄에 몇 명이 더 가담했는지 당사자 외엔 아무도 몰라. 유라와 철수만 붙잡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란 것이지.”

“그건 다들 알고 있어. 하지만 유라와 철수를 경찰에 넘기면 막혔던 수사가 진행되진 않을까?”

“증거를 남기지 않아 붙잡지 못 하던 그 둘을 어떻게 경찰에 넘긴다는 거지? 아무래도 내가 유라를 어떻게 처리하지 못 한 이유일 텐데.”

검객이 날카로운 지적을 하자 목격자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 증거만 있으면 어떻게든 할 텐데…….”

“그렇다면 증거를 확보하도록 해야 겠군.”

검객이 무뚝뚝한 목소리로 별 것도 아닌 걸 고민하냐는 듯이 말했다. 목격자는 검객이 실행하기엔 어려운 일을 너무 쉽게 말하자 할 말을 잊었다.

“너, 차유라가 얼마나 위험한 지 알고 하는 소리지? 그렇지?”

“물론 알고 있지. 검도 시합에서 보여준 실력이 본래의 실력이 아니란 것도 알고 있고, 사람을 몇 명쯤 죽인 것도 짐작하고 있지. 네가 선불리 나서지 못 한 이유 중 하나는, 만에 하나 실패했을 때 네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지 않나.”

“그걸 알면서…”

“하지만 네 곁에 동료 두 명이 생겼다. 철수는 가짜 동료였지만, 우리는 아니야. 실패할 확률은 줄어들고 성공할 확률은 높아졌지.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면, 우린 이 일에서 손 뗄 거야. 네가 우릴 신뢰하지 않는다면, 말뿐인 신뢰를 할 거라면 집어 치워라.”

검객은 어느 때보다도 옹골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반장 선거 때의 검객은 패배할 줄 알면서도 선거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이번엔 성공할 거라고 믿으면서 목격자를 설득하고 있었다.

“난 준구를 믿어. 내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거란 네 말을 믿고 있어.”

탐정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목격자로서는 물러설 여지가 없었다.

“지금 당장은 타개책이 생각나지 않지만, 머리를 맞대서 정의를 바로 잡자.”

탐정과 검객은 일어나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준구도 일어나서 그 둘과 손을 포갰다.

“니네, 약속이라도 했냐?”

“이럴 땐 분위기를 타는 것이다.”

“우린 할 수 있을 거야!”

셋은 동시에 천장을 향해 힘껏 손을 들어올렸다.

막상 하고 나니 민망해져서 서로 허허 웃었다.

“이제 그만 집에 가 봐야겠어.”

“일단 사태를 주시하고 있자. 좋은 수가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할게.”

“난 아버지께 연락드리고 여기서 자야겠군.”

검객이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자 목격자는 침울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표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는지, 목격자가 현관으로 나오자 그 둘도 현관까지 나왔다.

“배웅해 줄게. 네 집, 여기서 멀잖아?” 탐정이 싱긋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지금은 충분히 안전해.”

“정말 괜찮겠는가.” 검객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아~ 참, 괜찮대도.”

“그럼 잘 가거라.”

검객은 무뚝뚝하게, 탐정은 활기차게 손을 흔들었다.

목격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혼자가 되자, 그제야 자신이 사냥꾼과의 합의를 깨뜨린 건 아닌지 고민했다. 하지만 검객은 그림자와 더 이상 사귀는 입장은 아니고, 검객의 성격은 충분히 신뢰할 만했다.

아파트에서 나온 목격자는 인적 없는 골목길을 한 시간 가량 걸어 집에 도착하였다. 그간 얼마나 사냥꾼에게 시달렸는지 하소연하고 싶기도 했지만, 안 그러길 잘 했다는 생각을 하며 문 앞에 섰다. 현관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목격자는 교수가 돌아오려면 아직 한 달 더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닌지 의아했지만, 사냥꾼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목격자를 상대할 거라면 집안에서 현관 불을 켜놓고 기다리기보다 으스스한 골목길에서 덮치는 편이 더 낫기 때문이다.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목격자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목격자는 신발을 벗으며 현관에 놓인 구두를 보았다. 분명 교수의 것이었다.

목격자는 거실에 누워서 책을 읽는 교수를 쳐다보았다. 자신은 죽을 뻔한 경험도 했는데, 교수는 너무 태평한 모습으로 있어서 순간 울컥하였다. 교수는 책의 세상에 푹 빠졌는지 목격자가 온 것에 아무 반

응도 하지 않았다. 목격자는 책들 속에 누워있는 교수는 무시하며 자신의 방으로 갔다.

집이 그다지 좁은 것도 아니건만, 목격자는 유달리 오늘따라 집이 좁게 느껴졌다. 사방의 벽이 안 보일 정도로 쌓인 책 때문은 아니다. 부친의 존재가 집을 좁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독하게 책을 읽던 교수는 목격자가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 누워서 책을 다 읽고 바람을 쐬러 현관에 와서 목격자의 신발이 놓여 있음을 보고서야 알아차렸다. 하지만 굳이 목격자에게 말을 걸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나왔다.

교수는 이제 그만 되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는 집 안으로 들어와 현관에 목격자가 서 있는 걸 보았다. 목격자가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자 교수는 목격자를 지나쳐 거실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목격자가 교수를 불러 세웠다.

“아버지.” 서로 등을 돌린 채로 둘은 있었다. 교수는 목격자가 무슨 이야기를 꺼낼지 기다렸으나 목격자는 잠시 침묵했다. 교수가 한 걸음 떼자 목격자가 다시 말했다.

“아버지, 6개월 동안 외국에 나가신다더니 1개월 일찍 돌아오셨네요.”

“일정이 조금 바뀌었다.”

“외국에서 뭐 하신 겁니까? 방학 때 신문에서 인터뷰한 거 봤습니다. 그걸로 6개월을 밖에 있으려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너와는 상관없다.”

교수의 냉담함에 목격자는 다시 한 번 울컥했다. 그러나 목격자는 차분해지려고 애썼다.

“방학 동안 부산에 있는 고교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군.” 교수는 남 이야기 하듯이 목격자의 말에 반응했다.

“제가 공부하는 게 못마땅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

“다른 집 가족도 다 이런 식으로 지낼까요.”

“아니, 그렇지 않겠지.”

“저는 당신의 아들이 맞습니까.”

“그렇다. 하늘이 두쪽 나도 변치 않는 진실이지.”

“그런데 왜 저를 아들처럼 살갑게 대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제가 뭔가 잘못했습니까. 그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넌 잘못된 게 없어. 단지 내가 부덕할 따름이다.”

교수는 목격자의 질문에 모두 대답해주었다. 결코 무시로 일관하지 않았다. 그러나 답변의 어디에도 인간다운 감정을 볼 수 없었다.

교수는 목격자가 다시 침묵하자 거실로 돌아가 자리에 드러누워 손에 닿는대로 아무 책이나 집어들고 읽었다. 목격자는 순간적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먹에 싣고 벽을 치려고 했지만 애써 참았다.

“잠시 나갔다 올게요.”

목격자는 신발은 신고 집밖으로 뛰쳐나가 놀이터가 있는 곳으로 왔다. 텅 빈 놀이터는 너무나 적막해서 귀신이 튀어나올 것처럼 으스스했지만 분노를 풀 방법이 거의 없던 목격자는 잠시 그네에 앉았다가 집에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네에 앉아 가을 바람을 맞고 있자니, 자신이 너무 청승맞은 짓을 하는 건 아닌가 싶었다. 사냥꾼과의 일도, 살인자가 자신을 찾아온 일도, 탐정과 연합을 결성한 일도 모두 꿈결같은 허상이고, 오직 자신을 차갑게 대하는 집안의 일만이 현실 같았다. 자신이 사춘기 나이여서 교수와 싸우는 건 아닌가 고민해 보기도 했지만, 목격자는 자신처럼 성실하고 노력하는 중학생이 드물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럴 듯한 이유를 대고 싶어도 교수가 자신의 친아버지가 아니거나, 원치 않았는데 낳은 자식이 아닐까란 생각으로 이어졌다.

“여자는 봄을 타고 남자는 가을을 탄다더니 그 말이 사실인가봐?”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기에 목격자가 뒤를 돌아보자 거기엔 사냥꾼이 서 있었다. 사냥꾼은 자연스럽게 목격자 옆에 비어 있는 그네에 앉았다. 그리고 목격자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너, 울고 있던 거야?”

“남이사.” 목격자는 눈가를 비볐다.

“대체 여긴 뭐하러 온 거야.”

“남이사.” 사냥꾼은 알밋게 목격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렸다.

“미안, 너도 배척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기분 나쁘지?”

평소에 보여준 모습과 너무 다른 목격자의 말에 사냥꾼은 어안이 병병했다.

“무슨 일 있었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

목격자는 예전에 사냥꾼이 사냥꾼의 부친을 언급했던 걸 떠올렸다. 살인은 하루에 딱 한 번만 시도하라는 철칙을 남긴, 준구의 상상 속에선 다소 무서운 이미지로 남아 있는 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너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야? 많이 자상하신 편인가?”

“글쎄, 답답한 면도 있지만, 내가 무엇을 하든 걱정스런 눈으로 지켜보시지. 그게 귀찮을 때도 있지만, 그게 부모의 정이자 사랑인가 싶어. 뭐, 그런 점에선 자상하다고 해도 되겠네. 네 아버진 안 그래?”

목격자는 씩씩하게 웃었다.

“내가 뭘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 마치 타인과 한 방에 거주하는 기분이 든다고나 할까…….”

“흐~음. 교수님 성격에 절대 아들을 방치하실 분은 아닐 거 같은데, 의외네.”

“가끔은 내가 주워서 기른 자식인 건 아닐까, 그런 망상도 하게 돼.”

“전형적인 사춘기 망상이구만?”

사냥꾼이 피식 웃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글쎄, 네가 우리 집에서 하루만 투명 인간으로 거주해보면 알 것 같은데.”

사냥꾼은 목격자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은 건지 그네를 가볍게 타기 시작했다.

“미안하지만, 투명 인간으로 지낼 생각은 추호도 없어. 네 집안 일은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네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랄 것도 없어. 부친이 싫으면 얼른 나이 먹어서 독립해. 그게 최선이지.”

“역시 그런가.” 목격자는 그네에서 일어났다.

사냥꾼은 그네를 멈추고 목격자를 쳐다보았다.

“조언해줘서 고마워. 집에 가기 전에 알려줘야 할 거 같은데, 너와 했던 협상, 그거 깨야겠어. 역시 널 잡아야 할 거 같아.”

“뭐, 그렇게 결정했다니 유감스럽네. 어차피 협상이 협박으로 체결된 거니 널 타할 수만은 없겠네.” 사냥꾼도 그네에서 일어났다.

“그래도 그 결정은 날 친구라고 생각해서 미리 일러둔 것이라고 받아들여도 될까?”

“...애써 포장하면 그렇겠네.”

목격자의 솔직한 표현에 사냥꾼은 킁 하고 웃었다.

“그럼 나도 친구로서 말할게. 네 부친은 불쌍하신 분이야. 너무 미워하진 마.”

“빈말이라도 고맙다.”

목격자는 자신의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 뒷모습에 대고 사냥꾼이 “잘 가.”라고 말했다. 목격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저 손을 흔들어 보였다.



목격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을 보자, 소파에 옆으로 드러누워 책을 읽는 교수가 있었다.

—네 부친은 불쌍하신 분이야. 너무 미워하진 마.

도대체 어딜 봐야 불쌍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타입이라는 건 알고 있다. 학자로서의 명성에 걸맞은 노력을 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된 자식과 일상적인 대화조차 극도로 안 하는 것은 거의 방치나 다름없는 게 아닐까.

사냥꾼의 조연대로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가족으로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언젠가 자신이 교수를 이해할 날이 올지 궁금하였다. 그런 날이 오면 자신은 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소파에서 몸을 뒤척이던 교수는 소파에 등을 기대어 앉아 책을 읽다가 현관에서 있는 목격자를 보았다. 그러나 한 번 힐끗 본 게 다였고, 다시 책에 집중하였다.

목격자는 자신의 방으로 가며 지나가는 말투로 “주무실 땐 꼭 불 끄고 이불 덮으세요.”라고 말했다. 대답은 없었지만 목격자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에서 새어나오던 불빛이 꺼졌다.

#### 4.3.6 2037년 9월 4일. 금요일.

뭔가 후련해진 기분으로 등교를 한 준구는, 자신이 전날 가방을 숙직실에 놓고 집에 갔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곧장 교무실로 갔다. 교무실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노크를 하고 숙직실에 들어가보니 사회교사는 침상에 누워 자고, 물리교사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자고 있었다. 준구는 이들을 깨우지 않은 채, 자기 가방을 발견하고는 그걸 들고 숙직실을 빠져 나왔다. 대체 당직 교사가 왜 필요한지 강한 의문이 들었지만, 어제 백향의 제압 솜씨를 봤던 준구로서는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을 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속한 3학년 1반 교실에 들어와보니 거기엔 또 새로운 소문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물론 그 소문을 퍼트린 자는 반장인 남철수였다. 친구들과 틈에서 열심히 소문을 묘사하던 철수는, 준구가 자리에 앉자 인사를 건넸다.

“좋은 아침이야.” “응.”

준구는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소문을 경청하는 이들 중에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경화를 보았다. 준구는 가방을 가방걸이에 걸고서 경화에

게 다가가 물었다.

“대체 무슨 소문이기에 너도 여기 서 있는 거야?”

“이 마을에 CIA 요원이 왔는데, 누명을 쓰고 조직에게서 쫓겨다니는 신세로 전락한 모양이더군. 매우 흥미로워서 계속 듣고 있었지.”

준구는 그 요원이라는 자가 누군지 짐작할 수 있었지만, 누명을 썼다는 건 금시초문이었다.

“무슨 누명을 썼다는 거야?”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해서 깡패들에게 유통시키고, 세력을 불러 나갔는데, 꼬리가 너무 길어서 밟힌 모양인가 보더군.”

“그래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조폭을 그 CIA 요원이 뒤를 봐주기라도 했단 거야?”

“그건 아니고, 이번에 동료를 죽였다는 그 자가, 그 요원이 다루려다 세력이 너무 커져서 통제 밖의 상황이 된 경우인 모양이더군.”

이미 준구와 경화는 그 마약사범과 조우해서 마약을 최초로 유포하던 누군가가 있을 거란 생각은 했었다. 그러나 설마 그게 CIA 요원이 유통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 하던 일이었다.

“그래서 이번엔 그 요원이란 양반도 수배범이 되어 도망자 신세가 된 건가?”

준구가 묻자 경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준구와 경화가 따로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철수는 끊임없이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철수가 언급하는 소문은 대개 들어맞는 이야기라서 자신들에게 정보를 나눠주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철수 주변의 친구들은 단지 흥미본위로 소문을 들었지만, 준구와 경화는 철수가 허튼 소리를 안 한다는 걸 알기에 최대한 집중해서 들었다.

한참을 소문에 빠져 듣고 있는데, 교내 방송이 시작된 건지 학교에 있는 스피커 특유의 울림 소리가 교실에 퍼졌다. 이어서 들리는 것은 중후한 목소리의 교장이었다.

『아아, 마이크 테스트. 예~ 교장입니다. 호명하는 학생은 교무실로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구 학생, 현경화 학생, 서수진 학생 등 이상 세 명.』

신설중학교는 교내 방송을 그다지 안 하는 학교였다. 학생들은 이게 말로만 듣던 교내 방송인가 싶어 다들 어리둥절해했다. 준구와 경화 주변의 학생들은 일제히 술렁이기 시작했다.

“너희들, 지금 교무실 가야하지 않냐?”

“으음, 가볼게.”

준구가 그리 대답하고는 경화와 함께 교무실로 향했다. 서수진 또한 방송을 듣고서 준구와 합류했다.

“대체 무슨 일일까?”

준구가 묻자 경화가 대답했다.

“보나마나 어제 있었던 일에 관해서겠지.”

“불길해…….” 수진은 안 좋은 예감이 들어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교무실에 와보니 거기엔 이백향 선생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셋이서 인사를 하자 백향도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역시 어제 있었던 일 때문입니까.”

경화가 물어보자 백향은 어깨를 으쓱하며 “아마도 그런 것 같아.”라는 다소 자신 없는 긍정을 하였다. 아마 백향 본인도 전해들은 바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다들 생각했다.

교무실 입구에 마침 교장이 와서, 그들을 보며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교장 옆에는 처음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목에 건 카메라가 그를 기자라고 대변해 주었다.

“아~ 다들 이쪽으로 오시게나.”

교장은 자신이 집무를 보는 곳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딱히 교장실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벽으로 둘러친 게 아니라서 일반 교사와 같은 테이블인 줄로 학생들은 착각할 정도였다.

“저… 이백향 선생님. 저희 담임 선생님께선 왜 안 계시죠?”

“아직 숙직실에서 주무시니까 조레 시간 전엔 깨우지 마.”

“애초에 숙직실에 학생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경화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노골적으로 지었지만, 숙직실에 이미 두 차례 들어가 본 준구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경화는 준구의 표정을 보자, 준구가 숙직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음을 알아차렸다.

“뭐…, 용건이 있으면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당분간 그럴 일이 없을 듯합니다.”

경화는 그렇게 말하며 헛기침을 하였다. 경화는 탁월한 통찰력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미래를 단언하는 모습이 단점이다.

교장이 상석에 앉고 기자가 자연스레 말석에 서자 교장이 따로 권하지 않아도 그들도 자연스레 자리에 앉게 되었다.

“에~ 이 친구는 나랑 동창인데, 기자를 하고 있습니다.”

교장이 운을 떼자 기자가 정장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백향을 비롯해 학생들에게 명함을 건네주었다. 그는 신설시 지역 신문의 사

건 및 사고부 기자였다.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전국 수배령이 내려진 범죄자를 제압됐다는군요. 아~ 솔직히 누구라도 못 믿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물어보니 신고자는 김준구 학생이고, 나머지는 유인, 타격, 연락책 등의 역할을 했다는군요.”

수진이는 준구에게 귓속말로 “저거 완전히 날조 아냐?”라고 말했다. 수진이가 백향에게 알려서 백향이 도서관에 잠입한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역할 분담을 했던 건 결코 아닐뿐더러, 서수진과 물리 교사는 별다른 역할을 못 한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교장의 말은 마치 처음부터 범죄자를 붙잡기 위해 효과적으로 움직인 것 같은 인상을 풍겼다.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라 이 친구에게 연락했더니 기사를 작성해 준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말인데~ 에~ 당시 있었던 일을 가감없이 이야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교장은 이들의 활약을 무진장 듣고 싶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싱글벙글 웃는 교장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기사가 나가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었다.

“저~기. 잠시만 의견 교환 나눌게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수진이 돌과구를 마련하자 백향도 손을 들었다.

“저도 당사자로서 잠시 학생들과 얘기하겠습니다.”

“음~ 그러도록 하세요. 허허!”

백향이 일어나 손짓으로 숙직실에 들어가서 회의자라는 신호를 전했다. 경화는 마뜩찮은 표정을 지었지만, 숙직실 이외에 그들끼리 회의를 할 자리가 마땅히 없었다.

그들 넷이 숙직실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자 각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좌절한 자세로 바닥에 몸을 숙였다.

“저거 기사 나면 쪽팔려서 출근 못 해. 시집 못 가면 어떡해…….”

“난 사실 한 일이라곤 도망친 것뿐인데, 왜 나까지 호명된 걸까나. 하하…….”

“부모님 허락없이 활을 들고 간 데다 화살을 난생 처음 사람한테 쏘어. 심장을 명중시키려 했는데 두 발이 빛나간 거야. 그 가까운 거리에서……. 차라리 목검을 휘두를 걸…….”

“겉 먹고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사태가 일단락되고 바로 신고했어. 난 남들 차린 밥상에 숟가락 올린 놈이 된 거야…….”

이백향 선생부터 김준구까지 저마다 넋두리를 늘어놓고 다함께 한숨

을 쉬었다. 한숨 소리에 눈을 뜬 물리 교사가 그들을 보며 얼빠진 목소리로 물었다.

“반장, 무슨 일 있어?”

“교장 선생님이 어제 일로 기사를 불렀대요.”

“난 당직도 아닌데 숙직실에 멧대로 하루를 지새웠어……. 징계 당하면 어찌지……. 감봉이면 이번 달 빠듯한데…….”

“교사란 직업도 나름 고충이 많네요.”

수진이 위로를 건네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 난국을 타개할 책략은 단 하나뿐입니다.”

모두 기대하는 눈초리로 수진을 쳐다보았다.

“기사 작성을 거부하면 돼요. 기사가 무슨 벼슬이랍니까. 당연히 할 일을 했고, 누구라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니아니, 누구나 그렇겐 못 하지.”

준구가 손을 가로젓자 이번엔 현경화가 나섰다.

“기사 작성 거부엔 동의하는 바다. 하지만 구실이 그럴 듯하지 못해. 땅값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없던 일로 치자고 하면 납득할 것이다!”

“너답지 않게 왜 그래?!”

준구가 인격이 바뀐 듯이 지껄이는 경화에게 경악했다.

“인권을 내세우는 게 가장 잘 먹히지. 우린 피해자이고 저쪽은 가해자니까 우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선 기사를 작성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놔야 해.”

“너무 논리적 비약 아닌지……. 더구나 마지막엔 협박이잖아요!”

준구는 사회 교사마저 이성적 판단을 못 하게 하는 이 상황에 절망할 것만 같았다.

“후후후……. 다들 단편적인 시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니 하나같이 지리멸렬해지죠. 제 해결책은……”

모두 최후의 보루가 내놓을 해답을 기대했다.

“그 모든 답안을 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하하! 망했어! 우린 망했어!”

“정신 차려, 김준구!”

“선생님, 조퇴하고 체육관에서 타이어를 두들겨 패고 싶습니다.”

“오늘 조례는 없다고 전달해 주기 바란다, 제군.”

각자 실성한 듯이 말하는데, 숙직실의 문이 열리며 교장이 얼굴만 내밀었다.

“음, 내 친구가 바빠서 그런데, 의견이 정해졌습니까?”

숙직실에 있는 전원이 기운 빠진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숙직실에서 나와 아까 앉았던 자리로 돌아왔다. 자리에 앉은 그들은 기대에 찬 눈빛을 한 기사를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기자의 표정이 점점 경직되었다. 교장 또한 그들이 뭔가 중대한 결정을 했다고 짐작했다.

“다들 무슨 일인가.”

“교장 선생님.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인터뷰는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범죄자를 소탕한 자랑스런 시민이 왜 그런 결정을…”

기자가 이해 못 하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들을 설득할 말을 떠올렸다. 하지만 백향은 연이어 말했다.

“분명 범죄자를 잡은 건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오지 않았다면 범인을 놓쳤을 지도 모르죠.”

“아니, 경찰 측에선 상대가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세상에 소외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사가 실리면 그런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을 겁니다.”

경화가 그리 말하자 기자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마약에 취약한 계층은 분명 저소득층일 터인데…”

“범죄자를 한두 명 잡아들이는 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사소한 일입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계속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사회 체제에 큰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회 체제를 비판하는 기사를 실는 편이 훨씬 유익한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난 사회부 기자가 아닌데…”

준구의 말에 기자는 그들이 왜 이리 이상한 말만 골라서 하는지 의아했다.

“다들 당시의 일은 떠올리기 싫어서 그런 것이니 양해해 주십시오. 이번 일을 기사로 굳이 쓰고자 하신다면, 소외 계층이 왜 존재하는지, 사회 체제가 어떻게 범죄를 양산하는지 등도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수진이 결정타를 날리자 기자는 볼펜으로 뒤통수를 긁적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래도 이번 일이 보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군요.”

그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 명이라도 협조해 주시면 좋을 텐데…….”

기자는 불쌍한 척 연기를 하며 그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려 했지만 아

무도 나서지 않았다.

“뭘, 알겠습니다. 협조를 못 받은 상태에서 추측성 기사를 써봤자 신문사 이미지만 나빠질 테니, 이만 물러가도록 하죠. 대신, 다른 기자가 오더라도 기사 작성을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는 기분이 조금 상한 건지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다. 모두 고개를 끄덕이자 기자는 교장에게 작별 인사도 건네지 않고 곧바로 교무실 밖으로 나갔다. 교장은 그들을 둘러보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무리한 부탁을 했나 보군.”

“저흰 이만 시간이 되어서 조례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물리 선생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그들 모두 뒤따라 우르르 일어섰다. “잠~깐. 학생 여러분은 각자 교실로 돌아가고 선생들은 여기 있으시게. 좀 할 말이 있네.”

하늘이 와르르 무너진 표정을 지으며 물리 선생과 사회 선생이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준구, 수진, 경화는 교무실에서 나와 긴장이 풀리면서 나오는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야. 기사가 나가지 않을 수 있어서.”

준구가 그리 말하자 수진이 킁킁 웃어댔다.

“왜 웃어?”

“아까 당직실에서 네가 건 태클이 생각나서.”

준구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지당한 비판뿐인 것 같은데.”

경화가 덤덤히 준구의 발언을 평하자 준구는 버럭 외쳤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교실로 돌아가자!”

준구가 앞장 서서 걸으며 교실 문을 열자 급우들의 떠드는 소리가 일시적으로 멎었다가 다시 떠들어대기 시작하였다.

“대체 무슨 일이야?” 철수가 자리에 앉은 채로 물었다.

“별 거 아냐.” 준구는 그리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다.

뒤이어 경화도 자리에 앉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실에 이백향 선생이 들어왔다. 이야기가 꽤 길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외로 짧았다.

“이번에 10월 5일에 가기로 했던 수학 여행의 날짜가 많이 앞당겨졌다……. 다음주 월요일로. 왜냐하면 도서관에 난장판이 되어버려서… 그걸 수리하기 위해 시간이 좀 필요해. 장소는 창원 해양공원.”

“난장판이라뇨?”

준구가 못 믿겠다는 듯이 물었다.

백향은 대답 대신 교장에게서 받은 것 같은 사진을 제시했다. 사진에는 2층, 3층의 보존 서고의 유리가 와장창 다 깨지고 서가가 모조리 엎어져서 엉망이 된 모습이였다. 아무래도 마약사범의 짓인 모양이었다.

“말도 안 돼…….”

준구의 솔직한 심정이 새어나왔다.



## Chapter 5. 수학여행

... but the alienation and acquisition, between individuals, of the rights of property and liberty created by society, which must therefore be negotiated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before labor can produce, or consumers can consume, or commodities be physically exchanged.

- John Rogers Commons

### Intro

방과 후, 준구는 도서관으로 가보았다. 이백향 선생이 보여준 사진대로 도서관이 엉망이 되었는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도서관에는 이미 작업 인부들이 깨진 유리를 모아 트럭에 싣고 있었다. 준구만 충격 받은 건 아니었는지 부원들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수진이는 부장으로서 부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 공세에 시달렸다. 준구는 수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거 같아 부원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예절을 갖춰서 한 명씩 질문해라.”

“선배, 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게... 어제 저녁에 학교에 범뢰자가 한 명 잠입했거든. 그가 도서관에 숨어있는 동안 저지른 만행 같아.”

수진이 석준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준구도 분명 도서관에 조사하러 들어가봤지만,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아무래도 준구가 도서관에 오기 전에 다 부수고 엉망으로 만든 게 아닐까 추측하였다.

“그런데 우린 좌담실에 못 들어가는 거냐.”

성한이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수진은 작업 현장을 주시하고는 준구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건넸다.

“아무래도 당분간 동아리 활동은 무리겠지?”

“당연한 걸 묻고 그래. 게다가 우리 3학년은 다음 주에 수학여행을 가게 된다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지.”

“흠... 그래.”

수진은 뭔가 결심이 선 눈빛이었다.

“너희들, 잠깐이면 되니까 내 앞에 부채꼴 모양으로 서도록 해. 일찍 집에 보내줄 테니까.”

수진이가 부장답게 부원들을 통제하기 시작하자 일사분란하게 수진이 앞에 사람들이 나란히 부채꼴 모양으로 섰다. 오케스트라 앞의 지휘자처럼 수진이는 부원들을 쪽 쳐다보았다. 헛기침을 두어 차례 하고는 덤덤한 목소리로 방금 자신이 정한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너희에게 할 중대한 발표가 두 가지 있어. 예상하고 있겠지만, 다음 주에는 동아리 활동을 안 한다. 공교롭게도, 3학년은 수학여행 일정이 다음 주 월요일로 잡혔어.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도서관을 저 지경으로 만든 범죄자가 잡혔다고 언급했었지? 바로 그 자가 우리가 잡고자 했던 연쇄 살인마야.”

준구는 흠칫 놀랐지만 수진이가 하는 설명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체 수사는 다 종료되었다는 말씀. 알았으면 다들 집에 가.”

지도 교사가 없는 부라서 부장인 서수진의 말은 가히 절대적인 힘을 가진 탓에, 수진이 부원들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그들은 맥이 빠진 목소리로 투덜거리면서도 결국 집으로 향했다.

아무래도 실컷 고생만 하고 보람은 없던 수사가 난데없이 끝나버렸으니, 그들로선 결실을 빼앗긴 기분마저 들 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개 세상살이란, 노력한 곳에 무조건 결실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꽤 자주 노력으로부터 배신당하기 마련이다. 준구는 그럼에도 노력하는 이유가, 우연찮게 하나쯤 얻어 걸리는 게 있기 때문이라고 애써 정당화했다. 그러나 역시 세상이 녹록치 않다는 사실을 되새기면 씁쓸한 기분이 든다.

후배들이 다 귀가하자, 운동장에 남은 문예부원이라고는 셋뿐이었다.

“성한아, 넌 왜 집에 안 가?”

이성한은 팔짱을 끼고 나름대로 뭔가 골똘히 고민하는 모양이었다. 준구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던 성한은 뭔가 결론을 내린 건지 수진이 앞에 섰다.

“처음에 문예부 수사를 반대했던 건 내가 겁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부원들을 위협에 빠뜨리지 않기 위함이었어. 하지만 이렇게 사건이 종결되고 보니 왜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반대했었나 몰라. 나 자신이 좀 한심스럽게 느껴지기도 해. 그래도 난 내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 안 해. 수사했던 재네들, 분명히 엄청 아쉬울 거야. 넌 안 그래?”

“나? 그다지 아쉽지 않은데. 결국은 우리가 범죄자를 잡아 넣었으니까.”

수진이가 덤덤이 사실을 언급하자 성한이는 벽돌로 뒤통수를 맞은 것만 같은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너, 몰랐냐. 우리가 잡았는데.”

성한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건지 이마를 짚으며 웃어댔다.

“내가 잘못 들은 거 같은데.”

“수진이가 말한 대로 우리가 잡았어.”

준구마저 수진이의 증언에 가세하자 성한이는 준구의 어깨를 붙잡고 마구 흔들었다.

“이 친구야, 거짓말하면 지옥 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대도. 수진이가 경화랑 백향 선생님을 데려왔고, 경화가 범죄자의 발을 묶고, 백향 선생님이 최후 제압을 했고, 내가 경찰에 신고했지.”

준구는 지금도 그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듯이 아득한 허공을 쳐다보았다.

“미쳤어? 그런 위험한 짓을 왜 해? 죽을 뻔했으면 어찌려고!”

성한이 이미 지나간 위험을 높이 평가하며 들을 다그쳤지만, 들에겐 지나간 일보다 앞으로 닥칠 일이 더 중요했다.

“뭐, 네가 왜 걱정하는지 충분히 알지만, 일단 모든 위험은 사라졌고, 다 좋게 해결되었으면 잘 된 거지.”

“다음에도 너흰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 비슷한 결정을 내릴 지도 몰라. 그 때도 잘 해결될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

“걱정해 주는 건 고마운데 적당히 해.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린 무모하지 않아.”

준구가 수진이 편을 계속 듣자 성한이는 정말 답답하다는 듯이 얼굴이 붉어졌다.

“대형사고는 그렇게 과신하다가 터지는 거야!”

“도전하지 않으면 변하는 것도 없어. 그리고 대책 없이 나선 일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

성한이는 도무지 말이 안 통한다고 판단했는지 “난 집에 가서 더 생각해 봐야겠어.”라고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가버렸다.

“화 많이 난 거 같던데…….”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 우릴 생각해서 그런 거야. 사실 일리 있는 말이긴 하지.”

준구는 친구가 떠나고서야 친구의 말을 인정하였다.

“아무튼 대책 회의를 세우고 향후 어떻게 유리를 잡을지 정하자.”

준구와 수진이는 경화를 부르기 위해 체육관으로 왔다.

체육관에는 각 동아리에 맞춘 유니폼을 입은 학생들이 저마다 운동을 하고 있었다. 준구는 체육관이라 하면 구기 종목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터라 검도부가 눈에 띈다고 생각했지만, 꼭 그 이유 때문은 아닌 모양이었다. 굳게일학과도 같은 존재가 전부 검도부에 몰려 있으니 눈에 띈 수밖에 없었던 철수의 말에 지금의 준구는 동의하는 바였다.

경화는 죽도로 허공을 가르다가 서수진을 보자 손을 흔들어들었다. 그리고는 유라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건네고는 수진이가 있는 쪽으로 왔다.

“동아리 활동 벌써 끝났는가.”

“아니, 우린 당분간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없어. 안타깝지만 부실을 공사하고 있거든.”

“이르긴 하다면 유라에게 검도부를 맡겼으니 별 문제 없을 것이다.”

경화는 손짓으로 먼저 간다고 유라에게 알리자, 유라는 검을 하늘로 치켜 들고 원을 한 바퀴 그렸다.

“저건 알았다는 신호인가?”

준구가 궁금해서 묻자 경화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건 먼저 가지 말라는 항의 표시다.”

“허허허…….”

경화는 손짓으로 어쩔 수 없다고 표현했다. 신기하게도 경화의 몸짓을 보면, 어떤 동작인지보다 어떤 메시지인지가 먼저 포착되었다.

유라는 이번엔 죽도를 가로로 들어 검을 한 바퀴 돌렸다. 선풍기 날

개가 돌아가는 모습 같기도 했고, 자동차 와이퍼가 360도로 회전하는 모습 같기도 했다.

“저건 무슨 의미야?”

의미를 짐작하길 포기한 준구가 경화에게 재차 물어봤다.

“저건 오늘은 자신이 양보하겠다는 것이다.”

“용케 다 알아맞히는구나…….”

준구는 저 신호를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 무척 궁금했지만, 경화의 손짓을 알아차리는 자신도 궁금하긴 마찬가지였다.

준구, 경화, 수진 등 셋은 체육관을 빠져나와 운동장의 가장자리를 걸었다. 꼭 공사 때문이 아니라도 회의를 하기 위해 좌담실을 쓸 생각은 없었다. 문예부원들이 좌담실에 있을 것으로 상정한 터라 그들은 처음부터 운동장 북서쪽 구석에 있는 휴게실에서 대책을 세우기로 정한 것이다.

휴게실은 사방이 탁 트여 있고, 햇빛을 가리기 위한 지붕이 있다. 지붕은 나무로 일정 간격을 띄워 만들어져 있는데 그 틈새에 덩굴이 자라고 있어서 틈새로 햇빛이 비쳐오기도 하고,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쓰고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여름에야 쉬기에 안성맞춤이지만 겨울에는 다들 여기로 오길 꺼린다. 겨울에는 산에서 불어오는 북풍이 가장 먼저 휴게실을 지나가기 때문에 매우 추운 곳이 된다.

휴게실에는 나무로 된 탁자가 있었다. 의자가 붙어있는 탁자인데, 옆에서 보면 그 모습이 A자로 보인다. 하지만 정식 명칭은 누구도 모른다. 그런 탁자가 휴게실 곳곳에 있지만, 지금은 아무도 앉아 있는 사람이 없었다.

“목 마르지 않냐.”

“그러고보니 음료수 한 잔 마시고 싶긴 하군.”

“나도 부탁할게~.”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준구는 휴게실 끝에 있는 자판기로 뛰어가 지폐를 쑤셔넣었다. 남철수가 제작한 보고서에는 여학생들의 취향 또한 적혀 있어서 준구는 그 지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물론 준구는 보고서 제작에 도움을 주기도 했고 배포하는 역할을 담당했기에 내용을 어느 정도는 기억하고 있었다.

경화에게 줄 블랙 커피, 수진에게 줄 사과 주스, 자신이 마실 이온 음료 등을 뽑고 거스름돈을 빼내는 사이에 경화와 수진은 나란히 의자에 앉아 준구를 기다렸다. 준구가 음료수를 챙겨 둘 앞에 놓자, 둘

은 간단히 감사를 표했다.

준구가 음료수 뚜껑을 뚫지만 야외라서 그런지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운동장에서 패스하라고 절규하는 학생의 목소리가 더 컸다.

경화가 음료를 한 모금 마시고서는 운을 뚫다.

“어차피 우리에게겐 시간이 얼마 없었지만, 수학여행이 앞당겨지는 바람에 얼마 없던 대책 수립 시간이 더 줄어들게 되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 준구, 네가 봤을 때 유라가 수학 여행 때 누굴 처치하고 그럴 것처럼 보이진 않지?”

“으...음, 수학여행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수학여행지에선 별 일 없을 것 같아.”

“그럼 관건은 수학여행 이후겠군.”

경화와 수진의 의견교환을 본 준구는 지금껏 유라를 잡아들일 기회가 없었는지 검토해봤다. 하지만 뚜렷한 돌파구가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준구는 유라의 살인수법이 어떠했는지 봤어?”

수진이 침묵하는 준구에게 말을 걸었다.

“보기야 했지만 조력자가 있어서 범행이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해. 유라는 사람을 직접 죽이는 편이거든.”

“그 조력자가 남칠수겠네.”

“뭐, 그런 셈이지. 어찌면 그 이상일 수 있어. 중학생만으로는 그 정도 일처리를 할 수 있단 생각이 그다지 안 드니까. 돕는 사람이 더 있을 거야.”

“그럼 조력자를 다 파헤쳐야 하는 건가?”

준구와 수진의 문답을 보던 경화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보았다.

“일련의 사건의 배후가, 우리가 **상당한 이상의 규모**라면 어떻게 처리하지?”

경화의 말에 모두 입을 다물어버렸다.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걸 걱정해? 인터넷에 동영상을 유포할 수도 있고,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올리면 그만인데.”

“아니, 그게 안 통할 것 같으니까 문제인 거야. 경찰이 유라를 못 잡은 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야. 증거부족이지. 우리가 끼워맞춘 추측으로 글을 올려봤자 단 한 마디로 일축될 수 있어. 음모론이지.”

“그래, 경화가 한 말이 맞아.”

언제 온 것인지 경화의 뒤에서 헤원이가 서 있었다. 검도복을 입고 있었지만 유난히 작은 키 때문에 호면을 써도 알아볼 수 있었다.

“...어디까지 들었어?”

“내가 어디까지 들었는지는 중요치 않아. 어디까지 아는지가 중요하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찾아왔어.” 헤원이 호면을 벗으며 말했다.

“무슨 부탁……?”

준구는 지금껏 헤원이라도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왔다는 걸 깨달았다.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았는지 헤원이는 준구 옆에 앉았다.

“참, 이거 반납 부탁할게.” 헤원이는 준구에게 책을 건넸다.

“Trade and Markets in the Early Empires……? 이런 게 우리 도서관에 있었나…….”

“도서관이 당분간 안 열린다기에 문예부인 네게 반납하는 거야. 그건 내가 무척 존경하는 사람이 쓴 책이거든. 꼭 읽어 봐.”

“반납은 해주겠다만, 정말 하려는 부탁은 그게 아닌 듯싶은데.”

“차유라를 붙잡는 시도는 하지 말았으면 해.”

“협상을 파기한다고 통지할 때 유라는 별 말 안 했어.”

“알아. 전해 들었어. 그러니까 이건 내 개인적인 부탁인 거야.”

“거절하면?”

“네가 왜 협상을 파기했는지 알고 있어. 필시 정의감 때문이겠지.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헤원이가 한 말이 전혀 이치에 닿지 않은 듯이 보여서 준구는 잠시 할 말을 잊었다. 하지만 분명히 예전에 헤원이는 동전의 각 면에 대해 이야기해준 적이 있었다.

“범죄를 옹호한다? 그거 참 재밌겠는데. 한 번 말해 봐.”

경화는 진심으로 흥미롭다는 듯이 헤원이를 쳐다보았다.

“유라는 비밀 결사 단체에 속해 있어. 너희들이 유라의 조력자로 짐작하는 남철수 또한 그 단체의 회원이야. 유라가 맡은 임무는 특정 세력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거나 특정 세력의 사람을 제거하는 일이야.”

“몇 가지 물어봐도 될까?”

경화가 손을 들고 묻자 헤원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특정 세력이라는 건 그 비밀 결사 단체의 적과 같은 건가? 그리고 비밀 결사 단체면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아야 할 터인데 우리에게 굳이 알려주는 까닭은 뭐지? 끝으로 그 비밀 결사 단체가 하는 짓은 분

명 범죄일 텐데 어째서 정의에 부합한다는 거지?”

“특정 세력은 적에 가깝지. 하지만 무조건 적인 건 아냐. 우리가 지속적으로 견제할수록 우리의 존재가 발각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저 우리의 목표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대응하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까닭은, 사람들의 행동 양식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해도 너희들은 퍼뜨리지 못할 거야. ‘**믿기 힘든 진실보다는 믿을 만한 거짓이 사람들에게겐 더 납득하기 쉽다.**’ 우리는 오랜 경험으로 이 명제가 참임을 거듭 확인해왔어. 끝으로 우리는 현재 준구의 신변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유라가 하는 일들은 **보호 행위**에 가깝지.”

“실컷 날 위협해 놓고서 이제 와서 보호 행위라고?”

준구가 기가 차다는 듯이 말하자, 혜원이는 턱을 괴며 준구를 쳐다봤다. 준구가 그렇게 말하길 기다린 것 같은 모습이었다.

“유라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널 죽일 수 있어. 하지만 유라는 너를 죽이지 않았어. 오히려 보호했으면 했지. 그건 지금껏 너를 살려놓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증명되지. 넌 너무 무방비했지만, 유라는 그럴 때마다 그냥 지나갔어. 유라가 가했던 위협 중 네가 다친 위협은 단 한 번도 없었어. 그게 두 번째 증명이지. 유라가 준구를 위협했던 건 다른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였을 뿐이야.”

“저번에 준구를 습격한 사람도 유라 손에 죽은 이유가 보호 행위였다는 건가……?” 혼잣말하듯 말한 수진이 음료수를 한 모금 마셨다.

“그래, 보호 행위였어. 내가 전학 오기 전에 납치 사건이 있었을 땐, 유라가 날 보호했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유라는 근본적으로 범법자야. 앞으로도 유라가 준구를 죽이지 않을 거라고 치자. 그거랑 우리가 유라를 경찰에 넘겨선 안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지?”

본질적인 질문으로 되돌아오자 혜원이는 팔짱을 낀 팔을 탁상에 놓고 경화를 쳐다보았다. 확실히, 유라가 준구를 보호하려 한다고 해서 준구가 유라를 경찰에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근거로는 빈약하였다.

“이 세상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면서도 눈치 채기 어려운 음모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 있지. 사람들은 받아들이기에 너무 거대한 진실을 황당무계하다고 오해하기 쉽지. 하지만 지금부터 말하는 건, 이미 백 년 가까이 전에 살았던 사람이 주장했던 것이고, 진실이야.”

“내가 물어본 것은 그런 게 아닐 텐데.”



경화가 날카롭게 지적했지만 혜원이는 거기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하였지.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람들에게 떠받들어지는 것은 시장이야. 그냥 시장이 아니지. 특수한 종류의 시장, 특수한 규칙이 적용되는 시장, **지금껏 없었던** 시장. 그 시장은 바로 자기조정적 성격을 지닌 시장이야. 경제가 사회에서 분리될 때 사회는 크나큰 고통을 겪게 되었지. 그 흐름에 동조하는 자들이 바로 자유주의자들이야. 이런 흐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양심 있는 자들이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혁명가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미치광이라고 모욕하는 사람들도 있지. 그런 칭송과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사회를 치유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하였지. 그건 본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어.”

“그래서 그 비밀 결사 단체가 사회를 치유하려는 시도를 하는 무리 중 하나란 건가. 그렇다면 몇몇하게 단체 이름을 알려주지 그래.”

“그 단체의 이름은 다극화 추진 위원회야. 통칭 위원회라고들 부르지. 세상을 바로잡은 다음 자체 해산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역사는 벌써 37년이나 되었어.”

“세상을 바로잡는 건 법과 질서로 가능해.”

준구가 자신이 생각했을 때 지당한 말을 꺼냈지만 혜원이는 동의하지 않는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건 국가 내부의 통치에 적용되는 수준이야. 국제적 분쟁에 대해선 통하지 않아.”

“준구를 지키는 것과 국제적 분쟁과 관련이 있나?”

경화가 깎지킨 손으로 턱을 괴며 말했다.

“위원회가 하는 일이 국제적 분쟁과 관련 있고, 준구는 숙명적으로 국제적 사건에 휘말려 들었어. 본인은 아직 잘 모르겠지.”

“짐작하는 거 있어?”

수진이 놀라며 묻자 준구는 자신을 찾아온 CIA 요원이 떠올랐다.

준구는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명함을 꺼내며 말했다.

“며칠 전에 도서관에 실비아라는 사람이 찾아왔어. 유라를 쫓고 있는 거 같았는데 협조 제안을 거절했어. 정체를 알 수 없던 사람이어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해 주지 그랬어.”

“미안, 그 땐 혼자서 해결해야겠단 생각이 들어서 말 안 했어.”

“혹시 그 실비아라는 사람을 잡거나 사살하려는 거야?”

수진이 자신의 상상을 넘어서는 사건에 흥미가 생겼다.

“자세한 속사정은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될 거야.”

“방학 때 언급했던 유예된 전쟁이란 것도 관련된 거야?”

수진의 질문에 혜원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 전쟁을 최대한 대비해 볼 거야. 이 정도로 말했으면 납득해줬을 거라 생각해.”

혜원이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체육관 쪽으로 걸어갔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저 말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래도 유라를 잡아야 하는 걸까?”

준구의 질문에 수진과 경화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 5.1

정보상은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섰다. 직업이 경찰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원치 않는 윗선의 지시를 들을 때도 있지만, 좀처럼 미행을 당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정보상은 미행을 당하고 있었고, 자신의 집 문앞에 도착할 때까지 미행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정보상을 미행하던 소령은 정보상이 문고리를 잡자 어깨를 짚었다.

“오랜만이외다, 이상동 씨.”

“사람을 놀래키는 취미라도 있으십니까? 무슨 일이요?”

정보상은 귀찮다는 듯이 뒤돌아보며 소령을 보았다. 소령은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았을뿐더러 선글라스를 껴서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없었다. 거기다 왼손에는 돌돌 만 신문지를 쥐고 있었다.

“잠시 볼 일이 있어서 그런데,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쇼, 소리 지를 거요……!”

“제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이 시간 즈음엔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적고, 건물마다 끝내주는 방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제 말을 못 믿겠으면 주변을 둘러 보시오.”

정보상은 소령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이 일대의 모든 CCTV를 관리하는 것이 정보상 자신이기 때문이다.

“표정을 보니 제 말을 잘 이해하신 것 같군요. 좋습니다, 암전히 따라와서 제가 묻는 말에 착실히 대답해 주시기만 하면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 드립니다. 하지만 전 쫓겨다니는 몸이라 위기감을 느끼면 언제든지 이 신문지가 피에 젖을 지도 모르겠군요.”

소령은 한쪽 입꼬리를 울리며 씩 웃었다.

정보상은 소령의 신문지를 든 손목을 순간적으로 잡으려고 하였지만, 소령이 정보상의 목에 팔굽치기를 먹였다.

정보상은 땅이 자신에게 돌진하는 것을 보았다.

#### 5.1.1 2037년 9월 7일. 월요일.

준구는 사복을 입고 학교에 올까 고민했지만, 마땅히 입을 사복이 없어 교복을 입은 채로 도착했다. 준구가 학교에 도착하였을 때, 학교 운동장에 모인 학생들 중 과반이 교복을 입고 있었다.

운동장에는 학생들이 반 별로 모여 있었다. 3박 4일짜리 수학여행에 3학년 학생들만 가는데, 3학년은 총 다섯 개의 반이 있고 각 반의 인원이 스무 명 안팎이지만 버스의 수용 가능 인원은 최대 마흔다섯 명이라, 총 세 대의 버스가 운동장에 준비되어 있었다.

준구가 1반쪽에 가자 교복을 차려 입은 철수가 이백향 선생과 얘기를 나누며 인원을 체크하는 것이 보였다. 철수는 백향 선생과 얘기를 다 나눈 건지 고개를 끄덕이고는 1반 학생들이 서 있는 대열에 합류하였다. 준구는 철수가 유라의 조력자임을 숙지하며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었다.

“안녕. 좀 반장다워 보이는데?”

“그래? 고맙네. 내가 고생 좀 했지.”

철수는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 가슴을 활짝 펼지만 피곤해 보였다.

“아, 우리는 2반이랑 같이 1호 버스에 탑승한다. 알았지? 나는 맨 뒤에 앉을 거고, 너는 맨 앞에 선생님 자리 근처에 앉아. 난 지금 매~우 피곤해서, 버스 내릴 때는 네가 애들을 통솔했으면 해. 어렵지 않지?”

“문제 없다.” 준구는 그리 어렵지 않은 부탁이라 흔쾌히 승낙하였다.

“다들 여기 있구나.”

교복을 입은 유라가 눈을 비비며 준구와 철수 앞으로 걸어왔다.

“너 웬지 눈가가 붉은 거 같은데……. 울었나? 눈병 걸린 건 아닌지?”

준구가 유라의 눈을 보며 말하자 유라는 호주머니에서 조그마한 책을 꺼냈다.

“실은 어제 이 책을 다 읽고서 좀 감동을 받았긴 했지.”

준구가 책 제목이 무엇인지 보려고 하였지만, 유라는 곧바로 호주머니에 책을 도로 집어넣었다.

“선생님, 저희 버스 몇 시에 탑니까?”

유라가 손을 들어 백향에게 질문하자 백향은 손목시계를 쳐다보았다. 12시 50분이었다.

“출발은 앞으로 십 분 뒤인 오후 1시 정각에 한다! 지금 순서대로 차량에 탑승하도록! 지정석 같은 건 없다! 알아서 잘 앉아!”

백향이 그리 말하자 줄 선 학생들이 버스에 가서 차례로 탑승하기 시작하였다. 준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수진이와 경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수진이 찾고 있는 거냐?”

철수가 눈치 빠르게 준구의 심중을 꿰뚫어 보고는 물어봤다. 준구가 별다른 대답이 없자 철수는 버스에 올라타며 말했다.

“걱정 마. 제 시각에 올 거야. 출발까지 아직 십 분 남았으니까, 일단 버스에 타자고.”

“알았어.” 준구는 간단히 대답하고 버스에 올라탔다.

철수가 맨 뒷좌석에 가서 앉고, 준구는 맨 앞좌석 창문 쪽에 앉았다. 준구가 가방을 앞으로 가져오자 유라가 뒤이어 준구 옆에 앉았다.

“왜 내 옆에 앉냐.”

준구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하자 유라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내 마음이지.”

유라 또한 등 뒤에 맨 가방을 앞으로 가져와서는 꼭 껴안았다.

“가방 안에 뭐 들었냐.”

“웃가지랑 세면용품 등이지. 무기라도 들었을 거 같아?”

“응, 권총이나 군용 나이프 같은 거. 아니면 독극물과 주사기.”

“깜빡했네. 들고 올 걸.”

남들이 말했으면 농담처럼 들렸겠지만, 유라가 말하니 소름돋았다.

유라와 준구가 침묵을 지키는 사이에 2반 학생들도 버스에 탑승하기 시작하였다. 버스 안은 점차 시끌벅적해졌지만, 아무도 제재하지 않아서 더더욱 시끄러워졌다.

현경화가 탑승하자 버스 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경화가 별말 없이 준구를 힐끔 쳐다보고는 맨 뒷좌석에 가자, 버스 안은 다시 시끄러워지기 시작하였다. 뒤이어 서수진이 탑승하자 버스 내 소음은 최고조에 달했다.

“버스 안이 좀 시끄럽네?”

수진이 준구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자 준구도 인사했다.

“그 또한 우리가 미숙하다는 증거겠지.”

“나는 무시하나, 2반 반장?”

“안녕, 유라야. 왜 네가 준구 옆에 앉아 있어?”

“내 마음이지.” 준구가 물어봤을 때와 똑같은 답변이었다.

“준구야, 내 옆에 앉아.”

유라가 건너편 창가 쪽 좌석에 앉아서 빈 자리를 툭툭 손바닥으로 치자 준구는 일어서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혜원이가 탑승하면서 준구에게 말을 건넸다.

“곧 선생님께서 탑승하시고 바로 출발할 거야. 자리에 앉아.”

“음…….”

준구는 별 수 없이 자리에 앉았다. 수진이는 통로 쪽으로 옮겨 앉고, 혜원이는 맨 뒷자리에 앉아 철수 옆에 앉았다. 준구는 철수가 뭘 하나 궁금해서 고개를 돌려 맨 뒷좌석을 쳐다보니, 철수는 두 미인 사이에 앉아서 은근슬쩍 그 둘의 어깨에 팔을 걸쳤다. 하지만 경화는 주먹으로 철수의 콧등을 가볍게 쳤다. 어쩔 수 없이 경화의 어깨에 올린 팔은 내렸다. 그러나 혜원은 다소곳이 앉은 채, 철수의 어깨동무를 거부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경화가 잔소리를, 철수는 흘려듣기를 하는 모양이었지만, 둘 다 이 소음을 어떻게 줄일 생각은 없는 모양이었다.

준구가 사태를 파악한 동안, 백향마저 버스에 탑승하고는 수진의 옆 자리에 앉았다.

팔짱을 끼고서 잠시 눈을 감더니 도저히 못 참는 한계에 도달한 건지 자리에서 일어서서 뒤쪽을 쳐다보며 외쳤다.

“조용히 못 해?! 다들 버스에서 내렸다가 타겠나!”

준구는 백향 선생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고 있어서 가만히 있었지만, 다른 학생들은 그런 걸 몰랐다.

“이백향 선생님께선 나를 이기신다.”

경화가 나직이 말하자 학생들의 소음이 일순간 멎었다.

상황이 정리되고 얼마 안 있어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버스에 탑승하였다. 아무래도 퇴직 소방관인 모양이었다. 그리고 뒤이어 버스 기사가 탑승하였다. 중년 남성이 적당히 빈자리를 찾아가서 앉을 동안 버스 기사는 학생들에게 안전 벨트 착용을 요구하였다.

“드디어 가는 건가.”

준구가 안전 벨트를 매는 사이 버스에 시동이 걸리고,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목적지는 남쪽의 창원 해양공원으로 신설사에서 버스로 천천히 달려도 약 세 시간 정도 가면 도착하는 곳이다.

준구도 다른 학생들처럼 긴장을 풀고 잠에 빠져들었다. 유라가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어차피 이런 밀폐된 버스 안에서는 자신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하였다.

준구가 편하게 자는 동안 유라는 자고 있지 않았다. 유라는 준구와 팔짱을 끼고는 준구가 자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왼손으로 준구 얼굴에서 흔들었다. 하지만 준구는 눈을 뜨지도 않고 편하게 잠자고 있었다. 유라는 준구가 입은 교복 상의를 천천히 젖히기 시작하였다. 건너자리에서 선잠이 들었던 수진은 속이 안 좋아져서 잠에서 깬다. 옆자리도 자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결눈질을 하니 유라가 준구의 품을 뒤지는 것처럼 보였다. 정작 당사자인 준구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꿈에도 모른 채 계속 잠자고 있었다.

“뭐해?” 수진이가 유라의 팔을 툭 건드리며 물었다.

“췌! 준구 깨.”

“지금 더, 더, 더, 더…”

“더더욱?”

“더듬는 거 아냐?!” 입에 담기 거북한 단어를 입에 올린 탓에 수진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렇게 보여? 그럼 그만 더듬을게. 됐지?”

“…너 그러다 성희롱으로 신고당한다.”

“그럴 일은 없어. 난 더듬은 적 없으니까.”

유라는 능청 맞게 두 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며 결백을 주장했다. 실제로 유라는 준구의 품을 더듬지 않았다.

수진은 팔짱을 끼고 핵 얼굴을 반대편으로 돌려서 창가를 바라보았다. 속이 거북했지만 짧지 않은 여정일 것이라 다시 잠들려고 애썼다.

학교에서 출발한 세 대의 버스는 일렬로 시원하게 도로를 질주하였다.

## 5.1

정보상은 몇 차례 따귀를 맞고서야 눈을 떴다. 눈을 떴는데도 앞이 보이지 않아 눈을 비비려 했지만, 손이 뒤로 묶여 있어서 그럴 수 없었다. 몸을 뒤척이다가 옆좌석에 앉은 누군가와 툭 부딪쳤다.

“이제 깨셨나 보군.”

“…차량 안인가.”

차량은 이동하는 중이었는지 몇 차례 덜컹덜컹했으나 곧 멈췄다.

“상황 파악 참 빠르군요, 이상동 씨.”

“어디로 데려가는 건가.”

“그걸 알려줄 거면 눈을 가리지도 않았어, 이 양반아.”

소령은 킁킁거리며 정보상을 비웃었다.

“내려.” 소령은 정보상의 머리채를 꼬집어당기며 차량에서 끌어내렸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시간이 있지. 소개해 줄게. 바로 강의 시간이야! 학생은 내가 하는 말을 모조리 이해하고 내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해야 해. 근데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F학점을 줄 거야. F가 권총 닦았다고 그런다지?”

소령은 정보상의 배를 걷어차서 의자에 앉혔다. 소령 이외에도 사람들이 있었는지 여러 손이 정보상의 다리를 붙잡았다. 소령은 양쪽 다리에 케이블타이를 의자 다리에 묶으며 최대한 조았다.

“요즘 케이블타이 끊는 방법이 인터넷 영상에 많이 돌아다니더라고.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하는 게 맞아. 그렇지 않아?”

소령은 케이블타이를 각 다리에 네 개씩 더 묶고 조았다. 총 열 개의 케이블타이가 두 다리에 묶이고서야 다리를 잡은 손에 떼졌다.

“대답을 안 하네? 그러면 F학점 받을 거야~! 옛날에 한국학을 잠깐 배울 때, 한국이 동방예의지국이었었던가? 뭐, 그런 고상한 나라라고 배웠는데, 막상 사람들과 접해보니 교과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겠더군. 한국어로 표현하자면, 딱 어울리는 표현이 있어. 싸가지가 없다. 니네들 다 싸가지가 없어, 알아?”

“참 고상한 표현을 배웠군.”

소령은 주먹으로 정보상의 팔을 때렸다. 정보상은 최대한의 저항 신호로 신음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그 고상한 표현을 니네가 쓴다고. 그러니 배울 수밖에 없잖아?”

소령은 발로 찼던 곳을 찼다. 정보상은 저항할 수단이 없어 그대로 맞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경찰서에 찾아가서 협조를 구했을 때, 난 나름 신사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경찰 청장이 느끼기엔 안 그랬나 보더라고? 난 동료가 죽어서 범인 좀 잡겠다는 데 말이시!”

소령은 다시 한 번 정보상을 걷어찼다. 정보상이 입은 옷에 피가 번지기 시작하였다. 의자는 바닥에 단단히 고정된 모양인지 정보상은 옆으로 넘어지지 않았다.

“중학생이 정당방위로 CIA가 동료로 삼은 사나이를 죽일 수 있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일까? 당신의 고견을 듣고 싶은데.”

소령은 쪼그려앉아 정보상에게 따귀를 때렸다.

“대답해.” 다시 한 번 더 따귀를 때렸다.

“대답하라고, ■.” 정보상의 입가에 피가 나올 때까지 따귀를 때렸다.

“야~. 내 손바닥이 다 아프다. 아직 덜 쳐맞았구나? ■■, ■■■가.”

소령은 주먹을 쥐고 앉아있는 정보상의 복부를 강타했다. 이번만큼은 정보상이 괴로움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다. 명치를 정확하게 때렸기 때문이다.

정보상이 헉헉거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자 소령은 정보상의 머리를 뒤로 끄집어 당기며 계속 말했다.

“난 원래 고문 같은 거 취미 없었는데, 친절한 한국인이 나한테 고문의 진수가 뭔지 가르쳐 주더라고. 나도 이거 몸으로 체득한 거라서, 너한테도 알려주고 싶어. 이거, 너희들 주특기잖아? 무고한 사람 잡아다가 괴롭히는 거 말이야!”

소령은 형짚을 정보상의 얼굴에 씌우고서 거기에 물을 부어댔다.

“마침 목 말랐지? 이거 마시고 내가 묻는 말에 잘 대답해.”

정보상은 숨을 쉬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의자에 고정된 발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었다.

“내 말 듣고 있냐, 쓰레기 새끼야! 알았으면 고개를 끄덕여, ■■■!”

소령이 잠시 머리채를 놓아주자 정보상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좋았어! 그렇게 나와줘야지!”

소령은 주먹으로 정보상의 얼굴을 쳤다. 코뼈가 내려앉은 정보상의 코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난 네 태도가 무척 마음에 든다! 공부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야!”

소령은 주먹으로 광대뼈를 때렸다. 입 안에 미끈거리는 피를 맛보며 정보상은 땅바닥에 피 섞인 침을 뱉었다. 그 안에는 어금니가 있었다.

“죽고 싶지? 죽고 싶지? 살려 줄게! 내가 알고 싶은 것만 말하면 돼.”

정보상은 여전히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래! ■같은 삶이란 특별해!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에도 고집을 부릴 기회가 주어지니까 말이지!”

소령은 어디선가 가져온 금속 야구 방망이를 땅에 질질 끌고 왔다.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바닥에 툭툭 방망이를 두들겼다.

“이런 직업 갖지 말고 야구 선수나 되어 보는 건데 말이야. 직구가



오면 이렇게 딱 홈런을 치는 거지!”

소령은 방망이로 정보상의 정강이를 부셨다. 정보상은 고통에 울부짖었지만 소령은 들은 척도 안 했다.

“과~울~! 아, 안타까움에 몸부림치는 관중들! 두 번째 공은 커브! 이번에는 안타라도 치겠습니다!”

소령은 방망이를 휘둘러 정보상의 가슴팍을 쳤다.

“그만..., 그만해…….”

“안타깝게도 헛스윙! 투 스트라이크 상황이 되었네요! 세 번째 공은 번트를 해서라도 1루에 진출하겠습니다!”

소령은 방망이를 허공에 휘휘 휘두르자 정보상은 거칠게 울부짖었다.

“알고 싶은 게 뭐야! 그 중학생들이 누구인지인가! 어디에 사는지인가! 김한균이 사망하게 된 경과인가! 뭐든지 말해!”

“잘 생각했어.”

소령은 정보상을 가볍게 칭찬하고는 정보상의 눈을 가린 천을 풀어 주었다. 정보상은 눈물에 젖은 눈으로 소령을 노려보았다.

“위위……. ■■■, ■■■■. 그렇게 찌려보면 다시 눈을 가려주고 몇 대 더 패고 싶어지잖아, ■■■. 우리, 신사적으로 대화로 해결하자고?”

“알고 싶은 게 뭐가.”

소령은 흐뭇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우선 김한균을 죽인 진범이 누구인지부터겠지. 모른다고 잡아뗐 생각은 하지 마. 그러면 중학교관 중학교는 모조리 테러를 가해줄 요량 이니까. 그 아이 하나 보호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이 죽어도 상관 없다면야 마음껏 학살해 줄게.”

“...김한균을 죽인 자는 「피에 물든 밤」이다.”

소령은 그 이름을 아주 오래 전에 들은 적이 있었다.

소령은 조국의 명을 받고 처음에 간 곳은 일본이었다. 다른 국제정세 분석 전문가들처럼 소령도 요원들이 수집해 오는 정보를 분석하는 정도의 일을 했더라면 조국에 머물러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소령은 일본에서 수상한 목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다.

한국과 이웃 나라 사이의 관계가 수십 년 전과 비교하면 마치 평행 세계에 여행을 온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변해버렸다. 당연히 그렇지만 온갖 음모론이 판치기 시작하였고, 소령도 그런 음모론 중 상당수 부당한 근거를 토대로 형성되었음을 안다. 어떤 국가가 아무리 강력하여도 타국을 자신의 의지대로 조종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자신의

조국도 그런 공작에 실패하여 기나긴 나락으로 떨어지는 중이지 않은가. 하지만 음모론 중 하나를 거짓이라 신고할 순간에 소령은 음모의 중심이 존재함을 목격하였다. 그 구심점 중 하나가 「피에 물든 밤」이었다.

“그녀는 확실히 죽었어……. 내가 죽었다고…….”

소령은 과거의 일을 잊고 있었다. 구심점을 몰살했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와해되었을 것이라 여긴 탓이었다.

“하하……. 살아 있었나 보네.”

스스로에게는 사명감이란 게 있었다. 누구보다도 조국을 사랑한다. 애국심이란 사악한 자가 찾는 마지막 보루라고 누가 말했는가.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자신은 조국을 떠났다. 그것이 조국을 지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자신은 조국을 지키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말해. 그녀는 어디지? 그들은 세상을 언젠가 철두철미하게 파괴할 거야. 그들은 모든 목적이 달성되면 언젠가 무책임하게 자진 해산할 테니 최대한 빨리 찾아내서 박살내야 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소령이 거칠게 정보상의 멍살을 잡으며 말했다. 질긴 악연을 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기분이 들었다.

“안 그래도 여기로 찾아올 거야.”

정보상은 입 안에 고인 피를 내뱉으며 말했다.

### 5.1.2

버스는 오후 네 시가 되어 창원 해양공원에 도착하였다. 해양공원은 섬에 있었는데 육지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었다. 좋은 자연 경관에 모두들 좋아하진 않았다. 아무래도 놀이기구가 잔뜩 있는 곳을 기대한 탓인지도 모른다. 시무룩한 친구들 틈에서 준구는 일정표를 보았다.

준구는 워낙 급하게 결정된 수학여행이라 일정이 제대로 되어 있을지 걱정했지만, 일정표에는 제대로 수학여행다운 행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자유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버스 문이 열리자 백향이 자리에서 일어나 뒤를 보며 외쳤다.

“제군, 일어나도록! 창원 해양공원에 도착했다! 순서대로 내려! 새치기하면 엄벌이야!”

준구는 잠든 유라를 흔들며 깨우려다 유라의 얼굴에 난 눈물자국을 보았다.

“내리자.” 수진이 말을 걸고 먼저 내리자, 준구는 유라를 흔들었다.

“일어나.” 유라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가방을 메면서 일어나 하차하자 친구도 뒤따라 하차하였다.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리자 교사들의 통솔에 따라서 줄을 맞춰 섰고, 인원과약이 끝나자 모두 숙소로 들어갔다.

숙소는 생각보다 작은 규모지만, 3학년 학생들과 선생님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충분하다. 각 반의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은 다른 방에 배치되었다. 반장, 부반장, 총무 중 아무라도 한 명이 자신이 소속된 방을 통솔하고 책임을 지게 했는데, 다행히 어느 방도 통솔자가 없는 곳은 없었다.

아이들이 숙소에서 짐을 놓고 무료하게 시간을 보낼 틈도 없이 교사들은 학생들을 숙소 밖으로 불러내어 정렬시켰다. 학생들을 이끄는 것은 백향 선생이었다.

“오늘은 간단히 일정을 소개하도록 하는 선에서 끝내겠다, 제군. 여기 서 있는 조교 분들은 모두 자랑스러운 해군이란다. 특별히 차출되어서 우리를 도와주기로 하셨지.”

백향 옆에는 세 명의 해군이 서 있었다. 모두 하얀 해군 정복을 입었는데, 방금 다림질이라도 한 것인지 깔끔해 보였다. 각각 하사, 병장, 상병인데, 하사는 여자다. 그들은 각자 자기소개를 하였고, 앞으로의 일정에서 자신들이 무슨 역할을 맡았는지도 간략하게 알려주었다. 끝으로 거수경례를 하자 학생들은 무성의하게 박수를 쳤다.

“제군, 버스에서 본 학생도 있겠지만, 안전 사고에 대비해서 따라오신 전직 소방관 분들도 계신다. 모두 자랑스러운 전직 소방관이란다. 특별히 지원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기로 하셨지.”

백향의 반대편 옆에는 다섯 명의 소방관이 나란히 서 있었다. 각자 복장은 제각각이었는데, 허름한 평상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도 있었다. 그들 또한 각자 자기소개를 하였고, 사고가 나면 호루라기를 불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일정마다 알게 모르게 따라오는 모양이었다.

“각 방의 통솔자는 앞으로 나와서 호루라기를 받도록. 나머지 자유 시간이다. 버스 안에서처럼 너무 시끄럽게 굴진 말도록! 주변에 민가가 없으니 상관 없다고 생각지 말고, 선배 교사들 중엔 소음을 싫어하는 분도 계신다. 너무 시끄럽지만 얹으면 제재하지 않는다. 너희를 위한 여행이니 실컷 즐기도록 해라!”

사냥꾼은 평온하게 집에서 생물학 책을 읽고 있었다. 진화의 위대함을 익히던 사냥꾼은 주머니에서 울리는 진동을 느꼈다. 사냥꾼이 휴대폰 화면을 보니 거기엔 『정보상, 납치로 추정중. B급 장비 소지바람. 집결지 FD.』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사냥꾼은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급히 장롱을 거칠게 열고 검은 옷을 꺼내 갈아입었다. 머리에 열탐지경이 달린 방탄모를 쓰고 왼쪽 허리춤에 대검, 오른쪽 허리춤에 삼단봉, 허벅지 부근에 권총을 홀더에 꽂고 고정시켰다. 끝으로 검은 가방을 메고서 문을 잠그는 것도 생략한 채 집밖으로 빠져나왔다. 골목길에는 타이밍 좋게 지프차 한 대가 집앞으로 와 멈춰섰다. 사냥꾼은 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하자 운전석에는 운전수가 타고 있었고 차량 문을 닫기도 전에 출발했다.

“일찍 나왔네.”

“운전 면허는 언제 따셨어요?”

“무면허야.”

“농담도 참…….” 사냥꾼은 문이 잘 닫혔는지 확인해보았다.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치곤 꽤 겁먹은 거 같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냥꾼은 안전 벨트를 땀다.

“북망산 산기슭 어딘가로든지 가지 않겠나, 하핫!”

“저질 농담 한 번만 더 하면 삼도천 보내드립니다.”

“…….”

“근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차량을 한 대 쫓고 있어. 신설시 근교 야산으로 가고 있지.”

“속도 좀 내죠. 느낌이 안 좋아요.”

사냥꾼이 탄 차량은 속도를 점점 높였다. 그러다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온 차량 때문에 급정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가야할 길을 틀어막은 차가 움직이지 않고 있자 운전수는 후진을 하였다. 사냥꾼은 차량을 바리케이트 삼아 적들이 자신들의 길을 막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자마자 뒤에서도 차량이 다가와서 운전수와 사냥꾼을 오도가도 못 하게 막았다.

“귀찮게 되었군…….”

사냥꾼은 안전벨트를 풀고 가방에서 수류탄을 한 개 꺼냈다. 앞뒤로 적들이 차에서 내리자 사냥꾼은 안전클립을 벗겼다.

적들이 차에서 전부 내렸다는 판단을 하자 사냥꾼은 차에서 내려 안전편을 뽑아서 바로 뒷차에 수류탄을 집어던졌다. 수류탄은 차량 지붕 위에 떨어져서 구르더니 땅에 떨어짐과 동시에 폭발하였다. 뒷차

는 폭발에 휘말려 너털너털해졌다.

앞차에서 내린 자들은 동료가 너무 쉽게 사살당해버린 장면을 보고 주춤하였다. 사냥꾼은 창문에 고개를 내밀고는 운전수에게 말했다.

“뒤는 처리했습니다.”

운전수는 주저하지 않고 후진을 시작했다. 뒷차 곁에서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자들을 개의치 않고 밟고 지나갔다. 뒷차가 방해가 되었지만 운전수는 차량이 부딪치는 것에 개의치 않고 계속 후진했다.

사냥꾼은 적들이 제정신을 차리기 전에 달려가서 칼로 가슴팍을 한 명 찔렀다. 한 명 털썩 쓰러지고서야 적들은 품에서 단검을 꺼내들었지만 사냥꾼은 그대로 단검을 던져서 한 명 더 처리했다. 연이어 자동차 보닛을 한 손으로 짚고 점프해서 발차기로 한 명을 쓰러뜨리고, 착지함과 동시에 권총을 꺼내 살아있는 모든 적에게 바람 구멍을 만들어주었다.

『여긴 허수아비가 드리운 그림자. 문제가 생겼다. Error Code Orange. 먼저 이동하기 바란다. 이상.』

“Error Code Orange. 숙지했다. 먼저 이동하겠다. 이상.”

사냥꾼은 단독으로 정보상을 구하러 뛰어갔다.

전투가 한바탕 벌어진 골목길에는 시체와 엉망이 된 차량이 남았다.

### 5.1.3 2037년 9월 8일. 화요일.

삼삼오오 무리를 이루며 학생들이 건물 안에서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해전사 체험관에서의 견학이 얼추 끝났지만 시간이 남은 탓에 준구는 친구들과 함께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첫날 숙소에 도착해서도 카드 게임을 잔뜩 했지만 할 만한 게 카드 게임 뿐이라 물을 계속 바꿔가며 하고 있었다. 바닥에 앉아서 할 수는 없어서 그들은 카드 게임에서 꼴찌를 한 사람이 번갈아가며 ‘바닥’ 역할을 했다. 다른 사람이 패를 손에 쥔 동안 바닥에 놓여 있어야 할 카드를 쥐고 있으면 되는 단순한 역할이지만, ‘바닥’ 역할을 하는 동안 플레이어가 되진 못한다.

점심이 언제 오는지 기다리며 준구는 자신의 패를 들여다 보았다. 아직까지 꼴찌를 하지 않아서 플레이어로 참전하고 있지만, 이번 판은 패 패가 좋지 않아 적당히 시간을 끌면서 플레이했다.

준구 차례가 되자 준구는 생각해 두었던 패를 내놓으며 새로운 패를 한 장 집었다. 그 때, 누군가가 준구의 팔을 붙잡았다.

“누구야?”

준구가 자신을 붙잡은 사람을 쳐다보자, 거기엔 곰처럼 큰 체격의 조석빈이 서 있었다. 생각보다 혈색이 좋지 않아 덩달아 준구도 긴장했다.

“잠시 할 말이 있는데…….”

“여기서 하면 안 될까? 얼마 안 있으면 끝나는데.”

“…그럼 조금 기다릴게.”

준구는 자신이 가져온 패가 영 좋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번 판은 내가 꼴찌야. 잠시 석빈이라고 얘기하고 올게.”

준구는 ‘바닥’ 역할을 하고 있던 성한이에게 카드를 몽땅 넘겨줬다.

“잠깐, 그럼 나 또 바닥이야?”

“금방 올게.”

준구는 웃으며 성한의 팔을 툭툭 쳤다. 그리고 석빈과 함께 해전사 체험관 밖으로 나왔다.

밖에도 학생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둘 사이의 이야기를 엿들을 만한 사람은 없어 보였다. 그래도 만약을 위해 계단을 올라서 난간 근처에 설치된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무슨 일이야?”

“실은 어제 동생에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집에 돌아오질 않았거든.”

“네 동생이면 석준이?”

“응, 가출이라고 하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서…….”

준구는 석빈이 무슨 까닭으로 자신을 불러서 동생 이야기를 꺼냈는지 의아하였다. 단순히 위로를 해달라고 할 거였으면 굳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어도 될 거란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에도 집에 전화해 봤는데, 부모님께서 동생이 안 왔다더라고 말씀하시더라. 실종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조만간에 돌아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준구야, 너 문예부잖아. 방학 동안 문예부가 학교에 자주 모였는데 연쇄 살인마를 잡는 모임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연쇄 살인마가 잡혔으니 이제 우리 동네는 안전한 거 아니냐?”

“…우리 동네는 안전해.”

준구는 석준이 혹시라도 순식간에 살해되었으면 어떻게 하나 생각했지만, 유라에게 나름의 살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준구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친구에게 석준이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가 없어 괴로웠다.

뒤쪽에 군중이 걷는 소리가 들리자 준구는 난간 아래를 쳐다보았다. 학생들이 건물에서 단체로 빠져나오는 소리였다. 교사들이 머리 위로 박수를 몇 번 치자 학생들이 교사 앞에 서기 시작하였다.

“곧 점심 먹나 보다. 일단 내려가자.”

“응…….”

준구와 석빈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 자기네 반 친구들이 선 곳에 갔다.

## 5.1

그림자는 옥상에서 맨눈으로 지상을 훑어보고 있었다. 사냥꾼이 적들을 처리하는 사이에 운전수가 운전하는 차량은 뒷차를 개의치 않고 후진을 하였다.

일단 이 시각에는 거리를 지나는 사람이 극도로 적다. 그래서 적들도 날뛰고 자신들도 날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림자는 골목길을 걷는 사람이 있음을 보았다. 그림자는 망원경으로 행인이 누구인지 식별해 보았다. 행인이 서기라는 것을 안 그림자는 낭패를 보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류탄의 폭음에 움츠러든 서기가 호기심에 골목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려고 고개를 힐끗 내밀었을 때, 서기의 뒤에서 조폭들이 서기를 둘러쌌다.

그림자는 무전기에 대고 침착하게 말했다.

“여긴 허수아비가 드리운 그림자. 문제가 생겼다. Error Code Orange. 먼저 이동하기 바란다. 이상.”

『Error Code Orange. 숙지했다. 먼저 이동하겠다. 이상.』

그림자는 난간에 세워둔 저격소총을 들고 스킵으로 적들의 동태를 살펴보았다. 적들은 저항하는 서기를 끌고 자기들이 가져온 차에 억지로 태웠는데 아무래도 서기를 자신들의 적으로 착각한 모양이었다. 주변에는 후속 지원 세력이 없는 모양이었고, 사냥꾼과 운전수는 서기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서기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인 셈이었다.

서기가 탄 차량의 문이 닫힐 때, 그림자는 어깨에 개머리관을 대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호흡을 잠시 멈추고 방아쇠를 당기자 총성이 귓가에 진동했다. 차량의 타이어에 핑크가 났지만 개의치 않고 이동하려는 듯이 보이자 그림자는 운전석을 겨냥했다. 수평보다는 수직에 가까운 각도가 나와서 맞추기 어려웠지만, 이대로라면 서기가 영문도

모를 일에 휘말려서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었다.

맞추는 수밖에 없다.

그림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방아쇠를 당기자 차량의 유리가 박살나며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운전대에 고개를 파묻었다.

명중이라고 기뻐할 틈도 없이 적들은 차량에서 빠져나와 그림자가 있는 쪽으로 권총을 겨누었다. 아무래도 두 번의 총성 때문에 위치가 탄로난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림자는 침착하게 적들을 한 명씩 저격해 나갔다. 적들은 그림자가 총격을 연이어 가하자 자신들이 잡은 인질인 서기에게 총구를 겨누었다.

“자고로 인질을 잘 활용하려면 인질을 앞세우고 자기 자신은 노출되지 않아야 하는 법…….”

그림자는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서기에게 총구를 겨누는 자의 심장에 총알을 박아넣었다.

그림자는 서기 주변의 적들을 다 처리했다는 생각이 들자 일단 안심 이 들었지만, 서기가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기가 휴대폰을 꺼내자 그림자는 자신을 촬영하려는 것임을 눈치 채고, 미리 준비한 줄을 건물 아래에 늘어뜨리고 하강 레펠을 실행했다. 4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지상에 닿은 그림자는, 지상에 닿자마자 서기를 향해 뛰어갔다. 서기는 그림자를 위협하지 않다고 인식한 건지 자기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동영상 촬영을 해냈다.

“촬영하는 거 당장 꺼.”

그림자는 서기의 휴대폰을 낚아채서 녹화된 영상을 모조리 삭제했다.

“어, 이 목소리는 남철수 선배 아니에요?”

“여긴 위험해. 어슬렁거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저도 그러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힘들 거 같아요.”

“어디 다쳤어?”

서기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손목을 보여주었다. 손목시계처럼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폭탄이었다. 터지기만 하면 확실히 손목은 날아갈 정도의 위력은 될 것 같았다.

“저 사람들이 달았는데, 이 차량에서 10미터 이상 벗어나면 자동으로 터지나 보더라구요.”

“젠장, 폭탄 해체 장비는 내가 안 들고 있는데.”

“선배, 대체 정체가 뭐예요?”



“잠시만 조용히 해 줄래? 대책을 강구해야 해.”

“경찰 신고하세요.”

그림자는 서기의 어깨를 짚으며 말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 상황 파악 아직 덜 되었냐?”

“……그럼 선배가 소문의 연쇄 살인마로군요…….”

그림자는 머리를 긁적이며 얼른 긍정하지 않았다.

“사정이 좀 복잡해. 잠시만 기다리고 있어봐.”

그림자는 허리춤에 꽂은 무전기에 대고 말했다.

“이쪽은 「허수아버가 드리운 그림자」. 「수레바퀴 아래의 중성미자」 들립니까. 잠시 B4F2 방면으로 와줬으면 합니다. 민간인 한 명에게 폭탄이 장치되었습니다. 폭탄을 해체해야 해요.”

『그 민간인은 버리고 합류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다.』

“그게 좀 곤란한데, 조석빈 동생인 조석준이 그 민간인입니다. 이상.”

운전수로부터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이쪽으로 올 것이란 생각을 하였다.

“무전기에서 들린 목소리도 익숙한데…….”

“알고 싶은 게 많겠지만, 알아선 안 되는 것들 투성이니 양해해 줘으면 해. 그리고 이번 일에 대해선 잊어라.”

“참 어려운 요구를 다 하시네요…….”

그림자는 서기의 손목에 달린 폭탄을 자세히 들여다 보았다. 하지만 해체해 보지 않고 어떤 폭탄인지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위험해요!”

서기는 그림자를 옆으로 밀치고 급습한 적의 칼을 팔에 맞았다. 그림자는 저격소총 개머리판으로 적의 머리를 후려치고 쓰러진 상태일 때 확인사살하였다.

“에잇, 쟀장…….”

그림자는 서기의 팔에 꽂힌 칼을 얼른 뽑아주지 않고 다시 무전기를 꺼내들었다.

“Error Code Lemon. 조석준 부상. 이상.”

“아으… 대체 저 녀석들은 뭐예요?”

“사람 괴롭히는 악당 조폭 깡패야. 세상의 쓰레기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가?”

“네.” 서기는 얼굴을 찡그리며 그림자를 쳐다보았다.

#### 5.1.4

점심을 먹고 모형배 전시실, 해양생물테마파크까지 견학한 학생들 중 군함 내부를 구경하고 싶은 인원들이 오후 4시가 되어 군함 전시관으로 들어섰다. 군함 전시관은 건물이 아니라 군함이었다. 바다에 정박한 군함 자체가 견학지인 셈이었다. 현재 정박한 군함은 이지스함으로 건조한지 꽤 된 DDG-996이었다.

일일 안내원이 된 해군하사는 이지스 함의 위력과 등장 배경을 설명해 주었다. 군사학에 관심이 있어도 그런 자료를 접하기 어려운 학생에게는 귀중한 경험이었다.

군함 전시관에는 오고 싶은 학생만 오기로 되어 있어 인원 수가 상당히 적었다. 준구는 군함의 통로를 돌아다니며 차유라에게 접근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다른 애들에게는 얘기가 새어선 안 되기 때문에 단 둘이서만 있을 기회를 노렸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게 기회는 오지 않았다. 사람이 너무 적어서 무리에서 이탈하면 금방 눈에 띄기 때문이다.

결국 준구는 유라에게 문자 메시지로 따로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전하였다. 군함 견학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유라의 답장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이윽고 갑판 위에 모두 올라서서 갑판에서 보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제각각 다른 감상을 하고 있을 때, 준구의 목덜미를 유라가 붙잡았다. 유라는 군함의 구조를 아는 모양인지 금세 대열에 이탈하여 둘만의 대화가 가능한 곳으로 왔다. 물론 아주 멀리 이탈한 정도는 아니었다. 신기하게도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았다.

“할 말이란 게 뭐야?”

“석빈이 동생 조석준 알아?”

“들어는 봤어. 문예부 부원 아냐?”

“맞아, 석빈이가 주말에 동생한테 심부름을 보냈는데, 당일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석빈이가 증언했지만, 내 생각에도 석준이가 가출할 이유는 딱히 없어. 이 동네에서 가장 위험한 건 내가 떠올라서 혹시 아는 게 있으면 알려달라는 의미에서 부른 거야.”

“헛다리 짚었네. 난 주말에 석준이를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실제로 나와 연관된다고 쳐도 내가 그걸 순순히 알려줄 거라 기대하면 안 되지. 너, 협상 파기했어. 잊었어?”

“...네 태도로 보아선 정말 모르는 모양이구나.”

“기분 나쁘네. 사람을 함부로 납치범 취급이나 하고.”

유라는 반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갔다. 준구도 갑판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유라를 뒤따라갔다.

## 5.2

복도 순찰을 돌고서 선생들은 자신들의 방으로 돌아와서 화투를 꺼내었다. 교사들은 수학여행 시기가 너무 앞당겨졌다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론 하루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만족하고 있었다.

남자 교사들은 모두 화투를 섞으면서 애기꽃을 피웠는데, 하필이면 군대 이야기가 나왔다. 1반 담임이자 유일하게 여자인 사회 교사는 그것이 신참 교사인 자신을 기선 제압하기 위함이라 짐작하고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물리를 담당하는 2반 담임은 애써 미소지으며 듣고 있었고, 화학을 담당하는 5반 담임은 그저 화투에서 집중하였다.

“그 땐 정말 죽는 줄 알았죠. 선생 같았으면 어땠을 거 같습니까?”

“군대를 안 겪어보면 잘 모를 거예요.”

유독 3반 담임인 수학 선생과 4반 담임인 체육 선생이 자신들의 군대 얘기에 자부심을 가졌다. 하지만 그들의 무용담에도 사회 선생은 별로 기가 죽지 않았다.

“제 생각에는 그저 헛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뭐요?”

체육 선생이 발끈하자, 사회 선생은 일어서서 자신의 가방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었다. 다들 그녀가 무엇을 꺼내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는데, 꺼낸 것은 다름 아닌 모자였다. 투박한 네모 무늬가 불규칙적으로 그려진 칙칙한 그 모자는 다름 아닌 중사 계급이 달린 전투모였다. 사회 선생은 그 모자를 쓰고서 화투를 치는 선생들을 향해 뒤돌아보았다.

“남자 친구 것인가?”

“아뇨, 일단 전 남자 친구 없습니다. 군번은 제가 뒤쳐질지 모르겠지만, 계급은 제가 위입니다. 선배님은 몇 사단 출신이시죠?”

“나? 뭐, 뻑센 데 있어.”

갑자기 체육 선생은 말을 머뭇거리기 시작하였다.

“수학 선생님께선요?”

“나……? 아, 뭐 현역이었으면 다 똑같지 뭐. 하하…….”

“저는 8사단 16연대 출신입니다.”

“선생님들, 이백향 선생은 저번주에 마약사범 김두길을 때려잡았습  
니다…….”

물리 선생이 그리 말하자 다들 놀란 눈치였다.

“그 놈, 자네가 잡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전 구경만 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들 입을 다물었다.

“전 보병으로 제대한 지 2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 베레모는 햇볕을 얼마 못 가려서 전투모를 따로 장만했습니다.”

28살인 사회 선생은 제대하자마자 바로 교생이 되었고, 그 다음해인 올해 3학년 담임을 맡게 된 것이다.

“어떻게 교사가 된 것인지 궁금하군요, 이백향 선생.”

“원래 아버지 등쌀에 못 이겨서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제가 할 일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보니 군대의 부사관까지 되었죠. 그러다 제 은사님이 떠올라서 교사, 특히 사회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렀죠.”

사회 선생이 그리 말하며 빙긋 웃었다.

“우리가 경솔했소이다.”

체육 선생이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

“아뇨, 저도 선배 교사들을 존중했어야 했는데, 저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 무례를 범했습니다.”

사회 선생 또한 깔끔하게 입장을 정리하였다.

“참, 그런데 백향 선생님은 노조 가입했지요?”

물리 선생이 물어보자 사회 선생은 팔짱을 끼며 말했다.

“당연히 가입했지요. 의무는 아니지만, 사회의 구성원이며 조직체에 몸 담은 노동자라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수단을 구사할 줄 알아야죠. 더구나 제 전공은 윤리학이자 경제학 아니겠습니까.”

“참교육이란 무엇인지 논의할 시간이 없었는데, 요즘 세태를 보니 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소이다. 학교에 마약사범이 침입하질 않나…….”

체육 교사가 가래 끓는 신음 소리를 내뱉으며 말했다.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진보한 편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의 우리는 무척이나 혼탁했습니다. 교권이 무너진다니, 학생들의 인권이 짓밟힌다니,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인 논쟁이 넘쳤지요. 당시엔 학생의 휴대폰을 압수했다는 이유로 선생의 뺨을 때린 일도 있고, 숙제를 안 했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심한 체벌을 가해 장애인으로 만든 적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늘날 교육은 정말 민주적이죠. 물론 그래도 가야할 길은 멍니다.”

“마침 오늘 느긋하게 이야기할 시간이 생겼으니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노하우를 서로 알려주도록 하죠.”

“건설적인 의견 좋군요. 그건 그렇고 이번 판, 내 승리요. 핫핫핫!”

화학 교사가 판돈을 쓸어가자 다른 선생들은 판돈을 바닥에 다시 걸고 새 판이 시작되었다.

선생들은 화투를 하면서 각자가 가진 교육의 지향점을 토론했다. 그들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느꼈다.

#### 5.2.1 2037년 9월 9일. 수요일.

준구는 일정표를 살펴보았다.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등산과 그리저력 팬츠아 보일 것 같은 군대 체험이 오늘의 일정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바비큐 파티와 관레나 다름없는 캠프 파이어가 포함되어 있었다.

아침부터 이백향 선생은 5도색 디지털 무늬의 군복을 입고 있었다. 군복에는 궁서체 글씨로 이백향이 새겨져 있었다. 백향은 1반 전원을 모아놓고 전달 사항을 전하였다.

“제군,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다들 알겠지만, 오늘 일정의 시작은 가장 재미없기로 유명한 등산이다. 하지만 오늘 대단한 이벤트가 하나 있다. 그 이벤트에 참가하려면 우선 산 정상까지 올라가고 나중에 화생방 체험도 통과한 사람만 할 수 있다.”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반장인 남철수가 대표로 질문하였다.

“나를 포함해서 최대 열 명까지. 다른 반에선 열 명을 채우려고 할 것 같지만, 나는 강요하지 않겠다. 귀관들 중에 하고 싶은 사람만 하도록.”

“무슨 이벤트입니까?”

“서바이벌 게임이다. 다들 위치로!”

학생들이 모두 버스에 탑승한 뒤 순조롭게 창원시 굴암산 입구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신설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굴암산 정상까지 등산을 하기 시작했다.

중사 출신인 이백향이 담임을 맡은 1반은 의외로 서바이벌 게임 참가자가 적었다. 다른 반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차이가 심하였다. 다른 반은 참가자가 선생을 포함해서 6명 내지 7명인데 반해 1반은 단 4명만이 참가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4반은 10명을 다 채웠다.

4반의 체육 선생이 이백향 선생을 보고 조소하였다.

“어이쿠, 이백향 선생. 부대원이 그렇게 적으면 어떻게 전투에서 이기려는 거요? 하하! 백화점 상품권은 우리 반 애들이 휩쓸어야겠군요.”

“전투는 머릿수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소수 정예죠.”

“소수 정예부대라……. 하지만 한 명은 컴퓨터광이고 한 명은 책벌레죠. 기껏 해야 운동신경이 있어 보이는 건 김도부의 차유라 학생인 것 같은데. 그나저나 어째서 경화는 참가를 안 했죠?”

“화생방을 하기 싫어해서 안 했습니다.”

“흠……. 화생방은 어른들인 우리들만 대표로 하기로 했는데.”

“체육 선생님! 전에 말씀하신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 리가요. 아무튼 백화점 상품권은 저희 겁니다~! 하하하!”

체육 선생은 그렇게 말하면서 빠른 속도로 정상을 향해 올라갔다. 체육 선생을 뒤따라서 4반 학생들이 병아리처럼 줄줄 뒤따라갔다.

“저 망할 영감탱이……!”

백향은 그렇게 중얼거렸다. 한편 백향을 뒤따르는 학생들 중 남철수, 김준구, 차유라는 버스에 타기 전에 미리 군복을 지급 받아서 그걸 입고 있었다. 다른 학생들은 편안한 옷을 걸치고 있는데 자신들만 군복을 입고 있으려니, 떨떠름한 한편으론 제복이 멋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미묘한 감정들이 솟아났다.

“분명히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사격을 한 뒤에 화생방 훈련을 하기로 했지.”

준구가 철수에게 말을 걸자, 철수는 지친다는 듯 손을 저었다.

“나한테… 헉… 말… 걸지 마…….”

“이까짓 산행 시작한 지 몇 분 되었다고 그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유라가 혀를 꼴꼴 차며 말했다.

뒤에서 사복을 입고 뒤따라오는 경화가 한 수 거들었다.

“철수, 너는 확실히 체력이 뒤떨어진다. 그래서야 서바이벌 이길 수 있겠나. 우리 반이 제일 인원이 적은 건 알 텐데.”

“하아… 그럼 너도… 참가하지 그랬냐……. 참가하지도 않고… 그런 말 하면… 섭섭하지…….”

“나는 기관지가 별로 안 좋아서 말이지.”

“전~혀 안 그래 봐도 사실이야.” 유라가 경화의 말을 거들어 주었다.

“근데… 어째서… 안 지치는 거야…….”

“기관지가 안 좋다는 속뜻을 제대로 정의해 주지 못해서 네가 오해했군. 화학 물질에 최대한 접촉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산행과는 무관해. 그러니까 이렇게 잘 걸을 수 있는 거지.”

경화가 하나도 지치지 않은 기색으로 철수에게 말했다.

“반드시 우리 반이 이겨야 한다.”

“하아... 나도... 그리고 싶다……!”

“팬찮아. 어차피 우리 반이 진다고 해도 변명거리는 있으니까.”

준구가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을 하자,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고! 상품이 무려 참가자들에게 2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이 주어지! 게다가 급우들에게는 5만 원짜리 문화 상품권이 주어지지. 다들 무척 기대하고 있을 걸! 분명!”라고 유라가 열변을 토했다.

“넌 항상 이런 이벤트에는 언제나 진지해 지는구나.”

“소수 정예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려 주겠어.”

유라의 눈에서 광채가 나오는 듯하였다. 어제 갑판에서 있었던 일 대해 개의치 않는 모양이라 준구는 안심하였다.

## 5.2

운전수가 도착했을 때 상황은 얼추 정리된 것 같았다. 차량에서 내린 운전수는 폭탄 해체에 쓸 공구 상자를 들고 왔다.

“늦어서 미안~. 이 도로, 너무 심하게 미로야.”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어찌겠습니까.”

“이 목소리는, 아무래도...”

서기가 운전수의 정체를 말하려 하자, 운전수는 서기의 팔에 박힌 칼을 별다른 경고 없이 바로 뽑아버렸다.

“아... 아파요!”

“오늘 일을 잊지 않으면 이 칼은 네 목에 박힐 거야…….”

“입 밖으로 안 꺼내기만 하면 되죠?”

“응.” 운전수가 서기의 팔에 지혈제를 뿌리고 붕대를 감아주는 동안 그림자는 서기의 손목에 달린 폭탄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CIA 요원이 마약을 밀반입하고 거기서 얻은 수익으로 국내의 조폭 조직을 형성 및 확장시켜서 각종 정보를 얻는 데 활용했다고 하는 거, 진짜입니까?”

“어차피 잊게 될 거, 뭐하러 알고고 그래?”

운전수가 세계 붕대를 조아서 뭉자 서기는 고통으로 몸부림쳤다.

“움직이지 마. 폭탄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서기는 몸부림을 칠 수가 없자 고통의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너, 한 일주일 정도 병원 신세 져라.”

“...예?”

“입원시켜줄 테니까 좀 쉬고 있어라고.”

그림자는 서기의 손목에 달린 폭탄을 다 해체하고는 폭탄을 있는 힘껏 집어던졌다. 폭탄이 차량에서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작은 위력으로 터짐과 동시에, 거기에 시선을 빼앗긴 서기를 운전수가 기절시켰다.

“이제 출발하자.” 서기를 부축한 운전수가 그렇게 말하자,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쪽은 「피에 물든 밤」이다. Error Code Lime. Repeat, Error Code Lime.』

## 5.2.2

산행이 끝나고 산 중턱에 내려오자 거기에는 해군하사와 병장과 상병이 군복을 입은 채로 나란히 일렬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학생들이 모두 그 셋을 바라보며 정렬하며 서자 해군하사가 헛기침을 하고는 미리 연습을 한 듯 얘기를 술술 해나갔다.

“학생 여러분들 지치십니까?”

“예!”

“음, 실망이군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지치십니까?”

“...아뇨.”

“목소리에 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군요. 자꾸 이러면 오늘의 메인 이벤트는 당장 취소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지치십니까?”

“아니오—!!”

“좋습니다. 이제부터 영점 사격과 화생방 훈련을 한 뒤, 지정된 구역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시작할 겁니다. 우선 시간이 별로 없으니 오전 중에는 화생방 훈련까지만 하고, 서바이벌 게임은 오후에 딱 한 시간만 하고 숙소로 되돌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사격을 할 때에는 우리 조교의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병과 병장은 서바이벌 게임 참가자들에게 장비를 나누어 주면서 착용 방법을 알려주었다. 총기는 K-2로 총구에는 어댑터가 달려 있고 탄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탄피 받침대도 달려 있었다. 방탄모에는 전자장비가 부착되어 있었다. 각자 전투조끼에는 탄창이 세 개씩 있고 각 탄창에는 공포탄이 서른 발씩, 총 합쳐서 아흔 발이 있었다.



서른 발을 다 소모해도 동료의 공포탄을 얻거나 전사자의 공포탄을 탈취하면 된다. 하지만 되도록 탄을 아끼는 편이 좋다. 방독면은 다리 매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요대는 지급하지 않았다. 몸에는 센서를 달았다.

준구는 모든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자 왠지 모르게 정말 군인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태어나서 처음 만져본 총은 무척 단단하고 조금은 차갑게 느껴졌지만, 상상했던 것만큼 무겁진 않았다. 오히려 공포탄이 들어있는 탄창이 상상했던 것보다 무거웠다.

백향은 약간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해군하사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의 장비 착용 상태를 점검하였다.

“서바이벌 게임 참가자들이 모든 장비를 제대로 착용했군요. 이제부터 영점 사격을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역이었다면 실탄을 지급했겠지만, 여러분들이 학생이고, 장난을 칠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공포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하면 안 됩니다. 또한 갖고 있는 장비를 잃어버리는 일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철수가 손을 들자 하사는 그것을 보았다.

“장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현역이었다면 영창이었겠지만…… 여러분은 학생인 관계로 적당히 군 입대를 하는 선에서 끝나는 게 낫겠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영점 사격장으로 이동합니다.”

하사가 이동함에 따라 학생들이 우르르 이동했다.

영점 사격장에는 통제소가 있었고, 하사는 통제를 담당했는지 통제소 쪽으로 걸어갔다.

『아아~ 하나둘. 방송 테스트. 현재 등산 중인 분들은 신속히 하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현 시각부로 사격을 시작하니 현재 등산 중이신 분들은 신속히 하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점 사격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신의 사로 번호를 외치며 입장하기 바랍니다. 사격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쏘기 바랍니다. 여기서 서른 발 다 쏘아도 더 이상의 탄 지급은 없으니 신중히 잘 쏘기 바랍니다. 최소한 세 발은 쏘아야 하며, 자신이 다 쏘았다고 생각하면 총구를 Y자형 지지대에 올려놓기 바랍니다. 퇴장은 모두 동시에 합니다. 사격 방법은 아까 다 설명했으므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사로부터 입장!』

1사로부터 5사까지 다섯 명이 영점 사격장으로 입장하였다. 실탄

일 때는 종이를 쓰지만 이들은 공포탄을 쓰기 때문에 전자판의 중앙을 향해서 사격을 하면 된다.

이윽고 사격 지시가 떨어졌고, 1사로의 이백향은 중앙을 향해서 세 발을 집어넣었고, 2사로의 남철수는 총이 안 좋은 건지 건성으로 하는 건지 총이 중구난방으로 흩어졌다. 3사로의 김준구는 최대한 집중해서 쏜다고 쓰았는데 좌상탄으로 다섯 발이 몰렸고, 4사로의 차유라는 우탄으로 세 발만 쏘았다. 5사로의 물리 선생은 중앙에 한 발, 왼쪽에 한 발, 좌상으로 한 발 쏘았는데 반경 1cm 안에 세 발이 다 들어가므로 비교적 잘 쏜 편이었다.

각자 사격이 끝나고 대기하러 되돌아가자 대기하고 있던 해군상병이 각자의 결과를 언급하면서 무엇이 부족한지 알려주고 직접 클릭클를 수정해 주었다. 백향은 중사출신답게 스스로 클릭클를 수정하고 단 세 발을 모두 한 곳에 집중시켜서 클릭클를 수정할 필요가 없었다.

클릭클 수정이 끝나고 다른 반 사람들의 영점 사격이 다 끝날 때까지 1반 참가자들은 잡담을 주고받았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신데요?”

철수가 그렇게 아부를 하자 백향은 어깨를 한 번 으쓱하고는 불타는 집념이 느껴지는 음성으로 1반 참가자들에게 말했다.

“제군, 오늘 선생님은 반드시 승리를 쟁취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룰을 설명할 테니까, 점심 먹고 나서 바로 게임이 시작되니까 다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알겠지?”

백향은 미리 지형을 숙지해 둔 모양인지 학생들을 앉혀 놓고 바닥에 나뭇가지로 대충 지형을 그리며 열심히 설명을 하였다.

게임의 룰은 간단했다. 한 명이라도 살아남으면서 아군의 깃발을 지키면 된다. 깃발을 빼앗기더라도 생존자가 다시 빼앗아 오면 된다. 1시간이 지나면 강제로 종료되기 때문에 깃발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1시간이 지나면 생존자수가 제일 많은 반이 이기고 깃발 수는 거기에 곱이 되므로 깃발을 빼앗는 것도 중요하다. 사실 쪽수로 보면 4반이 제일 유리하다.

1km 지름의 원을 벗어나면 아웃이다. 그 안에서만 작전이 가능하며,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무전기를 지급받는다. 다른 채널의 무전기를 도청하는 것은 반칙이다. 각자의 위치는 참가하지 않는 아이들도 알 수 있도록 전광판에 표시된다. 물론 전광판은 참가자들이 화면을 볼 수 없는 곳에 설치해 두었다.

각 반은 원의 가장 가장자리에 거점을 둔다. 그런데 1반과 2반은 고

도가 다른 반에 비해 높기 때문에 1반과 2반은 내려오면서 싸우는 편이 좋다. 3반, 4반, 그리고 5반이 서로 낮은 지형에서 피터지게 싸울 동안 1반에선 부비트랩을 설치하는 한편, 2반을 견제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후반까지 최대한 아무도 안 죽는 편이 좋다.

“...각자의 역할 분담은 잘 알겠지? 자, 그럼 승리를 위해 어디 한번 제대로 싸워 보자!”

모든 반의 영점 사격이 끝나도 점심시간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다. 이 다음은 화생방을 하기로 했으므로 해군 세 명은 학생들에게 방독면 착용법을 알려주었다.

“자, 방독면을 다 착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방독면을 쓴 상병의 모습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세기말 군대의 병사 같은 느낌이 풍기기도 하였다. 상병은 하사의 지시가 떨어지자 방독면을 신속하게 벗었다.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화생방은 선생님들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 되셨죠?”

각 반 담임선생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화생방이 얼마나 괴로운지 군 생활을 통해서 체험해 보아서 잘 알았다.

“저도 함께 화생방 실습실로 가겠습니다.”

화생방 실습실에는 이미 병장이 CS탄을 터뜨리고 있었으므로 그 작은 컨테이너 박스에는 연기가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학생들은 조금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데도 느껴지는 CS탄의 매캐한 냄새 때문에 코를 막고 있었다.

하사를 비롯하여 어른들이 모두 방독면을 착용하고 실습실로 들어갔다. 각 담임선생들은 모두 제대로 방독면을 착용해서 아직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하지만 하사는 곧 방독면 제거를 외쳤다.

“자, 그럼 방독면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제히 방독면을 벗자, 매캐하고도 견디기 힘든 공기가 몸속으로 들어왔다. 몇 번을 더 해도 익숙해질 수 없는 훈련일 것이다.

“으…… 학생들도 이걸 했어야 했는데…….”

“체육 선생님은 이 정도로도 견디기 힘든가 보죠? 견디기 힘들시면 당장 나가도 됩니다.”

모두들 눈물을 흘리는 와중에도 백향은 주먹을 불끈 쥐고 꺾꽂이 서 있었다.

“이까짓 거…… 군대에서 2번이나 해 봤지. 견딜 만 해.”

“전 네 번이나 했습니다. 이 정도는 꺾이죠. 군가라도 불러 드릴까

요?”

두 사람의 신경전이 재밌었는지 해군하사는 얼른 교사들을 내보낼 생각을 하지 않았다. 묘하게 독기가 오른 백향이 하사를 보고 외쳤다.

“야, 조교도 방독면을 제거한다, 실시!”

하사는 깜짝 놀랐지만, 그 표정이 드러날 리가 없다.

“인마, 난 육군 중사 출신이다! 너도 빨리 벗어!”

“어쭈, 제거 안 해?”

체육 선생과 백향을 비롯해서 모든 선생이 하사를 덮칠 기세로 다가오자 하사는 얼결에 자진해서 방독면을 벗었다. 그 하사도 무척이나 답답했던지 근처에 있던 병장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귀관도 방독면을 제거한다, 실시!!”

“하지만…”

“머칠 있으면 전역하잖아! 실시! 상관의 명은 하늘의 명이다!”

병장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방독면을 벗었다. 사실 이들은 수학여행을 도우며 머칠 된다는 기분으로 이곳에 온 것이었지만, 막상 일이 이렇게 되니 괜히 왔다는 기분을 느꼈다.

“이제 퇴장해도 됩니다!!!”

더 이상은 무리였는지 하사는 그렇게 외치며 먼저 실습실을 뛰쳐나갔다. 이어서 병장도 뛰쳐나가고 다른 반 선생님들도 뛰어 나왔지만, 백향과 체육 선생은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며 천천히 걸어서 나왔다.

학생들은 선생들의 엉망진창인 몰골을 보고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요즘은 조교들도 함께 화생방을 하는 거 같은데……. 입대하면 절대로 조교는 해선 안 되겠어.” 준구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 5.2.3

점심을 먹고 드디어 서바이벌 장소에 오게 되었다. 나무 기둥에 노란 줄로 영역을 표시해 놓았으므로 그 줄을 넘지만 않으면 된다. 참가하지 않는 학생들과 해군 셋은 스크린을 쳐다보았다. 스크린에는 등고선이 그려져 있고 각자의 위치가 점으로 표시되었다.

“자, 그럼 다들 각자 위치에 도착하셨으니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서바이벌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사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3반과 5반이 4반을 협공하기 시작했다. 4반의 인원이 너무 많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한편, 1반의 백향 선생은 선불리 움직이지 않고 다시 한 번 아이들

에게 작전 사항을 숙지시켰다.

“남철수, 너는 사격을 못하지만 한 자리에 계속 있는 건 잘 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는 이곳에 숨어서 적들이 알아서 죽을 때까지 깃발을 지키면서 넌 살아있으면 돼. 차유라, 너는 김준구와 동행을 하면서 3반, 4반, 5반 아이들이 함부로 접근 못하도록 부비트랩을 설치한다. 신호줄을 어떻게 다는 지는 설명해 줬으니 더 반복하지 않으나. 나는 2반을 견제한다. 우리가 제일 인원이 적다. 아마도 다른 반에서 연합을 해서 우리 반부터 먼저 공격하러 올 거야. 따라서 공격보다는 방어다. 그리고 최대한 흩어져. 나무를 이용하면 적의 총격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그럼 각자 위치로!”

철수를 남겨 놓고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유라는 준구와 함께 동행을 하기로 되어 있다. 유라는 백향 쪽을 계속 힐끗힐끗 쳐다보다가 백향이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준구 손을 붙잡고 다시 철수가 있는 쪽으로 되돌아가려 했다.

“뭐하는 거야? 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

“철수 혼자 힘으로는 제대로 은폐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제대로 숨겨줘야지.”

스크린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모두 숨죽여서 점들의 이동을 눈여겨보았다. 1반으로 표시된 빨간 점 네 개는 뿔뿔이 흩어지는 듯싶더니 점 두 개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1반 학생들은 술렁였다. 왜 이백향 선생님이만 사지를 향해 뛰어든 것일까? 작전을 포기하고 홀로 공을 세우겠다고 뛰어다니는 것일까?

한편 4반으로 표시된 검은 점은 모두 1반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정말로 단순한 전술이었다. 그 사이에 3반과 5반은 4반의 진지였던 곳으로 이동 중이었다.

“오, 와쥬구나. 10분 안에 해줘.” “OK.”

철수는 유라가 되돌아 올 줄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철수는 조금 움푹 파인 지형에 들어가서 엎드려 썩 자세를 취하였다. 철수의 키가 작다는 것이 이럴 때는 유리하였다. 유라와 준구는 이리저리 굽어모은 낙엽으로 철수의 온 몸에 뿌렸다. 방탄모에는 나뭇가지를 꺾었다. 나무 바로 근처에 숨었기 때문에 절묘하게 은폐가 되었다. 낙엽을 굽어모아서 맨땅이 보이는 자리는 다른 낙엽을 조금씩 뿌려서 맨땅이 안 보이도록 하였다.

“자, 그럼 내려가 보실까. 4반을 골탕 먹이러 가 보자.”

유라가 호기롭게 말했다.

2반의 다섯 명의 아이들은 각자 일렬로 진형을 유지하며 3반의 진지를 급습하러 갔다. 그러나 막상 지휘자여야 할 물리 선생은 화장실이 급했는지 학생들을 앞으로 내보내고 자기 자신은 뒤로 좀 물러났다.

“2반에선 3반의 뒤를 치러 갔다. 거긴 신호줄 설치가 잘되고 있겠지?”

『물론입니다. 선생님. 깡통이 그냥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요..』

“후후, 이럴 줄 알고 철사를 들고 오길 잘 했지.”

백향은 무전기로 통신을 주고받으며 2반 뒤를 몰래 미행하였다.

“원래 한꺼번에 이동하는 게 좋지 않은데 말이지.”

아이들은 긴장한 눈으로 스크린을 쳐다보았다. 시작한 지 15분이 가까웠지만 아직까진 단 한 발의 총성도 울려 퍼지지 않았다. 특히 1반은 더 조마조마하였다. 백향이 거의 100미터 간격을 두고 2반을 미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반에선 백향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였다.

그러다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스크린 상에서는 유라와 준구를 제외하고 모두 일시에 그 자리에 멈춰버렸다. 엎드려 썩 자세로 대응하려고 그 자리에 모두 땅바닥에 엎드린 까닭이다. 1반 학생들은 왜 이리 자기네 반이 엉망으로 움직이는지 의아했다. 누군가는 이미졌다고 1반 분위기를 동요시키기도 하였다.

3반에서 5반을 먼저 발견하고 총을 쏘았지만, 아무도 맞지 않았다. 다들 엎드려서 상대방의 모습이 보이기만을 기다렸다. 한편, 전진만 하던 4반에서 후방에 총성이 울리자 자신들이 공격당하는 줄로 생각하고 전부 회군을 하기 시작하였다. 2반에선 3반을 발견하고 5반을 대신 처리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한편 2반의 뒤를 쫓던 백향도 멈춰서 가만히 사태를 관망하였다. 몇 명이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경보음이 안 울리는 것으로 봐선 그냥 위협사격에 불과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신호줄을 다 설치한 유라와 준구는 5반 진영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4반의 옆구리를 보았다.

“그럼 어디 날뛰어 볼까나?”

유라가 먼저 앉아 썩 자세로 전투모에 검은 색 끈을 묶은 사람 중 아무나 겨냥해 보았다. 뒤에 어떤 적이 도사리는지 모르는 4반 아이들은 자기네들의 담임선생님만 믿고 회군을 하고 있었다.

유라는 천천히 호흡을 멈추었다. 다행히 나무는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

차가운 방아쇠를 서서히 당겨 격발.

산에 총성이 울려 퍼지고, 준구는 총성에 덩달아 긴장하였다. 그리고 번지는 귀 따가운 경보음 소리와 동요하는 분위기가 마치 흑사병이 창궐할 때와도 같았다. 총성이 연달아 나왔다. 유라 혼자 벌써 4반 학생 중 4명을 죽였다.

“와! 유라가 4명이나 죽였어!”

스크린을 쳐다보는 1반 학생들은 환호하였다. 유라가 누구를 맞추었는지 표시가 되었다. 4반 학생들은 가장 많이 참가했으면서도 한 번에 4명이 나가 떨어져 버리자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까만 점들이 5반을 상징하는 하얀 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아무래도 차유라의 소행인지 모르고 5반이 격발한 것으로 생각한 모양이었다.

엄청난 연발 소리가 숲 속을 울려 퍼진다.

체육선생은 학생들을 독려하며 5반을 닥치는 대로 공격하였다. 하지만 3반과 5반에서 4반을 협공하자, 서바이벌 게임이 시작된 지 30분 만에 4반이 전멸하게 되었다. 4반 학생들은 그 자리에 깃발을 놔두고 쓸쓸히 퇴장하였다.

『4반 전멸했습니다.』

스크린에서 구경하고 있는 하사로부터 무전 연락이 왔다. 스크린 쪽에는 다섯 개의 무전기로 각 반의 무전 연락을 다 들을 수 있다. 또한 중요한 공지 사항—게임이 종료되었다든지 화생방 상황이 발생하였다든지—을 전하는 데에도 이 다섯 개의 무전기는 유용하게 쓰였다.

한편, 5반 학생들은 의문의 격발 덕에 4반을 전멸시키긴 하였으나 5반 담임이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아무도 총을 쏘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5반 담임은 270미터 쯤 멀리 떨어진 3반을 뻘히 보면서도 함부로 사격을 지시할 수가 없었다. 너무 멀었기 때문에 사람이 점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데, 총성이 어디선가 울리며 5반의 학생 한 명의 몸에서 삐 소리가 울렸다. 정확히 머리에 명중했다.

“모두 소산해!”

5반 담임 선생이 그렇게 외치자 모두들 그 자리에서 흩어졌다. 저격당한 아이는 씩씩한 기분에 젖어 서바이벌 게임장을 떠났다.

“준구, 어서 미끼가 되어라.”

“뭐라고?”

“여기 이렇게 둘 다 있다간 둘 다 죽어. 그러니까 내가 미끼가 되어서 애들을 유인하면 내가 저격해서 죽여줄게.”

“너 같으면 이 나무 뒤에서 적진으로 뛰쳐나가고 싶겠냐?”

“이건 실전이 아니잖아, 멍청아! 너만 내 지시대로 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질 수 있다고!”

“이게 진짜 전쟁 상황이면 어쩔 건데?”

“그래도 너를 보낼 거야.”

“진짜 너무 한 거 아냐?”

“괜찮아. 이게 진짜 전쟁이라 해도 나는 내가 다른 누군가의 손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

“.....”

준구가 쉽사리 결정을 못하는데 3반 담임이 어느새 준구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밀었다. 유라와 떠드는 사이에 군필자인 5반 담임이 수색대 출신답게 소리 없이 접근하였던 것이다. 유라가 그를 발견하고 총구를 돌릴 때는 너무 늦었다.

#### 5.2.4

총성은 스크린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있는 학생들도 잘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침묵을 유지하였다. 어느 누구도 방금 들린 총성에 대한 진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남철수가 무려 800미터 가까이 떨어진 5반 담임 선생을 저격한 것이었다.

3반과 5반이 4반을 협공하는 동안 준구와 유라는 빙 둘러서 4반의 진지 근처로 갔다. 준구와 유라는 이백향 선생의 지시대로 돌격병으로서 게릴라전을 상상 이상으로 유능하게 수행하였다.

“선생님, 이제 어찌면 좋을까요?”

5반 학생들이 애타게 선생님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사망 처리된 사람은 무전기를 켜진 안 되기 때문이다. 리더를 잃은 사실을 깨달은 생존자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기껏 소산을 했더니 적들이 밀려오고 있다. 3반은 5반 학생들을 한 명씩 제거했다. 산 여기 저기서 총성이 울리고 경보음 소리가 울려 퍼졌다. 5반 학생들은 있는 대로 총을 갈겼지만 급한 마음에 조준도 제대로 안 하고 쏜 총으로 3반 학생을 맞출 수 있을 리 만무했다.



『5반 전멸했습니다.』

3반의 조직적인 공세에 밀린 5반은 결국 전멸하였다. 덕분에 나무 뒤에 숨었던 준구와 유라는 긴장을 잠시 풀 수 있었다. 하지만 총성은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3반을 뒤쫓던 2반에서 공격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뒤통수를 맞은 3반은 신속하게 나무 뒤로 흩어졌다.

『유라, 준구. 듣고 있지?』

“네, 선생님.”

『그 지역을 이탈해라. 5반 진지로 피신해.』

“네.”

유라는 그렇게 대답하고 준구와 함께 5반 진지로 함께 피신을 하였다. 하지만 그 피신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다. 5반의 급작스런 전멸을 의심하던 3반 담임선생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준구와 유라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비록 2반이 3반을 압박하고 있었지만 준구와 유라가 4반과 5반의 전멸을 유도한 것이라면 그냥 살려 보내선 안 되었다. 어차피 소산하면서 2반과는 거리가 좀 벌어졌다. 3반 담임선생은 나무에 기대서 준구의 뒤통수를 조준하였다. 계속 나무가 시야를 가리다 말았다 하였으므로 쉽게 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수학 선생은 결국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나무에 가려져서 준구를 맞추지 못하였다. 2반에선 수학 선생의 격발로 자기네 쪽에 선제공격을 한 줄로 하고 응사 사격을 가하였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경보음이 들리지 않자 수학 선생은 자기들이 매우 잘 숨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다시 준구를 향해 조준을 하고 격발하자, 준구는 결국 사망 처리가 되었다. 준구와 따라가던 유라는 준구가 사망하자 얼른 나무에 숨었다. 총소리만으로도 누가 어느 방향에서 저격을 하였는지 알아차린 것이다.

준구는 터덜터덜 걸어서 서바이벌 게임장 밖으로 벗어났다. 1반 아이들이 모두 준구를 격려하였다.

“야, 그래도 잘 버텼어. 지금 이대로라면 2반이 우승할 가능성이 제일 높겠지만 승부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

“몇 분 남았어?”

“한 20분 정도.”

“그럼 안 되는데…….”

준구도 스크린을 쳐다보았다. 1반은 애초에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지도에 표시된 붉은 점은 별로 없었다. 게다가 각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실제 전쟁도 과연 이렇게 진행될까?

### 5.2.5

2반과 3반 사이에는 묘한 교착 상태가 유지되었다.

『남철수, 너 그 위치에서 3반 자리가 보이냐?』

『아니.』

『그럼 2반은?』

『나무가 가려져서 안 보여.』

『그럼 내가 3반 근처니까 다시 3반 근처로 가서 유인할까?』

“어이, 차유라, 남철수! 내 지시가 있기 전엔 함부로 가지 마. 지금 안 그래도 우린 인원이 적은데 어찌자는 거야.”

『선생님, 준구가 사망했습니다.』

“뭐?”

『지금 이대로 게임이 끝나면 2반이 이겨요.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럼 내가 2반을 유인하겠다. 그 사이에 3반이 2반의 뒤를 칠거야. 그 때 내가 3반을 전멸시켜라. 할 수 있지?”

『맡겨 주시죠.』

스크린을 쳐다보는 해군 트리오의 무전기에서 들리는 제자와 선생간의 대화에 의아함을 느꼈다. 아무리 유라의 사격 솜씨가 좋지만 어떻게 한 학생에게 한 반의 전멸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일까? 훌륭한 중사는 이렇게 개개인의 능력을 믿어주는 것일까?

스크린에서는 백향이 표시된 점이 드디어 2반의 후방 230미터 지점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총성이 울렸다. 한 발의 총성 뒤에는 언제나 연발의 총성이 울려 퍼진다. 백향의 예측대로 3반은 2반의 후방을 치기 시작하였다. 당장 백향 하나보다 인원수가 훨씬 많은 3반을 처리하는 편이 나왔다. 한편, 백향의 총성을 신호로 삼은 유라는 다시 3반의 옆구리를 치러 내려왔다. 2반과 3반 사이에서 엄청난 총격전이 벌어진 끝에 결국 3반의 마지막 인원은 유라에게 저격당했다. 정말로 3반을 유라가 전멸시켰다.

턱을 괴고 스크린을 쳐다보던 하사는 무전기에 대고 애써 놀라움을 감추고 덩덤한 음성으로 서바이벌 참가자 전원에게 알렸다.

“3반 전멸했습니다.”

2반의 인원은 3반의 전멸 소식을 접하자 자신들의 후방을 괴롭히던 백향을 처리하기 위해 자기네 진지 쪽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하였다. 백향도 2반이 다가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1반 진지 쪽으로

달아났다. 2반에선 단체로 백향을 향해 총을 쏘아댔으나 단 한 발도 맞지 않고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녔다.

『유라, 나 공격당하고 있으니깐 어떻게 유인 좀 해 봐!』

“선생님, 이번엔 저에게 맡기시죠. 유라도 많이 지쳤을 겁니다.”

『그래, 남철수. 네 실력을 온 천하에 드러내라. 나는 신호줄 쪽으로 올라가서 한 숨 좀 돌릴게.』

철수는 엎드려 좌 자세로 계속 있었지만 총구의 각도를 조금 옮기는 정도로도 2반의 인원을 겨냥할 수 있었다. 철수는 가장 멀리 있는 사람부터 조준하였다. 그가 보기에 사람도 거의 손톱 끝에 올려놓은 흑연 가루처럼 보였지만,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총구의 떨림을 최소화하였다. 철수는 호흡을 안정시키고 서서히 방아쇠를 당겼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격발———

2반에선 당황하였다. 분명히 그들이 보기에 이백향 선생은 도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분명히 자기 반 인원이 사망했음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렸다.

“모두들 소산해!”

2반 담임이 그렇게 지시하였으나 그 지시는 너무 늦었다. 두 명이 더 추가로 사망하였다.

스크린을 쳐다보는 하사는 더 이상 앉아서 구경하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이백향 선생의 통솔 능력은 최고다. 또한 저격수로서의 남철수는 현역들도 하기 힘든 거리의 목표물을 척척 맞혔고, 차유라는 전투에 당장 투입시켜도 좋을 만큼의 기량을 뽐내고 있었다.

2반과 1반은 이제 각각 세 명씩 남았다. 1반은 이백향 선생, 남철수, 차유라, 2반은 물리 선생, 서수진, 조석빈.

“선생님, 차유라를 앞잡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릴 쏜 게 차유라란 말이나?』

“꼭 그렇다고 보기 힘들지만 유라의 운동 신경은 그야말로 발군입니다. 연약해 보여도 올해 검도 대회 청소년부 우승자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선생님께서 이백향 선생님을 유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 석빈이가 이백향 선생님을 저격하고 제가 유라를 맡겠습니다. 어차피 지휘자만 없으면 저 둘도 얼마 못 버틸 거예요.”

『유인이라면 100퍼센트 먹혀드는 방법이 하나 있지.』

수진이는 북동쪽을 향하고 있었다. 우회해서 1반 진지로 들이닥칠 요량이었다.

백향은 잠시 한 숨을 돌리고 남쪽을 쳐다보았다. 충분히 멀리 도망친 것 같아 이제 다시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어차피 적들이 소산해 있다면 혼자서도 다 해치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몸에 배어 있었다. 보병 시절에 제일 재미있던 훈련이 이런 훈련이었고, 자신은 사단장에게서 표창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백향은 주위를 찬찬히 살피며 걸었다.

『선생님, 이제 종료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알았어.”

『깃발은 2반이 제일 많을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2반을 전멸시키는 것뿐입니다.』

“걱정하지 마. 군 생활 중에 이거 하난 끝내주게 잘 했으니까.”

백향은 지향사격자세로 천천히 내려왔다. 그러다가 나무를 마주보고 있는 물리 선생을 발견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대략 50미터 쯤. 백향이 굳이 정밀사격을 하려고 개머리판을 견착하지 않아도 맞힐 수 있는 거리다.

“선생님. 여기서 뭐하시는 겁니까?”

“어이쿠, 이런!”

아무래도 소변을 누고 있던 모양이다. 백향은 지체 없이 총을 쏘았다.

싱겁게 물리 선생은 사망하였다.

“어이쿠, 선생님 총에 사망하였군요.”

“얼른 내려가시죠. 사망한 사람은 말이 없는 법입니다.”

“기왕이면 같이 내려가려고요.”

“...?!”

백향이 뒤를 돌아봄과 동시에 총성이 퍼지고 경보음이 울렸다. 조석빈이 매복해서 백향을 기다린 것이었다. 백향은 허탈한 미소를 지으며 물리 선생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절 속였군요.”

“하하, 같이 하산하고 싶어서 약간 피를 쓴 것뿐입니다.”

스크린 앞의 하사는 백향이 저격당하자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스크린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백향 근처에 석빈이 있다는 것을 어찌서 눈치 채지 못한 것일까? 단순히 자만심 때문일까?

1반 아이들과 2반 아이들은 모두 침을 꿀꺽 삼키며 스크린을 지켜보았다. 이제 남은 것은 두 팀 다 학생뿐이다.

수진은 1반 진지까지 올라가면서 많이 지쳐버렸다. 설마 자기네 진

지 쪽으로 수진이 도망쳐 온 것이란 것을 유라와 철수가 알까 싶었지만, 철수는 서바이벌 게임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란 사실을 수진으로선 알 도리가 없다.

“석빈아, 어차피 깃발은 우리 쪽이 많으니까 끝날 때까지 버티면 돼. 유라에게 방심하지 말고. 혹시 둘의 위치를 파악하면 나에게 알려줘.”

『알겠다. 꼭 생존해라. 너만 생존해도 우린 이긴다.』

수진은 깃발을 다 회수한 뒤 곳곳이 오르막길을 올라 드디어 1반 진지에 도착하였다. 수진은 라인 근처를 따라 걸었으므로 남철수가 저격할 수 있는 범위에 있지 못했다. 유라는 이백향 선생의 응답이 없어서 이백향 선생이 마지막으로 계셨다고 판단되는 쪽으로 걸어갔다.

수진은 1반 진지에서 잠시 쉬기로 하였다. 몇 분만 더 있으면 자신들이 이긴다. 그녀는 총을 잠시 나무에 기대 놓았다. 그 나무 옆에는 남철수가 은폐하고 있었으나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 5.2.6

“대체 무슨 일이지……?”

해군하사뿐만 아니라 스크린을 쳐다보는 모든 이의 눈동자에는 물음표가 떠올랐다. 1반을 상징하는 붉은 점과 2반을 상징하는 파란 점이 딱 붙어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서로 총을 쏘아대지 않았다.

“하사님, 어떻게 할까요?”

“무전기 좀 줘봐.”

무전기를 받은 하사는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전방에 화학탄이 떨어져 화생방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20초 이내에 방독면을 착용하지 못하면 사망하게 됩니다.』

모두에게 하사의 무전이 들렸다. 설마 화생방 실습실에 안 들어갔다고 이렇게 자신들을 고생시키는 것일까라고 다들 생각하였지만, 그것은 서로를 쏘지 않은 서수진과 남철수 때문이다.

수진은 허겁지겁 방탄모를 벗고 얼른 방독면을 착용하기 시작하였으나 땅바닥에 은폐중인 철수는 무전을 받고도 고민하고 있었다. 분명히 서수진은 옆에 있다. 하지만 20초 안에 방독면을 착용하자면 일어 서야 한다.

수진은 너무 조급해서 무전기 이어폰을 뺀 다음에 방독면을 착용하는 것을 깜빡하고 방독면부터 착용하려 했기에 다시 방독면을 벗었다.

“화생방 상황은 대체 왜 발생한 거야?!”

수진이 투덜거리자 철수는 수진이 방독면을 착용하는 데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눈치 챘다. 철수는 잠깐 심호흡을 한 뒤 벌떡 일어났다. 수진이는 자기 옆에 낙엽을 뚫고 튀어나온 철수 때문에 깜짝 놀랐지만, 얼른 총을 집어 들려고 하였다. 그러나 철수가 한 수 더 빨랐다.

“귀 막아. 안 그럼 고막 상한다.”

수진은 하는 수 없이 총을 잡아 보지도 못하고 귀를 틀어막았다. 그럼에도 바로 앞에서 발사된 총성은 천지를 진동시키는 것만 같았다.

이제 10초도 안 남았다. 철수는 재빨리 방탄모를 벗고 방독면 주머니에서 방독면을 꺼낸 뒤 재빨리 얼굴에 씌우고 다시 방탄모를 썼다.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다시 은폐하려면 누군가가 낙엽을 덮어주어야만 했다. 하는 수 없이 그 자리에 다시 은폐하는 것은 포기하기로 하였다.

“너…… 거기서 50분 넘게 있었던 거야?”

“물론. 진정한 저격수는 5일 넘게도 한 자리에 있을 수 있어. 아무튼 너 죽었으니까 빨리 깃발 내놓고 내려가.”

1반 학생들은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철수가 수진을 없앤 것으로 스크린에 표시되었다. 이제 승부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다. 게임이 끝날 때까지 깃발을 2반의 생존자가 가지고 있으면 1반이 지는 것이지만, 1반은 인원이 두 명이다.

“수진을 저격했다. 넌 어디쯤이냐?”

『네 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난 하산하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2반이 전멸하지 않았다. 방심하지 마라.』

“난 이제 은폐를 못한다고.”

『왜 그랬어?』

“상황 자체가 어쩔 수 없었던 말이야.”

『그럼 신호줄 쪽으로 와.』

철수는 신호줄이 달린 곳으로 갔다. 이번 전투 내내 신호줄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였다. 철수는 신호줄 쪽으로 갔다.

한편, 석빈은 수진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수진이 저격당했다고 생각하였다. 자신에게는 2반 깃발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는 수진이 들고 있었는데 이제 그 깃발이 모조리 1반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분명히 수진은 마지막으로 1반 진지에 간다고 하였으므로 우선

1반 진지로 가보기로 하였다. 방독면을 쓰고 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신이 잘 처신하기만 하면 전세를 역전시키고 거금의 상품권을 얻을 수가 있다.

석빈이는 1반 진지로 가던 중 공중에 빈 깡통이 철사에 매달려 있음을 발견하였다. 철사는 나무에서 나무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바람이 불 때 깡통 안의 돌맹이가 이리저리 구르며 소리를 냈다. 사람이 그 철사에 걸리면 돌맹이는 더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구조였으므로 석빈이는 그 철사를 건드리지 않으며 1반 진지로 갔다.

석빈이가 1반 진지로 간 동안 철수와 유라는 드디어 신호줄 근처에서 만났다.

“이제 도망만 잘 치면 살아남을 수 있어. 거의 4분 남았다.”

“하산하고 있어야겠네. 수고했다.”

유라와 철수가 서로 간격을 벌리고 하산을 하는 동안, 1반 진지에 거의 도착한 석빈은 그 둘이 어디쯤에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하산을 해야 할 때다. 그렇다면 둘도 하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

석빈은 그 신호줄이 바로 그들의 하산을 돕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 생각하였다. 석빈이는 얼른 부리나케 뛰어 내려갔다. 방독면을 착용하고 있어서 숨 쉬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지금 내려가면 분명히 따라잡을 수 있다. 방독면으로 시야가 좁아졌지만 좌우를 끊임없이 살피면서 무서운 속력으로 내려갔다. 방독면을 벗고 싶어질 때가 자꾸만 찾아왔지만 딱 1분만 참자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였다. 결국 멀리서 유라와 철수가 나란히 하산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석빈은 총을 연발로 설정하고 천천히 걸음을 늦추었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조용히 유라를 조준하였다. 방아쇠를 당기면 곧바로 철수 쪽으로 총구를 돌려야 한다. 석빈은 호흡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계속 총구가 떨렸다. 방독면을 쓴 채로 지나치게 똥 까담이었다. 시계를 힐끗 보니 1분 정도 남았다. 석빈이는 다시 제대로 견착하고 가슴자에 시선을 집중하였다.

방아쇠를 쥘 당겼다. 서른 발의 총이 다 나가는 데에는 몇 초 걸리지 않았다. 첫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지자마자 철수는 재빨리 뒤쪽을 쳐다보며 땅에 엎드려 좌 자세로 전환하였다. 유라는 이미 사망처리가 되었다.

석빈이 탄창을 교환하는 동안 철수는 침착하게 상대방의 위치를 파

악하였다. 석빈이 빈 탄창을 땅바닥에 내팽겨 치고 새 탄창을 끼웠다. 석빈은 급한 마음에 남철수가 있는 쪽을 냅다 갈겼다. 하지만 침착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철수를 사망시킬 수가 없었다. 석빈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지만 철수는 가만히 엎드려 있었다. 제자리에 서 있는 석빈의 이마를 향해 단 한 발의 총알을 쏘았다.

스크린으로 구경하던 아이들은 서바이벌 게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다. 만약 어댑터가 없었고 그것이 실탄이었다면 석빈은 이마에 탄을 맞고 즉사했을 것이다. 결국 게임이 끝나기 딱 2초 전에 석빈이 사망하는 것으로 끝났다.

“2반 전멸했습니다. 1반이 우승팀입니다. 축하합니다.”

상은 1반의 몫으로 돌아갔다.

“학생 여러분들은 아직 하산하지 못한 세 명을 위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사는 뒷짐을 지고 말하고는, 백향에게 곧장 가서 공손하게 두 손을 모아서 말했다.

“사회 선생님. 선생님의 뛰어난 통솔력은 저희에게 길이길이 역사로 남아 귀감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학생들을 단시간에 전사로 만드실 수 있었습니까?”

“아, 글썄요……. 뭐, 제 덕이겠습니까. 다들 저를 따르는 학생들 개개인이 뛰어난 덕분이죠.”

“겸손하기까지 하시군요. 존경합니다. 저희 행보관이 선배님처럼 멋진 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제대하면 교사가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은 어떻습니까?”

“뭐, 시대가 달라져서 옛날만큼 기어오르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신설중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어머, 그럼 제가 선배가 되겠네요.”

“제대까지 3개월 남았습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꼭 선배님처럼 멋진 교사가 되겠습니다.”

“호호,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럼 전 학생들 데리러 이만…….”

## 5.2

“오기야 오겠지만 그 뎨 이미 늦을 거야.”

서류 가방에서 소령은 기관단총의 일종인 UZI를 꺼냈다.

“내가 이 지역의 부하들을 조금 굶어모았거든.”

“넌 미치광이 살인마야…….”



“음, 뭐라고 했는지 잘 안 들렸는데, 다시 말해 주겠나?”

“살인자!! 다시 말하지만 살인자다! 넌 CIA 요원도 소령 계급을 단군인도 뭣도 아닌 그저 살인자일 뿐이다!”

살인자는 그 말이 마음에 드는 듯이 씩 웃으며 탄창을 끼웠다.

“난 그저 한국에 안수근이란 사람의 신변 보호를 해주러 온 것뿐이야. 살인자보다는 한시적인 보디 가드에 가깝지. 웬지 네 말투를 보아하니 본부에 내 은밀한 거래를 폭로한 것은 너희의 모략인 듯싶군.”

“넌 비둘기파의 일원으로서 매과를 분쇄하려고 했다. 네가 쫓던 우리 동료는 결국 사망했고, 그가 남긴 USB는 이사장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 하지만 넌 결국 중요한 자료인 USB는 건지지 못했어! 그게 네 패착이다!”

“실컷 짖어라, ■■■야~! 어차피 오늘 넌 죽을 테니까, ■■■! 하하!”

“넌 이사장을 보호할 생각이라곤 처음부터 없었어! 네 목적은 USB였으니까!”

“그래? 그럼 그 USB는 누가 가지고 있는데?”

“파기했다.”

살인자는 정보상을 살려둘 생각이 없었는지 칼을 허벅지에 꽂았다.

정보상의 비명이 사방에 울려 퍼졌지만, 근처에서 정보상을 구하러 오는 움직임은 보이질 않았다.

“널 구하러 올 사람이 와도 그 땐 과다출혈로 죽을 거야~. 인생이란 원래 그렇게 비참한 거지, 뭐. 누굴 탓하겠어? 처음부터 서로를 알았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진 않았을 거 아냐.”

“너희 겉으로는 평화를 주장하지만, 실제론 우릴 방해하면서 전쟁을 부추기고 있어. 너희 예비 전범자나 다름 없다!”

“증거 있어?”

“있지, 있고 말고. 네가 바로 「피에 물든 밤」을 죽인 전범이니까. 확실히 그녀는 네게 죽었다. 네가 방금 네 입으로 말했어.”

“...장난 치나, ■■■. 김한균을 죽인 게 「피에 물든 밤」이라며!”

“정확히는 「피에 물든 밤」의 딸이지. 코드 네임을 물려 받았으니까 딸 또한 「피에 물든 밤」이다.”

“그럼 지금 「피에 물든 밤」의 본명은 무엇이나.”

“...내가 알려줄 성 싶냐.”

“안 알려줘도 돼. 내 부하를 시켜서 김한균이 쫓던 김준구의 학교를 조사했거든. 김준구는 김하준의 아들이고, 김하준처럼 빈틈없는 양반이라면 분명 자기 아들을 지킬 방도를 마련했겠지. 최대한 가까이

서 지킬 수 있으며 가장 김하준의 아들이 보호자라고 의심할 수 없는 인물 말이야. 그런 사람은 몇 명으로 축소가 되지. 김한균이 사망한 날에 우연찮게도 중학교 검도 시험이 있었고, 그 시험에 참전한 사람 중 입상한 자는 단 두 명뿐이지. 바로 현경화와 차유라더군. 하지만 현경화는 최근 1년 사이의 병원 진료 기록이 없어. 하지만 차유라는 자잘한 부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 이렇게 간단하게 추리할 수 있던 걸 왜 네놈 손을 빌려서 하려다 말아먹었는지 모르겠단 말이 지!”

“왜냐하면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너는 우리나라 법을 어겨야만 했기 때문이다. 법을 지켜선 못 얻는 걸 어겨서야 얻게 된 셈이지. 처음부터 법을 어겼다면 김한균은 살았을 지도 모른다. 네 도덕성이 네 동료료를 죽였다. 그나마 비둘기파라는 이름다운 일을 처음 했구만.”

“오냐, 앞으로는 살인자답게 법따위는 모조리 무시해 주마. 참, 그러고보니 너도 법은 실컷 어기면서 살고 있잖아? 네 본명이 이상동이 아니란 것도 알고 있어.”

“이쯤 되면 이제 날 죽여라.”

“그럴 수야 있겠나. 우리가 잡담을 나누는 사이에 그녀가 온 것 같은데 말이야. 실력 정도는 봐도 괜찮잖아? 뭇하면 그녀 앞에서 너를 죽이는 것도 좋은 구경거리가 될 지도 모르고.”

“안 돼……!”

“왜, 네 딸이어서 걱정되나, 차태식?”

### 5.2.7

버스를 타고 숙소로 되돌아오는 내내 학생들은 서바이벌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하였다. 그러나 막상 당사자들은 너무나 피곤해서 버스 안에서 잠만 잤다. 물론 유라도 귀찮은 얘기에 휩쓸리고 싶지 않아 자는 척을 하였지만, 피곤이 누적된 것은 사실이라 결국 준구의 어깨에 기대 잠이 들었다. 수진이도 백향과 서로 고개를 기대었다. 준구는 잠 들지 않았지만 눈을 감고 계속 유라를 어떻게 경찰에 넘길지 생각했다. 그러나 서바이벌 게임을 할 때 유라가 했던 말이 머리 속에서 계속 떠올랐다.

—네가 다른 누군가의 손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

묘하게 믿음이 가는 말이었다. 혜원이가 휴게실에서 했던 말과 겹치는 느낌이 들었다.

이 버스 안에서 유일하게 참가자 중 팔팔한 것은 1시간 가까이 한

자리에서 대기만 하고 있었던 철수였다.

“혜원아, 내 활약 봤어?”

“어, 멋있었어.”

“어이, 혜원이 자꾸 꼬실 거냐.”

“어이쿠, 혜원이가 부러우신 건가?”

“닥쳐……. 하지만 네 덕분에 자존심이 세워진 건 고맙다.”

경화의 한 마디에 철수는 두 여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하였으나 경화가 주먹으로 철수의 가슴팍을 치자 쿨럭거리며 손을 내렸다.

버스는 얼마 안 가 숙소로 도착하였다. 숙소로 돌아오니 직원들이 바비큐를 구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1시간 동안 자유시간이 주어질 뒤 다시 모여야 했다. 백향은 서바이벌 게임 참가자들과 각 반의 반장, 부반장, 총무를 모아놓고 짧은 연설을 하였다.

“제군 모두 즐거웠는지 모르겠다. 다들 즐거웠나?”

“네!”

“다들 산을 이리저리 타느라고 피곤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각자 목욕을 하고 난 뒤 사복으로 갈아입어라. 전투복과 전투화는 이곳에 놓으면 된다.”

“그 전투복은 선생님 개인 것이가요?”

“음, 내가 군 복무를 할 때 입었던 거지. 근데 그걸 왜 이제 물어봐? 아무튼 해산!”

“1시간 안에 모든 인원이 씻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 혼탕 문화가 있으니 시급히 국내 도입을……”

수진이 어느새 돌돌 만 신문지를 경화에게 건네주자 경화는 그것을 들고 철수를 뒤쫓았다. 모두들 그 광경에 조금씩 웃었다.

## 5.2

사냥꾼은 원래 차량에 탑승해서 갈 계획이었지만, 의도치 않은 일 때문에 혼자서 정보상을 구하러 가야 했다. 그림자가 계속 정보상의 위치 정보를 알려주었는데, 한 곳에 머무르면서 이동하지 않는 걸로 보아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걸로 사냥꾼은 짐작하였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에 접어들고서 사냥꾼은 가방 안에 있는 돌격 소총인 K-1을 꺼냈다. 숲은 옛날부터 매복을 숨기거나 함정을 파기 좋은 장소로 각광을 받았기에 탁 트인 길로 가더라도 조심해야 했다. 더구나 정보상이 있는 곳은 그런 탁 트인 길이 없는 곳이었다.

돌격 소총을 점사로 설정을 바꾸고 지향사격자세로 숲속을 걸었다.

자신이 내지 않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자마자 사냥꾼은 반사적으로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소리가 난 방향에 총구를 겨누고는 주저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근처의 풀과 나무에 피가 튀기며 신음을 흘리는 사람이 있었다.

욕설과 고함이 울리며 마구마구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적들을 사냥꾼은 비웃지 않았다. 산악전의 실력은 확실히 그들이 열등했지만, 숫자는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상대를 방심케 하여 승리를 거두는 것 또한 충분히 한 가지 전술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사냥꾼이 보유한 탄을 소모시키는 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저런 수를 쓸 수 있다고 사냥꾼은 생각하고는 돌격 소총을 등에 메고 왼쪽 허리춤에 단 대검을 뽑아들었다.

사냥꾼은 굳이 빙 돌아서 고성이가 들리는 쪽으로 걸어갔다. 세 명 정도 되는 성인 남성들이 부상을 입은 동료들 두 명 시야에 들어오지도 않는 사냥꾼에게 거리낌없이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부상자를 후송할 생각을 안 하는 걸로 봐선 정말 탄환을 소모시킬 전술인 모양이었다.

사냥꾼은 그들이 욕하도록 놔두고서 정보상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도중에 풀숲에서 권총을 쥔 자가 나타나자, 사냥꾼은 권총을 파지한 상대의 손을 앞차기로 차버린 다음 대검을 상대의 목에 꽂았다. 대검을 뽑음과 동시에 대량의 피가 산을 적시며 비명이 메아리쳤다. 적들은 그 메아리가 울리는 곳으로 모여드는 것인지 점점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 사냥꾼은 가방에서 수류탄을 꺼내 쓰러진 적의 팔 밑에 두었다. 안전클립을 미리 제거하고, 안전핀에 실을 묶어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 적들이 시체 주변에 모습을 드러내자 사냥꾼은 실을 짝 잡아당기며 정보상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마음 속으로 3초 정도 쉰 사냥꾼은 귀를 막고 나무 뒤에 숨어 바닥에 무릎 꿇고 웅크린 자세로 있었다. 수류탄이 폭음을 내며 일정 반경 내의 적들을 몰살했다.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가 없어졌음을 알아차렸지만, 여전히 함정이 존재할 지도 몰랐다. 사냥꾼은 등에 멘 돌격 소총을 다시 양 손에 쥐고 지향사격자세로 숲을 빠져나오자, 눈앞에는 가건물 하나가 보였다. “실력은 잘 봤다, 「피에 물든 밤」!”

사냥꾼은 살인자의 목소리가 들린 쪽으로 점사 사격을 가했지만, 살인자는 교묘하게 벽 뒤에 숨었다.

“야~,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쏘다간 자네 부친이 사망할 지도 몰라?”

“요구 조건이 뭐냐!”

“내가 뭘 요구하든 넌 그걸 들어줄 수 없어. 그러니 내가 원치 않아도 강제로라도 널 절망시키겠다! 그게 내가 바라는 소박한 소원이니까!”

사냥꾼의 시야에 보이지 않도록 벽에 기댄 살인자는 정보상의 다리에 총알을 박아넣었다.

“그만해!!” 사냥꾼이 절규하며 가건물 쪽으로 뛰어갔다.

“싫~은데?” 살인자는 킬킬거리며 가건물에 연막탄을 투척했다. 연기가 가건물 내부에 퍼지며 정보상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될 때쯤에 사냥꾼이 가건물에 도착하였다.

“도망치거라! 폭탄이 있어!”

“……!”

사냥꾼은 가건물 벽에 몸을 얽매하였다. 그와 동시에 정보상의 등에 부착된 폭탄이 작렬하며 가건물의 벽을 크게 뒤흔들었다.

살인자는 폭발을 틈타 도망치는 데 성공한 모양이었지만, 사냥꾼은 그 뒤를 쫓아가지 못했다. 돌격 소총을 끌어안고는 쏟아지는 눈물을 흘려댔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던 사냥꾼은 나지막이 무전기에 대고 알렸다.

“이쪽은 「피에 물든 밤」이다. Error Code Lime. Repeat, Error Code Lime.”

『우리도 그쪽으로 가겠다.』

사냥꾼은 연기가 자욱한 가건물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연기가 걷힌 가건물 안에는 살아있는 생명이라곤 존재하지 않았다.

### 5.2.8

“오아~ 오늘 정말 완전히 녹초가 다 되었네. 첫날부터 왜 힘들게 안했는지 알 거 같네. 다 오늘을 위한 거였어.”

철수가 1반 남학생들의 숙소에 돌아와서 그렇게 말하였다. 바비큐 파티도, 캠프 파이어도 끝나 내일이 될 때까지 자유시간과 취침이 전부였다. 그래서 철수는 방바닥에 드러눕기 전에 가방에 넣어두었던 카드를 꺼내었다.

“야, 문 닫고 오늘 한 번 밤새도록 카드나 하자.”

“오늘은 돈 걸 거야?”

“당연하지. 걸리더라도 책임은 내가 진다!”

“오오! 역시 반장!”

학생들의 열렬한 지지에 힘입어 철수는 카드를 능숙하게 섞더니 각자에게 패를 돌리기 시작하였다. 막 시작하려는 찰나, 방문을 열고 누군가가 들어왔다. 모두들 놀란 표정으로 방문자를 쳐다봤는데, 그 방문자는 다름 아닌 박혜원이었다.

“철수야, 선생님이 너 부르셔.”

“나……? 나를?”

“응.”

“애들아, 조용히 대기하고 있어.”

긴장한 표정으로 철수는 방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나도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다들 서로 눈치를 봤다. 카드 게임을 더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선뜻 정해지지 않아 다들 마음 속에 갈등이 생긴 모양이었다.

“철수가 돌아올 때까지 판돈 없이 카드 하자.”

부반장인 준구의 허가가 떨어지자 다들 기다렸다는 듯이 카드 게임을 시작하였다.

한편 1반 남학생들의 방 밖에는 유라가 그 방으로 침투할 계획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였다. 유라가 움직이기 시작하였지만 준구는 카드게임에만 정신이 쏠려 있었다. 판돈 없이 하기로 한 카드 게임이 과열되어 급기야 판돈이 걸리게 되었고, 서로 판돈을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졌다. 준구의 머릿속엔 석준이 집에 안 돌아온다는 사실 따윈 진작 잊어버렸다.

준구가 의외의 실력을 발휘하자 모두 초조한 기색으로 각자의 카드와 상대의 표정을 해석하려 애썼다. 그 사이, 방 안이 정전되었다. 바로 바깥에서 침투를 기도(企圖)하던 유라가 그 방으로 연결된 두꺼비 집을 내려버렸기 때문이다.

“당황할 거 없어. 모두 각자 쥐고 있는 패는 잘 간수하고 있어.”

준구가 그렇게 통제를 시도하였으나, 이들 다섯 중에 안 좋은 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기 마련이고 그 안 좋은 패를 권 아이에게 돈을 건 아이도 있었다. 안 좋은 패를 권 아이가 이길 거라고 잘못 예상한 아이가 어차피 돈을 잃을 것 같으니 판을 엎어버리자는 생각으로 슬금슬금 이동해서 근처의 아이를 베개로 쳤다.

“누구야!”

베개를 맞은 아이도 자기 근처에 있던 베개를 쥐어 잡고 아무나 휘둘렀다. 순식간에 베개 싸움이 시작되었다. 신뢰를 잃은 시장의 붕괴

에 정부의 통제가 통하지 않는 모습과 흡사하였다.

유라는 방 안의 아이들이 이렇게 아수라장이 될 것을 예측하였다. 개인의 이기심이 효율적인 결과를 부를 때도 있지만,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과열되었다가 균열이 관측될 때에는 독으로 작용하여 순식간에 붕괴하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신뢰가 무너지면 거래 비용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이는 각자가 룰을 깨뜨리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한다. 더구나 정부 역할을 하게 된 준구는 이 판에 참가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뢰를 잃기 쉬웠다. 경악스러운 부패, 무력한 정부, 기괴하게 보일 정도의 탐욕이 뿔뿔 뿜친 시장에서 유라는 단지 급작스러운 외부 충격을 선사했을 뿐이었다.

유라가 방문을 조심스레 열고 어두컴컴한 방 안으로 잠입하는데 성공하였다. 방은 커튼까지 쳐서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고 있었으므로 사물의 윤곽조차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유라는 오로지 직감만으로 준구의 뒷덜미를 잡았다.

“누구야?”

유라는 손으로 준구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방 밖으로 준구를 끌고 나왔다. 끌고 나오는 김에 방의 전등 스위치를 내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차유라?”

복도에 나오고서야 준구는 얼굴 윤곽만 보고도 유라를 알아맞혔다. 복도도 불이 다 꺼져 있어서 어둡기는 마찬가지였으나 화장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제야 준구는 자신들의 방이 일시에 정전된 것이 불시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유라의 조작이었음을 알아차렸다.

유라는 준구의 손을 붙잡고 화장실로 데려왔다. 그리고는 화장실 구석에 준구를 몰아넣었다. 유라의 오른손에는 예리한 칼이 하나 쥐어져 있었다. 준구는 뒷걸음질을 쳤다.

“야……. 무섭게 그러지 마라. 응?”

“뭐, 그럼 언제 죽을지 모르게 죽여줄게.”

유라는 화장실의 스위치를 껐다. 일시에 어두워졌으나 화장실 입구를 유라가 틀어막고 있었으므로 준구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기엔 창문이 너무 좁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차유라는 서서히 포위의 범위를 좁히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즐거웠다, 김준구.”

유라가 한 걸음에 준구와의 간격을 좁힌 순간——

화장실의 불이 일시에 켜졌다!

누군가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준구는 그 덕분에 죽을 뻔하다 살았지만, 이대로라면 유라는 살해 현장을 발각당할 것이라고 준구는 생각했다. 하지만 유라는 불이 켜질 때, 순간적으로 칼을 숨기고 준구의 입술을 빼앗아버렸다. 준구가 유라의 입술을 훔친 저번과는 반대 상황이다. 유라는 준구가 자신에게서 입술을 떼어내지 못하도록 강제로 준구의 목을 강하게 감싸 안았다. 원래는 어깨를 붙잡고 복부를 수차례 찌를 자세였지만.

화장실 안에 들어온 것은 물리 선생이었다. 술에 잔뜩 취한 것인지 준구와 유라가 키스하고 있는 것을 발견 못 하고 있었다. 손을 씻고서 나가려다가 들을 발견하자 한숨 섞인 말 한 마디만 했다.

“연애도 좋지만 너무 밤늦게까지 있진 마렴.”

물리 선생은 유라가 준구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들어서 연애하고 있는 장면으로 오해한 것이다!

유라는 천천히 준구의 입술에서 자신의 입술을 떼어내며, “……네, 선생님.”이라고 조용히 대답하였다.

물리 선생은 조용히 화장실에서 나갔다.

준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행으로 여겼다. 어차피 유라의 살인 철칙은 「살인 시도는 하루에 한 번만」이라는 것을 준구도 알고 있었다.

“……오늘이 이제 3분 남았네…….”

유라가 조용히 그렇게 읊조리자 준구는 3분 뒤에 다시 자신을 죽이려고 할 것이라 판단했다. 지금 이 상황에서 1반 남학생들이 모여 있는 방으로 되돌아가면 대형 참사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준구는 얼른 밖으로 쏙살같이 도망쳤다.

화장실 안의 차유라는 입술을 손등으로 비볐다. 두근거렸다. 그 짜릿한 기분은 얼른 가시지가 않았다. 하지만 그 기분도 이내 사라졌다.

유라는 두꺼비집을 다시 원상태로 하고 1반 남학생들의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직 방 스위치를 켜지 않았으므로 남학생들은 계속 베게 싸움을 하고 있었다. 유라가 방문을 열고 스위치를 켜자 베게 싸움을 하던 애들은 일시에 싸움을 멈추며 바로 숙면 모드로 돌입하였다.

“어이, 나 차유라야.”



그제야 애들도 선생님이 불을 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덤으로 준구가 방 안에서 종적을 감춘 것도 알아차렸다.

“김준구, 이 자식. 정전되니까 도망을 치다니!”

난리판으로 인해서 카드가 이미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으므로 준구의 패가 얼마나 좋았는지 나뻐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무슨 일이야? 너희가 머물던 곳에도 정전이 일어났어?”

“아니, 우린 일찍 잠들어서 정전이 일어났는지 몰랐는데. 그리고 너희들 방 스위치가 내려져 있던데?”

물론 그 모든 것이 유라의 소행이었지만, 정전이 일어난 게 먼저라고 생각한 아이들은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표정이 왜 다들 그래? 선생님께서 내일 출발할 때 늦잠 자면 버려두고 갈 거니까 일찍 자라고 그러셨어.”

“반장은 언제 돌아 오냐?”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아무튼 난 지령을 전했으니 이만 퇴장!”

유라가 방을 빠져나가자 방 안에 남아있던 남학생들은 각자 침묵에 사로잡혔다. 지금은 자신들을 이끌어줄 리더가 아무도 없다. 새삼스레 철수와 준구가 알게 모르게 대단한 일을 해왔다는 것을 떠올렸다.

학생들은 이래저래 의견 일치를 한동안 보지 못하다가 결국 잠을 자는 의견이 대세가 되었다.

### 5.3

목격자는 숙소를 뛰어나와서 한 동안 계속 뛰었다. 이미 3분은 한참 넘은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목격자는 적당히 숨을 곳을 찾아서 계속 쉬지 않고 뛰어다녔다. 숙소 안에서 살해당하면 다 같이 죽는 셈이지만 숙소 밖에 있으면 최소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어보였다. 목격자는 얼른 근처의 수풀에 들어가 쪼그려 앉았다. 수풀이 꽤 무성해서 쪼그려 앉아있어도 웬지 들키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예측은 20분 동안은 들어맞았다.

사냥꾼은 1반 여학생 방에 되돌아와서 자신의 짐에서 조그마한 전자기기를 하나 꺼냈다. 마치 게임기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게임기가 아니다.

사냥꾼은 숙소를 나가기 전에 우선 교사들이 자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고자 했다. 사냥꾼이 교사 방을 살짝 엿보자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사회 선생과 과학 선생은 서로 술을 주머니 받거리니 릴레이를 펼치고 있었다. 웬지 술을 놓고 자존심 싸움을 하는

모양이었다. 그들은 사냥꾼이 방문을 살짝 열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였다.

사냥꾼은 숙소를 빠져 나와서 위치 추적기를 작동시켰다. 수학여행을 출발하는 날에 목격자의 옷 속에 전파 발신기를 끼웠으므로 목격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사냥꾼은 목격자가 웬지 이 공원 자체를 빠져나가진 않았을지 걱정했지만, 그렇진 않았다. 숙소에서 별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해안 근처였다. 움직임은 없었다. 사냥꾼은 목격자가 스스로 잘 숨었다는 착각에 빠졌음을 눈치 챘다.

목격자는 사냥꾼이 올 것을 각오했지만, 아무 인기척도 없어 이런저런 생각을 하였다. 갑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결정한 이유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물론 자신이 협상을 파기했던 것도 별로 깊이 생각지 않고 내린 결론이어서, 사냥꾼 또한 화끈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건가 생각해보니 사냥꾼은 자신을 보호했으면 했지 해치진 않는다는 말에 어긋나게 된다.

목격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근처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 시각에 한가롭게 산책을 할 인물은 사냥꾼 빼고는 없다. 목격자는 숨을 죽이고 그대로 있었지만 사냥꾼은 계속 목격자 근처를 배회하며 긴장하게 하였다.

사냥꾼은 목격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일단 지나쳤다. 목격자는 사냥꾼이 충분히 멀어지면 그 때 숙소로 돌아가려고 했다.

“거기 있었네~!”

뒤에서 그렇게 사냥꾼의 목소리가 들렸다.

목격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숙소 반대 방향으로 뛰었다. 아무래도 바다 속에 뛰어들면 의사를 할 것 같아 해안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해양 공원 안을 뛰어다녔다.

사냥꾼은 굳이 목격자를 힘들여 뒤쫓아 가지 않았다. 목격자는 한참 뛰다가 사냥꾼이 쫓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숨을 곳을 찾으려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왜 그렇게 달리기가 빠른 사냥꾼이 목격자를 얼른 안 죽이고 자신을 그대로 보내 주었는지 의아하기도 했고, 이렇게 넓은 해양 공원 안에서 자신을 금방 찾아낸 것도 의아하였다.

인공위성이라도 써서 자신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일까? 하지만 무슨 수로 사냥꾼이 인공위성을 쓸 수 있는 것일까?

물론 목격자의 이런 의문은 출발부터 잘못된 생각이다. 사냥꾼이 목격자의 옷 안에 단 위치추적장치는 인공위성이 없어도 되는 것이다.

전과가 닿는 범위 안에만 있어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목격자는 그런 걸 알 턱이 없었고 인공위성을 써서 자신을 추적한다면 이렇게 도망치다가 언젠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목격자 나름대로는 사냥꾼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빙 둘러 숙소로 가려고 했지만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자신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면 자신이 어떤 길로 가든지 소용없다는 말이 된다.

사냥꾼이 인공위성으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해양 공원의 어디쯤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낸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목격자는 목숨을 걸고 간단한 실험을 해 보기로 마음 먹었다. 인공위성으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달빛이 팬찮긴 하지만 그렇다고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사진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올 리가 없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냥꾼은 손쉽게 자신의 위치를 알아냈다. 일단 인공위성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아낸다고 가정을 해보고 인공위성으로부터 자신이 노출되지 않을 법한 곳을 생각해 보았다.

사냥꾼은 위치 추적기를 보며 목격자가 숙소로 돌아오려다가 잠깐 멈춰서 다른 곳에 가더니 한 지점에서 가만히 있음을 알았다. 사냥꾼은 목격자가 또 은폐물 쪽에 숨었나 싶어서 얼른 그쪽으로 가 보았다.

사냥꾼은 건물 출구에 서 있는 목격자를 금방 발견할 수 있었다. 목격자가 오히려 사냥꾼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팔짱을 끼고 당당한 태도로 말했다.

“역시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인공위성이 날 추적한다고 여겼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나한테 뭔가 발신기라도 달아놓은 거 같군.”

목격자는 교복 상의를 벗어서 바닥에 버리고 도망쳤다.

“잘도 거기까지 추리해낼 줄이야!”

사냥꾼은 지금껏 달린 속도 중에서 가장 빨리 달렸다. 목격자는 숙소의 창문으로 방 안에 복귀하거나 숙소 근처에 여러 숨을 곳을 찾아서 새벽까지 버티고자 했지만, 초반에 무리하게 뛰어서 금방 지쳤기 때문에 마음은 초조하고 몸은 안 따라주는 상황에 처했다.

목격자는 계속 끊임없이 뛰었지만 결국 사냥꾼은 목격자를 따라잡는데 성공하였다.

목격자는 계속 해서 뛰다가 사냥꾼이 목격자의 어깨를 붙잡는데 성공하자 목격자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다 발이 영켜서 옆으로 넘어

졌다. 사냥꾼은 쓰러진 목격자 위에 올라타서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죽기 전에 궁금해서 그런데, 이 공원에서 날 죽이면 뒷수습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냐?”

“안… 죽이는 거냐.”

“헤원이한테서 전해듣지 전해듣지 않았나? 난 널 보호했으면 보호했지 해치진 않는다고.”

“그럼 왜 이런 짓거릴 하는 건데!”

목격자는 버럭 화를 내며 바닥에서 상체를 일으켜세웠다.

사냥꾼은 목격자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너랑 산책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했을 뿐이야. 네 반응 보고 재미를 느끼는 건 덤.”

“야, 왜 그래? 근처에 촬영하는 카메라라도 있는 건 아니겠지…….”

목격자는 쑥스러운 듯이 손발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오늘처럼 내 운명이 싫은 적은 없어.”

사냥꾼은 계속 목격자를 부둥켜 안았다.

“나랑 사귄래?”

“…아니. 그거, 농담이지?”

“차일 작정으로 물어본 거야.”

“차인 것 치곤 꽤 덤덤하네.”

“마음 속으로 울고 있어.” 사냥꾼의 목소리가 조금 잠겼다.

“차일 걸 알고 있어서 운명이 싫은 거야?”

“아니, 구할 수 있었던 사람을 못 구했던 것이 슬퍼. 어쩔 수 없던 걸 알기에 더더욱 싫어.”

“너라도 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나 보구나.”

사냥꾼은 목격자를 그만 부둥켜 안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목격자도 등을 털며 일어섰다.

“네가 나를 보호한다는 거, 사실이나.”

사냥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지만 난 네 실체를 정확히 몰라. 그러니 네가 기대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게 대부분일 거야. 분명 넌 비밀 결사 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여럿 휘말려들게 했겠지. 이사장의 죽음, 검도 시험날 있었던 일, 석준이의 행방불명 등은 어떤 식으로든 네 존재로 인해 일어난 거야. 앞으로도 그 단체에 있다면 누군가 다치거

나 상처입거나 죽을 지도 몰라. 그래도 계속 거기에 속해 있을 거야?”

“사명이야.”

“난 인정할 수 없어. 널 꼭 경찰에 넘겨주겠어. 그 단체가 무얼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네가 그 목적에 공감한다면 분명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야. 그 단체는 정당치 못한 방법을 쓰는 데 거리낌이 없어.”

“넌… 끝까지 너인 채로 남아줬으면 좋겠어.”

사냥꾼은 먼저 숙소로 향했다. 목격자는 사냥꾼이 남긴 말의 의미를 곱씹어보며 뒤따라가려다 교복 상의를 주우러 아까 달렸던 길을 되돌아갔다.

### 5.3.1 2037년 9월 10일. 목요일.

술술 학교로 되돌아가야 했지만, 무슨 까닭인지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기상시키지 않았다. 수진은 선생님들의 방으로 가 보았다. 거기에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버스 운전기사들까지 술에 절어서 잠에 취해 꿀아떨어진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수진이는 자기네 반 담임인 물리 선생을 흔들며 깨워보았다.

“선생님~!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가까이 다가가기 힘들 정도로 술냄새가 풍겼다.

수진이가 아무리 각 반 담임을 흔들며 깨우려 해도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수진이는 팔짱을 끼고 그들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하였다.

“이해하기 힘드네. 어째서 술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지?”

수진이는 2반 반장답게 학생들 몇 명을 동원하여 선생님들 방의 술병과 온갖 어질러진 안주들을 처리할 것을 지시하고, 3학년 전체를 통제하려고 했다. 신설중학교는 따로 학생회도 없고 학생회장도 없지만, 각 반의 반장들은 한 학년 전체를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는 아니었다.

3학년 전체를 통제하기 위해 가장 먼저 수진이 착수한 일은 각 반의 반장, 부반장, 총무를 한 곳에 모으는 일이었다.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니 그리 어렵지 않게 모을 수 있었다.

각 반 대표들이 주차장 근처에서 원을 이루며 서자 수진은 자의로 판단한 사항을 전달하였다.

“현재 선생님들이 과하게 술을 마시신 까닭에 현재 오전 10시인데도 귀가하기는커녕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우린

지금쯤 버스 안에서 다들 자고 있어야 정상이지. 방 청소는 끝났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반은 없지?”

그 자리에 모인 각 반 대표들 중 수진이의 말에 토를 다는 사람은 없었다.

“좋아, 나중에 딴 말 하기 없기다! 우리가 어른들보다 더 나올 때도 있다는 것을 어른들도 좀 알아야 해. 어른들은 술에게 이성을 빼앗기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지. 우리의 이성은 고결해.”

“웁소!”

“그런고로 선생님들과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들이 일어날 때까지 잠시 숙소에서 대기해야 할 거야. 모두들 조용히 있어라 강요하진 않을게. 하지만 애들이 숙소 밖을 나갈 땐 너희에게 보고하게 하고, 무슨 일이 발생하는데로 나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줘.”

“그럼 출발하기 전까지 자유시간인가?”

준구가 그렇게 질문하자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뭐, 그런 썸이지. 떠들어도 좋고, 보드게임이나 카드놀이를 해도 좋고, 책을 읽어도 좋고, 복도에서 TV를 봐도 되지만 정리한 방을 다시 어지르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은 바로잡아줘야 해. 우리는 반 아이들이 뽑은 대표야. 그에 걸맞은 책임이 있다는 거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해. 그럼 다른 지시사항이 있기 전까지 모두 숙소 안에서 대기할 것. 전달 사항 끝. 해산!”

수진이의 말에 맞춰 모두 각자의 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준구와 철수가 숙소로 되돌아오자 급우들이 질문을 던졌다.

“출발 언제 한단냐?”

“선생님들하고 운전 기사가 잠에서 깨는 대로 버스에 탈 거야. 그때까지 여기서 자유 시간. 어제 했던 카드 게임 다시 할까?”

준구가 말하자 또 다른 질문이 나왔다.

“어제 대체 어디 갔던 거야? 판돈 잃어버릴까봐 도망친 거지?”

“저녁에 먹은 고기를 잘못 먹은 건지 화장실에 좀 오래 있었지.”

“어제 너하고 철수하고 없어서 얼마나 애들이 불안했는지 알아?”

“음... 미안. 다음엔 쪽지라도 남길까?”

준구가 답변을 마치자 질문의 다음 타깃은 철수가 되었다.

“철수야, 근데 어제 선생님이 왜 너를 부른 거야?”

“어? 아, 그건 오늘 과음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내가 대표로 반 애들을 잘 통솔해야 한다고 뭐 약간 설교 좀 듣고 왔어.”

“그게 그렇게 오래 걸려?”

“아~ 그게 말이지, 선생님이 이미 취하셔서 하신 말씀 다시 하고 하신 말씀 다시 하고, 왜 있잖아? 술 취했을 때의 행동.”

“주사(酒邪)?”

“그래! 그거. 아무튼 카드 다시 꺼낼게.”

급우들은 반장과 부반장의 언행에 대해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 5.3.2

“음……. 선생님들이 술을 많이 마셨던 까닭에 오후가 되어서야 집에 되돌아갈 준비를 하게 되었다……. 못난 스승을 둔 제자들아, 미안하다. 제군, 어른들도 실수를 할 때가 있는 법이고, 살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 이 이상 이야기해봤자 귀가만 늦어질테니, 현 시간부로 모두 버스에 탑승할 것!”

백향이 대표로 그렇게 학생들을 통제하였다. 다른 선생들도 있지만, 학생들이 백향의 말에 잘 따른다는 것이 백향이 학생들을 통제하는 이유였다. 인원 확인은 각 반의 반장들이 미리 해서 보고해 주었으므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까닭이 없었다.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신설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다. 자리배치는 출발 때와 똑같았다. 그렇게 학교에 도착하자 오후 6시가 조금 넘었다. 모두들 자신의 짐을 챙기고 운동장에 모였다. 다들 버스 안에서 잠을 청했는데도 운동장에 선 학생들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모두들 즐거운 수학여행이 되었는지 모르겠구나. 다들 집에 가서 목욕하고 푹 쉴 수 있도록. 내일 금요일은 학교에 오지 않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학교에 오는 거, 잊으면 안 된다. 충분히 알았을테지. 자, 해산!”

운동장에 모여 있던 학생들은 모두 교문을 통해 학교 밖으로 빠져나갔다. 학생들 대부분이 급조된 것 치곤 꽤 괜찮은 수학여행이었다고 얘기하였다.

준구가 집에 가려고 하자, 수진이 준구 뒤를 졸졸 따라가서 준구의 어깨를 짚었다. 준구가 뒤돌아보자, 수진은 준구의 볼을 검지로 짚었다. 수진이가 웃자 그 모습도 유라의 무서운 미소와는 다른 나름의 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이야?”

“같이 시내를 산책 좀 할까 싶어서.”

“그래, 사양하진 않겠지만 대신에 좀 천천히 걸어가자.”

### 5.3.3

준구는 저녁의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하는 풍경의 거리를 수진과 함께 나란히 걸었다. 준구는 자신이 수학여행 때 유라에게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진 않았다.

둘은 시내까지 걸어갔다가 번화가를 두어 바퀴 정도 돌고 다시 수진이네 집까지 걸어갔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렸지만, 사실 준구나 수진이나 나란히 이렇게 긴 시간을 걸으며 얘기를 나눈 적은 처음이었다.

수진이 집 앞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자정을 넘긴 때였다. 준구와 헤어지기 아쉬웠는지 수진은 준구를 보며 물었다.

“저기, 근데 너는 이상형이 어떤 여자야?”

준구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였다.

“글쎄……. 평소에 잘하지 않는 생각이어서 말이지. 뭐랄까, 나는 성격이나 외모 같은 것에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아. 뭐 그렇다고 못생겨도 좋단 건 아니고. 여성이 아름다울수록 가족이 오래 화목하다나 뭐라나.”

“차유라는?”

“응? 유라? 글쎄, 차유라, 예쁘긴 하지. 하지만 내 이상형은 아냐.”

준구는 멧쩍은 미소를 지었다. 유라가 건넸던 실없는 제안이 떠올랐다.

“음, 그래, 이상형은 예쁜 게 다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 첫 눈에 반하는 사랑을 안 믿는 편이지만, 예쁘고 잘 생겼다고 바로 사귀게 되고 잘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 내 이상형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여자야.”

“그래?”

“그리고 넌 그런 여자인 거 같아. 생각해 보면, 네 신세 진 적이 몇 번 있었잖아?”

“무, 무슨 신세?”

“글쎄……. 연쇄 살인마를 목격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네가 노력한다든지…”

“딱히 널 위해 그러는 게 아니거든? 학기 초에도 공언했던 거지만 사회 정의를 위해서…” 수진은 횡설수설하며 애써 준구의 말을 부인했다.

“1학년 때 기억나? 나 사회 교과서 잃어버렸었잖아. 그 때 네가 주



말에 무지 열심히 필기해서 나한테 네 요약 노트 건네 줬잖아. 그 땐 같은 반이었는데.”

“난 이미 그 때 모든 교과서의 요약 노트를 다 작성한 상태였거든? 그, 그냥 불쌍해서 준 거야. 정말 불쌍해서라고.”

“그 뒤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긴 했지만, 네가 1학년 때 필기해준 사회 교과서, 아직도 버리지 않고 집에 있어. 찾아보니까 사회 교과서를 잃어버린 게 아니었더라고. 하지만 네 생각이 나서 지금도 네가 써준 요약 노트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

사소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결국 수진은 준구의 위기를 해결해 준 은인이었다.

“내게 앞으로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더라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을래?”

“…….”

“나는 네가 좋아. 너도 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확실히 말해야겠어. 날 좋아한다면, 사귀자. 네가 괴로워할 때, 슬퍼할 때, 나는 네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줄게. 우린 서로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난 확신해.”

준구는 수진의 어깨를 붙잡고 서서히 얼굴을 다가갔다.

“우리 사이에 이런 건 이르다고 계속 생각했지만, 되짚어보면 우린 초등학교를 졸업한 시점부터 어른이었어. 동의하지?”

“어, 응, 뭐, 그렇기야 하지…….”

“문예부에서 실컷 나한테 장난 친 거 기억나지?”

“그, 그거야 뭐랄까…….”

“난 네가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뛰어. 오늘부터 우린 사귀는 거야.”

준구는 수진이 당황해하는 모습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키스했다.

## Chapter 6. 살인자

*Laissez-faire was planned; planning was not.*

- Karl Polanyi

### Intro

책으로 둘러싸인 방에 준구는 누워서 책을 읽고 있었다. 부친인 김 하준은 아침식사를 하고 곧 출타했기 때문에 집안은 쉿한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금요일이지만 수학여행 직후라 학교에 가지 않아서 좋다고 준구는 생각했다. 수진이와 사귀지 실질적으로 하루지만, 딱히 사귀는 기분을 내기 위해 데이트를 청하거나 하진 않았다. 3년 가까이 학교에서 마주쳤기 때문에 굳이 휴일인 오늘, 시간을 들여 데이트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수진이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준구는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준구의 생각이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외치듯 벨 소리가 울렸다. 전화기 액정을 보니 역시 서수진이 건 전화였다.

“나야. 무슨 일이야?”

『오늘 휴일인데 뭐해?』

“집에서 책 읽고 있지.”

『그럼 학교 도서관으로 와줄래? 긴히 할 말이 있어.』

준구는 수진이가 무슨 용건으로 자신을 부르는지 제멋대로 망상하기 시작하였다.

『듣고 있어? 지금 석빈이도 와 있어. 바쁘면 오지 않아도 돼.』

“아니, 안 바빠. 갈게. 나중에 봐.”

준구는 석빈이가 도서관에 있다는 말을 듣고서야 석준이의 일이 떠올랐다. 아무래도 오늘도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다.

준구는 책을 바닥에 퍼놓은 채로 옷을 갈아입고 집밖으로 나갔다. 30분 가량 골목길을 걸어서야 학교 교문에 도착할 수 있었다. 교문에는 수진이와 석빈이 아니라 금발 벽안의 실비아가 있었다.

“수학여행은 잘 다녀왔나.”

“저희 학교엔 무슨 용무시죠.”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는군. 당연히 네게 말을 걸려고 온 게지.”

“제게만 용건이 있었다면, 제가 집에 있었을 때 방문해 올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수학여행 다음날은 쉬는 날인데 학교로 올 걸 예상했다면, 제가 친구를 만나러 올 거란 걸 예상하고 온 건 아닌지 그걸 확인하고자 물어본 질문입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 줄은 몰랐어. 어쩐지 운동장이 텅텅 비어있었군.”

실비아는 어깨를 으쓱하며 팔짱을 껐다.

“그럼 넌 친구를 만나러 온 것인가보군.”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는군요. 제 갈 길 방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난 말이지, 널 도울 수도 있는 사람인데.”

준구는 실비아를 무시하며 도서관으로 걸어갔다. 실비아도 더는 준구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준구는 실비아가 시비를 거는 게 아님을 알면서도 날카롭게 대하게 되는 자신이 의아하였다.

“오래 기다렸지?”

준구가 도서관 문을 열며 들어가자 좌담실에 서수진, 조석빈, 현경화가 앉아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뒤에 있는 건... 혹시 실비아라는 자인가.”

경화가 준구 뒤에 따라 들어온 실비아를 보며 말했다. 몇 번밖에 언급되지 않은 사람이름을 용케 기억하고 있었다.

“처음 보는데 이름을 기억해두다니 고마운 일이군. 내가 나이가 생각보다 많으니 말은 놓도록 하지.”

“미안, 난 데려오려고 한 게 아닌데 멋대로 교문에서 따라왔어.”

준구는 자기 탓도 아닌데 열심히 변명해대며 자기 자리에 앉았다. 실비아는 자연스레 준구 옆에 앉았다.

“난 웬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는군.”

“당신의 정체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수진이 능청을 떨며 말하는 실비아에게 적대감을 품은 말투로 말했다. 준구 옆에 앉은 게 마음에 들지 않은 탓이었다.

“실비아면 러시아 사람?”

석빈이 아무 것도 몰라서 묻자 실비아는 입을 가리고 킁킁 웃다가

깍지 낀 손으로 턱을 괴며 석빈을 쳐다보았다.

“난 미국인이야.”

“CIA 요원이기도 하고, 마약사범을 양산해낸 주범이기도 하고, 이 도서관을 박살내서 수학여행을 앞당긴 장본인이기도 하지.”

수진은 석빈에게 자칫 편향되게 들릴 말을 쏟아냈지만, 실비아를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이미지대로 솔직히 말했을 뿐이었다.

“난 너희를 도우러 온 셈인데 너무 적대하면 곤란해.”

“하지만 무척 사악해 보인다고요. 그리고 우리랑 적인데 돕는 척하는 것일 지도 모르고…….”

실비아는 수진의 그 말에 등 뒤에서 권총을 꺼내 수진에게 던져줬다. 덤으로 탄창까지 꺼내서 탁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렸다.

“몸 수색을 해도 좋아. 추가적인 무장은 없어. 날 못 믿을 사람이라 생각하면 이 자리에서 쫓아. 조준하고 방아쇠만 당기면 돼.”

너무나 당당한 태도로 실비아가 일관하자 무조건 적대적으로 대할 수가 없었다.

“아까보단 분위기가 좋아졌네. 좋아, 신뢰를 쌓아야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얻을 수 있을 테니, 내가 여기 온 이유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지. 난 극동아시아에 특화된 요원인데 원래는 일본에서 활동했어. 그러다 한국에서 안수근씨의 요청으로 그의 망명을 돕기 위해 잠시 이곳에 온 거야. 그리고 그는 사망했지. 난 타살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딱히 증거는 없어. 그런데 말이지, 내 동료였던 김한균은 용의자가 누군지 추측한 건지 멋대로 용의자를 뒤쫓다가 살해당했어. 그 자리에 있던 게 너희 친구인 김준구야.”

“네 놈, 준구에게 위협을 가했던 녀석이야!”

경화가 자리에서 일어나 목검을 쥐어잡고 실비아를 겨누었다.

“워어~, 진정해. 비무장인 나에게 그렇게 칼끝을 들이밀면 신사적이지 못하지. 한균이 무슨 짓을 했는진 난 몰라. 그 때문에 뜻하지 않은 피해가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지. 하지만 이쪽은 정당하게 용의자를 쫓다가 동료가 살해되었다고. 입장 바꿔 생각해 봐.”

경화는 목검을 거두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너무 흥분했다. 사과하지. 하지만 중학생 용의자를 상대로 칼을 휘두른 건 그 쪽이 잘못된 거야.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로 갔으며, 만에 하나 준구가 살해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나. 그저 사과 몇 마디 하고 끝내려고 한 건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어디서 주워 들은 지식으로…”

“우린 초등학교 6학년 때 헌법이 무엇인지 다 배웠어.”

경화가 알아보지 말라는 식의 말을 한 셈이었다.

“제법 자기자신이 통찰력 있다고 착각하는 스타일인 모양인데, 한군이 무턱대고 칼을 휘둘렀으리라고 생각하진 않아. 자신에게 보인 적대적인 행위에 반응한 것이겠지.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려다 총을 쏘는 데에는 다 그에 합당한 절차가 있는 법이라구.”

“중학생을 상대로 맨손으로 체포하지 못하는 건 그쪽 역량이 부족했던 게 아닐까.”

경화와 실비아 사이에 소모적인 공방이 오가자 준구가 둘을 말렸다. “여기서 이런 소모전을 벌이는 사이에도 석준이는 어디선가 위기에 처할 지도 몰라. 실비아씨, 당신의 동료에 대해선 무척 유감이지만, 그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 하고 싶지 않군요.”

“흠, 그래, 본체를 말하도록 하지. 네가 조석빈이라고 하는 아이지?”

실비아가 석빈을 쳐다보며 묻자 석빈은 “예.”라고 나지막이 답했다.

“네 동생 조석준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소식은 접했어. 며칠 있으면 일주일이 될 테니 너무 걱정스러워서 친구를 부른 것일 테지.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을 거야. 왜냐하면 석준이는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봤거든.”

“그게 뭔가요?” 석빈은 석준을 걱정하며 물었다.

“한군을 죽인 원수랑 길거리에서 교전했어. 내 부하들 중 상당수가 사망했어. 그러니 경찰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내일 저녁 학교 옥상에서 그녀를 데려와 줘.”

“그녀가 누군데요?”

석빈은 실비아가 무슨 소릴 하는지 모르겠다는 투로 말했다.

“차유라야, 차유라. 검도 시합이 있던 날, 준구랑 함께 귀가했던 게 차유라였잖아.”

수진이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다. 석빈은 그제야 실비아가 말한 그녀가 차유라임을 알아차렸다.

“옥상에 데려오기만 하면 나머진 군 부대가 와서 체포해 줄 거야. 그걸로 이 마을의 공포는 제대로 사라지겠지.”

“군 부대는 어떻게 끌고 오시려구요?”

석빈이 묻자 실비아는 별로 어렵지 않다는 듯이 답했다.

“그건 내게 책략이 있어.” 실비아는 씩 웃으며 다리를 꼬았다.

“…우리 조금만 더 냉정해지자.”

경화는 심각한 어조로 말했다. 실비아는 경화의 반응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석빈은 탁상을 탁 치며 흥분했다.

“여기서 어떻게 냉정해질 수 있어! 유라가 친구라고 감싸는 거야?”

“그런 게 아니다. 저 자는 마약사범을 양산하고 조폭들이 연명하는 걸 도운 장본인이라 믿을 수 없어.”

“그 부분에 대해선 내가 정리해 주지. 자네가 내세운 공격은 모두 타당하지만 모두 나의 조국을 위한 행위였다. 김두길이 내 킨트를 밖으로 빠져나간 건 실수지만, 조폭들은 한국에서 정보원 역할을 비롯해 각종 공작에 동원되었어.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 죽은 동료, 김한균의 복수를 위해 움직이는 셈이니 내 의도에 대해 너무 의혹을 갖지 않았으면 하는군. 그리고 차유라를 잡아들이는 게 너희들에게도 이로울 거야. 그녀가 이 마을의 공포를 조장해왔고, 조석준의 행방불명과 전혀 무관한 게 아닌 이상, 앞으로 그녀를 계속 놔두면 어떤 피해가 더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이지.”

실비아가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우자 경화는 할 말을 잃었다.

“난 내 동생을 위해 이 사람과 손 잡을 거야.”

“준구군, 자네도 오랜 시간 차유라를 잡아들이는 걸 고심해오지 않았는가.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거야.”

실비아가 준구를 충동질하자 준구는 별 수 없이 나직이 말했다.

“저 또한 돕겠습니다. 하지만 석준이를 일상에 되돌리기 위해서 돕는 겁니다.”

“알아, 잘 생각했어.” 실비아는 음흉한 미소를 아낌없이 드러냈다.

“준구가 돕기로 결정했다면 저도 돕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결론이지만, 나도 참여하겠어.”

수진에 이어 경화도 합세하였다.

“좋아. 날 신뢰해 주는 것 같으니 이 권총은 회수하겠어. 아무래도 이걸 너희들에게 너무 위험하니까.”

실비아는 탁상 위에 올려둔 권총과 탄창을 도로 가져갔다.

## 6.1

목격자는 책을 읽으며 놀이터 벤치에 앉아있었다. 두 조로 나누어진 쪽은 사냥꾼 집으로 찾아갔고, 목격자 쪽은 그림자를 회유하기로 하였다. 그림자네 자택에 가서 잡아오는 방법도 고려하였지만, 역시 자연스럽고 밖으로 불러내어 잡아들이는 방법이 가장 안전해 보였다.

“오래 기다렸나.” 뒤에서 불쑥 그림자가 말을 걸었다.

“아니, 책 읽고 있었지.”

목격자는 책을 덮고 가방에 집어넣었다. 그림자가 목격자 옆에 나란히 앉았다.

“신설중 여학생 보고서 말인데…”

“아, 그 얘기는 됐어.” 그림자는 목격자의 말을 가로막았다.

“다른 할 말이 있어서 불러냈다고 생각하니까.”

“확인차 하는 질문인데, 너는 차유라와 협력 관계인 거지.”

“자세한 건 못 밝히지만, 네가 아는 건 대부분 사실이야.”

“조석준은 어디에 있냐.”

“그건 밝힐 수 없어. 하지만 조만간 집으로 되돌아갈 거야.”

“그동안 소꿉친구 속이느라 고생 많았다.”

목격자는 주먹을 꼭 쥐고 최대한 참았다. 더 말하다 보면 감정이 폭발해서 한 대 칠 것 같았다.

“속인 건 미안하지만, 속일 수밖에 없었어.”

“난 널 지금껏 꽤 많이 감싸줬어.”

“알아. 그건 고마워. 그래서 나도 꽤 많이 변했잖아?”

“…왜…….” 목격자는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무엇을 먼저 물어봐야 좋을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차유라를 잡고자 하는 건 성공하지 못할 거야.”

그림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목격자가 놀라서 뒤돌아보자, 살인자가 바닥에 야구방망이를 대충 던졌다. 살인자는 기절한 그림자의 팔에 수갑을 채웠다.

“이건 아무리 그래도 너무 거칠잖아요.”

“죽인 건 아니니까 안심하라고. 이 높은 미끼 역할이고, 진짜 잡아야 하는 건 차유라잖아? 이 녀석이 방금 한 말 들었지? 차유라를 잡고자 한다는 걸 눈치 챌 거야. 그러니 도망치기 전에 이렇게 해줘야지.”

살인자가 기절한 그림자를 벤치에 앉혀두자, 탐정으로부터 목격자에게 전화가 왔다.

『유라네 집엔 지금 아무도 없어. 전화를 걸어도 안 받아. 학교로 가 있을게. 거긴 어때?』

“여긴 철수를 생포했어.”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

탐정이 전화를 끊었는지 수화기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철수를 잡았으니 이제 어떻게 하실 셈이죠.”

살인자가 그림자를 부축해서 차량 쪽으로 걸어가자 목격자도 살인자를 따라갔다.

“난 CIA에 쫓기고 있어. 조직 내에서 누가 날 함고(威告)했거든. 그리고 한미군사교류협정이라는 조약에 의해 헌병이나 기무대에 협조해서 날 잡으려고 움직일 거야. 그걸 역으로 써먹는 거지. 네가 옥상으로 유라를 불러서 인질 맞교환을 해.”

살인자가 차량 문을 열고 뒷자석에 그림자를 먼저 집어넣고 자신도 뒤따라 탑승했다.

“당신은 옥상에 있지 않겠군요…….”

“너도 얼른 차에 올라 타.”

살인자가 문을 닫자 목격자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운전석에는 군인이 한 명 타고 있었으나 둘의 대화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건지 굳은 얼굴로 앞만 보고 있었다.

“난 잡히고 싶지 않으니까. 잡히면 곤란해. 결백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들이 작정하고 모함했거든. 날 모함한 녀석들은 CIA 내부에 자리잡은 비밀 결사 단체 회원들이지. 역공해서 뿌리뽑지 않으면 안돼. 역공하려면 이쪽도 준비가 많이 필요하지.”

살인자가 손으로 출발 신호를 보내자 차량은 신설중학교를 향해 달렸다.

목격자는 백미러를 힐끗 봤다. 살인자는 그림자를 몸수색하며 안에서 통신 기기로 보이는 물건을 꺼냈다. 전원을 켜자 잡음이 들렸다. 살인자는 목격자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말했다.

“여기 버튼을 누르면서 말하면 아마 차유라가 들을 거야. 학교 옥상에서 기다릴 테니 석준이를 데려오라고 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목격자는 살인자에게 받은 통신 기기를 건네받고 사냥꾼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 6.1.1 2037년 9월 11일. 금요일.

신설중학교 옥상에는 김준구가 남철수를 붙든 채로 서 있었다. 준비는 다 끝났다. 이번에 차유라를 잡아들이지 못하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당직인 이백향은 이미 실비아가 커피에 몰래 탄 수면제를 들이켰으므로 웬만큼 난리가 나더라도 절대 깨지 못한다.

준구가 초조하게 휴대폰 액정을 들여다보았다. 어느덧 오후 10시 47



분이었다. 실비아가 군인들이 반드시 옥상에 올 것이라 했지만, 유라가 오기 전에 군인들이 와도 문제였다.

“여긴 학교 옥상인가…….”

철수가 눈을 뜨고 내뱉은 첫마디였다.

“그래. 너랑 석준이랑 인질 교환을 할 거야. 퇴로가 없는 옥상이니 유라가 여기에 안 올 이유가 없어.”

준구는 긴장이 가지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철수는 평소에는 거의 짓지 않는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옥상에는 태양판이 여러 개 있었고, 무덤처럼 책상과 의자가 쌓여 있었다.

이윽고 옥상의 문이 열리며 유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유라는 평소에 즐겨 입는 복장인지, 흰 교복 상의에 검은 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유라는 준구와 철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준구 또한 유라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유라가 데려와야 할 석준은 보이지 않았다.

“꽤나 대담한 짓을 저질렀네, 김준구.”

“석준이를 데려오라고 했잖아.”

“난 석준이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 유라는 석준이가 어디 있는지 몰라. 내가 알지.”

철수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준구는 협상을 할 사람을 잘못 골랐음을 깨달았다.

유라는 등 뒤에서 권총을 꺼냈다. 권총의 총구가 바닥을 향하고 있었지만 유라는 그대로 슬라이드를 뒤로 제껴 장전을 하였다. 유라는 양 손으로 권총을 안전하게 파지하고 준구를 보았다. 유라의 표정이 소름끼치도록 어두워서 준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짓거리도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어…….”

철수는 준구에게 나직이 일렀다.

“내가 막아설 테니 옥상에서 뛰어내려.”

“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

기무대에서 보낸 헬기가 신설중학교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었다. 유라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조폭? 군대? 스파이? 아니. 자본가? 정치인? 아니지. 연쇄 살인마? 아냐. 바로 동료와 함께 신념을 가진 비밀 결사 단체 회원이다.”

유라는 천천히 준구를 향해 권총을 겨누었다.

철수가 순간적으로 준구를 밀치고 유라를 향해 뛰어들자, 북쪽 야산의 송신탑에서 강렬한 스포트라이트가 쬐기며 신설중학교 옥상을 향

해 강렬한 빛이 쏟아졌다. 먼 거리에서 온 빛이지만, 대낮처럼 충분히 모든 사물을 식별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렬했다. 순간적으로 유라는 권총을 파지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폭증하자 반사적으로 취한 행동이지만 덕분에 준구는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준구는 즉각 옥상 난간을 향해 뛰었다. 아득히 멀리서 총성이 들려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내 헬기 프로펠러 소리에 섞여들어 총성이 짧은 환상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준구는 고통을 느꼈다. 팔에 뜨거운 압정을 박은 느낌이었다. 온 누리의 사물이 마구잡이로 뒤엎키는 느낌을 받으며 준구는 아래로 추락했다.

낙하지점에는 인명구조용 에어 매트가 준비되어 있어서 옥상에서 떨어진 준구는 비교적 안전하게 착지하였다. 하지만 에어 매트는 낙하의 충격만을 흡수했을 뿐, 총상을 입은 준구의 팔에서 나온 피가 하얀 에어 매트를 붉게 적시기 시작했다. 뜨뜻하고 붉고 조금은 점성이 있는 기분 나쁜 액체가 옷을 적시기 시작했다.

에어 매트 근처에 있던 수진은 놀라서 얼른 준구를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준구는 두 눈을 깜박이며 겨우 자신이 총을 맞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일단 양호실로 가자.”

상상 이상의 정신적 충격 덕에 발광하지 않아서 오히려 다행이었다. 수진이 준구를 부축해서 교내로 들어오는 동안,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군용 헬기에서 내려온 로프에서 군인들이 차례로 하강하기 시작하였다. 군용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 때문에 다른 소리가 묻히고 있지만, 헌병대가 주요 도주로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경찰 특공대 또한 움직이는지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지만 희미하게 곳곳에서 들렸다.

유라는 옥상 난간벽에 기댄 철수를 내버려두고, 옥상 문을 연 다음 계단을 향해 내려가려 하자, 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유라가 뒤돌아보자마자 문의 사각지대에서 미리 대기 중이던 조석빈이 유라의 목살과 팔을 붙잡고 엎어치기를 하였다. 유라는 권총을 겨눌 시간도 없이 그대로 석빈의 유도 공격에 무방비로 당하였으나 용케 낙법을 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유라가 쥐고 있던 권총은 유라의 손에서 벗어나 이리저리 벽에 부딪쳐 바닥을 구르다가 석빈의 발아래에 놓여졌다.

석빈은 곧바로 권총을 집어 들었다. 유라가 다급하게 일어나서 석빈

을 향해 낮은 자세로 돌격하자 석빈은 한 손으로 유라를 향해 권총을 쏘아댔다. 하지만 유라에게는 단 한 발도 명중시킬 수가 없었다.

분명히 석빈은 유라의 옷에 대고 권총을 갈졌다!

유라는 석빈의 손목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그가 든 총구를 하늘 방향으로 돌렸다.

“어째서 한 발도 안 맞았지?” “그거 공포탄이야.”

석빈은 급한 마음에 권총을 마구 쏘아댔다. 하지만 나중에는 탄을 다 소모하여 권총이 쓸모가 없어졌다. 계단에는 권총 탄피가 널브러져 있었다. 바닥과 손 근처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화약 냄새가 석빈의 코를 찔러댔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유라는 박치기로 석빈의 턱을 치고 열린 주먹으로 성대와 심장을 가격하였다. 하지만 상대는 멧집이 좋기로 유명한 유도부 주장이었다. 그렇게나 급소만 골라서 맞았지만 초인적인 인내로 그것을 다 견뎌내고 석빈은 유라를 붙잡고 엮어치기 기술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석빈이 파고들어서 유라를 엮어서 들어 올리려 할 때, 유라는 석빈의 목을 감싸고 그가 등을 굽히지 못하게끔 손바닥으로 허리 아래쪽을 꼭 눌렀다. 석빈은 다시 원상태로 마주봤다가 바닥에 드러누우며 유라를 뒤로 넘기는 배대뒤치기를 시도하여 성공시켰다. 유라는 이번에도 반사적으로 낙법을 하였지만 낙법을 한다고 해서 지상에 착지할 때의 충격을 완벽하게 없애주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 충격을 완화시켜줄 뿐이었다.

“…하아…하아……. 거 짜증나게 하네. 너 그러다 죽는 수가 있다.”

유라는 숨을 고르며 군인들이 5분 안에 이곳에 도달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었다.

“차유라! 내 동생은 어디에 있나!”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유도를 이길 수 있는 순간은 아주 잠깐이다. 유라는 유도를 쓰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유도의 강인함은 공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력에 있는 것이다. 유도를 배우는 사람은 버티는 데 능숙하다.

석빈은 자신이 잡는 기술은 뭐든지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석빈은 잡기 기술에 절대 우위가 있다. 그러나 유라는 상대적으로 체중이 가볍고 잡히면 그대로 진다.

그러나 유라는 자신이 있었다. 석빈을 때릴 때 석빈의 몸이 마치 통나무 같았음을 느꼈다. 그러나 유라는 매일같이 목인장이라는 통나무나 다름없는 물건을 상대로 수련을 해왔다. 유라는 주먹으로 공격하

는 기술에 비교 우위가 있다.

둘이 서로 교환한 것은 빵과 대포 같은 재화가 아니라 주먹과 발길 질이었다.

유라는 빠른 주먹으로 얼굴과 목 근처를 가격하였다. 하지만 석빈이 팔로 웅크리며 두들겨 맞는 와중에도 기회를 틈타 유라의 소매를 움켜쥐자 유라의 마음대로 석빈을 때릴 수 없었다. 석빈이 소매를 끌어당기자 유라는 금방 석빈 쪽으로 몸 전체가 쏠렸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러 석빈 쪽으로 끌려간 것이었다.

유라는 왼발로 석빈의 무릎을 딛고, 돌려차기 하듯이 최대한의 중량을 실어서 오른쪽 무릎으로 석빈의 턱을 때렸다. 계산된 무릎차기에 석빈은 뇌가 흔들릴 만큼의 충격을 받고 기절해 버렸다.

“...하아...하아…….”

유라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계단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1층부터 올라오는 군화 소리가 들렸다.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이걸로 학교 밖으로 빠져나가는 건 불가능하게 되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 유라는 계단의 불을 일시에 켜다. 군인들이 올라오다가 급격한 사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멈춘 사이 유라는 다시 불을 켜다. 일시에 시야가 차단된 군인들은 그 자리에 멈춰 명령 대기 상태에 돌입하였고, 유라는 쇠구슬을 계단에 뿌렸다. 계단을 통통 튀던 쇠구슬은 계단 이곳저곳과 복도 사방에 깔렸다.

군인들은 위층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움직이는 찰나에 쇠구슬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서로 영키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그 쇠구슬은 정전기를 이용한 전기충격이 가능한 쇠구슬이라 계단을 올라오려다 넘어졌던 군인들은 예상치 못한 감전 고문을 당하였다.

유라는 군인들이 고전하고 있으리란 것을 예상하며 계단 입구에 연막탄을 두 개 꺼내 집어던졌다. 군인들이 네 명 정도 왔지만 연막탄을 수류탄으로 착각하고 모두 후퇴했다. 어두웠기 때문에 생긴 착각이다.

유라는 곧바로 화재연기방지 셔터를 내려 3층과 2층을 완벽하게 차단시켰다. 교내에는 화재 경보음이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유라는 차분해지기 위해 경보음마저 꺼버렸다.

조금의 여유가 생기자 준구가 어디로 갔을지 생각해 보았다. 분명히 수진은 부상당한 준구의 응급 처치를 위해서 교내로 도로 되돌아왔다. 그렇다면 반드시 3층의 양호실로 갈 것이다. 군인들보다 준구 쪽이 건물 입구에 가까이 있었기에 그들이라면 유라가 석빈과 싸울 동

안 충분히 양호실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유라가 3층 복도를 무심코 지나가려 하다가 눈앞을 스쳐지나간 화살에 놀라서 그대로 얼어붙은 듯 멈춰서 버렸다. 화살은 그대로 교실문의 유리를 깨버리고 연이어 교실 유리창마저 꿰뚫어버린 채 학교 밖으로 사라졌다. 교실문의 유리에는 권총으로 쏜 듯 조그마한 구멍이 뚫려버렸고, 그 주위로 거미줄을 친 듯이 금이 갔다.

유라가 화살이 튀어나온 쪽으로 시선을 돌리니 경화가 여자 화장실에서 서 있었다. 복도에는 불이 다 꺼져 있었지만, 북쪽에서 켜놓은 스포트라이트 덕분에 환하게 밝혔다. 하지만 화장실 쪽은 우유빛깔의 불투명한 창문을 다 닫아놓아서 상대적으로 어두웠던 데다 군인들을 잠시 상대하고 곧바로 준구를 만나는 데에만 신경 쓰고 있어서 하마터면 현경화가 쏜 화살에 어이없이 죽어버릴 뻔한 것이다.

경화는 활을 바닥에 내려놓고 목검 하나를 유라의 발 앞에 툭 던졌다. 그리고는 자신의 등 뒤에 준비해 둔 목검을 꺼내었다. 경화가 화장실 스위치를 켜자 그녀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났다.

“차유라, 네게 정식 승부를 신청한다. 얼른 그 검을 집어 들어라.”

“저번에 네가 이겼잖아.”

“닥쳐. 그 땐 네가 감기에 걸렸지. 하지만 지금은 컨디션이 괜찮을 터. 싸우기 두려운 건 아니겠지.”

“네 입버릇대로 응수해 줄까? 넌 지금 나에 대한 적개심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어.”

“확실히 그렇군. 하지만 이 승부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너는 붙잡힐 거다. 네가 붙잡히면 다신 너와 싸울 수 없을 테니, 이참에 승부를 매듭지어야겠어.”

“그래? 그럼 널 쓰러뜨리고 가야겠어.”

유라는 땅에 떨어진 목도를 집어 들고 격검 자세를 취하였다. 눈앞의 상대방은 심기일전을 한 듯이 머리에는 수건으로 묶고, 검도의 정식 복장을 갖추었다. 단 한 가지, 호면을 쓰는 것을 제외하고. 유라가 맨몸일 것을 의식해서 이렇게 입은 것이다.

유라가 목검을 들고 한 걸음씩 다가갈 때마다 현경화는 한 걸음씩 뒷걸음질을 쳤다.

“이곳으로 나를 유인해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인 거 같은데 꿈 깨.”

이 둘이 쫓는 것은 목검이지만 검도를 배웠기에 사실상 진검이나 다름 없었다. 충분히 신체의 뼈를 박살내고 상대를 죽일 수 있다.

유라는 노도와 같이 나아가며 목검을 들어 내리찍자 경화는 피하면서 대각선으로 유라를 베려 했다. 유라가 몸을 숙이자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무거운 정적을 깨뜨렸다. 유라는 곧 찌르기로 경화의 배를 노렸으나 경화는 옆으로 살짝 튼 것 정도로 간단하게 피할 수 있었다.

둘 다 어느 정도 관성을 신경 쓰면서 공격을 하였다. 아무리 상대가 일격을 맞아줄 것 같을 상황이라도 공격을 흘리면 중심을 잃은 쪽이 패배한다.

“마치 미국과 러시아의 군비 경쟁 게임 같지 않아?”

“둘 다 군비 감축을 선택하는 게 좋지만, 서로를 믿지 못해서 군비 확대를 선택하게 되지. 양쪽은 각자의 우월전략을 선택하다 보니 양측 다 군비 확대라는 결과를 가져왔지.”

“그래, 그게 그들의 우월전략균형이었어. 그런데 우리도 그런 균형에서 있는 것 같지 않아? 이게 네게도 우월전략이었다면 나에게도 이게 우월전략이란 걸 알 텐데. 어째서 대화가 아닌 검을 선택했지?”

“나에게도 우월한 전략이거든.” 경화가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유라가 다시 허리 베기를 시도하자 경화가 다시 옆으로 피하면서 유라의 목검을 막았다. 그리고 둘의 목검이 맞부딪혔다가 떨어지기를 수십 차례

유라가 경화의 공격을 뿌리치고 수직으로 머리를 공격하자, 경화는 목검을 가로로 들어 방어하며 유라의 공격을 받아냈다. 목검을 맞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경화는 위치를 전환하여 화장실의 문 쪽에 경화가 서 있고, 유라가 창문 쪽에 서 있는 형국이 되었다.

경화가 목검에 힘을 주어 유라를 밀쳐내자마자 열린 화장실 문을 닫아버렸다.

“뭐야, 배수진이야? 기껏 한다는 게 퇴로를 차단하는 거라니. 하지만 상대방이 겁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배웠을 텐데.”

“배수진은 맞지만 그건 반쪽짜리 정답.”

경화는 창가를 바라보았다. 아까만 해도 스포트라이트가 켜져 있었지만, 경화가 화장실 문을 닫자마자 스포트라이트가 꺼졌다. 그러나 창가를 등지고 서있는 차유라는 스포트라이트가 여전히 켜졌는지 꺼졌는지 알 수가 없었다. 경화가 퇴로를 굳이 차단한 것은 한 가지 준비한 책략 때문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유라가 공격을 다시 감행하자 경화는 목검으로 굳이 맞서려 하지 않고 옆으로 피하면서 목검 끝으로 화장실 스위치를 찔러서 꺼버렸다. 너무나 세게 찌른 나머지 스위치가 부서졌지만, 순

식간에 화장실 안이 어두컴컴하고 밀폐된 공간이 되자 경화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눈을 감고도 상대방과 겨룰 수 있는 수련을 그동안 남몰래 해왔기 때문이다. 경화는 지체하지 않고 유라가 있다고 생각되는 쪽을 향해서 검을 내리치자——

“—————?!”

그 검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바람 소리가 채 멎기도 전에 유라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너만 눈 감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냐…….”

경화는 강력한 한 방을 맞아버렸다. 충격만 따지면 후두부를 감싸는 두개골 뼈에 금이 갈 정도의 일격이었지만, 유라가 때린 곳은 뒤통수가 아니라 기절할 수 있는 목과 등 사이의 언저리였다. 머리에 맞았다면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 유라는 불을 켜려고 스위치를 눌렀지만, 움푹하게 들어간 스위치는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유라는 바닥에 쓰러진 경화의 귓가에 조용히 훈계를 하였다.

“네겐 훌륭한 자질이 있어. 자만하지도 말고 방심하지도 말고 우쭐해 하지도 말고 깔보지도 말고 정진해. 너보다 더 강한 사람이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정진해. 네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이야.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석준이가 어디 있는지 나도 몰라. 그럼 이만.”

유라는 경화의 상태를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경화는 제 시간 안에 응급처치를 받을 것이다. 유라는 팔 힘이 다 빠졌다는 착각에 사로잡혔다. 목검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라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자 복도에는 어두컴컴한 정적이 짙게 깔려 있었다. 유라가 터벅터벅 복도를 걷자, 석빈이 뒤에서 나타나 유라의 오른팔을 붙잡고 다리를 걸면서 허리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조르기를 시도하였다.

유라는 석빈을 완벽하게 기절시켰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게다가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유라는 석빈에게 완전히 제압당할 것이다. 제압당하는 건 둘째 치고 질식사할 것이다. 하지만 유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풀려나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왼팔로 바닥을 짚고 몸을 띄운 다음에 몸을 회전시켜 바닥이 아닌 천장을 바라보게 만들었다. 그리고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왼손 관수로 석빈의 목을 찌르고 연속으로 인중을 세 번째 손가락으로 꼭 누른 뒤 손바닥으로 턱을 쳐서 석빈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였다. 자연스럽게 유라의 오른팔을 구속시키는 힘이 줄어들자 유라는 석빈

의 얼굴을 밀어내는 정도로도 손쉽게 풀려날 수 있었다.

둘 다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심호흡을 하였다. 둘 다 이미 많은 체력을 소모하였다.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줬으면 하는데.”

석빈은 유라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매섭게 노려볼 뿐이었다. 석빈이 마지막 공격이라고 생각했는지 무섭게 돌진해 오자 유라는 그의 어깨를 짚고 무릎치기로 명치 쪽을 찍었다. 그러나 무릎치기한 방으로 명치를 정확히 명증시키지 못했는지 석빈은 그대로 차유라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이성을 잃은 석빈은 이미 유도 기술이고 뭐고 신경 쓰지 않았다. 키는 석빈이 쪽이 크다. 유라의 몸이 들리면서 유라는 괴로움에 몸부림을 쳤다. 석빈의 손을 붙잡고 어떻게 풀어보려 했으나 유도부의 손아귀 악력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 곧 유라의 몸부림은 잦아들더니 결국 멈추어졌다. 그러나 아직 유라는 의식을 잃은 게 아니었다.

“경화를 다치게 하다니……!”

이성을 잃은 석빈은 정말로 유라를 교살(絞殺)해버릴 기세였다.

유라는 손을 등 뒤로 가져가 무언가를 꺼냈다.

석빈이 유라가 등 뒤에서 꺼낸 물건을 알아차렸을 때는 너무 늦었다.

유라는 그대로 메스로 석빈의 왼팔에 박아버렸다.

“끄아아아아————!!!”

석빈은 몸을 움츠리고 메스를 잡았다. 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목을 잠시 어루만지고는 석빈에게 경고했다.

“지금 빼면 힘줄이 심하게 상할 걸. 동맥은 피했어. 아무튼 병원 가서 빼.”

유라는 그렇게 차분하게 말하고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며 일어섰다. 메스가 팔의 어느 지점에 박힐지 미리 생각한 것 같은 말투다.

“너…! 이……! 젠장, 빌어먹을!!”

석빈은 메스를 뽑는 것을 단념하고 아직은 쓸 수 있는 오른팔로 유라를 잡으려 했으나 고통으로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아무리 석빈이 유도부 부장이라고는 하지만 유라처럼 죽음과 생존의 문턱을 넘나들며 싸워온 사람이 아니었다. 당연히 유라가 행한 만큼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유라는 몸을 살짝 옆으로 틀어 석빈의 잡기 기술을 피하고 오히려 그를 붙잡아 복부에 무릎으로 가격했다.



석빈은 속이 뒤집힐 것 같은 공격을 받고도 무릎을 꿇지 않고 버티며 서 있었으나, 유라는 석빈에게 공격 타이밍을 주지 않았다. 유라는 중심선을 잡고 발로 석빈을 걷어차 벽에 몰아붙이고————

“……Over hit————!!!”

연이어서 영춘권 유단자가 할 수 있는 빠른 연속적인 주먹 공격을 석빈의 상체에 퍼부었다. 무의식중이라도 팔로 가드를 올리려 하면 그마저도 차단시켰다. 석빈이 정신을 잃을 때까지 때리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하자 유라는 석빈의 얼굴을 붙잡고 반 바퀴 돌려 석빈과 자신이 마주보는 상태가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상태로 전환시킨 다음 바닥에 쓰러뜨려 서로 상하 반전된 얼굴을 다시 마주보게 되었다. 그리고 온 주먹에 힘을 쏟아 석빈의 얼굴에 마지막 타격을 입히려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 이상 때리면 이 녀석은 죽는다…….’

한 순간 이성을 되찾고 생각했다.

유라는 석빈의 반쯤 감긴 눈에서 이미 석빈이 싸울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다.

유라는 석빈의 얼굴을 놓았다.

“미안하게 되었다.”

유라는 복도에 피범벅이 되어 대(大)자로 뺨어버린 석빈을 향해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준구가 있는 양호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 6.1

살인자는 스코프에 비친 목격자, 그림자, 그리고 사냥꾼을 보았다. 능선에서 조준한 것 치고는 각도가 좋지 않았다. 하지만 시야가 트인 곳을 찾다 보니 저격할 수 있는 곳이 여기뿐이었다. 목격자는 살인자가 사냥꾼을 저격할 것임을 전혀 모르고 있는 모양이었다. 사냥꾼을 죽이기 전에 목격자부터 죽여야 할 판이었다.

살인자는 가볍게 방아쇠에 손가락을 얹었다. 하지만 스코프에 비친 둘의 모습에 살인자는 평정이 깨질 뻔했다. 사냥꾼이 목격자를 향해 총구를 겨눴기 때문이다.

저격총을 아주 미세하게 낮춰 목격자의 머리를 겨누었다. 이참에 아예 목격자도 죽이고 사냥꾼도 죽여버릴 작정이었다. 숨을 고르고 총을 쏘려고 할 때, 먼 하늘에서 들리는 헬기 소리로 이미 목격자의 머리를 정확하게 쏘는 게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는 몸통을 맞추려고 했다.

스포츠라이트가 켜지자 살인자는 지체없이 난간을 향해 뛰어가는 목격자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거침없이 사방을 활휘는 총성이 울려 퍼졌다.

그러나 총알이 날아가는 도중에 헬기에서 돌아가는 프로펠러에 의해 형성된 작위적인 바람의 영향을 받아, 총알은 목격자의 팔을 관통하는데 그쳤고 목격자는 옥상에서 떨어졌다.

살인자는 뒤이어 사냥꾼을 저격하려고 스코프를 옮겼다. 그림자는 옥상 난간벽에 몸을 기대어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사냥꾼은 옥상 문을 열고 건물로 들어갔다.

‘놓친 건가…….’

살인자는 스코프로 옥상의 동태를 지켜보았는데, 어느새 수갑을 풀고 옥상 어딘가에 숨겨놓은 저격총으로 자신을 겨누는 그림자를 발견하였다.

살인자는 야산의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는 자신을 그림자가 절대 저격하지 못할 거란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더구나 자신은 야산에 완벽하게 동화된 차림새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령 누가 살인자 근처를 지나가도 못 알아차릴 거란 확신을 갖고 있었다.

살인자는 태양관에 고개를 내민 그림자의 이마를 정조준하고 한 방 쏘았다. 그림자는 풀썩 쓰러지고 더 이상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 6.1.2

옥상에서 겨우 불과 몇 십 미터 이동하는 게 이토록 힘든 일일 줄은 예상치 못하였다. 하지만 이제 모든 복병은 제거되거나 차단되었다. 차유라는 양호실 문을 열고, “…빙고.”라고 힘없이 말하고는 속 들어왔다. 흰 와이셔츠에 오른팔 소매를 잔뜩 걷어 올린 상태로 총상을 입은 자리에 붕대를 감은 준구는 병상에 걸터앉아 있었다.

유라의 등장에 수진은 잔뜩 긴장했다. 여기서 유라를 맨손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준구는 별로 긴장하지 않고 무덤덤한 상태로 병상에서 일어났다.

“총알은 빼냈냐? 관통했어?”

“…….”

유라는 양호실에 들어오자 양호실의 문을 닫았다. 정적이 감싸는 양호실에 네 사람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준구였다.

“결국 이만큼이나 왔네.” 준구는 유라를 쳐다보지 않은 채로 말했다.

“그러게.”

“...너 기억 나냐? 내가 너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날 수야 있다. 그 땐 내 생각이 짧아서 너를 비웃었는데.”

“사실 혜원이한테서 몇 마디 들었을 땐, 널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어.”

“결국... 실비아와 손을 잡았네.”

“네 행동은 결국 무고한 석준이에게 해를 끼쳤어. 그 대가만 치르게 할 거야.”

“인생이란 원래 이런 걸까…….”

유라는 준구를 뒤에서 껴안았다. 수진이 옥하는 마음에 뭐라 한 마디 할 기세였으나 준구가 수진에게 손짓으로 제지하였다.

어차피 이긴 게임이다. 하지만 마무리 지어야 할 말이 있었다.

“한 가지 제안할 것이 있어.”

“...뭘데?”

“나와 사법 거래를 하자.”

“사법 거래?”

“난 네 범행에 대한 유일한 목격자야. 널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어. 철수를 설득해서 석준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줘.”

“거래에 응하면?”

“너는 살인죄로 기소되는 게 아니라 학우를 폭행한 정도의 가벼운 죄목으로 처벌받게 되겠지.”

유라는 준구의 말에 헛웃음을 지었다.

“이러나저러나 징역이네.”

“그렇다고 봐야지. 사형보단 낫잖아?”

“수학여행 때 콧 죽일 걸 그랬나? 그럼 이런 일도 없을 거잖아.”

“그럴 지도 모르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여기 있는 수진이, 철수, 너와 아까 싸웠던 경화, 석빈이... 모두 소중한 친구들이잖아. 친구는 친구가 나쁜 길로 들어설 때, 함께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길로 나오라고 손을 내미는 존재인 거야. 학기 초에 자기소개 시간 기억나?”

“그래……, 네 소개가 참으로 인상적이었지.”

유라는 그 시절을 회상해보았다.

—이 마지막 중학생 시절이 부질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 기억 나.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서로 즐거웠던 추억을 아로새길 수 있는 친한 사이가 되었으면 좋

했습니다.

“너는 여전히 내게 소중한 인연이야. 너를 학급 일에 유난히 진지했던 아이로 평생 기억하게 될 거야. 아마 이 중학생 마지막 1년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을 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여러분들은 모두 저에게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래.”

마침내 양호실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군인이 들어왔다. 마스크를 쓰고 완전무장을 한 그는 유라의 뒤통수에 소총을 겨누었지만, 곧 그만 두었다.

유라는 준구를 더 이상 껴안지 않았다.

“All of them are ensured. Repeat, all of them are ensured. Code Zero.”

군인은 무전기로 전 대원에게 작전 마무리를 알렸다.

준구와 수진은 이제 유라가 군인에게 연행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 동안 신설사에서 벌어진 일련의 모든 연쇄 살인 사건은, 이렇게 종료될 것이라…….

“아무튼 준구야, 고마워.”

준구는 유라가 큰 뜻 없이 내뱉은 말인 줄로 생각하였다.

“네가 이런 일을 벌인 것도, 전부 나를 친구로 생각했기에 그런 거야.”

곧이어 유라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서 군인에게서 무전기를 건네받았다.

“모두 **마무리** 들어갑시다!”

수진과 준구는 얼이 빠져 나가는 듯하였다. 급격한 사태의 변화에 현실을 얼른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군인과 유라가 한 패였나? 이 군인들은 실비아가 불러들인 자들 아닌가? 잡히는 건 자신들인가?

“조금 혼란스러운 듯 보이네. 준구야, 네게 이용가치가 있다고 했었지. 그 이용가치가 이거야. 단지 내 가방을 들어주는 정도의 이용가치가 아니었어. 그리고 네 팔에 총알을 박은 건 내가 아니야.”

“그럼……”

준구는 아직도 사태 변화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하하, 미안. 하지만 네가 속아줘야 가능했던 거라서.”

철수가 머리를 굽적이며 군인 뒤에서 나타나 유라를 대신해서 사과했다. 철수의 다리에서는 피가 줄줄 흐른 흔적이 있었고, 하얀 가루가

피와 엉켜 떡이 저 있었다.

유라는 무전기를 군인에게 되돌려 주고는 입을 뗐다.

“사실을 말하자면……”

## 6.2

살인자는 선불리 야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앞 상태에서 일어나지조차 않았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자신 쪽을 향해 걸어오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무래도 열 탐지경이라도 달았는지 거침없이 다가왔다.

상대는 자리에 멈춰선 것인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살인자는 직감적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상대가 겨누고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길 것이란 걸 알아차렸다.

살인자는 눈을 질끈 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신의 발에는 줄이 묶여 있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면 조명 지뢰가 터지게끔 되어 있었다. 더구나 조명 지뢰끼리 선으로 이어져 있어 살인자가 제자리에서 일어남과 동시에 연쇄적으로 조명 지뢰가 터졌다.

살인자는 상대를 쏘려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하산하였다. 상대는 갑자기 터진 조명 지뢰 때문에 살인자를 추적하지 못하고 나무 뒤에 은신했다.

조명지뢰에 의한 빛이 점차 잦아들기 시작할 때 즈음, 살인자는 숲속 은신처에 대기시켜둔 차량에 도착하였다. 거칠게 자신이 쥔 저격총을 뒷좌석에 던져놓고, 실비아는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여길 이탈한다.”

운전병이 시동을 걸고 출발하자 살인자는 뒤를 쳐다보았다. 멀찌감치서 환한 빛 속에 둘러싸인 한 여자아이가 앉아봐 자세로 총구를 자신들을 향해 겨누고 있었다.

“지그재그로 이동해!”

살인자가 핸들을 쥐어 이동 방향을 바꾸려 했지만, 총성과 함께 운전병은 고개를 푹 숙여버렸고, 차량 유리에는 피가 흩뿌려졌다. 얼마도주하지 못한 차량은 나무에 처박히고는 경사로를 구르더니 계곡에 전복되고서야 정지하였다.

운전병을 사살한 잠입자는 살인자마저 사살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면서 연막탄이 나와 연기가 삼시간에 계곡을 메웠다.

잠입자는 하는 수 없이 무전기를 켜고 동료들에게 알렸다.

“이쪽은 얼어버린 바람. 운전병 오재식 상병을 사살, 실비아 소령은 도주했습니다. 상황 종료를 알립니다.”

잠입자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계곡을 쳐다보다가 무전기를 바닥에 내팽겨치고 나무를 발로 퍽퍽 찼다.

안개가 걷힌 계곡에는 뒤집어진 차량과 시체 한 구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을 뿐이었다.

#### 6.2.1 2037년 9월 12일. 토요일.

준구는 시내의 병원에 찾아갔다. 병원에는 조석빈과 현경화가 치료를 받고 있었다. 사실 준구도 팔에 총상을 입었기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당시의 응급 처치가 꽤 괜찮은 편이라서 의사는 붓대만 두르고 건드리지 말라고만 주의를 준 게 전부였다.

준구가 총상을 입었다고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다. 물론 아버지인 김하준은 물론이고, 간호사도, 석빈도, 그리고 경화도 준구의 총상을 모른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서 들어간 병실에는 조석빈과 현경화 외에도 다른 환자들이 몇 명 더 있었다. 준구가 문을 열고 들어온 소리에 석빈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왼팔에 붓대를 감은 석빈을 향해 나직이 말했다.

“팔은 괜찮아?”

석빈은 준구를 쳐다보지 않고, 계속 누워있는 경화의 손을 만지고 있었다.

“정말 미안.”

석빈은 준구 쪽을 쳐다보지 않았지만, 준구는 고개 숙여 사죄하였다.

“왼팔에 힘이 안 들어가.”

“내가 어리석었어.”

석빈은 준구를 향해 돌아보며 씩 한 번 웃었다. 눈 옆은 찢어진 모양인지 몇 바늘 꿰매서 반창고를 붙이고, 코에 반창고를 붙인 게 인상적이었다. 왼쪽 입가도 찢어져서 반창고를 붙였다. 얼굴을 골고루 맞았다는 것을 석빈의 전체적으로 부은 얼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내가 하자고 해서 벌어진 일이잖아. 오히려 고마워. 네 덕분인지 난생 처음으로 경화 손을 잡게 되었어. 이렇게 경화가 누워 있는 게 가슴 아프지만……”

“석빈아, 경화 지금 실눈 뜨고 너 쳐다보는데?”

준구의 말에 석빈은 놀라서 얼른 손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탄성을 피웠다. 경화는 몸을 일으키며 준구에게 말했다.

“아, 김준구! 꼭 그렇게 말로 해야 했어?”

“아, 미안. 몸은 좀 어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데, 주치의는 머리에 외상 같은 건 입지 않았대. 혹시 돌팔이 아닐까? 꼭 자고 나니 어제보단 낫네.”

사실 총상 입은 준구도 의사에게서 ‘젊으니까 괜찮다’는 말을 방금 듣고 오는 길이었다. 그러나 준구는 진짜 총상을 입었고, 경화는 단지 기절할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게 전부였다.

“저기, 경화야. 어제는 내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경화는 석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자 푹, 하고는 웃어 버렸다. 준구도 웃기 시작했다. 병원 안의 사람들이 쳐다보자 간호사가 주의를 줬다.

“학생들, 다른 환자도 있으니까 웃으려면 밖에 나가서 웃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준구가 대신 사과했다.

“그런데 차유라, 개는 어떻게 되었어?”

“뭘, 알다시피 함께 졸업하는 거지.”

“난 아직도 헛갈려. 결국 우린 모르는 사이에 악과 손을 잡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석빈의 말에는 준구도 공감하였다.

“그나저나 유라가 말한 진실은 대체 뭐야?”

“유라가 말한 진실은 내가 말해주지.”

준구의 뒤에서 수진이 등장하며 말했다. 이 병실에서 서수진만이 유일하게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고 멀쩡하였다.

“우선 차유라는 비밀 결사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야. 다극화 추진 위원회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현재 두 세력으로 양분되어 있어. 유라는 매파에 속하고, 실비아는 비둘기파에 속하지. 유라는 매파의 기밀 정보를 노리던 자들을 제거하고, 보호 대상을 지키는 역할이야.”

“그럼 유라가 죽였던 인물들은?”

“다양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있어서 한 마디로 정리가 안 되지만, 굳이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비둘기파의 사람들이야. 비둘기파는 유예된 전쟁을 앞당기려는 자들이고, 매파는 전쟁을 끊임없이 유예시키는 자들이지. 유예된 전쟁은 언젠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파가 하는 건 시간을 끄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에 대비하도록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어. 기밀 정보는 거기에 관한 것이지. 난 위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해한 건 여기까지야. 나머진 차유라 본인에게 물어봐. 아, 그리고 석빈아. 네 동생은 어제 집에 돌아왔어.”

“다행이야…….”

“참, 나 학교 기물 몇 개 파손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었어?”

경화의 질문에 수진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걸 수습해 주려고 군인이 출동했던 거래.”

모두들 사태가 무사히 마무리 되어서 일단은 좋아하고 있었지만, 석빈을 제외한 셋은 공권력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비밀 결사단체가 앞으로 무슨 일을 벌일지, 이 나라에 어떤 음모가 또 판을 치게 될 것인지 걱정이 싹텄다.

“그런데… 유라는 우리와 싸우는 사이에 군인들의 진로를 방해했거든. 그건 왜 그랬대?”

“군인들 중 일부가 비둘기파의 편에서 싸웠기 때문이지. 유라가 진로를 방해하는데도 굳이 유라를 잡으려… 아니, 죽이려 온 것이기에 유라는 일단 아군과 적군의 구분을 위해서 진로를 차단하는 선에서 그친 거래.”

“그나저나 잘도 술술 붙어줬구나. 나한테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인 것처럼 말하더니……. 졸업까지 어떻게 지내지?”

“그야, 친구라 그랬으니까. 졸업까지 평소처럼 지내면 되지.”

경화는 손으로 턱을 괴며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인정할 수 없군.” 경화는 팔짱을 끼며 말했다.

“친구로 지내자는 게?”

“그렇게나 큰 소동을 일으켰는데, 아무 것도 없던 듯이 마무리되는 상황도 납득하기 어렵고,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생각한 사람과 다시 친구로 지내야 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건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창출해낸 집단이지. 이런 집단이 비밀스러운 힘을 휘두르게 되면 국가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지.” 다들 함부로 지적하기 어려운 부분을 경화가 꼬집어 말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당장은 그렇지. 하지만 저항하지 않으면 부당한 체계는 지속된다. 사슬로 연결된 교묘한 압제에도 굴복하지 않으면 사슬을 끊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사슬을 끊을 비책을 찾아야지. 그래서 특별히 너에게만 말해두는데,” 경화는 그리 말하며 준구에게 손짓을 하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경화는 준구의 귓가에 자신의 계획을 말하였다. “유라가 가입한 그 이상한 단체에 들어갈 방법을 찾아서 내부의 상황을 알아낼 거야. 그런 다음에 외부에 폭로를 하든지 주요 인사들을 찾아내서 이 단체를 와해시키도록 할 거야. 너도 도울 거지?”

“글쎄. 네가 생각하는 바가 옳다면 돕는 게 당연하겠지만, 나도 수진



이도 그 단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려고 해.”

“그러면 아주 큰 사태가 일어난 뒤야. 아마 우리가 상상도 못할… 아니, 상상은 해보겠지만 **절마 일어나겠냐** **싫은 사태**겠지. 너는 순전히 방관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

“미안. 들어보니 우리 아버지께서도 이 단체와 질긴 인연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이지.”

“그래……? 알았어, 그만 가 봐.”

경화는 준구에게 괜한 기대를 했던 듯이 한숨을 쉬었다. 준구는 경화의 모습을 뒤로 한 채 수진과 함께 병원에서 나갔다.

## Epilogue

*No, I do not think it can.*

- Joseph Alois Schumpeter

더 이상 흥흥한 소문은 나돌지 않았다.

실비아는 결국 붙잡히지 않았지만, 당장 큰 위협을 가할 수는 없는 모양이었다.

유라도 철수도 혜원수도 자취를 감추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석빈이는 경화와 가까워지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지만, 정작 경화의 관심사는 비밀 결사 단체였다.

준구는 부친인 하준에게 여러 가지로 위원회에 대해 물어보려고 하였지만, 하준은 자신이 답해줄 만한 질문이 아니라고 말했기에, 부자 시간에 또 한 차례 싸웠지만 그대로 넘어갔다.

수진이는 문예부 부장으로서 자신이 가진 통솔력을 모두 발휘하여 제 시간에 교지를 발간해냈다. 가장 고생한 것은 준구였다.

석준이는 이전보다 더 과묵하고 신중해졌지만, 과민반응을 하는 일도 간혹 있었다. 또 머리가 번잡할 때마다 문장을 지은 탓에 글씨가 한층 더 빼어나게 되었다. 교지의 표지 제목을 적은 것은 석준이었다.

성한이는 살을 뺐다가 요요현상을 일으켜 다시 살이 찌고는, 겨울엔 지방이 있어야 따뜻하다며 애써 자신의 체중을 정당화하였다.

한동안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자 차츰 다들 평범한 일상에 적응하였다.

12월 중순이 되어 고등학교 진학 희망자들은 여름 방학 때 치른 1차 시험 결과를 통보받게 되었다. 준구는 다행스럽게도 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

여유롭고 한가한 겨울 방학마저 지나갔다. 그리고 어느덧 졸업식이 되었다.

체육관에서 졸업식이 진행되었다. 교장의 송별사는 입학식 때의 환영사처럼 짧지만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3학년 1반 아이들이 한 명씩 자신의 졸업 증명서를 받아가면서 이백향에게 자필로 쓴 편지를 건넸다. 다양한 인간 군상만큼 다양한 편지 봉투가 전해졌다. 3학년 1반에선 마지막으로 남철수가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롤링 페이퍼를 편지와 함께 백향에게 건네주었다. 백향의 품에는 제자들의 편지가 가득했다.

체육관에서의 졸업식이 끝나자 다들 교실로 돌아갔다.

3학년 1반에 모인 반 아이들이 각자 자리에 앉자, 반장인 남철수도 제자리로 돌아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전원 기상!”

모두들 조용히 의자를 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학생들 모두 이백향을 주목하였다.

“전원 차렷! 선생님께 대하여 최대한의 경의를 담아서 경례!!”

“그동안 전력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그녀를 향해서 허리 숙여 인사하였다. 그녀도 학생들을 향해서 허리를 숙였다.

“모두들, 잘 따라와 줘서 너무나도 고맙다.”

교실에 있는 모든 이들이 동시에 허리를 폈다.

“그럼 졸업식 마지막 종례를 시작하겠다, 제군. 나는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너희들은 훌륭한 제자들이다. 졸업은 끝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출발이기도 하단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너희 모두에게 축복이 있길 빈다. 그럼...”

마지막 종례가 끝나고 백향이 먼저 교실에서 퇴장하자 학생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졸업장을 받고 미친 듯이 좋아하는 남철수가 있는가 하면 헤어지는 게 아쉬워 한숨을 쉬는 이성찬도 있었다. 그 외에도 각자의 미래를 구상하며 재잘거리면서 교실을 나갔다. 복도에서 부모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박혜원이 있는가 하면 체육관을 아련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현경화도 있었다.

“이제 우리도 나가지.”

김준구가 차유라를 보고 말했다.

“무사히 졸업하게 되었네. 할 말 없어?”

유라는 웃고 있었지만 그 모습에서 준구는 씩씩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다.

준구도 유라도 부모가 졸업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너를 붙잡으면 정의로운 일이 되는 걸까. 너를 놓아주는 게 정의로운 일인 걸까. 그 날 이후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너답지 않게 왜 그래? 평소처럼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너도 평소처럼 행동할 거야?”

“난 이게 평소처럼인데.”

“그래? 그럼 앞으로 너와는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될지 나도 장담 못하겠는걸. 하지만 조만간 또 볼 거 같아.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었던 사람은 네가 처음이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농락당하지 않을 거야.”

“친구란 놈이 한단 소리가…….”

유라는 가볍게 웃고는, 창가 쪽으로 가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열려 있는 창문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유라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것인지,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이 날리고 있었다.

“세상에 정의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어. 그러니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야. 다음에 또 봐.”

그것이 준구와 유라의 중학생 시절의 마지막 대화가 되었다.

(제 1권 끝)